

嶺南文化財研究

22

2009

財團
法人 嶺南文化財研究院

〈표지原字〉

朝鮮 中宗 壬申刊本 『三國史記』에서 集字

嶺南文化財研究

第 22 輯

2009

주제논문 :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조사 현황	한도식	5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	이재홍	43
경주 황성동 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	金羅英	67
경주 황성동유적 製鐵文化에 대한 연구	김권일	91
原三國~三國時代 鐵器 副葬樣相으로 본 隍城洞 集團의 性格	우병철	129
경주 황성동유적 와질토기에 관한 一考	이제동	151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175

연구논문

慶山 林堂地域 古墳의 大壺 副葬과 그 意味	張容碩 · 金大郁	237
-------------------------------	-----------------	-----

자료소개

출토 水浸木器의 보존처리	이현혜	257
문경 호계리 고분군 현황 조사 보고	오동욱	283

유적조사보고

대구 죽곡리 고려시대 경작유적 조사 개보	박헌민 · 이재광 · 김지영	299
경산 서부리 451번지유적 조사 개보	김성태 · 최한태	313

부록

『嶺南文化財研究』 총목차

『嶺南文化財研究』 집필요령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조사 현황

한도식*

〈 목 차 〉

I . 머리말	2. 원삼국시대 생산·생활유적
II . 경주 황성동 일대의 유적조사 경과	IV .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1. 유적현황	1. 연구성과
2. 발굴조사현황	2. 연구과제
III .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유적조사의 내용	V . 맺음말
1. 원삼국시대 분묘유적	

I . 머리말

경주지역의 원삼국시대 유적은 1980년대에 조양동유적, 구정동유적, 황성동유적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사라리유적, 죽동리유적, 구어리유적과 경주권역의 중산리, 다운동유적과 주변지역의 울산 하대리유적, 포항 옥성리유적, 학천리유적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경주 황성동 일대의 유적은 1975년 2월 5일 최인만이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한 황성동 606번지 출토의 대부장경호 외 9점의 유물이 유적의 존재를 알리는 최초의 근거가 되었다.

황성동 일대 유적의 발굴조사는 1985년 10월 지역주민 배용환의 신고로 전선주 매설공사중에 발견된 매장문화재 출토지를 국립경주박물관이 수습발굴조사한 황성동 583-2번지의 목곽묘 1기의 발굴조사가 최초이다. 1987년 3월 국립경주박물관이 황성동 524-1번지에서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석실분 1기를 발굴조사하여 각종 인물상과 소, 말 등의 토용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87년 10월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가 황성동 907-2번지 일대를 임대아파트 건설부지로 선정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주조철부 용범이 공반되는 철기제작유구를 포함한 생산유적과 주거지 등 생활유적을 확인하였고 89~90년에 걸쳐 본 발굴이 실시되어 원삼국시대의 철기제작 관련 유구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후 경주 황성동 일대가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지난 20여 년간 각종 개발공사전 발굴조사가 수십 차례 실시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발굴조사 현황을 정리하고 원삼국시대 유적의 발굴조사 내용과 그 성과를 정리하였다. 경주 황성동 일대의 원삼국시대 유적은 주지하듯이 분묘유적과 철기제작 관련 생산유적 및 생활유적 등이 발굴조사된 복합유적으로 이에 대한 금번의 종합적 연구와 검토를 통해 신라초기 고대국가 형성기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Ⅱ. 경주 황성동 일대의 유적조사 경과

1. 유적현황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은 경주분지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이는 경주분지의 서쪽에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형산강의 동편 해발 30m정도의 대체로 평탄한 강안 충적지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지형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가면서 약하게 경사져 있다.

황성동 일대는 斯盧六村 가운데 金山加利村으로 비정되기도 하는데 주변의 두드러진 유적으로는 『三國史記』에 기록으로 전하는 傳 金后稷 諫墓가 봉토분으로 남아 있다. 한편 동쪽으로 좀 떨어진 용강동 원지유적도 현재의 행정구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황성동 일대 유적으로 포함시켜도 될 것 같다. 원지유적은 발굴조사에서 호안석축, 인공섬 2개소, 입수로, 물받이시설, 건물지 2개소, 교각시설, 도로, 구 등이 확인되었다.

경주 황성동 일대의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다양한 유적이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은 <표 1>과 같다.

<표 1>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 조사현황표

번호	유 적 명	위치(지번)	부지명(공사명)	조사(유구) 내용	시 대	조사년도	조사기관(출전)
1	매장문화재출토지Ⅰ	606	발견신고	적석목곽묘(?)	삼국	1975	경주유적지도, 1997
2	황성동고분Ⅰ	583-2	전신주 매설공사	목곽묘1	원삼국	1985	국립경주박물관, 1985
3	황성동 석실분	524-1	우주빌라	석실분1	삼국	1987	국립경주박물관, 1993
4	황성동 유적	907-2 일대	주공 2차	원삼국주거지19, 용해로9, 단야로6, 폐기장2, 수혈5, 적석유구1 청동기주거지14, 원삼국주거지9, 단야로3, 요지2, 우물1, 옹관묘1, 석곽묘1, 수혈, 소토유구, 석렬유구 청동기주거지9, 원삼국주거지19, 폐기장1, 용법폐기장1, 저탄장1, 옹관묘1, 화덕유구1 원삼국주거지1, 용해로1, 방형유구1, 우물, 도로 청동기주거지12, 수혈6, 토광묘1, 구상수혈1, 수혈5, 적석유구1	원삼국~삼국 청동기~통일신라 청동기~통일신라 청동기	1989~1990	국립경주박물관, 2000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계명대학교박물관, 2000
5	매장문화재출토지Ⅱ	521	현대 1차	유물포함층	삼국	199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2
6	철기제작관련유적Ⅰ	886-5	단독주택	철기제작유구	원삼국	1991	국립경주박물관
7	황성동고분Ⅱ	513-3	신흥로얄1차	목관묘1, 목곽묘2	원삼국	1993	국립경주박물관, 2002
8	황성동고분Ⅲ	545	신흥로얄2차	목곽묘(목관계목곽 포함)53, 옹관묘13	원삼국	1994	국립경주박물관, 2002 동국대, 2002 경주대, 2003
9	황성동고분Ⅳ	601-2	단독주택	목곽묘2, 옹관묘1	삼국	199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5
10	황성동 철기제작관련유적Ⅱ	524-9	단독주택	용해로1	원삼국	1996	국립경주박물관, 1999
11	황성동신석기시대유적	267 일대	현대 5차	유물포함층	신석기	1996	동국대학교, 2002

번호	유 적 명	위치(지번)	부지명(공사명)	조사(유구) 내용	시 대	조사년도	조사기관(출전)
12	황성동고분 V	634-1 일대	제일아파트	목관묘7, 목곽묘7, 토광묘10, 옹관묘5, 제사유구, 불명유구3	원삼국~ 삼국	199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8
13	전 김후직간묘	471	경상북도 기념물 31호	석실분(?)	삼국	1997	경주유적지도, 1997
14	용강동 원지유적	용강동 1181-1 일원	현지보존 (사적 419호)	원지, 도로, 건물지	통일신라	1998~ 1999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15	제철관련유적 III	537-2	대흥임대주택	옹해로7, 단야로6, 폐기장6, 석관묘1, 토광묘4, 석실묘4, 도로	청동기~ 삼국	199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16	제철관련유적 IV	537-4	근린생활시설	옹해로1	원삼국	20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17	황성동535-8유적	535-8	단독주택	옹해로1, 석실분1, 도로, 석렬유구, 수혈	원삼국~ 통일신라	20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18	황성동537-1·10유적	537-1· 10	단독주택	적석목곽묘9, 토광묘7, 불명유구2	삼국	20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19	강변로(3-A공구) 유적	884-8일대	강변로개설 (3-A공구)	청동기주거지9, 야외노지1, 집석노 3, 목관묘4, 목곽묘20, 적석목곽묘 25, 석곽묘17, 석실묘2, 옹관묘16, 단야로12, 옹해로1, 제철폐기장2, 수혈, 주혈, 도로	청동기~ 통일신라	2000~ 200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20	황성동950-1·7유적	950-1·7	다세대주택	청동기주거지3, 수혈2, 구상유구3, 도로	청동기~ 통일신라	200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21	황성동535-5유적	535-5	다세대주택	수혈3	원삼국	200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22	황성동886-1유적	886-1	세잔아파트	옹해로3, 추정옹해로1, 단야로1, 폐기장2, 소형수혈14, 구상유구3, 부석유구1	원삼국~ 삼국	200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23	황성동석실분	906-2·5	현지보존 (사적 476호)	석실분	통일신라	200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24	황성동949-1유적	949-1	다세대주택	청동기주거지1, 도로유구	청동기~ 통일신라	2006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5	황성동887-8유적	887-8	다세대주택	옹해로2	원삼국~ 삼국	2006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26	황성동899-8유적	899-8	다세대주택	청동기주거지2	청동기	2006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27	황성동881-1유적	881-1	단독주택	적석목곽묘6, 석곽묘3, 옹관묘1, 구상유구1	삼국	2007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8	황성동535-18유적	535-18	단독주택	도로유구	삼국	200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9	황성동 공동주택부지	575	아파트	석관묘1, 목관묘16, 목곽묘74, 옹 관묘37, 석곽묘7, 석실묘4, 수혈유 구2, 의례유구3, 지진구3, 건물지1	청동기~ 통일신라	2007	영남문화재연구원
30	황성동 공동주택부지 (시굴조사)	590	아파트	목(관)곽묘198, 적석목곽(석곽)묘 340, 옹관묘23, 석실묘55, 제철유 구10, 수혈유구, 도로 등	청동기~ 통일신라	2007~8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경문화재연구원
31	황성동 928-17 유적	928-17	단독주택	청동기주거지1	청동기	200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2	황성동 324-1유적	324-1	아파트	옹관묘1, 우물4, 수혈2, 집석유구1, 담장1	통일신라	2008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 발굴조사현황

황성동 일대의 유적은 1985년 10월 국립경주박물관이 조사한 매장문화재 출토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발굴조사된 총 32개소가 있다. 발굴조사는 모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전 구제발굴조사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장보존, 조치된 유적은 2곳이다.

경주 황성동 일대의 선사시대 유적은 신석기시대의 토기 등 유물이 출토된 문화층 유적 1개소와 청동기시대 석관묘가 확인된 분묘유적과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이 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 등의 분묘유적, 주거지가 대부분인 생활유적, 철기제작과 관련된 생산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특히 철기제작유구인 생산유적은 주조철부용범이 공반된 용해로와 단야로, 철기생산 관련 폐기장 등의 철기제작과 관련된 일련의 공정을 알 수 있는 유구들이 조사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삼국시대 유적은 적석목곽묘와 석곽묘, 옹관묘 등의 분묘유적이 조사되었고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분묘유적인 석실묘와 생활유적으로 용강동 원지유적과 도로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1) 신석기시대 유적

황성동 267번지 유적은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최초의 신석기시대 유적인데 다만 유구는 확인되지 않은 유물포함층이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유물은 빗살무늬, 압인문, 침선문 등이 시문된 호형과 심발형 등의 신석기시대 토기가 출토되었다.

2) 청동기시대 유적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생활유적인 주거지와 분묘유적인 석관묘가 조사되었다.

생활유적은 황성동 907-2번지 일대로 황성동유적발굴조사단이 연합으로 조사한 유적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나 지구’에서 14기, 동국대학교가 조사한 ‘라 지구’에서 12기가 조사되었고, 계명대학교에서 조사한 ‘다 지구’에서는 9기가 조사되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발굴조사한 황성동 905-1·7번지 유적에서도 주거지 3기가 조사되었고, 강변로유적의 도로구간에서는 주거지 9기와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야외노지 1기가 조사되었다. 황성동 949-1번지, 899-8번지, 928-17번지 유적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황성동 일대 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이 대부분이다. 주거지 내부의 중앙에 원형의 노지를 가지고 장축방향은 주로 북동-남서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대체로 황성동 유적의 남쪽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가 분포한 범위에서는 분묘 등 다른 성격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묘유적인 석관묘는 황성동 537-2번지 유적과 575번지 유적에서 1기씩 2기가 조사되었다. 황성동 537-2번지 유적의 석관묘는 장방형이며 장축은 북동-남서향으로 판석 1매씩을 네벽과 바닥에 깔아서 조립하였다. 마제석축 6점이 출토되었다.

3) 원삼국시대 유적

원삼국시대 유적은 분묘유적, 생산유적, 생활유적이 각각 군집하여 조성되었고, 시기차이를 두고 이동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묘유적은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가 삼국시대의 적석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등이 각각 분포하고 있다.

목관묘는 황성동 고분Ⅴ 유적 7기, 강변로유적의 도로구간유적 4기, 575번지유적 16기 등 모두 27기가 조사되었고, 590번지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조사가 완료되면 많은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강변로유적의 목관묘는 판재의 판을 사용한 것으로 장단축비 2:1이상인 것과 이하인 것으로 구별된다. 특히 2호 목관묘에서 확인된 판상철부 10점의 부장양상은 주변지역의 유적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부장유물은 주머니호와 단경호, 철검, 철모, 철촉, 철부, 판상철부 등의 토기류와 철기류이다. 황성동 일대 유적 목관묘의 조성시기는 각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 기원 1세기 중반 정도로 편년된다.

목곽묘는 황성동 583-2번지유적에서 1기가 조사된 이후, 513-3번지유적 2기, 545번지유적 53기, 634-1번지유적 7기, 강변로유적 20기, 575번지유적 74기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진행중인 590번지유적 시굴조사에서 200여기의 목곽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성동 590번지 유적의 조사가 완료되면 분묘유적의 전체적인 양상이 확실하게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황성동 유적의 목곽묘는 목관묘의 전통을 잇는 소위 목관계목곽묘와 경주식목곽묘 혹은 동혈주부곽식으로 불리는 세장방형목곽묘가 있다. 목곽묘는 황성동내에서도 주로 북쪽에 밀집되어 조성되어 있는데, 시기에 따라 군을 이루며 입지가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옹관묘는 황성동 907-2번지 일대 2기, 601-2번지유적 1기, 634-1번지유적 5기, 884-8번지 강변로유적 16기, 545번지유적 13기, 575번지유적 37기가 조사되었고 590번지유적에서 23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옹관묘는 목관묘시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목곽묘와 석곽묘가 조성되는 시기에도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변로유적의 도로구간에서 조사된 2기의 옹관묘는 목관묘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유적은 원삼국시대 철기제작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철기제작유구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되었다. 황성동유적조사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황성동 907-2번지일대의 황성동유적에서 ‘라 지구’를 제외한 조사구역 전체에서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었다. 1차 ‘가 지구’ 조사에서는 용해로 8기, 단야로 1기, 폐기장 2기가 확인되었고, ‘가 지구’ 2차 조사에서 단야로 6기가 확인되었다. ‘나 지구’의 1차 조사에서는 탄치장 1기, 단야로 3기가 확인되었고 2차 조사에서는 야외노지 2기가 조사되었다. ‘다 지구’에서는 탄치장 2기와 용범폐기장 1개소, 주거지 내에서 모루돌과 단야와 관련된 노가 확인되었으며, ‘고가수조구역’에서 용해로 1기와 철기제작과 관련된 방형의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황성동 524-9번지유적에서 용해로 1기, 강변로유적에서 단야로 12기, 용해로 1기, 제철과 관계된 폐기장 2기가 조사되었고, 황성동 537-2번지유적에서 용해로 7기, 단야로 6기, 폐기장 6기가 조사되었으며, 537-8번지유적에서 용해로 1기가 조사되었다. 886-1번지유적에서는 용해로 3기, 추정 용해로 1기, 단야로 1기, 폐기장 2기, 소성수혈유구와 제철과 관련된 수혈유구 14기 등 대규모의 철기제작관

런 유구가 조사되었다.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된 철기제작 관련 유구는 분묘구역과 구분되어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원삼국시대 황성동일대에서 생산유적과 분묘유적의 유구 조성구역이 구분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 시기의 철기제작 관련 유구들은 황성동의 남쪽에 조성된 원형 주거지내에서 소규모 단야공방 정도의 규모로 조성되었다가 나중에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방을 확장해 간 것으로 보인다. 철기제작 기술이 좀더 발전된 집단의 철기제작 관련 유적은 그 북쪽 황성동 537-2번지와 907-2번지, 황성동유적의 '가 지구'와 '나 지구'의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었다.

생활유적인 주거지는 모두 47기가 발굴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방형 혹은 말각방형으로 구분된다. 원형주거지는 907-2번지 황성동유적 '다 지구'에서 확인된 반면 방형주거지는 황성동유적 '가 지구'와 '나 지구'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이른 시기의 원형주거지는 대부분 소형(20㎡전후)이며, 주거지의 한쪽 벽면에 치우쳐 노지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일반적 화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강한 열을 받은 상태로 나타나, 철을 달구거나 녹이는 노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원형계의 주거지 내에서는 철재로 보이는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되어 주거지내부에서 간단한 단야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늦은 시기의 방형계 주거지는 내부에 바닥다짐, 벽체 외의 별다른 시설은 보이지 않으나 이른 시기의 원형주거지에 비해 많은 양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4) 삼국시대 유적

경주 황성동 일대의 삼국시대 유적은 분묘유적으로 적석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등이 조사되었다.

적석목곽묘는 황성동 537-1·10번지유적에서 8기, 강변로유적에서 25기 등 모두 33기가 조사되었다. 적석목곽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향이다. 목곽안은 시신이 안치되는 주공간과 부장공간을 따로 설치하였다. 주공간에는 모두 잔자갈을 이용해 시상을 설치하였고 부장공간은 주로 생토면을 이용하였다. 대부분이 부장공간을 서쪽에 마련하였다. 황성동 537-1·10번지 3호 적석목곽묘와 강변로유적 33호 적석목곽묘는 주곽과 부곽을 따로 만들었다. 유물은 토기류가 철기류에 비해 월등히 많다. 강변로유적의 34호 적석목곽묘에서는 금동관이 출토되어 피장자의 신분과 집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석곽묘는 황성동 강변로유적에서 17기가 확인되었다. 동일 분묘역에 적석목곽묘와 같이 조성되었고, 서로 중복관계도 확인되어 피장자간의 성격을 파악하고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5) 통일신라시대 유적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은 석실묘와 원지유적, 도로유구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석실묘는 황성동일대에서 총 10기가 조사되었다. 537-2번지유적 4기, 535-8번지유적 1기, 524-1번지유적에서 1기, 강변로유적에서 2기, 황성동 906-2·5번지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金后稷墓로 전해지는 분묘 1기는 발굴조사되지는 않았으나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석실묘로 추정하고 있다. 황성동 906-2·5번지 석실분은 2005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조사하여 봉분과 연도 등 석실분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발굴조사 후 현장 보존 조치되고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76호)로 지정되었으나 복원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도로유구는 황성동 907-2번지일대 황성동유적의 ‘가 지구’ 고가수조설치구역과 황성동 537-2번지, 강변로유적, 535-8번지유적, 950-1번지유적 등에서 확인되어 왕경내의 도로유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확인되었다.

원지유적은 용강동 1181-1번지 일원의 용강초등학교 신축예정부지 발굴조사에서 호안석축을 갖춘 연못과 건물지 등의 유구와 귀면와 등 유물이 출토되어 조사 당시에는 제2안압지라 부르기도 하였다. 원지유적은 이 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복원, 정비 등 추가적인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Ⅲ.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유적조사의 내용

1. 원삼국시대 분묘유적

경주 황성동 일대의 원삼국시대 분묘유적은 목관묘와 목곽묘가 묘역을 다소 달리하면서 조성되고 옹관묘는 각각의 묘제와 동일시기에 같은 묘역 내에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구는 동일묘제의 경우 조성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중복되거나 선행유구를 파괴하고 조성한 것은 거의 없다.

황성동 일대 분묘유적의 대부분은 철기제작관련 유적의 북쪽에서 확인되었다. 그 중 목관묘가 조사된 황성동 884-8번지 일대 강변로(3-A공구)유적의 도로개설구간에서 확인된 유구는 생산유적인 철기제작관련 유적을 사이에 두고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황성동 583-2번지의 황성동고분Ⅰ, 513-3번지의 황성동고분Ⅱ, 황성동 545번지 황성동고분Ⅲ유적과 황성동 575번지 일원과 590번지 일원의 공동주택부지의 고분군은 황성동 유적을 대표할 수 있는 분묘유적으로 개발사업의 주체가 각각 달라 각각의 발굴조사가 각기 다른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지만 공동묘역의 범위안에 조성된 유적이다. 황성동 634-1번지 황성동고분Ⅴ유적은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중 가장 북쪽에서 확인되었다.

1) 목관묘

황성동 일대의 목관묘는 현재까지 4개 유적에서 모두 32기가 발굴조사되었다.

황성동 884-8번지 일대 강변로(3-A공구)유적의 도로개설구간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공사범위 내의 한정된 공간에서 나온 유구만 4기이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판재의 목관을 안치하고, 묘광을 흙으로 모두 충진하였다. 그 중 2호 목관묘는 30cm 정도 크기의 넷돌로 목관을

〈표 2〉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분묘유적 현황표

번호	유 적 명	유구와 특징	출토유물	비고
2	황성동고분Ⅰ (583-2번지)	목곽묘(1)	단경호, 대부호, 노형토기, 고배	국립경주박물관
7	황성동고분Ⅱ (513-3번지)	목관묘(1), 목곽묘(2)	연질소호, 철검, 철모, 철촉, 철부, 철검	국립경주박물관
8	황성동고분Ⅲ (545번지)	목관묘(2), 목곽묘(51), 옹관묘(11)	단경호, 대부호, 양이부호, 철모, 철촉, 철부, 철검, 도자	국립경주박물관 동국대·경주대
12	황성동고분Ⅴ (634-1번지 일대)	목곽묘(9), 옹관묘(5)	노형토기, 단경호, 대부장경호, 철부, 철검, 철촉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	강변로(3-A공구)유적 (884-8번지일대)	목관묘(4), 목곽묘(20), 옹관묘(16)	유개대부호, 대부장경호, 노형토기, 직구호, 관상철부, 철촉, 단조철부, 주조철부, 철검, 철모, 철검, 경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9	황성동 공동주택부지 (575번지 일원)	목관묘(16), 목곽묘(74), 옹관묘(37)	청동검파부철검, 팔찌, 유개대부직구호, 주머니호, 단경호, 부엉이모양토기, 오리모양토기, 철부, 철검, 무경식철촉, 유리제환옥, 곡옥, 다면옥	영남문화재연구원
30	황성동 공동주택부지 (590번지 일원)	목(관)곽묘(198), 적석목곽(석곽)묘(340), 옹관묘(23), 석실묘(55)	시굴조사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경문화재연구원

보강하고 사질점토로 충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목관상부에 토기류와 철기류, 보강토 안에는 철촉 등의 철기류, 목관 내는 철검 등의 철기류와 장신구가 부장되었다. 2호 목관묘에서는 목관 내에 관상철부 10매중 바닥에 6매를 깔고, 네 모서리에 각 1매씩 4매를 세워 부장한 것이 확인되었다.

황성동 513-3번지 황성동고분Ⅱ, 545번지 황성동고분Ⅲ, 575번지 일원 공동주택부지 내 유적과 590번지 일원 등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목관묘는 모두 32기이나 황성동 590번지 일원의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것들이 발굴조사되면 그 수는 훨씬 많고 분포 범위도 넓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영남문화재연구원이 황성동 575번지 일원의 유적에서 조사한 목관묘의 경우 관내부에서는 철검, 철부, 철검, 철촉 등의 철기류와 유리제경식이 출토되었으며, 장벽 또는 단벽의 충전토 상면에서 주머니호, 우각형파수부호, 소옹 등의 토기류와 철촉, 철모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6호목관묘 관내에서 청동검파부철검이 출토되었고, 15호목관묘에서는 청동팔찌 2점이 출토되었다. 주머니호는 동최대경이 하위에 위치하며, 구연이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단경호는 구연부가 외경하는 형태로 초기 단경호의 요소를 가진다.

2) 목곽묘

황성동 일대의 원삼국시대 목곽묘는 현재까지 7개소에서 모두 157기가 발굴조사되었다.

목곽묘가 가장 많이 확인된 황성동 513-3번지 황성동고분Ⅱ, 545번지 황성동고분Ⅲ, 575번지 일원 공동주택부지 내 유적과 590번지 일원 등의 유적에서 확인된 밀집된 목곽묘는 주체부의 구조와 규모, 평면형태가 다양한데 방형목곽묘, 장방형목곽묘, 주부곽식 장방형목곽묘, 주부

곽식 세장방형목곽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황성동 575번지 일원의 목곽묘는 평면 형태에 따라 장단축비가 2:1 미만의 방형과 3:1 내외의 장방형, 3.8:1 이상인 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장방형목곽묘는 다시 부곽의 유무에 따라 단곽식과 주부곽식으로 구분되며, 세장방형목곽묘는 주부곽식이다. 방형목곽묘와 장방형목곽묘는 유적 전역에서 확인되며, 세장방형목곽묘는 주로 유적의 동편에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 216점, 금속 248점, 유리 및 옥류 31연 등이 있다.

토기는 대부분 와질토기이며, 주부곽식목곽묘에서는 고식 도질토기가 출토되기도 한다. 기종은 대호, 유개대부직구호, 유개대부호, 양이부호, 주머니호, 장동호, 노형기대, 웅, 파수부배, 단경호 등 다양하며, 13호목곽묘와 59호목곽묘에서 유개복합기형토기가, 20호목곽묘에서 오리모양토기 3점, 수리부엉이를 형상화한 새모양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새모양토기는 대체로 낙동강 이동의 원삼국시대 목곽묘에서 확인되는 대표적 상형토기이다. 특히 부엉이모양토기는 지금까지 출토된 예가 없는 특이한 형태로 20호목곽묘 피장자의 지위가 황성동 분묘조성 집단 내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철기는 철촉, 철부, 철검, 철검, 환두도, 도자, 곡도자, 철모, 유자이기, 철극, 따비 등 다양하다. 철촉은 무경식과 유경식철촉으로 구분되며, 무경식철촉은 방형목곽묘에서, 유경식철촉은 그 밖에 목곽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철모는 이단경식과 일단경식, 쥘수형 철모로 구분되며, 방형목곽묘에서 이단경식 철모가 출토되었다.

경식류는 유리제환옥, 곡옥, 마노제 및 수정제 다면옥 등이 출토되었다.

3) 옹관묘

황성동 일대의 분묘유적에서 원삼국시대의 옹관묘는 현재까지 5개 유적에서 모두 92기가 발굴조사되었다. 옹관묘는 목관묘와 목곽묘가 조성되는 묘역에 이들과 중복없이 부가적으로 조성되었다.

옹관묘의 구조는 대부분이 합구식이고 단옹식 옹관도 일부 있다. 합구식 옹관묘는 시루, 장동웅 등을 주옹으로 이용하고 단경호, 노형토기 등의 토기를 막음옹으로 사용하여 구연부를 맞대어 합구하였다. 단옹식 옹관묘는 대호를 이용하였다.

황성동 884-8번지일대 강변로(3-A공구)유적에서는 대호를 이용한 단옹식과 합구식이 모두 확인되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황성동 575번지 일원 분묘유적에서는 옹관묘가 37기 확인되었다. 묘광은 타원형이며,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옹관의 구조는 합구식과 단옹식 두 종류 모두 확인되었다. 합구식 옹관묘는 두 개의 용기로 이루어진 것과 세 개의 용기로 합구된 것이 있다. 옹관묘의 규모는 묘광 길이 92~131cm, 너비 52~84cm, 잔존깊이 6~37cm 정도이다. 주옹은 장동웅, 단경호, 시루 등을 사용하였고, 막음옹은 장동웅, 단경호, 파수부옹 등을 사용하였다.

2. 원삼국시대 생산·생활유적

경주 황성동유적의 생산유적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조철부 용범이 공반된 철기제작유구가 발견되었고 철생산 집단의 공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와 관련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사결과 철기제작과 관련된 공정을 알 수 있는 유구가 조사되었다.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구는 용해로, 단야로, 폐기장 등으로 황성동 907-2번지일대의 황성동유적 ‘가, 나, 다 지구’에서 대규모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인접한 황성동 524-9번지유적, 535-8번지유적, 537-2번지유적, 537-4번지유적, 884-8번지일대 강변로(3-A공구)유적, 886-1번지유적, 886-5번지유적, 887-8번지유적 등의 넓은 범위에서 조사되었다.

1) 생산유적

가) 용해유구

용해로는 황성동 907-2번지 일대의 황성동유적 1차 ‘가 지구’에서 대규모로 확인된 이후 주변유적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조사된 유구는 모두 29기이다. 용해로는 단야공정의 유구와 같이 있기도 하고 구분되어 조성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구는 대체로 한변 약 250cm 정도의 방형수혈 안의 한쪽벽에 치우쳐 노를 축조하고 나머지는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된 용해로는 모두 파괴된 상태인데 확인된 노의 흔적과 출토

〈표 3〉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생산유적 현황표

번호	유적명	유구와 특징	출토유물	비고
4	황성동유적 (907-2번지일대)	가 지구	용해로(9), 단야로(6), 폐기장(2)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나 지구	단야로(3)	
		다 지구	용범폐기장(1)	
			용해로(1) : 고가수조지역	
6	철기제작관련유적 I (886-5번지)	용해로(3), 단야로(1), 폐기장(2)	용범편, 송풍관편	국립경주박물관
10	황성동철기제작 관련유적 II (524-9번지)	용해로(1)	용범편	국립경주박물관
15	제철관련유적 III (537-2번지)	용해로(7), 단야로(6), 폐기장(6)	용범편, 송풍관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6	제철관련유적 IV (537-4번지)	용해로(1)	용범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7	황성동535-8유적	용해로(1)	용범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	강변로(3-A공구)유적 (884-8번지일대)	용해로(1), 단야로(12), 폐기장(2)	용범편, 송풍관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2	황성동886-1유적	용해로(3), 단야로(1), 폐기장(2)	용범편, 송풍관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5	황성동887-8유적	용해로(2)	용범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30	황성동 공동주택부지 (590번지 일원)	제철유구(10) : 시굴조사	용범편, 송풍관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경문화재연구원

된 노벽으로 보아 노의 상부가 개방된 원추형 노로 추정된다. 노의 규모는 바닥내부 지름이 약 70cm 정도이다. 노벽은 짚 등을 섞은 점토로 두께 10cm 정도로 만들고 외벽은 점토로 보강하였다. 용해로는 노벽에서 확인된 3차례 이상의 보수흔적과 유구 토층상에서 확인된 재축조 양상으로 보아 적어도 3회 내지 6회 이상의 조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송풍관은 지름 20cm 내외의 대형이며 1개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쪽 끝부분에 단을 만들어 연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송풍관의 형태는 원추형, 원통형, ㄱ자형 등으로 송풍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사용위치에 따라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 썼던 것으로 보인다. ㄱ자형 송풍관은 노의 내부로 들어가는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끝은 몸통부분보다 지름을 작게 만들었으며 철재가 묻어있고 노에 끼는 부분을 점토로 보강한 흔적이 남아 있어 그 용도를 알 수 있다.

한편 고가수조지역에서 확인된 1기의 노는 그 형태가 타원형이고 낮은 온도를 받은 노벽체와 비교적 소형인 점 등으로 주조철기 제작과정의 파손품 등을 다시 용해하여 단조제품을 만들었던 정련용해로로 추정되었다.

나) 단야유구

단야유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와 같은 범위에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조사 보고된 유구는 모두 29기이다. 황성동유적 1차 '다 지구' 주거지 내부에서는 철괴, 구상철괴, 모루돌 등이 출토되어 주거지 내에서 단야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달리 '나 지구'에서는 주거지 주위에서 단야로시설, 단야재, 단조박편, 숫돌, 모루돌 등이 출토되어 주거지 외부에 단야로 작업장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생활유적

황성동 일대의 유적에서 원삼국시대 생활유적이 조사된 곳은 황성동 907-2번지일대이다.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모두 47기로 평면형태는 원형, 방형 또는 말각방형으로 구분된다. 원형주거지는 '다 지구' 구역에 무리지어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방형주거지는 '가 지구'와 '나 지구' 구역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평면형태가 다른 주거지는 원형주거지가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고 위치를 달리하여 늦은 시기의 방형주거지가 조영된 것으로 시기적인 차이와 더불어 기능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생활유적 현황표

번호	유 적 명	유구와 특징	출토유물	비고
4	황성동유적 (907-2번지일대)	가 지구	주거지(19) : 원형주거지(7) 말각방형주거지(10) 방형주거지(2)	노형토기, 장동옹, 단경호
		나 지구	주거지(9) : 원형주거지(3), 말각방형주거지(6)	평저발, 장동옹, 단경호, 노형토기, 주머니호편
		다 지구	주거지(18) : 원형주거지(18)	주머니호, 원저옹, 장동옹, 단경호, 장경호, 시루, 철부, 철검, 철착, 철촉, 숫돌
			주거지(1) : 원형주거지(1)	

가) 원형주거지

원형주거지는 모두 29기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면적이 20㎡ 정도의 소형 주거지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내부의 한쪽 벽면에 치우쳐 노지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일반적인 화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강한 열을 받은 흔적이 있어, 철을 달구거나 녹이는 용도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원형주거지 내에서는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되어 주거지내부에서 간단한 단야공정도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성동 907-2번지 일대 황성동유적 1차 조사구역 '나 지구'와 '다 지구'에서 확인된 원형 또는 타원형의 주거지 18기는 내부에서 노지와 모루돌 등이 있는 유구의 양상과 철기를 만드는 재료로 보이는 쇠덩어리와 작은 구슬모양 쇠덩어리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철기제작 집단의 공방용 주거지로 추정되었다.

나) 방형 · 장방형주거지

방형 · 장방형주거지는 모두 18기이다. 방형 · 장방형주거지는 면적이 30㎡ 정도로 원형주거지보다 훨씬 넓다. 내부에 별다른 시설은 보이지 않으나 원형주거지에 비해 많은 수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그 기형은 평저발, 장동옹, 단경호 등이다.

황성동유적 1차 조사구역 '가 지구'와 '나 지구'에서 확인된 방형 또는 장방형주거지는 수혈의 깊이가 얕거나 거의 없는 지상식구조로 추정되었고 내부에서 출토된 벽체편에서 짚을 섞었음이 확인되었다. 방형 · 장방형주거지는 원형주거지보다 발전된 철기생산기술을 가진 집단의 취락지로 보인다.

Ⅳ.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1. 연구성과

경주 황성동 일대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특히 원삼국시대 유적은 분묘 · 생산 · 생활유적이 공간을 달리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유적인 주거지는 내부에서 단야공정에 사용된 유구, 유물이 확인되어 단야공정이 주거지 내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1~3세기대 철기생산 집단의 작업장을 겸한 취락지로 확인되었고 시기는 2기로 구분된다.

1기는 원형주거지에서 단야공정의 철기생산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연대는 주머니호 등의 토기와 무경식양익형 철촉 등 철기류 등의 유물과 유구의 정황으로 A.D. 1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있고, 황성동 분묘유적의 목곽묘 단계 토기와 비교하여 A.D. 2세기 전반에서 후반경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2기는 방형 · 장방형주거지에서 단야공정과 용해공정을 행한 발전된 철기생산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공방취락지로 1기 이후에 이동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이 황성동 유적의 원삼국시대 생활유적인 주거지군에 대한 조사에서는 철기제작집단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취락공간을 이동하여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철생산과 관련된 특수한 집단

의 집단공방취락지의 성격을 밝히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생산유적으로는 1990년 황성동유적에서 국내 최초로 철기제작 관련 단야유구와 용해유구가 발굴조사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황성동일대의 발굴조사는 계속되어 철기제작유구의 대략적인 분포범위를 확인하였다. 생산유적의 연구는 출토된 철재 등 시료의 과학적인 분석으로 원료산지를 추정하는 등 철기생산유적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그 후 조사된 진천 석장리유적의 경우 제련공정에서 단야공정까지 일련의 철생산 공정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천 석장리유적의 조사를 토대로 두 유적을 비교 검토한 연구에서는 한반도 중·남부 지방의 철기생산 전개과정을 3기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황성동유적은 2기의 소규모 단야공정과 대규모의 제철생산집단이 출현하는 3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그 시기는 2세기 전반에서 중반으로 2기와 3기는 3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분묘유적은 생산·생활유적과 함께 황성동집단의 동시기 묘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분묘유적의 연구는 묘제의 구조와 특징을 묘형별로 구분하여 변화양상과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단계설정과 편년 및 등장배경 등을 제시하였다. 황성동 유적 분묘연구에서 장방형목곽묘가 등장하는 시기를 큰 획기로 보는 견해는 대체로 연구자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는 듯하나 세부적인 편년에는 차이가 있다. 황성동 분묘유적의 연대는 목관묘는 1세기 전반~2세기 전엽, 목곽묘는 2세기 후반~3세기 후엽 또는 4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2. 연구과제

1) 향후 연구과제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은 최초의 발굴조사가 있는 지 20년이 더 지났다. 그 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적이 드러났고 개별 유적에 대한 연구성과는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전해 나아가는 사회·문화상 연구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다.

황성동 일대 유적의 조사내용을 정리한 결과 황성동유적 전체를 성격별로 분류하여 원삼국시대의 생산유적, 생활유적, 분묘유적 등으로 동시대 유적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개별유적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검토가 우선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다음 통시간적으로 각 유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연구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나아가 황성동유적 집단 전체의 성격과 사회문화상을 규명하기 위해 주변지역 타집단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그것을 토대로 신라의 고대국가 형성과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겠다.

2) 유적보존 및 관리와 현황

황성동 일대 유적의 발굴조사는 모두가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사전 구제발굴조사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성과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유적은 석실분 1개소와 용강동 원지유적 등 2개 유적이 있다.

황성동 907-2번지일대의 황성동 유적은 1990년 당시 국내최초로 철기제작유구가 발굴조사되어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에서 처음 조

사된 유적이긴 하지만 서민임대주택건립이라는 큰벽에 부딪쳐 부지 중 극히 일부만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유적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정도로 결정되었다.

용강동 원지유적은 발굴조사로 기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유적이 문헌자료의 기록을 방증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되어 관리대상이 되었다.

황성동 906-2·5번지 석실분유적은 공사와 관련하여 사전 발굴조사한 결과 현장 보존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 석실분은 1987년 각종의 인물토용이 출토된 '황성동 석실분' 발굴조사시에 주변유적 지표조사를 통해 석실분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었다. 만약 황성동 906-2·5번지 석실분유적이 좀더 일찍이 발굴조사되는 계기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한다면 그 이후 황성동 일대의 유적은 지금처럼 오로지 개발공사를 위한 구제발굴조사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큰 아쉬움이 남는다.

V. 맺음말

경주 황성동 일대의 유적은 각 시대별로 구분된 공간에 다른 성격의 유구들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분묘유적, 생산유적, 생활유적 등이 일정한 공간 범위에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대규모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현황과 성과를 살피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조사구역의 세부적 조사내용은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대체적인 내용만 정리하였다.

경주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유적은 철기제작과 관련된 특수기능을 가진 집단공방지의 성격을 가진 취락의 유적과 분묘유적이 공간의 범위를 달리하여 조성된 복합유적으로 각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밀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 사료국의 형성과정과 신라국의 발전 양상의 일면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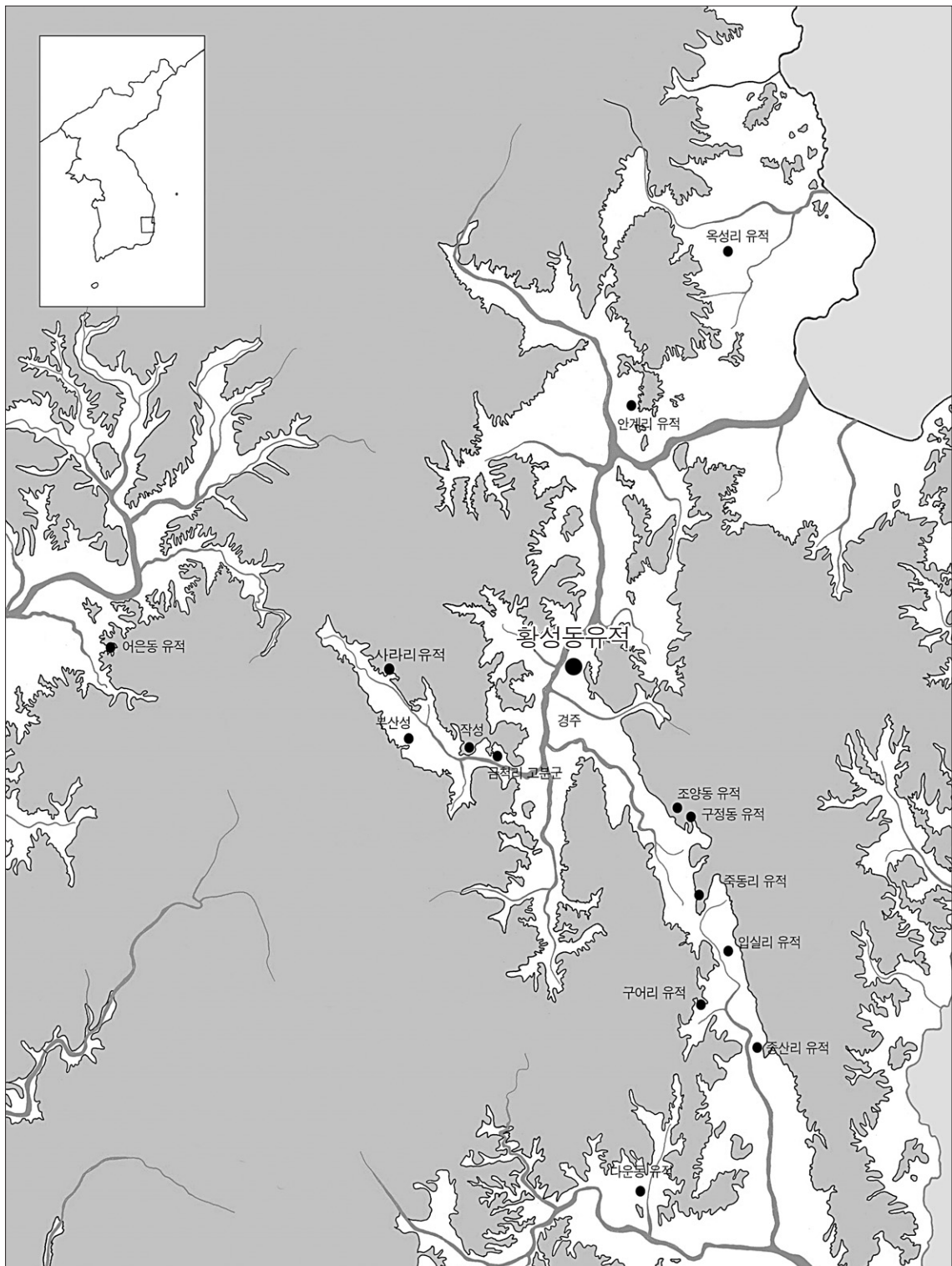
- 慶北大學校博物館, 2000, 『慶州隍城洞遺蹟 Ⅲ・Ⅳ』.
- 慶州大學校博物館, 2003, 『慶州隍城洞古墳群 Ⅲ』.
- 啓明大學校博物館, 2000, 『慶州隍城洞遺蹟 V』.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2,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緊急發掘調查報告書Ⅰ)』.
- _____, 1995, 『慶州 隍城洞 601-2番地・皇南洞 192-4番地 發掘調查報告』.
- _____, 1998,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緊急發掘調查報告書Ⅲ)』.
- _____, 2005, 『慶州 隍城洞 石室墳 906-5番地』.
- 國立慶州博物館, 1990, 「慶州 隍城洞遺蹟 第1次 發掘調查 概報」『嶺南考古學』8.
-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1993, 『慶州 隍城洞 石室墳』.
- _____, 1999, 『慶州 隍城洞524-9番地 溶解爐蹟』.
- _____, 2000, 『慶州 隍城洞 遺蹟 I・II』.
- _____, 2002, 『慶州 隍城洞古墳群 II』.
- 國立中央博物館, 1985, 「慶州隍城洞遺蹟發掘調查報告」『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17冊.
-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2002, 『慶州隍城洞古墳群』.
- _____, 2002, 『慶州隍城洞267遺蹟』.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6, 『경주 황성동 949-1번지 일대 건물신축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 약 보고서』.
- _____, 2007, 『경주 황성동 881-1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 약 보고서』.
- _____,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대경문화재연구원, 2008, 『경주 황성동 59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부지내 유적발굴조사』지도위원회자료-』.
- _____, 2008, 『경주 황성동 324-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08, 「慶州 隍城洞 899-8番地 遺蹟」『慶州의 文化遺蹟 I』.
- _____, 2008, 「慶州 隍城洞 887-8番地 遺蹟」『慶州의 文化遺蹟 V』.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1, 『慶州龍江洞 苑池遺蹟』.
- _____, 2002, 『慶州九於里古墳群 I』.
- _____, 2007, 『慶州隍城洞 575番地遺蹟發掘調查』指導委員會資料-』.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慶州市隍城洞564-3番地 發掘調查報告書-隍城洞 一帶의 遺蹟-』.
- _____, 2001, 『慶州市隍城洞537-2賃貸아파트 新築敷地發掘調查報告書』.
- _____, 2001, 『慶州隍城洞江邊路開設區間(3-A工區)內遺蹟發掘調查』-1・2次 指導委員會資料-』.
- _____, 2002, 『慶州 隍城洞 遺蹟 - 537-1・10, 537-4・535-8, 544-1・6番地 發掘調查報告書』.

- _____, 2003, 『慶州隍城洞遺蹟Ⅰ-江邊路開設區間發掘調查報告書』.
- _____, 2004, 「隍城洞 535-5番地 共同住宅豫定敷地」『慶州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查 報告書』.
- _____, 2005, 『慶州 隍城洞 950-1·7番地 共同住宅 新築敷地 發掘調查 報告書』.
- _____, 2005, 『慶州隍城洞遺蹟Ⅱ·Ⅲ·Ⅳ-江邊路開設區間發掘調查報告書』.
- _____, 2007, 『慶州隍城洞遺蹟Ⅴ-隍城洞 886-1番地 共同住宅新築敷地 發掘調查報告書』.
- _____, 2008, 『경주 황성동 928-17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2. 論文

- 權志瑛, 2004, 「弁·辰韓社會의 發展樣相에 대한 研究-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轉換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考古學科 碩士學位論文.
- 金權一, 2003, 「南韓地域 古代 製鐵爐에 對한 一研究」, 한신대학교대학원 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金世基, 1991, 「慶州 隍城洞 遺蹟構」『제34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 _____, 1994, 「隍城洞 原三國聚落址의 性格」『마을의 考古學』,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金榮珉, 1996, 「嶺南地方 三韓後期文化의 特徵과 地域性-洛東江 東西岸地域 比較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4, 「三韓後期 辰韓勢力的 成長過程研究」『신라문화』23.
- 김일규, 2001, 「경주 황성동 강변로 유적」『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金在弘, 2001, 「4~5세기 新羅의 古墳文化와 地方支配」『韓國古代史研究』24.
- 金亨坤, 1996, 「新羅 前期古墳의 一考察」, 東義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박장식, 2001, 「경주 황성동 537-2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출토 철기생산 관련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慶州市 隍城洞 537-2 賃貸아파트 新築敷地 發掘調查 報告書』.
- 安在皓, 1994, 「三韓時代 後期 瓦質土器의 編年」『嶺南考古學』14.
- _____, 1996, 「慶州 隍城洞古墳群에 대하여-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新羅文化』12.
- _____,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韓國古代史와 考古學』, 鶴山 金廷鶴博士 頌壽紀念論叢.
- 윤순옥·황상일, 2001, 「한국 남동부경주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선사 및 고대의 인간생활」『國家形成期 慶州와 周邊地域』, 한국상고사학회 연구총서 4.
- 尹溫植, 2001, 「3세기대 동해 남부지역토기양식의 형성과 변천」,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李盛周, 1997, 「木棺墓에서 木槨墓로-蔚山 中山里遺蹟과 茶雲洞遺蹟에 대한 檢討」『新羅文化』14.
- _____, 1998, 「新羅·伽倻社會의 政治·經濟의起源과 成長」, 서울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_____, 1999, 「辰·弁韓地域 墳墓 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嶺南考古學』24.
- _____, 金鉉希, 2000, 「蔚山 茶雲洞·中山里遺蹟의 木棺墓와 木槨墓」, 第9回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 李榮勳, 1991, 「慶州 隍城洞 鐵器製作遺構」『제34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 李在賢, 1994, 「嶺南地域 木槨墓에 대한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_____, 1995, 「弁·辰韓 社會의 발전과정-木槨墓의 출현배경과 관련하여」『嶺南考古學』17.
- 李在興, 2001, 「목관계목곽묘의 등장과 배경」『嶺南文化財研究』14.
- _____, 2006, 「慶州地域 木槨墓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7,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출현과정에 대한 일고찰」『嶺南考古學』43.
- 이한상, 2001, 「墳墓資料로 본 4~5世紀代 경주와 주변지역」『國家形成期 慶州와 周邊地域』, 한국상고사학회 연구총서.
- 李熙濬, 1996, 「신라의 성립과 성장과정에 대한 고찰-고고·역사·지리적 접근」『신라 고고학의 제문제』, 제2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_____,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0, 「삼한 소국 형성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43.
- 林東在, 2005,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孫明助, 1997, 「경주황성동제철유적의 성격에 대하여」『新羅文化』14.
- _____, 2006, 「古代鍛冶遺蹟의 諸樣相」『科技考古研究』12.
- 井上主稅, 2005, 「嶺南地域 출토 土師器系土器의 재검토」『韓國上古史學報』48.
- 車順喆, 1999, 「同穴主副槨式 木槨墓 研究-洛東江東岸地域을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崔景圭, 2004, 「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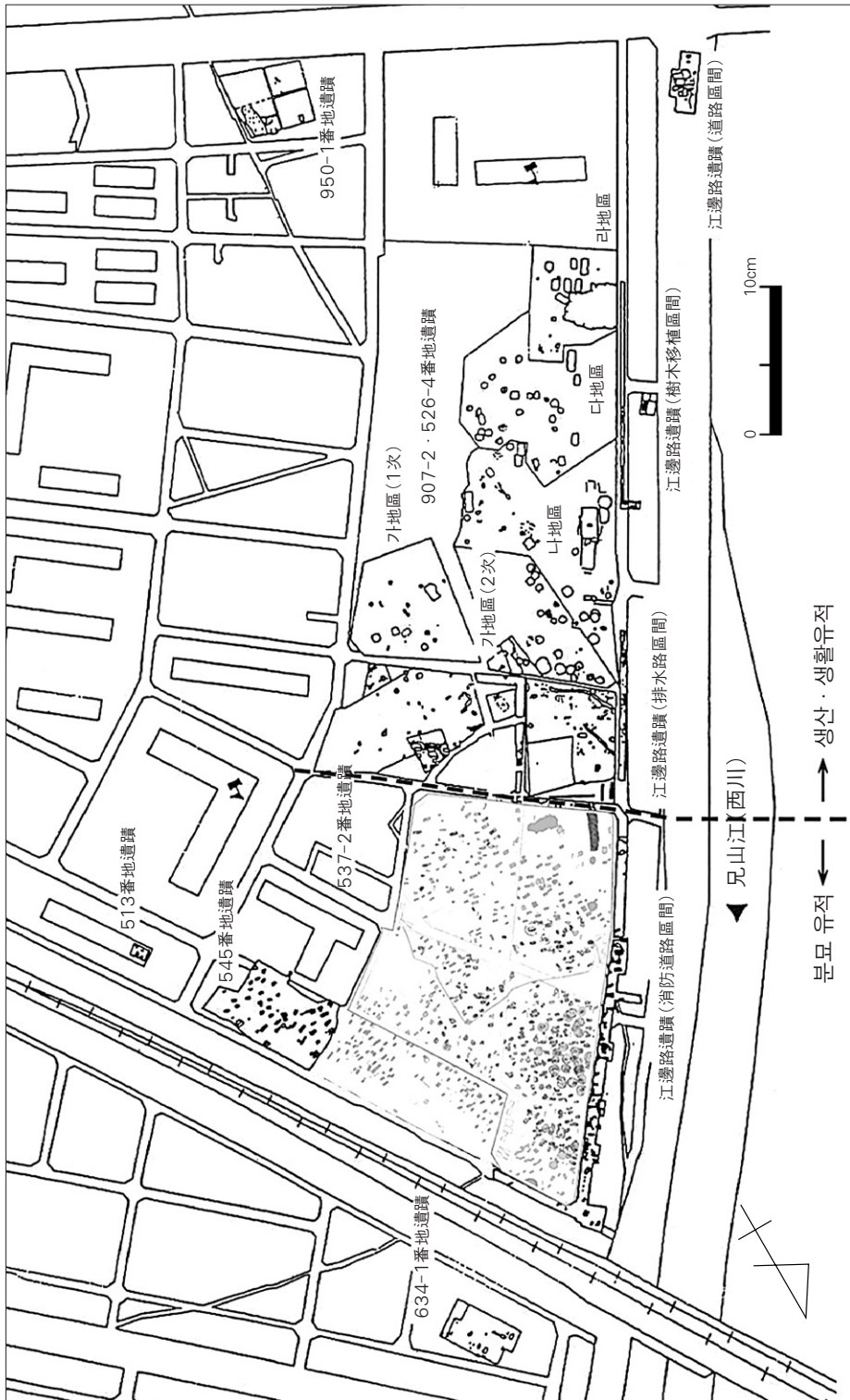
〈도면 1〉 경주 및 주변 지역 원삼국시대 유적 현황



〈도면 2〉 황성동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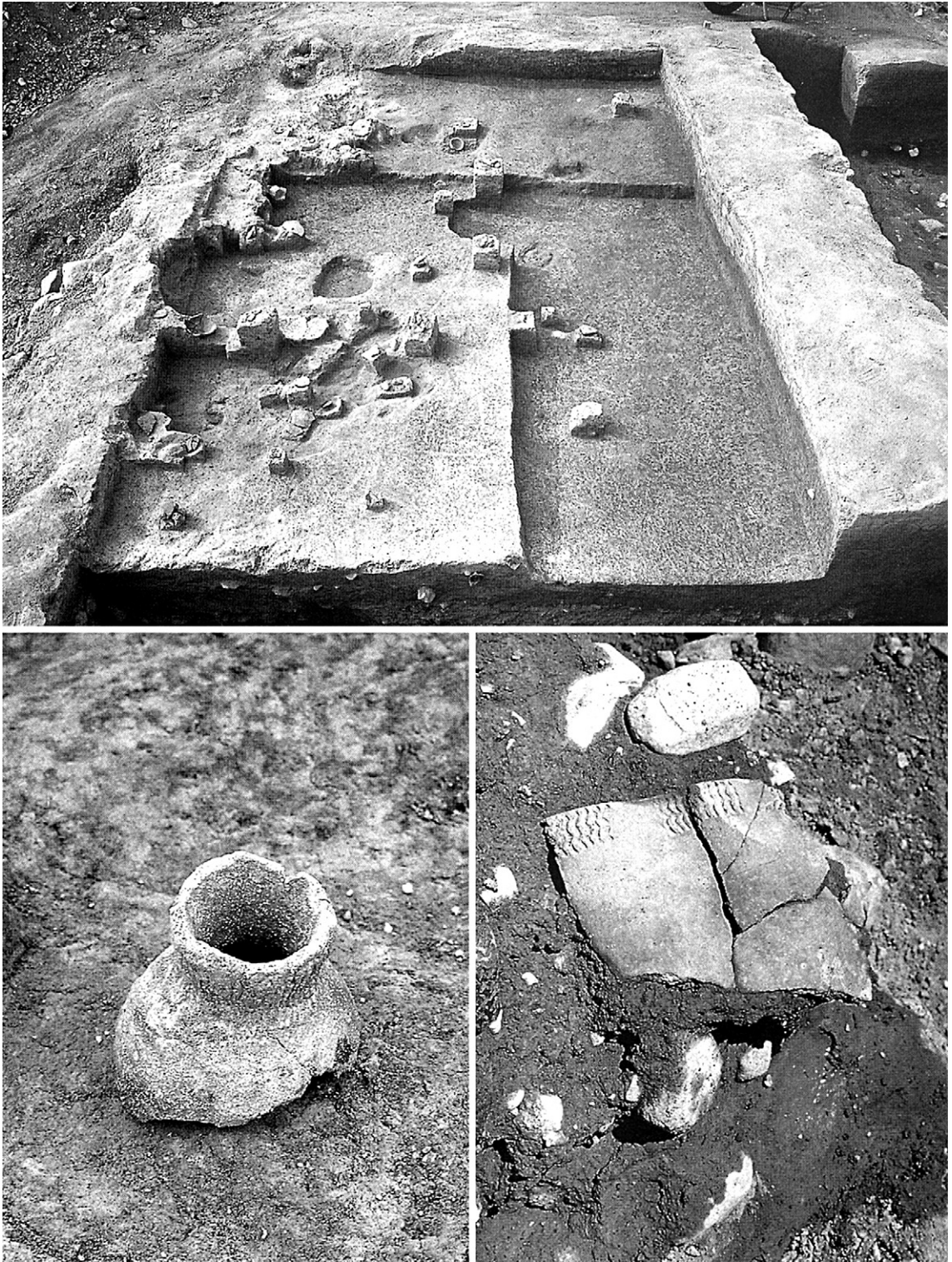
〈도면 3〉 황성동 일대 유적 발굴조사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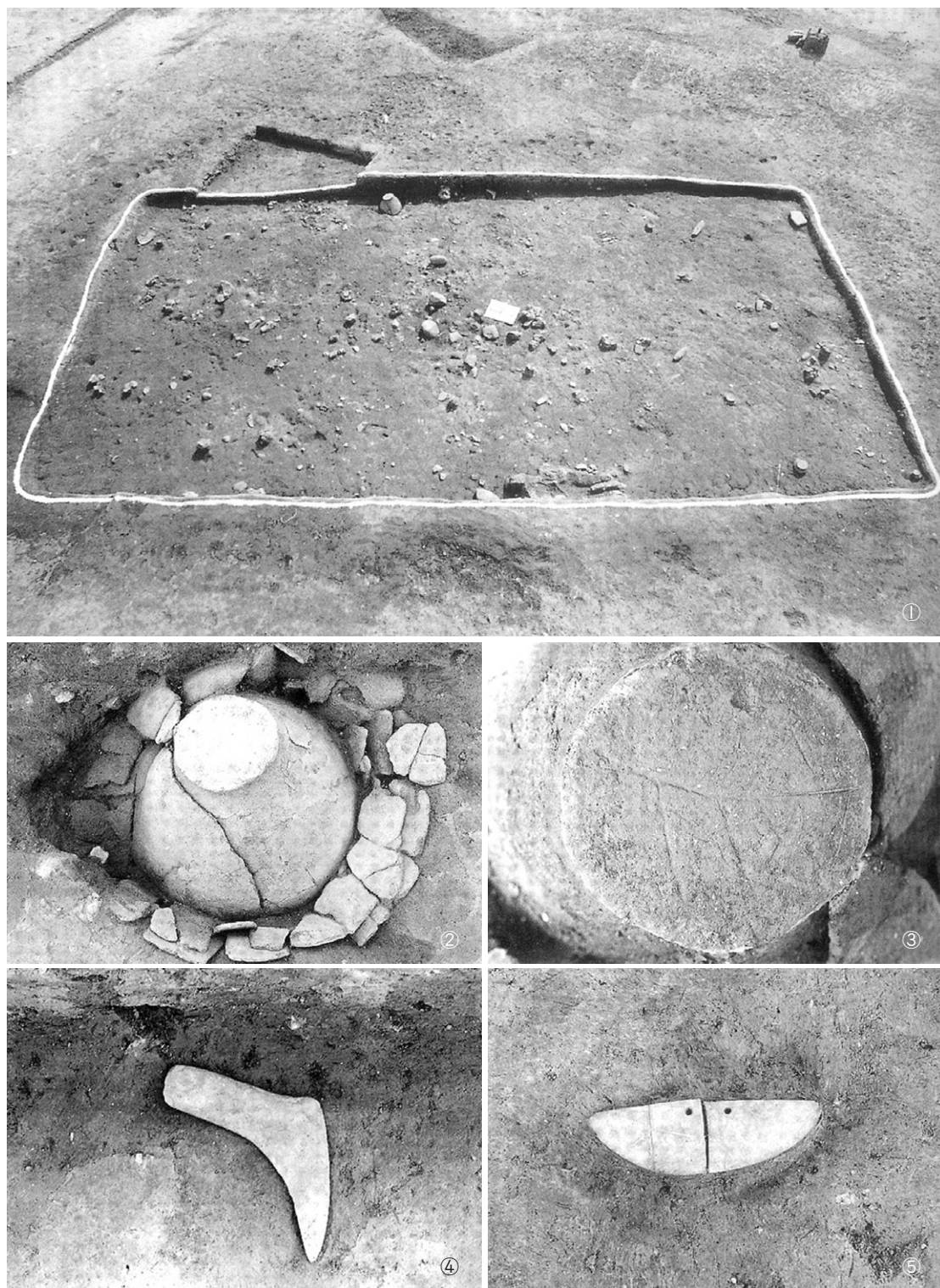
〈도면 4〉 황성동 일대 원삼국시대 유적 분포도



〈사진 1〉 황성동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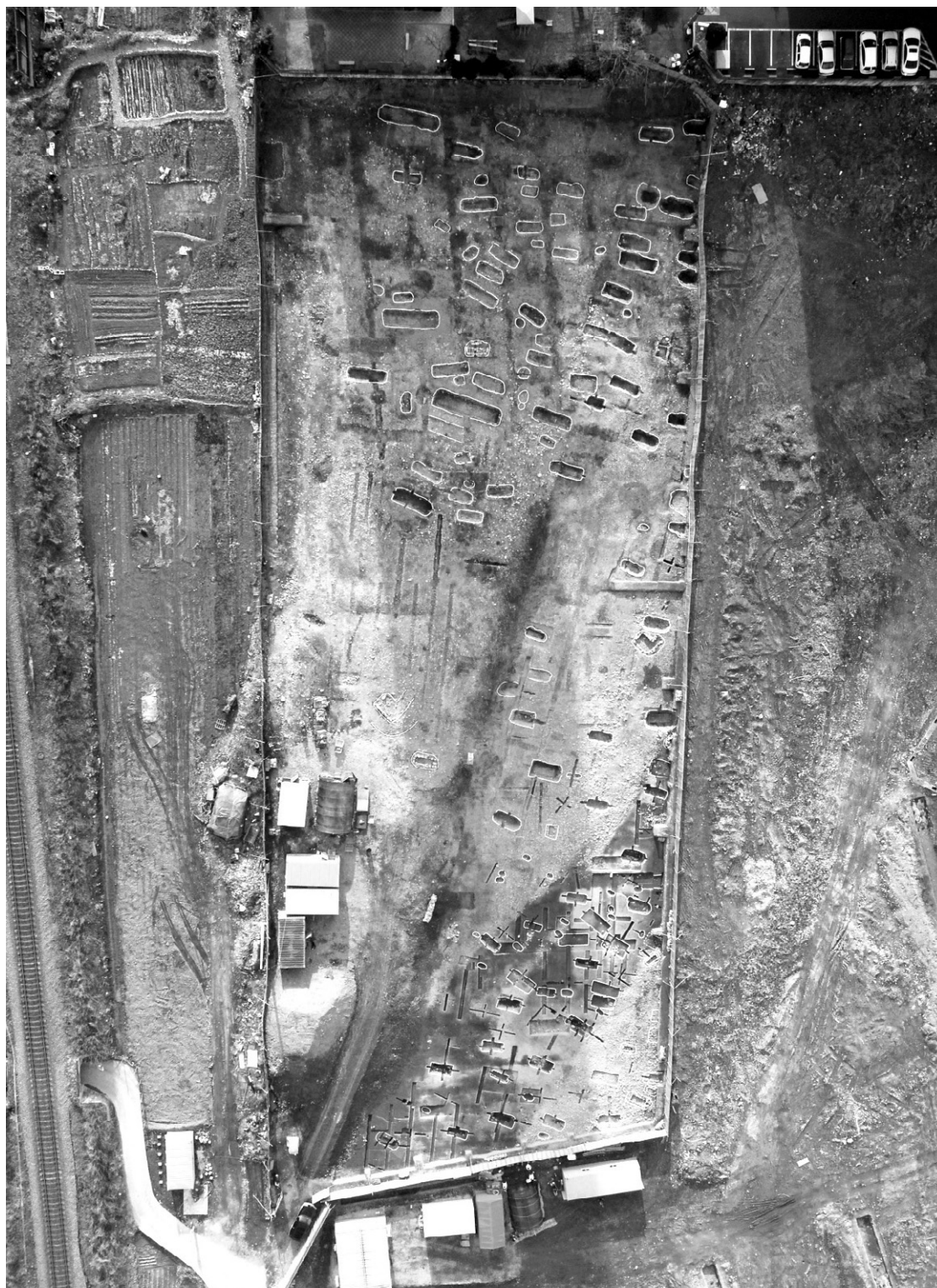
〈사진 2〉 황성동 267번지 유적 · 유물출토상태



〈사진 3〉 황성동 유적 청동기시대 유구 및 유물(라지구-9호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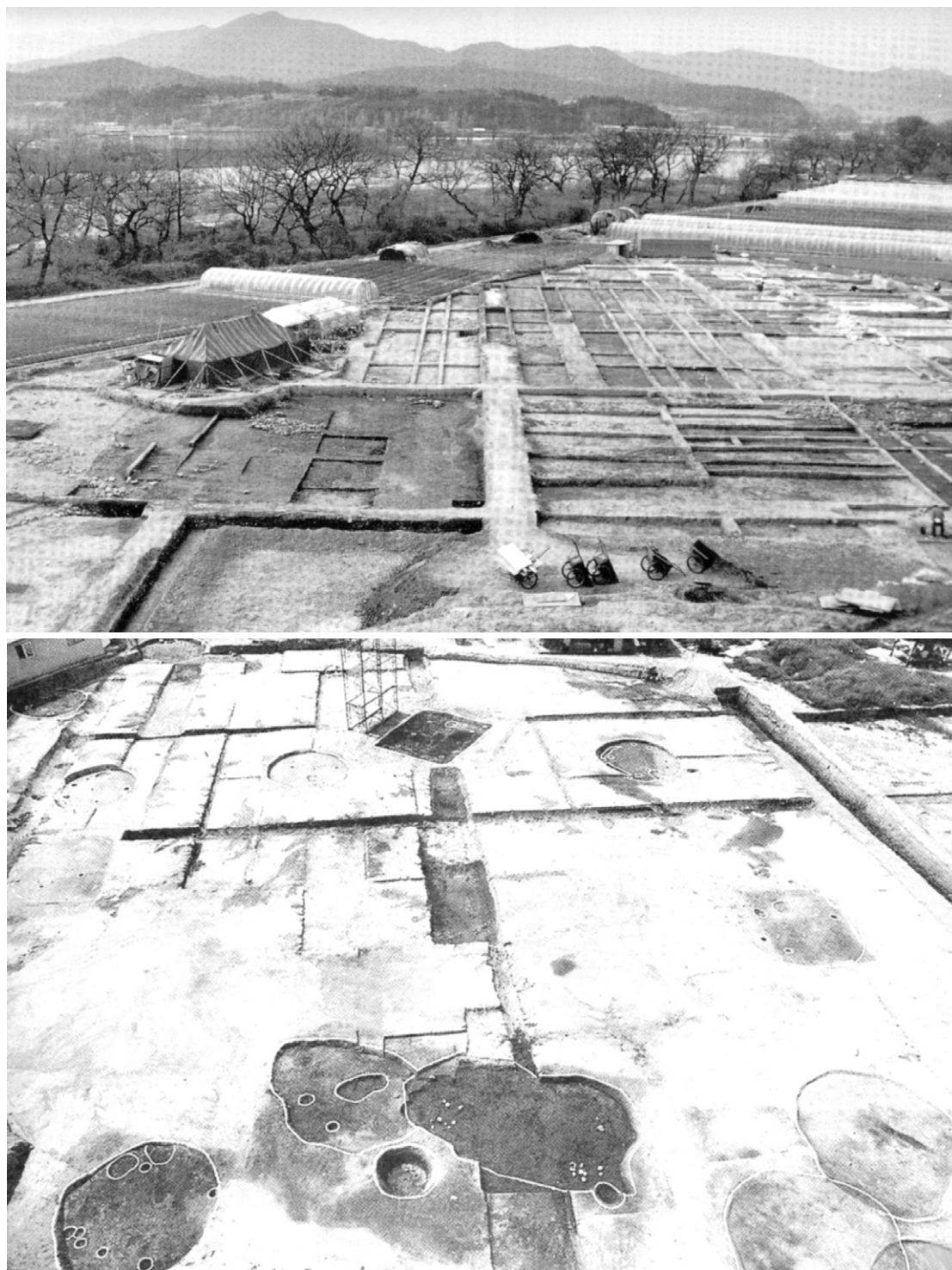
〈사진 4〉 황성동 537-2번지 유적 청동기시대 석관묘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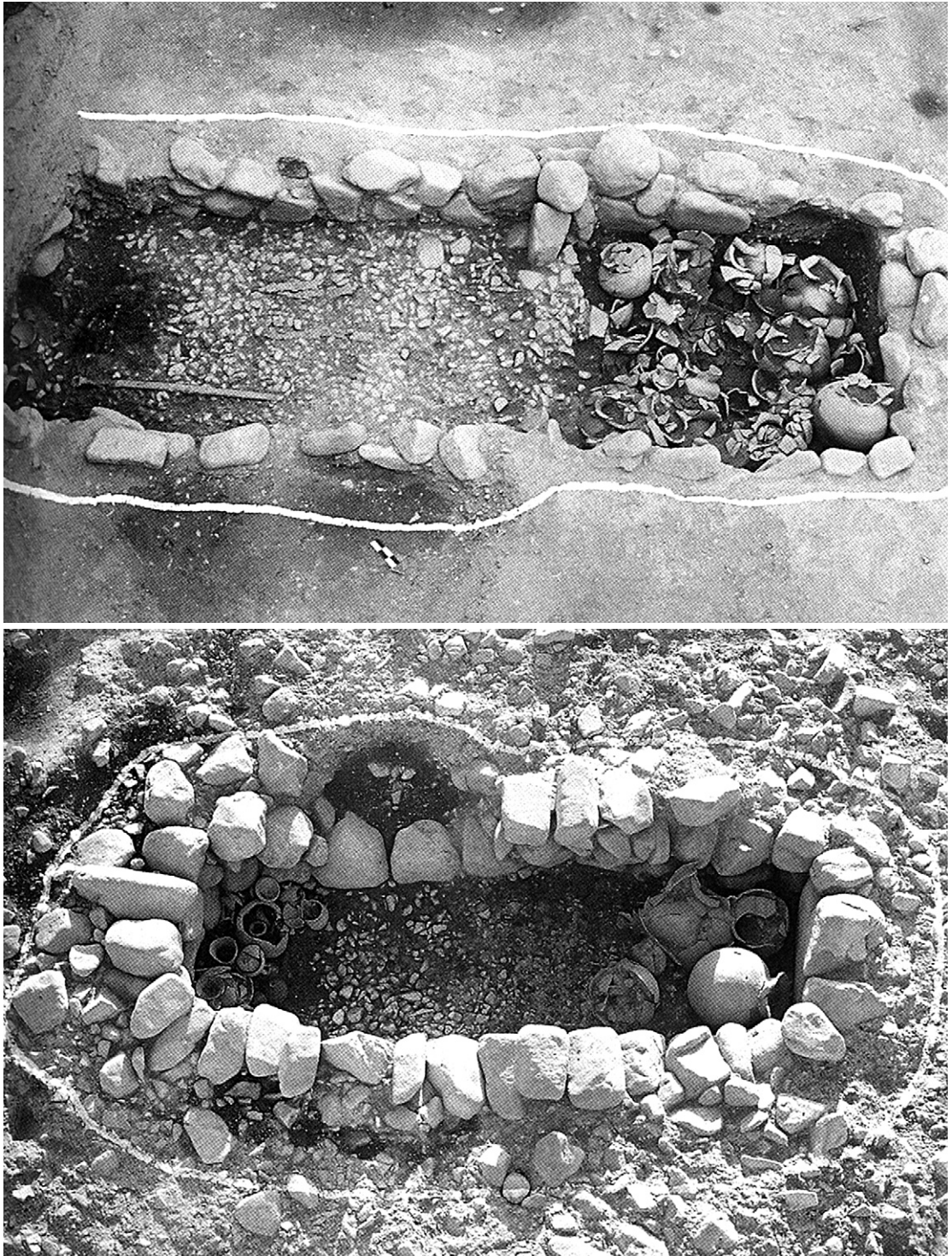
〈사진 5〉 황성동 575번지 유적 분묘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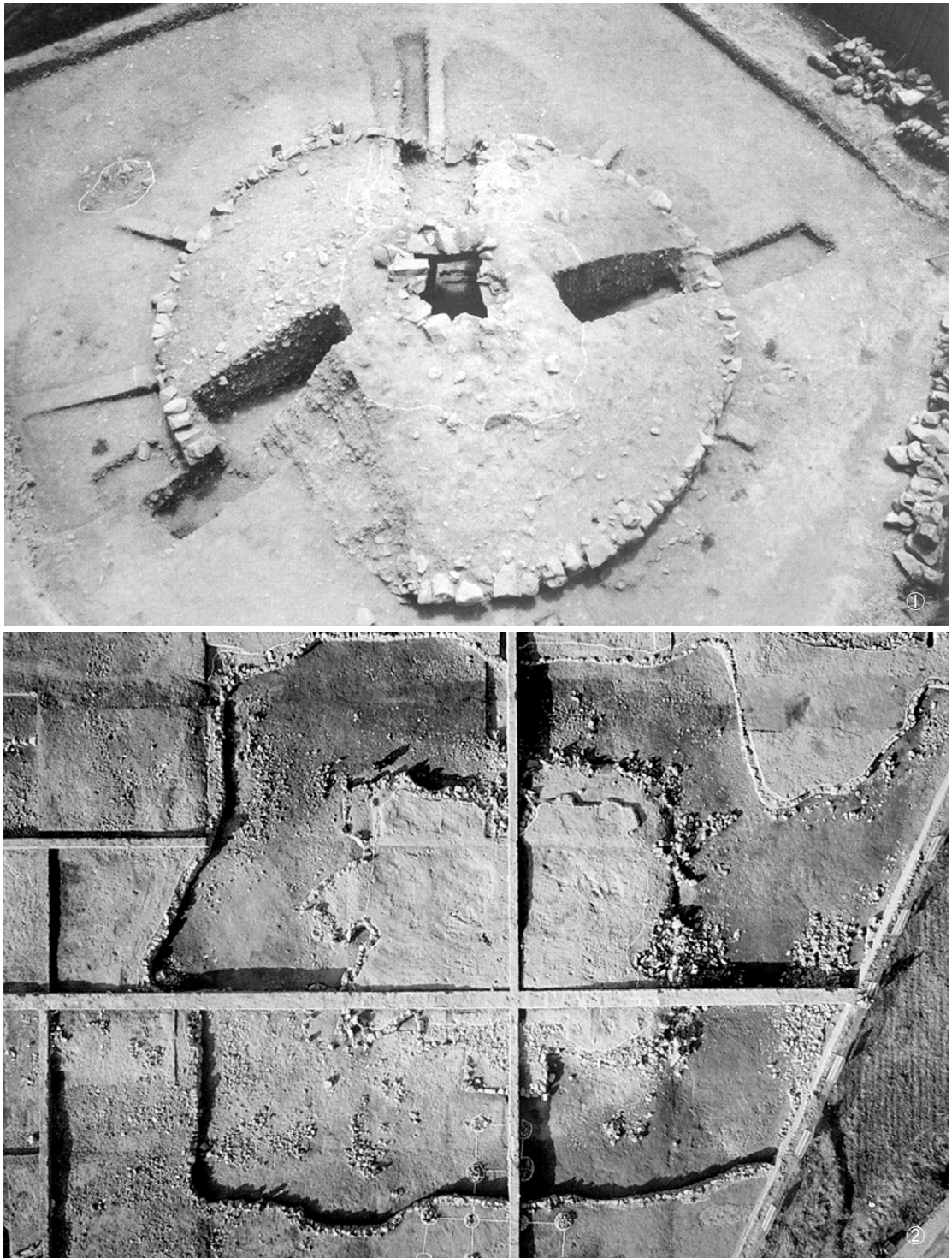
〈사진 6〉 황성동 유적 원삼국시대 철생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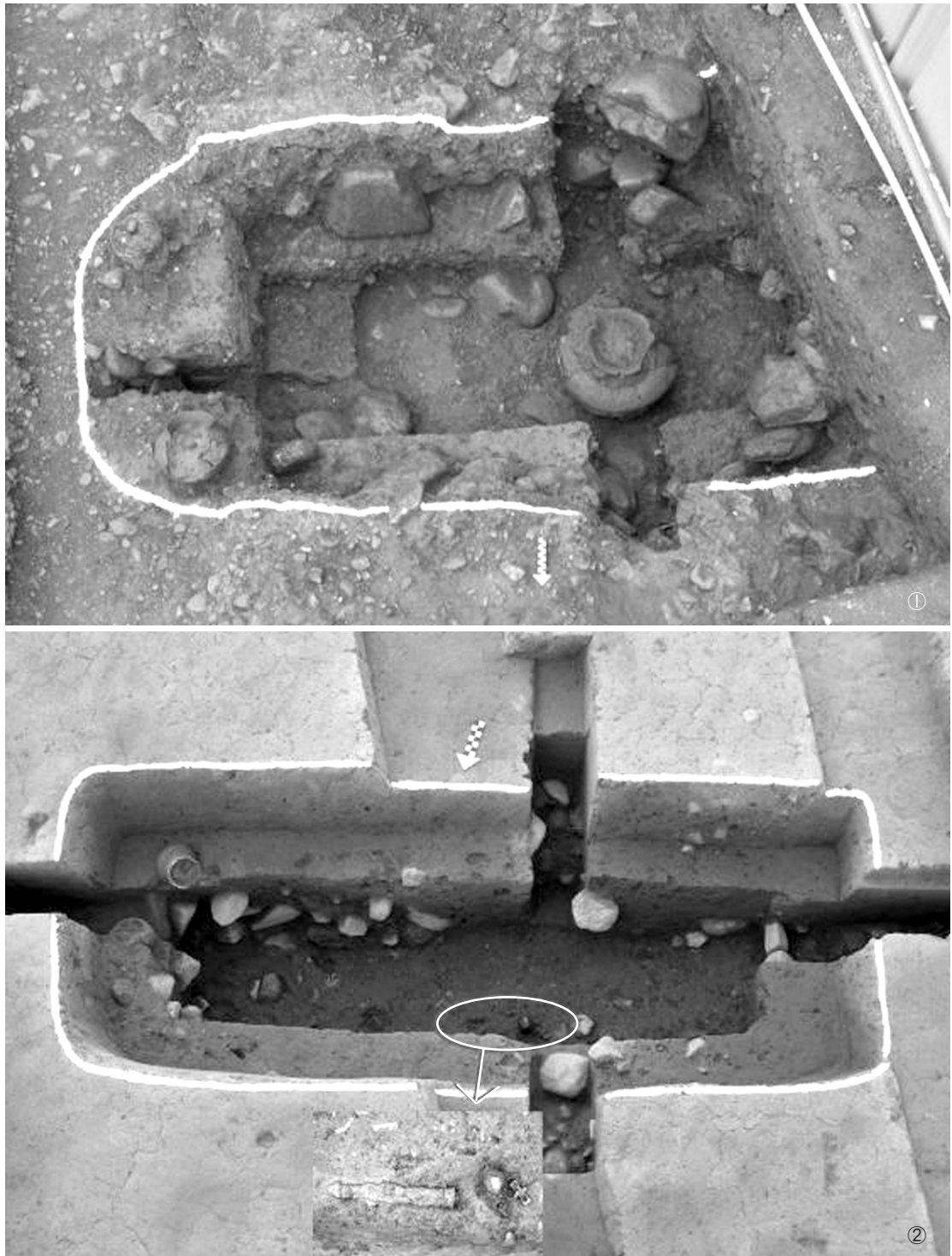
〈사진 7〉 황성동 유적 원삼국시대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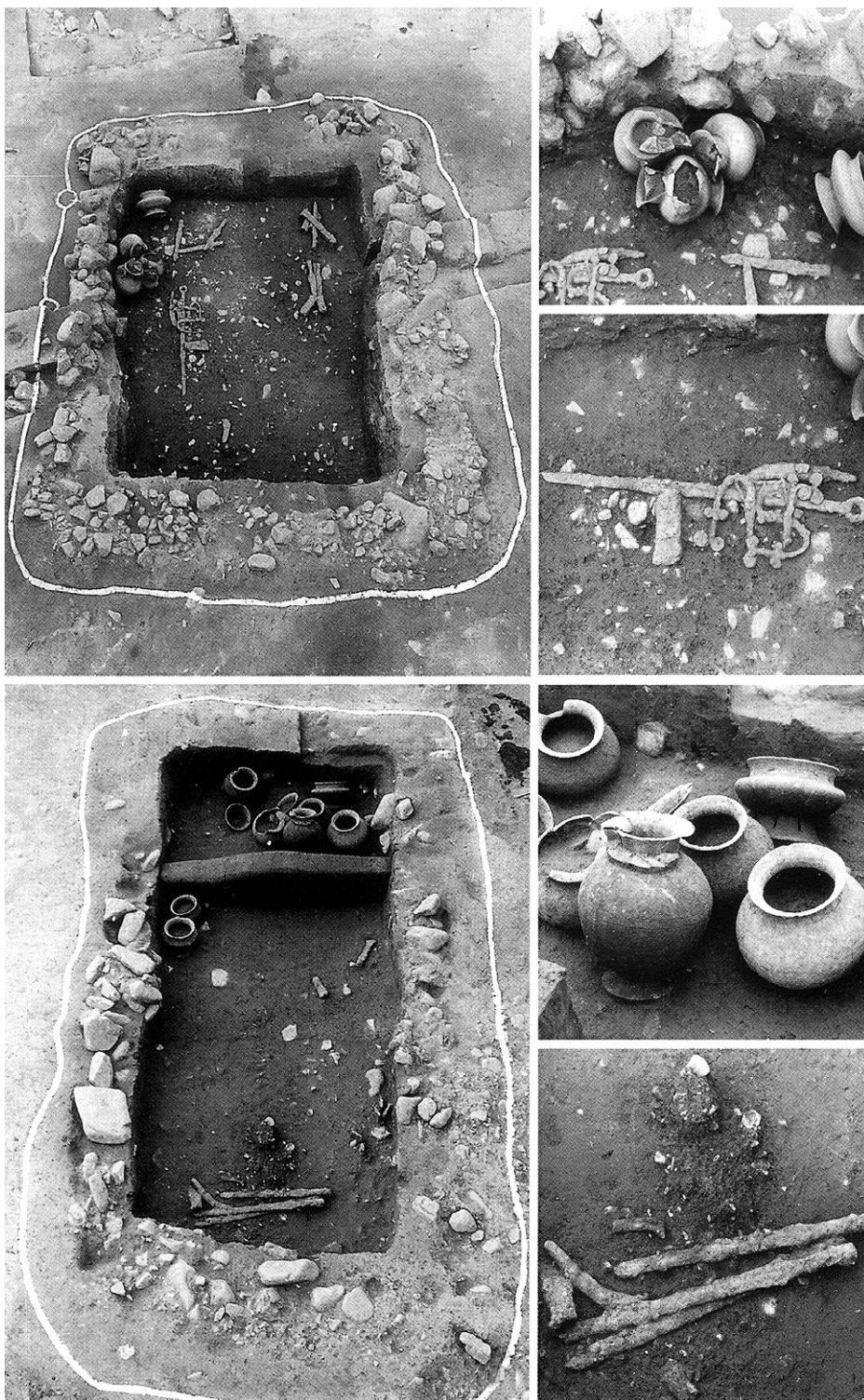
〈사진 8〉 황성동 강변로 유적 적석목곽묘 및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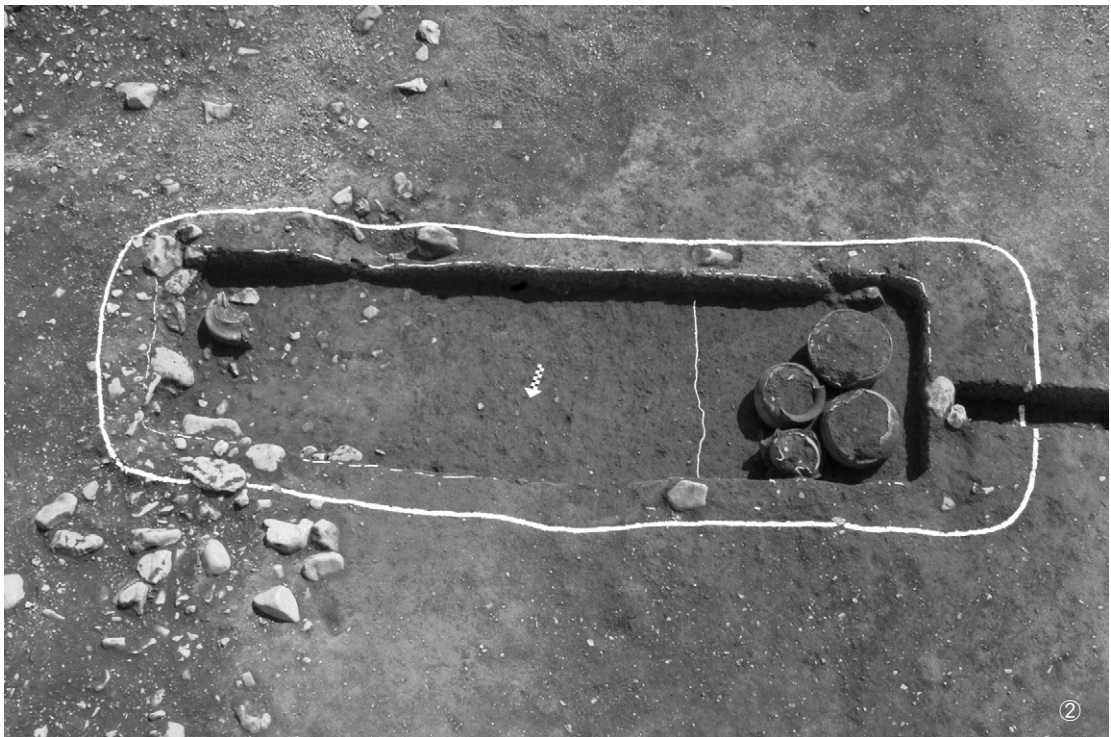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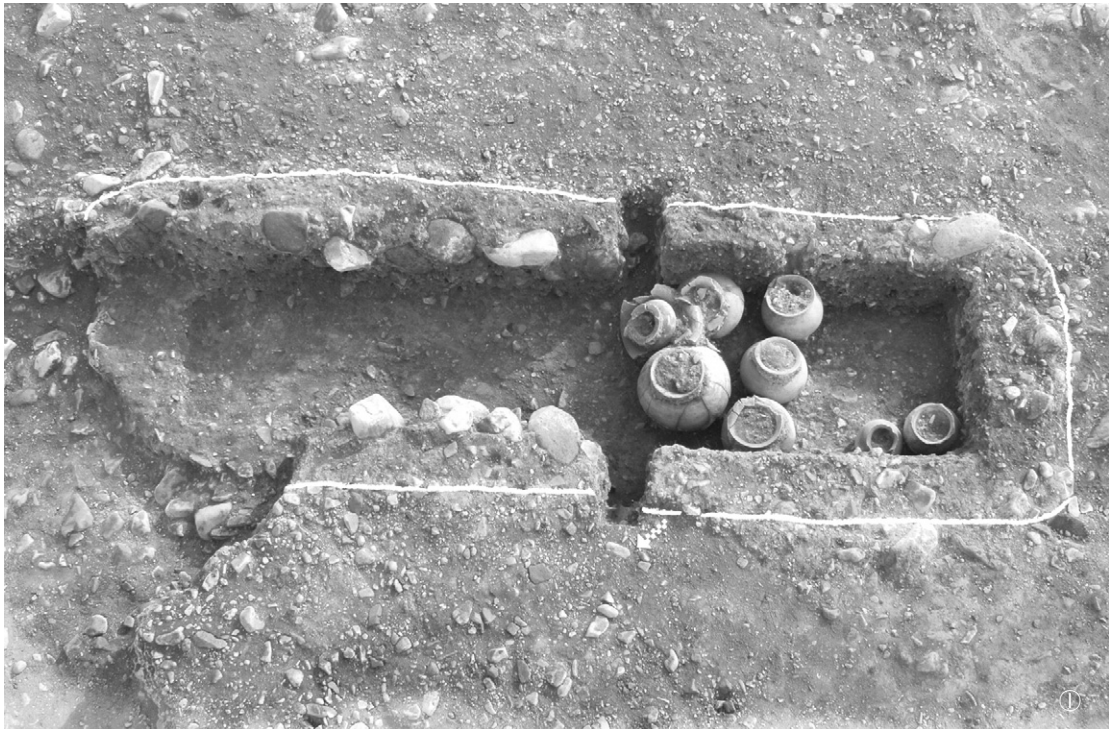
〈사진 9〉 황성동 906-2·5번지 석실분(①), 용강동원지 유적(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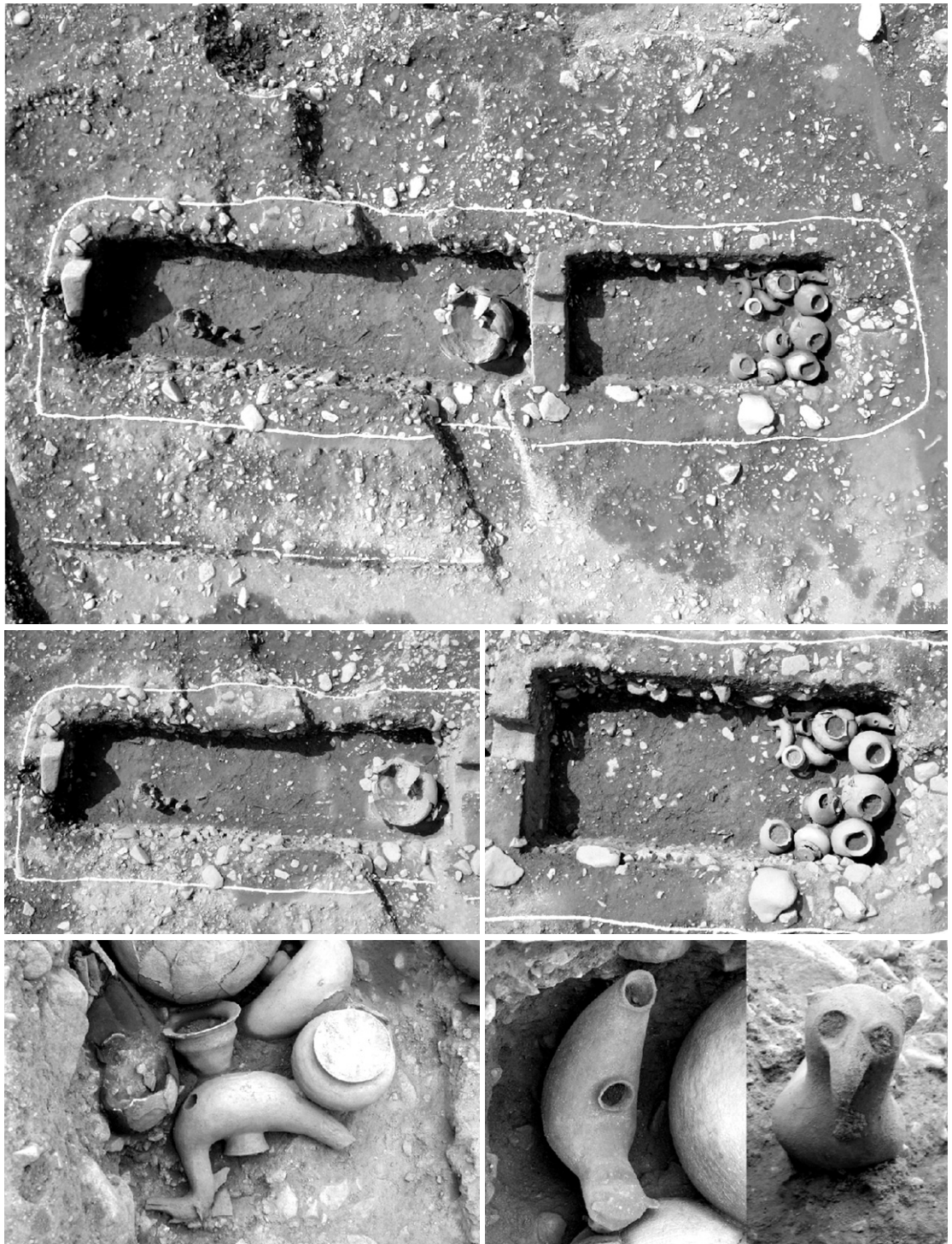
〈사진 10〉 황성동 575번지 유적 목관묘(① 1호, ② 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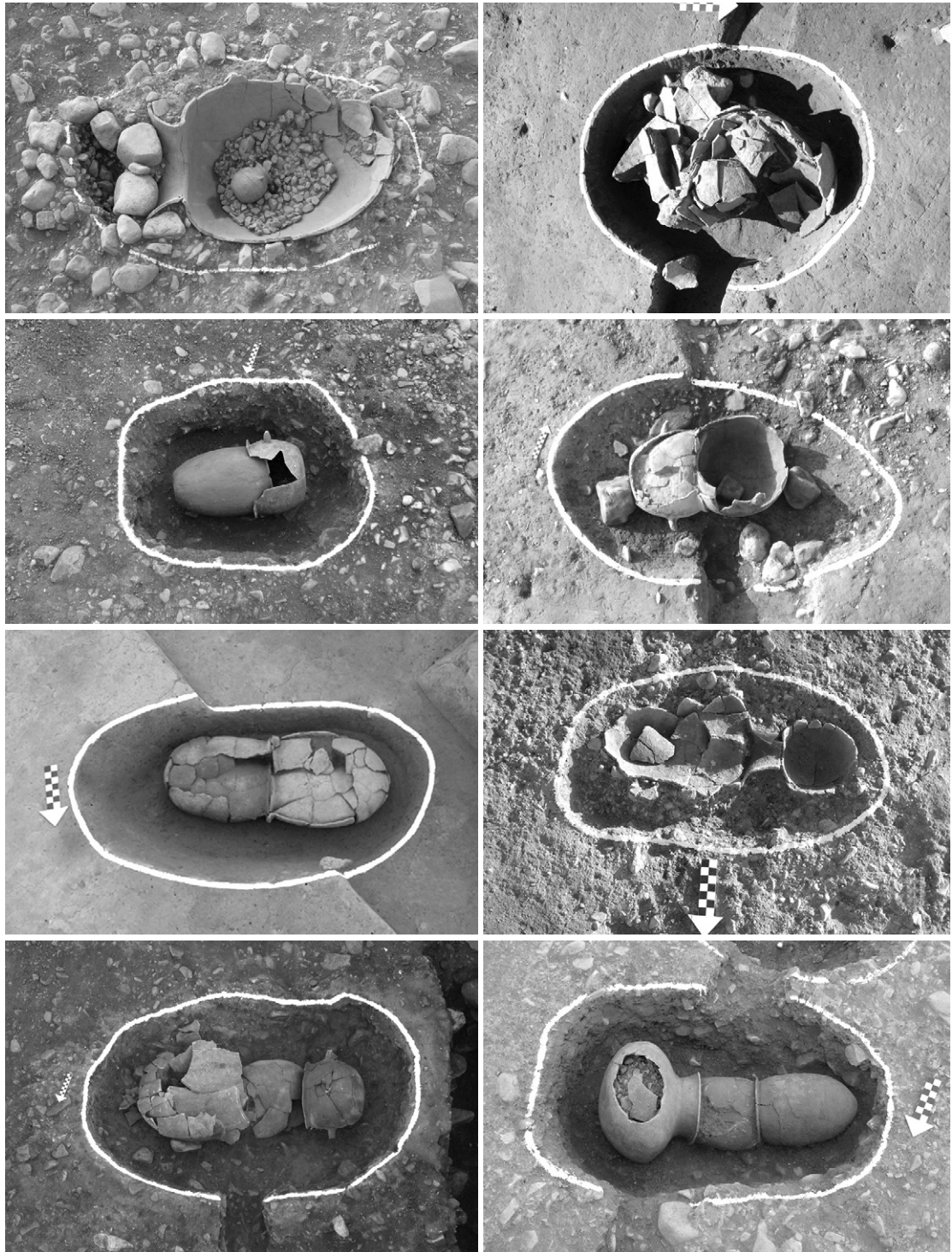
〈사진 11〉 황성동 강변로유적 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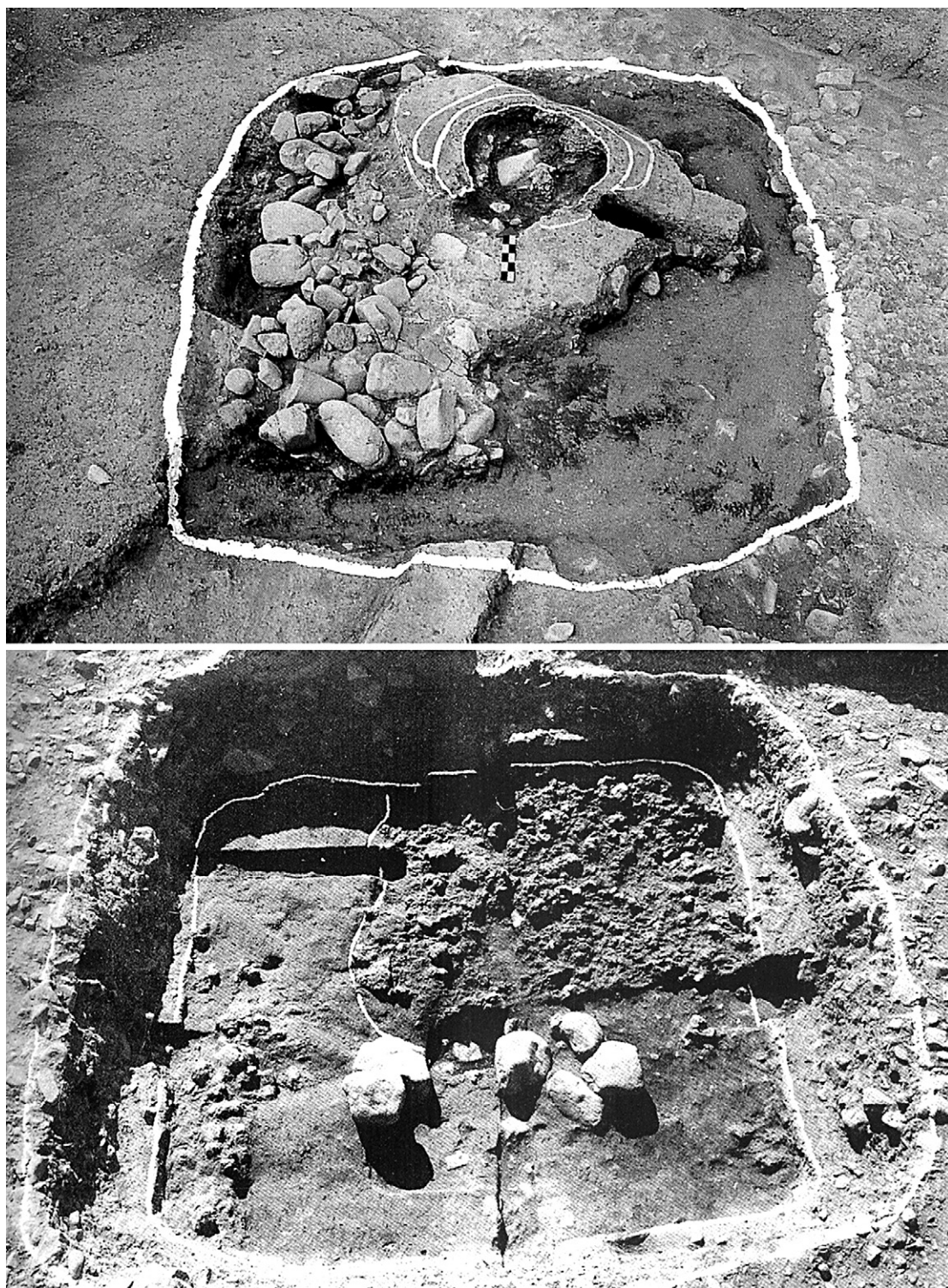
〈사진 12〉 황성동 575번지 유적 목곽묘(①17호, ②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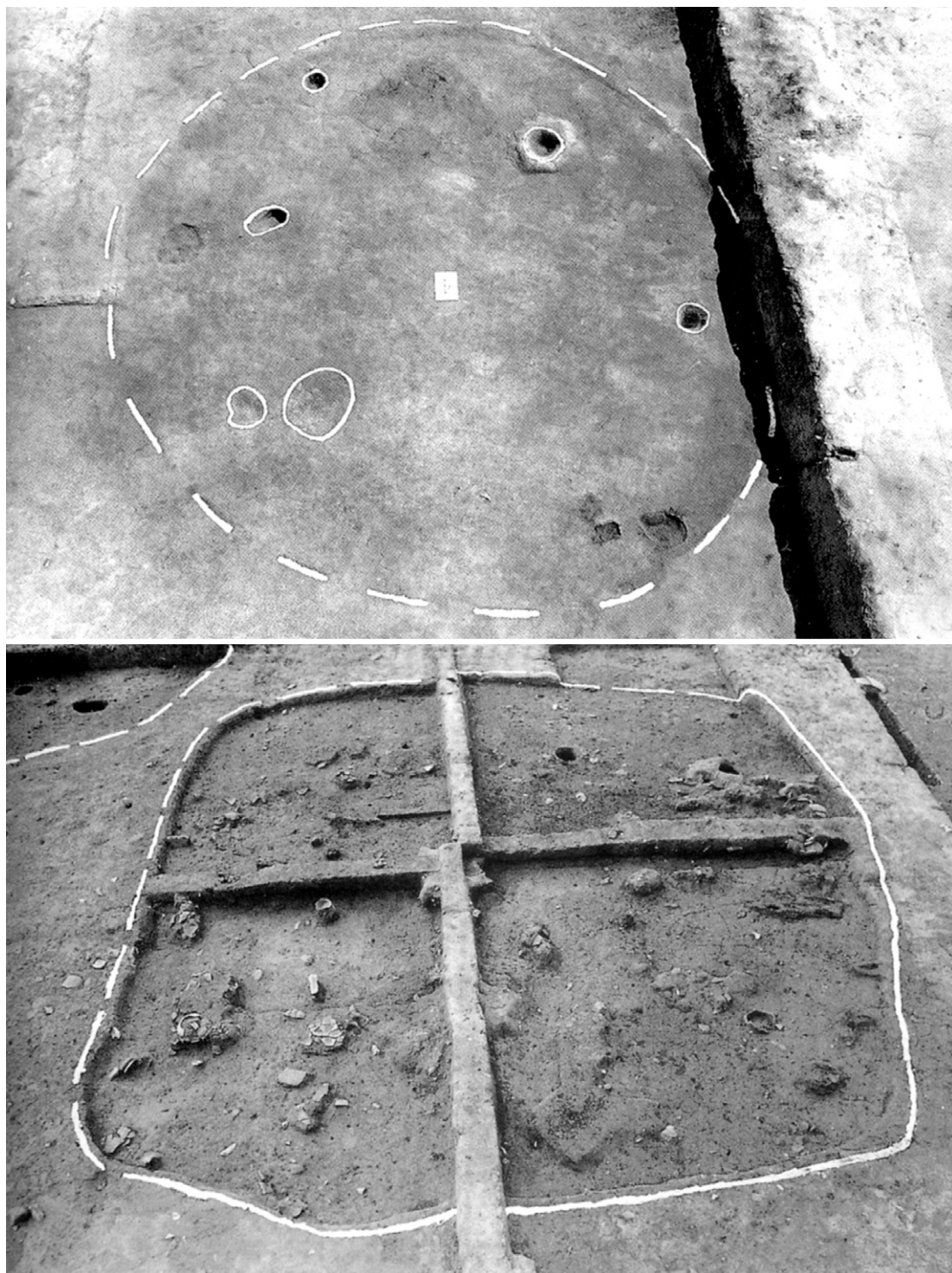
〈사진 13〉 황성동 575번지 유적 목곽묘(20호) 및 출토유물



〈사진 14〉 황성동 575번지 유적 옹관묘 각종



〈사진 15〉 황성동 907-2유적 옹해로, 단야로



〈사진 17〉 황성동 유적 원삼국시대 주거지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

이재흥*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Ⅲ.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성격 |
| Ⅱ.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 | 1. 주변유적과 비교를 통해본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특성 |
| 1. 분묘의 단계별 양상과 편년 | 2.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성격 |
| 2. 시기별 분묘의 분포와 변화 | Ⅳ. 맺음말 |

요 약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는 서기전 1세기 후엽에 소규모 목관묘가 조영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다. 1세기 후엽부터 목관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공동묘역이 고정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분묘가 조영된다. 2세기 중엽에는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가 등장하고 2세기 후엽에는 본격적으로 목곽묘가 조영되면서 성격이 판이한 두 개 구역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묘역의 구분은 경주식목곽묘가 축조되는 3세기대에도 지속된다. 이는 이 시기에 들어와 황성동을 비롯해 인근에 위치한 복수의 취락이 결합하여 대규모 공동묘지를 조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황성동 분묘조영의 변화는 황성동 집단의 성격과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사로국내 읍락의 통합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위 취락의 경우 2세기 후엽 이전에는 다소 병렬적으로 개별취락마다 소규모로 공동묘역을 조영하다가 사로국의 국내통합력이 점차 증대되는 2세기 후엽 이후에는 복수의 취락이 결집하여 대규모의 공동묘역을 조영하면서 취락의 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취락과 취락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져 읍락의 통합이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제어] 경주 황성동, 목관묘, 목곽묘, 경주식목곽묘, 분묘의 분포정형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I. 머리말

경주 황성동에서는 서기전 1세기 후엽의 목관묘부터 3세기 후엽의 경주식목곽묘에 이르기까지 일부 공백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조영되어 경주지역¹⁾ 분묘의 전반적인 변천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분묘와 동시기의 취락과 제철유구도 인근에서 조사되어 분묘와 함께 취락과 생산시설의 변화 및 특성도 함께 살필 수 있는 유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경주 황성동의 조사와 연구는 경주지역 다른 어떤 유적보다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황성동 원삼국시대 유적의 조사와 연구는 1990년대까지 제철유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金世基 1994; 孫明助 1997) 황성동유적(제철유적)의 북편에서 분묘유적이 조사되면서 무덤의 구조에 대한 연구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2000년대 전반까지는 분묘군의 단계적 변천에 대한 연구(安在皓 1995; 車順喆 1999; 黃昌漢 2001)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이후에는 분묘를 비롯해 취락과 제철유구의 분포를 중심으로 황성동 분묘와 집단의 성격(崔景圭 2004; 林東在 2005),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전환(李在興 2001; 權志瑛 2004), 황성동 분묘의 입지적인 특성과 적석목곽묘와의 관련성(李在興 2007)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경주 황성동에서 다수 조사된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소위 목관계목곽묘²⁾)의 존재가 보여주듯이 경주지역의 경우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전환이 다른 영남지방과 달리 단절적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安在皓 1995; 李熙濬 2001; 李在興 2001; 權志瑛 2004)이 밝혀졌다. 또한 경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이혈 주·부곽식의 경주식목곽묘(황성동고분군 22호)가 조사되면서 목곽묘의 지역구분(申敬澈 1992; 李在賢 1994)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安在皓 1995)가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주식목곽묘에서 보이는 이혈 주·부곽식과 동혈 주·부곽식의 차이를 위계적인 차이로 이해(車順喆 1999; 이한상 2001; 金大煥 2002; 李在興 2006)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경주 황성동분묘의 성격은 대체로 황성동유적에 나타나는 제철생산과 관련한 집단의 분묘로 이해하고 그 위계도 하위 위계로 파악하는 것이 주된 경향(孫明助 1997; 李熙濬 2001)이다. 그러나 강변로 구간에서 조사된 방형목곽묘를 근거로 황성동 분묘의 성격과 위계를 중심집단 혹은 상위 위계로 파악(金大煥 2002)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황성동의 분묘를 비롯하여 취락과 제철생산 유적의 공간구성 변화를 통해 방형목곽묘가 등장하면서 취락과 제철생산유구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대규모 제철생산체제로 변모하였다는 견해(崔景圭 2004; 林東在 2005)가

1) 본고에서 사용하는 경주지역은 '原新羅地域'인 斯盧地域에 해당한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李熙濬 1998, 183쪽에 잘 정리되었으므로 이를 따른다. 필자도 전고(李在興 2006, 9~10쪽)에서 그 범위를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 목관계목곽묘는 2세기 중엽 다른 영남지방과 달리 유독 경주 황성동에서 보이는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安在皓 1995)으로 필자도 전고(李在興 2001)에서 이를 받아들여 사용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 개념이 다소 애매하여(이성주 1997) 최근에는 분명히 목관묘단계이고 목관묘인 경우에도 일부 목곽묘적인 요소가 있으면 목관계목곽묘로 표현하여 원래 목관계목곽묘의 개념과 다르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보인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李在興 2006을 참조). 그래서 필자는 여기서 이러한 오해를 없애고 개념상으로 더욱 명확하게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로 표현하고자 한다.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 성과로 보면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되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먼저 편년의 문제인데 필자가 전고(李在興 2006)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기존 황성동 분묘의 편년이 지닌 문제는 분묘가 연속 획기로 연결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그 변천을 살피고 있는 점이다. 특히 뚜렷하게 공백기가 존재함에도 동일단계로 파악하거나 특정시기의 분묘만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연대 폭을 길게 잡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황성동 분묘의 성격과 위계도 제철생산유적의 중요성과 방형목곽묘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중심집단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떠한 분묘 분포의 변화가 일정 부분 제철유적의 변화와 연동해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제철생산유적의 변화에 치중하는 점도 분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본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황성동의 원삼국시대 분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피고, 분묘 축조집단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분묘의 출토유물과 구조를 중심으로 편년을 제시하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황성동 분묘의 분포에서 보이는 정형성을 파악하고 주변유적과 비교를 통해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

본고에서는 평면형태, 묘광 깊이, 유물 부장양상 등과 같은 분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의 편년을 토대로 황성동 원삼국시대 변천을 살피고자 한다. 그런데 출토 유물의 경우 속성 검토와 형식설정과 같은 세부적인 편년의 절차는 지면 관계상 다소 장황하므로 본고에서는 기술하지 않는다(李在興 2006 참조).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서술내용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필자의 절대연대관을 요약해 두기로 한다. 필자의 절대연대관은 기본적으로 목곽묘의 등장을 2세기 중엽, 적석목곽묘와 낙동강 이동 토기양식의 성립을 4세기 3/4분기로 보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 조양동 38호는 서기전 1세기 후엽설(李熙濬 2002; 李在賢 2003)을 지지하고 사라리 130호는 1세기 후엽, 황성동 22호는 3세기 후엽, 월성로 가-13호는 4세기 3/4분기로 설정한다.

1. 분묘의 단계별 양상과 편년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은 크게 고식와질토기가 출토되고 목관묘가 나타나는 I 단계, 목곽묘가 등장하고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기 직전인 II 단계,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는 III 단계로 구분된다.

1) I 단계

I-1기

황성동에서 처음 원삼국시대 분묘가 등장하는 시기이며 '라' 지구 토광묘와 강변로 도로구간 목관묘 1호, 2호, 3호가 이에 해당된다³⁾. 1-1기의 목관묘는 규모도 작고 부장유물도 빈약하여 조합우각형파수호도 부장되지 않는다. 연대는 와질토기 주머니호의 가장 이른 형식, 이단경식 철모, 아직 장신화가 진행되지 않은 무경식 철촉 등으로 보아 조양동 38호와 동일한 서기전 1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I-2기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로 보는 한 경주 황성동에서는 1세기 전엽과 1세기 중엽의 분묘와 취락은 조사되지 않아 현재 공백기로 남아있다. 그런데 최근 1세기 후엽의 목관묘가 조사된 황성동 575번지유적의 남쪽에 해당하는 황성동 590번지 유적에서도 목관묘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1세기 전엽과 1세기 중엽의 목관묘가 여기에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또 통시적으로 황성동 분묘의 변천을 살펴보면 서기전 1세기 후엽부터 3세기 후엽까지 지속적으로 분묘가 축조되는데 유독 1세기 전엽과 1세기 중엽의 분묘가 없어 공백기인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시기의 유구와 유물은 경주 황성동에서 조사된 바 없으므로 공백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분묘에 비교하여 조사된 예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시기의 주거지와 제철유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I-2기는 1세기 후엽에 해당하며 그 묘역이 1-1기의 목관묘가 위치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이동한다. I-2기의 목관묘로는 황성동 575번지유적의 목관묘 1호, 2호, 7호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경주지역 목관묘에서 목곽묘적인 요소가 일부 보이기 시작하지만(李在興, 2001) 황성동의 경우 아직 목곽묘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1-1기 목관묘에서 출토되지 않던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부장되고 묘광의 규모도 다소 커진다. 연대는 구경부의 내만도가 깊어지고 구연이 외반하기 시작하는 주머니호와 구형 동체를 가지고 구경부가 외반하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로 보아 1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I-3기

I-3기는 목관묘의 마지막 단계이고 목곽묘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I-3기의 목관묘로는 황성동 575번지 목관묘 9호, 10호, 11호, 목곽묘 13호, 59호 등이 있다. 대부분은 순수한 목관묘이지만 일부 목관묘에서 토기를 비롯한 유물을 목관 내부에 부장하여 목곽묘적인 요소가 보이기도 한다⁴⁾. 연대는 고식와질토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로 보아 2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3) 서기전 1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다' 지구에서 18동이 조사되어 주거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분묘의 수가 적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분묘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라' 지구의 남쪽과 강변로 도로구간의 동쪽에 해당하는 계림고등학교 부지 내에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4) 목곽묘 13호·59호가 대표적인데 유구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고자는 목곽묘로 이해하고 있지만 필자는 매장주체부가 목곽과 달리 규모도 작고 밀폐된 상자와 같은 구조일 가능성이 크므로 목관묘로 이해한다.

2) II 단계

II-1기

영남지방에서 목곽묘가 등장하는 시기이며 황성동의 경우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목관계목곽묘)가 나타난다. II-1기의 목곽묘로는 황성동고분군 31호, 51호, 55호, 57호, 64호, 68호, 70호 등이 있다. 이러한 목곽묘의 특징은 묘광이 깊고 충전토 내부에 유물이 부장되어 목관묘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으나 매장주체부인 목곽의 규모가 커지고 대부분의 유물은 목곽 내부에 부장된다. 특히 경주지역 특유의 철모 대량부장이 이미 이시기에 이루어지는 점이 주목된다.

연대는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는 출토되지 않지만 조합우각형파수호의 퇴화형식으로 추정되는 파수부호가 부장되고 대부분의 철기가 목곽묘단계이므로 2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II-2기

목관묘의 전통은 점차 사라지고 평면형태가 방형인 목곽묘가 나타난다. II-2기의 목곽묘로는 황성동고분군 2호, 3호, 43호, 44호, 45호, 46호, 황성동 강변로 1호, 2호, 4호, 12호, 황성동 634-1번지 1호, 2호 등이 있다. II-2기의 목곽묘는 묘광 깊이가 다소 얕아지는 쪽으로 변화되고 철기의 대량부장과 함께 토기도 대량으로 부장되어 평면 ‘ㄷ’자 혹은 ‘ㄱ’자 형태 부장이 나타난다. 또 신식와질토기의 전형적인 기종인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연대는 역삼각형 동체와 집선문이 시문된 대부광구호와 편구형 동체와 직립하다가 외반하는 구경부를 지닌 노형토기로 볼 때 2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II-3기

II-3기의 목곽묘는 대형묘의 경우 유물의 부장이 앞 시기 ‘ㄷ’ 혹은 ‘ㄱ’자형 부장에서 양단부장이 되면서 평면형태가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화된다. 소형묘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II-3기의 목곽묘로는 황성동고분군 40호, 41호, 49호, 53호, 57호, 황성동 강변로 3호, 6호, 황성동 634-1번지 3호~10호 등이 있다. 연대는 마지막 단계의 대부광구호(횡구형동체)와 노형토기(역삼각형 동체, 직립하는 구연) 및 가장 이른 단계의 대부직구호로 보아 3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3) III 단계

III-1기

III-1기는 중·대형목곽묘에서 부장칸이 설치되면서 평면형태가 세장한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난다. III-1기의 목곽묘로는 황성동고분군 5호, 9호, 12호, 14호, 33호, 27호, 황성동 강변로 19호 등이 있다. 연대는 가장 이른 형식의 노형기대와 양이부호 및 횡구형 동체의 대부직구호가 출토되고 철검이 사라지고 대도가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3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Ⅲ-2기

Ⅲ-2기는 부곽과 부장칸이 상대적으로 커져 주곽과 비슷해지고 이혈 주·부곽의 경주식목곽묘도 출현한다. Ⅲ-2기의 목곽묘로는 황성동고분군 6호 7호, 8호, 10호, 13호, 16호, 17호, 22호, 25호, 29호, 30호, 35호, 36호, 59호, 69호, 황성동 1호(국립박물관 1985) 등이 있다. 연대는 건부가 뚜렷해지고 대각이 높아지는 노형기대, 구경이 직립하고 구형과 장동형의 동체를 지닌 대부직구호, 평저의 양이부호 등으로 보아 3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2. 시기별 분묘의 분포와 변화

경주 황성동의 원삼국시대 분묘는 분묘끼리 중복 조영되지 않고 그 분포도 시기마다 지점을 달리하면서 일정한 구역으로 구분되면서 조영된다. 서기전 1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I-1기에는 취락(황성동유적 다 지구)의 남쪽에 목관묘가 분포한다. 또 구조와 유물 부장에서 차이가 보이지 않는 동일한 위계의 목관묘로 구성된다. 그러다가 1세기 후엽과 2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I-2기와 I-3기가 되면 기존의 목관묘군에서 크게 벗어난 황성동 575번지유적에 목관묘가 위치하게 된다. 또 목관묘 사이에서 규모에 따른 유물 부장차이가 다소 보이지만 동일한 공동묘역에 조영된다. 목곽묘단계에 해당하는 II-1기에는 기존의 황성동 575일원에서 동쪽으로 100m정도 떨어진 황성동 고분군 남쪽에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가 조영된다. 앞 시기에 보였던 규모에 따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뚜렷한 구역 구분은 없이 상위 위계의 목곽묘와 하위 위계의 목곽묘가 혼재한다.

이렇게 I-1기부터 II-1기까지는 시기마다 지점을 달리하면서 규모와 유물의 부장에 다소의 차이가 보일지언정 동일한 공동묘역에 분묘가 조영된다. 그런데 II-2기와 II-3기에 들어서면 분묘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구조와 유물의 부장에서 명확한 차이가 보이는 목곽묘가 두 개 지점으로 구분되어 조영된다. II-2기와 II-3기에는 먼저 기존의 황성동고분군 남쪽에 위치하던 목곽묘군으로부터 그 동쪽에 목곽묘가 조영된다. 여기서 서쪽으로 400m 떨어진 황성동 575번지유적 서쪽과 황성동 강변로 및 황성동 634번지유적 일원에는 이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목곽묘군이 조영된다.

전자(황성동고분군 동쪽의 목곽묘)는 앞 시기의 목곽묘처럼 목관묘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묘광은 여전히 깊은 편이다. 또 유물도 토기와 장신구는 거의 부장되지 않고 철기를 위주로 부장된다. 이에 반해 후자(황성동 575번지유적 서쪽 외)는 묘광의 깊이도 상대적으로 얕은 편이고 철기뿐 아니라 다양한 토기와 함께 장신구류가 부장된다. 또 철기도 철모의 대량부장은 물론 재갈도 부장된다. 그런데 두 묘역 모두 목곽묘 규모와 유물 부장에서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상위 위계의 목곽묘와 하위 위계의 목곽묘가 동일한 묘역에 같이 조영된다.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는 III기에도 동과 서로 구분되어 경주식목곽묘가 조영된다. 동쪽의 경주식목곽묘군은 현재 황성동 고분군의 서쪽과 황성동 575번지 유적의 동쪽에 걸쳐 위치하고 서쪽의 경주식목곽묘군은 황성동 1호를 포함하여 강변로구간에 산재해 있다.

Ⅲ.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성격

1. 주변유적과의 비교로 본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특성

1) 분묘의 분포 정형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는 김해 대성동, 울산 하대, 포항 옥성리 등과 달리 분묘끼리 중복 조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특징은 경주 황성동을 비롯하여 경주 사라리, 덕천리, 조양동, 울산 중산리 등 경주지역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복이 없이 분묘가 조영된다는 것은 선대의 분묘를 인식하고 축조하였다는 것으로 별다른 의미를 지닌다. 김해 대성동, 울산 하대, 포항 옥성리 등에서는 목곽묘 및 주·부곽식 목곽묘의 등장기에 선대 분묘를 파괴하면서 중복 조영되는 점(申敬澈 1995)을 고려하면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조영은 연속적인 계승관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성동의 원삼국시대 분묘는 등장기 목곽묘에서 목관묘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고 새로운 방형 목곽묘로의 전환도 영남지방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느리게 진행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분포는 시기마다 지점을 달리하면서 조영되는 분포상 특징을 보인다. 경산 임당유적은 최근에 조사된 신대리유적의 목관묘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문토기가 출토되는 초기 목관묘로부터 고식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목관묘에 이르기까지 5~6개의 군집으로 목관묘군이 조영된다. 그러다가 목곽묘단계에 3개의 군으로 결집되어 이전 단계보다 더욱 통합된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목곽군은 고총단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李熙濬 2004).

이와 달리 경주 황성동의 경우는 초기 목관묘부터 지속적으로 조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고식와질토기의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서기전 1세기 후엽부터 목관묘가 조영된다. 또 시기마다 묘역의 변화는 보이지만 목관묘의 조영 이후 경주 황성동에서 목곽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Ⅱ-1기까지는 하나의 공동 묘역을 유지하다가 방형 목곽묘가 나타나는 Ⅱ-2기부터 경주식목곽묘가 축조되는 Ⅲ기에는 두 개의 묘역으로 분화된다. 이렇게 분묘가 조영되는 초기부터 다수의 집단 혹은 취락이 결집되어 대규모 묘역을 이루는 경산 임당지구와 하나 내지 두 개의 집단 혹은 취락이 결집하여 묘역을 이루는 경주 황성동의 차이는 그 축조집단의 위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경산 임당지구 같은 중심지구와 경주 황성동과 같은 주변지구의 격차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2) 목관묘 단계(Ⅰ기, 서기전 1세기 중엽~2세기 전엽)

황성동 목관묘의 규모는 경주지역의 일반적인 목관묘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고 요갱이 설치되지 않는다. 또 출토유물의 경우도 동경과 대구 같은 청동기류는 차치하더라도 위세품의 성격이 강한 철검과 철모가 모두 복수 부장되는 예가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경주 황성동 목관묘의 규모나 그 출토유물의 양과 질은 경주지역의 목관묘에서 하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목곽묘 단계(Ⅱ기, 2세기 중엽~3세기 전엽)

황성동에서 목곽묘로의 전환은 울산 중산리와 마찬가지로 목곽묘단계에 진입하였음에도 목관묘를 고수하는 울산 다운동보다는 빠르게 진행된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형목곽묘의 등장은 영남 지방의 다른 지역보다 다소 늦다.

황성동의 목곽묘 중에서 규모가 큰 대형묘를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의 대형 목곽묘와 비교해보면 규모가 작고 경주 사라리, 경주 조양동 울산 중산리 등의 대형묘와 비슷한 규모이다. 부장 유물도 철검과 도가 복수 부장되는 경우가 적고 쇠스랑과 따비와 같은 기경구는 거의 부장되지 않는다. 또한 판상철부와 주조철부 같은 철소재의 부장도 현저하게 적고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에서는 장신구가 다량으로 부장되지만 황성동 목곽묘에서는 거의 부장되지 않아 그 경제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위세적인 성격도 약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묘의 규모와 부장유물을 주변의 목곽묘와 비교한 결과 황성동 목곽묘는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의 대형목곽묘와 동일한 평면형태를 가지고 유물의 부장형태도 중대형 방형목곽묘에서 나타나는 ‘ㄷ’자형으로 유사하지만 그 규모와 부장유물의 내용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보다 위계가 낮은 인근 울산 중산리, 경주 조양동, 사라리 등과 유사한 중하위 집단의 분묘로 이해된다. 이러한 황성동 목곽묘의 위계는 그 분포 정형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의 대형목곽묘는 구릉의 정선부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배타적인 묘역을 가지는데 반해 황성동의 경우 대형묘와 소형묘가 혼재되고 있어 묘역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는 점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경주식목곽묘 단계(Ⅲ기, 3세기 중엽~3세기 후엽)

황성동의 경주식목곽묘는 황성동 22호처럼 상위 위계에 속하는 이혈의 경주식목곽묘도 있지만 경주지역의 다른 분묘와 비교하면 구조와 규모 및 부장유물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먼저 황성동의 경주식목곽묘의 규모는 경주 구어리 1호, 경주 구정동 1~3호, 경주 덕천리 120호 등과 같은 상위 위계에 해당하는 경주식목곽묘와 비교하여 작은 편이다. 그 구조도 경주지역의 다른 경주식목곽묘와 달리 동혈의 ‘주·부곽식 목곽묘’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독립적인 부곽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⁵⁾. 또한 경주 구어리 1호 같은 상위 위계의 경주식목곽묘에서 보이는 이중곽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석단 및 역석시상이 보이지 않는다. 유물의 부장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분명한데 경주식목곽묘 특유의 철모부장 양상인 철도침목형의 철모부장과 갑주의 부장이 보이지 않는 점도 황성동 경주식목곽묘 축조집단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5) 경주식목곽묘 중에서 동혈 주·부곽식의 경우 실재적인 목곽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주곽과 부곽의 구조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주곽과 부곽이 서로 간격이 없이 말착하여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곽과 별도의 부곽이 사용된 경우와 주곽의 한쪽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한 부장칸은 구별가능하다. 경주 황성동의 경주식목곽묘는 이혈의 주·부곽식목곽묘를 제외하고 세장한 목곽을 중간에 목관으로 분할하여 한쪽에 피장자를 안치하고 나머지 공간에 유물을 부장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커서 유물 부장을 위한 독립적인 목관인 부곽이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성격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는 서기전 1세기 후엽에는 소규모 목관묘군이 남쪽에 위치하다가 1세기 후엽부터 분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조영된다. 이러한 황성동 분묘조영의 변화는 황성동 집단의 성격과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1세기 후엽부터 분묘의 조영이 기존 취락의 북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선 이 시기에 이미 경주 황성동 집단 혹은 취락의 공동묘역이 이곳에 고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주 황성동에서 새로운 방형의 목곽묘와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고 생산유구도 대규모 분업화된 철기 생산체제로 변모하는 2세기 후엽 이후에는 동일한 묘역에서 다소 성격이 차이가 있는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고 분묘의 수도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황성동집단의 분화 혹은 계층의 분화로만 이해되지는 않고 이 시기에 들어 황성동을 비롯해 인근에 위치한 복수의 취락이 결합하여 대규모 공동묘역을 조영한 결과(李賢惠 2008)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로국내 읍락의 통합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하위 취락의 경우 2세기 후엽 이전에는 다소 병렬적으로 개별 취락마다 소규모로 공동묘역을 조영하다가 사로국의 국내통합력이 점차 증대되는 2세기 후엽 이후 복수의 취락이 결집하여 한층 규모가 커진 공동묘역을 조영하면서 취락의 규모 자체도 확대될 뿐 아니라 취락과 취락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져 읍락의 통합이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 시기에 황성동에서 대규모의 제철생산체제가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삼국시대의 고총군과 달리 원삼국시대의 분묘군은 개별 분묘의 차이보다는 분묘군 전체의 집단성이 더욱 강조(李熙濬 2007)되는 계층화된 집단의 묘역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황성동의 분묘는 방형목곽묘와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는 2세기 후엽~3세기 후엽, 그 발전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에도 경주지역의 다른 원삼국시대 분묘군과 비교하여 결코 두드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주 황성동과 마찬가지로 일부 공백기는 있지만 1세기 중엽부터 지속적으로 원삼국시대 분묘가 조영되는 경주 덕천리와 비교하면 후자는 개별 분묘의 경우 황성동의 분묘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분묘군 전체의 규모와 내용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황성동 집단은 1세기 중엽 이후 지속적으로 분묘를 조영하기는 하지만 그 위상은 하위 위계에 속하였다고 이해된다.

이처럼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는 서기전 1세기 후엽부터 3세기 대까지 지속적으로 조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계가 하위 위계인 점은 그 피장자가 철 생산과 관련된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즉 경주 황성동일대의 제철유적은 대단위 철기생산 유적이기는 하지만 분업화된 철 생산체제 아래에서 주로 철 소재의 생산을 담당하였던 제철유적이며 그 위계도 하위 위계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이다⁶⁾.

6) 제철은 철산지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원료의 입수단계부터 광역적인 교역망에 의존하고 그 제작에도 고도의 기술과 생산체제가 필요하므로 황성동유적과 같은 개별 읍락단위에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결국 철광석의 확보, 연료가 되는 목탄의 공급, 중간소재와 최종생산품의 유통 등 각 생산 및 유통 단계별로 제철생산체제를 통제하고 조직화하는 것은 읍락단위를 넘어선 더욱 광역화 된 단위에서 이루어진다(李在興 200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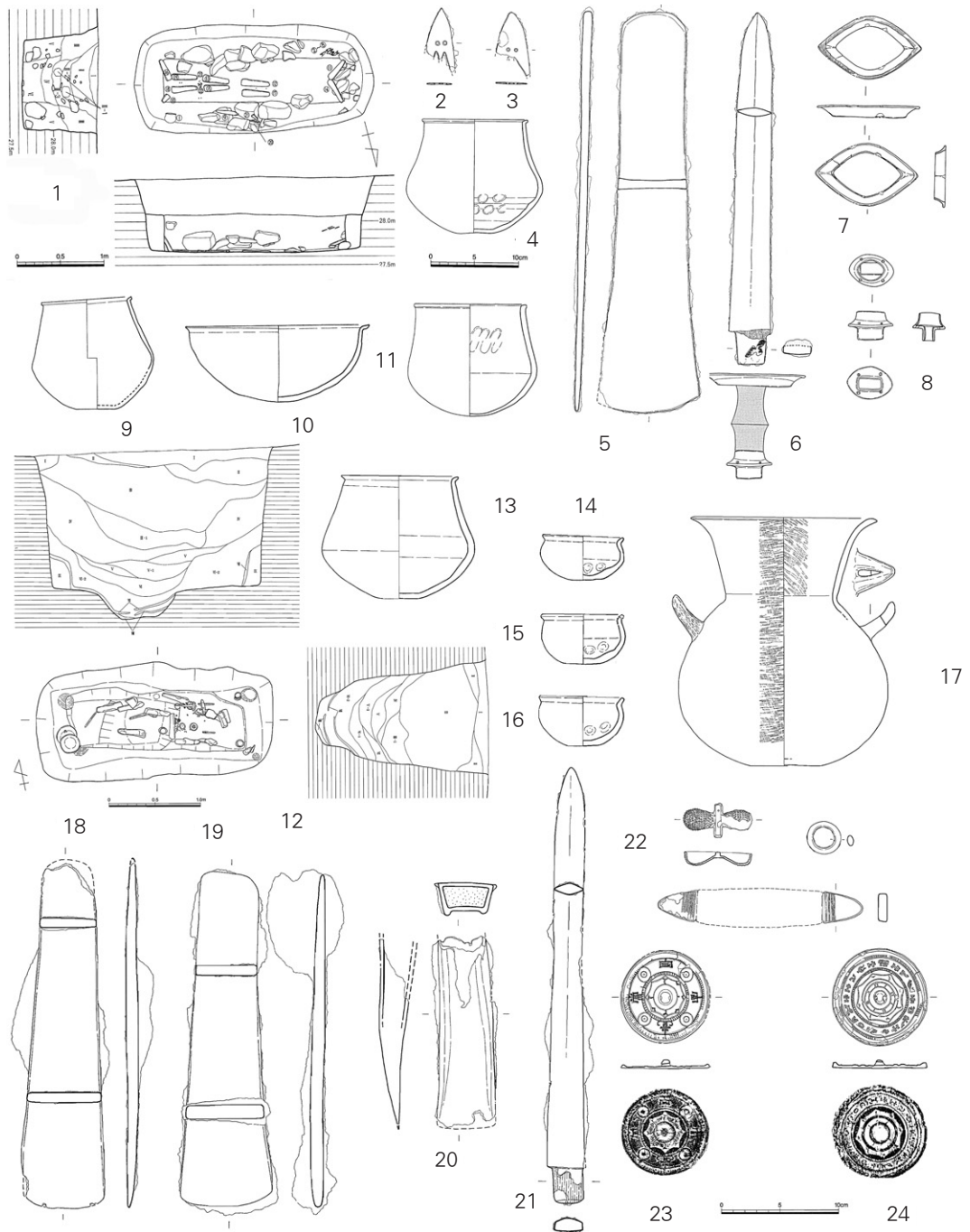
Ⅳ. 맺음말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는 서기전 1세기 후엽에 소규모 목관묘가 조영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다. 1세기 후엽부터 목관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공동묘역이 고정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분묘가 조영된다. 2세기 중엽에는 목관묘의 전통이 강한 목곽묘가 등장하고 2세기 후엽에는 본격적으로 목곽묘가 조영되면서 성격이 판이한 두 개 구역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묘역의 구분은 경주식목곽묘가 축조되는 3세기대에도 지속된다. 이는 이 시기에 들어와 황성동을 비롯해 인근에 위치한 복수의 취락이 결합하여 대규모 공동묘지를 조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황성동 분묘조영의 변화는 황성동 집단의 성격과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사로국내 읍락의 통합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위 취락의 경우 2세기 후엽 이전에는 다소 병렬적으로 개별취락마다 소규모로 공동묘역을 조영하다가 사로국의 국내 통합력이 점차 증대되는 2세기 후엽 이후에는 복수의 취락이 결집하여 대규모의 공동묘역을 조영하면서 취락의 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취락과 취락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져 읍락의 통합이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 國立中央博物館, 1985, 「慶州隍城洞遺蹟發掘調査報告」『國立博物館 調査報告』第17冊.
- 權志瑛, 2004, 「弁·辰韓社會의 發展樣相에 대한 研究-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轉換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考古學科 碩士學位論文.
- 金大煥, 2002, 「지배층묘를 통해 본 新羅 중심지역의 형성」『科技考古研究』8.
- 金世基, 1994, 「隍城洞 原三國 聚落址의 性格」『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申敬澈, 1992, 「金海禮安里 160號墳에 대하여 -古墳의 發生과 관련하여」『伽倻考古學論叢』.
- _____, 1995, 「三韓·三國時代의 東萊」『東萊區誌』, 東萊區誌刊行委員會.
- 安在皓, 1995, 「木棺墓에서 木槨墓로-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新羅文化』12.
- 李盛周, 1997, 「慶州 隍城洞古墳群에 대하여-蔚山 中山里遺蹟과 茶雲洞遺蹟에 대한 檢討」『新羅文化』14.
- 李在賢, 1994, 「嶺南地域 木槨墓에 대한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李在興, 2001, 「목관계목곽묘의 등장과 배경」『嶺南文化財研究』14.
- _____, 2006, 「慶州地域 木槨墓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7,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출현과정에 대한 일고찰」『嶺南考古學』43.
- _____, 2009, 「경주와 경산지역 중심지구로 본 4~5세기 신라의 변모」『한국고고학보』70.
- 이한상, 2001, 「墳墓資料로 본 4~5世紀代 경주와 주변지역」『國家形成期 慶州와 周邊地域』(한국상고사학회 연구총서).
- 李賢惠, 2008, 「고고학자료로 본 斯盧國 六村」『한국고대사연구』52.
- 李熙濬, 2001, 「新羅의 墳墓」『東アジアと日本考古學 I (墓制①)』, 後藤直·茂木雅博編(同成社).
- _____, 2002, 「초기 진·변한의 고고학적 논의」『진·변한사 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_____, 2004, 「경산지역 고대정치체의 성립과 변천」『嶺南考古學』34.
- _____, 2007, 『신라고고학연구』서울: 사회평론.
- 林東在, 2005,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孫明助, 1997, 「경주황성동제철유적의 성격에 대하여」『新羅文化』14.
- _____, 2006, 「古代鍛冶遺蹟의 諸樣相」『科技考古研究』12.
- 車順喆, 1999, 「同穴主副槨式 木槨墓 研究-洛東江東岸地域을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崔景圭, 2004, 「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黃昌漢, 2002, 「第Ⅳ章 考察」『慶州隍城洞古墳群』,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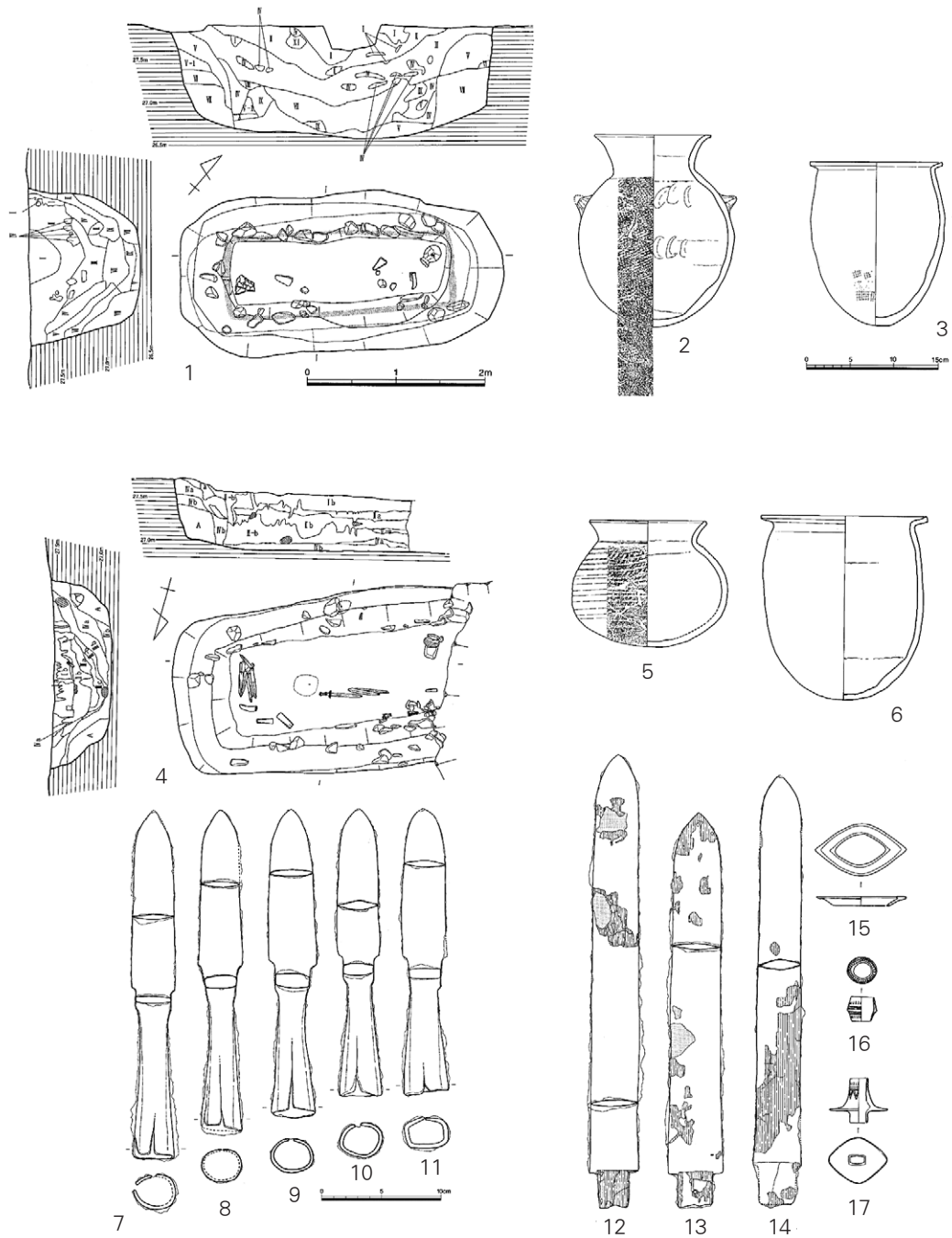


〈그림 1〉 I-1기 유구와 유물 및 조양동 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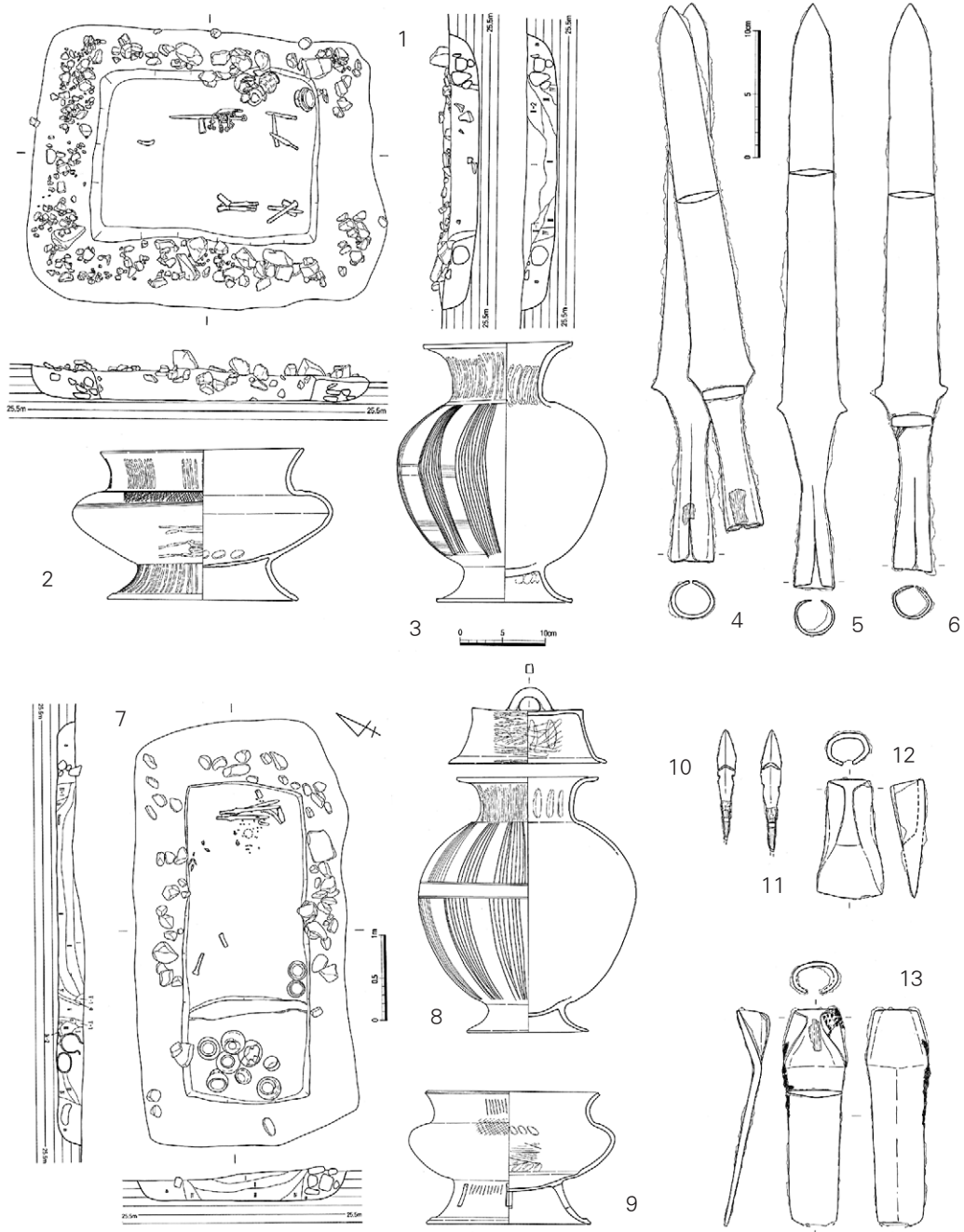
(1~5: 강변로 1호목관묘, 6~8, 11: 강변로 3호목관묘, 9,10: II-다-5호 주거지, 12~24: 조양동 38, 축척 유구-1/80, 토기-1/8, 금속-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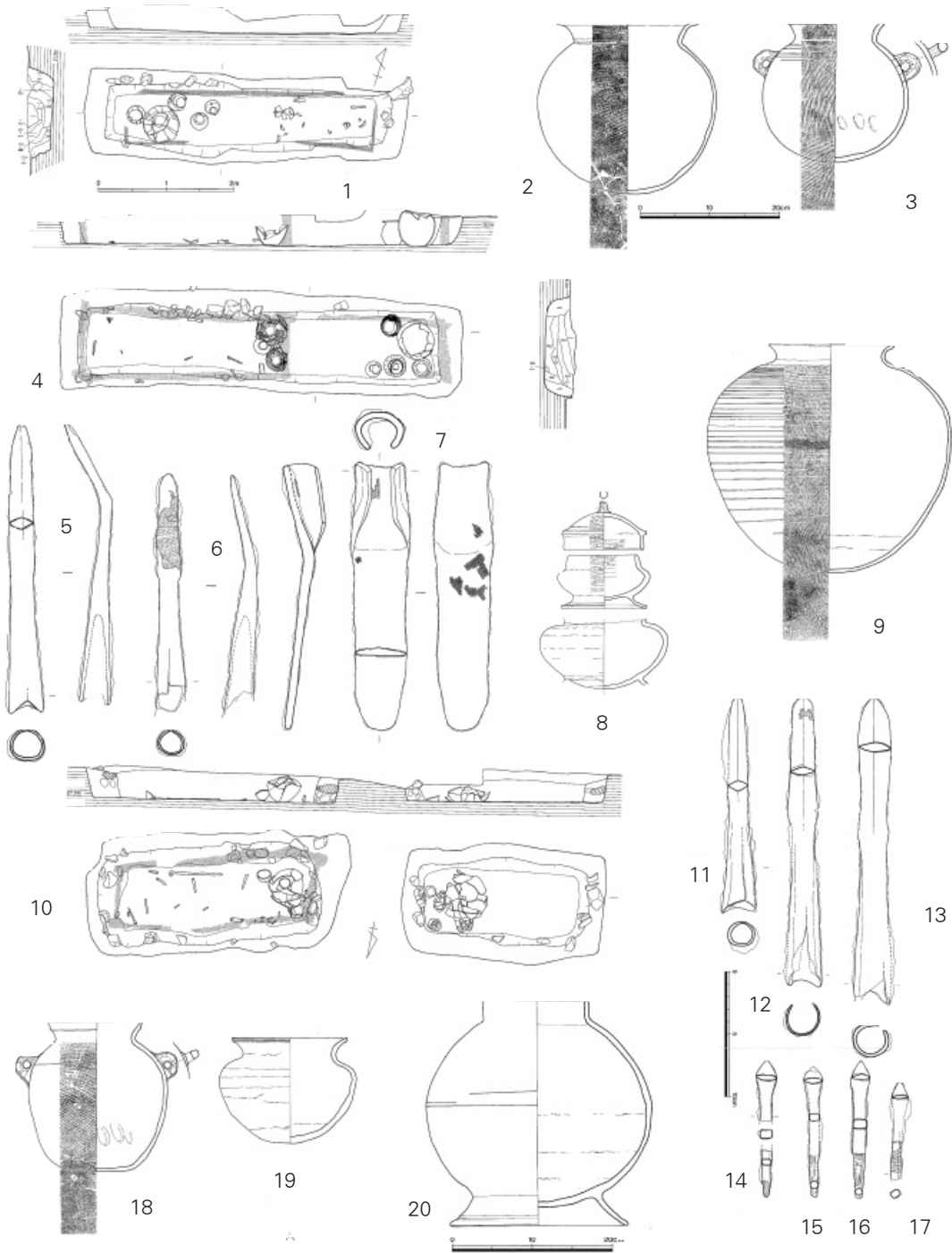
〈그림 2〉 I-2기 (1·4: 575번지 7호목관묘, 3: 2호목관묘)와 I-3기(2: 575번지 13호목관묘, 5: 9호 목관묘)



〈그림 3〉Ⅱ-1기 유구와 유물 (1~3: 황성동 31호, 4~17: 황성동 68호, 축척 유구-1/80, 토기-1/8, 금속-1/6)



〈그림 4〉 Ⅱ-2기(1~6: 강변로 1호 목곽묘)와 Ⅱ-3기(7~13: 강변로 3호 목곽묘) 유구와 유물(축척 유구 1/80 토기-1/8, 철기-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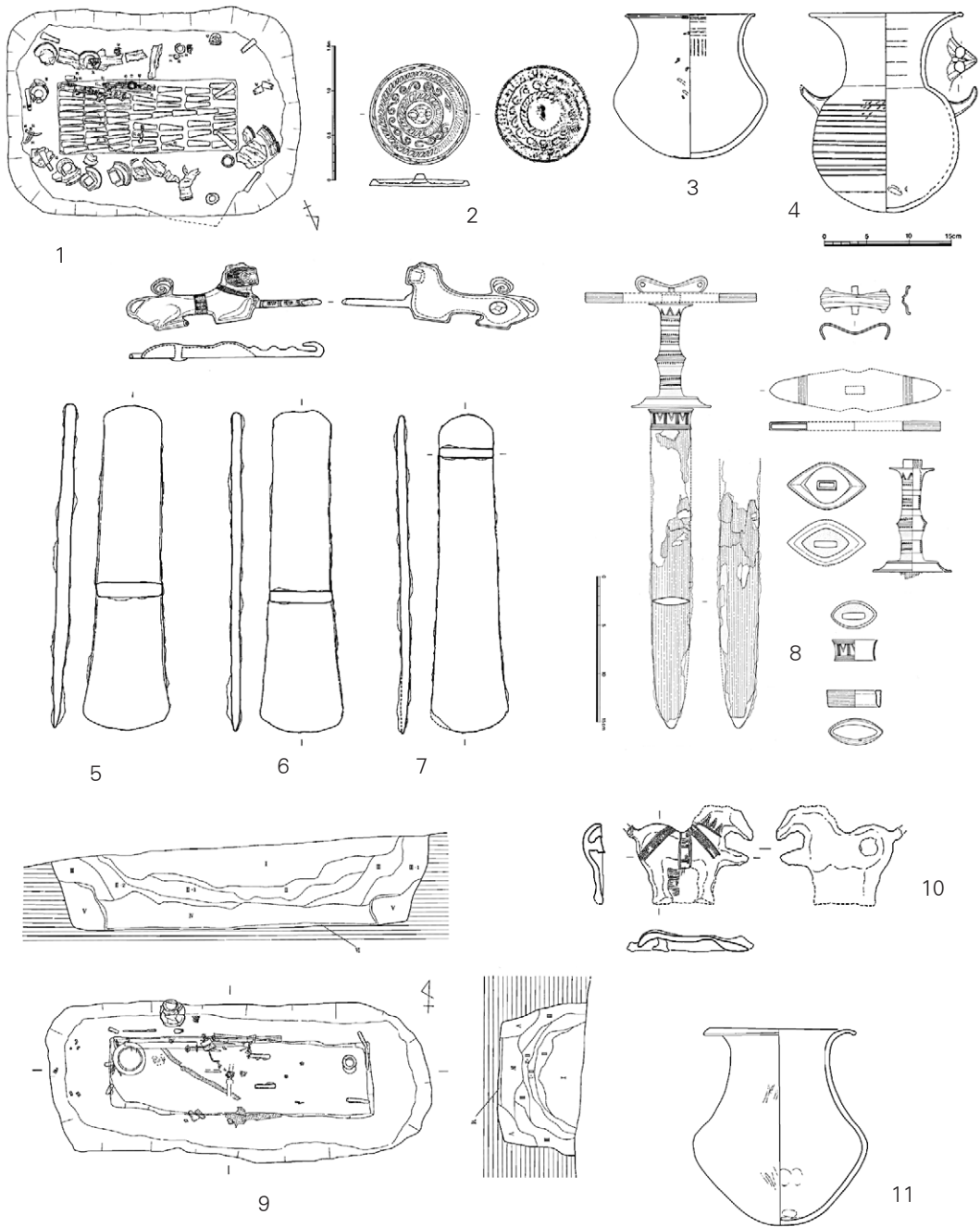
〈그림 5〉 Ⅲ-1기(1~3: 황성동 27호)와 Ⅲ-2기(4~9: 황성동 33호, 10~17: 황성동 22호) 유구와 유물(유구-1/100, 토기-1/8, 철기-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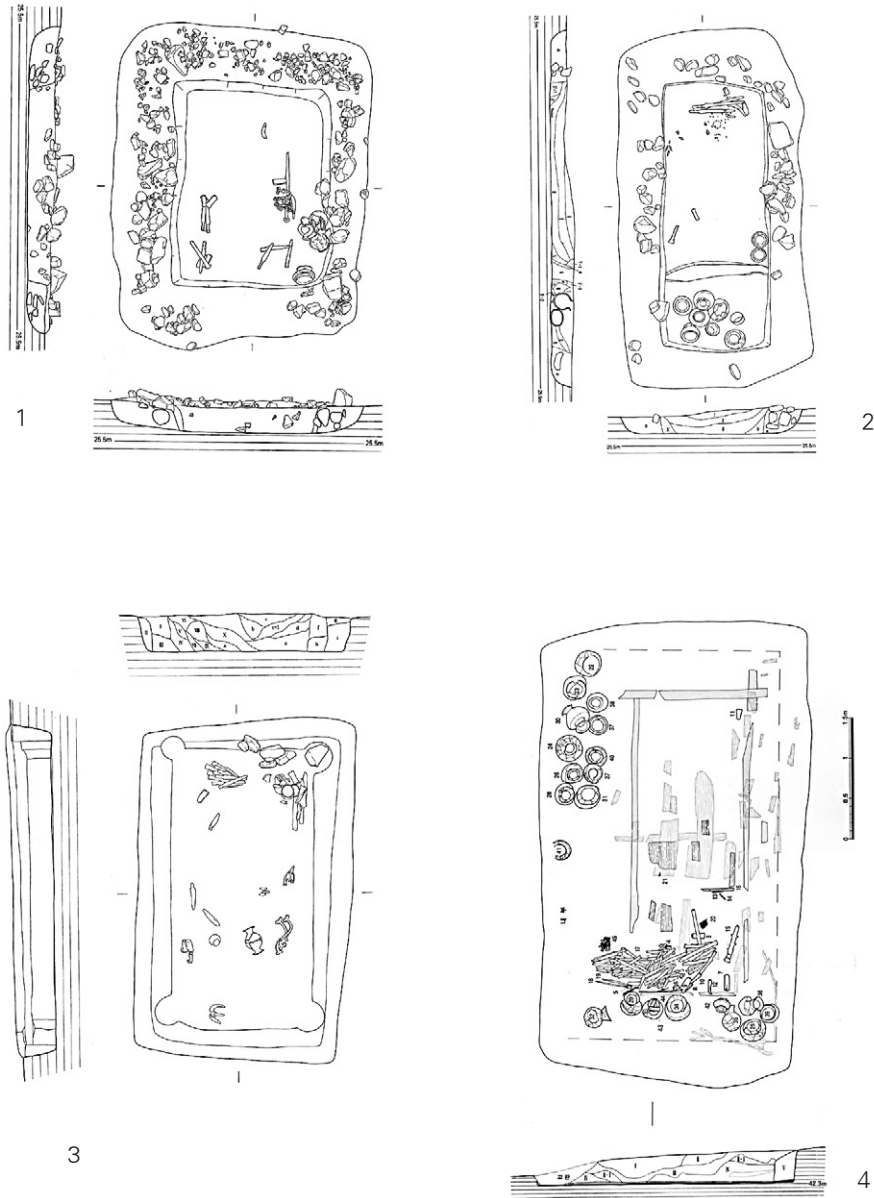
〈그림 6〉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분포(축척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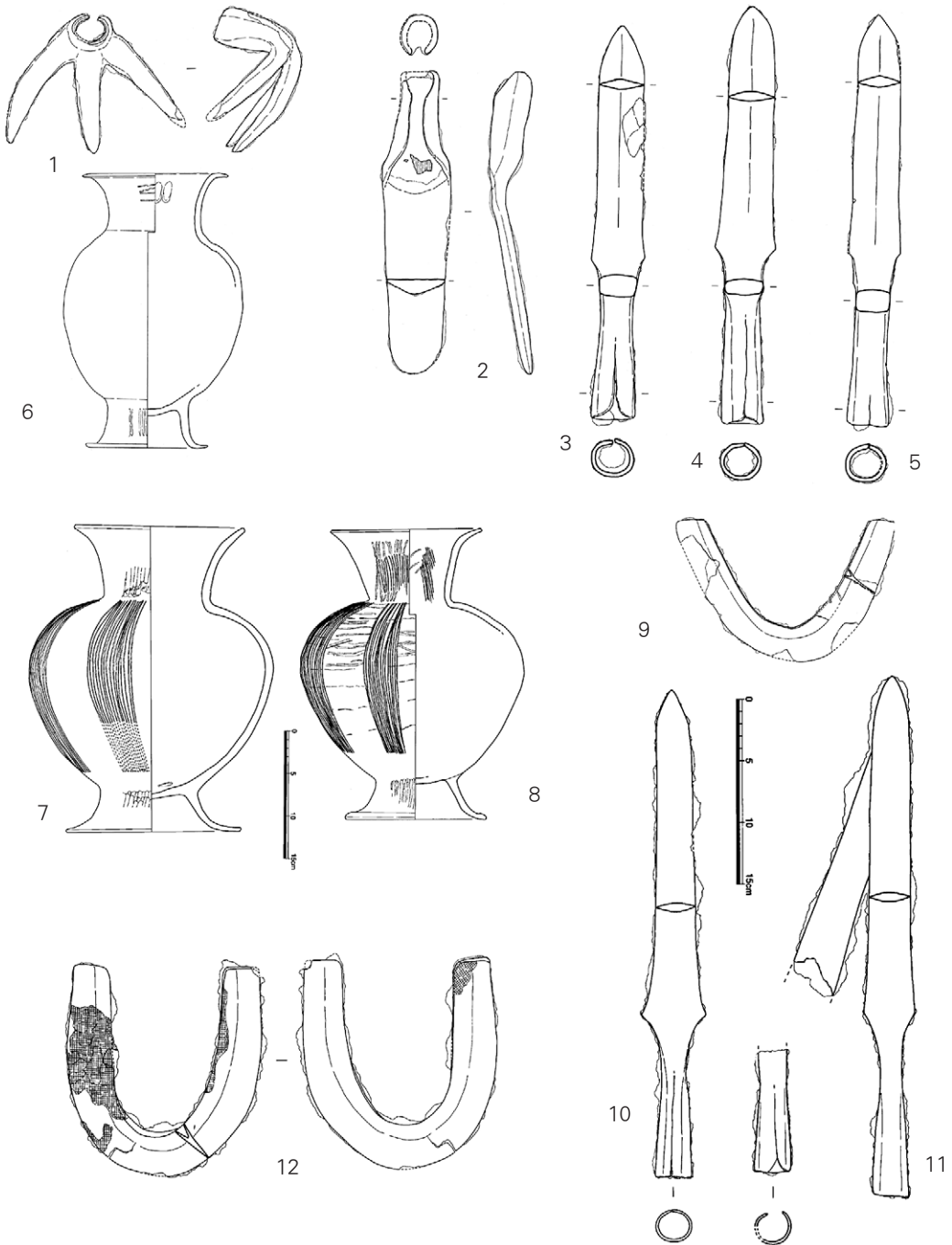
〈그림 7〉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 분포의 변화(축척 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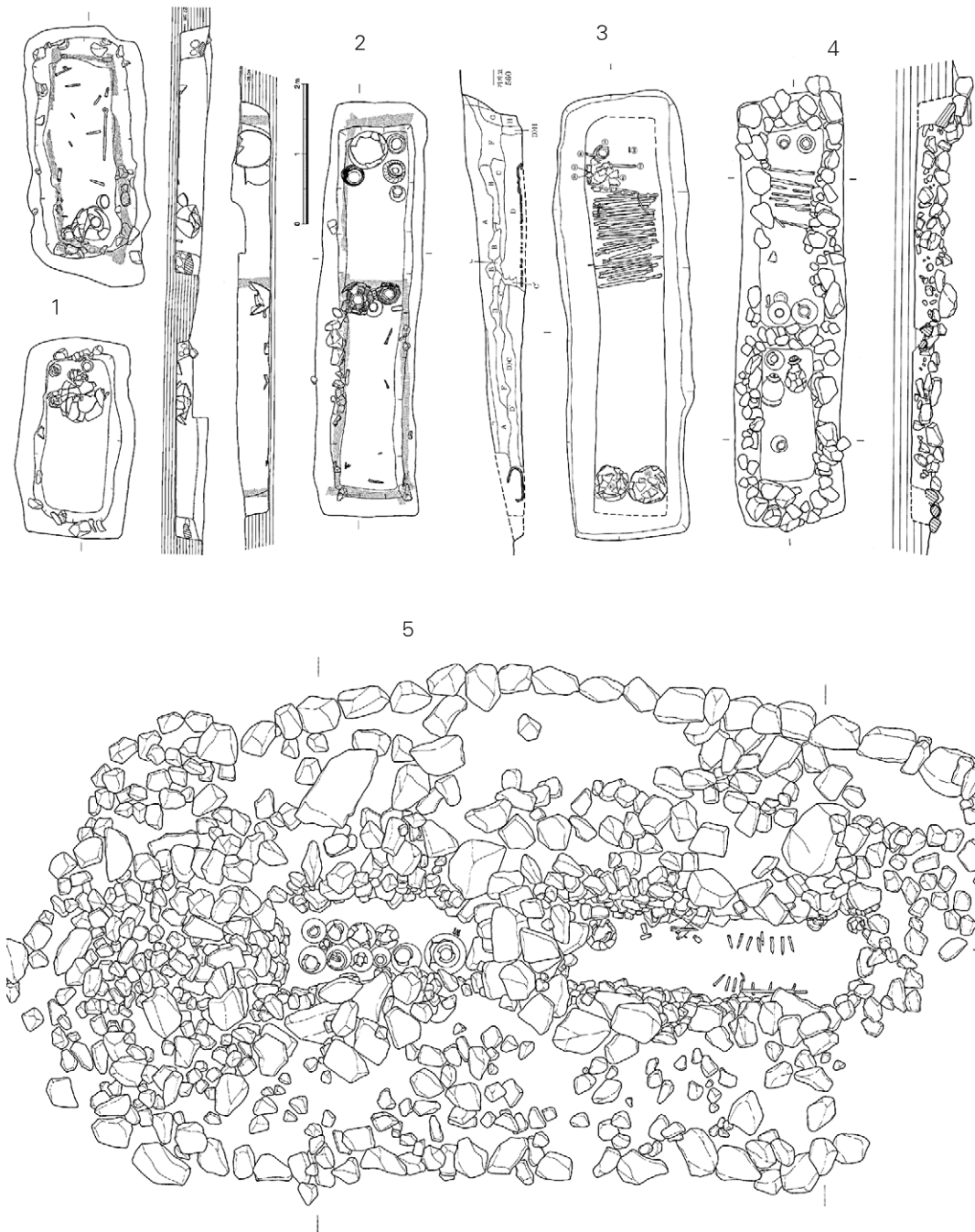
〈그림 8〉 사라리 130호(1~8)와 조양동 60호(9~11, 축척 유구-1/80, 토기-1/8, 금속-1/6)



〈그림 9〉 황성동과 주변지역의 Ⅱ기 목곽묘
(1: 강변로 1호, 2: 강변로 3호, 3: 중산리 Ⅶ-4호, 4: 옥성리 78호, 축척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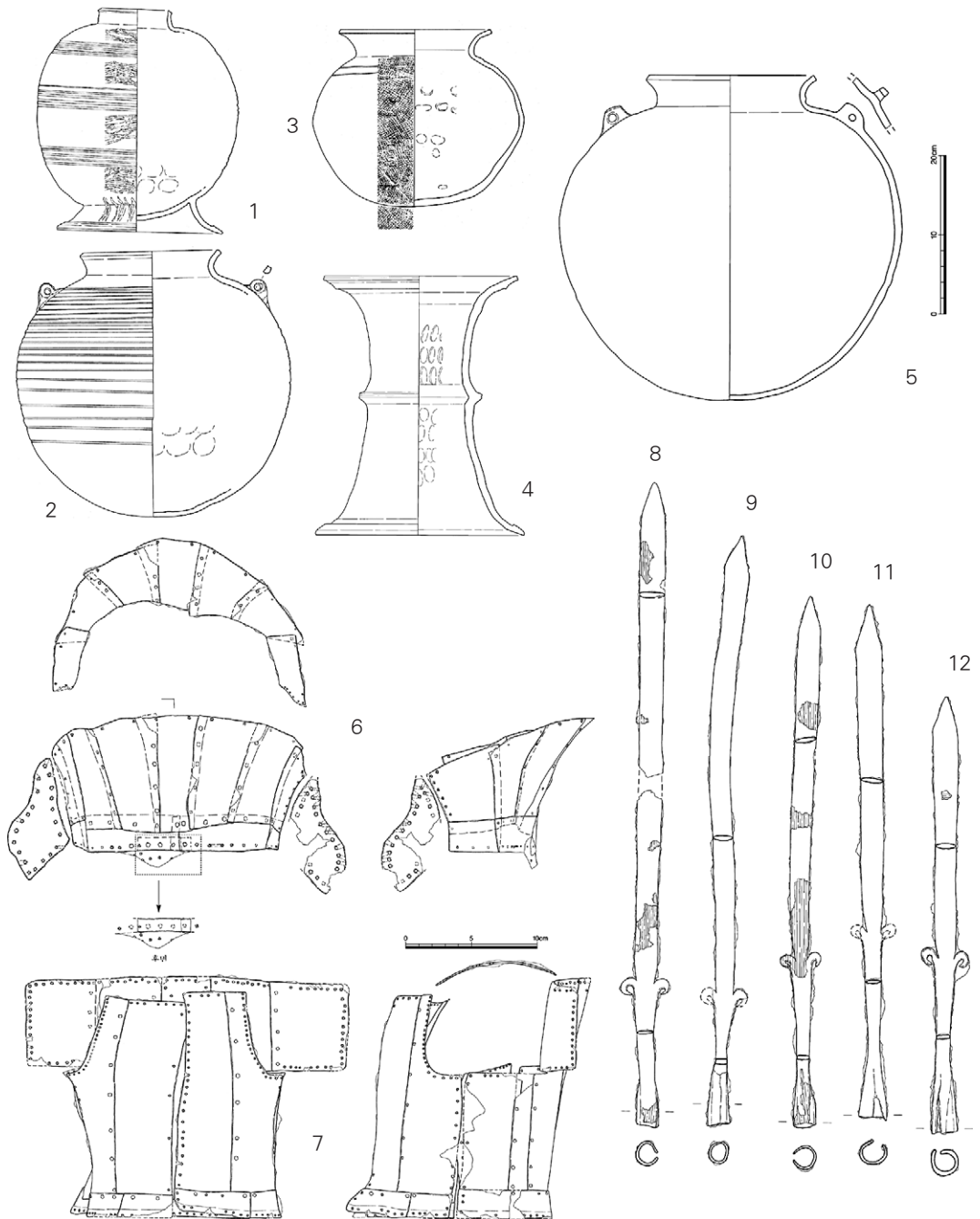


〈그림 10〉 주변지역 Ⅱ기 목곽묘 출토유물
(1~6: 중산리 Ⅶ-4호, 7~11: 옥성리 78호, 12: 옥성리 74호, 토기-1/8, 철기-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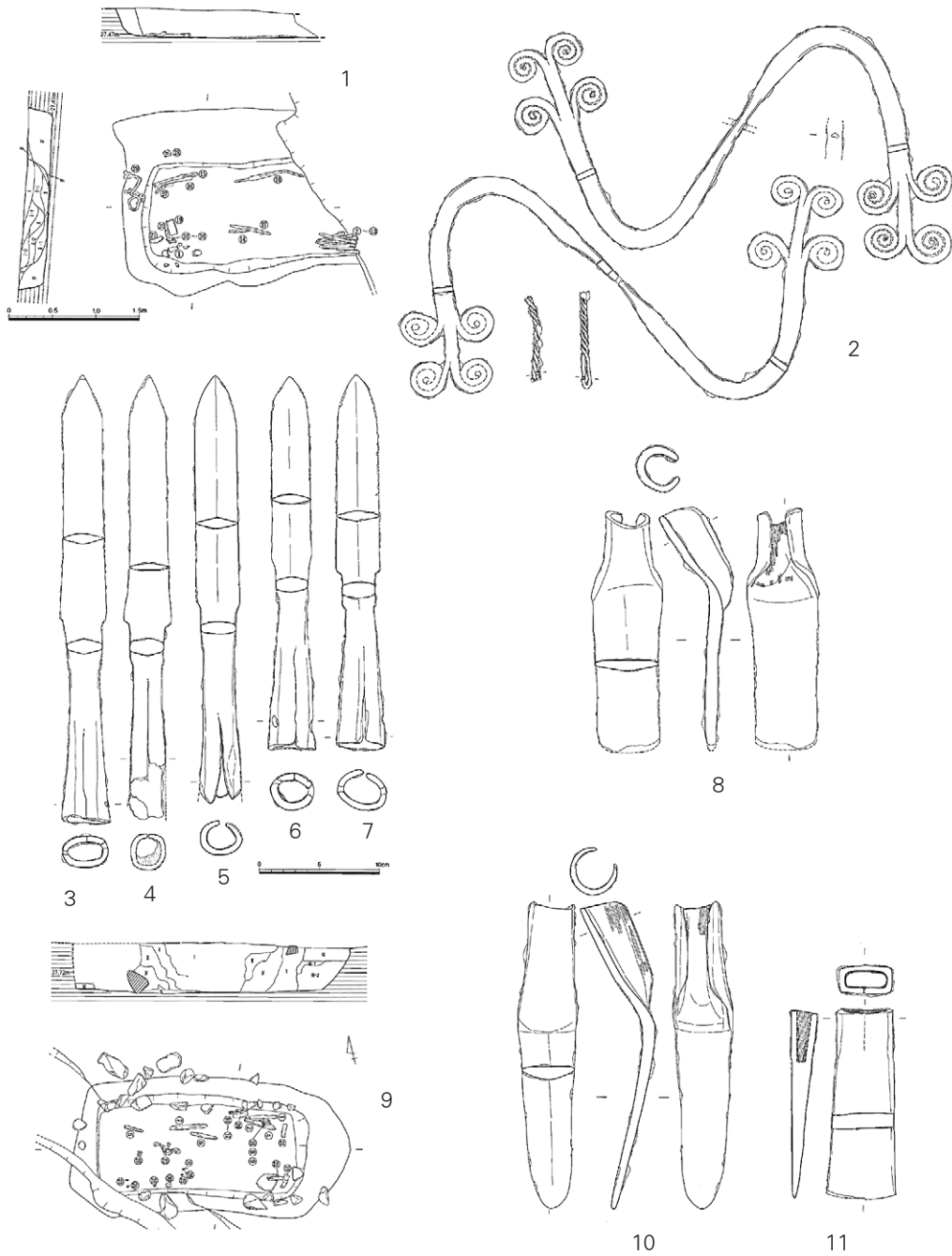
〈그림 11〉 황성동과 주변지역 Ⅲ기 목곽묘

(1: 황성동 22호, 2: 황성동 33호, 3: 구정동 2호, 4: 중산리 I A-23호, 5: 중산리 I A-26호, 축척 1/100)



〈그림 12〉 주변지역 Ⅲ기 목곽묘 출토유물

(1,2: 중산리 I A-23호, 3: 중산리 I A-26호, 4,8~11: 구정동 2호, 5~7: 구정동 3호, 토기-1/8, 철기-1/6)



〈그림 13〉 황성동 Ⅱ-2·3기의 동쪽 목곽묘

(1~8: Ⅱ-2기 황성동2호, Ⅱ-3기, 9~11: 황성동46호, 축척 유구-1/80, 철기-1/6)

경주 황성동 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

金羅英*

〈 목 차 〉

I. 머리말	1. 출토 유물 검토
II. 주거지의 구조	2. 주거지의 단계
1. 평면형태	IV. 주거지의 변화상
2. 면적	V. 황성동 주거지의 성격
3. 노시설	VI. 맺음말
III. 주거지의 편년	

요 약

그동안 황성동 유적의 주거지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인 틀은 정립되었지만,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검토는 다소 미흡하였다. 본 논고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황성동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출토유물의 양상을 검토 한 후 주거지의 시기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고, 설정된 각 단계별 주거지의 변화상과 함께 주변 취락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비교 검토하였다. 아울러 황성동유적의 각 단계별 주거지가 시기에 따라 어떤 성격을 띠는지도 검토해 보았다.

대체로 각 단계별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은 삼한시대의 주변 취락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와 동일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황성동유적이 철기 생산과 관련된 특수 기능취락이라는 점에서 주거지의 기능과 성격이 일반 취락유적에서 확인되는 양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각 단계별 주거지의 기능과 성격은 철기 생산유구의 분화와 발달과정에 따라서 그 양상을 달리하는데, 1단계 주거지는 철기 생산의 공간이 외부로 분리되기 전의 단계로 보이며, 주거지 내부에서 소규모 단야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수 기능 주거의 성격을 띠고 있다. 2단계와 3단계 주거지의 성격은 내부에서 철기 생산과 관련된 자료의 출토비율이 낮고, 주거지의 배치가 철기 생산유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로 일반 주거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원형 주거지, 방형 주거지, 지상식 주거지, 특수 기능 주거, 일반 주거

* (재)울산문화재단연구원

I. 머리말

경주 황성동 유적은 1~4세기대에 걸쳐 형성된 주거지와 분묘, 그리고 철 생산과 관련된 단야로와 용해로, 폐기장 등이 조사된 대규모 철기 생산 취락지이다. 이곳은 철기 생산역을 중심으로 분묘역과 주거역이 공간적 배치를 이루고 있어 삼한시대 특수 기능 취락의 형성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그동안 황성동 유적에 대한 연구는 분묘¹⁾와 제철유구²⁾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삼한시대 황성동 유적의 성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³⁾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황성동 취락의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주거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그 이유는 황성동 유적에서 확인된 분묘와 철기 생산 유구에 비해서 조사된 주거지 수가 적고 이와 비교할만한 주변의 취락 유적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황성동 유적 주거지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세기⁴⁾는 황성동 다지구의 원형 주거지군에서 확인된 철기 제작과 관련된 모룻돌, 구슬형 철괴, 철재, 그리고 강력한 불을 피운 爐址 등의 양상을 통해 주거지 내에서 소규모 단야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 다지구 원형 주거지군의 성격을 동질성이 강한 철기 제작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철기 제작 마을로 파악하였다.

최경규⁵⁾는 황성동 주거지를 크게 A·B의 2단계, 분묘를 I·II·III·IV의 4단계, 제철 유구를 가·나·다·라의 4단계로 각각 설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황성동 유적의 시기를 크게 1기와 2기로 구분하였다. A단계의 주거지는 내부에서 소규모 단야 공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B단계의 주거지는 철 생산 공간이 외부로 확장됨에 따라 제철 공인들의 전용 주거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B단계 주거지의 특징을 방형 주거지의 출현, 면적의 확대, 온돌시설(쪽구들)의

-
- 1) 安在皓, 1995, 「慶州 隍城洞墳墓群에 대하여」『新羅文化』第14輯.
車順喆, 1999, 「同穴主副槨式 木槨墓 研究-洛東江東岸地域을 中心으로-」, 慶星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在興, 2001, 「목관계목곽묘의 등장과 배경」『嶺南文化財研究院』14.
_____, 2006, 「慶州地域 木槨墓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_____, 2007,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출현과정에 대한 일고찰」『嶺南考古學』43.
黃昌漢, 2002, 「Ⅳ. 考察」『隍城洞古墳群」,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博物館.
 - 2) 孫明助, 1996, 「韓半島 中·南部地域 古代鐵器生産技術과 發展過程의 研究를 위한 試論-鐵器 生産遺蹟을 中心으로-」, 東義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_____, 1998, 「韓半島 中·南部地方 鐵器生産遺蹟의 現狀」『嶺南考古學』22.
_____, 2006 「古代 鍛冶遺蹟의 諸樣相」『科技考古研究』第12號.
이영훈, 2000, 「우리나라의 고대 철문화」『2000년 춘계문화강좌」, 국립경주박물관.
金權一, 2003, 「南韓地域 古代 製鐵爐에 對한 一研究」, 韓新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一圭, 2006, 「隍城洞遺蹟의 製鋼技術について」『七隈史學』第7號 拔刷.
 - 3) 崔景圭, 2004, 「1~3세기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對한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_____, 2006,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集團의 空間構成과 性格」『嶺南考古學』39.
林東在, 2005,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對한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4) 金世基, 1994, 「隍城洞 原三國 聚落址의 性格」『마을의 考古學』,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5) 崔景圭, 주 3)의 논문.

설치, 수혈주거의 지상화 등으로 이해하였다.

임동재⁶⁾는 경주 황성동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려고 황성동 유적에서 조사된 삼한시대의 생활유적, 생산유적, 매장유적을 검토하였다. 출토 유물을 통해 주거지를 3단계, 분묘를 4단계, 제철유구를 3단계로 나눈 뒤, 이를 종합하여 황성동유적의 시기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하였다. 황성동 주거지의 성격은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1단계의 주거지는 내부에서 철기 제작과 관련한 단야 작업이 이루어진 공방 주거지로, 2단계와 3단계의 주거지는 제철 공인들이 거주했던 일반 전용 주거지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황성동 유적 주거지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정립되었지만,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검토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황성동 유적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출토 유물과 주거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를 설정한 다음, 단계별 주거 양상과 황성동 유적 주거지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주거지의 구조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확인된 삼한시대 주거지는 가 지구⁷⁾에서 20동, 나 지구⁸⁾에서 9동, 다 지구⁹⁾에서 18동 등 총 47동이다. 개개 주거지의 속성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황성동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후대의 경작과 교란 등으로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요소라고 판단되는 평면형태, 면적, 노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평면 형태

평면 형태는 주거의 상부 구조와 주거 체계 및 출자¹⁰⁾ 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이다. 황성동 유적의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평면 형태는 크게 원형, 방형, 부정형이다.

원형 주거지는 총 45동의 주거지 가운데 21동을 차지하며, 대체적으로 장단축 비가 1.1:1이다. 방형 주거지는 말각 방형에 가까운 것이 다수이며 장단축 비는 1.3을 넘지 않는다. 부정형 주거지는 2동으로, 이 중 I 다-3호 주거지는 부정형한 평면 형태와 요철이 심한 바닥 등의 양상으로 볼 때 주거가 아닌 다른 성격의 유구일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 다 지구에서의 평면 형태는 원형인 주거지가 확인되나, 가 지구에서는 원형과 방형 주거지가 혼재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나 지구에서는 대체로 방형 주거지만 확인된다. 가·나 지구

6) 林東在, 주 3)의 논문.

7) 國立慶州博物館, 2000, 『慶州 隍城洞遺蹟Ⅰ·Ⅱ』.

8) 慶北大學校博物館, 2000, 『慶州 隍城洞遺蹟Ⅲ·Ⅳ』.

9) 啓明大學校博物館, 2000, 『慶州 隍城洞遺蹟Ⅴ』.

10) 김도현·김윤경, 2006,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의 평면형태 검토」 『科技考古研究』第12號.

〈표 1〉 주거지 속성표 (* :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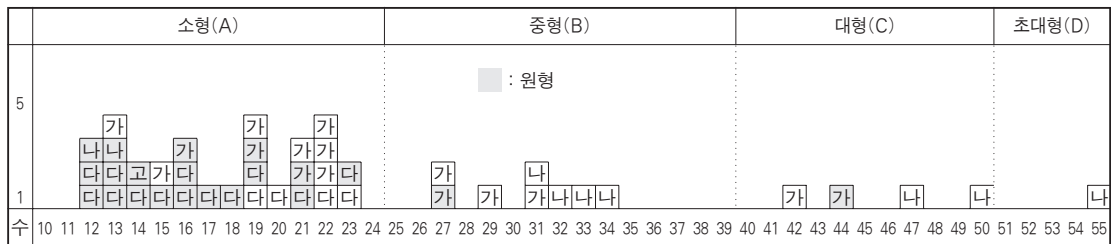
연번	호수	평면형태			장단 축비	규모(cm)			면적 (㎡)	노시설					주철	비고
		원 형	방 형	부 정 형		長軸	短軸	深		무 시 설	부 두 막	온돌		위 치		
												A형	B형			
1	I 다-1호	●			1.1:1	430	380	20	12.8		●*	●	●	서쪽벽	7	화재
2	I 다-2호			●	1.3:1	525	393	23	23	●				중앙부	2	
3	I 다-3호			●	2.0:1	710	360	40	20						1	
4	I 다-4호		●*		1.1:1	540	480	15	22		●			남쪽벽	3(외주)	
5	I 다-5호		●*		1:1	450	448	15	19		●*			동쪽		
6	I 다-6호	●			1.1:1	500	450	15	17.7							
7	I 다-8호	●			1.1:1	520	460	15	18.8	●				남서쪽(2기)	3	
8	I 다-9호	●			1.1:1	480	435	20	16.4		●*			동쪽벽	10(벽주식)	배수구, 화재
9	I 다-10호	●			1.1:1	440	410	20	14.2	●				동쪽	5	화재
10	I 다-11호	●			1.3:1	458	355	30	12.8		●*			서쪽벽	8	화재
11	I 다-12호	●			1.1:1	420	400	20	13.2	●				서쪽벽	5	
12	I 다-15호	●			1.2:1	480	410		15.4						2	
13	I 다-16호	●			1.1:1	440	400		13.8							
14	I 다-17호	●			1.1:1	535	510	23	21.4		●*			서쪽벽	9(벽주식)	출입구
15	II 다-4호	●			1.1:1	570	530	5	23.7						3	
16	II 다-5호	●			1:1	452	450	10	16	●				서쪽		
17	II 다-6호	●			1.2:1	540	470	5	19.9		●*			서쪽벽	2	
18	다-고가-1호	●			1.1:1	450	400	5	14.1		●			서쪽벽		
19	II 나-7호	●			1:1	400	400	20	12.6							
20	I 나-5호	●			1.1:1	430	390	25	13.2		●			동쪽벽	5(4주식)	화재
21	II 가-1호	●			1:1*	750*		10	44.2			●		서→북동쪽		
22	II 가-7호	●			1:1	590		20	27.3			●		서→북동쪽	5(외주)	
23	II 가-11호	●			1:1*	520		10	21.2							화재
24	II 가-14호	●			1:1	495		8	19.2							
25	II 가-20호	●*				560	500		16*			●		서→북동쪽		
26	I 나-6호		●		1.1:1	760	670		50.9				●*	북서→동쪽	14(벽주식)	화재
27	I 가-1호		●		1:1:1	565	557	20	31.5		●			서쪽		검토됨(토단시행)
28	I 가-4호		●*			510	(400)	25								
29	I 가-13호		●		1.1:1	440	410	9	13							
30	II 가-2호		●		1.1:1	560	500	20	22						5	화재
31	II 가-3호		●		1.23:1	530	430	10	22				●	서→북동쪽		
32	II 가-4호		●		1.1:1	560	520	10	29.1				●*	서→북동쪽	5	
33	II 가-5호		●		1.2:1	430	370	10	15.9							
34	II 가-6호	●			1.2:1	580	500	40	22.8				●*			
35	II 가-8호		●*		1.16:1	520	450	25	19							
36	II 가-9호		●		1.2:1*	700*	600	15	42*				●*			
37	II 가-13호		●			440	410	15			●			서쪽	3	
38	II 가-15호		●		1.1:1	480	450	12	21.6				●*	동→남쪽	4	화재
39	II 가-17호		●		1.15:1	370	320	15	11.84							출입구?
40	II 가-18호		●			470	(360)	10								
41	II 나-1호		●		1.1:1	730	650		47.5							화재
42	II 나-2호		●		1.1:1	610	540	20	32.9							
43	II 나-3호		●		1.1:1	600	530		31.8				●*	서→북동쪽	1	화재
44	II 나-4호		●		1.1:1	600	550	10	33.0							화재
45	II 나-5호		●*			780	650		55							화재
46	II 나-6호		●		1:1	600	580	10	34.8				●*?			

에서 수혈 주거의 지상화가 진행된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정형하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는 것¹¹⁾이 대부분인데, 대체로 방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 지구 주거지 중에서 I 다-4·5호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말각 방형을 띠는데, 출토 유물의 양상으로 보면 다 지구의 다른 주거지와 시기 차이가 크지 않거나 동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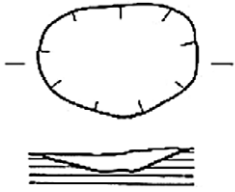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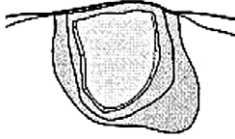
면적은 주거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주 인원수의 산정을 통해 거주 형태 및 취락의 인구수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황성동 유적 주거지의 면적 도수분포를 제시한 것이 <도면 1>이다. 주거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4㎡ 미만을 소형, 24㎡ 이상~42㎡ 미만을 중형, 42㎡ 이상~51㎡ 미만을 대형, 51㎡ 이상을 초대형으로 분류하였다.

대체로 면적이 24㎡ 미만인 소형은 다 지구, 중형과 대형은 가·나지구, 초대형은 나 지구에서 주로 확인된다. 또한, 평면 형태에 따라 주거지의 면적에서 차이가 확인되는데, <도면 1>을 보면 대체로 원형보다 방형 주거지의 면적이 넓다.



<도면 1> 주거지 면적 도수분포도

3. 노시설

무시설식	부뚜막식
	
I 다-8호 주거지	I 나-5호 주거지

<도면 2> 무시설식과 부뚜막식 노시설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노시설은 크게 무시설식, 부뚜막식, 온돌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도면 2·3> 참조). 무시설식은 특별한 시설 없이 주거지 바닥에 얇은 수혈을 파서 설치한 爐 형태이다. 무시설식은 주로 다 지구의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대부분 벽쪽에 치우쳐 있다. 부뚜막식은 주거지의 벽체에 연결되어 취사용기를 걸 수 있는 구조이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I 가-1호, I 나-5

11) 실제로 삼한·삼국시대의 지상식 주거지를 발굴 조사할 때에는 주거지 내부에 노시설이나 기둥 등의 시설물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지붕이나 벽체 시설의 가구재가 화재 등으로 복잡하게 폐기되었을 때에는 주거지의 정확한 윤곽을 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호, I 다-4호, 다-고가수조-1호, II 가-13호 주거지 등에서 부뚜막의 잔존 양상이 확인된다. 부뚜막의 재료는 점토나 돌이거나 점토와 돌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다 지구 II 다-4호 주거지와 I 다-16호 주거지 사이의空地에서 다 지구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된 爐의 구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뚜막식 野外爐¹²⁾가 확인되었다. II 다-13호 화덕유구는 길쭉한 냇돌 5개를 ‘ㄷ’자형으로 두른 형태로 내부에서 대형 웅기편과 와질토기 시루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I 다-4호·5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爐시설도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추정된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다 지구의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된 爐址를 특별한 시설 없이 간단한 단야 공정을 했던 수혈식 노지로 파악하였다¹³⁾. 이 노지가 단야 공정에 사용되었다더라도 주거의 용도상 취사와 난방의 기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爐의 위치가 바닥 중앙이 아닌 벽면에 연결하거나 치우쳐 위치하고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 또한 취사와 관련된 장동옹과 시루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노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 지구 원형 주거지의 벽쪽에 밀착된 爐址를 소규모 단야공정과 취사 및 난방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부뚜막식 爐의 잔존양상¹⁴⁾으로 추정하였다.

온돌식은 취사와 난방을 위한 부뚜막과 연기가 나가는 고래, 그리고 굴뚝부가 결합된 구조이다. 황성동 주거지에서 이러한 형태의 노시설은 가·나 지구의 원형과 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온돌은 대체로 황색이나 적갈색 점토를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A형(弧形)	B형(‘ㄱ’字形)
	
II 가-7호 주거지	II 가-4호 주거지

〈도면 3〉 온돌식 노시설 유형분류

온돌의 형태는 원형 주거지와 방형 주거지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즉, 부뚜막과 고래 부분이 원형 주거지에서는 대체로 수혈 벽면을 따라 弧形(A형)으로 설치되었고 방형 주거지에서는 ‘ㄱ’字形(B형)으로 확인된다(〈도면 3〉 참조).

온돌 시설 가운데 부뚜막은 대체로 서쪽에 설치되었으며, 고래는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¹⁵⁾. 그리고 방형 주거

12) 부뚜막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고정식은 다시 주거지에 붙여서 설치한 실내형과 주거지 밖에 별도로 설치한 야외형으로 구분된다.

취락연구회, 2004, 「Ⅲ. 수혈건물지의 각종 부속시설」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 62쪽.

13) 啓明大學校, 2000, 「Ⅳ. 考察」 『慶州隍城洞遺蹟Ⅴ』.

14) 본고에서 사용하는 ‘부뚜막식’이란 용어는 취사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황성동 유적의 다 지구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된 爐址와는 분명히 기능과 구조 등에서 적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爐址는 주거라는 기능, 취사용기, 爐의 위치, 구조 등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차이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크게 부뚜막식으로 분류하였다.

15) 공방석은 평지와 구릉지에서 나타나는 유적의 굴들 위치를 검토하였는데, 대체적으로 구릉지에 입지하는 유적은 일률적이지 않으나, 평지에 입지하는 유적은 비교적 정형성을 띠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굴들의 위치선정은 유적의 입지에 따른 기후와 지형적인 특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층적평지에 입지하는 황성동 유적은 부뚜막과 굴들의 위치가 비교적 정형성을 띠는데, 이 역시 평지라는 지형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방석, 2008, 「경남서부지역 삼국시대 수혈건물지의 굴들연구」 『韓國考古學報』 56.

지에서 확인되는 온돌 시설의 위치는 가 지구와 나 지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가 지구 주거지에서 온돌의 위치는 수혈 벽면과 밀착되어 있는 반면, 나 지구 주거지에서 온돌은 대체로 수혈 벽면(굴광선)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I 나-6호와 II 나-3호 주거지 내부에서는 수혈 벽면에 인접하여 소토와 점토들이 일정한 폭으로 소결 면을 이루면서 집중 분포하는데, 이 부분은 점토 벽체와 출입구 시설이라기보다는 부뚜막과 고래가 결합된 온돌 시설의 잔존 양상으로 추정된다.

Ⅲ. 주거지의 편년

1. 출토 유물 검토

황성동 유적 주거지에서 출토 유물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표 2>이다. 출토 유물은 크게 토기와 철기, 석기로 구분되는데,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토기류이다. 토기류는 다시 무문토기, 와질토기, 연질토기, 도질토기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와질토기로 생활 토기로서 주요한 기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무문토기는 주로 다 지구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전기 와질토기와 공반되었다. 웅과 소형발의 구연부에는 퇴화된 삼각형 점토대가 부착되었다. 부착된 점토대는 하단부를 지두나 물손질 등의 기법으로 밀착시킨 것으로 동체부와 점토대가 연결되어 거의 홀구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퇴화된 양상이다. 이 외에 두형토기와 컵형토기 등도 일부 확인되었다.

와질토기는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단경호, 웅, 완, 발, 노형토기, 시루, 양이부호, 대부호 등의 기종이 확인되었다. 주머니호는 I다-1호·8호·12호·15호·16호·II다-5호 주거지에서 총 7점이 출토되었다. 주머니호의 기형은 말각 평저의 저부에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있고 동최대경에서 살짝 내만하여 구연부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다 구연단에서 짧게 외반하는 형태이다. 다호리 32·37·38호, 조양동 38호 목관묘 등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형식이다.

단경호는 다 지구 I다-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이른 형식으로 외면에서 승석타날문이 관찰된다. 동최대경은 중위에 있으며 경부는 직립하다 구연이 외반하여 구연단이 수평으로 꺾인 형태이다. 강변로 4호 목관묘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이다. 가·나 지구에서 확인되는 단경호는 외면에 격자·평행타날되었으며, 동체부의 형태는 구형, 타원형, 역삼각형을 띤다.

노형토기는 I나-6호 주거지 출토품이 가장 이른 형식으로 동체 상부에 2단의 침선을 돌려 문양대를 구획하고 삼각침선문을 시문하였다. 경부와 대각에 종방향의 암문풍을 시문한 것이 특징이다. 하대 44호 목관묘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이다. 다른 노형토기는 사격자문이 시문되거나 무문양이며 동체는 주판형과 역삼각형이고 대각경은 점차 넓어진 형태의 것이 출토되었다.

웅형토기는 소웅과 장동웅의 기종이 확인되는데, 주거지 출토 토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 지구에서 출토된 장동웅은 저부의 형태가 원저나 바닥이 좁은 말각의 평저이며, 동체 상부에서 완만하게 내만하다가 구연에서 수평에 가깝게 짧게 외반한다. 정면기법은 목리나 회진 물손질이 관찰된다. 가·나 지구 주거지 출토 장동웅은 원저의 저부에 동체부가 길며, 외면에 격

〈표 2〉 출토 유물 현황표

연 번	호수	토기										철기						석기	기타																																																																																																																																																																																																																																																																																																																																																																																																																																																																																																																																									
		무문토기		와질토기								연질토기				단 · 주조철기																																																																																																																																																																																																																																																																																																																																																																																																																																																																																																																																												
				점토대 토기		기타		주머니호		단경호												옹		완		발		노경토기		시루		양잉과호		대부호		기타																																																																																																																																																																																																																																																																																																																																																																																																																																																																																																																								
		옹	발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연 번	호수	토기										철기								석기	기타							
		무문토기			와질토기							단 · 주조철부				철 속	철 검	철 착	도 자			기 타						
		점토대 토기	기 타	주머니호	단경호	옹		완	발	노형토기	시루	양이구호	대부호	기 타	안질토기								도 질 토 기					
						소 옹	장동옹								소 옹									장동옹	기 타			
23	I가-4호				2	1	1				1			3									원제1	토제품1, 방추차3				
24	I가-13호					1	1							4		1	1											
25	II가-1호				1	9	3					1		5	3	3	1								지석2	방추차2		
26	II가-2호				1	2								4	1													
27	II가-3호					3	4		3								1						1			유리제 구슬1		
28	II가-4호					1	3		1	2	1															유리제 구슬1		
29	II가-5호						2		1	1			4													土球1		
30	II가-6호				2	3		1	1		1		2															
31	II가-7호					1	3						5				2											
32	II가-8호				2	4	9	4	10	12	1		4	1			2					1				지석2	녹각도자1, 원관형토제품5	
33	II가-9호								2	2			1	1														
34	II가-11호				3	1							3														송풍관편2	
35	II가-13호				1												2										방추차2	
36	II가-14호					1	4						2										1					
37	II가-15호						1																					
38	II가-18호						1						2														방추차	
39	II가-20호								1	2					1													
40	II나-1호						1	1	1						1													
41	II나-2호							2			2	1		6	7	1	3											
42	II나-3호				1	2	3							1			2										지석1	유리제 환옥1, 어망추1
43	II나-4호				1	2			1				4	2		4	단경3										지석1	송풍관편3
44	II나-5호						3	3	2	1					1		1											
45	II나-6호				2		1				1				2		1						1					방추차1, 어망추1, 박선, 도자편
합계		3	3	9	19	32	53	13	23	22	9	2	4	19	29	5	3	3	4	5	5	1	4	11	9	20	26	

자 또는 평행 타날되었다. 구연부는 ‘<’ 형과 수평 구연에 가까운 형태(Ⅱ나-2호¹⁶⁾·6호 주거지)가 확인된다. 시루는 5점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와질제이다. 기형은 옹형으로 구연이 외반하는 형태이며, 저부는 원저이고 동체 상부에 우각형 파수가 부착되었다. 증기공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길게 뚫은 미세 孔이다.

연질토기는 가·나 지구의 주거지군에서 대체로 옹과 호의 기종이 확인되는데, 기형은 와질토기의 옹·호의 기형과 큰 차이점이 없다. 이 밖에도 도질토기 발생기에 주로 확인되는 대부호와 양이부호, 그리고 도질 단경호 등이 나 지구 주거지군에서 확인되었다.

철기류는 다 지구 주거지군에서 단조·주조철부, 무경식 삼각형철촉, 철검, 철창, 도자, 철괴 등이 확인되었으며, 가·나 지구의 주거지에 비해 수량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석기류는 지식의 출토 비율이 높다.

2. 주거지의 단계

이상에서 살펴본 출토 유물의 양상을 황성동 분묘 출토품과 기존 연구 성과¹⁷⁾에 대비하여 주거지의 단계를 설정하면 크게 3시기로 구분된다.

1期는 후기 무문토기(종말기 무문토기)가 잔존하는 양상과 주머니호, 단경호 등의 전기 와질토기의 기형으로 보면, 대략 기원전 1세기 후엽 혹은 1세기 전엽에서 중엽 사이로 추정된다. 다 지구 원형 주거지군이 이 단계에 해당하며, 이 시기 황성동 유적의 분묘는 강변로 유적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목관묘이다.

2期는 후기 와질토기와 연질토기 등이 주종을 이루는 시기로, 2세기 중·후엽에서 3세기 중·후엽으로 추정된다. 주로 가 지구에서 확인된 주거지군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분묘는 주거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634-1번지와 583-2번지 일대에 분포하는 목곽묘이다.

3期는 대부호, 양이부호 등의 도질토기가 출현하는 단계로,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엽까지로 추정된다. 나 지구 주거지군이 이 단계에 해당하며, 이 시기 분묘는 주로 545번지 일대에 분포하는 세장방형 목곽묘로 추정된다.

Ⅳ. 주거지의 변화상

이 장에서는 각 단계별 주거지의 변화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영남 지역에서 확인된 다른 취락 유적과 비교·검토하겠다. 앞 장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황성동 유적 주거지는 3단계로 구분된다(<표 3> 참조).

16) 나 지구 Ⅱ-2호 주거지에서 출토한 장동옹은 器高가 41cm이며, 동체부는 세장한 포탄형이다. 구연부의 형태는 동체 상부에 부드럽게 외반하면서 수평 구연을 이룬다. 이러한 기형의 장동옹은 포항 호동 유적 Ⅱ-192호 주거지에서도 출토되었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浦項 虎洞遺蹟 V』.

17) 安在皓,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學研文化史.

李盛周, 1999, 「辰·弁韓地域 墳墓 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嶺南考古學』24.

〈표 3〉 각 단계별 주거지 양상

단계	주거지 호수	구조 및 특징			출토유물
		평면형태	면적	노시설	
1단계	I 다-1호~6호, 8호~12호, 15~17호, II 다-4~6호	원형	소형	무시설식, 부뚜막식	삼각형점토대토기, 와질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 단·주조철부, 무경식 삼각형철촉, 철괴 등
2단계	다-고가수조-1호, I 나-5·6호, II 나-7호, I 가-1호, 4호, 13호, II 가-1~9호, 11호, 13호, 15호, 18호, 20호	원형, 방형	소형, 중형, 대형	온돌식 (A·B形)	와질 노형토기, 단경호, 장동옹, 시루, 연질 장동옹 등
3단계	II 나-1~6호	방형	중형, 대형, 초대형	온돌식 (B形)	와질 대부호, 양이부호, 장동옹, 연질옹, 도질 단경호 등

1단계에 속하는 주거지는 다 지구에서 확인된 17동의 주거지이다. 유물은 후기 무문토기(종말기 무문토기)와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 파수부호 등의 전기 와질토기, 그리고 무경식 삼각형 철촉과 단조·주조철부 등 다양한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로 보면 주거지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 후엽 혹은 1세기 전엽에서 중엽 사이로 추정된다.

이 단계의 주거지는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대체로 주거지간 중복 없이 중앙에 공지를 두고 분포하고 있다. 대체로 취락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 공지는 공동체의 공공 집회나 의례, 공동 생산물 분배, 공동 취사 등이 이루어진 광장으로 파악되는데, 황성동 다 지구 주거지군 사이의 공지도 이러한 광장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一例로 II 다-4호 주거지와 I 다-6호 주거지 사이의空地에서는 부뚜막식 野外爐가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공동의 취사가 이루어졌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 단계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원형, 말각 방형, 부정형 등이 확인되는데, 원형이 주류이다. 내부 시설로는 주거지의 수혈 벽면에 치우쳐 소규모 단야 공방 및 취사 등과 관련된 무시설식과 부뚜막식 노시설이 확인되며, 면적은 24㎡ 미만의 소형이 주류를 이룬다.

기둥은 I 다-9호·11호·17호 주거지에서 수혈 벽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 벽주식으로 추정되는 주혈이 확인되나, 대부분 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I 다-9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탄화 목재의 양상으로 보면, 기둥은 주거지 바닥 위에 바로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며, 불규칙적으로 확인되는 주혈들은 보조 기둥이나 다른 용도의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단계 주거지 내부에서는 단조·주조철부, 삼각형 무경식 철촉 등의 다양한 철기류와 철기를 만드는 재료인 철괴와 구슬형철괴(I 다-9호·11호·17호 주거지), 그리고 철기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랫돌(I 다-11호·17호, II 다-4호·5호 주거지) 등의 철기 생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확인된다.

1단계 원형 주거지군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주거지 유적으로는 대구 달성 평촌리 유적¹⁸⁾, 울산 지역의 명산리 314-1번지 유적¹⁹⁾, 사연리 늪내 유적²⁰⁾, 성주 상언리 유적²¹⁾ 등이 있다. 이들 유적의 주거지 평면 형태는 성주 상언리 유적을 제외하면 대체로 원형계이며, 면적은 24㎡를 넘지 않는 소형이 주류를 이룬다. 내부 시설로는 벽면에 밀착되거나 치우쳐 점토나 돌을 이용해 만든 부뚜막과 온돌시설(쪽구들)이 설치되었다. 유물은 후기 무문토기와 전기 와질토기 및 연질토기 등이 공반된다.

2단계는 1단계 주거지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가 지구에서 확인된 17동의 주거지와 I 나-5호²²⁾·6호, II 나-7호 주거지가 있다. 주거지 출토 유물은 와질 노형토기, 장동옹, 소옹, 시루, 연질의 장동옹, 단경호 등 다양한 기종들이 확인되었고, 토기 기면에 격자·평행타날 등의 정면기법이 나타난다. 연대는 2세기 중·후엽에서 3세기 중·후엽까지의 시기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중심 연대는 출토 유물 중 노형토기 기형으로 보면 3세기 전엽에서 중엽까지의 기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분포는 유적의 북쪽과 동쪽으로 확산되어 단야로와 용해로 등의 철기 생산 유구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평면 형태는 새롭게 방형이 출현하며 원형 주거지와 혼재하는 양상이다. 면적은 24~50㎡ 사이의 중형과 대형인 주거지가 나타나는데, 방형 주거지가 원형주거지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내부 시설로는 주거지 수혈 벽쪽으로 밀착되어 점토로 만든 온돌 시설(쪽구들)이 새롭게 확인된다. 원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온돌 시설은 부뚜막과 고래 부분이 벽면을 따라 弧形으로 설치된 것(A형)이지만, 방형 주거지에서는 부뚜막과 고래부분이 ‘ㄱ’字形으로 설치된 형태(B형)이다. 기둥 배치는 무주식, 외주식, 벽주식이 확인되는데, 벽주식이 주류로 추정되나 정형하지는 않다. 기둥 구멍(주혈)은 대체로 확인되지 않는데, 화재 주거지의 양상으로 보면 바닥 위에 바로 기둥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3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II 나-1~6호 주거지가 있다. 유물은 노형토기가 점차 사라지고 새롭게 양이부호, 대부호, 도질 단경호 등이 출토되며, 연대는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나 지구의 주거지군은 유적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2단계의 가 지구 주거지군에서 서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나 확인된 주거지 수가 많지 않아 분포 양상은 명확하지 않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면적은 중형과 대형이 주류를 이루고 새롭게 50㎡ 이상의 초대형이 확인된다. 내부시설로는 점토로 만든 ‘ㄱ’자형 온돌시설(B形)이 확인되는데, 수혈 벽면에서 주거지 안쪽으로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었다. 기둥 구멍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데, 나 지구의 주거지 역시 바닥

18) 신영애, 2009, 「달성 평촌리유적」『유적조사 발표회』,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19)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9, 『울주 명산리 314-1유적』.

20) 蔚山文化財研究院, 2003, 『蔚山 泗淵里 늪내遺蹟』.

2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성주 상언리유적』.

22) 필자는 I 나지구에서 확인된 5호 주거지를 다 지구의 원형 주거지군 단계(1단계)와 동시기로 추정한 바 있다(김나영 2007). 그러나 주거지의 부뚜막 내부와 바닥에서 출토된 격자 타날된 적갈색 연질 단경호와 경질 토기편 등의 유물로 보아, I 나-5호 주거지는 1단계 주거지보다 시기가 늦은 2단계로 추정된다. 金羅英, 2007, 「嶺南地域 三韓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嶺南考古學』43.

위에 기둥을 바로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주거지 내부에는 목탄과 잔가지, 짚 등이 섞인 소토나 점토들이 다량으로 폐기되었는데, 이것은 토벽이 주거지 폐기 시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벽체 가구재의 흔적을 통해 이 단계 주거지의 벽은 耐力壁²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耐力壁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현상 하나가 온돌시설의 위치 변화로 생각된다. 내력벽으로 열효율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²⁴⁾ 온돌시설은 수혈 벽면에서 이격되어 주거지 안쪽에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성동 유적의 2·3단계의 주거지군과 비교할 수 있는 취락 유적은 양산 평산리 유적, 경산 임당 유적, 포항 호동 유적 등이 있다. 양산 평산리 유적²⁵⁾은 환호 안에 원형과 방형 주거지가 혼재하면서 분포하며, 주거지 내부 시설로는 부뚜막이나 온돌시설로 추정되는 노시설과 벽주식의 기둥배치가 확인된다. 출토 유물은 후기 와질토기 단계의 유물과 장동옹, 시루, 발 등의 연질토기가 공반되었다. 평산리 유적은 주거지의 형태와 출토로 볼 때, 황성동 2단계의 주거지군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취락으로 추정된다.

경산 임당동유적²⁶⁾은 I 지구와 최근에 조사된 임당동 208-2번지유적에서 3~4세기대 걸쳐 형성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최근 발굴조사된 임당동 208-2번지유적은 임당 I 지구에서 서쪽 부분에 연접해서 조사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3~4세기대의 주거지가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주거지의 분포는 원형과 방형의 주거지가 혼재하고 있고, 출토유물의 양상과 중복양상을 통해 원형 주거지가 방형 주거지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형계 주거지는 내부에 점토로 만든 온돌 시설이 벽면에 밀착되어 설치된 것이 특징이며, 벽체 골조 구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벽체 가구재가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구조에 있어서 황성동 2단계에서 확인되는 원형계 주거지의 양상과 유사하다. 반면 3세기 후엽에서 4세기대에 조성된 주거지들은 대부분 방형계의 지상식 주거지이며, 내부에 벽주식의 기둥 배치와 주거지 외곽 어깨선에서 안쪽으로 이격되어 설치된 점토로 만든 온돌(쪽구들) 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황성동 3단계의 주거 양상과 유사하다.

포항 호동 유적²⁷⁾은 3~5세기에 걸쳐 형성된 취락지로 281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방형계이다. 주거지의 구조 및 특징은 대부분 지상식 구조로 내부 주혈은 확인되지 않으며, 보고자는 기둥을 지면에 바로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벽체 시설로 추정되는 잔가지나 짚 등이 혼입된 소토 및 점토와 탄화재들이 다량으로 폐기되

23) 耐力壁은 기둥과 함께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벽체를 말한다.

24) 함순섭은 '흙으로 메운 지상 건물의 내력벽을 움집에 못지않은 열관리를 위해 고안한 건축기법'으로 보고 있다.

咸舜燮, 2008, 「嶺南地方 三韓·三國時代 살림집의 復元研究」『東垣學術論文集』第9輯, 24쪽.

25)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梁山 平山里遺蹟』.

26) 張容碩, 2000, 「慶山 林堂 三韓時代 生活遺蹟 發掘調査」『三韓의 마을과 무덤』, 第9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張容碩, 2001, 「慶山 林堂遺蹟의 空間構成에 대한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慶山 林堂洞 원룸건립부지내유적」 지도위원회자료집.

嶺南文化財研究院, 2008, 「慶山 林堂洞 208-2番地遺蹟」『嶺南文化財研究』21.

2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浦項 虎洞遺蹟 I, III ~ VIII』.

었는데, 토벽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내부 시설로는 주거지의 수혈 벽에서 이격되어 점토로 만든 온돌 시설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호동 유적 주거지의 연대는 주로 3세기~4세기 전반에 집중되는데, 황성동 2·3단계에서 확인되는 방형계 주거지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되고, 주거 형태 및 구조와 내부 출토 유물의 기종 구성 등이 유사한 점에서 동일한 주거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황성동 주거지의 성격

황성동 취락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주거지, 분묘, 철기 생산유구와 기타 부속시설 등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철기 생산 유구인데, 분묘 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들이 이 유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포 양상은 당시 황성동 취락의 기능과 성격이 일반 취락이 아닌 특수 기능 취락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황성동 유적의 각 단계별 주거지의 성격이 일반 주거지였는지 아니면 철기 생산과 관련된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주거지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단계 다 지구 주거지군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이 단계 주거지들은 다른 취락 유적의 주거지들과 비교해 볼 때, 주거지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토기의 양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 지구 원형 주거지 중 I 다-1호·9호·11호·17호 주거지 등에서 다양한 철기류와 철기를 만드는 재료인 철괴, 그리고 철기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룻돌(I 다-11호·17호, II 다-4호·5호 주거지), 爐址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영남지역의 다른 주거지 유적에서는 보이지 않는 철기 생산 관련 자료들이다. 따라서 황성동 1단계 주거지의 성격은 주거와 소규모 단야 작업이 주거지 내부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²⁸⁾, 다른 취락 유적과 비교해 봤을 때 단야 공방의 성격이 강한 특수 기능 주거로 판단된다.

한편 황성동유적에서 1단계 주거지의 존속기간은 2단계 주거지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1단계와 2단계 주거지의 사이에 공백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황성동 유적에서 1단계 주거지를 끝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는지 명확하지 않다. 황성동 분묘역에서는 1세기 후엽에서 2세기 중엽사이에 해당하는 목관묘가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분명히 이 시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의 발굴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주거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II 나-7호 주거지와 다 지구 고가수조구역 주거지가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 위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머니호와 와질 완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와질 주머니호는 구연부와 동체부 사이의 내만도로 볼 때 다 지구 주거지군에서 출토된 주머니호보다 늦은 형식으로 추정된다. 내부 교란 등으로 주거지의 출토유물로 보기에는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공백기 사이의 유물이 확

28) 김세기, 주4)의 논문.
최경규, 주3)의 논문.
임동재, 주6)의 논문.

인되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이 시기 주거지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2단계 주거지의 성격은 1단계 주거지와 비교해 볼 때, 주로 일반 주거로 사용된 듯하다. 대체로 주거지 내부에서 철기 생산과 관련된 자료의 출토 비율이 매우 낮다. I가-4호 주거지와 II가-11호 주거지에서는 철재와 송풍관 파편이 확인되었으나, 내부 구조에서 단야 공방의 흔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곳에서 철기 제작이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단계 주거지의 주 용도는 앞 시기 주거지의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철기 생산이 외부로 분리되면서 주거지는 철기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전용 거처지²⁹⁾로 사용된 듯하다. 특히, 이 단계 주거지들이 철기 생산유구와 관련된 용해로, 단야로, 폐기장 등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는데, 확실히 생산 시설이 외부로 확대된 양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주거지의 형태와 규모, 내부 시설과 출토 유물 등에서 다른 취락 유적의 주거 양상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 점도 이 단계 주거지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황성동 2단계 주거지의 평면 형태에서 새롭게 방형 주거지가 출현하여 원형 주거지와 혼재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현상이 시기 차이에 따른 현상인지, 아니면 기능의 차이인지의 문제가 있다. 방형과 원형 주거지는 주거지의 형태와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출토 유물의 양상으로 보면 방형과 원형 주거지 사이에 뚜렷한 시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II가-11호 주거지와 14호 주거지처럼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원형 주거지가 방형 주거지와 공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시기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출토 유물과 내부 시설 등에서 특별한 양상이 확인되지 않아 양 주거지 사이에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아마도 이러한 양상은, 영남 지역의 다른 취락 유적 중 양산 평산리 유적이나 경산 임당 유적 등의 사례로 보았을 때, 기존 재지의 주거 형태 즉 원형계 주거지에 새롭게 방형계 주거형태가 출현함에 따라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추정된다.

3단계 주거지군의 성격 역시 2단계와 동일하게 일반 주거의 용도로 사용된 듯하다. 내부에서 철기 생산 관련 자료는 II나-2호와 4호 주거지에서 송풍관 파편이 확인되었으나, 극히 소량에 불과해 주거지 폐기 시 외부에서 유입된 것 등으로 추정된다.

한편, 황성동유적에서 3단계 주거지는 현재까지의 자료에서 6동밖에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분포 양상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 황성동유적 주거지가 쇠퇴되기 시작하는지, 아니면 확산되는지를 알 수 없어 앞으로 황성동 일대 주거역의 전면적인 발굴 조사 후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황성동 유적에서 2·3단계 주거지군과 대응하는 시기에 축조된 약 400여기의 목곽묘와 다양한 철기 생산유구의 밀집도를 볼 때, 약 30동 정도밖에 안되는 이 단계 주거지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묘역의 사용과 철기 생산의 역할을 담당했는지의 문제가 있다. 또한, 당시 이 주거지가 상시용인지, 아니면 임시 거처지인지의 문제도 있다. 아직까지 황성동 유적에서 주거역의 발굴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접근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

다만,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살펴보았을 때, 출토 유물의 양상 그리고 난방과 관련된 온돌시

29) 최경규, 주3)의 논문
임동재, 주6)의 논문

설, 벽체 등의 구조 등에서 비교적 장기간 존속한 것으로 보이는 경산 임당 유적, 포항 호동 유적 등의 주거 형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2단계와 3단계 주거지는 일시 또는 임시용 주거지가 아닌 상시용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단계 주거지들의 분포가 대체로 철기 생산 유구를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주거지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이 단계 주거지의 거주민은 철기 생산 시설을 지키거나 전업 집단들을 관할하였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이럴 경우 황성동에서 철기 생산을 전담했던 전업인들의 거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근의 취락지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현재 황성동 유적 인근에서 확인된 취락유적의 사례가 없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자료증가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Ⅶ. 맺음말

이상으로 황성동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출토유물과 구조를 통해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주거지의 변화상과 성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황성동유적에서는 철기 생산유구의 분화와 발달과정에 따라서 주거지의 성격 역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사실 황성동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 자료는 분묘와 철 생산 유구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빈약한 주거지 자료와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주거형태를 가지고 황성동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필자의 다소 자의적인 해석도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황성동 유적 일대의 주거지 자료가 확보되면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추후 분묘와 철기 생산유구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경주 황성동 취락의 성격이 보다 명확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논문

- 공봉석, 2008, 「경남서부지역 삼국시대 수혈건물지의 구들연구」『韓國考古學報』56.
- 金權一, 2003, 「南韓地域 古代 製鐵爐에 對한 一研究」, 한신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羅英, 2007, 「嶺南地域 三韓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嶺南考古學』43.
- 김도현·김윤경, 2006,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의 평면형태 검토」『科技考古研究』第12號.
- 金世基, 1994, 「隍城洞 原三國 聚落址의 性格」『마을의 考古學』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 金一圭, 2006, 「隍城洞遺蹟의 製鋼技術について」『七隈史學』第 7號 拔刷.
- 孫明助, 1996, 「韓半島 中·南部地域 古代鐵器生産技術과 發展過程의 研究를 위한 試論- 鐵器生産遺蹟을 中心으로-」, 東義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1998, 「韓半島 中·南部地方 鐵器生産遺構의 現狀」『嶺南考古學』22號.
- _____, 2006 「古代 鍛冶遺蹟의 諸樣相」『科技考古研究』第12號.
- 安在皓, 1995, 「慶州 隍城洞墳墓群에 대하여」『新羅文化』第14輯.
- _____,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學研文化史.
- 李盛周, 1999, 「辰·弁韓地域 墳墓 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嶺南考古學』24.
- 이영훈, 2000, 「우리나라의 고대 철문화」『2000년 춘계문화강좌』, 국립경주박물관.
- 李在興, 2001, 「목관계목곽묘의 등장과 배경」『嶺南文化財研究院』14.
- _____, 2006, 「慶州地域 木槨墓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7,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출현과정에 대한 일고찰」『嶺南考古學』43.
- 林東在, 2005,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對한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張容碩, 2000, 「慶山 林堂 三韓時代 生活遺蹟 發掘調査」『三韓의 마을과 무덤』, 第9回 嶺南考古學會 學術 發表會.
- _____, 2001, 「慶山 林堂遺蹟의 空間構成에 對한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車順喆, 1999, 「同穴主副槨式 木槨墓 研究-洛東江東岸地域을 中心으로-」, 慶星大學校大院 碩士學位論文.
- 崔景圭, 2004, 「1~3세기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對한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6,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集團의 空間構成과 性格」『嶺南考古學』39.
- 취락연구회, 2004, 「Ⅲ. 수혈건물지의 각종 부속시설」『豎穴建物址 調査方法論』62쪽.
- 咸舜燮, 2008, 「嶺南地方 三韓·三國時代 살림집의 復元研究」『東垣學術論文集』第9輯, 24쪽.

2. 보고서

慶北大學校博物館, 2000, 『慶州 隍城洞遺蹟Ⅲ・Ⅳ』.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a, 『성주 상언리유적』.

_____, 2008b, 『浦項 虎洞遺蹟 I, Ⅲ~Ⅷ』.

啓明大學校博物館, 2000, 『慶州 隍城洞遺蹟Ⅴ』.

國立慶州博物館, 2000, 『慶州 隍城洞遺蹟Ⅰ・Ⅱ』.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博物館, 2002, 『隍城洞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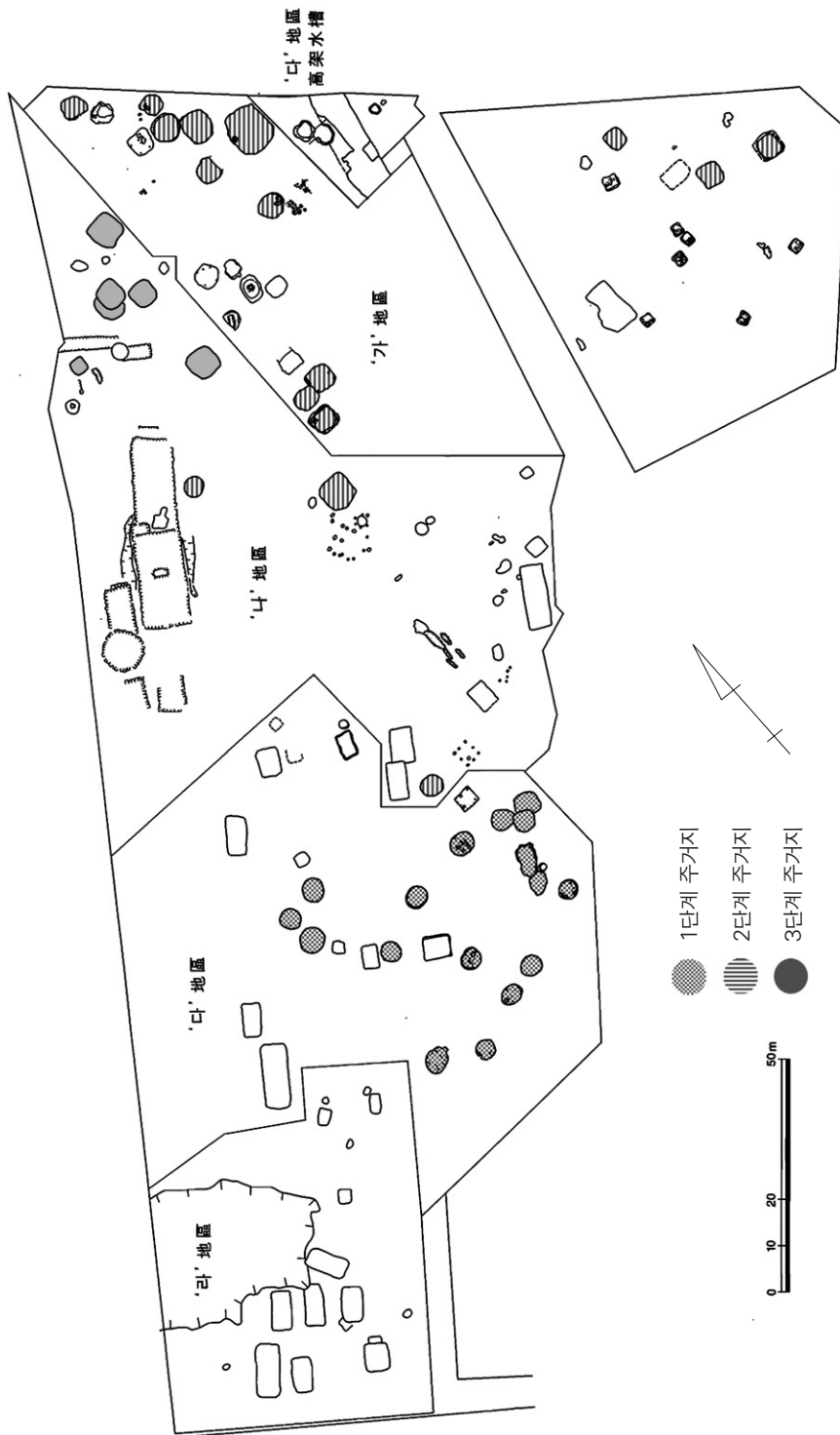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梁山 平山里遺蹟』.

신영애, 2009, 「달성 평촌리유적」『유적조사 발표회』,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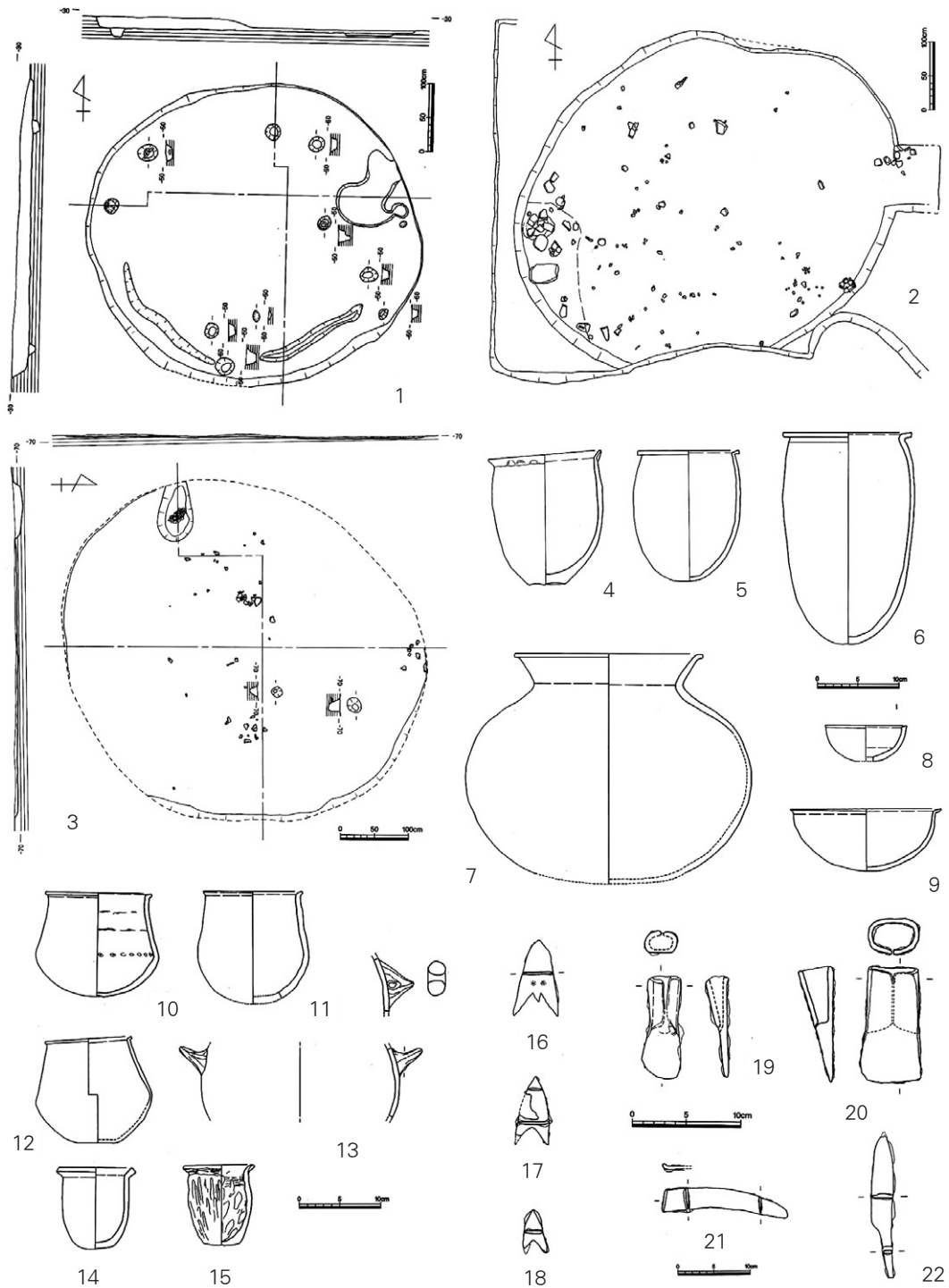
嶺南文化財研究院, 2008, 「慶山 林堂洞 208-2番地遺蹟」『嶺南文化財研究』21.

蔚山文化財研究院, 2003, 『蔚山 泗淵里 늪네遺蹟』.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9, 『울주 명산리 314-1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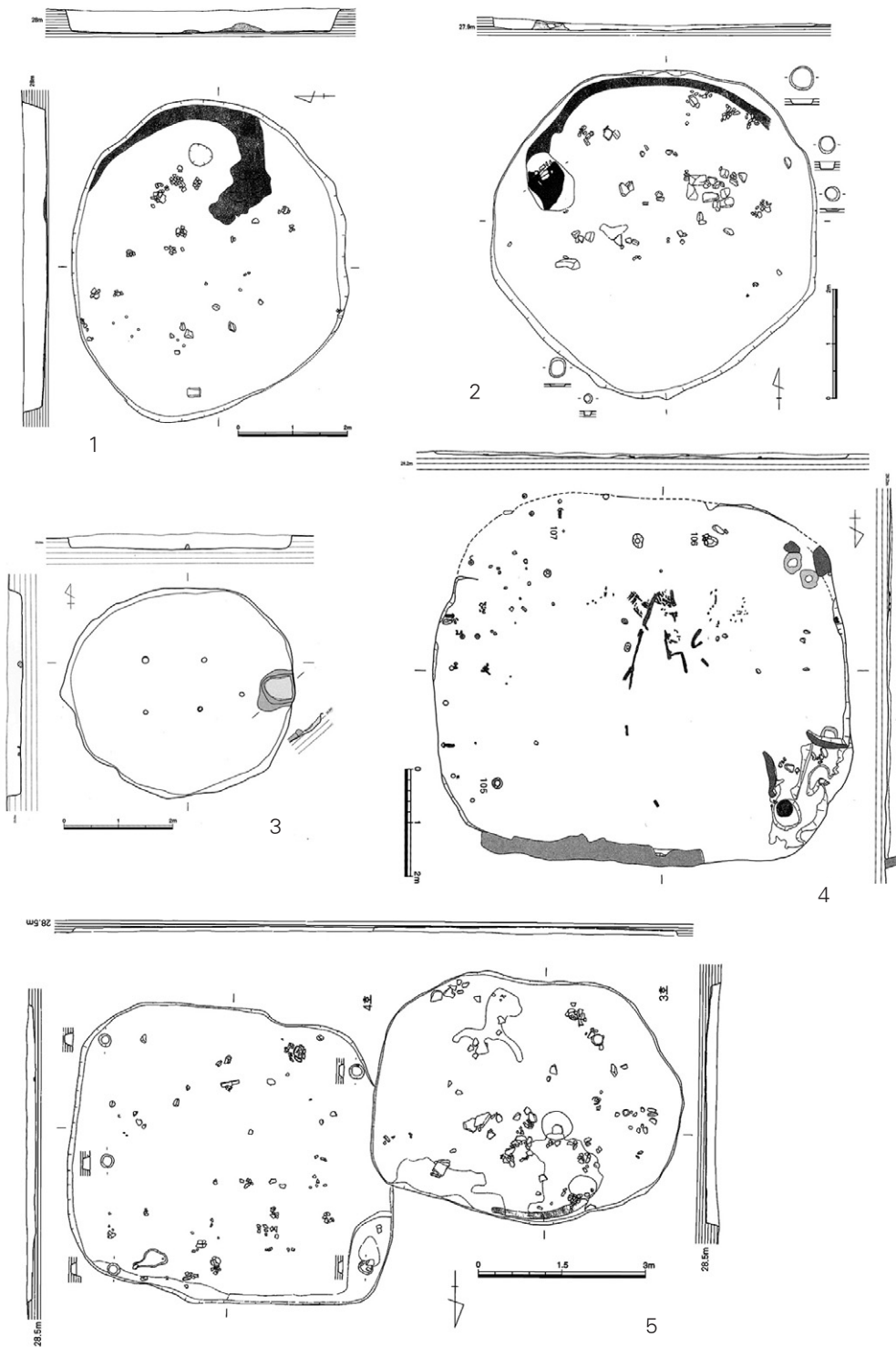


〈도면 4〉 각 단계별 주거지 분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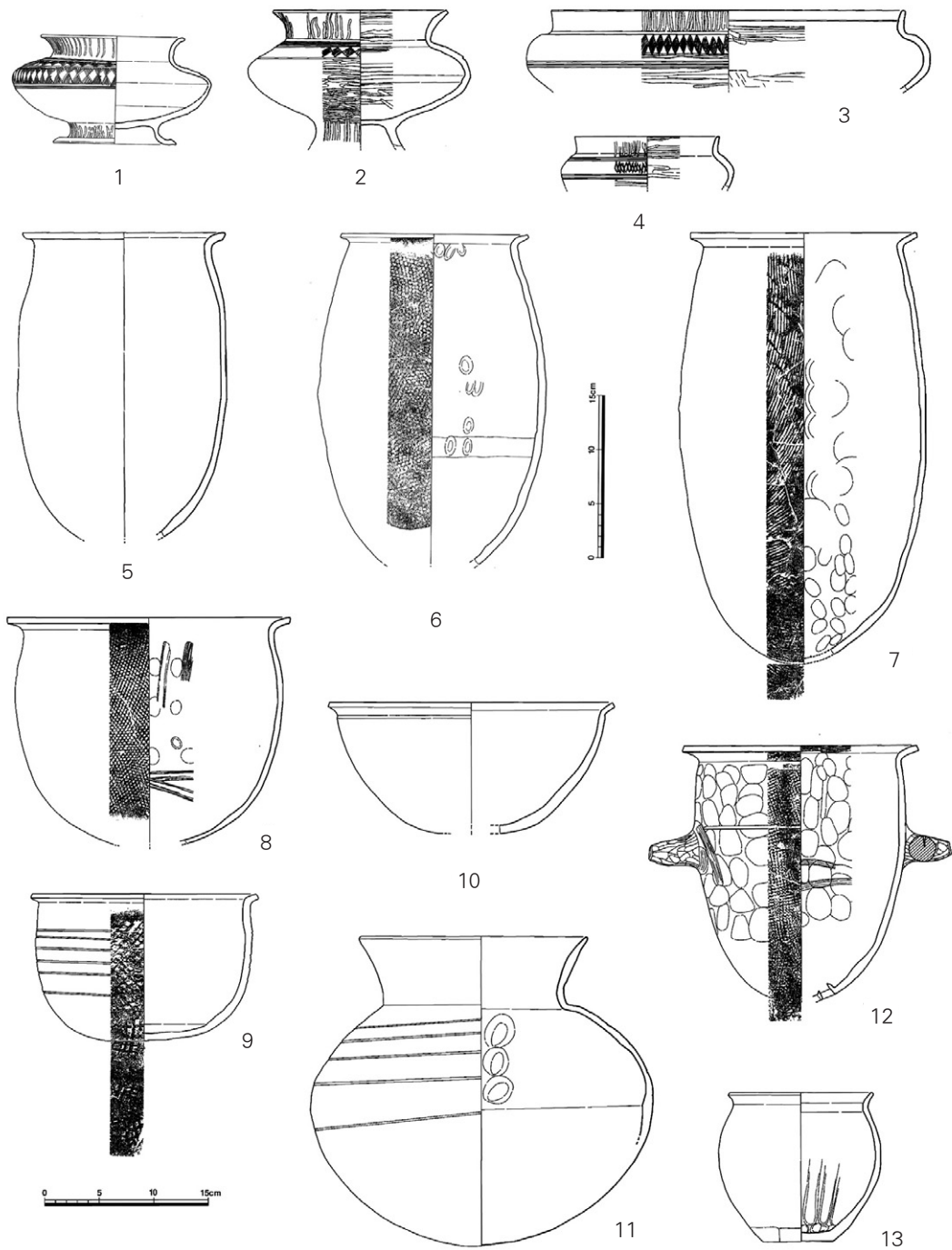
〈도면 5〉 황성동 1단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1·13·16·19·22: I 다-9호 주거지, 2·4·5·8·17: I 다-17호 주거지, 3: II 다-6호 주거지, 6·11·18: I 다-12호 주거지, 7: I 다-2호 주거지, 9·12: II 다-5호 주거지, 10·14·21: I 다-1호 주거지, 15·20: I 다-1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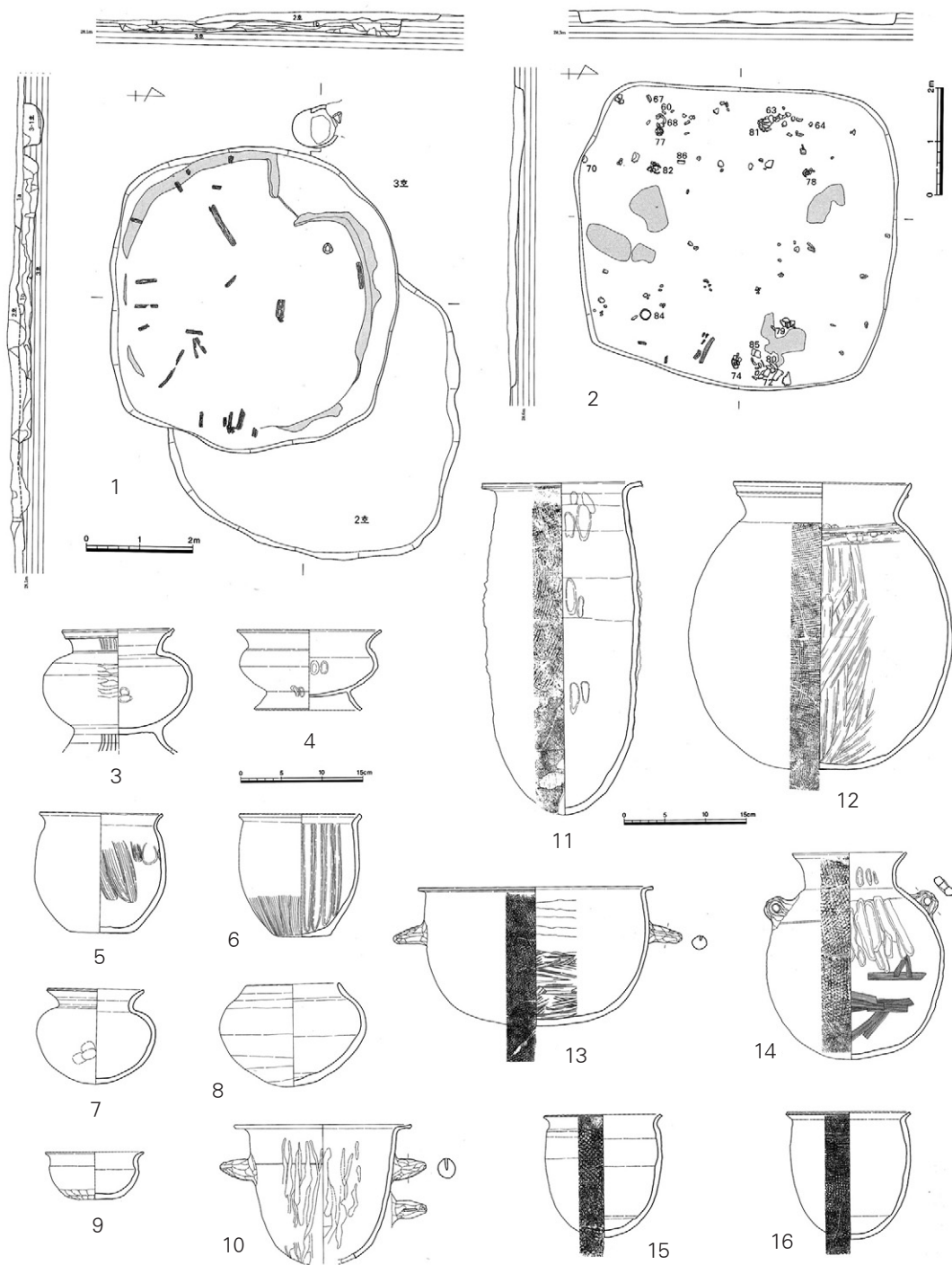
〈도면 6〉 황성동 2단계 주거지

(1: Ⅱ가-6호 주거지, 2: Ⅱ가-7호 주거지, 3: Ⅰ나-5호 주거지, 4: Ⅰ나-6호 주거지, 5: Ⅱ가-3·4호 주거지)



〈도면 7〉 황성동 2단계 주거지 출토유물

(1·6: Ⅰ나-6호 주거지, 2·3·12: Ⅱ가-8호 주거지, 4·13: Ⅱ가-20호 주거지, 5: Ⅱ가-7호 주거지, 7: Ⅱ가-5호주거지, 8·9: Ⅱ가-3·4호 주거지, 10: Ⅰ가-1호주거지, 11: Ⅰ가-4호 주거지)



〈도면 8〉 황성동 3단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1·15·16: Ⅱ나-2·3호 주거지, 2·3·5·7·12: Ⅱ나-4호주거지, 4·6·9: Ⅱ나-1호 주거지, 8·10·11·13·14: Ⅱ나-2호 주거지)

경주 황성동유적 製鐵文化에 대한 연구

김권일*

〈 목 차 〉

I. 머리말	IV. 제철유구의 연대설정
II. 제철유구의 유형분석	V. 황성동 제철유적의 생산시스템
III. 제철유구의 공간분석	VI. 맺음말

요 약

본고에서는 최근 진전된 경주 황성동유적의 조사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황성동 제철유적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황성동 제철유적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연구보다 다양한 기능의 제철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제철로의 유형에 따른 시·공간적인 구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조업단계별 생산시스템도 그 변화의 폭과 내용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사적 측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황성동유적의 제철문화는 4개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각 단계의 종합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전기와질토기가 출토되는 원형주거지(단야주거지 a군) 내에서 단야조업이 이루어지는 단야1기로 기원후 1세기 중반~2세기 전반대에 해당된다. 중부지역이나 강원지역 등 한반도 남부지역 초기제철문화의 양상과 큰 차이가 없다.

2단계는 후기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말각)방형주거지(단야주거지 b군) 내에서 단야조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독자적인 단야공방지가 형성되는 시기로 세분되는데, 황성동 제철문화의 특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2세기 중반~3세기 중반대에 해당된다.

3단계는 황성동에서 주조철부 제작을 위한 용해조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가장 큰 획기가 된다. 후반기에 정련과 초강공정이 도입되면서 생산시스템이 완전히 분업화되고 체계화되는 2세기 말~3세기 중반에 해당된다.

4단계는 황성동에서 III·IV식의 주조철부가 생산되는 시기로, 순수한 단야·용해공정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鋼의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3세기 후반~4세기 전반기이다.

한편 사로국과 관련한 황성동 제철집단의 성격 및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읍락간의 대등한 연맹체 단계에서 국읍이 돌출하여 읍락을 종속시키는 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용해기술이 도입되는 3단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계에는 생산구조와 생산품, 유통시스템 등을 포함한 사로국 사회구조의 많은 변화를 상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三韓을 포함한 고대국가의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通時的인 관점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의 微視的 시각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셈이 되고 말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주제어] 황성동 제철유적, 정련, 단야, 용해, 초강, 주조철부, 생산시스템

I. 머리말

본고는 최근 증가된 경주 황성동유적의 고고학적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초기신라 제철문화의 발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형성기 철 및 철기의 도입과 발전은 철제 농기구의 생산과 보급을 통해 농경과정과 생산력의 변화 및 정치권력의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李賢惠 1998, 126), 나아가 여러 읍락들을 하나로 묶어 「國」을 형성시키고, 또 그 공간적 경계를 결정짓는 강력한 요건이 된다(權五榮 1996, 109~110). 따라서 초기국가의 경제·정치·문화의 이해에 있어 철과 철기의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은 신라왕경에 소재한 대규모의 제철공방지로, 1988년도 이래 꾸준히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른 연구도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權丙卓 1993; 孫明助 1997; 金權一 2003; 崔景圭 2004; 林東在 2005). 황성동유적에서는 제철유적 뿐만 아니라 다수의 청동기~원삼국시대 주거지와 원삼국~통일신라시대 분묘가 조사되었으며, 특히 원삼국시대 분묘와 취락의 조사성과는 제철유적의 성격 규명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철유적에서는 안정적인 유물출토의 예가 적고 아예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황성동 제철유적의 경우 주변에 동시기의 주거 및 분묘유적이 동반하기 때문에 관련성 검토를 통한 집단의 성격규명과 편년의 단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황성동 제철유적의 성격에 있어서는 아직 일치된 견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제철유구 자체의 성격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제철유구의 특성상 조업시기를 알 수 있는 안정적인 유물의 출토 예가 거의 없으며 ③ 제철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분석연구가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함께 ④ 공반된 주거 및 분묘유적과의 관련성 검토 등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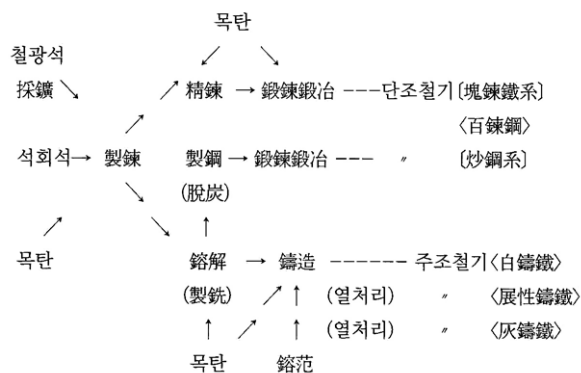
황성동유적에서는 단야주거지를 비롯하여 단야로, 용해로, 정련(단야)로¹⁾, 제강로 등 다양한 제철로가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부속유구와 관련유물이 확인되었다. 또한 금속학적 분석을 통해 일정 시기부터는 인근한 달천광산의 원료를 사용했음도 밝혀졌다. 따라서 제철공정의 복잡성 및 다변성과 함께 채광에서 단조·주조에 이르는 유기적인 생산시스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황성동 제철유적의 성격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개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우선 제철유구 중 조업의 성격과 직결되는 제철로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공간적 영역과 역할을 규정하고, 이러한 공간성 및 관련유물의 검토를 통해 각 단계별 조업의 연대를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황성동 제철유적의 생산시스템과 집단의 성격 및 신라국가 형성과정에서의 의미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제철유구의 유형분석

제철조업²⁾은 철광석이나 사철, 토철 등의 원료를 제련 및 정련하여 소재를 얻는 공정과 이를 단타성형하여 단조철기를 만드는 공정, 그리고 용해한 소재를 거푸집에 흘려 부어 주조철기를 제작하는 공정 및 강철제 철기의 생산을 위한 제강공정으로 대별된다. 제강은 노에서 소재자체를 鋼化하는 방법과 이미 제작된 철기의 특정부위에 침탄이나 탈탄을 가해 鋼化하는 방법이 있다.



〈도면 1〉 고대 철기제조공정의 종합적 체계
(이남규 2008)

〈도면 1〉은 이러한 철기제조 공정의 체계를 나타낸 것으로, 각 공정 중 고온의 가열을 위한 爐가 필요한 공정으로는 ① 원광의 焙燒를 위한 배소로, ② 배소된 원광의 제련을 위한 제련로, ③ 제련된 철괴의 정제(1차 성형)를 위한 정련(단야)로, ④ 단타와 성형을 위한 단야로, ⑤ 주조를 위한 용해로, ⑥ 소재의 鋼化를 위한 제강로의 6가지가 있다.

- 1) 精鍊은 제련공정에서 생성된 철괴를 재차 정제하는 순수정련과 정제과정에서 단타를 통해 불순물을 타출시키고 일정한 규격으로 성형하는 정련단야의 2개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선철, 후자는 연철 정련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제련과정에서 製鍊을 생산할 정도의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더 이상 선철의 정련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성동유적의 정련(단야)로는 높은 노내온도를 의미하는 노벽철재와 단조박편, 소철괴 등 단야유물이 검출되는 작업장이 공반된다. 이러한 특징은 단야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정련의 기능에 더 비중을 두어 정련(단야)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2) 제철이란 제련공정을 일컫는 좁은 의미와, 제련에서 단야·용해까지의 쉼 工程을 뜻하는 넓은 의미의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필자는 후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철의 생산과 철기의 제조는 엄연히 다른 공정이지만 아직까지 製鐵과 製鍊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정련, 제강 등 소재의 생산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힘들다.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로써 제철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제철·제철로·제철유적·제철유구 등도 같은 맥락임을 밝혀 둔다.

〈표 1〉 황성동 제철유구의 조사현황과 관련시설

연번	유적명		내 용		출 전
			주요 유구	부속 · 부대시설	
1	907-2 유적	가 지구	주거지, 용해로, 폐기장, 단야로	(노벽·철재)폐기장 2	국립경주박물관, 2000
		나 지구	주거지, 단야로, 가마, 저탄장	저탄장 1, 주혈건물지 1, 가마 2	경북대 박물관, 2000
		다 지구	주거지, 저탄장, 폐기장, 단야로?	저탄장 1, (용범)폐기장 1	계명대 박물관, 2000
		고가수조	정련로	작업장 1	계명대 박물관, 2000
2	524-9유적		용해로	주혈건물지 1	국립경주박물관, 1999
3	537-2유적		용해로, 정련(단야)로, 폐기장	(거푸집, 송풍관, 철재)폐기장 6, 작업장 6, 주혈건물지 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4	535-8유적		용해로, 수혈유구	수혈 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5	강변로유적		용해로, 초강로, 폐기장	(거푸집, 철판)폐기장 2, 작업장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6	886-1유적		용해로, 소성·수혈·구상유구, 저탄장	저탄장(수혈 2호) 1, 구상유구 3, 소성유구 8, 수혈 1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7	887-8유적		용해로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황성동유적에서는 다수의 제철관련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속성의 일부라도 알 수 있는 제철로는 약 47기이다. 또한 단야의 흔적이 확인되는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12동 정도이고, 그 외에 수기의 거푸집·철재·송풍관 폐기장, 저탄장, 주혈건물지, 구상유구, 소성유구 등의 관련유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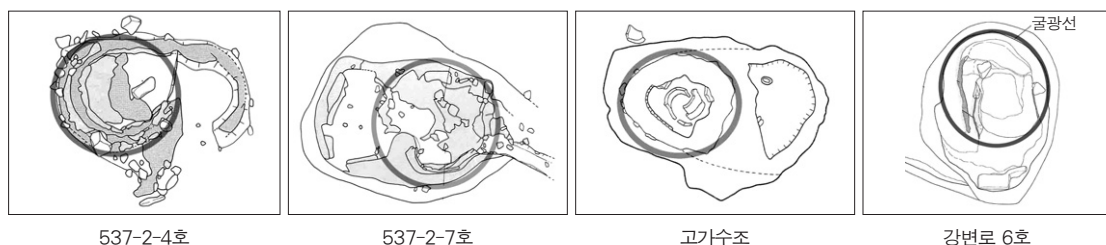
제철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爐이며, 다른 유구들은 대부분 노의 부속 혹은 파생시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철로를 유형분석의 1차적 대상으로 하고, 그 외 부속유구는 노의 유형 분석에 필요한 세부항목으로 이용하였다³⁾.

1. 노의 구조

황성동유적에서 조사된 제철로의 평면형태는 대부분이며, 타원형으로 보고된 노는 7기가 있다(고가수조 노, 537-2-2-2, 537-2-4, 537-2-7, I-가-5, 강변로-4, 강변로-6). 이 중 I-가-5호 노⁴⁾를 제외하고는 〈도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원형 혹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였다가 후·개축이나 조업 후 파쇄·보수 등에 의해 평면형태가 변형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황성동유적의 제철로는 원형의 평면형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불가

3) 제철로의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의 분류방법은 순전히 필자의 자의적인 것임을 밝혀두며, 차후 비판과 검토를 통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4) I-가-5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조사보고자는 이를 기 조사된 황성동 용해로와 같은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啓明大學校博物館 2000, 203), 손명조는 고가수조 노와 함께 용해로에서 생성된 이물질이 많은 주철이나 파손품을 다시 용해하여 단조용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재용해로로 추정하고 있다(孫明助 1997).



〈도면 2〉 타원형 노의 기본구축 모식도(○-최초 노의 범위)

능하다⁵⁾.

다음으로 조사된 노의 크기를 살펴보면 〈도면 3〉과 같은데, 지름 50~80cm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크기에 따른 분류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I 군은 30~50cm 사이의 크기가 많아 노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으며, IV군의 크기는 40~110cm로 다양성을 가지지만 가장 규모가 큰 노가 속해 있다. I 군과 IV군은 노의 구조와 출토유물로 보아 각각 단야로와 용해로에 대입되며 그 기능에 대한 연구자간의 이견은 없다. 반면 지름 50~80cm에 한정되어 있는 II 군과 50~70cm 사이에 집중된 III군의 기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 필자는 잠정적으로 이를 각각 제강로와 정련(단야)로로 상정하며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小		中			大			
	가-1-1							I 군
	I-나-16							
I-나-15	II-가-E			I-나-16				
II-가-F	II-가-A	II-가-B		II-가-D				
		강변로-4		강변로-9				II 군
		강변로-2		강변로-7				
		강변로-8	강변로-3	I-가-5				
		537-2-7						III 군
		537-2-4	고가수조					
537-2-6		537-2-2	537-2-2	537-2-5				
			I-가-16					IV 군
		886-1-2	I-가-9					
		I-가-15	886-1-2	886-1-3				
	537-2-12	I-가-7	886-1-2	537-2-10		524-9	537-2-3	
30	40	50	60	70	80	90	100	110cm

〈도면 3〉 황성동유적 제철로의 外徑에 따른 도수분포⁶⁾

- 황성동유적 제철로에서는 분류기준으로서 큰 의미가 없으나 동시대의 진천 석장리유적과 고려~조선시대 제철로에서는 원형로와 함께 장방형로가 다수 확인되기 때문에, 이 경우 평면형태가 제철로의 분류기준이 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 노의 규모는 벽체가 남아 있어 지름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타원형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조업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최초 원형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형로의 경우를 상정하여 단축의 길이를 대입하였다. 또한 보고문에 따라 노의 외경이나 내경만을 기술하는 등 계측치가 일치하지 않지만 대부분 외경을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고, 노의 내벽을 점토로 덧발라 보수하면 내경이 좁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경의 계측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차후 발굴조사시 노의 계측에 있어서 일치된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노의 외경과 벽체의 두께를 계측·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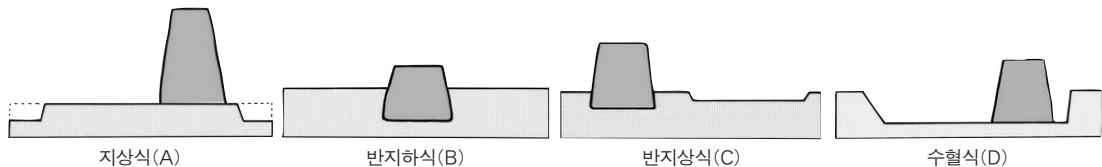
다음으로 제철로는 노의 구조에 따라 지상식(A), 반지하식(B), 반지상식(C), 수혈식(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상식은 노의 바닥 정지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물이 지상에 위치하거나 주변보다 더 높게 段臺를 형성하는 구조로, 집안 오회분 벽화와 조선시대 김홍도·김득신의 풍속화 등으로 보아 고대의 단야로에서 근·현대 재래시장의 전통대장간에 이르기까지 단야로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반지하식은 노의 절반 이상이 당시 생활면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인데, 유출재가 공반되는 제련로나 排滓部の 활용이 현저한 단야로에서는 부적합한 구조이며, 부산되는 철재의 양이 적은 용해로·초강로 및 고체 혹은 반용융상태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주철탈탄로·관강로 등의 구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반지상식은 노의 바닥면이 당시 생활면보다 아래에 있지만 이보다 깊은 배재부가 있는 경우와 경사지를 ‘L’자 모양으로 굴착한 면에 시설하여 노의 전면은 지상에, 후면의 하부는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다량의 유출재가 부산되는 제련로의 일반적인 구조이다.

수혈식은 방형 혹은 타원형의 수혈을 조성하여 내부의 한쪽 공간에 노를 구축하며, 경주 황성동·진천 석장리·울산 둔기리 등 (원)삼국~조선시대 용해로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조는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용해조업의 특성상 거푸집의 定置와 쇳물의 주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변과의 경계를 분명히 해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황성동유적 제철로의 구조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 〈도면 4〉이며 이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 〈표 2〉이다. 비록 고고학 조사에서 당시 생활면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舊지표면의 추론과 주변 유구와의 비교를 통해 다소간의 분류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면 4〉 노의 구축방법에 따른 분류 모식도

〈표 2〉 노 구조에 따른 황성동 제철로의 분류

구 분	해당 유구	비 고
수혈식	I-가-3, 7, 8, 9, 10, 12, 15, 16호, 강변로 5호, 886-1-1, 2, 3, 4호, 537-2-1, 3, 9, 10, 11, 12, 13호, 524-9 용해로, 535-8 용해로, 887-8-1, 2호	용해로
반지하식	강변로 2, 3, 4, 6, 7, 8, 9호	제강로
반지상식	537-2-2, 4, 5, 6, 7, 8호, 고가수조 노, I-가-5호	제련로 정련(단야)로
지상식	I-나-15, 16, 17호, II-가-A, B, C, D, E, F	단야로

2. 철재의 용착양상

제철로는 공정에 따라 원료, 노내온도, 조업시간 등의 각기 다른 환경으로 인해 조업 시 벽체 내면에 다양한 형태의 철재가 부착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제철로의 철재용착양상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1형은 철성분이 많은 적갈색 철재가 노 하부에만 소량 부착되는 경우로, 정제된 소재의 사용에 의해 불순물 함량이 매우 적고 조업 시 노내 온도가 낮을 경우에 해당된다. 대부분 단야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단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상식의 그 구조적 특성상 이마저도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2형은 철성분이 없는 청회색 환원염소성 철재가 얇고 고르게 용착되는 양상인데, 이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용해조업의 경우 비교적 정선된 소재를 사용하기는 하나 잔류한 불순물은 철보다 비중이 낮아 용탕을 이루는 과정에서 용선의 상부로 떠올라 걸러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철과 완전히 분리되어 그 일부가 노벽에 용착되므로, 용해로의 노벽에는 옅은 청회색의 환원염소성 철재가 요철면 없이 고르게 용착된다. 다른 하나는 중국 西漢代에 개발된 초강로의 조업방식과 관련된 경우이다⁷⁾. 초강의 생산방식은 노 내부에서 선철을 완전히 용융시키거나 반용융상태까지 녹여 1,200℃까지 이르게 한 다음 계속 휘저어 공기 중의 산소와 철의 접촉면을 증가시켜 액체중의 탄소를 산화시키는 공정인데(楊寬 1992, 279~288), 이 과정에서 소재의 불순물이 덩어리의 표면으로 용출되어 노벽에 부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높은 온도를 보여주는 회청색 환원염소성 철재가 노벽에 골고루 용착되는 과정이 상정되므로 용해로와 유사한 양상의 철재 용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⁸⁾.

3형은 철성분이 많은 적갈색 산화염소성의 철재가 노벽에 요철상을 이루며 부착되는 경우로, 이는 소재에 어느 정도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제철공정상 소재의 불순물 함량이 가장 많은 제련과 가장 적은 단야의 중간과정에 해당되므로 정련공정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3유형에 해당되는 황성동유적의 제철로 (도면 3의 Ⅲ군)는 노와 단조박편·철편 등이 검출되는 작업장이 세트를 이루고 있어 완성된 형태의 단조철기와 단조철기의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노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정련로에는 바닥에 둥근 사발모양의 椀形滓가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금곡동, 김해 여래리 등에서 유사한 형태의 철재가 출토된 바 있다. 아무튼 원료의 불순물 함량이 제련공정보다는 적고 용해나 단야공정보다는 많으므로 철재의 생성 또한 이

7) 노의 구조는 대부분 지하식이며, 선철을 반용융상태에서 계속 휘젓고 탈탄제를 첨가하여 공기 중의 산소와 소재에 포함된 탄소를 攪拌시켜 탈탄하는 공법이다.

8) 원료의 불순물함량이 높을 경우에는 유리질철재가 부착될 수도 있는데, 같은 제강로(초강로)로 판단되는 진전 석장리 B-7호의 경우가 그러하다.

9) 受援大學의 村上恭通 교수의 의견을 따르자면 제련로의 벽체는 소성온도에 의해 높이에 따라 3분할 수 있으며, 하부의 환원층→중간부의 산화층→상부의 피열층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필자의 울산 방리야철지 제련로 1호 조사경험에서는 높이 217cm에 달하는 장방형 제련로의 벽체 내면에 모두 철광석에서 遊離된 철재가 용착되어 있었으며, 바닥으로 갈수록 자성이 높고 적갈색을 띠며 상부로 갈수록 유리질의 회청색을 띠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에 연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제련로의 경우 벽체의 부위에 따라 다른 색상의 철재가 용착되는데⁹⁾, 상부에는 비중이 낮은 회청색의 유리질철재가 부착되고, 하부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적갈색의 철괴에 가까운 철재가 부착된다. 배소로의 경우 광석에서 불순물이 분리될 정도로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철재는 생성되지 않는다. 황성동유적에서는 이러한 제련로와 배소로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3. 공반유물의 성격

철 및 철기생산의 각 공정에서 출토될 수 있는 유물의 개략을 <표 3>에 나타내었으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제련조업의 경우, 고대의 노천에서 채광된 광석은 철 함유량이 30% 내외에 불과하여(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1998) 나머지 불순물들은 모두 철재로 분리된다. 따라서 많은 양의 유출재는 제련유적의 가장 큰 특징이며 제련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사철의 출토 역시 제련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정련공정과 관련된 유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무등산 금곡동유적에서 완형재가 수 점 출토되어 정련조업이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었고(국립광주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1993), 김해 여래리유적에서도 완형재와 유사한 형태의 철재가 출토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완형재와 함께 철성분이 많은 철괴·철재가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순수 정련이 경우 유리질철재·철괴형철재가, 단타가 공반될 경우 단조박편·입상재 등 경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유물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단야조업에서는 단타를 통한 성형과 열처리, 날내기가 주요 작업이므로 단조박편·입상재 등의 단야재와 (소)철괴·철기편 등의 성형 부산물이 생성되며, 모루와 타격·피열흔이 있는 석재 등이 출토된다.

용해조업의 양상은 비교적 확연하다. 성형과 용선의 주입을 위한 거푸집과 도가니가 필요하며, 도가니가 출토되지 않을 경우 황성동유적의 경우와 같이 出湯具를 이용해 용탕을 주입할 수

<표 3> 제철공정에 따른 관련유물

공정	관련 유물
제련	다량의 유출재, 철괴형철재, 대구경송풍관, 철광석, 사철, 철괴, 단야구
정련	완형재, 대구경송풍관, 단야구
단야	소구경송풍관, 단조박편, 입상재, 모루·망치·집게 등의 단야구
용해	유리질철재, 대구경송풍관, 거푸집, 도가니, 出湯具, 석회석·폐각·동물뼈(造滓劑), 단야구
제강	초강-소량의 유리질철재, 대구경송풍관, 철광석 분말·사철(탈탄제), 단조박편, 단야구

10) 황성동유적 제철로 공반유물은 그 출토위치가 불분명하여 절대적인 속성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공정별 파생가능한 유물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지만 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있다¹¹⁾. 또한 불순물의 분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造滓劑로서 석회석·패각류·동물뼈 등이 검출될 수 있다.

한편 황성동과 석장리유적에서는 탈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철광석(분말)과 사철이 출토되어 초강조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초강 등의 제강조업에도 성형과 개재물의 압출을 위한 단타작업이 공반될 수 있으므로 모루·단조박편·입상재, 臺石 등이 출토된다.

이 외에도 제철조업에는 단야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황성동유적을 포함한 제철유적에서의 출토 사례는 극히 적다. 오히려 분묘의 위계에 따른 부장양상으로 보아 공인의 신분과 관련된 적극적인 자료로 볼 수 있다(金銀珠, 2006). 한편 단야나 일부 정련단야 공정에서는 소구경송풍관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황성동유적에서는 대구경송풍관만 출토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원삼국시대 가평 마장리유적이거나 고려~조선전기의 고령 용리유적(申鍾煥 2006) 등에서 출토된 지름 2~4cm의 송풍구로 보아 노벽의 송풍구에 원통형의 도구(대나무 등)를 꽂아 송풍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孫明助 1996, 30), 황성동유적과 같이 체계적인 생산시스템이 갖추어진 공방에서는 장착 및 분리가 용이한 풀무와 대구경송풍관을 필요시마다 해당 노에 장착하여 송풍했을 가능성도 있다(金權一 2003, 77).

4. 금속학적 분석결과

제철관련 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 있다. 황성동 제철유구에서는 5개소의 발굴조사에서 6건의 제철관련 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조사 보고가 있었으며 그 현황은 <표 4>와 같은데¹²⁾,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의 4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류 : 단야주거지에서 검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에서는 球狀小鐵塊로 명명된 시료에서 백주철 또는 회주철의 고탄소 조직이 확인되어 선철로부터 가공된 소재의 사용이 상정되었으며 비소(As) 성분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尹東錫·大澤正己 2000).

나류 : 강변로유적 3호 노 출토시료에 대한 분석에서는 철광석을 이용해 선철을 탈탄시켜 강을 생산하는 초강법(탈탄강)의 공정(大澤正己·長家伸 2005)과 순철을 침탄시켜 강을 생산하는 강엿쇠독(침탄강)의 기능(권혁남·유혜선 2005)이 동시에 상정되었다.

11) 出湯具는 경주 황성동유적의 용해로에서만 1~2점씩 출토되었으며, 용도미상 토제품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용해된 쇳물의 湯道로 보는 견해(孫明助 1996; 國立慶州博物館 1999)와 봉상철기의 거푸집으로 보는 견해(東潮 2000;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가 있다. 발표자의 소견으로는 ① 후자의 경우 쇳물이 고여야 하는데 양쪽 모두 끝부분이 트여져 있다는 점, ② 상면이 고르지 않아 범저와 범개가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 ③ 이들이 용해로에서만 1~2점 출토된다는 점, ④ 한쪽 가장자리 가까이 단이 진 것이 있어 결합의 구조를 보여주는 점 등으로 보아 前者와 같이 용해로의 노벽에 부착하여 거푸집에 쇳물을 흘려보내는 湯道로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2) 분석결과가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철조업공정에서는 다양한 과정의 생산·파생품이 생성될 수 있지만 시료의 선별 및 동일시료 내에서의 분석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 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분석자의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공정이 상정되는 점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시료의 선별과 결과의 해석에 대한 관련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류 : 537-2번지유적의 정련(단야)로 출토시료에서는 고탄소강 조직을 통해 선철로부터 생산된 소재가 탈탄의 개선을 거쳐 단야의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박장식 2001).

라류 : 용해유구에서 추출된 시료에는 비소가 포함되어 있음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어 달천광산의 원료를 사용한 소재를 이용하여 주조철부를 생산했음이 분명해졌다. 또한 SiO_2 , CaO 등이 검출되어 造滓劑로 석회를 사용하였음이 밝혀졌으며, 백주철 혹은 회주철 조직의 선철제품이 생산된 점 등이 지적되었다(尹東錫·大澤正己 2000; 신경환 외 2007). 537-2번지유적 용해로 출토 시료에서는 순철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켜 강을 생산하는 灌鋼의 기능이 상정되기도 하였으나(박장식 2001), 관강법은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에 개발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신경환 외 2007)도 있다.

〈표 4〉 황성동 제철유구의 금속분석 연구사례

연번	유적명	분석자	내 용	출 전
1	524-9번지유적	大澤正己	철광석(탈탄제의 가능성)에 비소 포함(달천광산), 벽체-점토+짚+5mm 이하의 돌가루, 내화도 1,200℃정도	국립경주박물관 1999
2	907-2번지유적	윤동석 大澤正己	단야주거지-As 거의 없음, 구상소철괴-백주철 또는 회주철조직의 고탄소 선철계, 용해로-선철(백주철 또는 회주철조직), $\text{CaO} \cdot \text{MgO}$ 의 용매제 성분 및 As 함유, 저탄소계의 소철괴 및 截頭圓錐鋼	국립경주박물관 2000
3	537-2번지유적	박장식	용해로-유리질철재, 관강법, 단야로-철광석 혹은 철산화물, 고탄소강, 용해로 생산의 철강소재를 마무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4	강변로유적	大澤正己 長家伸	3호 노-자철광, 단조박편, 입상재, 자철광은 산화탈탄제, 철괴계유물·흑연화목탄→조강법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권혁남 유혜선	전철량 50%, $\text{Si} \cdot \text{Al} \cdot \text{Ca}$ 등 조제성분 평균 10% 미만의 고순도 철광석 사용, 순철로 강을 생산하는 강염석독	
5	886-1번지유적	신경환 이남규 장경숙 이재용	반환원괴- FeOx 가 주성분인 wustite조직, 금속철성분 60~70%, $\text{SiO}_2 \cdot \text{CaO}$ 검출(조제제 사용), 철재-칼슘 성분 1.08~5.14 조제제로 석회 사용, 선철 생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상기의 분석결과를 보면, 단야주거지 내에서 단조철기를 제조하는 단계에서는 울산 달천광산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후 단야공방지로 분화되고 용해조업이 시작되는 단계에 와서야 달천의 원료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야주거지와 이후 분화된 단야공방지 시료의 특징 중 전자의 球狀小鐵塊에서는 고탄소 조직이 확인되었으나 후자에서는 저탄소 조직이 확인되어 원료공급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차후의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¹³⁾. 용해로에서는 고탄소의 백주철 혹은 회주철로 주조철부를 생산하였으며, 출토된 주조철부 거푸집과

13) 분석한 시료의 수가 너무 적고 단야유구 출토시료의 특성상 층위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필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세기를 전후한 이 시점에는 경주지역에서 이미 주조철기와 단조철기가 모두 출토되며, 철기유물의 급격한 증가와 다호리유적 목관묘의 철광석 부장 등으로 보아 선철의 생산과 탈탄이라는 개선의 과정을 통한 단야소재의 생산이 있었을 수 있다. 또한 제련공정에서는 노 내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탄소함량의 생성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고대 철 및 철기생산 기술발전사와 금속분석자료의 집적을 통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원)삼국시대 주조철부에 이러한 관강의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황성동의 용해로에서는 선철을 이용해 대량의 주조철부를 생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강변로유적의 경우 분석자에 따라 같은 노를 각각 초강로와 강엿쇠독으로 상정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결과가 제시된 점은 문제로 남아 있다. 차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노의 구조와 파쇄 혹은 분말 형태의 철광석(탈탄제) 출토, 2세기 말 이후라는 시기성 등으로 보아 초강을 생산하던 제강로로 상정한다.

아무튼 기술사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제철의 제반공정을 고고야금학으로 모두 풀기에는 힘들어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의 축적과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원)삼국시대 철기유물의 금속분석에서 초강제품이 다수 확인된 점(尹東錫 1985; 權香阿 1999, 85; 신경환·장경숙 1998; 崔鍾澤 외 2001, 311)을 감안한다면 황성동유적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강 제품을 생산하는 제강의 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표 5〉 분석된 철재의 탄소함량

노의 유형	시료의 탄소함량
단야주거지	중(0.22~0.61)
단야로	저(0.02~0.08%)
정련로	중(1.8%)
용해로	고(1.7% 이상)
제강로	저(0~0.054%)

(탄소함량은 대체로 0~0.025%⇒底, 0.025~1.7%⇒中, 1.7~6.67%⇒高를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며, 금속학적 의미에서 이는 각각 純鐵, 鋼鐵, 鑄鐵을 나타낸다. 자료는 황성동유적 보고서의 尹東錫·大澤正己, 권혁남·유혜선, 박장식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같은 시료라도 측정부위에 따라 다양한 탄소함량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조업시 철재의 생성이 극히 다변적이고 유동적인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탄소함량이 해당시료 성격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5. 관련유구의 성격

폐기장에는 공방지의 성격을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황성동유적에서 조사된 제철관련 유구현황은 앞서의 〈표 1〉과 같은데, 폐기장 11기, 저탄장 3기, 소성유구 8기, 구상유구 3기, (단타)작업장 8곳, 주철건물지 5곳 등이 제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구이다. 대부분의 소성유구와 마찬가지로 제철유적에서는 다양한 양상의 폐기장이 확인되는데, 노 벽체·철재·목탄·송풍관·거푸집 등 단위유물이 폐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두 종류 이상의 유물이 섞여서 확인되는 경우도 많다.

황성동 제철유적의 각 공정과 관련폐기장의 양상을 살펴보면, 용해-거푸집·송풍관·유리질 철재, 정련(단야)-철괴·단조박편, 제강-단조박편·입상재·철광석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들 폐기장은 인접한 제철로의 부산물이 자연스럽게 폐기된 것이며, 주변에 제철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규모가 크고 서로 다른 공정의 유물이 혼재된 경우는 종합폐기장으로 판단된다. 수명이 다한 용해로와 수혈유구로 보고되는 유구도 제철관련 유물들이 폐기된 양상으로 검출되어 공방지의 기능을 다한 후 폐기장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한편 얇은 수혈형태의 유구 내부에서 천석이나(Ⅱ-다-7, 886-1-수혈 2호) 소토가(Ⅰ-나-12) 확인되는 경우는 저탄장으로 볼 수 있는데, 천석을 깔거나 소결처리 등의 일정한 방습시설을 한

후 저탄장으로 사용한 듯하다. 목탄은 모든 제철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데, 저탄장의 크기에 따라 대규모의 제련·용해와 소규모의 단야·정련공정의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⁴⁾.

886-1번지유적에서는 8기의 소성유구가 조사되었다. 유구 주변의 피열흔, 주철 내부의 목탄, 철녹 및 타격흔이 있어 모루돌로 추정되는 천석 출토 등의 특징으로 보아 단야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된다. 하지만 단조박편, 입상재, 철기편 등의 적극적인 단야증거가 없어 성격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단타작업장은 여러 공정의 유구에서 확인되었다. 단조박편, 입상재, 철편 등이 출토되며 정련(단야)로와 제강로, 단야로에 부속된다. 다만 단야공방지에서는 이러한 단타작업장의 양상이 잘 파악되지 않는데, 이는 지상식이라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노와 마찬가지로 삭평되고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철건물지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단야공방지에서는 주철이 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 비해(Ⅰ-다-15호) 용해공방지에서는 주철이 노와 인접하여 따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524-9 용해로). 주철건물에 지붕이 설치되었다고 본다면 단야로는 낮은 온도로 인해 노의 위쪽에 지붕 설치가 가능하지만, 용해로는 높은 온도로 인한 화재의 위험 때문에 노 위쪽의 지붕설치가 어려운 데서 오는 차이로 여겨진다. 예컨대 여러 가지 용도의 작업장, 취사장, 숙소 등 기능에 따라 다양한 주철건물이 부설될 수 있으므로, 노의 기능에 따른 건물지의 성격도 세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성격미상 가마, 수철유구, 소토유구, 도로, 우물, 주철군, 부석유구 등이 다수 조사되었으나, 시기와 성격을 알 수 없거나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6〉 황성동유적 제철로의 유형

연번	유구명	속성				개수	노의 유형		생산품
		노구조	철재 용착	유물 성격	금속 분석				
1	Ⅱ-가-4·5·8·9·11·13호, Ⅰ-다-1·9·11·12·17호, Ⅱ-다-5호	D	-	단야	가	12	단야로	주거지	단조철기 관상철부
2	Ⅰ-나-15·16·17호, Ⅱ-가-A·B·C·D·E·F	ⅠA	1			9		공방지	
3	Ⅰ-가-5호, 강변로 2·3·4·6·7·8·9호	ⅡB	2	초강	나	8	제강로		강 소재 무기, 공구
4	537-2-2·4·5·6·7·8호, 고가수조 노	ⅢC	3	정련 단야	다	7	정련(단야)로		철정 단조철기
5	Ⅰ-가-3·7·8·9·10·12·15·16호, 강변로 5호, 886-1-1·2·3호, 537-2-1·3·9·10·11·12·13호, 524-9 용해로, 535-8 용해로, 887-8-1·2호	ⅣD	4	용해	라	23	용해로		주조철부

14) 최근 고양 벽제동유적에서 고려시대 제철로 및 폐기장과 함께 길이 507cm, 너비 286cm의 대형 저탄장이 조사되었다. 저탄장은 기반층을 40~60cm 굴착하여 목탄을 깔아 정지한 후 40~50cm 크기의 할석과 판석을 4~5단 쌓아서 벽을 축조하였다(수원대학교박물관 2007). 출입시설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저탄장은 대규모의 제련이나 용해공정에 부설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황성동유적 제철로의 유형을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단야주거지는 원형 혹은 방형의 주거지내에 소규모의 노를 설치한 것으로, 삼국~조선시대 얇은 수혈식 단야공방지와 유사성이 인정된다. 단야공방지는 주거지내의 조업에서 벗어나 독립된 전문공방지로 발전한 것으로, 소형의 노와 바닥부에 철성분이 많은 鐵塊系의 철재가 소량 남는 것이 특징이다.

제강로는 반지하식의 구조를 가지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조업방식은 많지 않다. 다량의 유출재와 철재가 파생되는 제련·정련공정에서는 불가능하며 단야와 용해조업에도 적합하지 않은 구조이다. 공반유물로는 철광석편과 단조박편·입상재가 있어 각각 탈탄재와 단타작업을 상징할 수 있다. 금속분석결과는 <표 4>에서 보듯 초강법과 강염쇠독(정련단야) 기능이 각각 제기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같은 공정이라도 소재의 특성이나 조업진행과정의 차이, 분석부위 등에 따라 파생품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술한 제특징들을 참고하여 초강로를 포함하는 의미의 제강로로 분류한다.

정련(단야)로는 排滓口 설치를 위해 반지하식의 구조를 가지며, 철성분이 많은 적갈색 산화염소성 철재가 용착된다. 노와 함께 철괴·철재·단조박편이 검출되는 단타작업장이 세트를 이룬다. 용해로는 (타)원형 혹은 (말각)방형의 수혈 한쪽에 노를 설치하는 구조이며, 노의 크기는 중형이 많지만 소형·대형도 확인된다. 용선 형성시 철재의 일부는 상층에 부유하고 일부 철성분이 전혀 없는 청회색 환원염소성의 철재가 노벽에 용착된다. 주조철부 거푸집과 출탕구는 조업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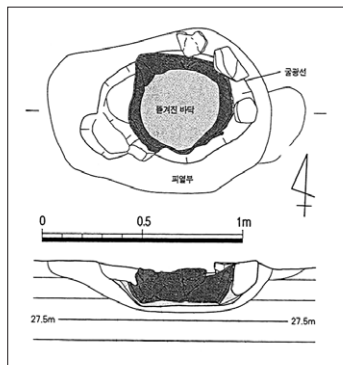
Ⅲ. 제철유구의 공간분석

황성동유적 제철유구의 분포범위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황성동 590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부지유적'의 남서쪽 일부를 포함하는 황성동 618번지, 남쪽으로는 계림고등학교가 있는 황성동 898번지, 동쪽으로는 주공2차아파트 동쪽 담장부의 황성동 536번지, 서쪽으로는 강변로 3-A공구의 524-3번지를 경계로 한다. 즉 황성주공2차아파트와 세잔베르체아파트, 강변로의 일부구간, 대흥입대아파트의 서단부를 포함하는 남-북 방향 타원형의 형태를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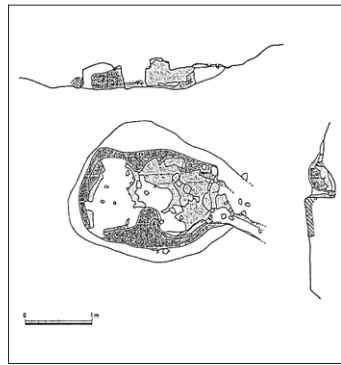
<도면 5>는 황성동 제철유적의 전체범위를 표시하고, 각 유형별 제철로의 위치와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 공간적 범위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이를 A~F의 6개 구역으로 명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남쪽의 A구역은 원삼국시대 주거지역의 남쪽부에 해당되며 단야주거지 a군이 입지한다. 원형 혹은 타원형의 주거지 내부에서 노지와 함께 타격흔이 있거나 피열되어 모루돌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확인된다. 점토대구연의 무문토기를 비롯하여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무견식단조철부, 무경식양익철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며, 다른 유형의 제철유구와는 범위가 중복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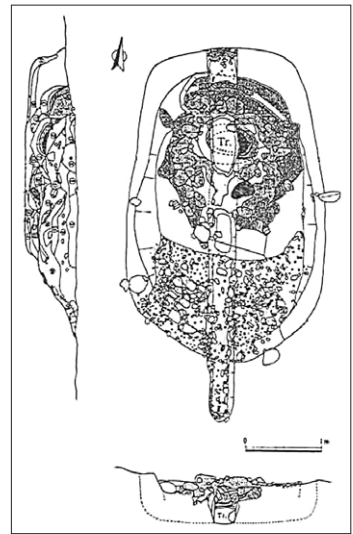
B구역 역시 원삼국시대 주거지역과 단야로군의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혈의 깊이가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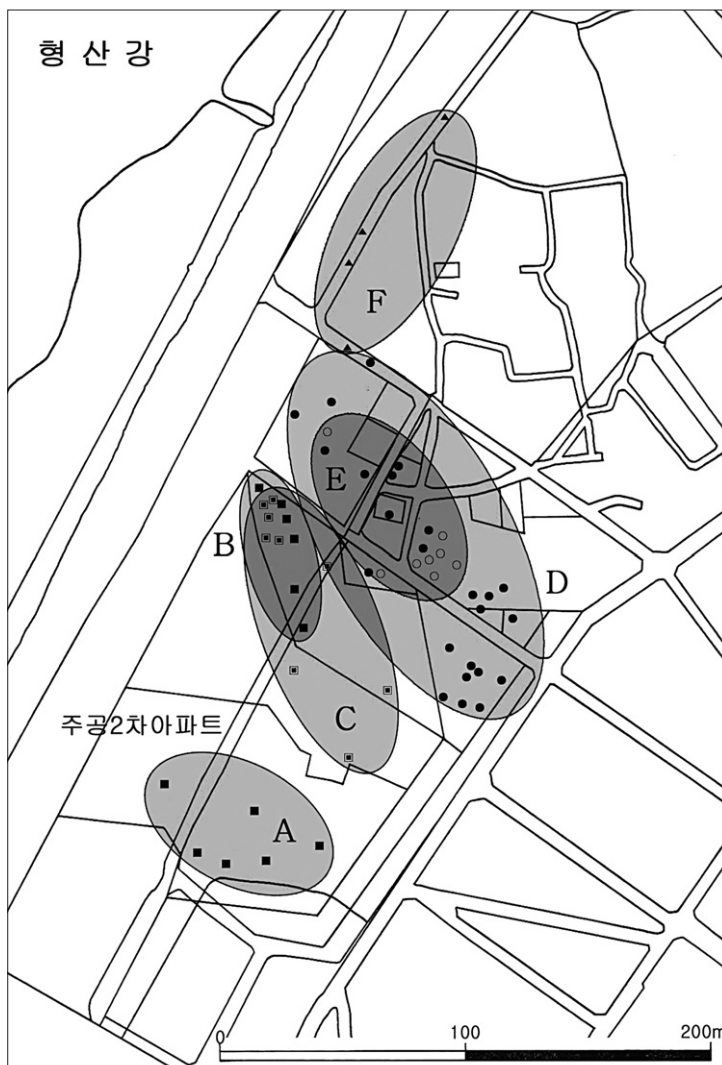
F-제강로(강변로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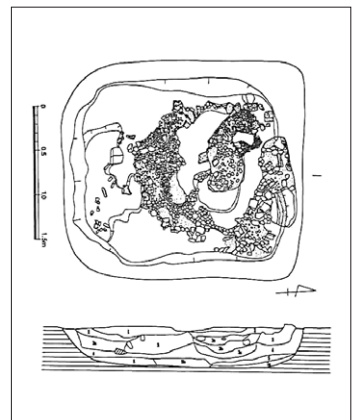
E-정련(단야로)(537-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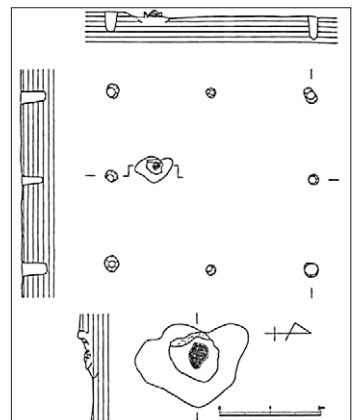
E-옹해로 b군(537-2-3호)



■ 단야주거지 ■ 단야로 ● 옹해로 ○ 정련로 ▲ 초강로



D-옹해로 a군(1-가-8호)



C-단야로(1-다-15호)

〈도면 5〉 황성동 제철유구의 공간구분과 노의 유형

우 얇은 방형 혹은 말각방형의 주거지(단야주거지 b군)가 입지한다. 철괴·단조박편·숫돌 등 제철관련 유물의 출토가 확인하고, 노형토기·고배·단경호·장란형옹 등의 와질토기들이 출토된다.

C구역은 독립된 단야공방지가 입지하는 곳으로, B구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그 범위가 2배 정도 확대되는 형상이다. 단야로는 주철로 이루어진 건물지나 부석시설과 함께 확인되기도 한다. 철기의 생산이 가내수공업의 형태를 벗어나 전문화·집단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D구역은 용해로 a군의 위치와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황성동 525번지를 중심으로 한 일대와 그 주변이며, <도면 5>에서 보듯 제철로의 유형별 단위공간 중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진다. 용해로는 방형 혹은 장방형의 수혈을 굴착하고 내부에 노를 설치하였으며 용해로 b군에 비해 수혈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

E구역은 용해로 b군과 정련(단야)로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D구역의 중앙부에 해당된다. 용해로 b군은 용해로 a군과 같은 (장)방형의 수혈도 사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타원형의 수혈이 나타난다. 이로 보아 D→E로 범위가 축소되면서 정련단야 조업이 부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F구역은 제강로가 입지하는 곳으로, 북동쪽으로는 목곽묘, 적석목곽묘, 옹관묘, 석실묘, 도로유구 등 분묘를 중심으로 한 삼국~통일신라시대 유구와 겹치며, 남쪽으로는 용해로가 확인되는 D구역과 연결한다. 즉 제철로의 유형을 근거로 그 범위를 세분하면 공간적 구성이 확인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황성동유적 제철로의 유형에 따른 공간적 분포범위의 차이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첫째, 공간적 밀집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당시 수공을 담당했던 공인의 기술이 매우 전문적이고 집약적이며 폐쇄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영남지역에서 이러한 예가 확인된 곳은 아직 없으며 더욱이 신라왕경 내에 입지한다는 점은 최고 정치체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단야유적의 경우 A·B·C구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다른 제철로와는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 단야주거지 a군과 b군은 각각 (타)원형과 (말각)방형의 주거지를 표지로 하며, 전자는 원삼국시대 전기, 후자는 후기(慶北大學校博物館 2000, 331) 혹은 삼한시대 중기와 후기(林東在 2005, 57~58), 황성동 I기와 II기(崔景圭 2004, 103) 등으로 편년되고 있어 분명한 시기적 차이가 인정된다. C구역의 단야로군은 단야주거지 b군을 대부분 포함하면서 남동쪽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공인집단의 등장으로 인해 주거지내의 가내수공업에서 주거지 밖으로 전문화·분업화 되어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E구역에는 용해로와 정련(단야)로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정련(단야)로에서는 단조박편과 철괴 등이 검출되는 작업장이 공반하기 때문에 정련작업과 동시에 완성된 형태의 단조철기를 제작할 수 있고, 용해로에서는 주조철부를 대량생산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담금질 등의 열처리를 통해 철기의 재질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E구역에서는 단조·주조·강철제 철기의 생산이 모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체계화되고 발전된 형태의 공방지임이 분명하며 이는 한반도 초기철기의 제작기술로는 이루어질 수 없던 조업상이기 때문에 편년

적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단서도 된다.

한편 D구역의 용해로(용해로 a)군과 E구역의 용해로(용해로 b군)를 놓고 볼 때, D구역→E구역으로의 시간적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출토된 거푸집 내강의 속성과 수량으로 보았을 때 3세기 후반~4세기 전반대보다 그 이전시기에 주조철부가 더 많이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에 비해 후자의 생산은 점차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단순한 선철제의 주조철기보다는 재질의 개선이 가미된 강 제품의 생산이 용이해지면서, 제철로의 용도가 단순주조보다는 정련, 제강 등의 생산으로 변화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F구역의 북쪽 경계부에서는 용해관련 유물포함층을 파괴하면서 4세기대 이후의 목곽묘가 축조되는데 비해, 기술집약적인 측면이 강한 E구역의 주변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잡한 제강의 공정이 부가되지 않은 이른 단계의 용해조업 구역이 더 넓었다가 제강기술의 보급과 함께 조업공간이 축소 및 집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F구역의 제강로군은 다른 제철로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가지며 제철유적의 범위 중 가장 북쪽에 입지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황성동유적의 제철유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 범위가 이동하는 시간성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주거지와 분묘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초강법은 주철탈탄강의 제조법과 함께 고대제철의 기술유형 중 가장 뛰어난 기술의 하나이기 때문에 황성동의 제철로 중에서도 가장 늦은 단계로 볼 수 있다.

〈표 7〉 공간구분에 따른 제철로의 유형

분포 범위	면적(㎡)	제철로의 유형	위 치
A 구역	829	단야주거지 a군	가장 남쪽, 원삼국시대 (타)원형 주거지의 중심부
B 구역	417	단야주거지 b군	중앙부 남쪽, 원삼국시대 방형 주거지에 포함
C 구역	1,192	단야공방지	B 구역을 대부분 포함하면서 남동쪽으로 확대
D 구역	2,502	용해로 a군	중앙부에 해당, 제철유구 중 가장 범위가 넓음
E 구역	831	용해로 b군, 정련(단야)로	D 구역의 중앙부에 해당, 단타작업 동반
F 구역	1,041	제강로	가장 북쪽, 삼국~통일신라시대 분묘와 겹침

Ⅳ. 제철유구의 연대설정

일반적으로 제철유구에서는 안정적인 유물의 출토예가 드물고, 관련유물 또한 편년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년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황성동유적에서는 제철유구의 유형에 따른 공간구분이 확인되고, 단야주거지에서 편년의 단서가 되는 토기와 철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제철로와 동시기의 주거지 및 분묘가 다수 조사되었으며 특히 용해관련 유구에서 출토된 주조철부 거푸집은 분묘출토 주조철부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황성동 제철유구의 편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공간구분과 시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황성동유적 제철유구는 유형에 따라 일정한 공간성을 가지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배열할 수 있다.

전기와질토기가 출토되는 원형 혹은 타원형 단야주거지의 영역인 A구역(단야주거지 a군)이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후기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방형 혹은 말각방형의 단야주거지가 분포하는 B구역이 형성(단야주거지 b군)된다. 이후 기술의 축적 혹은 새로운 기술의 유입으로 인해 전문공인집단이 양산되면서 주거지내의 생산시스템에서 벗어나 분리된 단야공방지 C구역과 용해공방지 D구역(용해로 a군)을 형성한다.

E구역의 정련(단야)조업이 활발해지면서 C구역의 단야공방지는 서서히 사용하지 않게 되고, 이후 용해로는 E구역(용해로 b군)으로 범위가 축소된다. 제강로에서 강 소재를 생산하게 되면 서부터는 용해로 b군·정련(단야)로의 조업과 함께 단조·주조·강철제 철기의 생산이 모두 이루어진다. 제강로의 조업을 마지막으로 황성동 제철유적에서는 더 이상 철기가 생산되지 않는다. 즉 황성동 제철유구의 공간구분으로 본 시기배열은 A→B→C·D·(F)→(F)·E로 요약할 수 있다.

2. 단야주거지와 출토유물

제철유구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송풍관, 주조철부 거푸집, 철재, 철괴가 대부분이어서 편년의 근거로 들 수 있는 유물이 거의 없지만 단야주거지에서는 소량의 토기와 철기가 제철관련 유물과 공반되어 출토되므로 편년설정의 단서가 된다. 특히 분묘출토 유물에 대한 편년은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전술한 자료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단야주거지의 속성과 철기 등 출토유물을 근거로 편년해 보고자 한다.

먼저 황성동 원삼국시대 주거유적의 편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 김세기는 다 지구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원형 또는 타원형이고, 무경식양익철축, 단조철부, 주머니호, 점토대구연토기 등의 출토유물이 다호리유적 출토품과 유사함을 들어 연대를 1세기 초로 설정하였다(金世基 1994). 하지만 손명조는 대비된 다호리유적 출토 주머니호와 철기의 연대가 2세기 전반경임을 강조하여, 황성동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연대를 2세기 전반~중반경으로 보고 있다(孫明助 1998, 101). 임동재는 주거지의 평면형태 및 출토유물 분석을 통해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1세기대, 2세기대, 3세기 전반대로 편년하였다(林東在 2005, 75~76). 최경규는 A·B단계의 2기로 구분하여 A단계는 기원전 1세기 중·후엽~기원후 2세기 중엽, B단계는 2세기 후엽~3세기 말까지로 편년한 바 있다(崔景圭 2004, 89~97).

황성동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그 주변에서 철부, 철축, 철검, 도자 등의 철기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목관·목곽묘에서는 철검, 철모, 철축, 판상철부, 서형철기, 주조철부, 단조철부 등의 철기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주거지에서 출토된 철기유물들과 공반되어 지석, 모루, 철괴, 단조박편 등의 단야관련 유물들이 출토되어, 이들이 동시기 주거지와 그 주변에서의 단야작업을 통해 생성된 유물임을 보여준다.

〈표 8〉 황성동 주거유적 출토 철기유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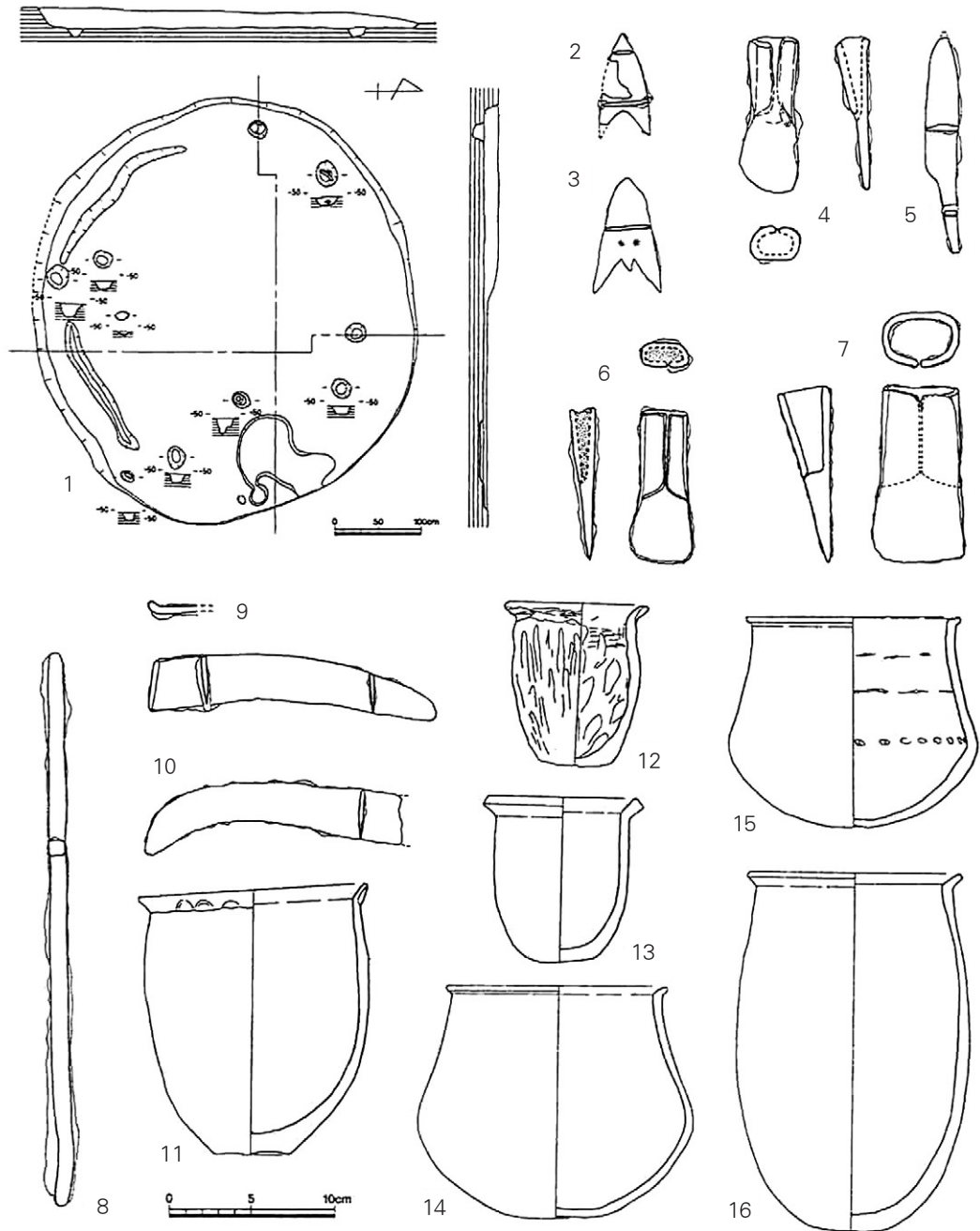
유구	유구명	단조부	주조부	촉	착	검	도	도자	기타 철기	합계
주거지	1-다-1호				1	2				3
	1-다-9호	1		1		1		1		4
	1-다-11호	2				1			2	5
	1-다-12호			1			1			2
	1-다-17호		1	3		1			1	6
	Ⅱ-다-5호					1				1
	Ⅱ-가-8호							2		2
	Ⅱ-가-9호							1		1
	Ⅱ-가-11호					1				1
	계	3	1	5	1	7	1	4	3	25
유구의 출토(계명대)				1		1				2
유구의 출토(경주박)		4	8							12
유구의 출토(경북대)		3	2							5
총 계		10	11	6	1	8	1	4	3	44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철기유물은 총 25점으로, 주조철부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조제품이다. 그나마 주조철부는 인부쪽만 일부 남아 있으며, 가 구역의 주거지내 출토철기로서는 철검 1점과 도자 2점뿐이어서 편년분석의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

먼저 A구역 단야주거지에 속하는 다구역의 주거지내 출토유물 중 단조철부 3점은 길이 9.4~11cm, 너비 3.6~5.8cm의 소형철부에 해당하며, 평면형태는 신부에서 인부로 갈수록 약간 넓어지는 無肩式이다. 鍔斧 단면은 타원형이며 단점부가 서로 붙어 있다. 4점의 철촉은 길이 4~7cm의 평면 삼각형 逆刺式으로, 이 중 3점은 무경식이다. 나머지 1점도 경부가 아주 작아 흔적상으로 처리되고 촉진부 중앙에 화살대에 결합시키기 위한 구멍 2개가 뚫려 있다. 철검은 대부분 편으로만 출토되었으나, I-다-1호 주거지 출토품 중 1점이 完形이다. 길이 17.3cm, 너비 3cm의 크기로, 신부보다 경부의 폭이 약간 더 넓으며, 17호 주거지 출토품 역시 동일한 속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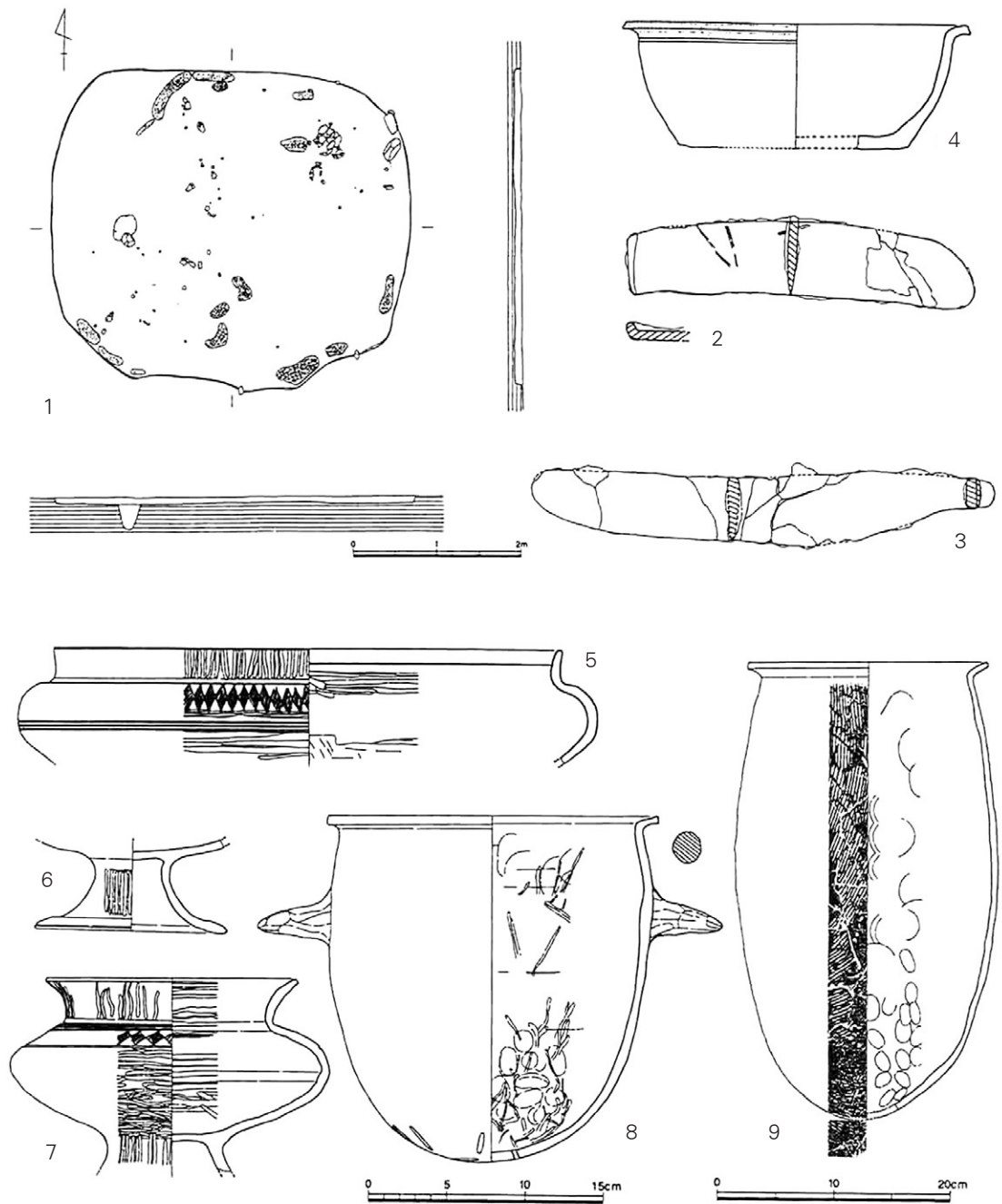
이상의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단조철부는 한국식 동검문화의 靑銅斧를 모방하여 제작한 안재호의 B式(안재호 2000, 226~228)에 해당되는 無肩式이며, 철촉은 강변로유적 목관묘 및 사라리 130호, 대구 팔달동 92호 목(관)곽묘 출토품과 유사하다(도면 6).

한편 B구역 단야주거지에 속하는 Ⅱ-가-11호 주거지 출토 철검 1점은 길이 14.5cm, 신부 너비 3.1cm로, 길이에 비해 신부의 너비가 넓고 만곡도가 약한 특징을 지닌다. 철기 이외의 자료를 참고로 한다면, 다 구역에서 출토되는 점토대토기나 주머니호 등이 보이지 않고, 타날문 단경호가 주류를 이루며, 대각이 넓고 사격자문이 시문된 노형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A구역 단야주거지보다 늦은 시기임을 알 수 있다(도면 7). 이상과 같이 주거지의 형태와 출토유물을 근거로 (타)원형주거지-전기와질토기, 방형주거지-후기와질토기의 조합을 각각의 분기속성으로



〈도면 6〉 A구역 단야주거지와 출토유물

(1·3~5 : I-다-9호, 2·10·11·16 : I-다-17호, 6·7·12 : I-다-11호, 8·9·13·15 : I-다-1호, 14 : I-다-8호)



〈도면 7〉 B구역 단야주거지와 출토유물
(1·4·9 : Ⅱ-가-5호, 2 : Ⅱ-가-11호, 3 : Ⅱ-가-9호, 5·6·7 : Ⅱ-가-8호, 8 : Ⅱ-가-10호)

삼아 두 개의 분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를 참고한다면 전자는 1세기 중반~2세기 전반, 후자는 2세기 중반~3세기 중반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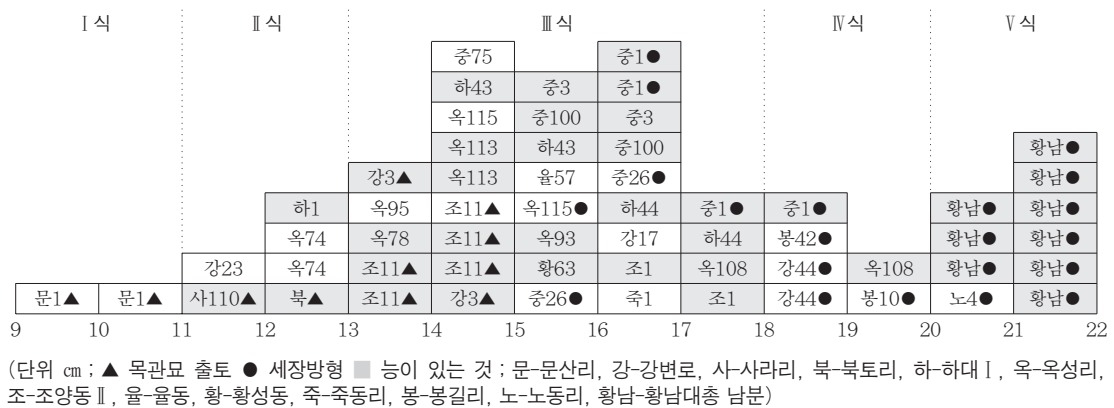
3. 주조철부와 거꾸집

주조철부는 한반도의 철기유입 시점부터 단조철기와 함께 나타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철기유물 중 하나이다. 경주를 포함한 영남지역에서는 시기적 변화상이 비교적 명확한 목관묘, 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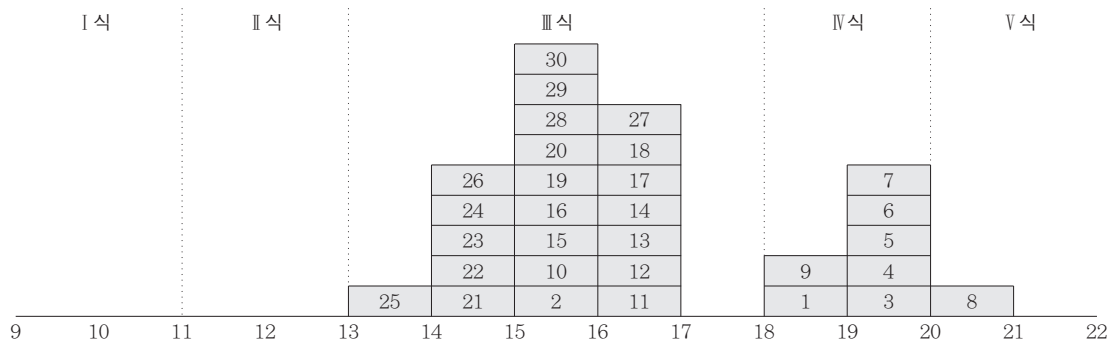
〈표 9〉 경주와 주변지역 분묘출토 주조철부의 속성

일련 번호	유 구 명	유구 종류	도면번호 (출토위치)	크 기(단위 cm)			일련 번호	유 구 명	유구 종류	도면번호 (출토위치)	크 기(단위 cm)		
				길이	인부 너비	공부 높이					길이	인부 너비	공부 높이
1	문-2호	목관	(목2-⑤)	10.5	4.8	3.3	31	하대 I-43호	목곽	44-4	15.1	3.1	3.1
2	문-2호	목관	(목2-⑥)	9.8	4.6	3.2	32	하대 I-43호	목곽	44-5	14.5	5.2	3.1
3	강-3호	목관	32-1	14.2	4.4	3.0	33	하대 I-44호	목곽	53-6	16.7	5.6	3.2
4	강-3호	목관	32-2	14.0	5.1	3.0	34	하대 I-44호	목곽	53-7	17.1	5.6	3.4
5	조 II-11호	목관	39-1	13.5	5.3	3.5	35	황-63호	목곽	42-2	15.3	5.0	2.7
6	조 II-11호	목관	39-2	14.1	5.9	4.1	36	죽-1호	목곽	7-2	16.6	5.0	-
7	조 II-11호	목관	39-3	14.9	6.3	3.6	37	조 II-1호	목곽	8-1	16.8	5.1	2.9
8	조 II-11호	목관	39-4	13.4	5.2	3.9	38	조 II-1호	목곽	8-1	18.0	5.4	3.2
9	조 II-11호	목관	40-1	14.6	6.1	3.7	39	봉-10호	목곽	19-2	19.3	4.7	2.6
10	사-110호	목관	58-4	(11.5)	3.8	2.0	40	울동1108-57호	석곽	82-1	15.3	-	3.0
11	북	목관?	지표	12.3	5.2	-	41	봉 I-42호	석곽	422	18.5	5.0	-
12	옥 II-나-74호	목곽	28-3	12.1	4.4	2.5	42	중 I B-1호	적·목	84-1	17.0	4.4	3.8
13	옥 II-나-74호	목곽	28-4	12.4	4.7	(2.7)	43	중 I B-1호	적·목	84-2	17.1	4.5	2.2
14	옥 II-나-78호	목곽	62-3	13.8	4.9	3.0	44	중 I B-1호	적·목	84-3	17.0	4.4	3.1
15	옥 II-나-93호	목곽	93-1	15.9	5.5	2.9	45	중 I B-1호	적·목	84-4	18.9	4.5	3.8
16	옥 II-나-95호	목곽	95-2	13.5	4.8	3.1	46	강-17호	적·목	81-2	16.2	5.8	3.0
17	옥 II-나-108호	목곽	128-1	18.0	6.4	4.0	47	강-23호	적·목	120-4	(11.5)	5.9	-
18	옥 II-나-108호	목곽	128-2	19.6	6.4	3.8	48	강-44호	적·목	267-13	18.1	4.1	1.8
19	옥 II-나-113호	목곽	142-1	14.4	4.5	2.9	49	강-44호	적·목	268-1	18.9	4.9	3.0
20	옥 II-나-113호	목곽	142-2	14.6	4.5	2.7	50	노-4호	적·목	23-1	20.2	5.6	2.6
21	옥 II-나-115호	목곽	149-1	14.4	4.5	2.7	51	황남 부곽	적·목	101-1	20.3	6.4	3.3
22	옥 II-나-115호	목곽	149-2	15.3	4.2	2.5	52	황남 부곽	적·목	101-2	20.8	7.4	3.5
23	중 I A-26호	목곽	28-6	16.1	4.3	3.5	53	황남 부곽	적·목	101-2	21.0	7.4	3.4
24	중 I A-26호	목곽	28-7	(15.8)	4.3	3.4	54	황남 부곽	적·목	101-3	20.4	7.1	3.1
25	중 I A-75호	목곽	59-3	14.8	4.7	3.8	55	황남 부곽	적·목	101-3	21.5	7.7	3.7
26	중 I A-100호	목곽	74-2	15.2	5.3	2.4	56	황남 부곽	적·목	102-1	21.2	7.0	3.6
27	중 I A-100호	목곽	74-3	16.8	5.2	3.5	57	황남 부곽	적·목	102-1	21.3	6.8	4.3
28	중 I C-3호	목곽	138-2	16.7	6.5	3.2	58	황남 부곽	적·목	102-2	21.8	7.0	3.6
29	중 I C-3호	목곽	138-4	16.0	6.0	3.1	59	황남 부곽	적·목	102-3	21.1	7.3	3.6
30	하대 I-1호	목곽	7-3	13	4.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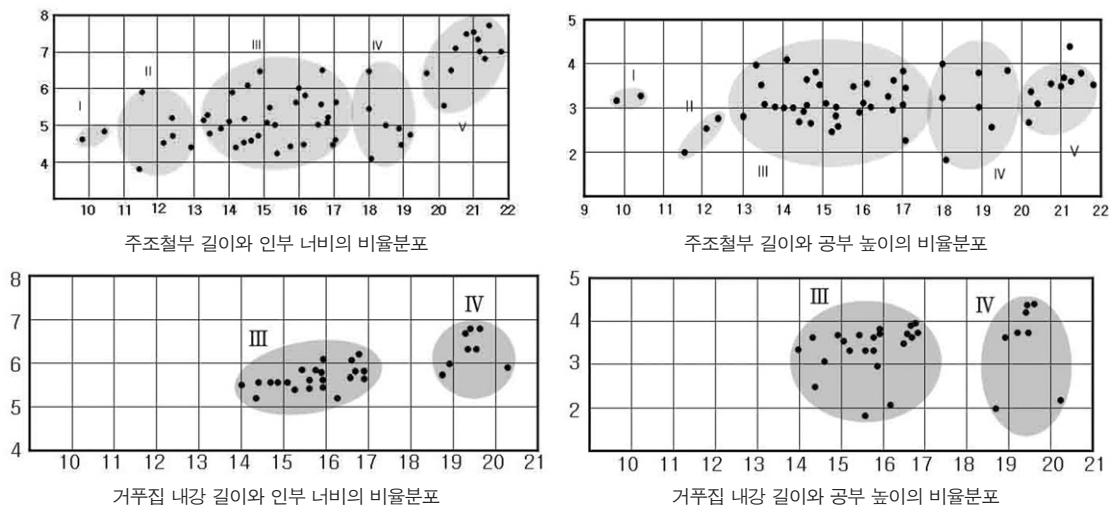
(문-문산리, 강-강변로, 조-조양동, 사-사라리, 북-북토리, 옥-옥성리, 중-중산리, 하-하대, 황-황성동, 죽-죽동리, 봉-봉길리, 울-울동, 노-노동리, 황남-황남대총 남분; 경주 출토 주조철부의 자료가 많지 않은 이유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 묘제와 유물의 속성이 시기 별로 다양한 울산 하대유적, 중산리유적, 포항 옥성리유적의 출토품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묘제의 유형은 연구자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보고문의 분류를 그대로 따랐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일부가 결실되기는 하였으나 도면복원이 충분히 가능한 자료의 치수임을 밝혀 둔다.)



〈도면 8〉 주조철부 길이의 도수 분포



〈도면 9〉 주조철부 거꾸집 내강 길이의 도수 분포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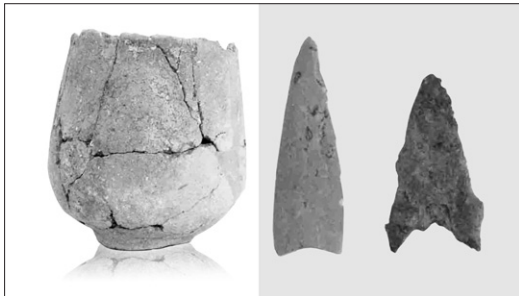


〈도면 10〉 주조철부 및 거꾸집 내강의 길이와 공부 · 인부관계 (단위 cm)

적석목곽묘, 석곽묘의 4가지 모형에서 출토되는데, 출토량은 많지 않지만 기원후 2세기 중엽 ~3세기대 경주·포항·울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이 유통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金度憲 2002, 23), 황성동 용해로 거푸집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즉 주조철부의 편년기준이 될 수 있는 크기와 평면의 형태, 稜(突帶)의 유무, 공부의 단면형태 등을 대비하여 주조철부의 시기적 속성변화를 살펴본 후 황성동 제철유적 출토 거푸집과 비교하는 것은 황성동 용해로의 조업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주조철부의 길이를 도수분포로 나타낸 것이 <도면 8>이다. 모두 9~22cm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길이에 다른 형식의 명확한 설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목관묘 출토품은 모두 9~15c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길이 15cm 이상은 목곽묘, 적석목곽묘, 석곽묘에서 출토됨을 알 수 있다. 반면 <도면 9>에 나타난 거푸집 내강의 길이에서는 13~17cm와 18~21cm로 길이에 의한 형식설정이 가능하다.

주조철부의 길이에 따른 인부 너비와 공부 높이 비율을 나타낸 <도면 10>에서는 길이 차이에 의한 분포가 감지되어, 9~11cm, 11~13cm 미만, 13cm 이상~18cm 미만, 18cm 이상~20cm 미만, 20cm 이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므로, 각각 I, II, III, IV, V 식으로 형식설정하였다. 다만 III 식과 IV 식의 구분은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전자는 목곽묘에서, 후자는 적석목곽묘와 석곽묘 출토품이라는 차이점이 인정되어 따로 분류하였다. 주조철부의 길이는 목관묘 출토품에서 목곽묘를 거쳐 적석목곽묘와 석곽묘 단계로 갈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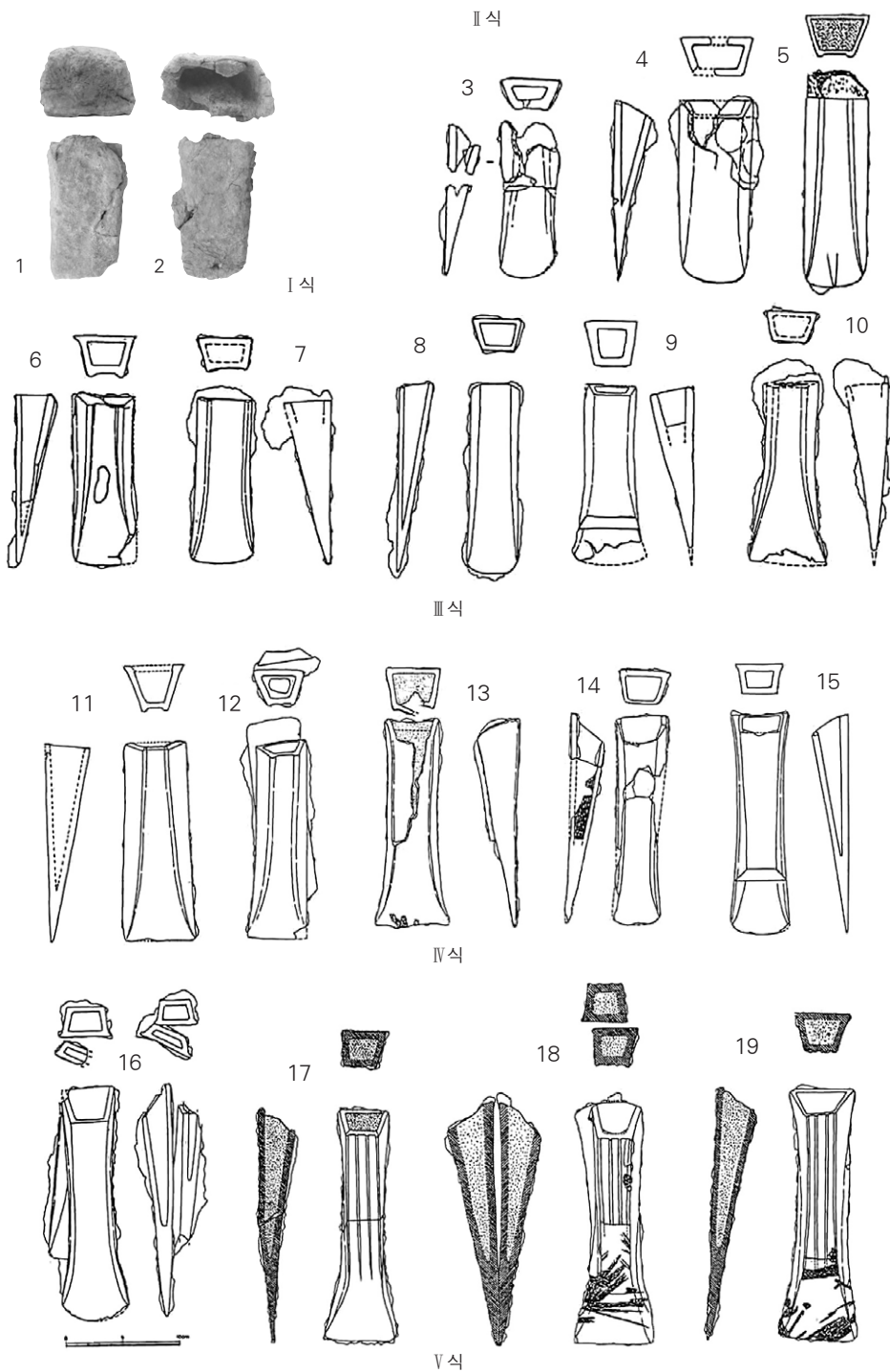
<도면 11> 문산리 목관묘 공반유물

I 식에 해당되는 문산리유적 목관묘 출토품은 무문토기 고배, 무문토기 주머니호, 석촉, 삼각형철촉과 공반되어 출토되었으며 <도면 11>, 주머니호의 경우 안재호의 분류(安在皓 2000)에 의하면 Ia 식에 해당된다. 공반유물 및 관련유적 출토품을 참고하여 기원전 1세기 전반대로 편년된 바 있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9).

II 식은 사라리 110호 및 옥성리 II-나-74호 출토품이 1식에서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형태이며, 인부의 폭이 넓고 공부의 단면이 낮은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목관묘의 마지막 단계에서 장방형목곽묘단계에 걸쳐 유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가까운 연대로 판단된다.

III 식의 주조철부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II 식에 비해 길이는 확연히 길어지고 등면의 능은 여전히 성행하며, 대체로 전반은 목관묘, 후반은 목곽묘에서 출토된다. 옥성리 I 기부터 적석목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하는 직전단계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IV 식의 주조철부는 크기가 훨씬 커지고 가운데가 오목한 평면형태가 대부분이다. 능은 여전히 성행하며, 적석목곽묘의 이른 단계에 성행한다. V 식은 길이 20cm 이상인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으로, 모두 능이 있으며 가장자리의 능 외에 중앙부에도 2조의 능이 나란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목된다(도면 12·13 참조).



〈도면 12〉 주조철부의 형식과 변화(도면축척 동일)

1·2 : 문-2호, 3 : 사-110 4 : 옥Ⅱ-나-74호, 5 : 하Ⅰ-1호, 6 : 강-3호, 7·9·10 : 조Ⅱ-11호, 8 : 옥-나-115, 11 : 옥-나-108호, 12 : 조Ⅱ-1호, 13 : 중ⅠB-1호, 14 : 강-44호, 15 : 봉-10호, 16 : 노-4호, 17·18·19 : 황남대총 남분

일련 번호	유 구 명	길 이(cm); 이하												일련 번호	유 구 명	길 이(cm); 이하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문-2호														32	중 I B-1호												
2	문-2호														33	중 I B-1호												
3	강-3호														34	하대 I -1호												
4	강-3호														35	하대 I -43호												
5	조Ⅱ-11호														36	하대 I -43호												
6	조Ⅱ-11호														37	하대 I -44호												
7	조Ⅱ-11호														38	하대 I -44호												
8	조Ⅱ-11호														39	황-63호												
9	조Ⅱ-11호														40	죽-1호												
10	사-110호														41	울동1108-57호												
11	북														42	조Ⅱ-1호												
12	옥Ⅱ-나-74호														43	조Ⅱ-1호												
13	옥Ⅱ-나-74호														44	강-23호												
14	옥Ⅱ- 나-95호														45	강-17호												
15	옥Ⅱ- 나-78호														46	강-44호												
16	옥Ⅱ-나-113호														47	강-44호												
17	옥Ⅱ- 나-113호														48	봉 I -42호												
18	옥Ⅱ- 나-115호														49	봉-10호												
19	옥Ⅱ- 나-115호														50	노-4호												
20	옥Ⅱ- 나-108호														51	황남 부곽												
21	옥Ⅱ- 나-108호														52	황남 부곽												
22	옥Ⅱ- 나-93호														53	황남 부곽												
23	중 I A-75호														54	황남 부곽												
24	중 I A-100호														55	황남 부곽												
25	중 I A-100호														56	황남 부곽												
26	중 I A-26호														57	황남 부곽												
27	중 I A-26호														58	황남 부곽												
28	중 I C-3호														59	황남 부곽												
29	중 I C-3호														● 능이 있는 것(2식) ▨ 평면 세장방향(b식)													
30	중 I B-1호																											
31	중 I B-1호																											

〈도면 13〉 주조철부의 형식별 상관관계

이처럼 주조철부는 길이에 따른 속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안재호(安在皓 2000, 228~229)는 세죽리-연화보유형의 영향을 받은 한반도 남부지역의 초기 주조철부와 다 호리유적 출토 단조철부의 속성비교에서 길이의 변화는 시기가 내려올수록 더 길어지며, 공부의 형태는 단면 세장방형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길이에 따른 형식의 차이가 시기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주조철부의 길이를 형식분류의 가장 큰 속성으로 삼고자 한다.

인부의 형태는 곡선과 직선이 모두 나타나며, I~IV식의 너비는 3.1~6.5cm 사이에 분포하는데 비해 V식은 5.5~7.7cm까지로 매우 넓다. 이것은 평면형태가 모두 가운데가 오목한 세장방형으로 바뀌면서 인부가 급격히 넓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공부의 단면형태는 모두 梯形이며 높이의 일정한 시간성은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I식은 3~3.5cm 사이인데 비해 II식은 모두 3cm 미만이다. III식에서는 2.3~4.1cm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IV식은 1.8~4cm로 다양화되며, V식은 2.6~4.4cm로 길이에 비례해 공부도 높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주조철부의 평면형태는 길이와 최대너비의 비율에 따라 3.5:1 이하를 장방형(a식), 그 이상을 세장방형(b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4세기 대까지, 후자는 5세기 이후의 적석목곽묘와 석곽묘에서 주로 출토되며, 대부분 양측면의 중앙부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의 변화가 상정된다.

능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등면의 길이방향을 따라 양쪽에 稜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두 가지 속성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1식과 2식으로 설정하였으며 1식은 23개체, 2식은 36개체¹⁵⁾다. 능은 II식 단계에 출현하여 III식 단계까지 꾸준히 채용되다가 IV식부터는 대부분 능을 가진 주조철부로 교체되며, V식에 해당되는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은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중앙부에도 1줄 혹은 2줄의 돌대가 추가로 형성되어 있어 앞 단계의 것과 구별된다. 이는 황남대총이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총고분인 점과 관련하여 주조철부가 실용성을 떠나 裝飾化되는 현상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출토된 주조철부는 부장품의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조철부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황성동유적 출토 거푸집은 모두 단합범으로 范底, 范蓋, 范芯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고운 모래가 많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범저나 범개의 선단부 측면에는 삼각형의 홈이 파여져 있다. 출토품 중 내강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범저의 속성을 정리한 것이 <표 10>이다. 이러한 내강의 크기는 생산품인 철부의 크기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황성동 용해로의 시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근거가 된다. 거푸집 내강의 길이를 도수로 나타낸 <도면 10>에서는 길이 13~17cm, 18~21cm가 각각 하나의 군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3cm 미만의 소형 주조철부 거푸집은 출토되지 않는다.

따라서 황성동 제철유적 출토의 주조철부 거푸집은 대부분 앞에서 살펴본 주조철부 III식과(22개체), IV식(8개체)에 각각 해당되며, 세부 속성인 능의 유무로 볼 때 모두 능이 있는 2식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인 a식이다. 이처럼 황성동 제철유적 출토 거푸집 내강의 속성을 경주지역 분

15)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약 300여점의 주조철부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본고에서는 이 중 보고서에 수록되어 수치 등의 속성을 알 수 있는 9점만 인용하였다. 나머지 주조철부도 모두 같은 V식의 속성으로 판단된다.

〈표 10〉 주조철부 거푸집 내강의 속성

일련 번호	유구명	유구종류	유물 번호	크 기(단위 cm)			일련 번호	유구명	유구종류	유물 번호	크 기(단위 cm)		
				길이	인부 너비	공부 높이					길이	인부 너비	공부 높이
1	황Ⅰ-가-7호	용해로	20-1	18.9	6.0	3.6	16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8-2	15.9	5.6	3.7
2	황Ⅰ-나-11호	수혈	129	15.9	5.4	3.0	17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8-3	16.6	6.1	3.7
3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5-2	19.4	6.3	4.2	18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8-4	16.6	5.8	3.7
4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5-1	19.3	6.6	3.7	19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30-4	15.9	6.1	3.8
5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6-1	19.5	6.4	3.7	20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32-4	15.8	5.7	3.6
6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6-2	19.4	6.8	4.3	21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32-3	14.4	5.6	3.6
7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9-3	19.6	6.8	4.3	22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30-1	14.9	5.6	3.6
8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59-2	20.3	5.9	2.2	23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30-2	14.7	5.6	3.1
9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59-1	18.8	5.8	2.0	24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31-4	15.0	5.6	3.6
10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7-3	15.4	5.8	3.7	25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7-2	14.0	5.5	3.3
11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30-3	16.6	5.7	3.5	26	537-2-1호 노	용해로	1-3	14.4	5.2	2.4
12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7-4	16.8	6.2	3.9	27	537-2-1호 폐	폐기장	17-1	16.2	5.2	2.1
13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9-4	16.9	5.7	4.0	28	537-2-1호 폐	폐기장	17-2	15.6	5.5	1.8
14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31-2	16.8	5.8	3.7	29	강변로 5호 노	용해로	109-1	15.8	5.8	3.3
15	황Ⅱ-다-11호	용범폐기장	127-1	15.6	5.4	3.3	30	강변로 5호 노	용해로	109-2	15.2	5.5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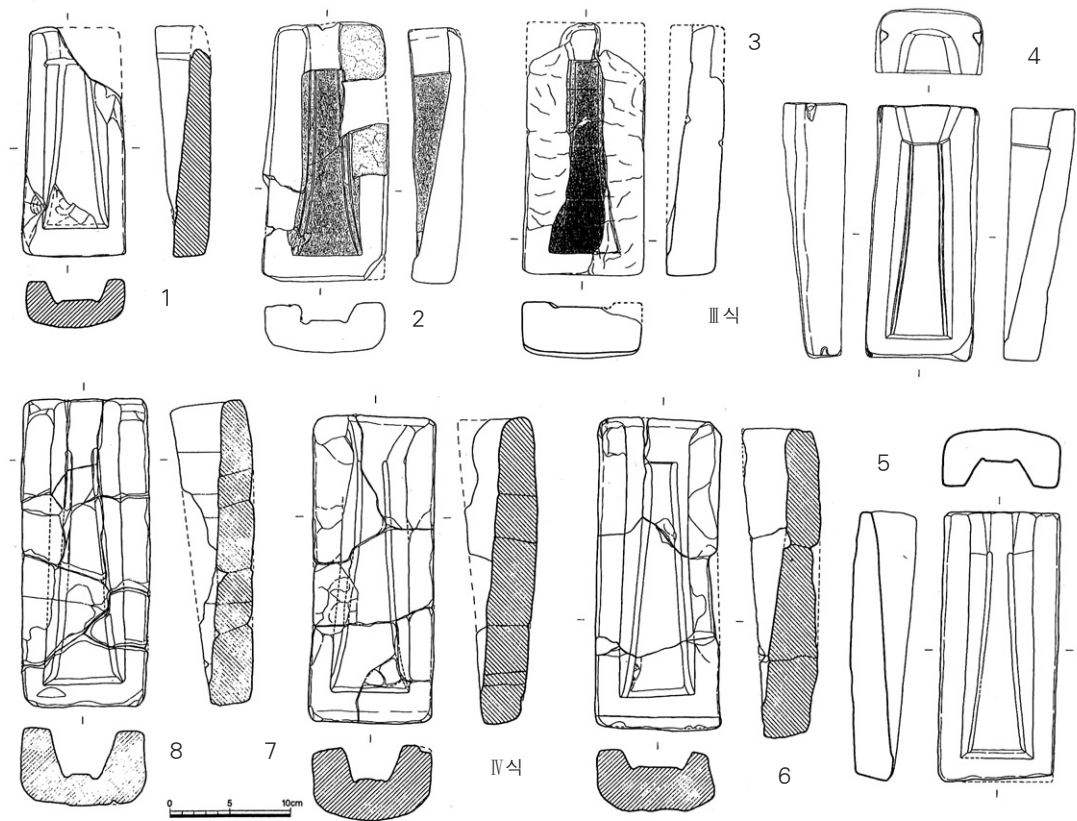
(현재까지 보고된 용범 중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실었으며, 보고문에 내강(철부)의 크기가 명기된 것은 그대로 따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막대 측척을 이용한 비율계산방식으로 수치를 측정하였다.)

묘출토 주조철부와 비교해 보면 황성동유적 용해로에서 제작된 주조철부는 Ⅲ식과 Ⅳ식의 단계에 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조철부는 길이에 따라 I ~ V, 평면형태에 따라 a·b, 능의 유무에 따라 1·2의 3가지 속성에서 형식설정이 가능하고, I → II · III → IV → V, a → b, 1 → 2식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으며, 황성동유적에서는 Ⅲa2식 · IVa2식의 주조철부를 생산하였다.

이상의 3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황성동 제철유적의 조업 시기는 다음의 4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1단계는 황성동 제철유적의 가장 이른 시기로, 원형 혹은 타원형의 주거지(단야주거지 a군)내에서 초보적 수준의 단조철기 제작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주조철기는 거의 출토되지 않으며 길이 10cm 내외의 소형 무견식단조철부, 평면 삼각형 철촉과 함께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등의 전기와질토기가 출토된다. 전기와질토기와 철기유물의 속성으로 보아 원삼국시대 전기인 기원후 1세기 중반부터 2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2단계는 다시 2개 분기로 세분된다. 앞 단계는 방형 혹은 말각방형의 주거지(단야주거지 b군)내에서 단야작업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며, 이후 전문 공인집단의 등장과 함께 부석시설이나 주혈 건물지와 같은 전문공방지가 형성되고 주조철부의 제작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후기와질토기를 대표유물로 들 수 있으며 원삼국시대 후기에 해당된다. 2세기 중반에서 3세기 중반까지의 시기이며 2-1단계와 2-2단계의 획기는 출토유물의 속성을 기준으로 200년 전후로 보고자 한다.



〈도면 14〉 주조철부 거푸집의 속성
(1·4·5·6·7·8-Ⅱ-다11호, 2-강-5호, 3-537-2-1호; 축척동일)

3단계는 단야주거지 b군의 역할이 서서히 사라지고 전문공방지가 형성되는 동시에 용해로에서 Ⅲa2식의 주조철부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거푸집의 속성으로 보아 2세기 말부터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중심연대는 3세기 전·중반대로 편년된다.

4단계는 앞 단계의 단야공방지가 완전히 폐기되고 정련(단야)로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제강공정이 활성화되고 용해로에서 Ⅳa2식의 주조철부가 생산되는 단계인데, 이른 시기의 적석목곽묘 단계에 성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정련(단야)로와 제강로의 시기는 편년자료가 너무 빈약하여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기술사적인 특성상 순수단야기 이후로 위치지울 수 있고, 초강의 소재가 용해로와 같은 선철임을 감안한다면 3세기 말이 중심연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편년자료를 바탕으로 황성동 제철유적의 연대를 설정해 보았는데, 2단계의 후반부(2-2기)와 3단계는 실연대의 대부분이 서로 겹치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철유구의 편년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점과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과 발전이라는 기술발달사적 측면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표 11〉 황성동 제철유적의 단계설정과 편년

단계 \ 편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1단계-단야1	1기			
2단계-단야2, 단야3		2-1기	2-2기	
3단계-용해1, (정련, 조강)			3기	
4단계-(정련, 조강), 용해2				4기

V. 황성동 제철유적의 생산시스템

황성동유적 제철유구의 유형에 따른 공간적 분포범위의 차이와 시기적 변화상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들의 조업시기가 국가형성기에 해당되므로 고대 철기의 생산·유통시스템과 사회구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황성동 제철유적의 생산시스템과 유통·분배체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황성동집단의 성격과 그 변화에 대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황성동 제철문화의 1단계는 황성동유적에서 처음 단야조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주변지역에서 철 소재¹⁶⁾를 공급받아 개별 주거지에서 단조철기를 생산하였다. 각종 단조철기와 판상철부¹⁷⁾를 제작하여 집단 내와 주변집단에 공급하였을 것이며¹⁸⁾, 경주분지 내에 입지하지만 정치체의 우월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집단은 비록 개별 혹은 가족공동체 차원의 가내수공업 형태로 철기를 생산하였으나 철기생산 전문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품의 유통 측면

16) 이때 공급된 소재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작용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판상철부와 같은 소재를 공급받았을 경우 완성된 형태의 단조철기를 제작했을 것이며, 둘째는 1차 제련된 철괴를 공급받았을 경우 단조철기와 함께 다량의 판상철부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1·2단계의 단야주거지 내에서 정련공정의 흔적이 확인하지 않고, 소재를 공급했던 1차 제련유적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 셋째는 철기의 파손품을 재활용할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I-다-11·17호 주거지의 球狀小鐵塊로 명명된 시료에서 고탄소의 선철제조조직이 확인된 바 있는데(尹東錫·大澤正己 2000), 이에 대해 필자는 처음부터 단조철기 제작용으로 이러한 선철을 생산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들 선철제조조직의 球狀小鐵塊는 크기가 1.5cm에 불과하며 용어에서 알 수 있듯 1차 제련의 생산품이 아니라 고체상태의 철기나 철 소재를 가열할 때 표면부의 철성분이 용융되어 흘러내린 파생품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단야로에서의 조업시 철기 표면부의 용융물이 흘러내려 떨어진 것을 粒狀滓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야·정련·용해공정에서 공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소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단조철기의 소재는 명백히 鍊鐵이며 선철로 단조철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탈탄과 열처리과정을 통해 可鍛鑄鐵 내지 展性鑄鐵의 성질로 개선시켜야 하는 공정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 남부지역 초기철기에 대한 금속분석결과에서도 이 시기의 제철기술이 선철을 탈탄한 展性鑄鐵이나 灰鑄鐵 혹은 鋼 제작기술단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塊鍊鐵 浸炭鋼 수준임이 밝혀진 바 있다(李南珪 1982, 57~58). 또한 황성동유적 단야주거지 출토시료에서는 선철제조조직과 함께 연철조직도 확인되었으므로 우선적인 단야의 소재는 연철로 볼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철기의 파손품이나 球狀小鐵塊 등의 파생품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에서는 주변집단과의 호혜성(reciprocity)에 기반을 둔 교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2단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재를 공급받아 주거지내에서 단조철기를 생산하지만(2-1기) 이내 주거지를 벗어나 독립된 전문공방지가 형성하게 된다(2-2기). 원료의 채광지와 1차 제련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소(As)가 검출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경주 감은포, 언양 석남산 등 주변 철산에서 소재의 공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담금질 등의 열처리를 통한 철기의 재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수요의 증폭에 따른 생산의 확대와 공급의 효율을 위해 개별생산시스템을 벗어나 집단생산시스템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것은 집단 내에서 철기생산만을 담당하는 공인그룹의 형성을 의미하며 철기생산의 전문화, 분업화, 집단화를 촉진시킨다. 이때부터 생산품은 호혜성의 의미를 벗어나 광역의 유통망을 갖춰나가게 되며¹⁹⁾ 이러한 교역을 통해 부의 축적이 집중되게 된다. 3단계의 특징인 용해조업이 이 시기에 도입됨으로써 단야와 용해조업의 유기적인 생산시스템이 형성된다.

3단계는 황성동 제철유적에서 용해조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가장 큰 획기로 설정할 수 있다. 용해조업은 대량화·규격화가 특징이므로 철 소재인 선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달천광산과 같은 원료 공급처를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소재 유통망에 새로이 달천광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철기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게 된다. 용해로에서는 대량의 주조철부를, 단야로에서는 철정 등의 소재를 포함한 각종 단조철기를 생산한다. 후반부에 정련(단야)과 초강공정이 도입되면서 주조·단조철기뿐만 아니라 강철제 무기와 함께 鋼材의 대량생산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단조철기 제작소재를 공급받던 단계에서 벗어나 제련된 선철괴를 공급받아 자체적인 정련·탈탄과정을 거쳐 중간소재의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이때부터 단조철기의 제작에서 벗어나 鋼材와 판상철부 등의 중간소재를 생산·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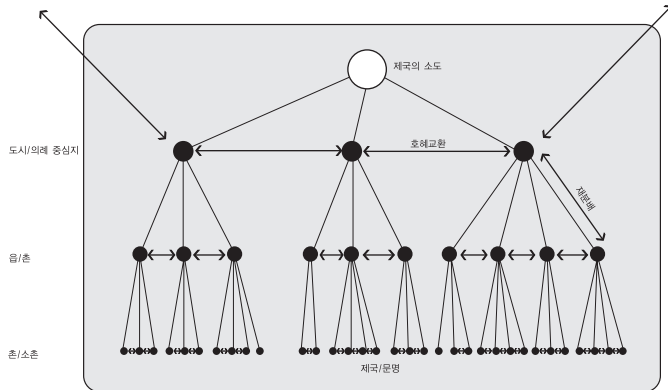
유통의 측면에서는 호혜성보다 재분배(redistribution)의 기능이 훨씬 강화되는데, 이러한 재분배의 유통형태는 위로부터의 賜與와 배포, 아래로부터의 공납이 결합되어 작동하는 유통구조로, 정치와 경제의 중앙집권이 이루어져 있고 사회적 분업과 계층, 수장이나 왕의 지위와 같은 권력의 차등과 위계서열이 확립된 사회구조를 의미한다(김창석 2005, 22).

이처럼 주조철부 및 강철제 무기와 함께 (강)철 소재의 생산과 공급은 생산력의 확대와 정치

17) 농구, 공구, 철 소재, 화폐 등의 다양한 기능이 상정되는 板狀鐵斧는 板狀鐵製品, 短冊形鐵斧 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하고(東潮 1995), 板狀鐵斧形 鐵器와 구분(宋桂鉉 1995)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板狀의 철제품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18) 이 시기에 경주지역에서 생산된 철기나 소재가 대외적인 교역품으로 역할했는지에 대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현재까지 경주에서 출토된 철기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주 문산리유적의 기원전 1세기 전반대 목관묘 출토품이다. 기원전 1세기의 철기유물이 在地의 생산품인지에 대해 밝혀진 바 없으며 제철유적은 더욱이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황성동 제철유적은 사료국단계의 초기에 해당되는 제철유적이므로 1단계에 자체소비를 넘어 대외적인 수출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9) 일본의 長崎縣 里田原遺跡·壹岐原の辻遺跡, 山口縣 井上山遺跡, 香川縣 詫間町紫雲出山遺跡, 大板縣 伯母野山遺跡·古曾部遺跡, 靜岡縣 川合遺跡·愛野向山遺跡·石川遺跡·長岐遺跡 등 北九州에서 東京滿 沿岸에 이르는 제유적에서는 대체로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부터 棒狀鐵器, 鐵板 등과 함께 板狀鐵斧가 출토되고 있어(松井和幸 2001, 31~56) 弁辰의 철 소재 수입을 위한 광역의 유통망 형성이 이루어진 정황을 가늠할 수 있다.



〈도면 15〉 호혜성과 재분배의 구조(이희준 역 2006)

위가 축소되고 정련(단야) 및 초강공정을 통한 소재와 고급철기의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용해로에서는 여전히 주조철부를 생산하는데 개별유구의 규모는 커지지만 용해공방지의 범위는 축소되며, 정련(단야)로와 제강로에서는 철 소재와 강철제 무기를 생산한다. 이는 정치력의 성장으로 인해 일련의 목표를 달성한 신라가 주변지역의 제철문화를 모두 흡수 및 재분배²¹⁾하여 황성동에서는 소재와 고급철기만을 생산한다.

황성동 제철문화의 큰 획기는 선철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조철부의 대량생산이 가능

〈표 12〉 황성동 제철유적의 철기생산시스템

단 계	철기생산 시스템	주요소재 ²²⁾	생산품
1단계	소재 수급, 邑落내 단야주거지→원삼국시대 일반적 양상, 집단내의 소비·집단간 호혜성의 유통	연철괴	판상철부
		판상철부	단조제 농공구
2단계	소재 수급, 邑落내 전문공방지 형성, 철기생산 증대, 점진적 광역의 유통망(대내·대외) 구축	연철괴	판상철부
		판상철부	단조제 농공구
3단계	소재 수급, 달천철장 확보, 철기생산 극대화, 재분배와 교역 기능 강화, 國邑에서 생산과 유통 관리	선철괴	철정, 단조철기, 주조철부, 강철제 무기
4단계	소재 수급, 철기생산의 거점지역 확보, 國에서 생산과 유통 관리	선철괴	철정, 주조철부, 강철제 무기, 강 소재

20) 월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보고에서 가장 연대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유물은 월성 북서편 1호 수혈 내부와 주변에서 출토된 노형토기로, 대각과 동체부 등 전체적으로 황성동 출토품과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다. 안재호의 편년에서 하대유적, 월성로 가-29호분 출토품과의 비교로 보아 3세기 후반대로 편년된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25~26).

21) 4세기 전반 황성동 제철유적에서의 조업이 종료될 무렵 경주 월성주변 계림남편, 울산 중산동, 대구 봉무동 등 주변지역에서 주조철부 생산을 포함한 제철이 확산되는 점으로 보아 이 시기 어떤 방식으로든 생산과 유통구조의 통합과 재분배라는 정치·경제적 재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지는 3단계와 초강공정의 도입으로 인해 강철제 무기를 대량생산하는 4단계인데, 이러한 변화는 큰 시기 차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전자의 경우, 주조철부로 대표되는 철제 농기구의 등장은 도구의 효율화로 인한 노동력의 절감과 평지 및 구릉지의 개간으로 인한 가경지의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제작과 소유가 상위 계층에 집중²²⁾되었기 때문에 결국 잉여생산물의 축적을 통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의 다양화과정이 촉진된다(李賢惠 1998; 金度憲 2001). 후자의 경우, 국가형성기 강철제 철기의 가장 큰 효용을 무기생산에 둔다면 강철제무기는 심화된 계층의 다양성이 무력을 통한 집단 내부에서의 통제와 억압, 집단 간 통합과 복속으로 이어져 國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분명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황성동 제철문화의 획기 중 1·2단계에서 3·4단계로의 변화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상기한 바와 같이 주조철부와 강철제 무기는 생산과 보급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생산체제와 유통구조, 정치체의 재편성 등 사회구조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던 삼한 國의 정치력이 성장하면서 국읍과 읍락들, 主帥와 渠帥들 간의 관계는 일반 읍락들이 국읍에 종속되는 관계로 변화하는데, 분묘의 규모와 각종 청동기류와 부장을 통한 우월성으로 보아 기원전 1세기 전반(李賢惠 1997, 74~75) 혹은 목관·목곽묘 전환기에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는 듯하다(權五榮 1996, 141). 또한 적어도 3세기 중엽까지는 일반 읍락에 대한 국읍의 통제력이 강하지 못하였고, 이 시기 국읍의 기능이 경제적 교환을 중심으로 한 대외교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본다면(이희준 2007, 48~49) 철기와 철 소재는 이러한 생산과 유통의 중요한 품목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경주지역 목곽묘를 I~Ⅳ기로 나누고 목관묘 단계인 I기를 제외한 3개의 단계에서 황성동의 위계가 모두 中位에 해당되는 점(李在興 2006, 87~99)과 황성동유적 분묘출토 철기유물이 3세기 전엽까지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현상(우병철 2009, 126)도 이러한 사회·정치구조의 변화와 관련있음을 시사한다. 황성동 제철유적의 3단계에서는 달천광산을 포함한 원료공급처와 유통망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철광석의 채굴 및 제철용 목재의 공급에 필요한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 교역상의 편익을 위한 교역창구의 체계화, 개별적인 소집단의 수준을 넘어 총체적으로 기능하는 정치·경제적 단위체가 요구되며, 사료국을 포함한 변·진한 소국들 중에는 철자원의 개발과 교역의 전개과정 등을 통하여 소국성립과 발달의 주요 계기가 모색되었음(李賢

22) 소재에 있어 球狀小鐵塊 등의 파생품이나 파손된 철기, 철편은 생략하였다. 전자의 경우 소재 공급의 불안정한 면을 보여주는 보조적인 소재에 불과하며, 후자는 철기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 역시 통상적인 단야의 소재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3) 주조철부를 비롯한 철제 농기구의 소유가 초기에는 가장 상위층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농사를 지을 때 이들로부터 토지와 함께 대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李賢惠 1991, 61~70), 이후 4세기를 기점으로 소유의 폭이 넓어지지만 기경구인 주조철부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상류층에게만 소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梁勝弼 1995, 28~33). 하지만 최근 한성기 백제지역 주조철부 출토양상을 근거로 주조철부를 비롯한 철제 농공구가 취락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개별가구에 다수가 보급되고 개별적으로 관리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원삼국시대 국읍 중심촌간의 교역단계에서 발전하여 都城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관영수공업에 의해 생산 보급되는 유통체계로의 진전으로 보는 견해(이남규 2008, 215)가 있어 주목된다.

惠 1997, 87)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필자는 읍락 차원의 생산과 호혜성의 유통에 기반한 읍락간의 사회구조가 국읍 차원의 생산과 재분배의 유통에 근거한 국읍에 일반 읍락이 통합된 사회구조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바로 황성동 제철유적의 주조철부 및 강철제 무기의 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수단의 소유에 있어 1세기 무렵 각 소국의 수장급을 비롯한 지배층에서 3세기 무렵에는 신라의 귀족화된 수장급들로 변화되는 점이나 2~3세기 중국과 왜의 철에 대한 욕구 증폭(박남수 2009, 48~59)과 궤를 같이 한다²⁴⁾.

삼한의 읍락 중 두각을 나타내는 읍락, 즉 국읍이 돌출해간 이유를 가경지의 규모, 철자원의 분포, 교역의 매개체 등 자연지리적 조건과 외부에서의 이주와 정복의 경우로 구분하고 사로국의 경우를 후자로 본다면(權五榮 1996, 141), 황성동 제철유적의 획기와 생산집단의 출자도 이러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성동유적을 1·2기로 구분하고 용해기술로 대표되는 2기의 제철문화를 脫解 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梁勝弼 1995; 崔景圭 2006). 이 중 탈해의 근거지를 동해의 울산 근처로 보고 달천광산의 원료공급력을 배경으로 황성동집단을 장악했다는 견해(崔景圭 2006, 131~137)에 대해서 여러 정황으로 보아 탈해를 황성동 제철집단과 연결시킨 점은 수긍이 가지만 다음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우선 기록상 탈해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기원전 5년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은 57년의 일이다. 이때는 朴氏가 왕위를 이어가다가 昔氏인 탈해에게 잠시 계승되었으며, 이후 다시 昔氏왕이 탄생하는 것은 184년의 벌휴왕 때이다(三國史記 新羅本紀 卷 第1·2). 기년에 대한 약간의 해석 차이를 감안하더라도²⁵⁾ 빨라야 2세기 중반으로 볼 수 있는 용해기술의 도입을 탈해와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100여년 이상의 시간차가 난다. 또한 탈해의 생존기간인 1세기 전·중반대 황성동 단야주거지에서는 비소(As)가 거의 검출되지 않아 원료공급지가 달천광산이 아님이 밝혀져 있다(尹東錫·大澤正己 2000, 179). 따라서 황성동유적의 용해기술 도입이 탈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탈해집단의 황성동 진입을 그의 등장시기와 비슷한 본고의 황성동 제철문화 1단계로 보고, 달천광산이 아닌 경주 감은포²⁶⁾나 언양 석남산 등의 원료를 공급하여 단조철기 생산에 주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⁷⁾. 주조철부의 경우 경주지역 출토사례에서 보듯 1식은

24) 後漢을 무너뜨린 黃巾賊의 亂으로 인해 城市手工業이 폐허가 되어 2세기 말엽부터 3세기 중엽까지 중국에서는 철 소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일본 應神天皇대 백제의 照古王이 倭에 卓素라는 단조기술자를 보낸 점(박남수 2009, 48~49) 등으로 보아, 이 당시 중국이나 왜의 삼한지역 철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을 것이며 이러한 수요에 대한 호응과 결과가 삼한 철기생산시스템과 정치·사회적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5) 주지하다시피 三國史記 초기 기록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으며, 특히 석탈해의 활동 기년을 3세기로 보는 연구도 주목되고 있다. 현재 필자는 이에 대한 면밀한 해석력이 부재하므로 일단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26) 感恩浦는 지금의 甘浦에 해당되는데, 感恩寺 절 옆에 있는 포구라 하여 感恩浦라 불렀다가 다시 甘浦로 바꾸어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김기문 2006, 361). 아무튼 탈해가 당도한 阿珍浦가 경주의 下西里 일대나 甘浦로 비정되는 점(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42)으로 보아 울산보다는 경주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산리유적 출토 2점밖에 없어 자체생산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2식 단계부터는 수량으로 보아 자체생산일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강변로유적 출토품 1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울산 하대유적, 포항 옥성리유적 출토품이어서 자체생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지를 王京(경주분지)과 직접 연결시키기는 힘들다. 따라서 황성동 3단계 이전의 경주출토 주조철부는 황성동이 아닌 사로국의 다른 제집단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용해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까운 문헌기록에서 특기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 동아시아 諸國의 성립과 멸망, 諸住民의 이동과 문화전파 등의 정황이 매우 격동적인 점과, 경주지역에 목곽묘라는 새로운 묘제가 등장하여 방형목곽묘가 성행하게 되지만(李在興 2006), 종전의 목관묘가 일시에 사라지고 목곽묘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듯 황성동의 용해기술 도입도 발달된 在地의 기술력에 주변문화기술이 유입되어 이루어지는 점진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술문화의 변화가 공인집단 자체의 직접적인 이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 몇몇 공인의 개별적인 이주에 의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漢郡縣 등의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지도 중요하며, 나아가 당시 사회구조가 대등한 읍락간의 연맹단계인지 국읍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단계인지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벌휴왕의 昔氏가 다시 왕위에 오르고 다시 金氏가 왕위에 오르는 미추왕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흥미롭지만 본고에서는 이 기간을 연맹체적 성격의 읍락이 국읍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변화기이며, 황성동유적을 통한 철기의 생산과 교역이 이러한 국읍을 중심으로 한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황은 묘제와 각종 유물의 변화를 포함한 여러 고고학 자료에서도 확인되므로 앞으로 연구자들의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대 중국 춘추시대 이전의 市가 조정과 미분화된 상태에서 성소, 교역의 중심 그리고 신에 대한 수불의 광장으로 존재했으며, 삼한의 군주는 전국시대 이후 중국의 세속적 군주와 달리 스스로 무격적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는 점에서(김창석 2005, 29) 경주의 가장 오래된 숲 가운데 하나이자 황성동 제철유적이 입지하는 柳林은 농경, 철기생산, 전쟁 등 집단의 命運을 건 제의가 이루어지던 신성처의 기능이 있었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都邑이란 조상의 위패를 모셔두는 宗廟가 있는 곳이다.’라는 고대 중국의 경우(김병준 역 2003, 207~208)와 삼한에도 최고 신성처인 市²⁸⁾에 해당되는 장소가 반드시 있었다고 보는 견해(김창석 2005, 30) 및 고조선~삼국시대에 나타나는 天神·降臨神話가 숲과

27) 탈해의 황성동 진출이 알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三國史記 기록상 탈해왕대에 처음 등장하는 알지는 탈해로부터 大輔에 중용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7대손인 미추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추할 때 탈해의 황성동 진출·장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8) 市는 고조선에서는 제의와 정치가 행해지던 최고 신성처의 의미(神市)로, 삼한에서는 정무기능이 어느 정도 분리된 天君이 주재하는 小島의 형태로, 부여·고구려에서는 세속왕권에 종속된 관료적 성격이 강한 제관이 관리하는 형태로 존재되는데, 이 경우 최고 신성처인 市에는 공동체원의 제수용 공납물 및 교역물 보관과 이의 재분배를 위한 神倉의 기능도 있었다고 본다면(김창석 2005, 31~50) 황성동유적의 철기생산·유통에서도 일정한 관계가 일정부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관계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로국 읍락의 각 집단들도 자신들이 정착한 터에 일찍부터 조상신과 농경신, 생산신에 대한 신성처를 市의 형태로 운영했을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제수용품과 교역품 등에 대한 재분배가 일정부분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황성동은 단순한 철기생산집단의 생산·거주·분묘지역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던 특정한 장소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논고의 비약이 지나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황성동 제철문화는 사로국을 포함한 三韓諸國 정치·경제적 이해의 많은 부분을 함의하고 있다. 특히 市를 포함한 신성처와 생산·유통시스템의 관계 및 사로국(신라) 주요 정치집단의 출자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차후 이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Ⅵ. 맺음말

신라가 小國의 형태로 성장하다가 강력한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수준 높은 철기의 생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복합제철유적인 경주 황성동유적이 어떠한 기술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다행히 황성동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제철유구와 함께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다수의 주거지와 분묘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각 노의 유형에 따른 시기성과 공간성이 확인되어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제철로의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경주 황성동 제철문화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중심연대와 생산·유통시스템에 대해 분석해 보았으며, 나아가 생산집단의 성격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사로국시기 경주 황성동에서는 주요철기의 생산·유통망 장악을 통해 읍락간의 대등한 연맹체 단계에서 국읍이 읍락을 통합해 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주조철부와 강철제무기의 대량생산을 통해 농업생산력의 확대와 富의 축적, 무력의 증강, 주변지역의 통합과 복속, 國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기능적 측면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영남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및 서남부지역에서도 초기철기와 관련된 유적의 조사연구가 축적되어가고 있다. 차후 철기유물에 대한 정교한 편년작업과 제철관련유물의 추가적인 금속분석연구, 관련사료의 면밀한 검토 등이 추가된다면 본고의 보정 및 검증작업도 자연스럽게 병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변지역의 철 및 철기생산시스템과의 비교연구도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拙稿를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 姜仁求·金杜珍·金相鉉·張忠植·黃汎江, 2003, 『譯註 三國遺事 I』, 以會文化社.
- 건혁남·유혜선, 2005, 「황성동 江邊路遺蹟出土 鐵滓에 대한 研究」『慶州 隍城洞 遺蹟Ⅲ-江邊路 3-A工區 開設區間內 發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 權丙卓, 1993, 「古代 鐵生産의 一研究-隍城洞 冶鐵遺蹟址를 中心으로-」『국사관논총42』.
-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權香阿, 1999, 「韓國 古代의 金屬材料」『한국공예논총 제2집 1권』.
- 慶北大學校博物館, 2000, 『慶州 隍城洞遺蹟Ⅲ』, 學術調査報告 第26冊.
- 啓明大學校博物館, 2000, 『慶州 隍城洞遺蹟Ⅴ』, 遺蹟 調査報告 第10輯.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月城垓字 發掘調査報告書Ⅱ』.
- 國立慶州博物館, 1999, 『慶州 隍城洞 524-9番地 鎔解爐蹟』.
- _____, 2000, 『慶州 隍城洞 遺蹟Ⅰ·Ⅱ』.
- _____, 2003, 『慶州 朝陽洞 遺蹟Ⅱ-본문』.
- 국립광주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1993, 『무등산 금곡동-조선시대 철 및 철기생산유적』.
- 國立中央博物館, 2000, 『慶州 路東里 4號墳』.
- 金權一, 2003, 「南韓地域 古代 製鐵爐에 對한 一研究」, 한신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度憲, 2001, 「古代의 鐵製農具에 대한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2, 「三韓時代 鑄造鐵斧의 流通樣相에 대한 檢討」『嶺南考古學』31.
- 金世基, 1994, 「慶州隍城洞原三國聚落址의 性格」『마을의 고고학』,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發表要旨.
- 金銀珠, 2006, 「三國時代 鍛冶具 研究-嶺南地方을 中心으로-」,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一圭, 2006, 「隍城洞遺跡의 製鋼技術について」『七隈史學』第7号 校刷.
- 김창식, 2005,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 盧泰天, 2000, 『韓國古代 冶金技術史 研究』, 學研文化社.
- 大澤正己·長家伸, 2005, 「隍城洞((江邊路遺跡) 出土의 鑄造·鍛冶關係遺物의 金屬學的調査」『慶州 隍城洞遺蹟Ⅲ-江邊路 3-A工區 開設區間內 發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 巫鴻 著·김명준 옮김, 2003, 『순간과 영원-중국고대의 미술과 건축』, 대우학술총서.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隍南大塚(南墳)』.
- 박장식, 2001, 「경주 황성동 537-2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출토 철기제작 관련 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慶州市 隍城洞 537-2 賃貸아파트 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7, 『蔚山下垓遺蹟-古墳Ⅰ』.
- 孫明助, 1996, 「韓半島 中·南部地域 古代鐵器生産技術과 發展過程의 研究를 위한 試論-鐵器生産遺蹟을 中心으로-」, 東義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_____, 1997, 「慶州 隍城洞 製鐵遺蹟의 性格에 대하여」『新羅文化』第十四輯..
- _____, 1998, 「韓半島 中·南部地方 鐵器生産遺蹟의 現狀」『嶺南考古學』22.
- 宋桂鉉, 1995, 「洛東江下流域의 古代 鐵生産」『伽倻諸國의 鐵』, 仁濟大學校 伽倻文化研究所.
- 수원대학교박물관, 2007, 「고양벽제1지구 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 신경환·이남규·장경숙·이재용, 2007,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 시료의 분석적 고찰」『慶州隍城洞遺蹟Ⅴ』.
- 신경환·장경숙, 1998, 「浦項玉城里古墳群 出土 鐵器의 金屬學的 分析」『浦項玉城里古墳群Ⅱ-나 地區-』,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9, 『경주 외동 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I 구역) 慶州 汶山里遺蹟Ⅰ』.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7, 「경주 외동읍 북토리 55-1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 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 申鍾煥, 2006, 「陝川 冶爐의 製鐵遺蹟」『陝川 冶爐 冶鐵址-試掘調査 報告書』, 慶南考古學研究所.
- 安在皓,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學研文化社.
- 楊寬 著·盧泰天·金洙洙 共譯, 1992, 『中國古代冶鐵技術發展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梁勝弼, 1995, 「鐵製農器具 所有變化에 대한 檢討」『新羅文化』第十二輯,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1, 『慶州舍羅里遺蹟Ⅱ-木棺墓, 住居址』.
- 우병철, 2009, 「原三國~三國時代 鐵器 副葬樣相으로 본 隍城洞 集團의 性格」, 영남문화재연구원 제22회 조사연구회 발표자료집.
- 尹東錫, 1985, 『韓國初期鐵器遺物의 金屬學的 研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 尹東錫·大澤正己, 2000, 「隍城洞遺蹟 製鐵關聯遺物의 金屬學的 調査」『慶州 隍城洞遺蹟Ⅱ』, 國立慶州博物館.
- 李南珪, 1982, 「南韓 初期鐵器 文化의 一考察-특히 鐵器의 金屬學的 分析을 中心으로-」『韓國考古學報』第13輯,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8, 「백제 철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론」『백제 생산기술과 유통체계 확대의 정치 사회적 함의』, 한신대학교박물관.
- 李賢惠, 1991, 「三國時代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4~5세기 新羅社會를 中心으로-」『韓國上古史學報』第8號,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1997, 『韓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 _____, 1998, 『韓國 古代의 生産과 交易』, 一潮閣.
- 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연구』, (주)사회평론.
- 林東在, 2005,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2002, 『譯註 三國史記 2 번역편·3주석편(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崔景圭, 2004, 「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6,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集團의 空間構成과 性格」『嶺南考古學』39, 嶺南考古學會.

崔鍾澤·長恩晶·朴長植, 2001, 『三國時代 鐵器研究-微細組織分析을 통해 본 鐵器 製作技術體系-』, 서울대학교박물관.

콜린 렌프류·폴반 지음, 이희준 옮김, 2006, 『현대 고고학의 이해』, (주)사회평론.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慶州市 隍城洞 537-2 賃貸아파트 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2, 『慶州 隍城洞遺蹟 -537-1·10, 537-4·535-8, 544-1·6番地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5, 『慶州 隍城洞 遺蹟Ⅲ-江邊路 3-A工區 開設區間內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7, 『慶州 隍城洞 遺蹟Ⅴ-隍城洞 886-1番地 共同住宅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1998, 『금속 제련』, 교육부.

東潮, 2000, 『古代東アジアの鐵と倭』, 溪水社.

松井和幸, 2001, 『日本古代の鐵文化』, 雄山閣.

原三國~三國時代 鐵器 副葬樣相으로 본 隍城洞 集團의 性格

우병철*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철기부장 양상과 황성동집단의 성격 |
| II. 황성동 분묘 출토 철기의 변천 | IV. 맺음말 |

요 약

본고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영남지방 철기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의 황성동유적 출토 철기를 기종별로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남지방 철기문화와 황성동유적의 철기문화를 단계별로 비교하여 황성동유적 축조 집단의 성격을 추정해 보았다.

영남지방의 철기문화는 크게 한반도 동북지방 혹은 중국의 철기문화를 수용하여 그 문화를 강하게 공유했던 시기와 자체 철기문화를 형성하면서 철기문화의 공통성이 해체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변화의 획기는 3세기 중후엽 즈음으로 판단되는데 이 시기에는 철기문화 뿐만 아니라 분묘 구조, 토기류 등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지역성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성동유적은 주조철부 용범이 다량 출토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철기를 대량 생산하는 전문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분묘에서 주조철부가 거의 출토되지 않고 단조철부가 주로 부장되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공통성이 해체되는 3세기 중후엽부터 경주의 주변지역에서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권역의 확대과정에서 간접지배를 반영하는 위세품적 성격의 유물이 지속적으로 부장되지만 황성동유적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사라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황성동유적에서 원거리 전술에 필요한 철촉의 부장이 급감하는 것은 황성동집단이 전쟁의 수행이나 방어를 목적으로 한 집단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황성동집단이 신라의 상위 정치체에 속하였던 철기생산 전문집단이라 추정된다.

I. 머리말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 鐵器에 대한 연구는 철기의 수용과 기원, 생산 및 분배, 지역성,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철제 농공구 사용에 따른 사회 변화 등을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계기가 된 유적 중 하나가 이번에 검토하게 될 경주 황성동 유적으로서 제철유적을 비롯한 분묘유적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황성동유적의 제철유구는 고대 철기의 생산과 유통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황성동유적의 철기 생산과 유통체계 연구로서는 고대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본고는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왕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경주 황성동 분묘 유적¹⁾ 출토 기원전 1세기부터 5세기 철기를 대상으로 각 기종별 형식변화와 조립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이 유적 출토 철기만을 다룰 경우 영남지방 내에서의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황성동 분묘 출토 철기를 각 기종별로 나누고 먼저 영남지방의 진·변한 혹은 신라권역 내 주변 유적 출토 철기의 변화 흐름을 파악한 후 그 틀 속에서 황성동 분묘 출토 철기의 변화 과정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영남지방 전체 철기 문화를 단계설정하고 이를 통해 황성동 분묘유적 출토 철기의 단계별 특징과 변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황성동 집단의 단계별 성격을 유추하고자 한다.

Ⅱ. 황성동 분묘 출토 철기의 변천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되는 철기는 시기에 따라 기종이 다양하다. 그렇지만 이 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철제품 가운데 그 변천양상을 잘 보여주는 철검, 철도 등 철제 무기를 중심으로 하여 철부, 마구(표비)를 보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鐵劍, 鐵刀

한반도에서 철검의 출현은 세형동검을 모방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현 단계의 철검은 형태적으로 세형동검의 신부와 유사하고 칼집과 자루, 병부에 부착되는 검파두식 등 검부속구 또한 세형동검의 그것과 동일한 청동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 기원은 중국 중원 및 동북아지방이 아니라 위만조선의 기술의 이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²⁾.

세형동검을 모방해서 제작된 철제단검은 기원전 1세기경에 출현하여 3세기대 환두대도가 유행할 때까지 주요 수장급묘에서 출토된다. 철제단검은 경주 사라리 130호 단계인 1세기까지는 세형동검과 공반하여 출토되다가 이후부터 단독으로 수장급묘에 부장된다.

한편 철제장검은 중국 한(漢)나라의 영향으로 출현하여 대도와 환두대도, 철제단검이 일정 기

1) 황성동 분묘 유적은 동국대학교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영남문화재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조사되었다. 유구의 명칭에서 일부 혼동이 생기므로 기관별로 동국대학교박물관은 (동), 국립경주박물관은 (경박), 경주대학교박물관은 (경),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한)으로 표기하였다.

2) 이청규, 2007, 「石劍, 銅劍, 그리고 鐵劍」『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記念 天馬考古學論叢』, 석심정영화교수 정년퇴임논총 간행위원회.

간 병행하다가 철제단검이 먼저 소멸한다. 환두대도³⁾는 목곽묘단계이후에 출현하는데 4세기대 이후 환두부에 삼엽문, 삼루문, 용봉문 등이 장식되는 등 위세품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주요 수장급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철검과 철도는 장식화된 환두대도⁴⁾가 출현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병존하는데 신부의 길이가 주된 속성으로서 전반적으로 길이가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변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두대도는 일반적으로 소환두도에서 환두대도로 변화한다. 환두부와 신부의 제작기법 변천을 통해서도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일체형에서 결합형으로 변화한다.

황성동 강변로 목곽묘 3호에서는 철제단검 2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1점에 청동제 검부속구와 검파두식이 부착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이 단검은 세형동검의 기술적 전통을 계승하여 제작되어 영남지방 철검의 변천 양상과 그 궤를 같이한다 하겠다. 이후 황성동 목곽묘단계 출현기에는 철제단검의 신부가 점차 세장화된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단검의 길이 27.5cm, 27.6cm, 32.0cm(목곽묘 2호, 3호)→31.9cm, 42.7cm(목곽묘 46호)→36.0cm, 39.0cm, 41.5cm(목곽묘 68호)과 같이 세장화 현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3세기대에 이르면 漢의 영향으로 철제장검이 출현하는데 세장방형 주부곽식 목곽묘인 황성동 목곽묘 2호(한) 출토 장검 2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황성동 목곽묘 2호(한) 출토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초기 형태의 소환두도가 철제 장검 2점과 함께 출토된다는 점이다. 2호 출토 소환두도는 신부의 길이가 짧고 환두부와 신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등 이른 시기 소환두도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후 시기에는 목곽묘 1호(한), 22호(동) 출토 환두대도와 같이 신부의 길이가 현격히 길어지고 있다. 세장화된 환두대도는 적석목곽묘 33호(한) 출토품에서도 확인되듯이 목곽묘단계부터 적석목곽묘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부장이 이루어지지만 4~5세기대 위세품으로 잘 알려진 장식 환두대도는 출토되지 않았다.

2. 鐵鉞

한반도에서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철모가 사용되는데 본격적인 무기체계에서 주 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원삼국시대 이후라 할 수 있다. 영남지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철모가 확인되는데 각 시기를 대표할 만한 표지적인 철모가 있어서 그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즉 전국계 혹은 漢의 영향으로 초기철기시대부터 단신형철모가 출현(기원전 2세기 중엽~), 낙랑(漢)의 영향으로 보는 장신형철모(기원전 2세기 전엽~)의 출현, 이단관식철모⁵⁾의 유행(1세기 후엽~), 관부돌출형철모의 출현 및 다수부장(2세기 중엽~), 꺾수문철모⁶⁾ 등 의기성이 강한 철모의 유행(3세기 전엽~), 삼국시대의 주요 실전용 철모로 사용되는 직기형 및 연미형철모의 출현과 유행(3세기

3) 장식화된 환두대도에 대한 연구는 철제 무기 중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다양한 연구성과가 있지만 황성동 유적에서의 출토 예가 극히 적기 때문에 장식대도는 소략하여 언급하겠다.

4) 우재병, 1998, 『國家形成期武器의武裝』, 大阪大學校博士學位論文.

5) 흔히 이단병식철모로 불리는 철모로서 그 용어는 이단병식 석검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철모는 병부없이 공부만 있으므로 이단병식철모라는 용어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6) 원삼국시대 낙동강 이동지역에서만 유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성 구분에 유효한 자료이다.

후엽~), 위세적 성격이 강한 고구려계 반부철모의 출현(4세기 중엽~) 등과 같은 철모의 전반적인 변천 양상을 설정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목곽묘 출현이후 경주지역 중심으로 확인되는 관부돌출형 철모의 다수부장 현상이다. 경주지역에서는 판상철부의 다수부장이 관부돌출형 철모로 대체되는 현상이 뚜렷이 확인된다. 이는 기왕에 경제적 수단으로 인지되어 온 판상철부의 다수부장 현상과 유사한데 역시 철모가 무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판상철부와 함께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작용한 듯하다⁷⁾.

황성동유적에서는 전국계 혹은 낙랑계 철모인 장신형철모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단신형철모 1점이 황성동 강변로 3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후 원삼국시대의 대표적 철모인 이단관식철모⁸⁾가 강변로 1호 목곽묘에서 출토되기 시작하여 목곽묘(강변로 목곽묘 2호)가 출현하는 시점인 2세기 중엽까지 유행한다. 특히 목곽묘 68호(동)까지 이단관식철모가 일색을 이루다가 목곽묘 2호(경박)의 철모 구성을 보면 이단관식철모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이후 유행하는 관부돌출형철모가 2점 부장되고 있다. 목곽묘 2호(경박) 철모의 구성은 이단관식철모와 관부돌출형철모의 병행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 한다.

이후 강변로 목곽묘 1호(한)와 같이 개인유력묘로 평가받고 있는 장방형계 목곽묘를 중심으로 관부돌출형철모가 다수 부장되고 있으며 중하위급 묘에서도 1~2점 정도 확인되고 있다. 관부돌출형철모의 경우 신부가 단신에서 장신으로의 형식변화를 설정할 수 있는데 강변로 목곽묘 1호(한)에서는 단신의 관부돌출형철모 1점과 장신의 관부돌출형철모 6점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관부돌출형철모가 3세기 후엽까지 유행하는 가운데, 이 시기부터 삼국시대 일반적인 철모인 직기형 및 연미형철모가 세장방형 주부곽식목곽묘에 출토되기 시작하여 이후 적석목곽묘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한다. 그 예로 이혈주부곽식목곽묘로 주목을 받았던 황성동 목곽묘 22호(동)에서 4점은 연미형철모가 출토되었다. 한편 위세적 성격이 강한 고구려계 반부철모는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바 없다.

3. 鐵鏃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 철촉은 크게 莖部가 없는 無莖式에서 有莖式으로, 頸部の 길이가 짧은 短頸式에서 中頸式, 長頸式으로 변천한다. 無莖式철촉은 기원전 1세기부터 출현해서 목곽묘 단계인 3세기 전엽까지 장기간에 걸쳐 유행한다. 전장, 신부의 투공위치 등 일부 속성은 시간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분류의 기준으로 부적합하다. 그런데 무경식철촉의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경주 사라리 130호와 김해 양동리 162호와 같이 개인 유력묘에서 다수 부장되고 있다.

목곽묘 출현이후 2세기 후엽 즈음에는 無莖式철촉과 공반하여 有莖式철촉이 출현하고 있다. 유경식철촉은 이른 시기에는 세형계 역자형철촉에 莖部가 형성된 것이 출현하고 이후에는 세형

7) 申東昭, 2008,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鐵斧와 鐵矛의 分布定型 研究」, 慶北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8) 영남지방 특유의 이단관식철모는 1세기 후엽의 경주 사라리 130호 등에 출현하여 장기간에 걸쳐 유행하고 있는데, 김해 양동리 162호 등의 상위 위계의 대형목곽묘에 부장되는 예가 많다.

계 철축을 중심으로 유엽형, 유공식유엽형, 단면역V자식골축형 등이 주류를 이룬다. 2세기 후엽 이후 철축 조합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無莖式철축 1점 내지 2~3점과 새롭게 출현한 有莖式철축이 다량 출토하고 있다. 그리고 3세기 중·후엽에는 한반도 이북의 선비족(연), 고구려와 낙랑지역 등에서 유행하는 광형계 및 세형계 능형철축이 포함,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남동해안지역 전역에서 출현한다.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철축은 위에서 살펴본 영남지방 철축 변화 양상과 동일하다. 無莖式철축 5점이 출토된 강변로 목관묘 3호(한)를 비롯하여 목관묘 2호(한), 목곽묘 46호(경박), 68호(동) 등 유력 개인묘를 중심으로 무경식철축이 다수 부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후의 강변로 목곽묘 3호(한)에서는 단면역V자식골축형 4점과 함께 有莖式 철축이 등장하여 유행한다. 세장방형의 동혈주부곽식목곽묘가 조영되는 3세기 후엽에는 황성동 목곽묘 33호(동) 단계에 蛇頭形 철축이 등장하여 다수부장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장경식철축이 출현하는 5세기 중엽까지 그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4. 鐵斧

철부는 제작방법에 따라 주조철부와 단조철부로 나뉘며 단조철부는 공부가 형성된 有鑿단조철부와 공부가 형성되지 않은 판상철부로 나눌 수 있다. 주조철부와 판상철부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내 철기의 도입과 생산, 유통체계, 계층 분화의 심화 등의 연구에 있어 주된 논의의 대상되어 왔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철부, 판상철부, 有鑿단조철부로 나누어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변천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조철부

영남지방 주조철부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주조철부의 형식 변화, 분포정형, 부장양상 등을 통해 철기의 생산과 유통체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 듯하다⁹⁾. 주조철부는 특히 한반도 남부지방의 철기문화 도입¹⁰⁾과 관련하여 주된 논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욱이 경주 황성동유적을 비롯한 여러 철기생산 유적에서 다수의 주조철부 용범이 출토됨에 따라 철기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영남지방 주조철부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다른 철기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이고 주조철부의 종합적인 검토는 김도현과 신동조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연

9) 金度憲, 2002, 「三韓時期 鑄造鐵斧의 流通樣相에 대한 檢討」 『嶺南考古學報』 31號, 1-29쪽.

10) 한반도 남부지방의 철기문화 도입 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당진 소소리, 부여 합송리, 장수 남양리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일괄유물로 볼 때 영남지방의 철기문화는 기원전 2세기 전반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李健茂, 1990, 「夫餘 合松里遺蹟 出土 一括遺物」 『考古學誌』 第2輯.

박진일, 2007, 「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청동기학회.

구들은 세부적으로는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¹¹⁾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공부의 형태를 주된 속성으로 설정하고 크게 장방형, 육각형, 제형의 3가지로 분류하여 단계설정하고 있다. 장방형, 육각형, 제형(梯形) 형식의 철부는 일정기간 공존하는 단계를 거치지만 전반적으로는 장방형→제형→육각형 형식으로서의 상대적 출현 시기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제형의 주조철부는 원삼국시대에 출현하여 삼국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황성동유적은 타 유적에 비해 주조철부 부장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철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 남부지방 철기문화의 도입과 관련된 공부단면 장방형식 주조철부는 황성동유적에서는 출토된 바가 없다. 다만 제형식의 주조철부가 소수 출토되었는데 황성동 강변로 목관묘 3호(한)와 목곽묘 63호에서 나팔상의 돌대가 형성된 제형식의 주조철부가 각각 2점, 1점 출토되었다. 시기는 목관묘 3호 출토 일괄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B.C. 1세기 후엽으로 편년될 수 있겠다. 다음 단계의 목곽묘에서는 주조철부가 부장되지 않다가 적석목곽묘에서 일부 부장된다.

2) 판상철부

판상철부는 주조철부와 마찬가지로 철기의 생산 및 유통체계 연구에 중요한 유물로서 두 가지 유물을 동시에 연구하는 경향이 짙다. 김도현과 신동조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판상철부는 평면형태 속성에 따라 장방형, 제형, 봉상, 팔자형의 형식으로 나뉘며 주조철부처럼 어느 정도 일부 형식이 병행하는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방형식→제형→팔자형식·봉상철부의 상대적 출현 시기가 설정되는데 팔자형식의 판상철부는 원삼국시대에 출현하여 삼국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¹²⁾. 판상철부의 변천이나 분포정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3세기 전·중엽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장 양상을 보이다가 3세기 후엽부터 4세기 전엽까지는 김해와 부산지역은 판상철부의 부장양상이 지속되는 반면 경주와 주변지역은 철모 부장중심으로 변하는 지역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4세기 중엽이후에는 의기성이 강한 궐수문 철모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지역까지 부장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성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판상철부는 황성동 강변로 목관묘 2호에서 총 10점이 출토되었다. 그 형식분류에 있어 연구자 간에 미세한 견해차가 있는데, 김도현은 팔자형식으로, 신동조는 제형

11) 김도현과 신동조 연구의 큰 차이점은 유통체계의 중심을 어디로 보는가라는 점이다. 김도현의 경우 유통체계의 중심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구·경산→경산·경주·김해→경주 및 주변지역으로 변화하고 유통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신동조는 경주를 중심으로 경주→경주·김해→경주 및 주변지역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金度憲, 주 10의 논문.

申東昭, 주 8의 논문.

12) 목곽묘 출현시기(2세기 중·후엽)에 일시적으로 일반적 형태인 장방형식, 제형식, 팔자형식이 소멸하고 봉상철부가 유행한다.

金度憲, 2004, 「고대의 판상철부에 대한 검토-영남지역 분묘출토품을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53.

식의 판상철부로 설정하고 있다. 목관묘 2호는 일괄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BC 1세기 후엽으로 편년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팔자형식과 제형식이 병존하는 단계로서 양 연구자의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주조철부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만 부장되며 이후 시기의 분묘에는 출토된 바 없다.

3) 有鑿단조철부¹³⁾

단조철부는 주조철부보다 출현 시기는 늦지만 역시 기원전·후에 출현하여 지속적으로 제작·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단조품은 형태적인 변화가 적다는 특징 때문에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한 듯하다. 그래서 주조철부는 부분적으로 단편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황성동 출토 단조철부에 대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조성윤은 황성동유적 출토 단조철부의 주된 속성을 제작기법이라 보고 공부 분리형과 공부 일체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단조철부의 몇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형식을 설정하였는데 철부 측면의 단이 형성된 유건철부에서 단이 없는 무건철부로, 공부의 단면형태는 방형→타원형→원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¹⁴⁾.

5. 기타(표비)

분묘 출토 철제품은 이상에서 논의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출현 시기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둔감하여 생략하겠다. 다만 꺾수문 표비는 출토 수는 적으나 목관묘 및 목곽묘단계의 주요 수장급묘에서만 출토되는 특징이 있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꺾수문철기는 경주 조양동 11호 단계에서 初現하여 2~3세기에 집중 출토되고 4세기 이후가 되면 꺾수문의 말린 횡수가 줄어들면서 유자(有刺)의 형태를 띠는 것이 보통이다. 표비는 목관묘 단계의 사라리 130호에서 꺾수문 표비가 출현한 이후에는 재갈멈치가 에스자형의 꺾수문 장식식으로 바뀌고 함의 제작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¹⁵⁾. 꺾수문 표비는 포항 옥성리(113호, 115호)를 비롯하여 경주 조양동(63호), 사라리(130호), 울산 중산리(VII-1호, VII-4호) 및 하대(1호, 43호), 김해 양동리(162호)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꺾수문 유자이기와 마찬가지로 영남 지방 주요 수장급묘에서 출토되고 있다¹⁶⁾.

황성동유적에서는 목곽묘 2호(한)와 46호(경박) 출토품이 있다. 양 출토품은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는 본체를 오려서 2회 이상 말았고 후자는 본체를 늘려서 2회 이상으로 말아 제작하였다. 이러한 제작방법은 시간성을 반영하지는 않고 목곽묘단계에서 함께 유행하는 것이다.

13) 단조철부인 판상철부와 구분하기 위한 용어이나 일반적으로 단조철부로 명명하고 있다. 이에 지금부터는 단조철부라는 명칭으로 서술하겠다.

14) 조성윤, 2006, 「慶州 隍城洞 原三國時代 墳墓 出土 鍛造鐵斧에 대하여, 新羅形成의 秘密 -慶州 隍城洞 遺蹟의 最近 研究成果-」 『第 5回 古墳研究會 學術세미나』, 古墳研究會.

15) 諫早直人, 2005, 「原三國時代における鐵製 轡製作技術の特質」 『朝鮮古代研究』第6號, 朝鮮古代研究刊行會.

16) 禹炳喆·金玟澈, 2009, 「꺾수형철기를 통해 본 진·변한정치체의 상호작용」 『韓國上古史學報』第65號, 韓國上古史學會.

Ⅲ. 철기부장 양상과 황성동집단의 성격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황성동유적 출토 철제품의 변천 양상을 토대로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주변유적에서 나타나는 철제품 부장양상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기왕에도 황성동유적 중심으로 한 단계설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¹⁷⁾ 이처럼 단일 유적의 단계 설정은 그 유적 자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영남지방 전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그 집단의 성격의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고의 목적이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유추하는데 있으므로 영남지방 전체를 단계 설정 후 그 속에서 황성동 출토 철기의 단계별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단계는 일정한 시기 폭을 두고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철기의 특성상 형식변화가 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목관묘단계에는 철기의 형식변화와 기종 조합이 크게 변화지 않는다. 이에 변화의 정도 커서 명확히 분별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그 획기를 설정하고자 한다.

1. 영남지방 철기문화의 단계별 특징

1) 1단계(기원전 2세기 중엽~기원전 1세기 전엽)

경산 임당동 FⅡ-34호 출토 주조철부, 대구 팔달동 90호, 성주 예산리 31호, 영천 용전리, 덕천리 130호에서 출토된 장신형철모 등 전국계 혹은 한식계의 표지적인 유물들이 영남지방으로 이입되어 주요 철제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특히 동북지방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후 영남지방은 자체적인 철기문화를 형성하는데 영남지방 주요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철검, 주조철부(장방형식, 제형식), 단조철부(유견철부, 판상철부), 철모(장신형 및 단신형), 철촉(無莖式), 철착, 철사 등의 기종이 대표적이다. 현재 황성동 분묘 출토품 중에는 이 시기까지 소급되는 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2) 2단계(기원전 1세기 중엽~2세기 전엽)

앞 단계에서 유행하던 주요 철기 기종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특히 재지에 주조철부를 자체 제작하게 된다¹⁸⁾. 또 영남지방 원삼국시대의 표지적인 유물 중 하나인 이단관식(이단병식)철모가 출현하여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한다. 그리고 경주 사라리 130호 출토 표비와 같이 평양 정백리 127호, 알타이 아크알라하 1호(얼음공주묘)에서 출토되어 동북지방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궐수문 표비가 출현한다.

17) 安在晧, 1995, 「慶州 隍城洞墳墓群에 대하여 : 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제12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崔景圭, 2004, 「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林東在, 2005,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18) 金度憲, 주 10의 논문.

3) 3단계(2세기 중엽~3세기 전엽)

이 단계는 주지하듯이 목곽묘가 유행하는 단계로 묘광이 넓어짐에 따라 유물 부장량이 증가하고 기종의 다변화와 철기의 형식변화도 뚜렷이 확인된다. 특히 상위 위계의 분묘로 인정되는 장방형 목곽묘에서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 황성동유적에서는 강변로 목곽묘 2호(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궤수문 표비가 상위의 분묘에서 부장되는 양상이 활발해지고 소환두도가 출현한다. 또한 경주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판상철부를 부장하는 현상이 소멸한다.

기종별 철기의 형식 변화도 확연히 구분되는데 먼저 철검을 살펴보면 기왕의 철제단검이 유행하던 것에서 장검이 출현하여 유행한다. 그리고 철모는 앞 단계에서 이단관식(이단병식)철모가 유행하지만 이 단계부터는 관부돌출형철모가 출현하여 유행하는데 관부돌출형철모의 다수부장은 판상철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의기적 성격이 강한 철기가 다수 출현하는데 유자이기를 비롯한 각 기종의 철기에 궤수문이 장식된 것이 유행한다.

4) 4단계(3세기 중엽~4세기 전엽)

1~3단계까지 영남지방 각 지역의 철기 부장양상에 공통성이 강했던 데 반해 이 단계부터는 그 공통성이 해체되고 철기 기종의 지역성이 부각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특히 위세적, 의기적 성격이 강한 철기를 중심으로 그 특성이 관찰된다.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경주와 그 주변지역에서는 판상철부 대신 관부돌출형철모의 다수부장이 유행하고 김해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판상철부의 부장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4세기 이후에는 낙동강 이동지역(부산지역 포함)을 중심으로 의기적 성격이 강한 궤수형 철모, 곡도, 철검이 유행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성이 확인된다.

5) 5단계(4세기 중엽~5세기)

지역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단계로 경주지역과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위세품적 성격이 강한 철기 부장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권역 내에서는 고구려 무기체계의 영향으로 광형계 착두형 철촉, 삼익형 철촉을 비롯하여 반부형 철모, 가지형 철모 등이 출현한다. 또 중앙 및 지방의 수장급묘를 중심으로 환두대도, 철모, 철촉 등의 위세품적 성격이 강한 철제 무기가 부장된다. 한편 철제 무기 외에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철술, 살포 등도 신라권역 주요 수장급묘에서 확인되고 있다.

2.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단계별 특징

1) 철기문화 공유 단계

황성동유적에서는 전국계 혹은 한식 유물이 이입되는 시기의 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철기가 부장되는 것은 2단계부터인데 황성동유적에서는 강변로 목곽묘 2호, 3호(한)와 목곽묘 63호, 68호(동)가 이 단계의 대표적인 유구이다. 전반적으로 단조철검, 이단관식(이단병

식)철모, 無莖式철촉, 주조철부, 판상철부, 유건철부, 철착, 철사, 철검 등을 부장하고 있어서 영남지방 원삼국시대 부장 패턴과 동일하다 하겠다.

차이점이라 할 만한 것은 황성동유적에서는 경주 조양동 38호, 사라리 130호 출토품과 같이 영남 각 지역의 수장급묘에서 확인되는 한경 및 방제경 등의 거울류는 출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황성동유적에서는 제철유구와 관련된 주조철부 용범이 다량 출토되었으나 실제로 원삼국시대의 주조철부는 목관묘 3호(한), 목곽묘 63호(동)에서 출토된 3점이 전부라는 점이 특이하며, 이후 철기생산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도 주조철부는 부장되지 않는다.

3단계가 되면 목곽묘가 출현해서 유행하고 분묘에 부장된 유물의 질적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황성동유적의 목곽묘 46호(경박), 강변로 2호(한)를 비롯하여 포항 옥성리 나78호, 경주 덕천리 19호, 울산 중산리 Ⅷ-1호, 하대 43호, 44호, 김해 양동리 162호 등 동남해안지역 각지의 주요 대형 목곽묘(방형)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비단 철기뿐만 아니라 토기류 등 유물 전반에서 확인된다. 이재현은 대부호나 노형토기 등에 시문되어 있는 문양 분석을 통해 특정 문양이 시문된 대각 달린 후기 와질토기의 부장은 2세기 중엽 목곽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상상의례의 채용, 사회내부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⁹⁾.

철기 역시 유자이기를 비롯한 의기적 성격이 강한 꺾수형 철기가 출현하면서 철기 부장수의 증가, 의기적 성격이 강한 철기부장 공유화 등 각 지역 집단에서 경쟁적으로 부장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꺾수문이 장식된 표비, 철모, 도검, 검 등 각종 의기성 철제이기들은 2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각 지역의 대형 목곽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초기 대형 목관묘들은 주로 경주와 김해를 포함한 포항, 울산 등지에서 확인되는데 각 지역 분묘들 간 유물의 질과 양을 살펴보면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위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고고자료의 정황은 정치적으로 중심지역과 종속지역이 아니었음을 추론하게끔 한다. 이는 이미 기왕의 연구에서 진·변한의 성격이 정치적 연맹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교류나 교역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환망이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는²⁰⁾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2~3단계 초기 대형 목관묘에서 나타나는 유물 부장 양상은 진·변한 각 지역 정치체의 엘리트들이 하나의 상호작용권역인 영남지역(진·변한지역)을 내집단으로 하여 동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²¹⁾.

2) 철기문화 확산 단계

4단계인 3세기 중후엽에 이르면 분묘의 구조와 일부 유물에서 지역성이 확인된다. 즉 묘제에

19) 李在賢, 2006, 「영남지역 후기와질토기의 문양 성격」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20)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權五榮, 1998, 「『三國志』弁·辰韓 기사와 고고자료의 비교검토」 『弁·辰韓의 世界』, 제2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학술발표대회요지.

주보돈, 2002, 「辰·弁韓의 成立과 展開」 『진·변한사 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1) 禹炳喆·金玟澈, 주 16의 논문.

서는 경주식(동혈주부곽식) 목곽묘와 김해식(이혈주부곽식) 목곽묘가 등장하는 한편 토기류에서도 지역성²²⁾이 확인된다.

또 철기의 경우 무기류에서는 크게 지역성을 구분할만한 차이가 없지만 의기적 성격을 가진 철제품에서는 지역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예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이동지역에서는 꺾수형철모를 중심으로 한 꺾수형 곡도(경주 황성동 17호, 부산 복천동 57호), 철검 등의 부장이 두드러진다. 특히 경주 구정동 2호와 3호에서 출토된 다수의 꺾수형 철모는 포항 옥성리(나5호 56호, 65호), 학천리(33-2호, 43호, 89호, 90호, 100호), 포항 마산리(8호), 울산 중산리(ⅠA78호, 1D-15호), 부산 복천동(38호, 60호), 밀양 월산리(1호) 등 낙동강이동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지역성이 강한 유물이다. 이것은 사로국이 점차 신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5단계(4세기 중엽이후)의 두드러진 특징은 앞 장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신라에서의 고구려 무기체계의 수용과 신라권역 내에서 간접지배의 산물로 평가받고 있는 삼엽문 환두대도, 반부형·가지형 철모, 착두형·삼익형 철촉, 철슬, 살포 등 위세적 성격을 지닌 철제품들이 신라의 중앙과 지방의 주요 수장급묘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을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주를 중심으로 그 분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4~5단계에서는 영남지방의 신라권역을 중심으로 분묘의 철기 부장양상에 있어 지역성이 확인된다. 특히 꺾수형 철기의 부장, 위세품적 성격을 지닌 철제품의 부장 등의 현상은 각 지역의 수장급묘를 중심으로 확인되는데 황성동유적에서는 그러한 특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유적 출토 철기의 변천으로 본 황성동집단의 성격 추이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철기의 특징을 주요 수장급묘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3단계에는 전반적으로 철기 부장양상에 공통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한경 혹은 방제경이 출토되지 않은 점이나 3단계 이후 주조철부의 부장이 소멸되는 점 등 몇 가지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른 유적과 큰 차이는 없다. 특히 3단계에서 각 지역의 수장급묘를 중심으로 대등한 정치적 상호관계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그 특성의 예로 주요 지역마다 위계 분화가 심화되면서 대형의 방형 목곽묘 축조되고, 토기류 등의 유물에서도 장식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제한적 소유의 유물이 분묘에 부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영남지방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3단계에 해당하는 각 지역의 주요 분묘들은 상호간에 질적·양적 수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점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한 고고학적 상황은 당시 각 지역의 정치체들의 관계가 정치적인 우열관계가 아니었음을 추론하게끔 한다.

특히 철기 부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예로 앞 장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영남지방 주요 목곽묘유구에서 확인되는 꺾수형 표비의 경우 황성동유적에서 3점이 출토(1호, 2호, 46호)되었다. 이것은 포항 옥성리(나113호, 115호), 경주 조양동(63호), 사라리(130호), 울산 중산리(Ⅶ-1호, Ⅶ-2호), 하대(43호, 44호), 김해 양동리(162호) 등 영남지방 각 분

22) 윤운식, 2002, 「영남지방 원삼국시대 토기〈樣式〉論의 제기」『영남고고학』31, 영남고고학회.

묘에서도 2점 이상 출토된 예가 없으므로 각 정치체 간의 위계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4단계 이후 황성동유적 철기의 부장양상을 보면 앞 단계와 대별된다. 4단계는 황성동유적에서 본격적으로 철기가 생산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분묘에서 주조철부가 부장되지 않고 이전 단계부터 유행한 단조철부가 계속해서 부장된다는 점²³⁾, 전쟁의 주된 무기인 철촉이 타 유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부장된다는 점, 그리고 의기적 성격이 강한 궐수형 철모가 낙동강 이동지역의 주요 수장급묘에서 출토되는데 반해 황성동유적에서 그 출토 예가 없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또한 경주 외곽지역에 위치한 경주 구어리 1호, 3호, 구정동 2호, 3호의 철기 부장 양상과 견줄만한 분묘 역시 황성동유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신라의 간접지배 방식이 두드러지는 시기에도 황성동유적에서는 위세품적 성격이 강한 유물로 잘 알려진 관, 관식, 환두대도(삼엽문, 삼루문, 용봉문), 철모(반부형, 가지형), 철촉(착두형, 삼익형) 등의 유물은 거의 출토된 바 없다.

이러한 전반적인 고고학적 정황으로 볼 때 신라권역 내에서의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일부나마 유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즉 3단계까지는 타 유적 축조 집단과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4단계부터는 그 위계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고 판단된다. 특히 당시 철기 생산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황성동유적 축조 집단의 위계는 더욱 높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묘에 부장된 유물의 양상을 보면 그 위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료국이 신라로 성장해 나가면서 신라권역의 확대와 관련된 일부분의 요소가 아닐까 추정해 본다. 신라는 영역 확대에 필요한 힘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경주지역 내의 세력 간에 내부 결속력 및 조직체계의 강화와 어느 정도의 권력 집중화 과업을 선행했을 것이다. 즉 황성동유적 축조 집단이 위계가 낮아지는 것은 신라의 권력 집중화되는 과정에서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로의 이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라의 영역 확장에서 나타나는 경주 주변 각 지역의 철기 부장양상은 당시 정치체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한다. 그것은 분묘에 부장된 철제 무기류의 수량, 조합관계 등이 시간과 지역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와 현저히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군사적 해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황성동유적과 같이 위계가 떨어지는 지역이 나타나는 반면, 포항 옥성리, 경주 구정동·구어리, 울산 중산리유적과 같이 4세기대에 대외 확장을 위한 주요 거점지역 혹은 신라 중심부의 방어 전선과 같은 성격을 지닌 지역은 그 위계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4세기 후엽이후 경산, 부산지역 등이 신라 지방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변천하고, 이 역시 5세기 중엽 이후에는 대구(화원, 문산), 창녕, 양산, 의성, 상주, 강릉지역 등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다²⁴⁾.

한편 황성동유적에서는 철기의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추어지고 제철유구 및 유물(용범)에서 확

23) 이에 반해 황성동유적에 근거리에 위치한 경주 월성로유적에서는 가29호를 비롯한 여러 분묘에서 주조철부의 부장이 지속되고 있다.

24) 신라영역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 사료 등의 심도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하고 다음의 연구에서 기약하기로 하겠다.

인되듯이 다량의 철제 주조품이 생산되었지만 집게, 망치, 모루 등의 단야구는 출토 예가 적은 것으로 보아 철기 생산품 가운데에서도 주조품을 중심으로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황성동유적에서 일차적으로 생산된 철소재는 경주지역 내 타지역, 지방의 각 지역에서 철기 공방소가 설치되어 분배되거나 지방에서 자체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신라권역 내 철기 생산과 유통체계로, 생산체계의 경우 경주지역(황성동유적)에 집중되지만 분묘에 부장되는 각종 철기류는 지방마다 형태적 차이가 발생한다.

앞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결국 황성동집단은 신라의 상위 정치체에 속했던 철기(주조품 중심) 생산 전문집단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황성동집단을 관리하고 통제한 신라의 중심 정치체는 어디일까? 여기에 대해서 탈해집단설²⁵⁾이 일부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최근 연구에서도 울산지역 철생산지를 장악한 탈해집단이 황성동집단을 통제했다고 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근거는 희박하다.

그와는 달리 최근 신라의 중앙 집단에 대한 연구로서 토성, 주거지군, 분묘군을 대상으로 검토한 연구²⁶⁾가 참고가 된다. 경산과 대구지역의 중심지에서 확인되는 '토성-주거지군-분묘군' 이한 조를 이루어 축조되는 것을 근거로 신라의 중앙인 경주 역시 월성을 중심으로 하여 중심 정치체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IV. 맺음말

이 글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영남지방 철기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의 황성동유적 출토 철기를 기종별로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영남지방 철기문화와 황성동유적의 철기문화를 단계별로 비교하여 황성동유적 축조 집단의 성격을 유추해 보았다.

영남지방의 철기문화는 크게 동북지방의 철기문화를 수용하여 그 문화를 강하게 공유했던 시기와 자체 철기문화를 형성하면서 철기문화의 공통성이 해체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변화의 획기는 3세기 중후엽 즈음으로 판단되는데 이 시기에는 철기문화 뿐만 아니라 분묘 구조, 토기류 등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지역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남지방의 주요 지역 엘리트 집단 간에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후 종속적인 관계로 변화한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황성동유적은 주조철부 용범이 다량 출토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철기를 대량 생산하는 전문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분묘에서 주조철부가 거의 출토되지 않고 단조철부가 주로 부장되는 점

25) 김영민, 1996, 「영남지역 삼한후기문화의 특징과 지역성」 釜山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崔景圭, 주 17의 논문.

26) 張容碩, 2008, 「4世紀新羅의 土城築造背景 -達城과 林堂土城의 例를 통하여-」 『嶺南考古學』 第46號, 嶺南考古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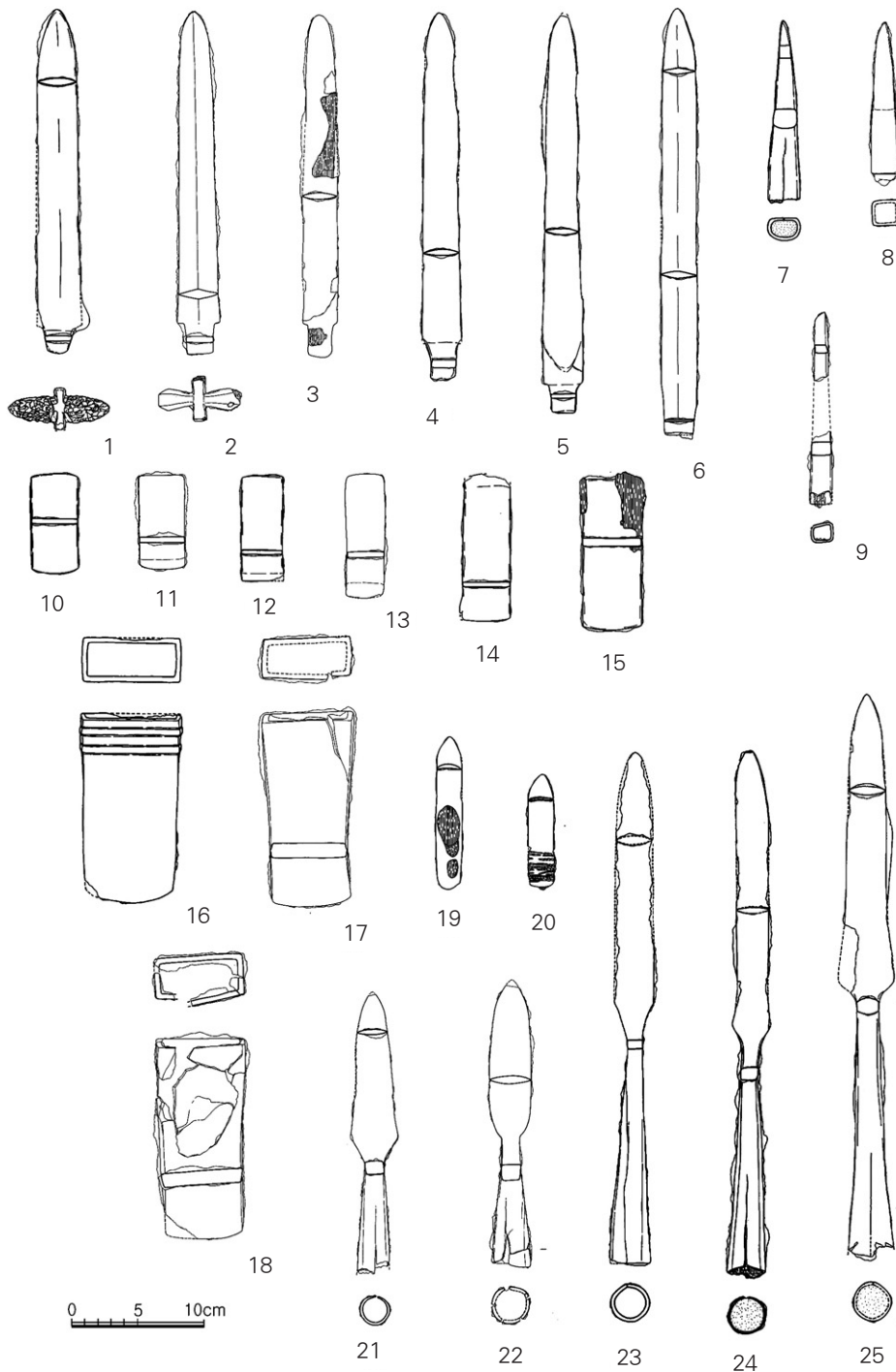
李在興, 2009, 「경주와 경산지역의 중심지구 유적으로 본 4~5세기 신라의 변모」 『韓國考古學報』 제70집, 韓國考古學會.

이 큰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공통성이 해체되는 3세기 중후엽부터 경주의 주변지역에서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권역의 확대과정에서 간접지배를 반영하는 위세품적 성격의 유물이 지속적으로 부장되지만 황성동유적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사라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황성동유적에서 원거리 전술에 필요한 철촉의 부장이 급감하는 것은 황성동 집단이 전쟁의 수행이나 방어를 목적으로 한 집단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황성동집단은 당시 국가 단계로의 이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철기를 대량 생산한 집단으로서 주변유적에 비해 그 권위는 오히려 쇠퇴되어 있다. 이는 황성동집단이 신라의 상위 정치체에 속하였던 철기생산 전문집단이라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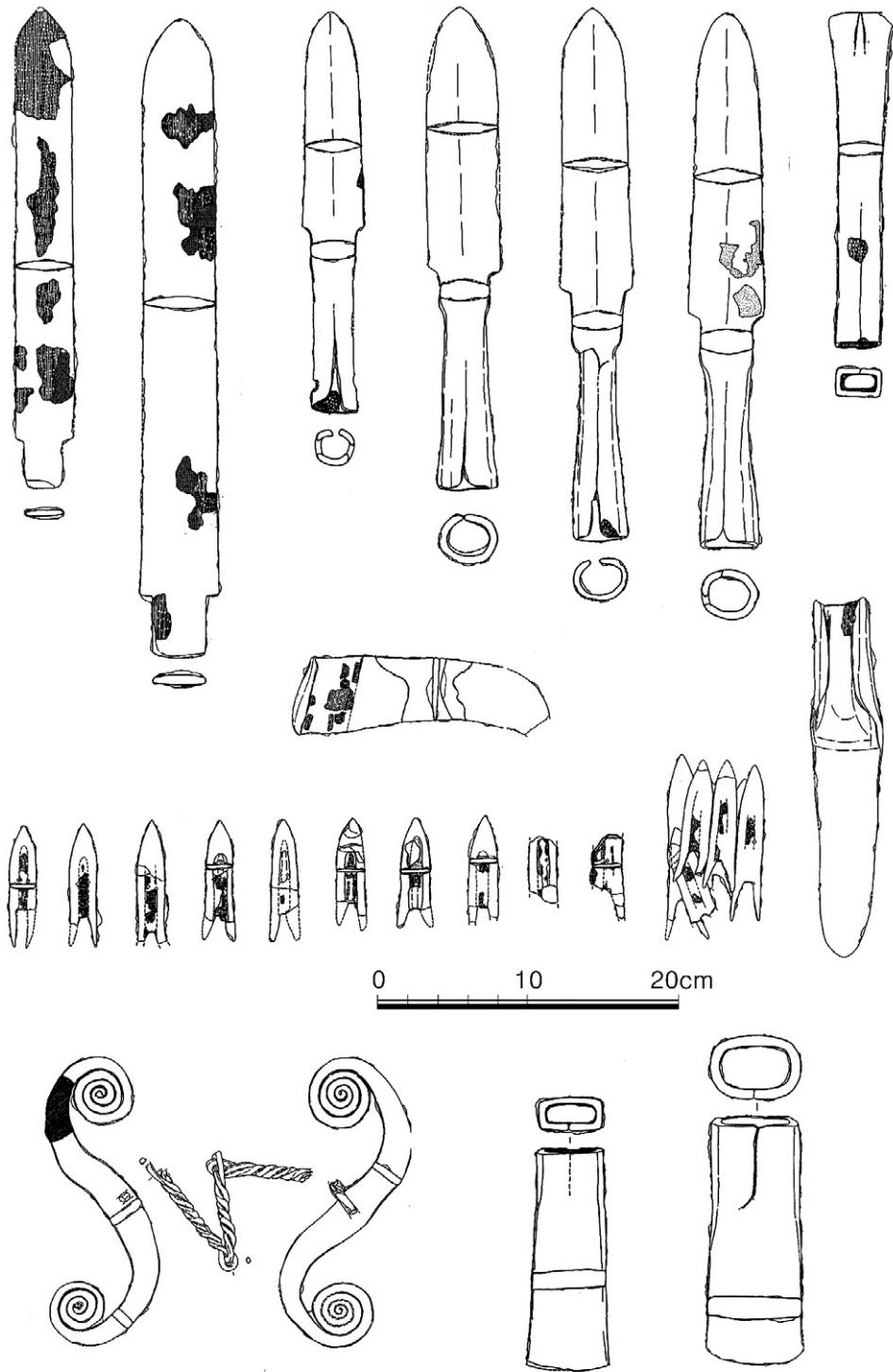
- 金度憲, 2002, 「三韓時期 鑄造鐵斧의 流通樣相에 대한 檢討」『嶺南考古學』31號, 1-29쪽.
- _____, 2004, 「고대의 판상철부에 대한 검토-영남지역 분묘출토품을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53, 韓國考古學會.
- 金榮珉, 1996, 「영남지역 삼한후기문화의 특징과 지역성」, 釜山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_____, 2004, 「三韓後期 辰韓勢力의 成長過程研究」『新羅文化』, 第23輯, 東國大學校新羅文化研究所.
- 박진일, 2007, 「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청동기학회.
- 申東昭, 2008,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鐵斧와 鐵矛의 分布定型 研究」, 慶北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 安在皓, 1995, 「慶州 隍城洞墳墓群에 대하여 : 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新羅文化』제12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禹炳喆, 2005 「南韓出土 釜部多角形 鐵鉞에 대한 一考察」『嶺南文化財研究』18, 嶺南文化財研究院.
- _____, 2006, 「新羅 및 加耶式 鐵鉞의 成立과 擴散」『韓國考古學報』58,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8, 「鐵鉞과 鐵鉞로 본 新羅, 加耶 그리고 倭」『嶺南考古學』47號, 嶺南考古學會.
- 禹炳喆·金玟撤, 2009, 「꺾수형철기를 통해 본 진·변한정치체의 상호작용」『韓國上古史學報』, 第65號, 韓國上古史學會.
- 李健茂, 1990, 「夫餘 合松里遺蹟 出土 一括遺物」『考古學誌』第2輯.
- 李南珪, 1993, 「1~3세기 낙랑지역의 금속기문화-鐵器를 중심으로」『韓國古代史論叢』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 李盛周·金炫希, 2000, 「蔚山 茶雲洞·中山里遺蹟의 木棺墓와 木槨墓」『三韓의 마을과 무덤』, 第9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要旨, 嶺南考古學會.
-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在興, 2009, 「경주와 경산지역의 중심지구 유적으로 본 4~5세기 신라의 변모」『韓國考古學報』제70집, 韓國考古學會.
- 李清圭, 2007, 「石劍, 銅劍, 그리고 鐵劍」『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記念 天馬考古學論叢』, 석심정영화교수 정년퇴임논총 간행위원회.
- 李熙濬, 1996, 「신라의 성립과 성장과정에 대한 고찰」『신라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 _____,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大學校文學博士學位論文.
- 林東在, 2005,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張容碩, 2008, 「4世紀新羅의 土城築造背景-達城과 林堂土城의 例를 통하여-」『嶺南考古學』第46號, 嶺南考古學會.

- 朱甫噉, 2002, 「辰·弁韓의 成立과 展開」『진·변한사 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조성윤, 2006, 「慶州 隍城洞 原三國時代 墳墓 出土 鍛造鐵斧에 대하여, 新羅形成의 秘密 -慶州 隍城洞遺蹟의 最近 研究成果-」『第5回 古墳研究會 學術세미나』, 古墳研究會.
- 崔景圭, 2004, 「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禹在柄, 1998, 『國家形成期武器의 武裝』, 大阪大學學校博士學位論文.
- 諫早直人, 2005, 「原三國時代における鐵製鑿製作技術の特質」『朝鮮古代研究』第6号, 朝鮮古代研究刊行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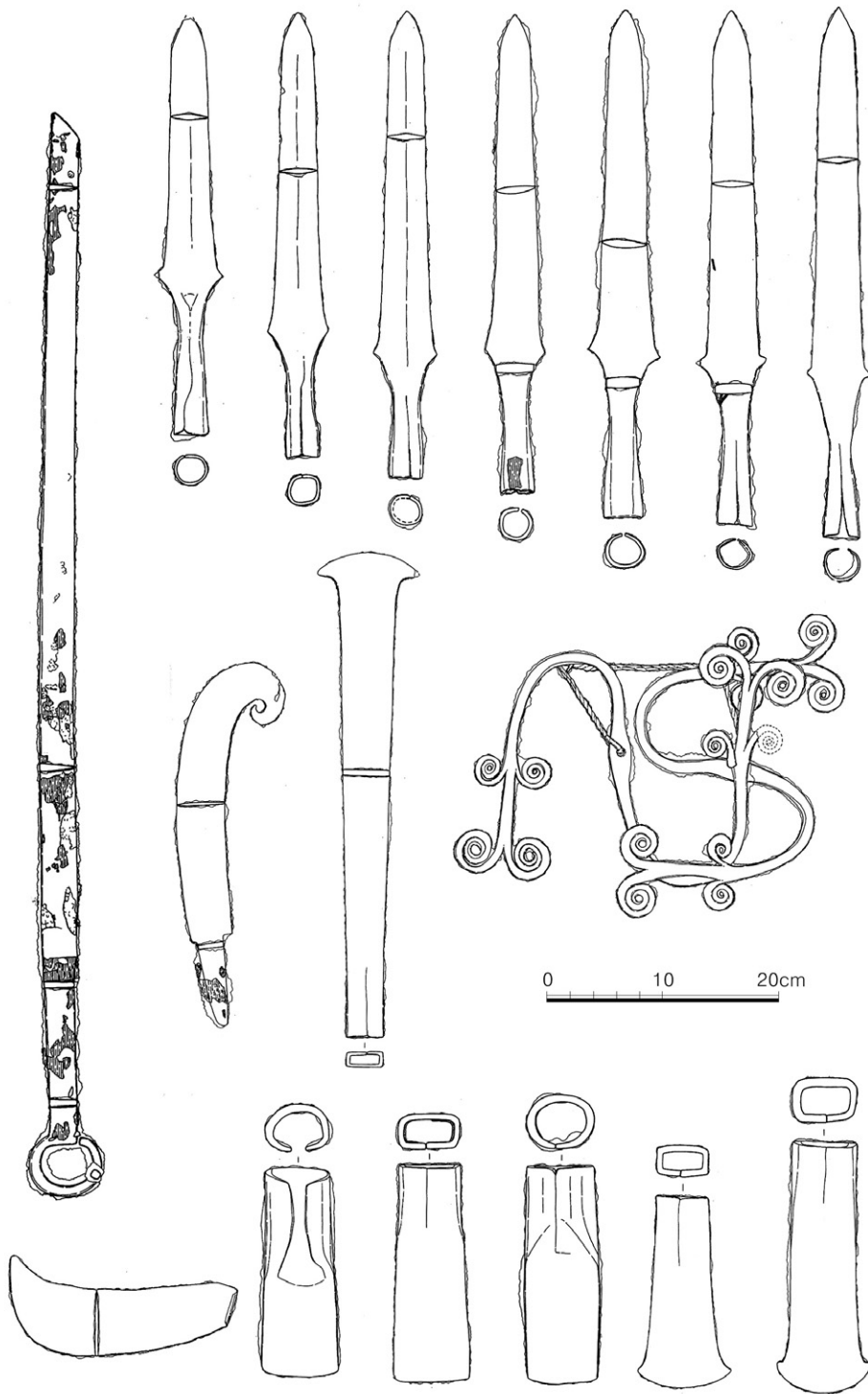


〈도면 1〉 영남지방 출토 초기철기시대 철기류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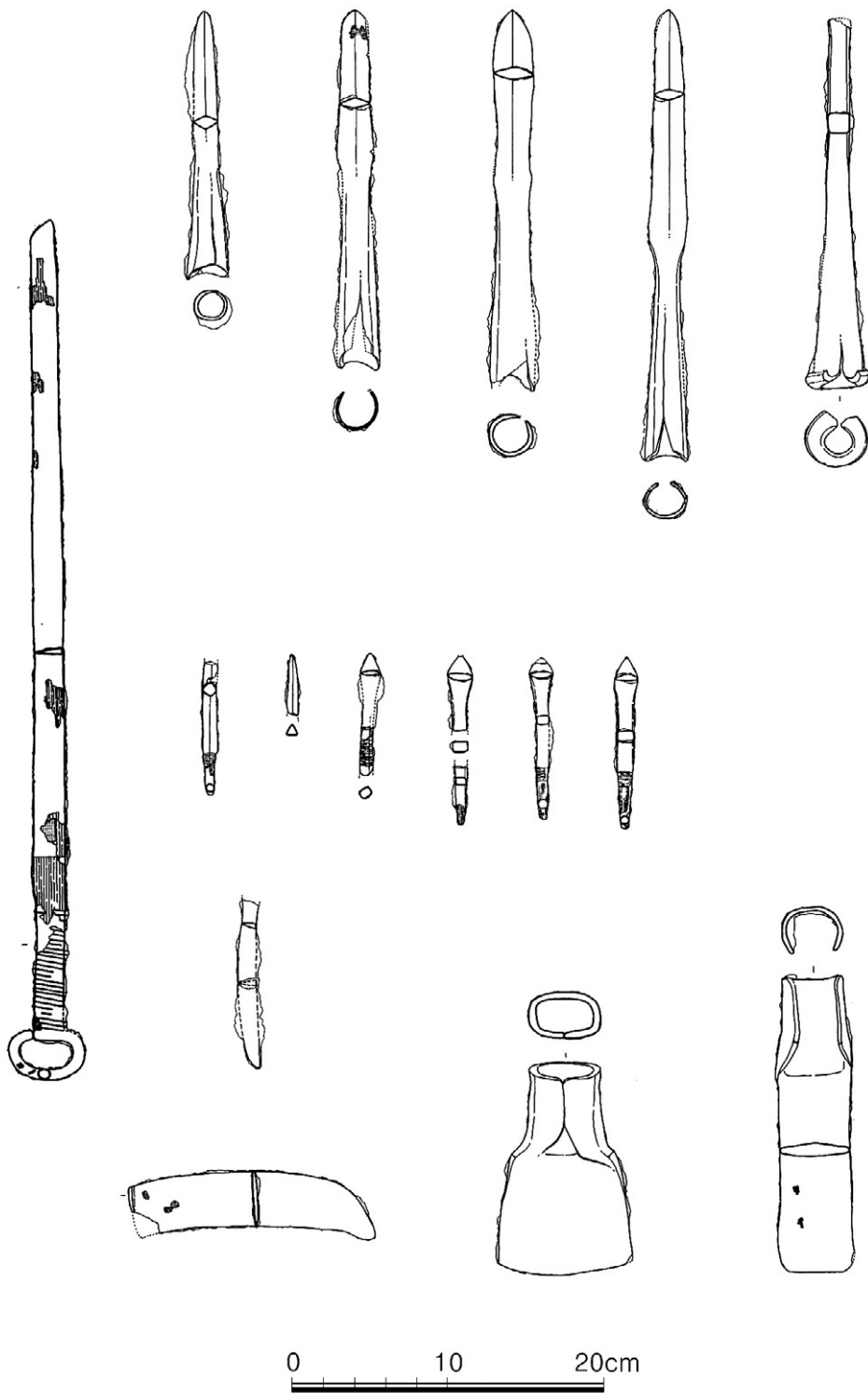
(1: 대구 월성동777-2 I-12호, 2·8·11·18·22: 대구 팔달동57호, 3·17: 팔달동77호, 4: 월성동 I-13호, 5·14·19: 월성동 I-6호, 6: 월성동 I-2호, 7: 월성동 I-2, 9·16: 경산 임당동FⅡ-34호, 10: 월성동 I-1, 12: 월성동 I-3호, 13·21: 팔달동67호, 15·20: 월성동Ⅱ-2호, 23: 팔달동90호, 24: 경주 덕천리138호, 25: 성주 예산리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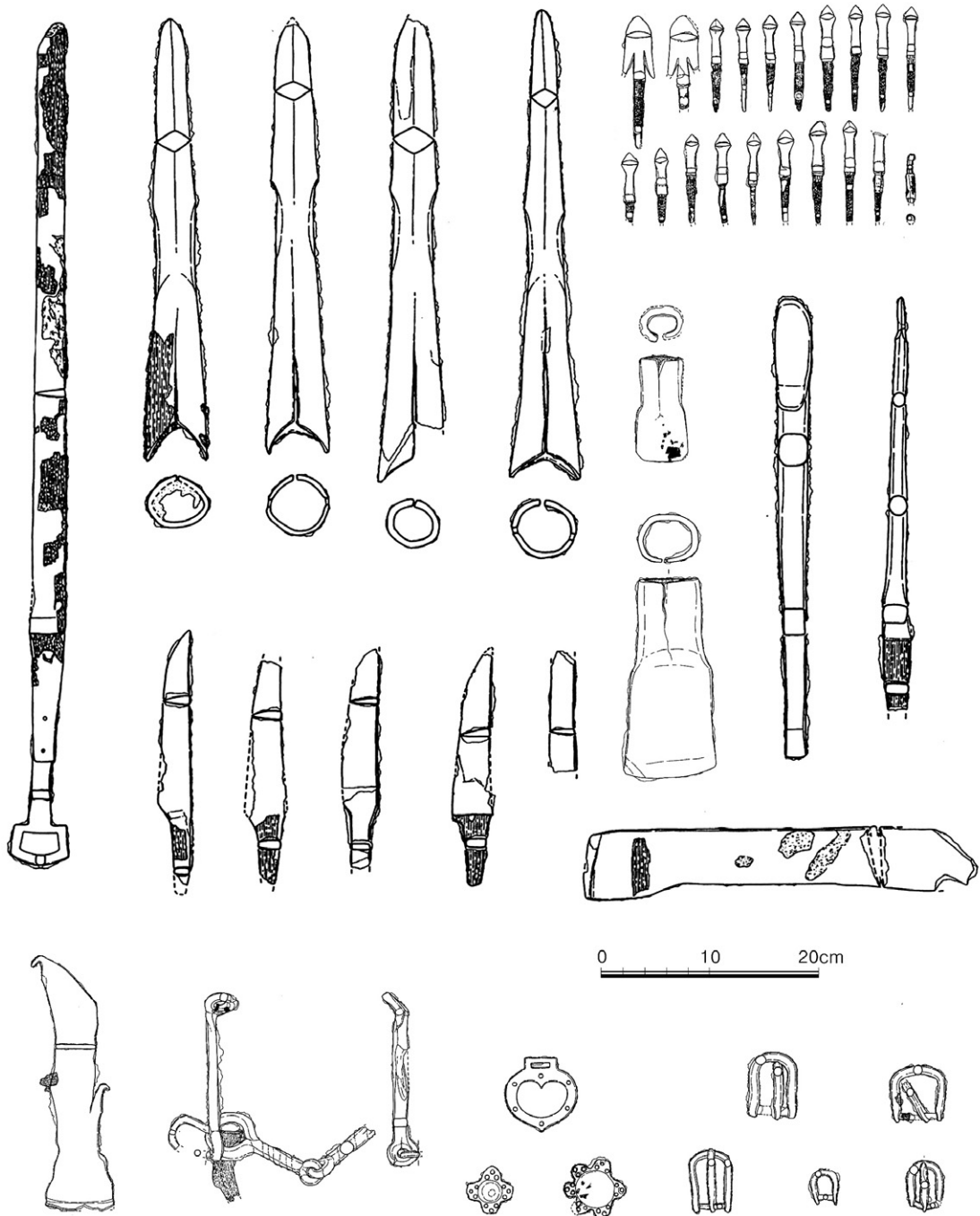
〈도면 2〉 경주 황성동유적 철기 2단계 유물 조합(황성동 46호)



〈도면 3〉 경주 황성동유적 철기 3단계 유물 조합(황성동 강변로 1호)



〈도면 4〉 경주 황성동유적 철기 4단계 유물 조합(황성동 목곽묘 22호)



〈도면 5〉 경주 황성동유적 철기 5단계 유물 조합(황성동 적석목곽묘 33호)

경주 황성동유적 와질토기에 관한 一考

이제동*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2. 타유적의 출토양상 |
| II. 편년 분석 | 3. 상호대비 |
| 1. 자료의 검토 | IV. 황성동유적 와질토기의 특성과 의미 |
| 2. 편년의 전개 | 1. 특성과 의미 |
| III. 토기의 출토양상과 타유적과의 비교 | 2. 집단의 성격 |
| 1. 황성동유적의 출토양상과 특징 | V. 맺음말 |

— 요 약 —

경주 황성동유적 토기의 편년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I 단계는 고식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목관묘단계, II 단계는 신식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방형 또는 장방형의 목곽묘단계, III 단계는 신식와질토기와 고식도질토기가 출토는 세장방형의 목곽묘단계이다. 황성동유적은 1세기 전엽-2세기 중엽까지 고식와질토기가 나타나고 2세기 후엽에는 다른 영남지방과 마찬가지로 목곽묘와 신식와질토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2세기 후엽에 보이는 와질토기는 신식와질토기의 요소도 일부 보이지만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의 황성동 목곽묘의 특징인 목관계목곽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토기에서도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여 새로운 토기문화인 신식와질토기로의 전환이 영남지방의 다른 지역보다 느리게 진행된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3세기 전엽에 새로운 방형목곽묘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식와질토기가 부장되고 3세기 후엽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면서 고식도질토기가 출토되지만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 같은 중심지구는 차치하더라도 경주지역의 다른 유적과 비교하여 결코 두드러지는 출토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하위 위계에 속하는 집단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경주 월성과 덕천리 같은 중심지구나 지역의 거점지구와 달리 경주 황성동은 제철생산과 관련한 계층화된 철생산자 집단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목관묘, 목곽묘, 와질토기, 출토양상, 제철생산 집단, 계층, 특수성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와질토기단계의 황성동유적은 제철생산유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지와 분묘가 확인 조사되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철생산과 관련된 유구는 황성동집단의 특수성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황성동유적에 대한 연구는 제철관련 유적과 묘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능적인 공간구획과 시간적인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토기를 비롯하여 묘제와 주거지의 변화양상은 충분히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황성동 와질토기의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특성을 중심으로 황성동집단의 변화와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와 관련한 황성동 토기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재호²⁾는 황성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분묘의 형태와 출토유물을 근거로 하여 3기로 편년하였다. 1기는 평면 장방형인 목곽묘목곽묘와 장방형의 목곽묘가 병행하는 시기, 2기는 장방형의 목곽묘가 일반화가 되는 시기, 3기는 세장방형의 목곽묘가 주체를 이루는 시기로 구분하였다. 황창한³⁾은 안재호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목곽묘의 구조와 평면형태를 분류하고 타날문 단경호를 중심으로 하는 유물분석을 통해 5기로 세분하였다. 권지영⁴⁾은 조양동과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형식설정을 통해 경주지역 와질토기를 총8단계로 설정하였다. 황성동유적은 2세기 전반부터 조영되고 있으며 목곽묘단계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분묘가 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경규⁵⁾와 임동재⁶⁾는 분묘유적, 주거지유적, 제철유적은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변화한다는 전제로 단계를 설정하고, 각 유적간의 공간구획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의 전개에 있어서 황성동 와질토기의 편년을 설정하기 위한 속성 분석과 형식분류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기왕의 편년연구에 따른 유효성을 토대로 편년단계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토기의 공반양상과 출토양상을 주변유적과 비교함으로써 황성동 와질토기의 출토양상에 따른 특성을 살피고, 이를 경주를 비롯한 영남의 주요 와질토기 유적과 상호 대비함으로써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편년 분석

편년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적인 변화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기종인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대부직구호를 대상으로 속성분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

2) 안재호, 1995, 「慶州隍城洞 古墳群에 대하여」『신라문화』1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3) 황창한, 2002, 「考察」『隍城洞古墳群』,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4) 권지영, 2006, 「경주지역 와질토기 편년 검토」『석헌정경원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5) 최경규, 2004, 「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임동재, 2005, 「三韓時代 慶州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研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적인 변화양상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속성과 형식을 중심으로 편년을 설정한다.

1. 자료의 검토

1) 주머니호

주머니호의 시간적인 변화는 저부·구연부·동체부의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저부의 형태는 대상인 것에서 말각평저, 원저로의 시간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구연부의 형태는 점토대가 있는 구연에서 단순구연으로 변화한다. 동체는 동상반부가 부풀어 오른 것에서 평편한 것, 내만한 것, 동 중앙에 각이 지고 내만도가 큰 것으로 시간적인 변화⁷⁾가 확인된다. 이 속성에 의하면 강변로 목관묘 2,3호와 주거지 I-다8호, II-다-5호의 출토유물은 말각평저에 평편한 동체와 단순구연을 가진 것으로 기원전 1세기 후엽에 해당한다. 575번지 2호 목관묘는 원저에 내만하는 동체와 단순구연을 가진 것으로 2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2)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주요한 속성은 저부와 동체부의 형태, 구경의 외반도 등이다. 저부는 주머니호와 같은 변화양상인 대상저부에서 말각저부, 원저로 변화하고 동체의 형태는 球形에서, 卵形로 변화한다. 외반도는 각이 커져 경사가 심해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⁸⁾. 이 속성에 의하면 575번지 2호 목관묘 출토품은 원저에 난형의 동체와 15~25% 외반하는 구연단을 가진 형태로 2세기 전엽에 해당하고, 575번지 9호 목관묘는 2호와 비슷한 동체에 구연단의 외반이 더 심화된 형태로 2세기 중엽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대부광구호

황성동유적에서의 대부광구호는 634-1번지와 강변로 유적에서 주로 출토된다. 대부광구호의 주요속성으로 동체의 형태, 경부의 형태, 문양이다. 황성동 634-1번지 2호에서 출토된 대부광구호는 동체부의 형태가 역삼각형으로 동최대경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는 외경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634-1번지 9호에서 대부광구호는 동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하는 횡타원형의 형태의 대부광구호가 출토되기 시작하며 경부는 외반하고 있다. 634-1번지 5호에서 출토된 대부광구호는 구연부가 파손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지만 동최대경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경부는 잔존형태로 외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성동 유적에서 출토된 대부광구호에 시문된 문양은 10점 중 9점이 종집선문으로 횡침선으로 인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형태이고, 1점은 횡침선만 있는 형태로 종집선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광구호의 동체부의 형태는 장동형, 역삼각형, 타원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 역삼각

7) 안재호,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8) 안재호,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형의 동체가 출토된 634-1번지 2호→타원형에 동최대경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634-1번지 5호→횡타원형의 동체부인 634-1번지 9호로 변화가 파악된다. 시기는 634-1번지 2호가 3세기 전엽, 634-1번지 5·9호가 3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4) 노형토기

노형토기도 대부광구호와 같은 출토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로 634-1번지 유적과 강변로유적의 목곽묘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노형토기의 주요 속성으로서 동체부의 형태, 구경부의 형태, 문양, 대각접합방법, 구연부의 처리방법 등이 있으나⁹⁾, 본고에서는 동체부의 형태와 구경부의 상관관계를 통해 시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한다.

동체부의 형태는 편구형에서 역삼각형으로, 구경부는 외반하는 형태에서 직립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편구형의 동체가 출토된 634-1번지 1·2·4호→역삼각형의 동체가 출토된 634-1번지 3·5·9호로 변화가 파악된다. 시기는 634-1번지 2호가 3세기 전엽, 634-1번지 5·9호가 3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5) 대부직구호

대부직구호는 타날문단경호 다음으로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는 개체이다. 대부직구호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형의 대부직구호는 전반적인 형태나 변화양상이 중, 대형의 대부직구호와 달라 속성분석에서는 제외하고 본고에서는 중, 대형의 대부직구호를 같이 분석하였다¹⁰⁾. 소형의 대부직구호와 대부호의 경우는 구경이 동체에 비해 넓고, 동체의 형태가 편구형으로 대형의 노형토기에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직구호와는 다른 계통으로 생각된다¹¹⁾. 대부직구호의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주요속성으로는 동체부의 형태, 동체부와 대각의 변화양상을 알 수 있는 동최대경/대각지름의 비율, 구연부의 형태이다.

동체부의 형태는 횡타원형에서 장동형으로 변화하고, 동최대경/대각지름의 비율은 대각지름이 커지는 형태로, 구연부는 외반에서 직립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 상관관계에 따르면 634-1번지 9호→1호→14호→16·17호→22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기는 외반하는 구연이 출토된 634-1번지 9호·1호가 3세기 중엽, 외경·직립하는 구연이 출토된 14·16호가 3세기 후엽~4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2. 편년의 전개

1) I 단계

I-1단계

9) 안재호, 1994, 「삼국시대 후기 와질토기의 편년」『영남고고학』 14.

10) 이성주, 1999, 「변·진한지역분묘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영남고고학』 24.

11) 안재호, 1994, 「삼국시대 후기 와질토기의 편년」『영남고고학』 14.

황성동유적에서 가장 이른 형식의 고식와질토기가 출토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1-1기에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출토되지 않아 공반관계를 통한 연대의 설정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렇지만 여기서 출토되는 주머니호는 내만하는 구연과 굽은 없지만 평저이거나 평저에 가까운 저부의 형태로 보아 조양동 38호와 동일한 단계로 이해되어 연대는 서기전 1세기 후엽으로 설정한다¹²⁾.

그런데 주거지 출토품의 경우 대부분 조양동 38호와 동일한 단계이지만 점토대토기 같은 이른 형식과 사격자문이 타날된 단경호 같은 늦은 형식도 보여 편년의 설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다지구 주거지와 인근의 목관묘는 동일한 단계로 보는 견해¹³⁾를 따라 서기전 1세기 후엽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강변로 도로구간 목관묘 1호·2호·3호, 황성동 유적 라지구 토광묘 1호, 황성동유적 다지구 주거지(원형주거지)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된다.

I -2단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지구 주거지에서 출토된 사격자문이 타날문 단경호와 소옹 같은 시기 폭이 긴 토기를 제외하고는 1세기 전엽과 1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고식와질토기는 출토되지 않아 현재 공백으로 남아있다. 1-2단계부터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연대는 구경부의 내만도가 커지며 구연이 외반되기 시작하고 원저인 주머니호와 구형의 동체에 구경이 외반하기 시작하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를 통해 2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 575번지유적의 목관묘 1호·2호·7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I -3단계

고식와질토기의 마지막 단계로 격자타날과 같은 신식와질토기 요소도 확인 된다. 연대는 구연의 외반이 심화되어 꺾이고 동체의 중앙에 각이지고 내만도가 커지는 주머니호와 장동형의 동체와 구경부의 외반이 커지고 수평으로 구연이 벌어지는 형태의 조합우각형파수부호로 보아 2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 575번지 목관묘 9호·10호·11호, 목곽묘 13호·59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2) II 단계

II -1단계

II -1단계는 신식와질토기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런데 황성동의 경우 신식와질토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시기에는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 같은 신식와질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은 출토되지 않고 조합우각형파수호의 퇴화형식으로 추정되는 파수부호와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남아 있는 단경호 및 소옹이 출토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에 격자타날 같은 신식와질토기적인 요소가 보이므로 연대는 2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고분군 31호·57호·67호·68호·70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12) 안재호,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韓國古代史와 考古學』.

이재현,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3) 이재홍, 2006, 「慶州地域 木槨墓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Ⅱ-2단계

전형적인 신식와질토기가 황성동유적에서도 나타나는 시기이다. 토기의 출토양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수 있다. 방형목곽묘에서는 신식와질토기의 전형적인 기종인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가 다수 부장되기 시작한다. 대형의 토기가 출토되는 방형목곽묘와 함께 장방형의 목곽묘도 확인되고 있다. 장방형의 목곽묘는 토기의 출토가 빈약하고 비교적 소형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는 반면 다량의 철기가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황성동 545번지 46호에서는 마구류, 파비 등 다수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연대는 신식와질토기의 가장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는 출토되지 않고 역삼각형 동체와 집선문이 시문된 대부광구호와 편구형 동체와 직립하다가 외반하는 구경부를 지닌 노형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3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고분군 2호·43호·45호·46호, 황성동 강변로 1호·2호·4호·12호, 황성동 634-1번지 1호·2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Ⅱ-3단계

Ⅱ-2단계와 같이 장방형의 목곽묘와 대형의 방형목곽묘가 공존하며 유물의 출토양상도 Ⅱ-2단계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방형의 목곽묘인 황성동 545번지 40호 경우 단경호에 대각이 붙은 형태의 토기가 출토되는 새로운 기종의 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여전히 목곽의 규모에 비해 많은 양의 철기가 부장되고 있다. 연대는 횡구형 동체의 대부광구호와 역삼각형 동체에 직립하는 구연을 지닌 노형토기 및 가장 이른 단계의 대부직구호로 보아 3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고분군 40호·49호·53호·57호, 황성동 강변로 3호·6호, 황성동 634-1번지 3호·4호·5호·9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3) Ⅲ 단계

경주식목곽묘가 등장하며 노형토기와 대부광구호는 사라지고 앞 시기부터 보이던 대부직구호를 비롯해 노형기대와 양이부호 같은 새로운 기종과 고식도질토기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토기의 소성에 있어서 완전한 도질소성이 아닌 와질소성과 도질소성의 중간단계에 소성정도를 보이고 있다. 연대는 가장 이른 형식에 해당하는 건부가 미약하고 대각이 낮은 노형기대와 원저의 양이부호 및 횡구형 동체의 대부직구호로 보아 3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황성동고분군 5호·9호·12호·14호·33호·8호·13호·16호·17호·22호·25호·29호·30호·36호·59호·69호, 황성동 강변로 19호 등의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Ⅲ. 토기의 출토양상과 타유적과의 비교

속성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단계설정을 바탕으로 토기의 출토량과 출토양상을 주변유적과 비교함으로써 황성동 와질토기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출

토양상 분석을 위한 대상 기종은 I 단계의 전기간에서 확인되고, 이 단계를 대표하는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교대상유적으로는 I 단계는 신대·부적리유적, 덕천리유적, 다호리유적을, II 단계는 덕천리유적, 하대유적을 중심으로는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III 단계의 경우는 고식도질토기가 출현하는 단계이므로 주변유적과의 분석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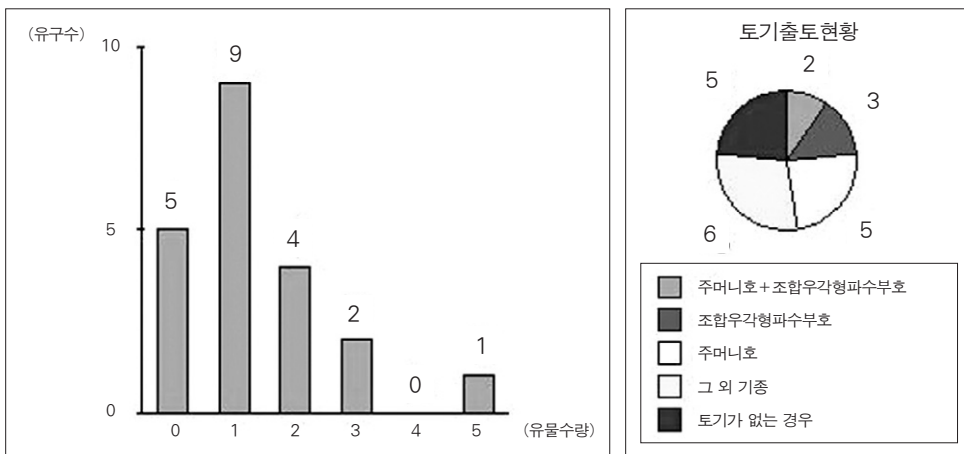
1. 황성동유적의 출토양상과 특징

1) I 단계

황성동 I 단계의 목관묘는 총21기로 호수별 토기의 출토량은 5점 이내로 대부분이 1~2점의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3점 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20기중 3기로 토기의 출토량이 상당히 빈약함을 보이고 있다.

토기의 공반양상은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가 공반되는 경우는 2기(10%), 조합우각형파수부호만 출토되는 경우는 3기(15%), 주머니호만 출토되는 경우는 5기(24%), 그 외의 기종만 출토되는 경우는 6기(29%), 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경우는 5기(24%)가 있다. 두 기종이 공반되는 경우는 2기로 전체유구의 10%에 불과하고, 두 기종 중 한 종류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비율이 49%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이 토기가 없는 경우와 그 외 기종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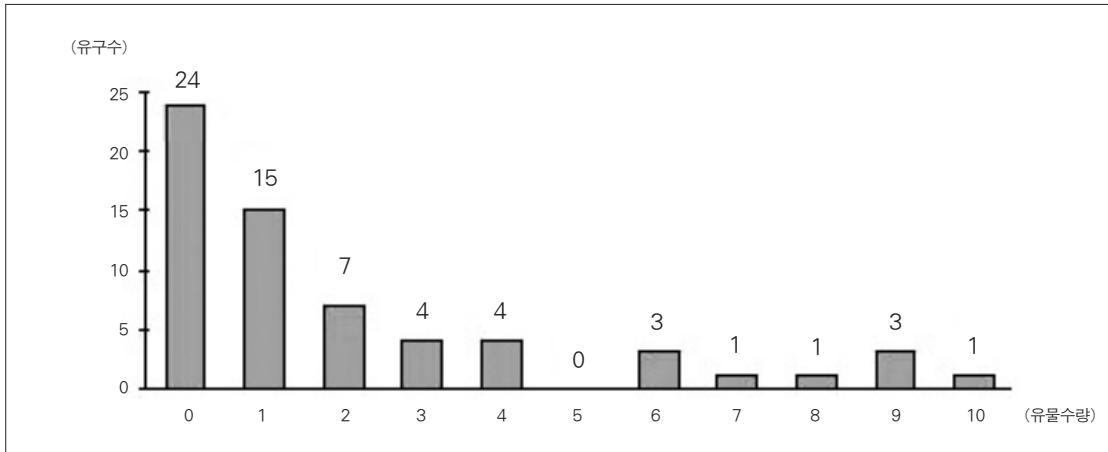
〈표 1〉 황성동유적 I 단계 유구별 출토유물 수량 및 출토현황



2) II 단계

황성동 II 단계의 목관묘는 총63기로 호수별 토기의 출토량은 10점 이내로 대부분이 1~5점의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5점 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63기중 9기로 토기의 출토량이 상당히 빈약함을 보이고 있다.

〈표 2〉 황성동유적 II 단계 유구별 출토유물 수량



2. 타유적의 출토양상

1) 신대 · 부적리유적

① I 단계

경산시 신대 · 부적지구 2-7호선 확장공사 구간¹⁴⁾과 신대 · 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¹⁵⁾에서 전기와질토기단계의 분묘인 목관묘가 다수 확인조사 되었다. 두 유적은 서로 접하고 있으며, 목관묘의 배치 또한 동일한 진행방향을 보이고 있어 동일한 분묘군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두 유적을 같은 분묘군으로 판단하고 신대 · 부적리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두 유적에서 조사된 목관묘는 총115기¹⁶⁾이나 본고에서는 이 중 보고된 60기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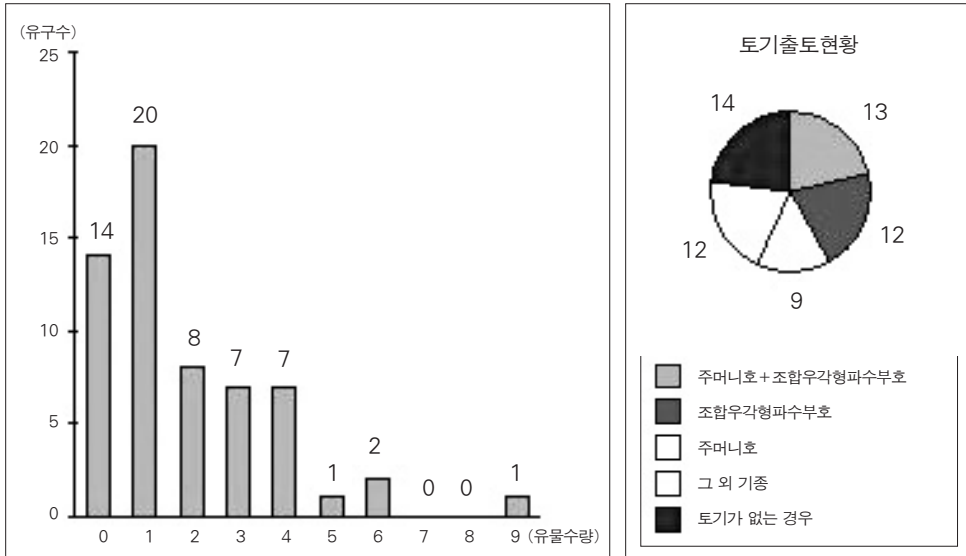
신대 · 부적리 목관묘는 총60기로 호수별 토기의 출토양은 9점 이내로 대부분이 1~4점의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5점 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60기중 4기로 비교적 다수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토기의 공반양상은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가 공반되는 경우는 13기(22%), 조합우각형파수부호만 출토되는 경우는 12기(20%), 주머니호만 출토되는 경우는 9기(15%), 그 외의 기종만 출토되는 경우는 12기(20%), 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경우는 14기(24%)가 있다. 두 기종 중 한 종류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경우는 5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14)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경산시 신대 · 부적지구 2-7호선 확장공사 구간내 慶山 新垆里670番地 遺蹟』.

15)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경산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慶山 新垆里遺蹟 發掘調査』 현장실명회자료집.

16) 경산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慶山 新垆里遺蹟에서 112기, 경산시 신대 · 부적지구 2-7호선 확장공사 구간내 慶山 新垆里670番地 遺蹟에서 3기의 목관묘가 조사되었다.

〈표 3〉 신대 · 부적리유적 I 단계 유구별 출토유물 수량 및 출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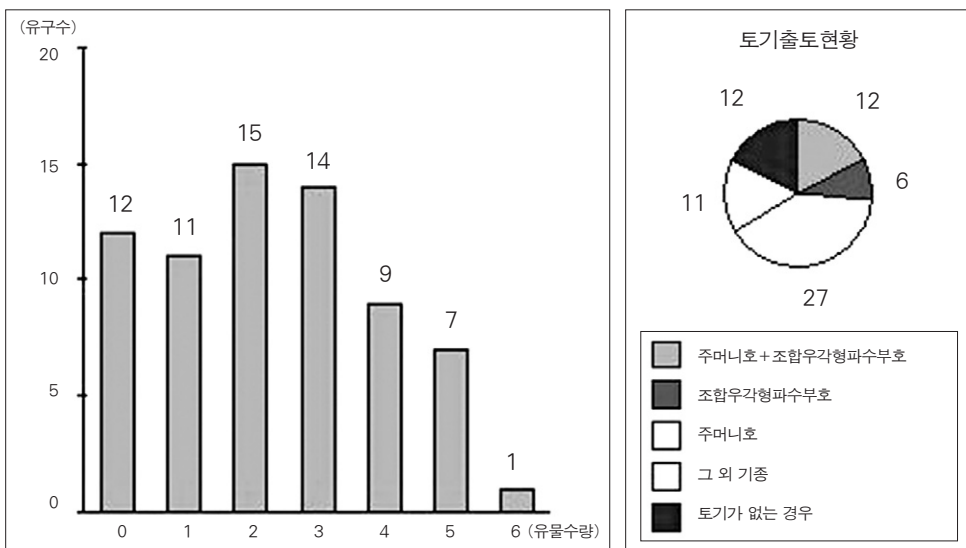
2) 다호리유적

① I 단계

다호리 목관묘는 총 68기로 호수별 토기의 출토량은 6점 이내로 대부분이 1~5점으로 유물수량에 따른 유구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6점의 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68기 중 1기가 존재한다.

토기의 공반양상은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가 공반되는 경우는 12기(18%), 조합우각

〈표 4〉 다호리유적 I 단계 유구별 출토유물 수량 및 출토현황



형파수부호만 출토되는 경우는 6기(9%), 주머니호만 출토되는 경우는 27기(40%), 그 외의 기종만 출토되는 경우는 11기(17%), 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경우는 12기(18%)가 있다. 두 기종이 같이 출토되는 비율은 18%로 비교적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두 기종 중 한 종류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경우는 67%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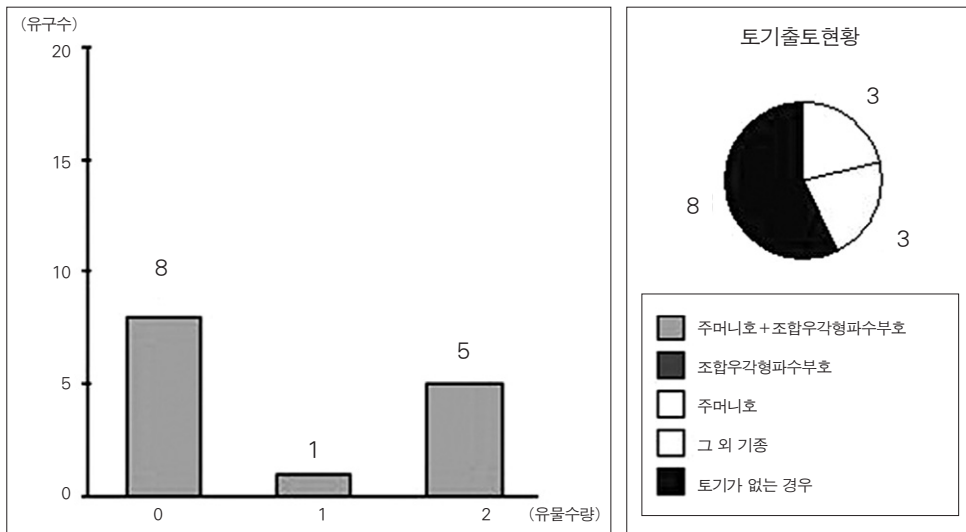
3) 덕천리유적

① I 단계

덕천리 목관묘는 총14기로 호수별 토기의 출토량은 2점 이내로 대부분의 유구에서 토기가 출토되지 않고 있다.

토기의 공반양상은 주머니호와 주머니호만 출토되는 경우는 3기(22%), 그 외의 기종만 출토되는 경우는 3기(22%), 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경우는 8기(58%)가 있다.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출토되지 않고 주머니호만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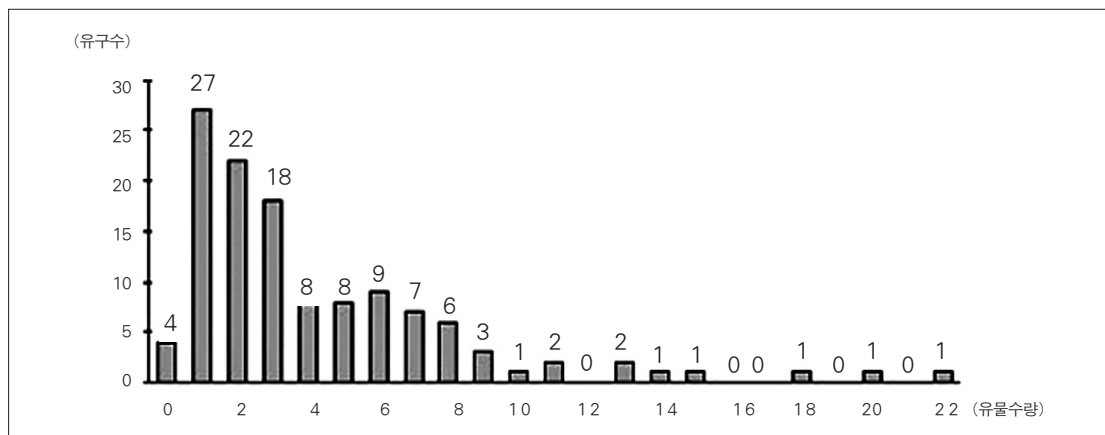
〈표 5〉 덕천리유적 I 단계 유구별 출토유물 수량 및 출토현황



② II 단계

덕천리 목곽묘는 총 122기로 호수별 토기의 출토량은 22점 이내로 대부분이 1~9점의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10점 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122기 중 10기로 토기의 출토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80·120호에서는 오리모양토기, 신선로형토기를 포함하여 20점 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표 6〉 황성동유적 Ⅱ 단계 유구별 출토유물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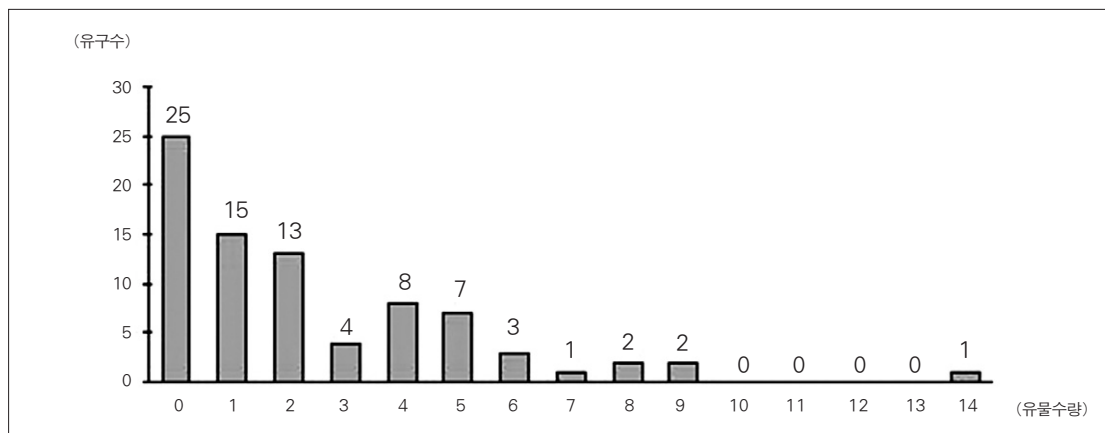


4) 하대유적

① Ⅱ 단계

하대의 목곽묘는 총 81기로 호수별 토기의 출토량은 14점 이내로 대부분이 1~5점의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5점 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81기 중 16기이고 특히 23호는 내부에서 대부광구호를 비롯한 총 14점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표 7〉 하대유적 Ⅱ 단계 유구별 출토유물 수량



3. 상호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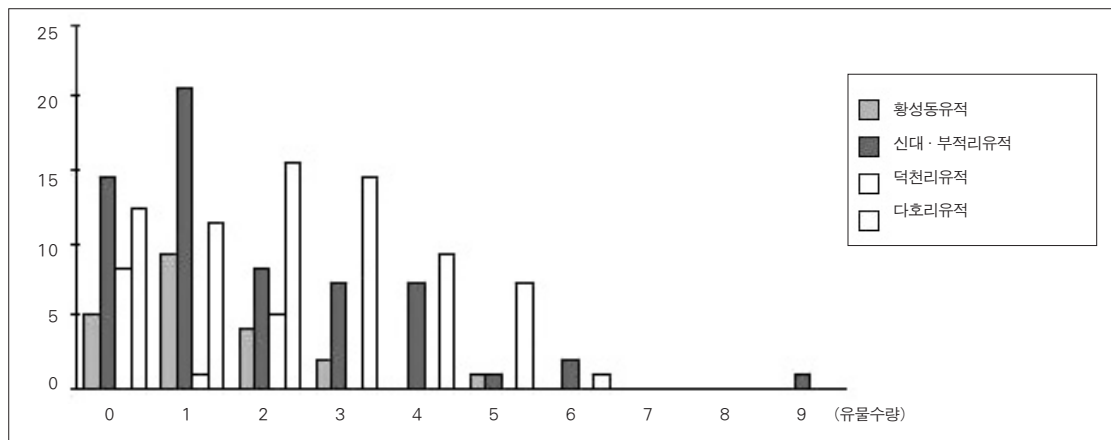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각 유적의 출토유물 수량과 토기의 공반관계를 중심으로 유적간의 특징을 비교·분석 하도록 하겠다.

1) I 단계

덕천리유적은 1기의 목관묘 안에서 3점 이상의 토기가 확인되는 경우는 확인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유구에서 토기가 출토되지 않고 있다. 황성동유적은 5점 이내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대체로 1~2점이 출토되고 있다. 이 두 유적에 비해 다호리유적과 덕천리유적은 비교적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다호리유적은 최대 6점 이내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나 무덤내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평균수량이 다른 유적과 비교 했을 때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우월적으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는 경우는 적다. 신대·부적리유적은 최대 출토량은 9점 이내로 대부분이 1~4점의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5점 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60기 중 4기로 비교적 다수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특히 9점의 토기가 출토되는 670번지 1호의 경우 출토량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덕천리유적과 황성동유적의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양은 매우 빈약하고 상대적으로 다호리유적과 신대·부적리유적의 토기 출토량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호리유적은 신대·부적리 유적과 달리 평균 출토량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유물수량에 대비하여 유구수도 일정한 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신대리 유적은 0~1점이 출토된 목관묘의 수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수량적으로 우월한 목관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8〉 유적별 I 단계 토기수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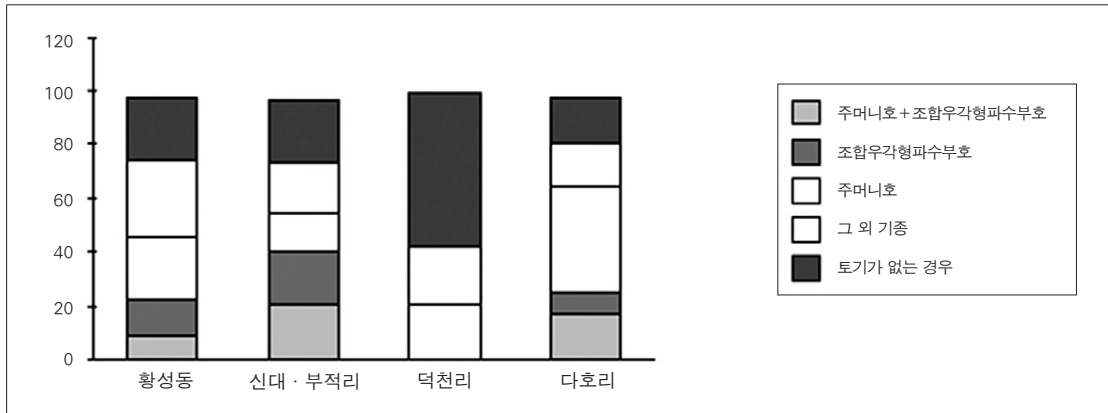
토기의 공반양상은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가 공반되는 경우의 비율이 황성동10%, 덕천리0%, 신대·부적리22%, 다호리18%이고, 조합우각형파수부호만 출토되는 경우의 비율이 황성동15%, 덕천리0%, 신대·부적리20%, 다호리9%이다. 주머니호만 출토되는 경우의 비율이 황성동24%, 덕천리22%, 신대·부적리15%, 다호리40%이다. 그 외의 기종만 출토되는 경우의 비율이 황성동29%, 덕천리 22%, 신대·부적리 20%, 다호리 17%, 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황성동24%, 덕천리 58%, 신대·부적리 24%, 다호리 18%이다.

이를 정리하면 덕천리유적은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출토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주머니호만

소량 확인되고 있다. 황성동유적은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호가 함께 부장되는 경우가 적으며 주머니호가 부장되는 경우가 비교적 높다고 하겠다. 신대·부적리 유적은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호가 함께 부장되는 경우가 비교적 높으며 특히 다른 유적에 비해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출토 비율이 높다.

다호리유적은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호가 함께 부장되는 경우도 높은 비율로 확인되고 있으나 특히 주머니호의 출토 비율이 4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유적별 Ⅰ 단계 토기 공반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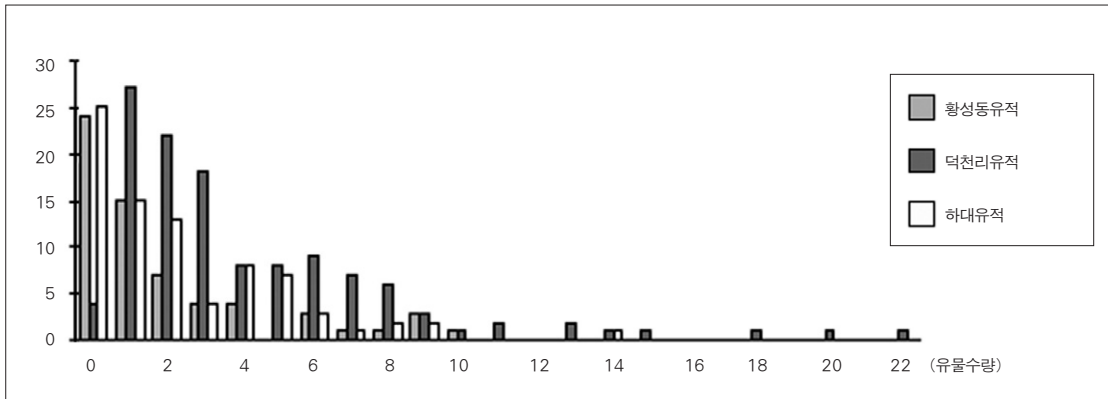


2) Ⅱ 단계

황성동유적은 10점 이내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대체로 1점이 출토되고 있다. 황성동유적에 비해 덕천리유적과 하대유적은 비교적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덕천리유적은 최대 22점 이내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10점 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목곽묘도 10기가 확인된다. 무덤내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평균수량도 다른 유적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하대유적은 최대 출토량은 14점 이내로 대부분이 1~5점의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10점 이상의 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1기로 총 14점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황성동유적의 목곽묘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양은 매우 빈약하고, 다른 유적과 비교해서 수량적으로 우월한 위치의 목곽묘도 확인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덕천리유적과 하대유적의 토기 출토량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대유적은 덕천리유적과 달리 평균 출토량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유물수량에 대비하여 유구수도 일정한 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덕천리유적은 20점 이상의 토기가 출토된 목곽묘가 확인되고 있어 수량적으로 우월한 목곽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10〉 유적별 Ⅱ 단계 토기수량 비교



Ⅳ. 황성동유적 와질토기의 특성과 의미

1. 특성과 의미

앞에서 황성동에서 출토된 와질토기의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단계설정을 토대로 Ⅳ장에서는 황성동과 주변에 위치한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출토양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황성동 와질토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황성 집단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토기의 경우 분묘의 구조와 위세품적인 성격이 강한 철기와 달리 출토양상과 특징만으로 집단의 성격과 위계를 환치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분묘의 구조와 위세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반영 정도는 덜하지만 토기도 일정한 위계를 바탕으로 부장되었을 것이므로 대체적인 경향성은 반영한다.

1) I 단계(고식와질토기, 서기전 1세기 후엽 ~ 2세기 중엽)

I-1단계 목관묘의 경우 토기의 출토양상은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유개옹 등이 고르게 공반되는 경주지역의 다른 유적과 달리 황성동에서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부장되지 않고 주머니호만 부장된다. 또 토기의 수량도 복수로 부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점이 부장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가 2세기 전엽과 2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I-2단계와 I-3단계가 되면 경주지역의 다른 유적과 유사하게 주머니호와 유개대부옹 및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등 2개체 이상의 토기가 부장된다. 그런데 이시기 주거지 출토품의 경우 목관묘 출토품과 달리 옹과 호류가 주요한 기종이고 점토대토기 같은 이른 형식과 사격자문이 타날된 단경호 같은 늦은 형식도 동시에 보여 목관묘의 출토양상과 비교된다.

2) Ⅱ 단계(고식와질토기와 신식와질토기, 서기전 2세기 후엽 ~ 3세기 중엽)

Ⅱ-1단계(2세기후엽)에 들어서면 경주 황성동에서 목관묘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목곽묘

가 나타나며 토기의 경우 신식와질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인 노형토기와 대부광구호가 부장되지 않고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특징은 경주지역에서는 등장기 목곽묘의 자료가 부족해 경주지역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시기 황성동 토기의 특징인 점은 분명하다. 특히 황성동고분군 68호처럼 철기가 대량으로 부장되는 목곽묘에서 조차 토기는 한 두점 정도 부장되는 것이 주목된다.

Ⅱ-2단계와 Ⅱ-3단계가 되면 영남지방의 다른 유적과 마찬가지로 신식와질토기의 전형적인 기종인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가 출토되는 평면 방형인 목곽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방형의 목곽묘는 제지계의 목곽묘라 할 수 있는 장방형의 목곽묘와 공존하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장방형의 목곽묘는 토기의 출토량이 빈약하고 출토되는 기종도 고식도질토기 전통이 남아 있는 단경호, 옹 등 소형의 토기가 출토된다. 토기의 부장양상과 달리 철기의 부장은 철촉, 마구류, 철검, 따비 등 위신제를 비롯한 다수의 철기가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묘제를 통해 황성동 지역을 크게 강변로 구간과 황성동고분군(황성동545번지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강변로 구간에서는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가 주로 부장되는데 방형의 목곽묘집단의 묘역으로 황성동고분군(황성동545번지유적)은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는 부장되지 않고 단경호¹⁷⁾와 철기가 다수 부장되는 장방형의 목곽묘집단의 묘역으로 나눌 수 있다.

3) Ⅲ단계 (신식와질토기와 고식도질토기, 3세기 후엽 ~ 4세기 전엽)

Ⅲ단계는 세장방형의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나고 앞 시기의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는 점차 사라지고 대부직구호, 양이부호, 노형기대, 고배 등이 새롭게 부장되고 도질토기도 나타난다. 이 시기는 단경호의 출토 비중이 늘어나고 황성고분군 22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질토기가 출토되는 분묘의 경우 토기의 수량도 많고 무덤의 규모도 크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징 이외 주변유적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2. 집단의 성격

황성동 I 단계에 해당하는 주변 유적과 비교하면 황성동유적의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매우 단순한 출토양상을 보여 준다. 이 단계의 목관묘의 경우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공반되어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장동옹이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황성동유적은 I 단계의 이른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장양상이 확인되지 않고 I-2단계부터 일부 목곽묘에서 확인되고 있다. 장동옹은 전혀 출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토기뿐만 아니라 철기 및 분묘의 축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양동 38호의 경우 복수의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 소형완, 단경호등 8점의 토기와 다수의 철기와 청동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장양상은 사라리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황성동 Ⅱ 단계는 목관묘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 소형의 목곽묘에 작은 기형의 토기를 소량부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Ⅱ-2단계부터 대형의 기종인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 대부직구호 등

17) 안재호, 1995, 앞의 논문.

이 부장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토기가 출토되는 목곽묘 또한 전체 목곽묘 중에 일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목곽묘에서는 단경호와 대부호가 출토되고 있다. 주변의 목곽묘단계의 유적을 살펴보면 덕천리, 조양동, 하대 등이 있다. 이러한 하대 44호의 경우 대부장경호와 노형토기의 이른 형식부터 출토되기 시작하고 있어 황성동 집단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까운 덕천리 80·120호는 오리모양토기를 비롯한 토기가 20여점이 출토되었다. 철기의 경우 철모, 철촉 등 무기류가 다수확인되었으며 목곽 바닥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게 철모가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덕천리유적에서는 신선로형토, 유개반통형토기 등 복잡한 형태의 토기들이 다수 확인되었다¹⁸⁾. 반면 황성동유적의 경우는 토기의 출토량은 최대 10점내외로 수량도 적으며 철기생산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출토량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경주 황성동유적은 1세기 전엽-2세기 중엽까지 고식와질토기가 나타나고 2세기 후엽에는 다른 영남지방과 마찬가지로 목곽묘와 신식와질토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2세기 후엽에 보이는 와질토기는 신식와질토기의 요소도 일부 보이지만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의 황성동 목곽묘의 특징인 목관계목곽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토기에서도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여 새로운 토기문화인 신식와질토기로의 전환이 영남지방의 다른 지역보다 느리게 진행된 결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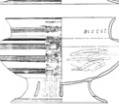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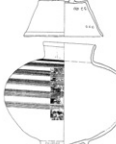
한편 3세기 전엽에 새로운 방형목곽묘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식와질토기가 부장되고 3세기 후엽 경주식목곽묘가 나타면서 고식도질토기가 출토되지만 울산 하대와 포항 옥성리 같은 중심지구는 차치하더라도 경주지역의 다른 유적과 비교하여 결코 두드러지는 출토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경주 황성동이 발전하여 최고 정점에 이르는 3세기에도 경주지역의 다른 유적과 비교해 무덤의 규모도 크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위 위계에 속하는 집단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경주 월성과 덕천리 같은 중심지구나 지역의 거점지구와 달리 경주 황성동은 제철생산과 관련한 계층화된 철생산자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V. 맺음말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경주 주변유적의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토기의 출토양상을 검토하였다. 각 유적의 출토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변화양상과 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황성동집단은 목관묘단계부터 적석목곽묘가 조성되는 긴 시간 동안 잔존하는 제철생산을 위해 형성된 보수적이고 전통이 강한 장인집단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고 선대에 사용한 무덤을 파괴하지 않고 새로운 무덤을 조성하는 것 또한 이러한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18)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경주 덕천리유적 발굴조사Ⅱ』 현장설명회자료집.

〈표 11〉 황성동유적 편년표

단 계	연 대	주머니호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대부직구호	해당유구
I-1	B.C. 1C 후엽						강변로 목관묘 1·2·3호
I-2	A.D. 2C 전엽						575번지 목관묘 1·2·7호
I-3	A.D. 2C 중엽						575번지 목관묘 9·10·11호
II-1	A.D. 2C 후엽						31·57·67· 68·70호
II-2	A.D. 3C 전엽						강변로 1·4·12호 634-1번지 1·2호
II-3	A.D. 3C 중엽						634-1번지 3·4·5·9호
III	A.D. 3C 후엽						5,9,12,14, 22,33호 강변로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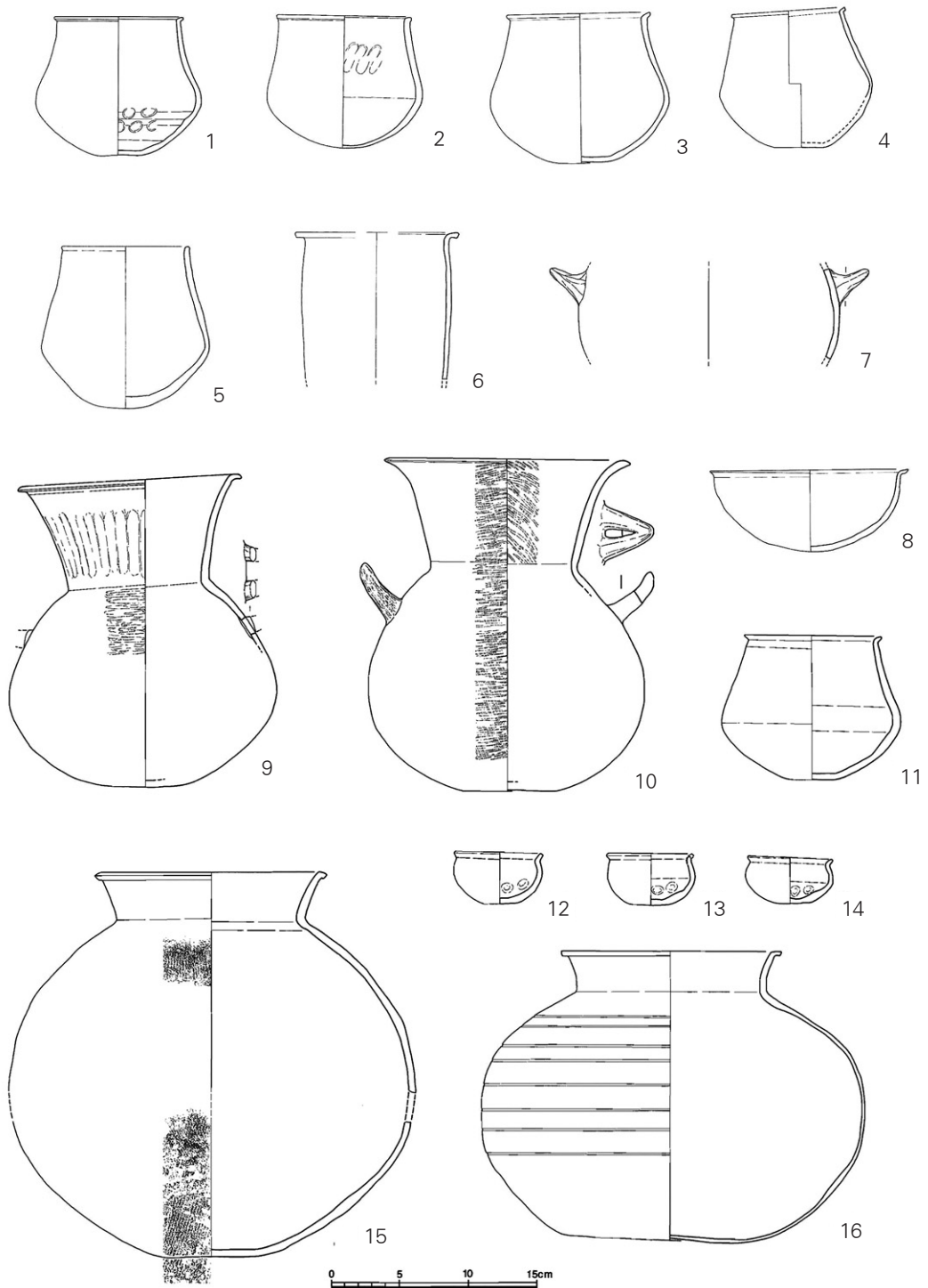
참고문헌

1.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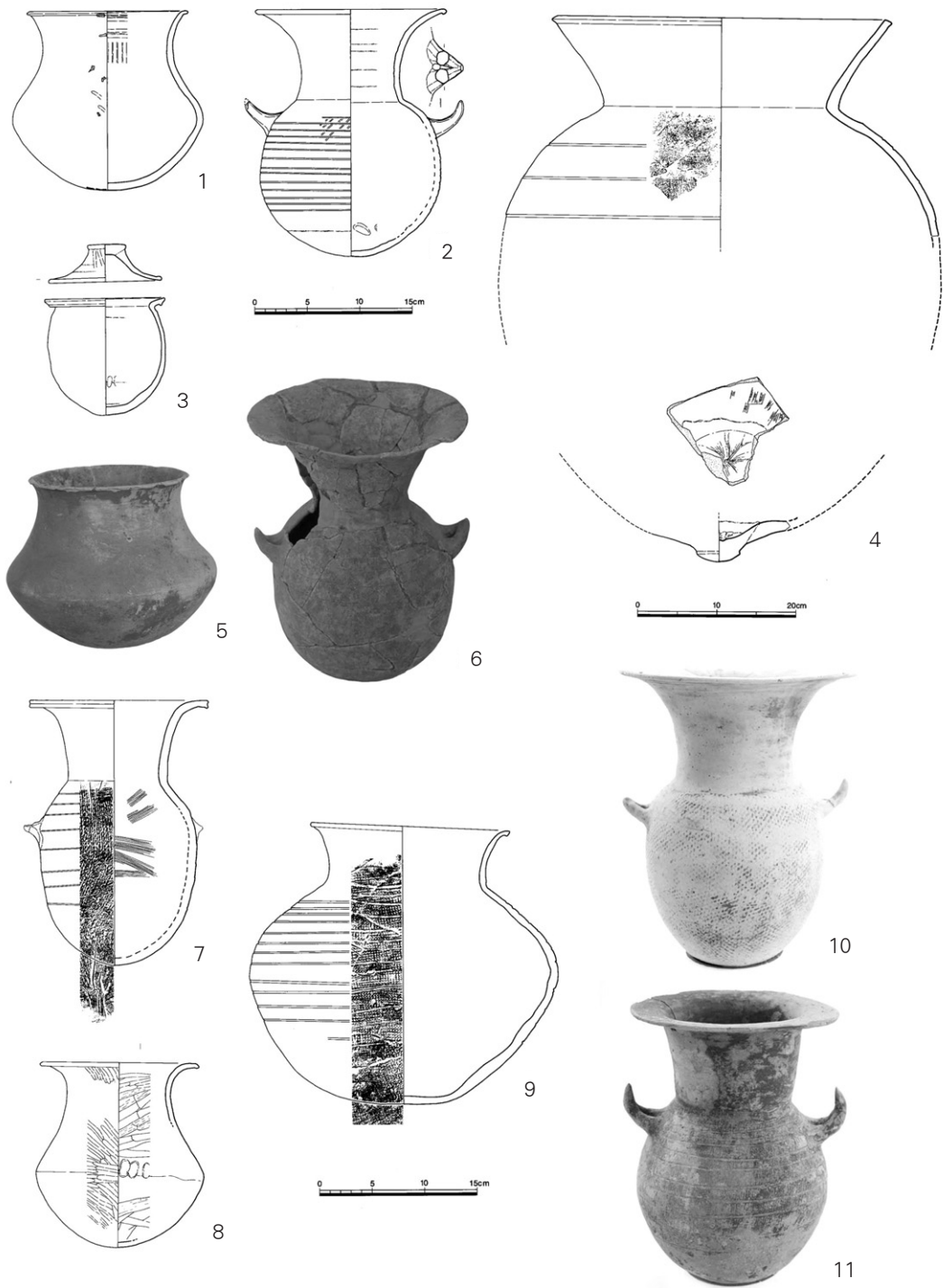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긴급발굴조사보고서Ⅲ)』, 학술연구총서23.
- 국립경주박물관, 2000, 『옥성리고분군Ⅰ~Ⅲ』.
- _____, 2000, 『경주 조양동유적Ⅰ』.
- _____, 2002, 『경주황성동고분군Ⅱ-513·545번지』.
- _____, 2003, 『경주 조양동유적Ⅱ』.
- 경주대학교박물관, 2003, 『경주황성동고분군Ⅲ』.
-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경주황성동고분군』.
- 영남문화재연구원, 1998, 『포항옥성리고분군Ⅰ·Ⅱ-나지구』.
- _____, 2001, 『경주 사라리유적Ⅱ』.
- _____, 2006, 『경주 덕천리유적 발굴조사Ⅱ』 현장설명회자료집.
- _____, 2007, 『경주 사라리유적Ⅲ』.
- 이건무·김홍주, 1985, 「경주황성동유적발굴조사보고」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17책,
국립중앙박물관, 63~102쪽.
- 부산대학교박물관, 1997, 『울산 하대유적-고분Ⅰ』.
- _____, 1998, 『울산 하대유적-고분Ⅱ』.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경주황성동유적Ⅰ』.
- _____, 2005, 『경주황성동유적Ⅱ~Ⅳ』.

2.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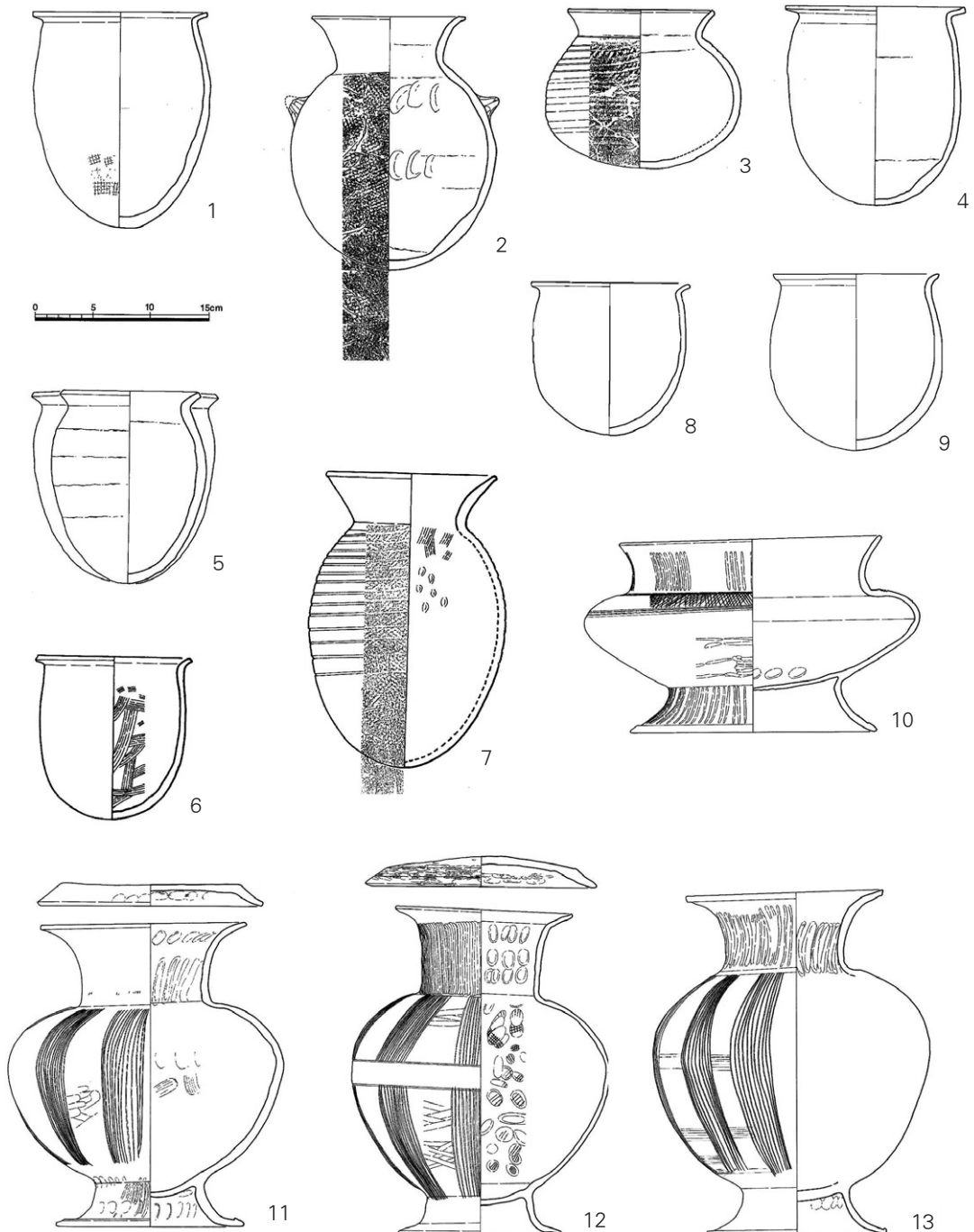
- 권지영, 2006, 「경주지역 와질토기 편년 검토」 『석헌정정원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 안재호, 1994, 「三韓時代 後期 瓦質土器의 編年」 『영남고고학』14.
- _____, 1995, 「慶州隍城洞 古墳群에 대하여」 『신라문화』제12집.
- _____,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 이성주, 1999, 「弁·辰韓地域墳墓 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 『영남고고학』24.
- 이재현, 1994, 「영남지역 목곽묘의 구조」 『영남고고학』15.
- _____,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史學科博士學位論文.
- 이재홍, 2001, 「木棺系木槨墓의 등장과 배경」 『영남문화재연구』14.
- _____, 2006, 「慶州地域 木槨墓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임동재, 2005, 『三韓時代 慶州隍城洞遺蹟의 性格에 對한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최경규, 2004, 『1-3世紀 慶州 隍城洞集團에 對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최종규, 1995, 『三韓 考古學 研究』, 서경문화사.
- 황창한, 2002, 「考察」 『隍城洞古墳群』,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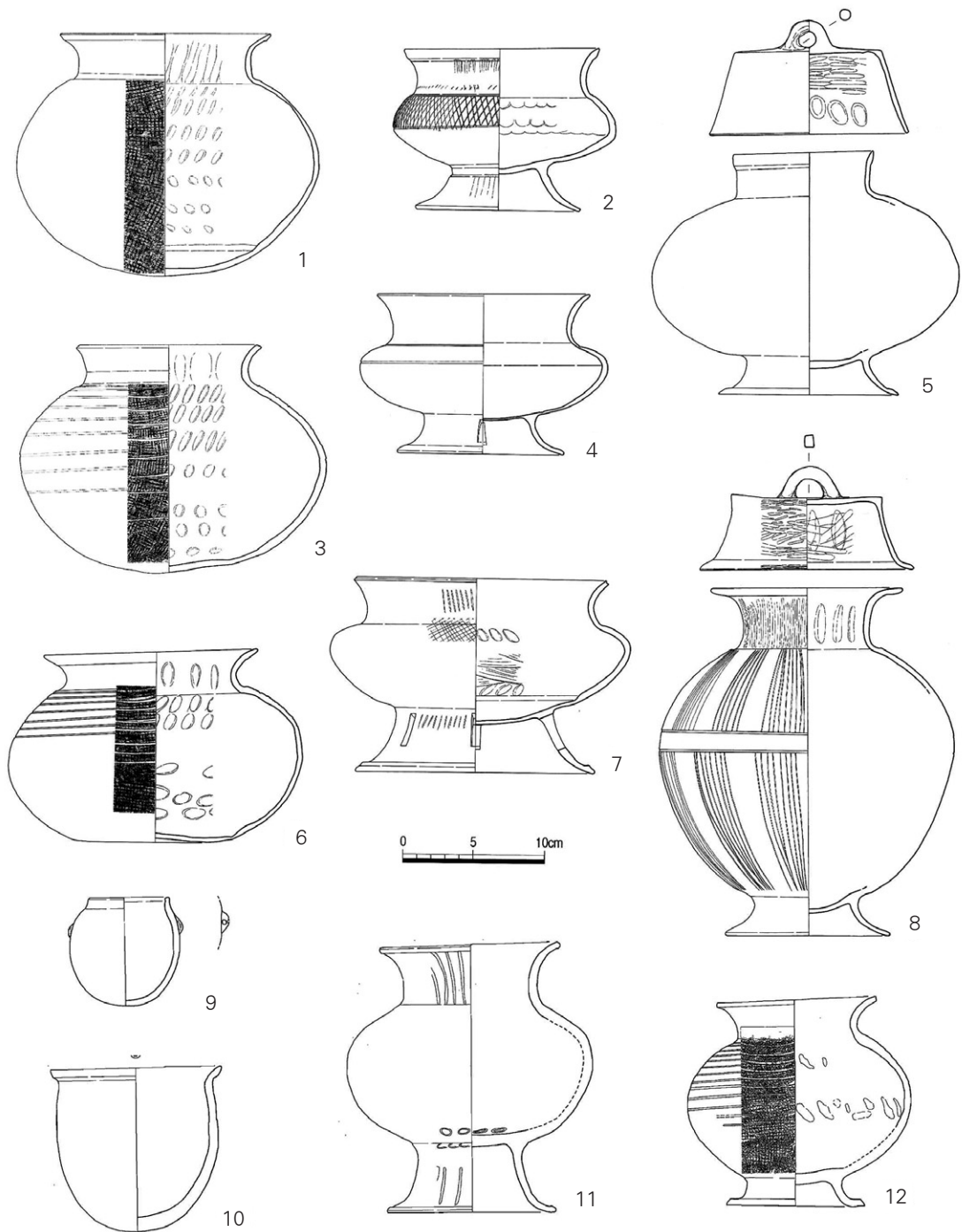
〈도면 1〉 I-1단계 출토유물(1: 강변로 목관묘2호, 2: 강변로 목관묘3호, 3: I-다-8 호주거지, 4~8: II-다-5호 주거지, 9~16: 조양동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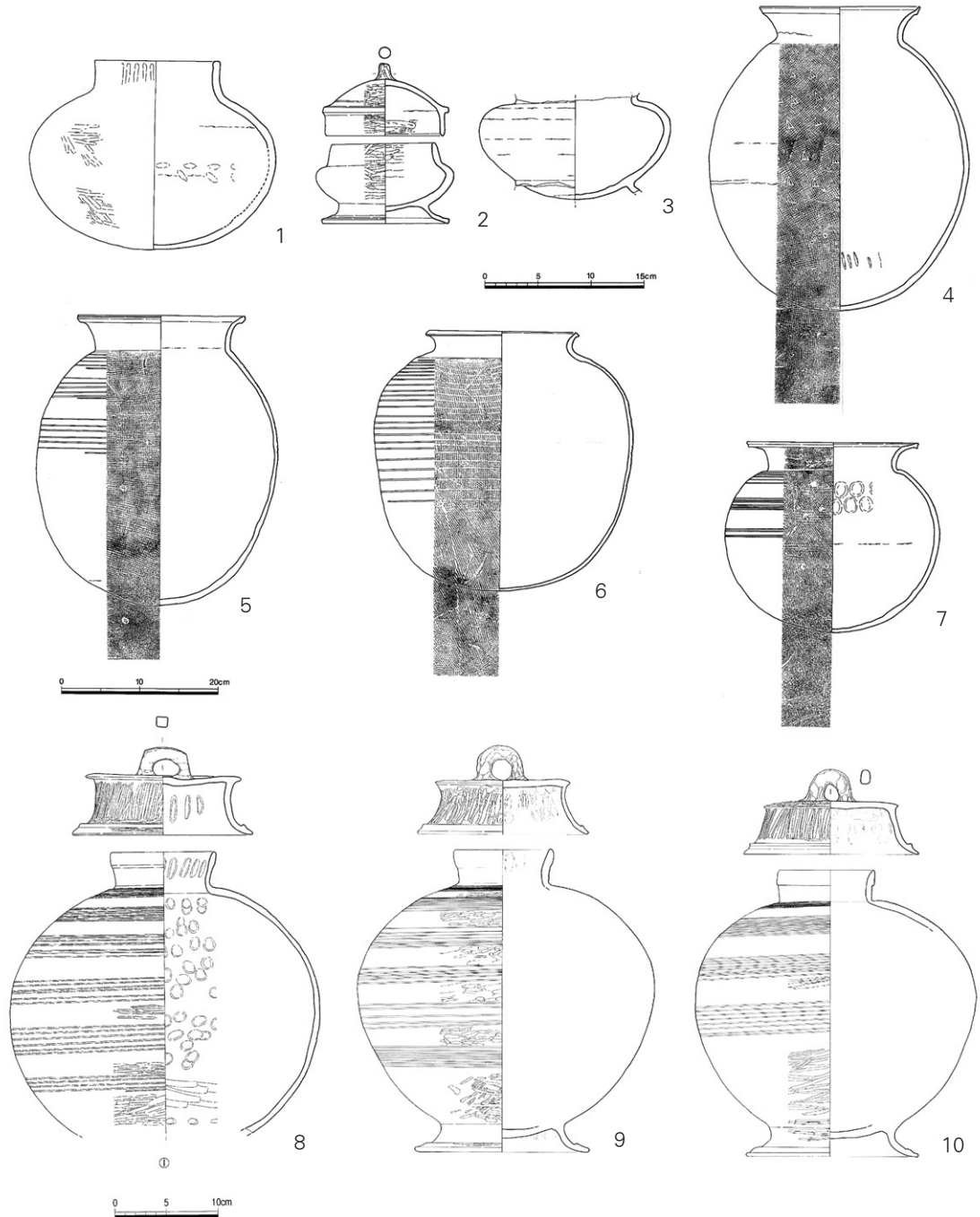
〈도면 2〉 I-2 · I-3단계 출토유물 (1~4: 사라리 130호, 5 · 6: 575번지 2호목관묘, 7~9: 사라리 78호, 10: 575번지 11호목관묘, 11: 575번지 9호목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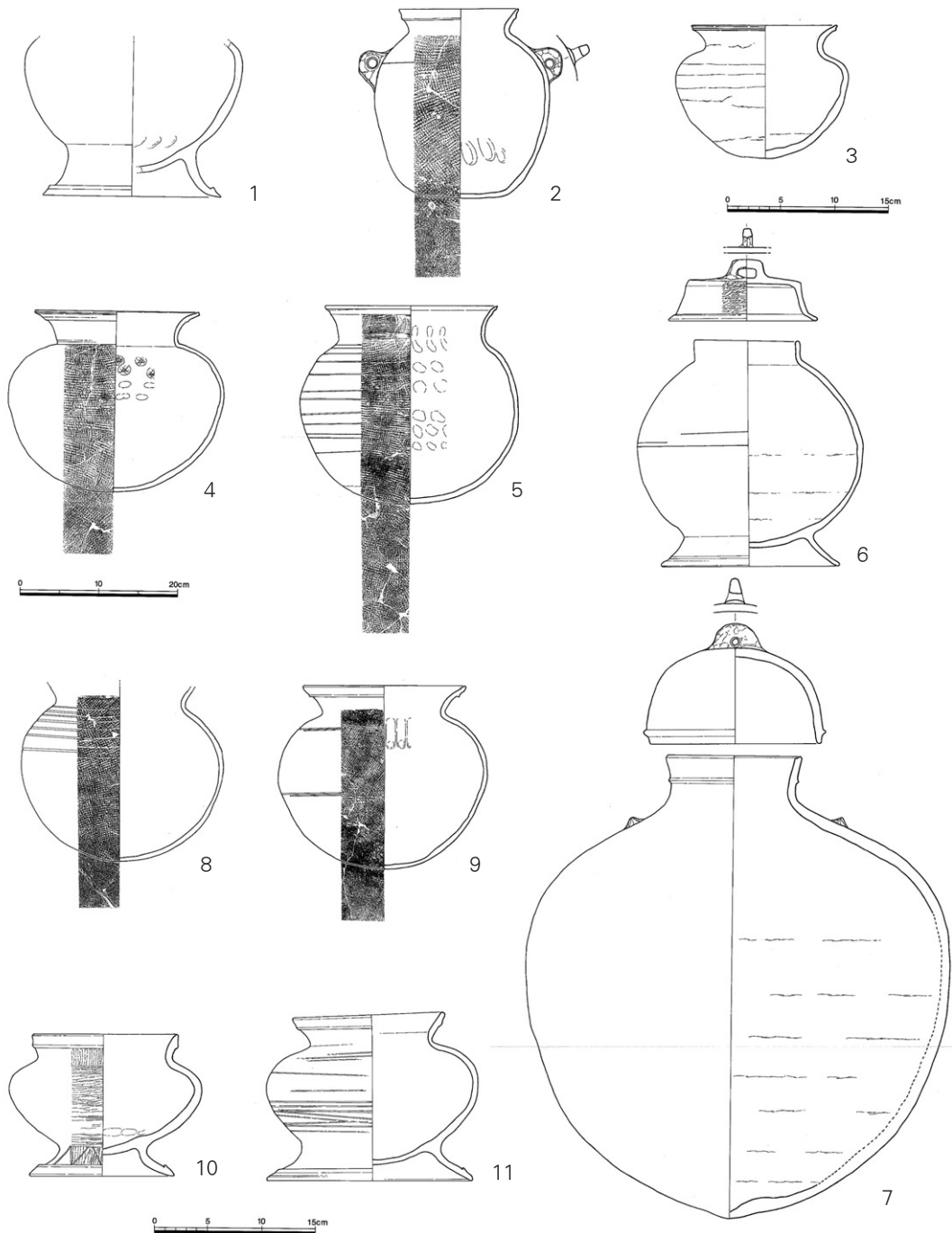
〈도면 3〉 Ⅱ-1·Ⅱ-2단계 출토유물(1·2: 545번지 31호, 3~5: 545번지 68호, 6·7: 545번지 70호, 8: 545번지 2호, 9: 545번지 43호, 10~13: 강변로 1호목곽묘)



〈도면 4〉Ⅱ-3단계 출토유물(1~8: 강변로 3호목곽묘, 9~12: 545번지 40호)



〈도면 5〉 Ⅲ-1단계 출토유물(1~7: 545번지 33호, 8~10: 강변로 19호목곽묘)



〈도면 6〉 Ⅲ-2단계 출토유물(1~7: 545번지 22호, 8~11: 545번지 29호)

지정토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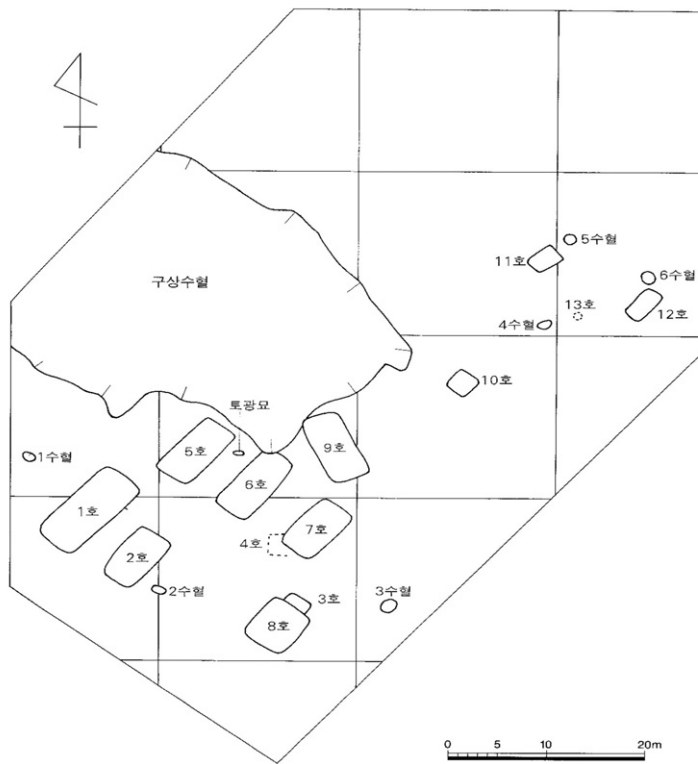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차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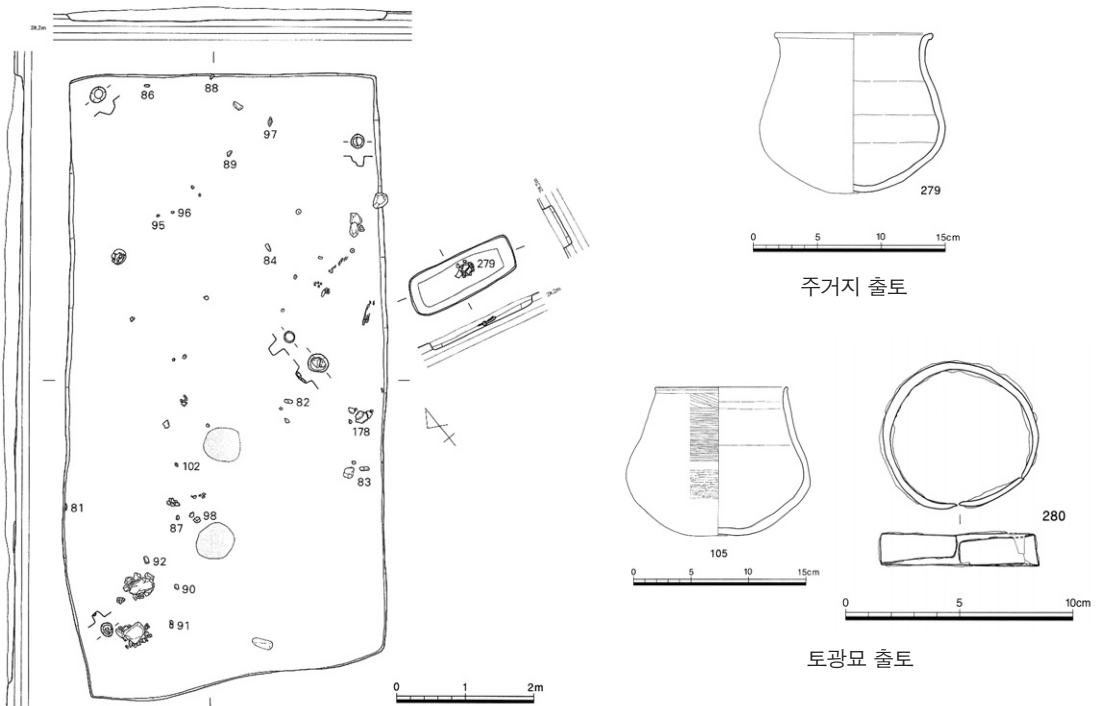
경주 황성동유적은 경주지역에서 가장 조밀하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중 하나로, 마을과 분묘 그리고 생산유적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유적이다. 유적의 존속 시기는 사료에서 고대국가인 신라로 사회구조가 발전해 나가던 삼한시대부터 통일기로 신라의 역사가 본 유적 내에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발표자는 경주 황성동유적 내 분묘유적에 대해서 개별 단계를 구분하고 분묘의 성격을 규정지우면서, 유적의 성격을 “복수의 취락이 결합하여 대규모 공동묘역을 조성한 것”(이현혜 2008)이란 의견을 따르고 있다. 또한 본 발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수 취락의 존재를 상정하고 황성동고분군 내에서 보이는 묘역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 “사로국내 읍락의 통합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자는 단일 유적에 대해서 통시적인 견해를 밝힌 발표자의 노고와 개진한 의견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을 갖게 되거나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성동유적을 구성하는 취락이나 분묘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발표자의 의견 중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의 분기 중 목관묘 단계(Ⅰ기)에 속하는 분묘를 살펴보면 강변로 도로구간과 황성동 ‘라’ 지구 목관묘, 황성동 535번지 목관묘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 목관묘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취락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서 구분된다. 남쪽의 경우 발표자의 Ⅰ-1기에 속하는 분묘가 중심을 이루며 그 분포양상으로 볼 때, 현 계림고등학교 부지일대를 포함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의 경우 발표자의 Ⅰ-2기와 Ⅰ-3기에 속하는 분묘들로 황성동 545번지, 575번지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발표자가 분묘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의 존재를 기준할 때, 황성동 575번지가 중심인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황성동 545번지에서도 동 유물의 존재가 확인(경주대학교 조사 71호 불명유구)되며, Ⅰ-2기와 Ⅰ-3기에 속하는 원형주거지(‘다’ 지구)에서 출토된 주머니호는 이 시기의 분묘들과 연결된다. 따라서 황성동 Ⅰ기의 분묘에서 확인되는 묘역의 변화는 취락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단일취락 내에서 이러한 묘역의 이동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특히 묘역의 이동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는데 발표자의 의견처럼 ‘황성동 집단의 성격과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지, 그렇다면 Ⅰ기에 속하는 분묘군들 사이에서 이러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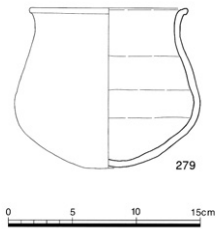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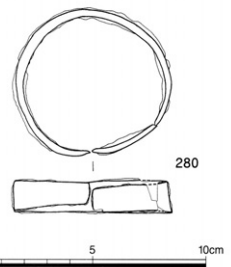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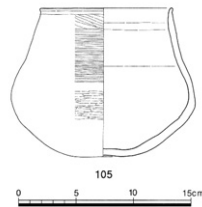
〈도면 1〉Ⅱ-라지구 유구배치도



〈도면 2〉Ⅱ-라-5호 주거지와 토광묘



주거지 출토



토광묘 출토

Ⅱ기 목곽묘의 경우 발표자는 황성동 513번지에서 조사된 Ⅱ-1기 목곽묘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지만, 인접한 575번지에서 확장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이 시기부터 묘역이 2개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분묘가 황성동 545번지와 575번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한다면 분묘의 중복현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황성동 유적의 특성상 이는 기존의 묘역을 피해서 새로운 묘역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황성동 유적의 가장 북쪽지역인 634-1번지에서 남쪽으로 Ⅱ-1기의 묘역이 만들어지면서 강변로지역과 황성동 545번지에 2개의 묘역이 존재한 점은 기존 묘역을 피하면서 새롭게 묘역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발표자는 복수의 취락을 상정하고 있는데, 강변로지역과 황성동 545번지의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만약 대형묘의 존재나 묘광의 깊이 차이를 기준으로 분묘를 구분하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복수의 취락 존재를 상정했다면 황성동 유적의 구지형을 너무 평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Ⅱ기 분묘군 사이에서 복수 취락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발표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목곽묘 단계인 Ⅲ기에 들어서면서 분묘의 계층화가 나타나며 소위 경주형목곽묘(동혈주부곽식목곽묘)와 이혈주부곽식목곽묘가 출현하게 된다. Ⅲ기의 분묘군 역시 강변로지역과 황성동 545번지, 575번지 두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외에도 2기의 장방형 목곽묘가 나란하게 병렬식으로 배치된 분묘 등 다양한 목곽묘가 확인된다. 발표자는 목곽묘의 부장품과 철모의 대량 매납, 갑주의 부장 유무를 근거로 분묘 축조집단의 위상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경주 외곽의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유력자의 분묘가 황성동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은 동 유적이 이미 사로국의 정치체제 안에 포함되어 하나의 사회구성체로 존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취락의 묘역 안에 특출한 대형 분묘를 조성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황성동 유적의 성격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황성동 유적은 철기제작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적과 공인들로 이루어진 취락으로 분묘의 규모로 볼 때, 발표자의 Ⅱ기에 잠시 유력 개인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이후, 기존 사로국 정치체제에 편입되면서 낮아진 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집단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된다. 그리고 단일 취락 내에서도 복수의 묘역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취락 내부의 성장에 따라서 분묘 피장자간의 묘역 구분으로 인식된다. 결국 묘역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지만 황성동 유적처럼 상하간의 위계가 구분되지 않는 채 분묘가 혼재된 점은 오히려 취락 내 개별 집단의 묘역이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결국 분묘의 위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혼재된 모습은 황성동 유적이 보다 상위에 위치한 정치체(국가)에 의해서 통제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지정토론 2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토론문

최경규*

영남지역의 원삼국시대 취락유적 중 대부분이 발굴조사되어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 황성동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황성동유적은 잘 알려진 것처럼, 1~3세기대의 복합유적으로 주거, 분묘, 생산유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조영된 특수취락유적이다. 따라서 황성동유적의 성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상기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본 발표회의 취지도 개별 요소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황성동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사회상을 유추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의 취락유적은 청동기시대와 비교해 볼 때, 전문적인 생산·방어·교역 등 다양한 특수기능유적으로의 분화·발달로 설명될 수 있는데, 황성동유적은 철을 생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제철장인들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¹⁾ 결과적으로 주거지의 성격 및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철공정과 연계해서 검토해야만 할 것이며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가 주거지의 구조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원삼국시대 주거유적의 연구진행은 주거의 형태와 주거 내의 시설물을 분석하여 이를 형식분류 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간 비교를 통해 당시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을 논하고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연구의 선상에서 유적을 분석하여 황성동 취락의 성격에 접근하고 있는데 논지 전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황성동유적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검토하고 분묘 출토품과 대비해 3단계로 단계설정 한 후,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을 평면형태, 면적, 노시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황성동유적의 주거지는 본문의 <표 3>과 같이 3단계로 변화된다고 하고, 2·3단계의 주거지군과 동시기 유적인 양산 평산리, 경산 임당동, 포항 호동 유적과 비교·검토하여 황성동 주거지군의 변화양상이 당시 영남지역 주거지의 변화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황성동 취락의 성격을 1단계 : 생산활동과 주거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주거형태, 2단계 : 전용주거형태, 3단계 : 전용주거형태(?)²⁾로 파악하고, 황성동유적 취락의 성격을 철생산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1) 李盛周, 2009, 「原三國·三國時代 嶺南地域 住居와 聚落研究의 課題와 方法」 『嶺南地方 原三國·三國時代 住居와 聚落』1, 第18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2) 본문에서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2단계의 주거형태와 유사한 점과 수혈주거의 지상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때, 발표자는 전용주거형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 관련된 특수기능취락으로 철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집단 거주지로 추정하였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는 바이며, 발표문을 읽으면서 의문나는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토론자도 황성동유적을 검토하면서 의문을 가졌음에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다. 황성동유적의 원삼국시대 주거지간의 중복양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뚜렷하게 주거역이 분묘역과 구분되어 조영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구자간의 편년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 기원후 3세기까지의 약 300년간 조영된 취락으로 볼 수 있으며, 발표자의 '3단계' 단계설정에 의하면, 각 단계별로 100년 정도는 주거(집)로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황성동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수는 45동 정도에 불과하며, 면적 또한 24㎡의 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황성동유적에서 조사된 분묘유적이 1단계와 대응되는 목관묘(목관계목곽묘)가 30여기, 2~3단계와 대응되는 목곽묘가 400여기³⁾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주거지의 수는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본문에서 비교한 포항 호동 유적의 경우는 3~5세기에 해당되는 주거지 281기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양상과 비교했을 때, 과연 45동의 주거지가 300년간의 제철장인의 상시주거로서 충족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두 번째는 황성동주거지의 면적을 크게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도면 1의 도수분포도를 보면, 초대형주거지는 나지구에 1기만 존재하며, 대형의 가장 큰 주거지와는 4㎡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통 주거지의 1인당 평균소요 면적을 5㎡(1.6평)로 보는 견해를 따른다면 초대형과 대형주거지의 구분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발표자는 전고⁴⁾에서 영남지역 주거지의 면적이 50㎡ 이상되는 주거지를 초대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영남지역 주거지에 있어서 초대형주거지가 가지는 기능적 혹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보완 설명을 듣고 싶다.

세 번째는 황성동유적의 주거지가 단계별로 이동해 가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1단계 주거역에서 2단계 주거역으로 이동할 시에 1단계 주거지는 폐기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단야공방으로서의 기능으로 계속 영위되는 것인지? 2단계에 원형과 방형주거지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가 단계내의 시기적인 차이인지 기능적인 차이인지를 영남지역 주거지와 비교를 통한 발표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네 번째는 최근 황성동유적과 동일한 특수기능취락으로 볼 수 있는 김해지역 최초의 제철유적

3) 경주 황성동 590번지에서 확인된 목곽묘를 포함한 수이다.

4) 金羅英, 2007, 「嶺南地域 三韓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 「김해 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내 문화재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인 여래리유적⁵⁾과 국내 최초의 삼국시대 산성 축조 채석장유적인 진해 자은3지구 유적⁶⁾에서 고상건물이 다수 조사되었다. 특히 여래리유적은 황성동유적과 동일한 제철유적으로 고상건물지, 지상건물지와 다양한 수혈, 목탄요, 도로 등 생활유구 및 생산운반시설까지 조사되어 매우 주목할 만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성동유적에서는 고상건물로 추정되는 I-다-7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고상건물은 확인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다양한 제철공정을 보이며, 장기간 조영된 황성동유적에서 유독 수혈주거지만 축조된 이유와 원삼국~삼국시대의 취락유적에서 주로 조영된 고상건물과 수혈주거의 기능적 차이에 대해 발표자가 갖고 계신 견해를 듣고 싶다.

토론자의 주거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지로 두서없는 질문이 되고 말았다. 금번 토론이 앞으로의 학문적 증진의 계기로 삼고자 하며, 이상으로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한다.

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진해 자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집. 진해 자은동유적에서 삼국시대의 구산성(신라성)의 축조와 관련된 채석장과 당시 동원된 부역인들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상건물이 30동 조사되었다. 시기는 대략 6세기로 편년되며, 고상건물은 4개의 군을 이루며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채석작업과 관련된 도구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군(A)과 중앙에 공지를 두고 주거용의 고상건물이 원형으로 배치된 군(B), 등고선과 나란하게 열상 배치된 주거용의 고상건물군(C), A·B·C군과 좀 떨어져 창고와 주거용의 고상건물이 복합설치된 군(D)으로 이루어져 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하에 공간배치가 이루어진 특수취락으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 좋은 자료라고 판단된다.

지정토론 3

「경주 황성동유적 製鐵遺構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손명조*

慶州 隍城洞遺蹟에는 시기별로 다양한 遺構들이 조사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제철과 관련한 유적의 발굴은 국내 鐵文化研究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며, 또한 토론자도 당시 발굴참여자의 일원으로 개인적으로 제철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조사 당시 製鐵遺構에 대한 지식이 全無한 상태에서 발굴하였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많은 오류를 범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이후 보다 충실한 조사가 진행된 계기가 되었고 그나마 그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황성동 제철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진행되지 않았고 또한 개별적인 연구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고고학적 자료를 통한 고대 제철기술의 복원이란 大命題에 맞는 연구방법과 自然科學的인 分析和 연계된 학제간의 연구 역시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자가 정리한 황성동유적에 대한 발표문은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이며 향후 우리가 풀어가야 할 내용으로 본다. 발표문 중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간단히 질문하고자 한다.

1. 먼저 제철로의 類型分析을 하였는데 유형분류방법과 用語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엄연히 제철유구안에 각종의 爐가 있으며 그것이 생산되는 내용에 따라 제련로, 용해로, 단야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제철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분류를 혼돈시키는 결과만 가져오며, 또한 이것이 각 제철공정이나 기술상 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제철로를 유형분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오히려 각 공정의 爐는 분리하여 개별적인 유형분석이나 구조분석, 금속학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爐의 분류에서 초강로를 하나의 공정으로 보고 있는데 초강로의 원의미는 철광석을 녹이는 제련과정에서 별도의 정련과정 없이 바로 鋼을 만들어내는 中國漢代의 기술인데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또한 국내에서 확인된 제련로 중 이러한 초강로로 볼 수 있는 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초강로라고 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정련로와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 국립제주박물관

3. 분류내용에 단야공방지에서 軟鐵의 소재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이 시기(단계분류상 2단계, 시기적으로 3세기 중반까지) 제련공정에서 銑鐵이 아닌 塊鍊鐵을 생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한반도 남부지방의 초기제철을 괴련철 제련로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4. 황성동 제철유구들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형성되었고 操業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作業空間을 구획하고 있다. 발표자가 시도한 공간분석의 내용은 6개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 흐름이나 조업내용상의 구분이 애매하다. 특히 구분된 6개 공간내에서도 중복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5. 生産遺蹟의 특징은 단순한 하나의 조업만으로 형성되지 않고 대개의 경우 관련조업이 연계되어 형성되며, 특히 제철관련유구는 황성동 같은 조직적인 집단체계는 동시기에 다양한 조업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이 타지역의 小規模 生産과는 구분되는 특징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발표자는 황성동 조업시기를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 구분은 곧 황성동제철유적에서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조업별로 鍛造→溶解라는 조업공정이 시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인데 특히 2단계와 3단계를 구분지을 수 있는 標式遺物이나 遺構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이는 3단계에서는 단야공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과연 공정상으로 단계구분이 가능한가? 또한 3단계와 4단계는 조업내용도 동일한데 과연 단계를 구분할 만큼의 生産力의 차이나 유구의 集積度 등이 보이는 것인지, 어떤 차이에서 단계를 구분하였는지 시기 차이를 볼 수 있는 관련유물이나 유구에 대해 알고 싶다.

끝으로 본 발표내용을 보면 아직 유구나 유물에 대한 개별연구가 깊이 진행되지 않았고 시기 검토, 분석내용에 대한 검토 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 각 분석과 편년설정에 아무런 비판이 없이 받아들여 상호 연계성의 부족과 자의적인 단계설정이 이루어져 있다. 오히려 이보다는 단위적인 분석을 보다 충실히 하고 각각의 유구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분석,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4

「원삼국~삼국시대 철기 부장양상으로 본 황성동 집단의 성격」에 대한 토론문

김도현*

발표자의 논고는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를 통해 황성동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내용과 논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표자는 우선 황성동유적 출토 철기 가운데 대표적인 기종(철검과 철도, 철모, 철촉, 철부, 표비 등)의 변화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영남지방 철기문화를 5단계로 구분한 다음, 황성동유적의 철기문화 변화상을 크게 2단계(공유단계와 확산단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철기문화의 변화상에 기초하여 황성동 집단이 3단계(2세기 중엽~3세기 전엽)까지는 신라권역 내에서 다른 유적 축조 집단과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4단계(3세기 중엽~4세기 전엽)부터는 상대적으로 위계가 약해졌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단야구의 출토사례 등을 근거로 황성동 집단이 신라의 상위 정치체에 속했던 철기생산(주조품 중심) 전문집단으로 추정하였다.

발표자의 논지는 큰 틀에서 보면 대체로 공감할 수 있고 완성된 논문이 아니라 발표문이라는 점에서 지엽적인 질문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의 책무가 있고 추후 논문 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도에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몇 가지 의문점에 관해 질문하고자 한다. 혹, 토론자의 이해력 부족과 짧은 지식 때문에 발표자의 의중을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또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편의상 주를 생략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양해를 바란다.

첫 번째는 영남지방 철기문화의 단계 구분에 관한 것으로, 발표문에 기술된 내용을 통해 본기의 기준을 파악하기는 다소 곤란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발표자는 2단계(기원전 1세기 중엽 ~ 2세기 전엽)의 특징으로 ①재지에서 주조철부의 생산¹⁾, ②이단관식(이단병식) 철모가 출현하여 유행, ③궐수문 표비의 출현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단관식 철모와 궐수문 표비는 사라리 130호 출토품(1세기 후엽 또는 2세기 전엽)이 가장 빠른 시기로 편년된다.²⁾ 따라서 이단관식

* 동양대학교 문화재발굴보존학과

1) 영남지방에서 주조철부를 생산한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형부의 출현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2) 이단관식 철모에 대해서는 禹炳喆, 2008, 「鐵劍과 鐵鏃로 본 新羅, 加耶 그리고 倭」 『嶺南考古學』47, 119쪽, 궐수문 표비에 관해서는 李尙律, 2006, 「三韓時代 鐵器의 展開 -南部地方을 中心으로」 『石軒 鄭澄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 514~519쪽 및 김두철, 2009, 「변진한의 철기문화」 『考古學誌』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74쪽의 도면 16 참조.

철모와 꺾수문 표비의 출현을 2단계의 특징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양자의 출현이 중요한 변화였다면 오히려 1세기 후엽 또는 2세기 전엽을 획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영남지방 철기문화의 단계 구분의 기준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길 바란다.

또한, 발표자는 별고에서 철촉과 철모의 변화상을 6단계(I 단계: BC 1C 전엽~AD 2C 중엽, II 단계: 2C 후엽~3C 전엽, III 단계: 3C 중엽~후엽, IV 단계: 4C 전엽~중엽, V 단계: 4C 후엽~5C 전엽, VI 단계: 5C 중엽~6C 전엽)로 설정한 바 있다.³⁾ 그런데 이전에 제시한 단계와 발표문에 제시된 영남지방 철기문화의 단계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부탁한다.

두 번째는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단계별 특징에 대한 것이다. 발표자는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단계별 특징을 ‘철기문화 공유 단계’와 ‘철기문화 확산 단계’로 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 기술된 내용은 영남지방 철기문화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목과 내용이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토론자가 이해한 바로는 3단계까지는 황성동유적 철기문화가 대체로 영남지방의 철기문화의 흐름과 유사하지만, 4단계부터 신라권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철기 부장양상의 지역성이 황성동유적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다. 다시 말해 발표자는 4~5단계에 꺾수형 철기와 위세품적 성격을 지닌 철제품의 부장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5단계에 해당하는 40호 적석목곽묘(한)에서 1점이지만 삼엽문환두대도가 출토되었고 17호·33호·39호 적석목곽묘(한)에 표비와 행엽, 운주, 등자 등의 마구류가 부장되었다. 따라서 황성동유적에서 위세품적 성격을 지닌 철제품의 부장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꺾수문 철기가 2~3세기에 집중적으로 부장된 것⁴⁾으로 알려졌으므로 황성동유적에서 꺾수문 철기의 부장이 확인되지 않는 현상을 4~5단계(3세기 중엽~5세기)의 특징으로 파악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황성동유적 철기문화의 특징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한다.

세 번째는 정치체의 위계에 관한 것으로 발표자는 꺾수형 표비의 부장양상을 통해 3단계에 황성동 집단의 위계가 영남지방의 다른 집단(포항 옥성리, 경주 조양동, 사라리, 울산 중산리, 하대, 김해 양동리)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꺾수형 표비가 집단의 위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발표자의 견해대로 꺾수형 표비에 기초하여 사라리 130호와 황성동 1호(한) 목곽묘, 하대 43호 등을 동일한 위계로 분류한다면, 개개 유구에서 확인되는 부장품의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3) 禹炳喆, 2008, 「앞의 글」, 114~120쪽.

4) 우병철·김민철, 2009, 「꺾수문철기로 본 진·변한 정치체의 상호작용」 『제4회 철문화연구회 학술 세미나 발표 요지』, 122~123쪽.

이와 관련하여 하나 더 질문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켈수형 표비의 부장양상에 기초하여 2~3 단계로 편년되는 황성동 1·3⁵⁾·46호 목곽묘(한)와 포항 옥성리 나113호·115호, 경주 조양동 63호, 사라리 130호, 울산 중산리 Ⅶ-1호·Ⅶ-2호, 하대 43호·44호, 김해 양동리 162호 등의 대등한 위계로 분류하였다. 또한, 4단계의 황성동유적에서는 경주 구어리 1호·3호와 구정동 2호·3호에 비견할 수 있는 분묘가 없으므로 다른 집단에 종속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황성동유적에서 4단계로 편년되는 분묘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22호(동)에서 확인되는 부장품은 발표자의 지적처럼 구어리 1호·3호 및 구정동 2호·3호와 는 일정한 격차가 있다. 그런데 황성동유적 22호(동)와 구정동 2호, 황성동 1호 목곽묘(한)와 하대 43호를 비교하면 발표자의 견해에 다소 의문이 생긴다. 즉, 구정동 2호는 황성동 22호(동)보다 부장품은 다소 많지만, 묘광면적은 오히려 작다. 그리고 하대 43호는 황성동 1호 목곽(한)보다 부장품도 많으면서 묘광면적도 넓다. 개개 분묘의 위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대 43호와 황성동 1호 목곽묘(한)를 동등한 위계로 분류하면서 황성동 22호(동)와 구정동 2호를 다른 위계로 구분하는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묘의 위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

유구	묘광면적	부장품	
		철기	토기
황성동 1호 목곽(한)	14.0m ²	18점(환두대도1, 철모7, 표비1, 곡도1, 검1, 단조철부5, 이형1)	4점(유개대부장경호, 노형토기 등)
하대 43호	25.1m ²	31점(환두대도1, 철검4, 철모4, 표비1, 곡도1, 철창1, 철검1, 철착1, 철촉8, 쇠스랑1, 쇠삽날1, 파비1, 단조철부3, 주조철부2, 이형1)	6점(대부광구호, 대호 등)
황성동 22호(동)	14.1m ²	총 17점(환두대도1, 철모4, 철촉6, 파비1, 검1, 단조철부1, 도자1, 기타2)	8점(유개대호, 단경호, 대호 등)
구정동 2호	10.7m ²	총 37점(철모27, 철촉6, 철검1, 유자이기1, 곡도자1, 도자1)	4점(단경호, 통형기대, 양뉴부대호)

네 번째는 사실 확인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자는 4단계 이후 황성동유적에서 위세품적 성격이 강한 유물로 알려진 관과 환두대도(삼엽문, 삼루문, 용봉문) 등의 유물은 거의 출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5세기대로 편년되는 40호 적석목곽묘(한)에서 1점의 삼엽문환두대도가 출토되었고 34호 적석목곽묘(한)에서는 금동관 1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4단계 이후 황성동유적에서 위세품적 성격의 유물이 부장된 사례가 없다는 내용은 오류가 아닐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을 부탁한다.

다섯 번째는 황성동 집단의 성격에 관련된 자료의 해석에 대한 것으로 발표자는 단야구의 출토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황성동 집단은 주조품 중심의 철기 생산 전문집단으로 파악하였다. 영남지방에서 출토된 단야구의 대부분이 분묘 부장품⁶⁾이므로 황성동유적에서 단야구의 출토사례

5) 발표문에는 2호로 되어 있는데, 3호의 오류로 생각한다.

가 적다는 현상은 부장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황성동유적에서는 용범 등의 주조 관련 유물의 부장사례 역시 확인된 바 없으며 주조철부의 부장사례도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단야구의 부장사례가 적다는 현상을 근거로 황성동 집단이 주조품 중심의 철기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다. 실제로 황성동유적에서 조사된 용해로는 31기, 단야로는 24기⁷⁾로 단야로의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격한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여섯 번째는 황성동 집단의 위계 변화에 관한 것으로, 발표자는 황성동 집단이 3단계까지는 영남지방의 다른 집단과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4단계부터 그 위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발표자의 견해를 수용하면, 2~3세기에 제철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황성동 집단이 점차 쇠퇴하면서 다른 집단의 통제를 받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알고 싶다. 왜냐하면, 당시 제철기술은 첨단 기술이므로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집단이 점차 쇠퇴하였던 현상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철은 기술적인 조건과 함께 노동력을 조직하고 생산을 독점하여 교역할 수 있는 정치권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⁸⁾ 따라서 황성동 집단이 2~3세기에 다른 집단과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영남지방의 어느 정치체보다 강력한 집단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황성동유적 분묘에서 확인되는 양상은 그렇지 않으며 특히 황성동유적의 2~3세기 분묘에서 주조철부의 부장사례가 드물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히려 2~3세기 황성동 집단은 다른 정치체와 동등하였던 것이 아니라 경주의 중심 집단의 통제를 받았던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상으로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한다.

6) 金銀珠, 2006, 「三國時代 鍛冶具 研究 -嶺南地方을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41쪽 참조.

7) 이 수치는 林東在, 2005,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對한 研究」,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8) 李盛周, 1993,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02쪽.

지정토론 5

「경주 황성동 와질토기의 편년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권지영*

황성동유적은 단일유적으로는 드물게 분묘와 주거지, 생산유구 등이 함께 조사되어 당시 사회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이다. 이 때문에 황성동유적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도 많이 축적되었다. 다양한 고고학 자료 가운데 토기는 기본적인 편년축을 설정할 수 있고 주변지역과 비교를 통해 지역성 문제에 접근이 가능한 자료이다. 또한, 생산과 분배를 통해 사회조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동 선생님의 발표문은 토기자료를 통한 또 다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 발표문은 황성동유적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출토양상과 특징을 통해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황성동유적은 총 3단계로 구분되는데, I 단계는 목곽묘와 고식와질토기, II 단계는 방형 목곽묘와 신식와질토기, III 단계는 경주식 세장방형 목곽묘와 신식와질토기·고식도질토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목곽묘와 신식와질토기가 등장하는 II 단계가 되면 전단계인 고식와질토기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 새로운 토기문화인 신식와질토기로의 전환이 다소 더디며 이후 방형·세장방형 목곽묘단계에 본격적으로 신식와질토기와 고식도질토기가 등장한다. 유물 출토양상으로 볼 때, 황성동유적은 주변의 중심집단보다 위계가 낮았던 것으로 보았다. 즉, 황성동유적은 제철생산을 위해 조직된 보수성이 강한 하위 집단에 의해 형성된 유적으로 파악하였다. 대체적으로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토론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1. 본 발표문은 제목처럼 황성동유적의 와질토기를 편년한 뒤 그 특징을 추출해 황성동유적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토기를 통해 단계를 설정한 뒤 황성동유적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황성동유적 와질토기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연구성과에 비추어 보면 지역에 따라 와질토기의 기종구성과 문양의 종류, 기형, 계보 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¹⁾고 하므로 황성동유적 와질토기의 특징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한다.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1) 尹溫植, 2002, 「영남 지방 원삼국시대 土器 「樣式」論의 제기」 『嶺南考古學』31.

2. 단계설정에 관한 내용 중에서 I-1단계와 I-2단계 사이에 일정기간 공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황성동유적 뿐만 아니라 조양동유적의 경우도 이 기간은 공백인 것으로 추정된다.²⁾ 굳이 동일한 기간이 아니라도 경주지역의 목관묘단계는 부분적으로 공백기간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이 조사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경주지역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현상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묻고 싶다.

3. 단계설정에 관한 내용 가운데 II-2·3단계에서 강변로구간과 황성동고분군의 기종구성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한다. 즉, 강변로구간에서는 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가 부장되는 반면, 황성동고분군은 단경호를 중심으로 부장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분석치를 제시할 수 없지만 황성동고분군에 비해 강변로구간에는 비교적 분묘의 규모가 크며 부장유물이 많이 확인된다. 즉, 발표자가 제시한 기종구성의 차이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 위계에 따른 부장양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집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묻고 싶다.

4. 토기의 편년과 특징을 통해 황성동집단의 성격을 규명하였는데, 이는 황성동집단이 토기를 직접 생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다. 우선 실제로 그러한 전제로 출발하였는지 궁금하다. 또한 기존의 연구 성과 중에서 후기와질토기를 기점으로 분묘에는 전업적 생산체계에서 생산된 토기가 부장된다는 견해³⁾가 제시되어 있다. 이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유물은 전업적으로 토기를 생산하는 집단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토기의 생산과 분배의 관점에서 생산을 담당한 집단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묻고 싶다.

5. 마지막으로 논점에서 좀 비켜나간 질문이지만, 마지막 장에서 월성과 덕천리를 중심지구와 지역의 거점지구로 명명하였으며 황성동 집단을 하위 위계로 규정하였다. ‘중심지구’, ‘거점지구’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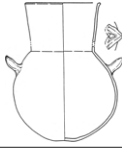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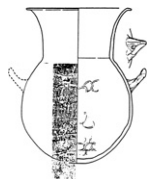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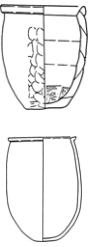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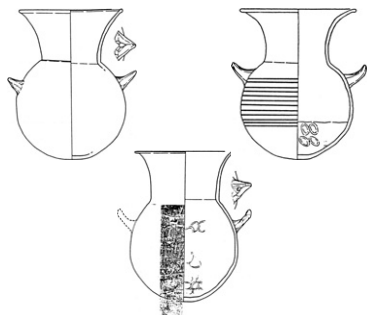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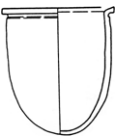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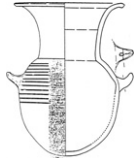
2) 권지영, 2006, 「경주지역 와질토기 편년 검토」 『석헌정정원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3) 李盛周, 1991, 「原三國時代 土器의 類型·分類·編年·土器體系」 『韓國古代史論叢』 2.

황성동 종합토론 참고 자료 1

목관묘 시기의 단계구분

(이성주, 1999, 「진·변한지역 분묘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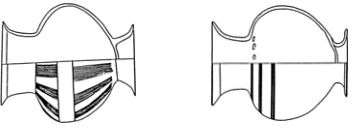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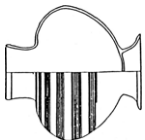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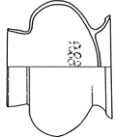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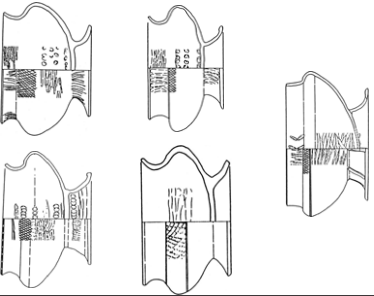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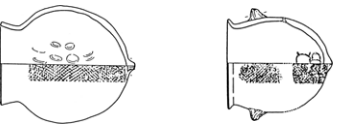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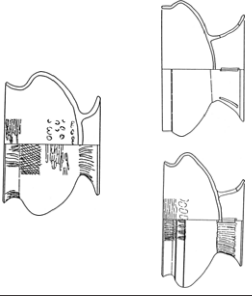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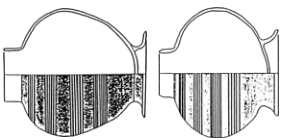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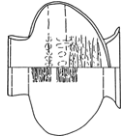
단계	장경호	주머니호	옹형토기	해당유구
I-1단계				다호리 6, 12, 16, 34, 72
I-2단계 (BC 1C 후반)				다호리 15, 18, 28, 35, 57, 58
I-3단계 (AD 1C 전엽)				다호리 20, 24, 25, 26, 38, 51, 57, 59, 61, 62, 63 조양동 38호
I-4단계 (AD 1C 중엽)				다호리 10, 22, 27, 29, 32, 37, 39, 40, 43, 47, 48, 52, 53, 54, 56, 67
I-5단계 (AD 1C 후엽)				다호리 31, 49, 66, 68, 69, 71 사라리 130
I-6단계 (AD 2C 전엽)				다호리 36, 70 양동리 17, 151, 양동리2(문)
I-7단계 (AD 2C 중엽)				다호리 64 대성동 1-13 양동리 55, 99 다운동 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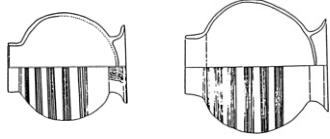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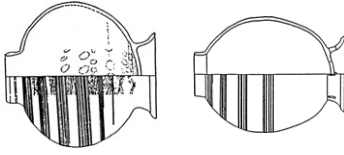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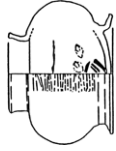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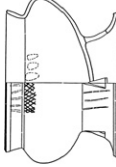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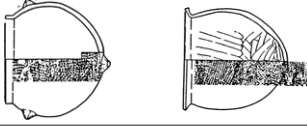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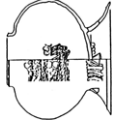
황성동 종합토론 참고 자료 2

목곽묘 시기의 단계구분

(이성주, 1999, 「진·변한지역 분묘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 『영남고학』 24)

단계구분	대부광구호	대부직구호			노형토기	침저웅	해당유구
		대형	중형	소형			
Ⅱ-1 (2C 중엽 ~ 후반)	Ⅱ-1a						양동리 162/다운 동 나-13, 나-15/ 옥성리 46, 60, 115, 130/중산리 Ⅷ-1/옥성리 112
	Ⅱ-1b						하대 1, 43, 44 중산리 Ⅷ-1 옥성리 112
Ⅱ-2 (3C 전엽)	Ⅱ-2a						옥성리 22, 36, 44, 58, 78, 84 하대 17
	Ⅱ-2b						중산리 Ⅷ-90 옥성리 69, 74 하대 23 노포동 3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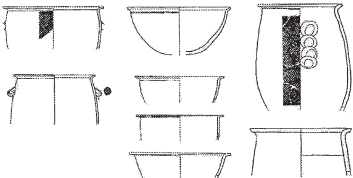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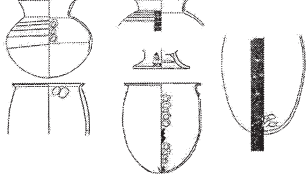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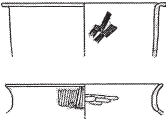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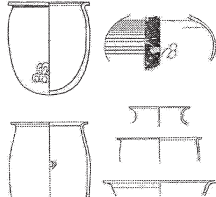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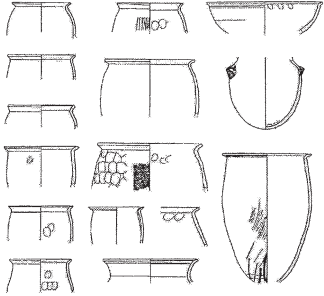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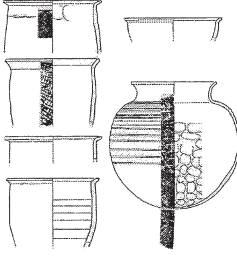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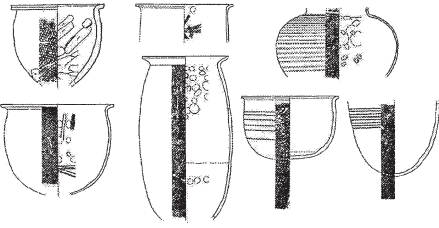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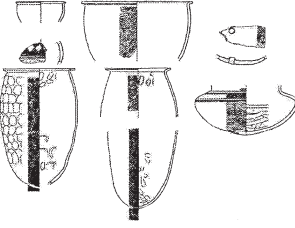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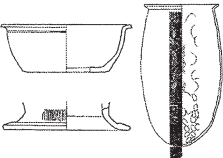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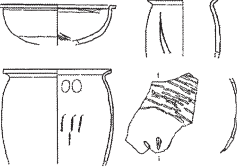
단계구분	대부광구호	대부직구호			노형토기	침저웅	해당유구
		대형	중형	소형			
Ⅱ-3a Ⅱ-3 (3C 중엽)							옥성리 1, 14, 62, 73 중산리 1A-50, 1B-11, 1D-19 하대 2, 41
	Ⅱ-3b						중산리 1C-3 하대 38 노포동 16, 22, 38
Ⅱ-4a Ⅱ-4 (3C 후반)							하대 6 노포동 15, 21 중산리 1D-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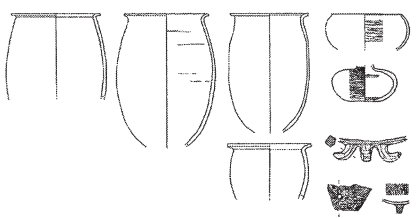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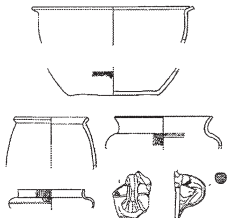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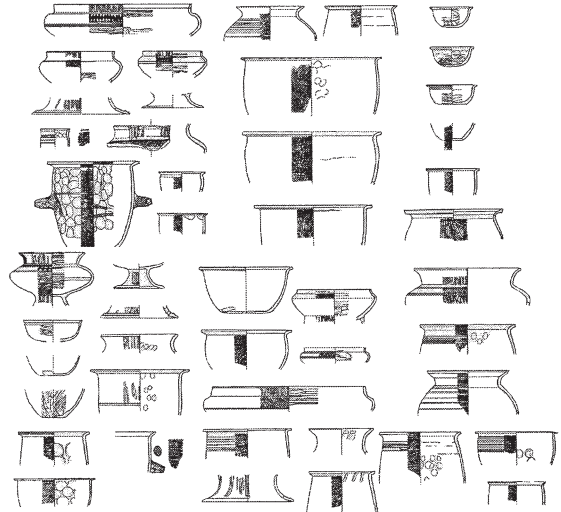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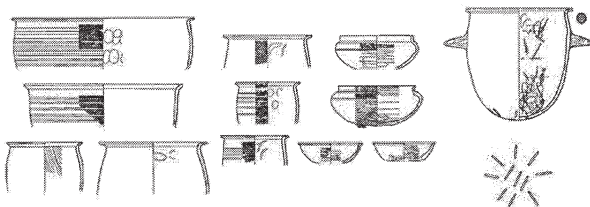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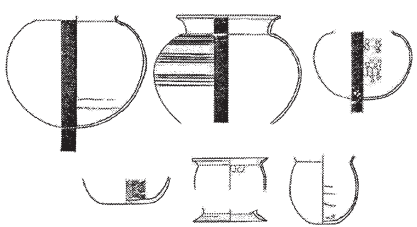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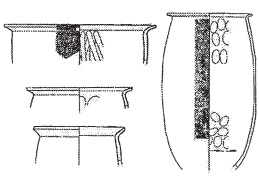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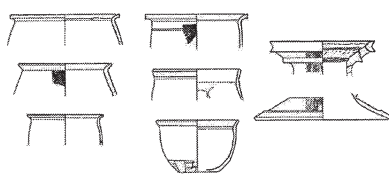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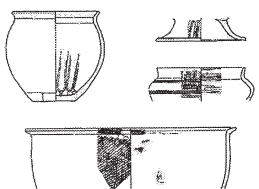
단계구분	대부광구호	대부지구호			노형토기	첨저웅	해당유구
		대형	중형	소형			
Ⅱ-4 (3C 후반)	Ⅱ-4b						노포동 31, 33 옥성리 39, 122
							옥성리 45, 65, 97 중산리 I A-23, I A-78, I A-74 · 75 하대 46 예안리 74, 77, 90, 92, 93, 160
Ⅲ-2							옥성리 17, 29 월성로 가29 중산리 I-D41 예안리 111, 138, 151 칠산동 32
Ⅲ-3							예안리 117 칠산동 27

황성동 종합토론 참고 자료 3

황성동 유적 출토 토기

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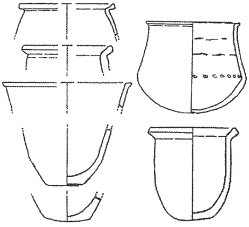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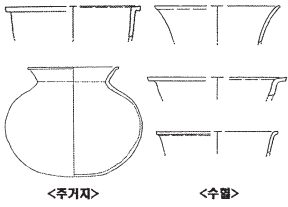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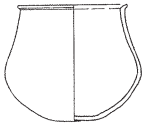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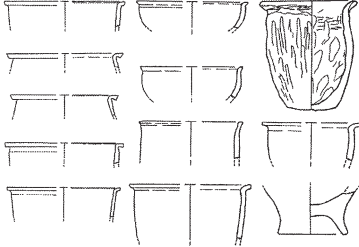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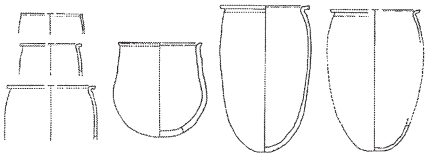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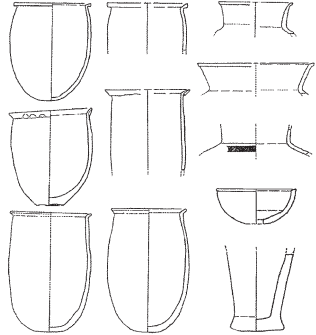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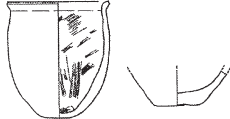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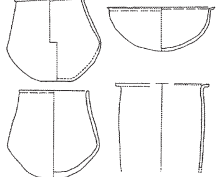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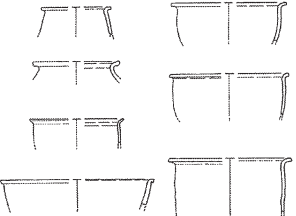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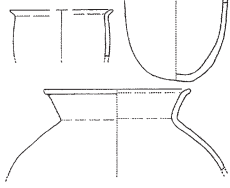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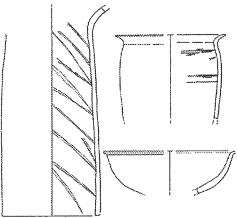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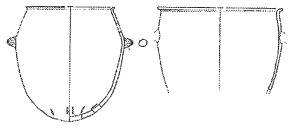
1-1		1-4	
1-10 (용혜로)		1-13	
2-1		2-2	
2-3		2-4	
2-5		2-6	

2-7		2-9	
2-8			
2-10			
2-11		2-14	
2-16		2-20	

나지구

1-6		2-1	
2-2			
2-3		2-4	
2-5		2-7	

다지구

1-1		1-2	 <주거지> <수밀>
1-8		1-11	
1-12		1-17	
2-4		2-5	
2-6		2-7	
고가 수조 구역 방향 유구		고가 수조 구역 주거지	

종합토론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 종합토론

이희준 |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는 아까 다 소개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고요. 저는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 있는 이희준입니다.

황성동유적이 정말 중요한 유적이라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신 걸 보고 이게 영남문화재연구원이 잘해서 오는 것보다는 역시 황성동이라는 제목을 듣고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황성동 유적 성격파악이라 할까. 유적의 성격파악보다는 유적을 남긴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해서 그리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으나 이미 발표를 들으신 대로 사람마다 뭐라 할까요, 기본적인 사실이랄까 이런 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선 이번 이 조사연구회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우선 주제별로 대략 시대 순이랄까 시기 순으로, 빠른 것부터 늦은 걸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는 식으로 토론 진행을 하되,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각 단계의 황성동유적을 남긴 사람들의 성격이랄까 위상, 이런 걸 한번 다루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각 시기별로 유구의 연대 또는 연대 폭, 이런 걸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황성동 다지구 주거지군이 있는데 그 주거지군의 연대가 정확하게 언제쯤 되고, 존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하자면 언제부터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살았는지 이게 지금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는데, 아까 진행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논의를 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집 뒤에 이성주 선생의 ‘1-4세기 진변한 토기 편년에 관한 논문’을 요약해서 표로 실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서로 교통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또 그 뒤에는 1989년, 90년에 발굴한 황성동유적 주거지 출토 토기들을 한번 모아놨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과연 어느 단계가 어떤 토기인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종합토론을 하게 되면 앞의 개별토론에서 토론하고 남은 주제들, 그런 걸 다시 좀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검토 안 됐던 것들이 다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굳이 시간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일방적으로 종합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동유적 안에 다지구 주거지, 그러니까 계명대학교 발굴구역이 되겠습니다만 다지구에서 주거지가 10 몇 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주거지의 중심연대랄까. 그것은 토기로 보게 되면 아까도 발표자와 여러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를테면 주머니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체

로 조양동 38호를 전후한 시기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누구 있으십니까? 이제동 선생? 토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동 | 물론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연대폭이 긴 것은 사실입니다. 다지구의 주거지에 서는 무문토기부터 타날문단경호까지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설정에 유효한 기종인 주머니호를 중심으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희준 | 예, 거기 이번 자료집 160쪽에 다지구에서 나온 토기들을 집성해 봤습니다. 이걸 참고하면서 누구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시간 폭이 좀 상당히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 주거지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구 의견 없으십니까? 김나영 선생 어떻습니까?

김나영 | 다지구에서 출토된 와질 주머니호를 보면 빠른 시기로 보이나, 와질 장동옹을 봤을 때 시간 폭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아직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와질장동옹을 이성주 선생님의 편년안에 대입해 보면 대략 I-4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장동옹의 저부 형태를 봤을 때는 시간 폭을 더 둘 수 있을 지 그렇지 않은 지는 앞으로 황성동유적과 다른 지역의 출토품과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준 | 그래서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김나영 | 예.

이희준 | 하하! 글썄,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성주 선생의 단계 구분에서 본다면 1-3단계하고 1-4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동옹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장동옹 경우에도 주머니호하고 동반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그 다음 주거지들의 분포, 이런 걸 참고한다면 그렇게 긴 시간의 폭을 두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손명조 |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희준 | 예.

손명조 | 주거지 발표하신 분한테 묻고 싶은데, 다지구의 이 주거지들에서 나온 토기들을 보면요 발굴 당시에 다지구 주거지가 대개 굴광선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추정한 것도 많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 유구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자체 유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그걸 좀 검토를 해보셨는가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 주거지의 연대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희준 | 김나영 선생한테 질문한 것 같은데 답변하시죠.

김나영 |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출토유물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 대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준 | 예, 이재홍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홍 |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다지구의 시굴 1호 같은 경우에는 구순각목토기하고 점토대토기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명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의 출토 상황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지구의 주거지는 단일시기로 생각합니다. 주머니호 같은 경우는 조양동 38호 단계지만 점토대토기 같은 경우에는 늑도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이런 점토대토기도 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점토대토기가 아닌 그런 용도 같이 나오므로 그 시기 폭을 여러 단계로 늘려 잡을 수는 있지만 단일시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계의 그 형식을 한 단계로 설정하지만, 시기 폭을 되게 넓게 보시지만 안재호 선생님이나 이성주 선생님은 짧게 자르는데 저는 이런 점토대토기와 같은 이른 시기의 요소도 있고 지금 이 도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격자문이 시문된 토기편도 주거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끌려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친구요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단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시기에 같이 공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시기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희준 | 손명조 선생님은 조금 폭을 더 주고 싶으신 듯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명조 | 일시적으로 뒀다는 것이 분묘에서 지금 목관묘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 시기 폭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그 안에서 나오는 장동옹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장동옹들과 주거지에서 나온 장동옹들을 조금 비교해 볼 때 어떤 연계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를 너무 이른 시기에 규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폭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데 기준 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희준 |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주거지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미 손명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황성동유적에는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이 묻힌 무덤으로 본다면 적어도 조양동 38호 단계부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중에도 보지만 생산유적이라든지 또는 생산유적에 관계되어 있는 생활유적, 이런 것들은 좀 단속적이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분묘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큰 폭을 가지니까 이 주거지군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이 주거지군의 성격, 특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일단 다지구 주거지의 폭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게 당시의 일반 주거지의 양상인지, 아니면 좀 특수한 성격을 띤 그런 공방지 내지는 공방지군인지에 대해서 김나영 선생님 좀 어떻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김나영 | 황성동유적 다지구 주거지의 성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지구 주거지군의 구조면에서 보면 이 시기 주변지역의 성주 상언리유적이나 사천 늑도유적, 사연리 늑내유적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지구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상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주변 유적에서는 주거지내 철기와 관련한 유물들이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천 늑도유적의 주거지와 수혈유구에서는 철 생산과 관련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황성동유적 다지구 주거지군의 성격은 전문적 철 생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거지라기보다는 주거내에서 주거라는 기능과 주거 내 소규모 철 생산과 관련된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주거지가 아닌지... 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준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권일 | 예, 다지구의 주거지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 주거지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용도의 주거지인지 이 이야기인데. 이희준 선생님은 주거지의 구조나 유물에서 다른 특수한 양상이 있는지를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고, 김나영 선생님은 그런 특이성은 없지만 제철 관련 유물이 출토되는 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다지구 단계의 단야주거지. 즉 주거지 내에서 간단한 단조작업을 하는 이런 양상은 영남지역뿐만 아니고 중부지역이나, 새롭게 많이 조사가 되고 있는 강원지역의 원삼국시대 주거지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단야공방지가 주거지 내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구조적 특징이나 유물에서 특이성은 없고, 제철, 특히 단조관련 유물들이 출토되는 점이 특징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준 | 그럼 김권일 선생은, 특화된 주거지는 아니다. 일반적인 주거지인데 다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증거가 뭐랄까, 당시에 행했던 활동의 흔적이 좀 잘 남아있는 그런 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런데 비교하신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의 주거지들은 연대적으로는 이 황성동보다는 좀 늦은 건 아닌가요?

김권일 | 예, 강원지역은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가야의 고지. 즉 동래 내성유적의 주거지나

삼천포 늑도유적 같은 주거지는 오히려 이 단계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희준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이 다지구 거주민들의 무덤이 바로 황성동 분묘군의 목관묘들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재홍 선생.

이재홍 | 저는 다지구의 주거지들의 목관묘는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강변로의 목관묘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 거의 평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주거지의 사람들이 목관묘에 묻혔는지는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관묘에서 인골자료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성격을 밝힐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인골, 그런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골자료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지구 목관묘에서 나타나는 피장자들의 정보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늑도와 예안리의 자료를 비교해 본다면 이 시기는 원삼국시대 초기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계화가 덜 진행되고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안리처럼 성인무덤에서 성인남자 무덤에서도 어떤 데에서는 토기가 많이 들어가고 마구가 많이 들어가고 무구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성인남성 무덤에서는 토기밖에 몇 개 안 들어가는 것처럼 개별적인 차이보다는 집단적인 차이가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묻히는 사람들하고 묻히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개별적인 차이보다는 묻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하는 집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강변로 목관묘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다지구 주거지의 일반 성원들이 다 묻힌 무덤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준 |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반 성원이 원삼국시대 목관묘의 주인공이다. 일반 성원이 말하자면 다 묻혔다, 그렇게 보면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당시 인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분묘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무리한 추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당시 발굴에 참가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습니다.

이 다지구 주거지, 이것만으로 무덤이나 이런 걸 다 설명할 수가 있나? 다시 말해 우리가 발굴한 구역 안에서만 생각하면 거기에 산 사람들이 이 무덤들에 묻혔거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황성동 분묘를 남긴 사람들은 황성동 유적 바깥쪽에도 살았기에 그에 직접 관련된 주거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지구, 다지구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손명조 선생님. 같이 발굴한 분이라서 지금 일단 여쭙보죠.

손명조 | 사실 주거지의 양이 굉장히 적고, 거기 상대적으로 분묘의 수는 또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로 발굴한 지역보다 발굴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고. 생각보다는, 이 황성동지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지구 단계의 황성동이 아

나라 황성동 전체가 그 당시에 조양동 단계에서. 그러니까 조양동유적이 경주 시내에 있고 하듯이 황성동도 그러한 하나의 경주분지 내의 한 집단체로서 거기에 존속했고 거기에 관련된 무덤이 지금 목관묘들이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발굴한 지역의 주거지에만 너무 자주 집착을 하다보니까, 그걸 직접 연계시키려고 자주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한 점이 따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준 | 예, 발굴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황성동에서 그 동안에 발굴된 범위로 본다면 그런 다른 주거지가 있다면 어디쯤 있을 것 같습니까? 남쪽밖에 없는데. 지금 계림고등학교 쪽이나 그 남쪽. 서쪽은. 글썄요, 서천 넘어서 금장리도 될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동쪽은 지금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청객 | 하하하

이희준 | 발굴한 분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손명조 | 글썄요, 어디 있는 거 뭐 안 파봐서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있다면 남쪽 밖에 없겠죠. 지금 그 어디입니까? 길 건너서 그...

이희준 | 황성공원?

손명조 | 아, 예. 황성공원 쪽이라든지 그 정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희준 | 예,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끝이 없는데, 다케스에(武末純一) 선생님, 혹시 같은 시기의 일본 경우, 야요이시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까? 무덤하고 같이 공반되는 취락의 어떤 범위랄까 그런 것이.

武末純一 | 갑자기 질문을 받았습시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야요이시대 후기가 됩니다. 전형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주 유명한 요시노가리유적, 사가현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야요이시대 후기 환호취락은 넓이가 한 40만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시기의 분묘는 없으니까 바깥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시 사가현 토스시에 있는 유비유적군인데 기원전 1세기. 야요이 중기후반이 어떤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몇 개 유적이 모여 하나의 유적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비유적군내 하나하나의 유적은 일상생활구역과 분묘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 듯 보기에 그 하나하나가 각각 독립된 취락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적들 상호간의 거리, 사이에 있는 공백지보다는 유비유적군과 그 주위의 다

른 거점취락과의 거리 사이의 공백지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유비유적군이야말로 하나의 거점 취락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황성동 취락도 이 유형에 속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요이시대 후기에는 요시노가리 유적보다 한 단계 높은 취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 주 북부, 후쿠오카현 카스가시에 있는 스구유적입니다. 여기는 그 시기에 있던 노국(奴國)의 중심취락이고 노국은 A.D.57년에 후한의 수도 낙양에까지 사자를 보내고 금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지인 스구유적은 커다란 공백지에 둘러싸였으며 그 안은 생활구역만 보더라도 한 100만평 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 시기 국의 중심취락은 이렇게 좀 넓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아마 삼한시대의 중심지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준 | 예, 감사합니다. 글썄요, 당시의 왜하고 삼한을 바로 비교할 수 있을 지 없을 지에 대해서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본다면 역시 우리가 너무 좀 좁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다케스에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 적어도 제일 처음에 유적조사현황을 말씀해 주신 한도식 선생 말마따나, 북천 북쪽의 전체를 한번 생각해야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싶습니다. 물론 다지구 주거지에 거주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곳 목관묘 무덤에 묻히기도 했겠지만, 나머지는 다른 지점에 있었던 주거지군의 출신일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건 그런 정도로 해두시고요.

다음 목관묘의 군 문제로 가면, 차순철 선생하고 이재홍 선생 두 분이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이야기가 오갔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다지구 주거지의 남쪽 강변로 구간에 있는 목관묘 군 내지는 라지구의 토광묘하고, 그 다음에 또 북쪽이라고 할까요, 북쪽에 목관묘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있는 목관묘군. 이 두 군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차순철 | 예, 지금 황성동 분묘군에 있어가지고서 일단 현재 조사된 내용만 놓고 본다면 다지구 주거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분묘는 일단 강변로와 황성동 라지구에서 조사됐던 한 개의 토광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묘가 나온 위치를 보면 아주 소량만 조사가 됐고, 또 그 입지 자체가 지금은 사실 계림고등학교 부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강변로에서 조사된 분묘를 살펴보면 그 이후단계. 그러니까 이재홍 선생도 지금 목관계목곽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성동 동국대학교 경주 박물관이 조사했던 거 46호라든가 68호, 67호 같은 이러한, 31호 같은 이 목관계목곽묘 단계가 이번에 영남문화재연구원 조사지역에서 다수가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목관계목곽묘가 조사된 지역이 결국은 남쪽에서 쓰여 졌던 목관묘들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조성되면서 점차 입지로 본다면 과거 경주박물관에서 조사했던 신흥아파트 부지쪽.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입니다마는 낮은 저지대에서 높은 지대로 목관묘들이 이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홍 선생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각 시기나 축조집단이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관묘 집단이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데 그 집단 내에서 두 개

로 나뉘었고 나뉘어진 목관묘는 적어도 그 입지가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쪽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경주박물관이 조사했던 황성동 고분군 내에서 조사된 고분들이 대부분 깊이가 5cm에서 10cm 정도의 낮은 묘광만 잔존해 있었다는 점도 아마 그러한 부분을 방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준 | 그러니까 남쪽에서 먼저 조영되다가 북쪽으로 옮겨갔다? 이재홍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홍 | 전체적으로 저도 남쪽에서 먼저 BC 1세기 후엽에 목관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연대적으로 575번지에서 조사된 목관묘들은 그 경주 사라리와 동일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차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조사한 575번지 남쪽에서 만약 이른 시기의 목관묘가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발표문에서는 약간 시기 차로만 얘기했었는데 575번지에 있는 목관묘들이 조합유각형과수부호도 부장되고 출토유물이 다른 경주지역 목관묘들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집단의 차이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준 | 예, 사실 관계를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전제는 강변로 쪽처럼 빠른 목관묘는 575번지입니까? 영남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거기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도식 선생 어떻습니까? 강변로 목관묘 중에서 빠른 단계, 조양동 38호 단계의 토기 같은 것이 나오는 그런 목관묘나, 그것보다 더 빠른 목관묘나 이런 건 575번지에 없습니까?

한도식 | 575번지 저희 연구원이 조사한 그 부지 내에서 조사된 목관묘 중에서는 없는데, 방금 이재홍 선생님이 얘기한 것 바로 연결해서. 그 조사한 것 중에도 목관묘의 뭐 단벽 일부, 조사 못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590번지의 나머지 부분이 조사가 되면 북쪽에 있는 목관묘의 범위가 공사면적의 반듯하게 잘라놓은 그게 아니고, 원래 목관묘 분포 범위가 나오면 아마 그런 자료가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있는 조사결과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따진다면 지금 조사된 결과 속에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준 |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강변로 쪽의 목관묘가 사실 다 발굴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쪽에도 좀 늦은 단계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북쪽은 아직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점을 달리 해가지고 대체로 병행해서 조영됐다고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지구 주거지의 귀속문제를 두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거리는 황성동 유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던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나뉘어, 군을 달리하면서 동시에 계속 조영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런 겁니다. 예를 들면, 경산 신대·부적리라든지, 경산의 임당 유적 같은 데에서도 보면 목관묘들이 좀 지점이 나뉘면서 여러 무리로 조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한번 굳이 파고들어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까만, 혹시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동 선생님, 혹시 없으십니까?

이제동 | 토기가 출토된 양상을 통해서 보면 주머니호만 출토되는 주거지가 있고, 그리고 편이만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가 출토되는 주거지가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분묘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관묘 I-1단계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호만 출토되고, 그리고 I-2단계부터 주머니호와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가 출토되는데, 주거지 같은 경우에도 분리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희준 | 지금까지 목관묘 단계의 분묘하고 주거지를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손명조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황성동 다지구 주거지에서 일어난, 뭐라 할까요, 철기제작 관련 활동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큰 맥락에서 한번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제 아까 김권일 선생 말대로 그냥 그 단계에서 취락별로 행했던 그런 활동인지, 아니면 좀 더 전문화된 어떤 그런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명조 | 아마 영남지역에서는 아마 내성유적도 있지만 내성유적은 좀 성격이 불확실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황성동 다지구에서 주거지에서 나온 철기 제작. 그러니까 제철을, 넓은 의미에서 제철유적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단야유적입니다. 단야유적. 지금부터 단야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단야유적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체적으로 영남지역의 철기보급 상황을 보면 팔달동, 그다음에 경산 임당, 그리고 사라리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시기적인 차이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 지역이 당시 철기생산이든지, 아니면 생산된 철을 그런 무역권을 독점하던 지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다지구의 단야유구들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선철계 철괴를 받아서 어떤 유물을. 그러니까 철기를 제작하던 공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시기가 뭐 1세기 전반이 되든 후반이 되든 이 단계의 철을 다룰 수 있는 집단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단야작업도 이 시기정도 되면 일정 집단에게만 가고 그 집단 내에서 일정 구역에서만 아마 이 단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 다지구에서, 황성동에서 나오는 다지구 단계의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전문생산이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기라든지 이런 고급소재 제품들은 황성동이 아닌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서 갖고 와서 여기 부착했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다지구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 정도의 공정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준 | 그런데 그 자기, 단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넓게 취락군을 염두에 둔다면, 취락마다

다 그랬을 건 아니라서 다지구 주거지군은 그래도 그런 것들 가운데 좀 특화됐다고 볼 수는 없을 까요?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 단계에 주거지군들이 각자 알아서 철기들을 생산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손명조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다지구의 주거지군이 과연 어떤 성격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지구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도 사실 이런 단야 유적은 두 군데가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조그마한 내에서도 두 군데 세 군데 나왔다면 다지구에 나온 주거지 전체를 가지고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 지역에 주거지군이 있다면 그 전체를 대표하는 단야군 정도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준 | 김권일 선생,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으시면?

김권일 | 예. 대체로 공감합니다. 현재 경주지역에서 황성동유적이 가장 빠른 단계의 제철 유적이고, 이는 신라의 고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야의 고지에서는 철기문화가 좀 일찍 수용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팔달동이나 경산 임당 같은 경우에 빠른 단계의 주조철부를 포함한 유물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단계에 해당되는 철기 생산 유적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자체 생산한 건지도 아직 의문입니다.

또 아시겠지만 경주지역에는 상당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점을 찍어 보면 목관묘 집단하고 목곽묘 집단의 점을 찍어보면 아까 다 말씀하신 조양동이나 사라리, 덕천리 등에 한 6~7개 정도의 점들이 나옵니다. 이런 유적들은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성격을 알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 아직 철기 생산유구는 확인이 안 됐다는 점은, 이 지역에 경주 황성동 다지구의 주거지 때부터 황성동에서 생산된 철기들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준 | 황성동 다지구 주거지가 그런 전문화된, 특화된 생산 집단이었다 이런 뜻입니까?

김권일 | 예, 영남지역에서는 그런 비슷한 유형의 철기생산집단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봅니다.

이희준 | 예, 손명조 선생님, 다른 이야기를 좀.

손명조 | 목관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호리 1호분이라든지 초기의 목관묘 단계에서 나오는 철기들은 굉장히 일정합니다. 그게 거의 2세기 때까지, 2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물의 변화가 거의 없이 지역적으로 거의 차이 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과연 각 지역에서 생산해 가지고 집단별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떤 한 특수집단에서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고 황성동 같은 이런 전체적으로

나오는 양상을 볼 때는 오히려 그 하위집단, 하위계층. 제가 그런 철기생산에서 한 5가지 유형별로 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하위집단에 해당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중부지역에 시기는 조금 떨어지지만 기한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성리는 굉장히 빠른 시기죠. 오히려 이런 쪽에서 나오는 철기제작과 관련된 단야와 관련된 유구들을 보면 오히려 그 쪽에서 훨씬 더 발달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할 때 과연 황성동 다지구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전문직중, 전문화되었다는 것을 해석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고. 또한 여기 목관묘에서 나오는 철기들이 뭐 경산 임당이나 사라리,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심 무덤부에서 나오는 것들과 거의 동일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그 양은 조금 적죠. 또 동전이라든지 청동기의 부장이 없습니다.

뭐 이런 차이를 볼 때 다지구의 어떤 단야유구 자체는 성격을 좀 달리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단야유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기서 계속됐다는 사실 증거도 없습니다. 어쩌면 일부 단절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성동유적을 이야기할 때 다지구 주거지에서 나오는 철괴들이 끊임없이 지금 용해로 나오는 이런 것과 직접 연계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그런 거는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단절성을 가지고. 또 성격 자체가 전혀 틀립니다.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제철유적이라는 하나의 큰 범위 안에서 황성동을 이야기하지만, 실지로는 그 안에는 크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용해로가 나오는 단계는 오히려 정말 전문생산집단들이 만들어진 거고, 오히려 이 앞 단계인 다지구 단계에서는 일상적인 도구의 제작.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준 | 예,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유적을 찾아낸다는 것 이게 하나의 표본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 나지구나 가지구에도 사실은 다지구 단계의 그런 취락 같은 것이 있었는데 후대의 취락에 의해서 제거됐을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절적으로 보는 것은 좀 그런데요. 지금 현재 유물로 보면 확실하게 단절적인데, 이건 아직까지 증거가 없는 이야기지만 좀 더 연속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본다는 거는 황성동유적의 성격을 이제 앞 시기까지 좀 투사해서 좀 더 길게 전통을 갖고 있었던 집단으로 보는 이런 사고입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분묘의 위계 또는 유적의 위계, 위상 이런 게 많이 이야기됐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황성동 분묘군에서 이 목관묘 단계의 분묘군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조양동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경산으로 말하면 임당지구의 분묘군 이런 거하고 대비한다면 어떨까요? 또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재홍 선생님, 분묘는 아무래도 이재홍 선생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재홍 | 저는 위계라든지 그런 위상을 봤을 때 양적인 부분하고 질적인 부분을 동시에 유의를 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양적인 부분에서, 목관묘의 그 규모라든지 그런 걸 보면 황성동은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변로 구간의 목관묘들이 그렇게

니다. 그런데 신용민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을 참고해 본다면 깊이도 경산 신대리나 경주 조양동에 비해서 그렇게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묘를 설치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투입 안 됐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황성동 목관묘는 경주지역의 목관묘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세기 후엽, 사라리 130호 단계에 가면 약간 경주지역의 다른 유적과 비슷해지기는 하지만 요갱이 설치도 안 되고 질적인 부분에서도 청동기류들은 전혀 없고, 장신구류들도 의외로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걸 봐서는 그렇게 위세적인 성격은 사라리 130호와 조양동 38호 정도 같은 그 위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준 | 예, 위계를 따질 때 양이나 질이나 이게 문제인데, 질적으로는 아까 이재홍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같은 대통령이지만 양이랄까 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라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고고학 유적의 경우에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양의 차이가 질의 차이를 낳긴 하지만 말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도 나오듯이 신지, 읍차 등이 똑같은 수장인데 이름은 다르다 말이지요. 그냥 우열의 차이냐, 아니면 정말 어떤 위계의 차이냐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지 위서 동이전’만 본다면, 왜의 ‘국’하고 삼한의 ‘국’이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도 역시 같은 국의 정치 발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거고. ‘삼국지 위서 동이전’ 자체에 그렇게 나오지만, 작은 나라는 600~700가이고, 큰 나라는 수 천 가이되 그래도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질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거란 말이죠. 양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분묘군의 위계를 서로 따진다는지 할 때 좀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를테면 조양동 38호에서 거울이 나왔으니까 조양동은 위계가 높고 이쪽은 없으니까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곤란할 수 있고.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그런 분묘 한 두 예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집단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묘군 전체를 다른 분묘군 전체와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혹시 그런 방법론에 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이런 관점에서 위계라고 하는 걸 말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도현 선생 혹시?

김도현 | 방법론까지 제시할 만큼 역량이 없어서 그건 답변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희준 | 아니,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뭣이든. 혹시 이런 걸 갖고 비교해야 되겠다든지, 이를테면 무덤 크기를 갖고 한다든지, 유물 양을 갖고 한다든지, 질을 갖고 한다든지. 또는 분묘군 전체 기수를 갖고 따진다든지. 결국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그런 것밖에 없는데. 뭔가 분명히 차이는 있을 텐데요.

김도현 | 뭐, 제가 어떤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드는 부

분은, 시간 부분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리 130호가 영남을 대표하는 하나의 목관묘로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사라리 같은 경우는 130호와 다른 분묘와의 격차가 너무 현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목관묘의 숫자가 또 너무 적은 상태입니다. 또한, 대구의 경우 팔달동을 예로 들면, 처음 축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까지는 부장품의 양과 질에서 상당한 역량을 유지하지만, 뒤 시기로 가면서 현격하게 부장품의 질과 양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수라든가 특정 시기의 양상을 유적의 전 시기에 동일하게 대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방법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안은 없습니다.

어쨌든 분묘의 기수가 중요한 것은 결국 묘를 축조하는 그런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기준 내에서도 결국 개개의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한 정도 단계에 들어와 버리면 이미 동아시아의 정세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급격하게 또 쇠퇴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취락 하나의 집단의 위세라든가 위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시점에 따라서 좀 계속 버라이어티하게 보는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답변보다는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이희준 | 아무래도 일본의 경우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케스에(武末純一) 선생님, 일본을 대표해서 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노국이라면, 그런 노국 안에서 중심 거점, 소위 거점집락의 분묘하고, 또는 거기의 수장에 가까운 사람들의 분묘군하고 거점집락이 아닌 하위취락의 분묘군의 양이나 질이나 분묘 크기나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武末純一 | 예, 분묘 자체도 큰 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역시 중심취락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일본에서는 중국 거울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노국의 중심지에서는 지금 한 40개 정도의 중국 전한경, 후한경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위에 있는 집단의 분묘에서는 그런 거울이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도 한두 점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단과 집단 간에서도 위계가 진행되고 그 중심 집단 안에서도 그러한 거울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한시기에는 한두 명입니다만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역시 분구묘입니다만은 거울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밑의 일반 사람들까지 몇 개의 위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만 대답이 되었습니까?

이희준 |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나라의 이 경상도지역에서 발굴한 내용으로 볼 때는 좀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양상이 역시 다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시기를 내려서 가지구하고 나지구 주거지의 연대 비정문제, 이 연대 비정문제가 어쩌면 황성동 철기생산유적의 연대를 비정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가지구하고 나지구 주거지 중에

서 토기로 볼 때 가장 빠른 주거지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거지 하신 김나영 선생님 한번 뒤에 실은 주거지 자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지구 하고 나지구 출토유물로 보아 가장 빠른 단계에 둘 수 있을 주거지 말입니다.

김나영 | 저는 나지구 Ⅱ-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노형토기를 가장 빠른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주 선생님의 편년안과 대비해 보면 Ⅱ-1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주거지가 가장 빠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준 | 그리고 또 좀 늦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나영 | 늦은 걸로 본다면. 그런데 나지구의 2-5호나 2-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늦은 시기의 고배와 기대들은?

이희준 | 그 토기는 아마 공반 유물이 아닌 것으로.

김나영 | 아닌 걸로.

이희준 | 그 토기는 빼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발굴하신 손명조 선생님? 2-3호 하고 2-5호에서 나온 그 신라토기 있잖아요?

손명조 | 그건 빼야 됩니다.

이희준 | 그건 빼야 되겠죠? 하여튼 그건 제외하고 보면 좀 늦다고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2-4호나 2-1호입니까? 2-4호는 분명히 도질토기가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나영 | 예. 도질토기.

이희준 | 2-1호도 노형토기로 보면 좀 거의 말기에 가까울 정도의 노형토기인데.

김나영 | 예.

이희준 | 그럼 역시 가·나지구 주거지의 폭은 분명히 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주거지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김나영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준 | 늦은 것은, 아까 이제동 선생인가, 여기 단경호에 대각이 달린 것 같은 그런 2-4호 주거지 토기는 분묘에서도 나왔죠?

이제동 | 예.

이희준 | 그 단계는 이미 도질토기가 나오는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동 | 예. 맞습니다. 분묘로 본다면 Ⅲ-2단계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형으로 대부호가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2-4호에서 출토되는 이런 유형의 토기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희준 | 예, 일단 폭은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연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장 빠른 노형토기, 빨리 본다면 2세기 중엽 내지는 2세기 후엽에서 시작해 가지고 가장 늦은 걸로 본다면 늦은 경우에는 4세기 초, 또는 3세기 말로 적어도 1세기 이상의 폭은 있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잡히는데, 주거지만 따로 떼어 갖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오늘 자꾸 손명조 선생님께 질문이 많이 가는데 그 당시에 발굴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문이 많이 갑니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2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확인 안 해놓으면 또 오해들을 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발굴 당시의 어떤 감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때 용해로적도 나오고, 무슨 단야유적도 나오고 해가지고 당시 정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끄지만, 실제 그런 철기 생산유구의 연대를 직접적으로 말해 줄 만한 유물은 거의 공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도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혹시 주거지하구의 공간관계나 분포나 그런 걸 봐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떤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손명조 | 저희들이 발굴한 이후에 계속 발굴이 진행됐기 때문에 용해로라든지 이런 관련 주구에서 토기가 좀, 결정적인 토기들이 좀 많이 나와 줄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할 때도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다지구 주거지와는 또 별개의 어떤 주거공간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다지구와 다른 단야유구들, 그리고 가지구의 용해로 옆에서 나오는 주거지. 결국엔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가지고 시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의 연대가 과연 어떤 건지, 또 이 주거지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런 것들은 참 구분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그런 주거지들이 동일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선 시기가 있는지 제가 그걸 오히려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덤도 마찬가지로. 무덤도 굉장히 뭐랄까 집중도가 높은, 동일시기에 집중도가 높은 시기가 나타나는지, 분묘나 주거지에서. 그거를 오히려 저도 지금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황성동 제철유적과 관련되는 그런 양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희준 | 주거지 분석하신 김나영 선생, 어떻습니까?

김나영 | 주거지 내에서 나온 토기나 그런 양상으로 봤을 때는요, 특히 제가 토기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가지구에 나오는 2-8호나 이런 데에 보면 아주 빠른 단계의 그런 노형토기하고 늦은 단계의 그런 토기도 같이 공반된 걸로 봐서는 아주 좀 오랜 시간에 공존하는 이런 주거지들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준 | 그래요? 예, 하여간 전체적으로 1세기 이상 지속된 주거지군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 데 이걸 굳이 가지구하고 나지구로 대체로 나누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나지구의 구조나 유물 이런 게 다른니까? 나지구의 1-6호 빼고는.

김나영 | 예. 저는 가·나지구의 주거지의 단계를 구조와 출토유물의 양상에 있어서 2단계로 구분했는데요. 구조에 있어서 보면, 2단계와 3단계에 있어서 발달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단계의 주거지는 수혈주거가 지상화 되어 가다보니 토벽의 설치도 앞 단계보다 더 견고해 지고, 또 다른 주변유적에서 보이는 특히 4세기대 주거지에서 보이는 온돌시설 즉 수혈 벽면과 이격된 양상이 3단계 주거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3단계 주거지군은 주거 건축기술에 있어서 발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성동유적 2단계와 3단계 주거지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준 | 예, 김권일 선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권일 | 질문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희준 | 김권일 선생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주거지를 말하자면 철기생산유구하고 관련을 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다시 말해 이 주거지들이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그 주거지를 가지고 철기생산유구의 단계구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들이 가지구 주거지하고 나지구 주거지로 단계가 구분이 된다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권일 | 저는 조사된 황성동 주거지 중 제철 관련 흔적이 확인된 것만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계로 나누었는데 다지역의 주거지는 그 구분이 분명하지만, 가지역과 나지역 주거지는 확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희준 | 예, 그러면 이걸 미리 좀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철기 제작관련 유구들의 단계구분의 근거는 결국은 기술발달, 이런 거였습니까?

김권일 | 주거지와 분묘, 그리고 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라든지 그 구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아까 제가 A지구라고 말씀드린 가장 안쪽의 다지구에서 북쪽 편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단야주거지. 그러니까 원삼국시대 후기의 단야주거지에서 이제는 주거지를 탈피해서 독립된 단야공방지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를 크게 구분한 것이고 그 어떤 세부적인 관점에서 가지구와 나지구의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준 | 예, 최경규 선생님, 전체를 종합한 논문도 쓰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최경규 | 예, 제가 황성동유적을 분석하고 논문을 쓸 때는 개별적인 제철유구에 대한 분석은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야나 용해나, 그리고 그 공간이 어디에 배치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분묘로서 먼저 분묘출토품 가지고 먼저 전체적인 황성동유적의 단계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주거지 단계를 나누고, 제철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공간구성을 가지는가. 공간구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며 이동이 되고 확산이 되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단계를 나뉘웠는데, 아까 제가 토론문에서 첫 번째 질문을 낸 것하고도 좀 관련되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선결되어야 되는 즉, 황성동 집단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주거지의 숫자가 45동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제가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이희준 | 예, 94쪽이 되겠습니다.

최경규 | 제가 분석을 할 당시에는 950-1번지라든지 575번지 유적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곽묘가 100기에서 200기 정도. 그다음에 목관묘 같은 경우는 한 7기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문을 가지지 않고 당연히 이 주거지에서 살던 사람들의 무덤이었지 라고 해서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공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목곽묘가 거의 한 400기 정도에 달하는 숫자가 조사가 되었고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관묘인지 목곽묘인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봤을 때 목관묘가 한 30기, 그다음에 목곽묘가 한 400기 정도 됩니다. 주거지는 I-다지구의 주거지가 현재 한 17동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계림고등학교 그쪽 부분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1단계 주거지가 확장이 될지, 아니면 거기에 분묘역이 확장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목관묘가 한 30기 정도라 했을 때 주거 17동에, 아마 한 1세기 정도의 연대폭을 가지는데, I-다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묻혔던 분묘는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나지구로 옮겨가는 주거지 역에서 그 사람들이 조성한 분묘가 과연 현재 황성동에 나오는 목곽묘, 전체 분묘가 맞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본

게, 당시에 제가 제철단계를 나누면서 용해로가 들어오는 것을 아주 큰 획기로 해서 분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용해로가 처음에는 용해로 기술이 도입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용해기술이 확장이 되면서 용해로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용해기술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그다음에 제품이 생산되는. 그런 단계로 해서 분기를 설정했는데, 당시의 원삼국시대의 철기제작기술이라는 것은 첨단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해로라고 하는 첨단기술을 가진 제철단지가 어떤 집단만의 영리라든지 그런 목적만으로는 운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떤 정치적인 통제 하에서 운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 구성 자체가 굉장히 정연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가·나지구의 주거지는 불과 25동에 불과합니다. 아까 김나영 선생님께서 답변하실 때 당시에 30대 정도의 사람들이 1세기 동안의 세대를 한 세 번, 네 번 정도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 주거지에 한 400기 정도의 분묘에 묻힌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포항 호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0기 정도가 되는데 같은 식으로 대입을 한다면 거의 수천 명이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집단이 아닌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의 읍락 정도의 호수와 비교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은, 그 당시의 그런 제철기술을 가진 집단 공인들을 황성동이라는 집단주거지 내에 머물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위의 정치체가 그런 사람들을, 가령 요즘 같이 어떤 공단에 공장 조업하듯이 낮에는 그 사람들이 집중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조업 후에 그 사람들은 어떤 통제된 곳에서 생활을 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았을까 라는 가설을 설정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철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첨단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인원들이 무기를 생산하고 나서 혹시나 모르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거지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간단히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이희준 | 예, 감사합니다. 결국 지금 황성동에서 발굴된 주거지는 철기생산 관련 유구들하고 시기가 병행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 상시 주거지로서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한 게 아니고 일반취락은 따로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만.

최경규 | 예, 맞는데요. 상시주거는 상시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희준 | 물론 상시는 상시입니다만 뭐랄까요, 일반주거는 아니다?

최경규 | 예, 예.

이희준 | 여기 임동재 선생님이 계신 것 같은데, 임동재 선생님도 “황성동유적 성격에 대한 연구”로 학위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논문 개요도 말씀해 주실 겸 견해를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임동재 | 예, 저도 조금 전에 최경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체적으로 분묘중심으로 해가지고 글을 썼고, 또 그 분묘에 따라서 제철유구라든지 그리고 주거지에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묘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주거지나 제철유적, 유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쓴 부분은 아니지만, 저도 뒤에 지나고 보니까 역시 무덤하고 물론 일 부분은 관련이 있겠지만, 특정지역에 다른 지역에 주거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첨단산업인데, 그 기술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어떤 통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준 |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정황적으로 볼 때는 생산유구하고 주거지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손명조 선생님, 한번 말씀을.

손명조 |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최선생님처럼, 이게 안에 있는 게 이게 다 주거지라고 볼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공방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지구 인가 나지구에 보면요. 이걸 주거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실 공방지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걸, 그리고 이 조업을 위해서는 이 용해로 하나의 조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따진다면 이런 주거지에서 이 작업장과 관련된 주거공간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거지라 표현됐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임시거처 정도, 작업을 위한. 그리고 거기를 지키기 위한 상시가구도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성격을 좀 변화하면 어떨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분류하실 때 보면 원형주거지하고 방형주거지 분명히 구분되는 주거형태인데 이걸 그냥 동일시기에 같은 주거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조금은 의문시 됩니다.

이희준 | 거의 방형에 가까운 것은 다 나지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가지구에도 방형에 가까운 게 많이 있습니까? 기능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김나영 | 양산 평산리 유적이거나, 또 경산 임당 유적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원형주거지가 존속하는 기간에 방형주거지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양상을 약간의 시기차이에 의한 과도기적 양상으로 생각합니다. 또 시기가 달라진다는데 이 원형주거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습니다. 양산 평산유적에서 보면 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주거지간 약간의 면적의 차이가 보이나, 그것이 어떤 기능의 차이일지는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희준 |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무덤으로 조금 옮겨가야 될 것 같은데.

김도현 | 혹시 주거지에 대해 마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희준 | 예, 말씀하십시오.

김도현 | 아까 최경규 선생님 말씀대로 거주지를 작업을 위한 임시 거주지로 설정할 경우에, 그러면 분묘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게 자발적으로 작업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통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쪽에 거주하는 임시 거주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주 자유가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무덤을 썼다고 보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 생기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 수가 모자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 거처로 설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또 분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최경규 | 맞습니다. 상시주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도 주거지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노동하는 인원들이 외부에 다른 곳에 통제된 곳에 있다고 한다면 황성동유적의 목곽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냐 라는 문제에 당연히 봉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딜레마에 빠진 게 제철조업을 할 때 제철기술을 가진 사람, 즉, 용해라든지 단야까지 그런 기술을 주도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조업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신분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신분차가 난다고 한다면 다수의 기술을 가지지 않고 거기서 노동만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분묘인 목곽묘를 아마 쓸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홍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다른 어떤 촌락들의 공동묘역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썼던 논문에 대한 것도 완전히 흐트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봐야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희준 | 예, 사실 지금 한국고고학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동기시대에서 고인돌하고 주거지를 직결해서 설명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삼국시대까지도. 삼국시대도 지금 주거지가 발굴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김권구 | 저는 질문, 우리 손명조 선생님께. 혹시 제가 옛날 그때 황성동에 갔었을 때 기억에 그 분묘에서 나온 유물 중에 제철과 관련된 뭐가 나왔던...

이희준 | 단야구 말씀하십니까?

손명조 | 단야재가 나왔습니다.

김권구 | 단야재가 나왔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피장자와 어떤 제철유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병철 |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시기적인 지금 논의가 안 되고 계속 어느 시기에 공방이 활성화되고 노동 투입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그게 지금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시기에 그런 것들을 했는지 좀 궁금해서 좀 같이 그런 시기를 같이 얘기하시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유구의 연대를 직접 정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략 그 폭이 이 정도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상은 무리지요. 지금 유구 아무리 분석해 봐야 연대는 안 나오죠.

손명조 | 적당히 나옵니다. 적당히.

방청객 | 하하하

이희준 | 뭐 2, 3세기. 2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손명조 | 예, 연대를 2세기 후반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3세기대로 이야기를 하신. 저도 모르게 후반까지 올라왔네요, 보니까.

이희준 | 유물을 보면 그건 거의 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아까 봤던 그런 노형토기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같은 시기라고 하면 2세기 중반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손명조 |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아까 주거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냐 하면, 여기 보면 원형주거지, 방형주거지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럼 이 방형주거지가 나오는 시점에 뭔가 새로운, 황성동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이 용해로를 만드는 이런 제철집단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뭐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철기술이라는 자체는. 들어오면 이게 한꺼번에 여기를 정해놓고 여기 공장을 바로 만들어서 바로 만들거든요. 그럴 때 그 시점에 똑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주거형태가 나온단든지, 아니면 이게 공방이라면 이런 공방형태가 나오는 게 그게 하나의 시점으로 잡는 게 훨씬 더 맞지, 여러 가지의 그런 주거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 빠른 주거지를 그 시점으로 잡는다는 건 조금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언제 집중하느냐는 거죠. 무덤도 어느 시점에 목관묘가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집중해서 동일시기에 나오는 그 시점이 이 황성동이 제철집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의 무덤이나 주거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주거지를 분석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잡아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지만, 김권구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단야 슬래그가 아니고 그건 용해 슬래그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기는 3세기 전반대에 해당되는 철기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희준 | 그게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까?

손명조 | 보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준 | 그거 분묘죠?

손명조 | 분묘입니다.

이희준 | 분묘 분석할 때 혹시 나왔었습니까, 그게?

손명조 | 그게 동국대하고 같이 조사한 지역에서.

이희준 | 경주박물관 발굴분에?

손명조 | 예, 예.

이희준 |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말하자면 가장 초기단계의 유물이네요?

손명조 | 예, 예.

이희준 | 일단 논의가 자연스럽게 분묘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이 목곽묘 단계 이른 시기부터, 어떻습니까? 단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목곽묘는 지속적으로 조영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재홍 선생.

이재홍 | 목곽묘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준 | 목곽묘가 나타난 이후로는 계속?

이재홍 | 굳이 따진다고 하면 575번지 유적의 사라리 130호 단계라든지 저의 1-2기 단계에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희준 | 예, 목곽묘에서 아까 차순철 선생하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크게 본다면 영

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575번지를 기준으로 볼 때 강변 쪽하고 그 다음 그 동쪽하고 뭔가 구조라든지 부장되는 유물의 종류, 양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 같은 시기에 결국은 두 개가 나뉘면서 조영되는 것은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시기에 병존합니까?

이재홍 | 예,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희준 | 차선생은 어떻습니까?

차순철 | 예, 저는 병존하지만 약간은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희준 | 연대적으로는?

차순철 | 연대적으로는 거의 엇비슷하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재홍 선생님이 구분하고 있는 2기 단계에 해당하는 목곽묘에 대해서 이제 여기 조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강변로 1호분단계 그 이후부터가 되겠습니까마는, 소위 말해서 방형목곽묘가 나오는 지역을 보면 주로 이제 강변로 서쪽. 그러니까 강가를 끼고 있는 지역과 바로 철길 너머에서. 저희 경주문화재연구소요. 지금 장정남 선생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조사했던 지역이 주로 방형계 목곽묘가 중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문연에서 조사했다는 575번지를 기점으로 동쪽 같은 경우에는 방형보다는 주로 이제 세장방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는 뭐 이혈주부곽식이나 동혈주부곽식, 또는 병렬식과 같은 그런 목곽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쪽의 강변로 지역에서도 좀 나오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로 본다면 동일시기에 큰 연대차이가 안 나는 시기에 동일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묘제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그러한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기로 본다면 3세기 대에서 4세기까지가 이제 주 시점이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재홍 선생님이 보는 어떤 두 단계의 구분된 분묘군이라고 보는 것과, 저는 이제 그것이 서로 시기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서 확장되는 개념으로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희준 | 그런데 확장된다면 왜 떨어져서 확장이 되나요?

차순철 |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분묘군 중에서도 중복상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복돼서 확인된 거라고는 이제 545번지 경주대학교 조사지역에서 조사된 71호, 69호 있는 그런 중복정도가 거의 유일한 예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분묘들이 중복 없이 단독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쪽 지역에서 조사했던 목곽묘들이 이제 북쪽으로 일단은 이동되는, 현재 상태에서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 이동되어서 나타나는 그 목곽묘목곽묘 분포를 보게 되면 대체로 575번지나 545번지나 거의 같은 형상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체의 배치로 봐서는 그 전체 조사지역의 남쪽구간을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1열이라고 거의 표현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조사지역의 남쪽을 따라가지고 배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곽묘목곽묘 뒤에 있는 장방형 목곽묘들이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는 묘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좀, 그것을 피해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점에서 좀 고민되는 거는, 강변로 1호 같은 일단 방형의 대형 목곽묘군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세장방형의 목곽묘군이 좀 어느 정도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구분들이 계속 관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그 묘역에 있어가지고서 아까 이재홍 선생이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두 개의 복수 취락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 어떤 묘의 입지로 봤을 때 묘역을 취락 내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고유묘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어떤 방형계의 목곽묘 계통의 사람들이 쓰던 묘역과, 그러니까 세장방형, 또는 그다음에 병렬식 목곽묘들이 있는 그런 지역과 이 지역이 두 개의 묘역이 동시에 유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희준 | 요는 지점을 좀 달리하면서 동시에 유지된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데에서 두 분이 차이가 있네요. 차순철 선생은, 그게 한 집단 안에서 뭔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떻게 말하면 집단이라는 말이 좀 모호한 말이지요. ‘황성동 집단, 황성동 집단’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모호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홍 선생은 쉽게 말하면 다른 취락들의 결합, 다른 취락 출신자들이 문헌 것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재홍 선생 어떻게 좀 부연설명 해주시죠.

이재홍 | 그런데 제가 차순철 선생님한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여쭙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세장방형 목곽묘라는 게 경주식 목곽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쪽에 세장방형 목곽묘가 구체적으로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차순철 | 지금 세장방형 목곽묘는 소위말해 경주식 동혈주부곽식을 얘기합니다.

이재홍 | 그렇다면 그건 약간 시기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형목곽묘 단계에서부터 강변로 1호와 9호와 같은 서쪽의 방형목곽묘하고 동국대와 경주박물관에서 조사한 동쪽의 방형목곽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식 목곽묘 단계의 세장한 목곽묘들은 그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다음 단계에서도 구분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목곽묘 단계의 주거지들은 대체로 다른 시기의 주거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의 빈도수에 비해서 주거

지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거칠지만 그 복수의 취락들이라든지 집단이 결합해서 공동묘역을 조영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순철 | 이재홍 선생님이 얘기하신 복수취락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조사한 손명조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김일규 선생님 뭐 여러 선생님 계시지만, 저희가 황성동을 계속 언급하는데 있어가지고 아까 잠깐 중요한 걸 그때 말씀 올렸지만, 그 분묘에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조사하는 지면이 그 원 지형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홍 선생이 얘기하는 2단계, 소위말해서 경주박물관이 조사했던 목관묘들, 저는 목곽묘로 보죠. 목곽묘로 봅니다마는, 그 목관계목곽묘와 같이 동시에 병존했던 그 경주박물관 측의 목관묘들을 보면 조사했던 그 지면의 높이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신흥아파트 1차에서 조사됐던 그 재 같이 나온 그 목곽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미 동대나 경주박물관, 경주대에서 조사한 지역보다 훨씬 높은 고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취락의 부재문제는 황성동 지역이 지금보다는 지형의 변화가 있어서 오히려 삭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유구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놓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건 이제 계명대학교에서 조사했던 그런 취락 같은 경우도 아까 손명조 선생님께서 지적했듯이 거의 바닥만 나온 상태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성동 당시 조사했을 당시에는 거의 표면 토층조사에 의해가지고 제토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일괄적으로 어떠한 유구를 놓쳤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형적인 변화부분 때문에 어떤 취락의 존재라든가 분묘군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지형이나 그 분묘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가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형계목곽묘들이 나오는 부분들, 아까 그랬지만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재홍 선생님께서 얘기하시지만, 만약에 그 시기부분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황성동 고분군 전체의 고분배치는 강변로 1호분에서 있는 남쪽지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영문연 조사했던 575번지에 있어서 잠시 목관계목곽묘들과 동국대 조사지역의 소위 말해서 소형의 어떤 목관묘들이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철길 넘어 저쪽으로 넘어가서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했던 목관묘들이 있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묘역들의 위치가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목관묘와 그 목곽묘만 놓고 본다면 두 개로 구분되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의 큰 차이를 두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부장유물에서도 그것이 과연 다르다면 뭔가 좀 확실한 어떤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희준 | 사실을 가지고 자꾸 서로 다르다 하니까 지금 헛갈리는데, 아까 말씀은 토기하고 철기하고 다르다 그랬는데 또 같다 그러니까, 예, 함순섭 선생님 말씀해주실 것 있으시면.

함순섭 |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 나온 게 보니까 제가 사실은 좀 그 지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에 지금 지적도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실제 황성동 지역이 농업생산력과, 선사 이래에 농업생산과 관련했을 때 과연 적절한 지형인가 라고 봤을 때는 되

게 불리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선단부고요. 소위말해 조사할 때도 사실 다지구와 나지구의 일부지역에서만 관입되어 있는 점토층이 확인되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체 자갈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고서에는 안 실렸습니다마는, 자갈층을 콘타를 다 뜯 적도 있습니다. 나지구에서. 그거 분명히 무슨 지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뒤에 황상일 선생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는 자연제방이 좀 발달해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황상일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 선단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무문토기 주거지가 형성되는 지점도 보면 다와 나지구에 걸쳐있는 지점에서 한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까 뭐 계림고등학교 남쪽지점에서 얘기한. 남쪽지점은 완전히 이거는 자갈층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고식와질토기 단계까지가 아주 미약한 형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뒤에 아마 그 후기와질토기 단계부터 일종의 편제가 됐다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어떤 집단이 편제가 이루어졌을 수 있겠다. 무덤도 마찬가지로 공동묘역으로 전환이 됐을 수 있겠다. 뭐 주거지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과연 주거지가, 저는 이 황성동 여기서 그러면 농업생산과 관련된 원래부터의 취락은 어디에 있겠는가 했을 때는 용강동 지점 그러니까 배후 저습지가 발달해 있는 그 인근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1970년대까지의 항공사진이나 그 지적의 식생을 놓고 확인해보면 이 지역은 전부 과수원이죠. 일반적인 농업생산이 고대사회에서 농업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데에서 황성동의 특징. 특히 제철유적의 성격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분묘역도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 그런 지역에 오히려 분묘를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느냐. 그런 데에서 특수성을 찾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희준 |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요컨대 아까 목곽묘 단계 논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반취락이 이게 전부는 아니고 좀 더 훨씬 넓게 봐야 된다는 거는 그냥 당연한 점 같고, 지금 현재 찾아내기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돼버렸습니다만, 접근을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목곽묘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실은 목곽묘군의 양상으로만 봐도 황성동 나지구하고 가지구의 취락에 직접 연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데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이 목곽묘 단계 전체로 봤을 때 다른 목곽묘군하고 비교하면 어떤가. 이제 위계라든지 우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발표하신 이재홍 선생이 좀 더 부연하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이재홍 | 선생님, 그전에 그 지형문제.

이희준 | 아, 지형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이재홍 | 저도 지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상고사학회 발표하실 때 곽종철 선생님하고 황상일 선생님이 언급하신 건데 황성동의 주거지들은 대부분 점토층에 위

치한답니다. 그리고 무덤들은 모래층에 위치한답니다. 그러면 왜 점토층에 주거지가 위치하는가에 대해 박종철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거지는 배수라든지 지하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서 점토층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지형의 문제를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상지가 더 비옥하다는 그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력 부분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성동 지형들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지만 의외로 그게 산지와 구릉과 비교해 그 표고차이에 따른 지형의 변수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준 | 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린 거. 목관묘로 볼 때 황성동 분묘군을 남긴 소위 집단, 이거 참 모호한 말입니다만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 즉 황성동 분묘를 남긴 취락이랄까 그런 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일 가능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간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분묘군과 분묘군을 비교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재흥 |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표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유물들이라든지 구조로 봤을 때 그런 기준을 먼저 삼을 수 있겠고.. 제가 발표문에는 적어 놓았지만 고총단계하고 원삼국단계는 집단성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도 황성동에서도 덕천리 단계 같은 무덤도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무덤의 규모나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는 황성동은 규모가 작고 큰 취락도 아니고 취락이 많이 결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계도 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준 | 경주 덕천리 유적, 아시죠? 역시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유적인데, 덕천리 분묘군에서 나타나는 양상하고 비교할 때 덕천리는 어떤 중심취락의 분묘군이랄까, 하여튼 그런 위상을 갖고 있고, 황성동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비교 기준이 결국 목곽묘의 유물하고 규모입니까?

이재흥 | 개별 무덤의 그런 위계라든가 질과 양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로 무덤의 그런 집단성이라든지 그런 규모면도 동시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준 | 그 분묘의 숫자?

이재흥 | 예, 예.

이희준 | 크기, 출토 유물. 그거 당연한데 그걸 어떻게 객관화해서 비교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황성동 분묘군에서는 장신구는 별로 안 나왔는데 그렇죠?

이재흥 | 예, 예.

이희준 | 그러니까 대형 목곽묘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수정제 옥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었죠?

차순철 | 강변로 3호.

이희준 | 강변로 3호?

이재홍 | 강변로에서는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희준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미미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철기는 어떻습니까? 우병철 선생님.

우병철 |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문제는 지금 황성동 46호하고 68호에 보면 어느 정도 아까 목관묘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분묘가 계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 갑자기 이렇게 좀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꼈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 철 생산시스템을 갑자기 황성동 집단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좀 그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위계로 보면 철기유물로 보면 철기유물 자체에 들어가는 목관묘 단계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목곽묘단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전체적인 공간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집단이 약할 수는 있지만 처음 생산할 때부터 황성동 집단이, 철기생산시스템이 갖춰졌을 때부터 황성동에서 바로 그것을 중앙에서 직접 통제했다고는 이렇게 좀 보기가 힘든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철기 양상으로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세기 중엽에서 3세기 중엽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다른 지역하고 크게 우열을 가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좀 대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준 | 예, 대등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대등하다. 모호한 말인데요.

우병철 | 예, 그거 좀 모호한데요. 제가 그...

이희준 | 아까 질문 주고받을 때도 보니까 대등이라는 말로 그냥 답변을 딱 해버리는데, 이 대등이 동등하고 물론 다른데 대등은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거든요.

우병철 | 예.

이희준 |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당장 덕천리의 목관묘에서 유물 나타나는 양상하고 느낌으로 봤을 때는 덕천리 쪽이 뭔가 좀 낯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걸 대등하다고 하면 대등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병철 | 저희 연구원에 김민철선생하고 한 2년전부터 계속 ‘대등정치체 상호작용’이라는, Peer polity interaction(피어 폴리티 인터랙션)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희준 | 예, 그런 의미는 좋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국지 위서 동이전’을 보면 국간에 상당한 국력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들은 대등하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제 한 국 안에서 구조를 따지는 거니까. 다 대등하게 그렇게 있었다 하면 그만이지만 아무래도 위계가 좀 있기는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중심도 있고요. 문헌에서 나오는 걸 갖고 하는 이야기지만, 중심 읍락이 있고 또 읍락이 있다면 읍락 안에서도 또 중심취락이 있고 그것보다 하위취락이 있을 거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등정치체라는 개념을 그대로 국 안에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대등정치체의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한 지방, 이를테면 영남의 각 지역을 서로 비교한다든지 하는 데는 소용이 있는데, 한 지역 안의 구조를 말하는 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철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목곽 바닥에 철모 등을 철도 침목처럼 까는 그런 것도 좀 없고, 또 농기구로 말한다면 따비하고 쇠스랑하고 이런 게 세트로 나온다든지. 또 환두도하고 그 다음에 뿔니까? 아까 말한 장신구로서 수정제 옥 이런 게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강변로 1호에서 그게 있었습니까? 수정제 옥이 나오고, 아, 표비가, S형 표비가 있고 그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 한 기로 그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가 위계를 이야기할 때 늘상 드는 사라리 130호 경우도 그 하나만 보면 사라리 전체가 엄청난 집단같이 생각되지만 그 앞에도 없고 그 뒤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목관묘 단계하고 목곽묘 단계를 같은 레벨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목곽묘 단계 정도 가면은 그런 위계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순철 선생님 뭐 생각이 있으십니까?

차순철 | 약간 좀 늦은 시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성동 고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동혈주부곽식 이혈주부곽식, 병렬식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동국대학교에서 조사했던 것이 20, 24호, 25호, 35, 36호, 33호 이러한 고분들을 보면 이제 나오는 유물로 봤을 때 규모를 떠나 유물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차이를 갖다가 논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 좀 거북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렬식 같은 경우

에 보면 규모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환두대도가 들어가고, 또는 도질토기 대호가 들어가고. 또 동혈주부곽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도가 나오긴 하지만 토기중심의 느낌이 많이 들고. 일부 철모가 나오지만 철도 레일 같이 깔려서 어떤 상태로 보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곽이 있는 22, 24호 같은 경우도 철기만 놓고 본다면 매우 빈약한 느낌이 드는. 그렇게 본다면 다양한 묘제가 존재하지만 그 묘제에 묻힌 피장자들 중에 월등한 어떠한 한 특정인을 상징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강변로 1호 조사하신 분도 계시지만, 황성동 지역에서 다량의 철기 또는 어떤 마구, 또는 수장들의 장신구 이렇게 나오는 지역을 보면 강변로 3호분하고 그다음에 경주의 연구소에서 조사했던 634-1번지 정도에서 나온 수정제 절자옥이라든가 그다음에 철기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그런데 황성동, 지금까지 발굴된 데를 통틀어서 본다면 이재홍 선생이 지적했지만 어떤 갑주라든가 또는 이런 걸 보여주는 존재도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황성동 지역의 고분군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묻혀있고 규모가 크지만 그 자체에서 단발적으로 한 시기 상에서 유력한 개인이 존재한 건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인 고분수준에서 탁월한 어떤 한 묘역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보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건 이재홍 선생님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시다마는. 그 유물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아까 함순섭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평범한 어떤 조그마한 하위집단의 어떠한 묘역으로서 보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서는 거의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희준 | 자꾸 집단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조그맣게 보이는데, 지금 황성동 분묘군을 남긴 집단이라면 상당히 커요. 용강동이고 뭐고 포함해서 굉장히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분묘군 전체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덕천리 말씀하셨지만 덕천리 같으면 덕천리 고분군이 있는 곳만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취락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봐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참고로 거꾸로 투사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 이후 고총단계에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이런 걸 갖고 그 전 단계에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명조 선생님,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손명조 | 아닙니다.

이희준 | 없습니까?

우병철 | 제가 좀.

손명조 | 조금 전에 이제 우철의 차이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 와중에서 아까 철생산집단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황성동유적의 제철유적의 성격은 말입니다, 철을 생산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생산된 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당시의 철의 중요성을 볼 때 철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주고 이 집단을 장악하

는 거지, 기술집단이 그 철 광산을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황성동의 집단 자체는 철을 장악한 집단의 하위집단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단지의 구축이라는 것은 저는 단순히 황성동유적 하나만 이렇게 구축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비슷한 성격의 이런 생산집단들이 황성동뿐만 아니라 경주일원에 몇 군데가 만들어졌고 그 중에 이 황성동유적이 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면 조금 대량 생산화 되는 단계로 간 것뿐이지.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 생산집단과 관련된 무덤의 그 집단자체를 다른 아까 이야기했던 덕천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할 때는 조금 더 차이를 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희준 | 이 문제는 아무래도 토론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주거지, 분묘, 생산 유적, 김권일 선생이 발표문에서 흔히들 그냥 제철유구, 제철유구 하니까 그냥 그렇게 쓰셨다고 하셨는데, 저 어감으로는 아무래도 제철유구 하면은 아, 제련로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철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을 생산한 다음 단계의 철기를 제작하는 거하고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거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황성동유적은 철기생산 관련 유적,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구분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철유적’, 이러면 느낌으로는 분명히 철을 생산하는 유적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조금 구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손명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까 또 누가 황성동유적의 기능에 대해서 누가 김도현 선생이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도현 | 아까부터 계속 우병철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병철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강변로 1호 문제인데요. 덕천리하고 계속 비교되고 있지만 방형의 그런 목곽묘는 김해 양동의 162호나 포항 옥성리 78호나 이런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방형의 목곽묘가 덕천리에는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 건지 집단우열을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희준 | 질문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우병철 | 우열을 황성동 그 당시에 종속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선생님 중에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준 |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 일단 좀 있으면 자연히 답변이 나올 것 같고요. 김도현 선생님.

김도현 | 황성동을 철기 전업집단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전업집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보면,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철 생산만을 한다고 보면, 그 외의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정치체가 단독으로 그걸 다 수급 받을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남에서 거의 최고의 세력을 가진 집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체로 그게 안 되고 그게 가능한 집단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본다면, 철기생산 외에 다른 부분들은 다 공급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만들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체로 우병철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지금 황성동 집단이 종속된 어떤 전업적인 집단이라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우병철 선생님께서는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병철 선생님만 좀 합의를 해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방청객 | 하하하

이희준 | 아니, 우병철 선생님도 그 시기가 있죠? 어느 시기까지는 그랬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우병철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변로 1호 집단이 끝나는 단계부터 그런 종속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친족집단이라는 중심지역에 월성집단이 있다는 가설을 두었을 때, 사촌이나 이렇게 ‘너네 집단이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종속관계로 확정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건데 그것을 완전히 완전 하위집단, 그러니까 관리체계 하의 그런 하위집단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도현 | 강변로. 지금 이거 강변로 1호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2호로 실린 거 아닙니까?

우병철 |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도현 | 발표할 때는 강변로 1호로 하었는데, 보고서를 내면서 2호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 호수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병철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그 호수에서 출토된 꺾수형 표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자꾸 대등한, 동등한 정치체라고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꺾수형 표비를 제외하고 본다면 또 그런 근거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우병철 | 방형의 대형 목곽묘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도현 |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규모 상으로 봤을 때에도 다른 지역과 일정한 격차가 인정됩니다. 사실은 이 무덤 자체도 연속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무덤의 규모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묘광의 면적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부장품의 질과 양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서 꺾수형 표비를 빼고 나머지 유물을 비교했을 때에는 다른 지역의 분묘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현상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도 강변로 2호를 제외한 다른 유구로 본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병철 | 제가 보기에는 그거 철기만 봐서 그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부돌출형 철모라고 이렇게 바닥에 덕천리에도 이렇게 쪽 깔려 나왔는데, 그런 부장 양상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꺾수형 표비나 이게 아무 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어쨌든 완전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완전히 관리라도, 뭐 이렇게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라도 아마 이런 무덤을 쓸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전체적인 양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종속적인 관계로 보기는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준 | 그렇죠. 뭐 종속이니 뭐니 하는 말의 의미가 사실 좀 모호한데, 우리가 아까 계속 말했지만 큰 범위에서 본다면 황성동 분묘군을 남긴 어떤 취락도 여러 종류가 있다 할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수장급에 가까운 인물이 더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요는 그걸 생각해서 황성동 철기생산 관련 유구를 다 하나로 종속된 성격을 가졌다고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김권일 선생이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김권일 |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황성동 집단을 자꾸 어떤 종속이나 관리의 그런 위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풍납토성이나 낙랑토성 등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풍납토성에서도 철기를 제조했던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인성 선생님 계시지만, 낙랑토성에서도 철기를 생산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나 신라가 철 생산이나 철의 유통과 그 유통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단계는 적어도 한 3세기 중반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덕천리나 여러 목곽묘 집단들에서 그 집단들에서 철기를 생산한 흔적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황성동 집단이 철기를 생산했던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철기를 생산을 해서 주변집단에 공급을 하고 대신에 어떤 농업생산품이나 이런 걸 공급받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완전한 종속과 통제의 관계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적어도 황성동 철기생산집단이 월성하고도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3세기 중반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준 | 왜 3세기 중반 이후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김권일 | 경주 신라의 왕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월성지역에서 노형토기 등 이 시기의 유물들이 확인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3세기 중반부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편년한 바에 의하면, 이 시기는 황성동 제철유적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용해 2단계. 그리고 초강공정이나 정련공정 등 고급 철기들이 생산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다른 철기들은 이 시기부터는 어디서 생산을 하나 하면, 3세기 후반내지는 4세기 이후부터는 월성해자지구 계림 남편이나, 또는 최근에 조사되어 주조철부 생산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중산동 중산문화센터 건립부지와 대구 봉무동유적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아마 3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어떤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황성동 집단을 관리하는 어떤 강력한 정치체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명조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세기 중반 이전의 철기생산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각 지역에서 철기를 생산해서 그 사람이 직접 유통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인가요?

김권일 | 3세기 중반까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황성동 집단이 철기를 생산하는 전문집단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경주 지역, 사로국지역에는 황성동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는 형태로서 철기생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강력한 중앙의 통제에 의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준 | 이걸 아마 '위서동이전'에 나오는 소위 국, 무슨 무슨 국이라고 하는 것. 사로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의 구조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도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차순철 선생님.

차순철 | 예, 지금 뭐 약간 좀 다른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에서 경주 쪽에서 목탄요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 경주 쪽에서 목탄요가 조사된 걸 보면 뭐 한두 개는 나오고 있지만 대량으로 조사된 걸 보면 대표적인 게 경마장유적하고 월산리유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월산리유적에 대한 목탄요 조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좀 격자타날이 되어있는 그 토기편이 요 내부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보고서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연대를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마도 아무리 늦어도 아마 4세기보다 내려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경마장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이 중복되어있는 토기가마 연대를 생각한다면 아마 훨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철유적에 있어가지고, 여기 손명조 선생님 계시지만 원료를 갖다가 직접 갖고 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목탄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목탄을 굽지 않는 한 탄요에서 직접 운반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량의 목탄을 운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단순히 그것은 한 지역의 제작자 공인집단이 주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월산리 같은 경우에는 형산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 수운이 가능하고, 경마장부지 같은 경우도 황성동에서 본다면 언덕 그 산 사이 계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연결이 되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제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원형주거의 단계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단야작업보다는 어떤 정련로가 만들어진 단계에서는 어떤 마을 단위에서 마을 하나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노를 이용해서 생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운반시스템과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체적인 존재가 상정이 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황성동이 적어도 노가 운영될 때에는 최소한 국가정도의 어떠한 체제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저도 시스템 상으로 본다면 황성동 제철유적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황성동 전체 또는 그 이상을 관할할 수 있는 어떤 정치체의 역할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김권일 | 그 역시 지금 계속 어떤 황성동 집단을 관리하고 종속시키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정치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정치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치체인지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하는 논의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희준 | 예, 그거는 당시 사로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느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사로국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또 아까 제가 읍락 안의 구조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로국 전체의 관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황성동이 속해 있는 어떤 취락이 말하자면 그것이 속한 읍락의 관할을 받는다고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손명조 |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황성동에 있는 용해로 집단이 이게 새롭게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권일 선생님. 이 황성동 이 용해로를 만든 이 집단의 주체는 도대체 누가 되는 겁니까?

김권일 |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차후의 연구과제로 봅니다.

손명조 | 아니, 그게 마찬가지로 이야기거든요. 그걸. 왜냐 하면 이 그 위의 상충부를 모른다는 말은 이 집단이 생겨나게 된 원인과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서 자기가 철을 생산해서 모든 유통망을 장악해서 여기서 만들었던 사람 같으면 위에 상부조직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될 때 이 주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죠? 그래 누군가에 의해서 이 집단이 만들어지고 이 집단이 만들어진 이유는 뭔가 철광산이 개발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집단이 만들어 지는데 그걸 만든 그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희준 | 자,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도현 | 우병철 선생님하고 김권일 선생님한테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율적으로 3세기까지 아니 강변로 2호분 단계까지, 아니면 3세기 전엽까지 황성동취락이 자율성을 유지하다가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자율성이 없어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계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단계에 그 시기에 그런 계기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유물상에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준 | 그냥 방형목곽묘가 끝나니까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 이유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우병철 | 저는 기본적으로 3세기 중후엽부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해체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주 내에서는 빨리 경주집단을 더 빠른 시기에 통합을 이뤘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 영남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당시가 이렇게 그런 해체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좀 그런 자율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아까 차순철 선생님한테 여쭙보고 싶은 게 3세기, 지금 2세기 후엽까지 지금 이런 철 대량시스템이 이렇게 시기를 올려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강력한 중앙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지금 요즘 울산의 달천광산이나 철 생산도 그럼 그런 울산지역도 중앙시스템 하에 들어가는 건지 그게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희준 | 질문을 차순철 선생한테 했으니까. 일단 차선생이 말씀하시고 부족하면 또 손명조 선생님이 말씀하실 랍니까?

차순철 | 일단 뒤에 손명조 선생님께서 부족한 점을 메워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김권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주라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것의 정치체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펼쳤고, 그것이 하부까지 얼마만큼 갔느냐,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달천광산 같은 경우에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를 했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갖다가 일단은 뭐 1세기 이전부터 채광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서 이제 배소행위라든가 그걸 했는데. 문제는 황성,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울산 달천이 경주에 속했다 안 속했다 이 내용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울산 달천광산에서 비소가 섞여있는 철광석이 생산이 되고 그 철광석이 경주 황성동에 공급이 되어가지고 경주 황성동에서 분명한 어떤 철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천에서 온 것이 철광석이 직접 온 건지, 또는 1차 괴련철이나 해면철이 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달천광산에서 생산한 철을 갖다가 경주로 이동시켜가지고 황성동

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시기, 그것이 2세기가 되든 3세기가 되든 어떤 몇 세기가 되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한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러한 집단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미 경주 신라가, 사로국이 지금 고대국가로서 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건 아마 손명조 선생님께서 더 답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희준 | 더 있으십니까?

손명조 | 아니요.

이희준 | 그런데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권지영 선생하고 이제동 선생이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데 권지영 선생 질문하신 게 있죠? 토기제작 문제. 말하자면 그 토기는 도대체 소위 말하는 황성동 집단 자체가 만든 거냐? 다른 데에서 구입한 거냐? 아마 이것도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죠? 집단들이 그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시기에 물류의 어떤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베이스에서 이루어졌느냐 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김권일 선생이나 우병철 선생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단위들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서 각기 만든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전문화된 집단들이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한 것인지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권지영 선생이 질문하실 때는 뭔가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영 | 황성동유적처럼 철기제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집단이 토기생산, 특히 분묘에 부장되는 의례 관련 물품들까지 직접 생산했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제흥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집단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전문 집단인 황성동유적을 운영하는 상위 정치체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위 정치체들이 전문집단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가정한다면 각 집단에 분배되는 그런 물품들의 종류나 수준까지 관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단의 성격이나 위계에 맞게 분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준 | 사실 정치체 집단이 뭔지 아까 김권일 선생님도 의문을 표했지만, 이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보이는 3세기 중후반의 그림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나라가 있고, 그것이 몇 개의 읍락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보고 그 한 읍락에 하여튼 속했던 것이 황성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위 정치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황성동 분묘군을 남긴 사람들이 속해 있던 읍락 전체 정도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서 토기 생산도 하고 철기도 제작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철기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철기는 아마 중심 읍락이랄까 국읍에서 좀 더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토기 같은 경우는 어쩌면 여기 학생들도 계시고 하니까 알기 쉽게 말한다면 대구의 한 수성구면 수성구를 한 단위로, 말하자면 그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토기에 관해서 이제동 선생님께 여쭙 보겠는데 특별히 야 이거는 저기 조양동 쪽에서 만들어진 거라든지, 또는 이 지역만의 토기 특징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토기 중에 아까 말한 단경호에 대각 달린 것 같은 그런 건 좀 특징적이라고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황성동 말고 다른 데에서도 좀 나왔습니까?

이제동 | 경주 내에서는.

이희준 | 경주 내에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발 언할 기회를 드리는데 지금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씀하세요.

이제동 |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와질소성의 전통이 오랜시간 유지 되는데 이러한 와질계의 소성을 보이는 경우가 황성동유적의 나아가 경주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희준 | 예,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토론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역시 이 황성동유적이라고 해서 황성동만, 물론 그것도 넓기는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단위로 본다면 복합유적으로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그런 유적이지만 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훨씬 더 넓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함순섭 선생도 지적을 했지만, 적어도 북천 북쪽의 들 전체로 한번 보면서 그 전체가 하나의 읍락이고 그 안에서 황성동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결론이라면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표로 몇 대 몇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황성동이 독자적인 세력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속한 세력이나 이 문제는 각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시기로 하고 대략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관련해가지고 황성동, 특히 철기생산 관련 유적의 연구 방향이랄까에 대해,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만든 원흉이 손명조 선생이 그동안 정리를 안 해 놓고 그냥 혼자서 쥐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겠다 하는 말씀 좀 해주시죠.

손명조 | 반성부터 하겠습니다. 황성동을 파고 황성동을 끝까지 다 연구를 못하고 다른 동네가 가지고 다른 거 조사한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황성동에 대한 연구가 제 스스로도 굉장히 미약했다는 것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이 황성동유적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거지가 있어서, 분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철유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분묘, 그러니까 생산집단이죠. 단순히 제철뿐만 아니라 이 황성동 안에는 제철과 열을 이용한 어떤 그런 전문생산 집단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생산집단과 연계된 주거지, 이런 식의 공방, 또 연계된 분묘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사회시스템 구조 속에서 이런 한 파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 황성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제철유적 같은 경우는 어떤 용어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괴런철이 뭐고 선철이 뭐고 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의 개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문제는 지금 많이 조사도 했지만 실질적인 단위별 연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래서 노에 대한 구조 분석. 그다음에 1호가 아까 초강로인지 정련로인지. 그다음 분석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연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 황성동 집단의 성격에 접근하는 게 제철유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거꾸로 분묘유적이거나 이 주거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너무 개별적인 유구나 유물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하다보니까 정말 황성동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큰 의미를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황성동은 단순히 경주에 있는 황성동이 아니라 어떤 당시 삼한사회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열쇠고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열심히 황성동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하시는 겁니까?

방청객 | 하하하

이희준 | 하여튼 몇 년 안에 그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주목합시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증인들입니다. 예, 아까 시작할 때는 야, 이거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서 진행하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두서는 없어도 이런저런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 더 많은 기회를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내용이 좀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시고 이런 정도로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또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慶山 林堂地域 古墳의 大壺 副葬과 그 意味

張容碩* · 金大郁**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대호의 부장양상과 그 의미 |
| II. 대호의 개념 및 형식 분류 | V. 맺음말 |
| III. 임당유적 내 대호의 부장사례 검토 | |

I. 머리말

경산 임당유적은 경산지역을 대표하는 중심유적으로서 1982년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임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봉토분인 2호분 및 5·6·7호분의 발굴조사로부터 최근까지 인접한 조영동, 부적리, 신대리 등에서 1,500기 이상의 고분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출토유물도 2만여 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듯 고분에 대한 집중적인 발굴조사 결과,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기원후 7세기 후반대에 이르는 긴 세월동안 연속적으로 유적의 조영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묘제(김용성 1998 ; 김수남 1999 ; 이한주 1999 ; 김대욱 2006) 및 유물(김은주 2006 ; 김재열 2007)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통해 ‘國’ 단계에서 ‘國家’ 단계로 발전해가는 양상의 밑그림을 대강이나마 그릴 수 있게 해 주었다(장용석 2007).

특히 임당유적은 고분자료 뿐만 아니라 방어시설인 토성, 생활유적인 취락지 및 저습지가 함께 분포하고 있는 복합유적이 밝혀졌으며, 이 유적들이 임당유적 내에서 어떠한 공간에 입지하고 있으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과정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까지 진전된 상태이다(장용석 2007). 최근에는 임당유적 高塚에서 나타나는 제의 흔적과 부장품의 배치 양상을 통한 장례의 과정 및 유물 조합의 분석을 통한 당시 사람들의 사후관에 대한 연구(김용성 2008b)와 고고자료를 통해서 고대 경산지역 사람들의 식생활 양상을 다룬 연구(김대욱 2008)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경산지역의 고대사를 복원해 가고 있다.

본 글은 최근 필자들이 임당유적의 유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총과 그 주변에서 출토되는 대호에 주목하였으며, 대호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의례 및 생활문화의 일단을 살펴보기 위하여 준비하게 되었다. 대호는 임당유적의 5~6세기대 고총의 부곽 또는 주구, 중·소형 고분의 부곽에서 대다수 출토되며 다른 지역의 고총에 비해 상당히 많아 적게는 1~3점, 많게는 8~9점이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 嶺南大學校博物館

한 부곽 내에 부장되었다. 대호가 고총의 부곽 또는 봉토 내, 주구 등에서 확인됨에 따라 대호는 현재까지 주로 부장용 또는 제사유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대호의 부장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었으며¹⁾, 다만 대호의 제작기법(곽종철 1987)이나 제작과 유통에 있어서 귀한 용도로 사용되었거나(영남대학교박물관 2006), 음식문화와 관련하여 저장용 토기로 사용되었다(김대옥 2008)고 언급한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호의 개념과 그 유물의 속성을 살펴본 후, 대호의 구체적인 출토 사례를 통해 임당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대호의 부장과 그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의 시간적인 범위는 임당지역에서 고총 축조기로 평가되는 임당G-5·6호 단계부터 석실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이전 단계가 될 것이며, 공간적인 범위는 임당유적에 한정하였음(장용석 2008)을 밝혀 둔다. 본고는 고분 내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 가운데 대호라는 한 가지 유물만을 대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고분연구의 한 부분 밖에 되지 않지만, 전술하였듯이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대호의 개념 및 형식 분류

1. 대호의 개념

대호의 개념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첫째는 대호라는 유물이 과연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모양의 토기를 대호로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호와 웅의 구분에 대한 문제로 대호 또는 대웅이라는 동일한 유물을 두고 발굴조사자 또는 보고자가 각기 다르게 부르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모양의 토기를 대호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발굴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연구자인 경우 경험적 또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후술하겠지만, 대호는 그 계통이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원삼국시대 웅관의 형태에서 비롯되어 도질토기의 재질로 변화된 것과 전시기의 단경호에서 점차 크기가 커져 대호가 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중 前者인 대호의 경우, 웅관의 형태를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크기나 형태, 기벽의 두께 등에서 다른 토기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해 보인다²⁾. 그러나 단경호에서 크기가 커지는 경우는 <그림 2. 대호의 높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크기가 순차적으로 나열될 수 있어 대호와 단경호와의 분명한 경계를 그을 수가 없다.

-
- 1) 고고학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도 유물의 특징에 대해서만 보고가 이루어질 뿐, 출토에 따른 의미 분석 및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 2) 원삼국시대의 와질 웅관과 삼국시대의 대호 간에는 엄청난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도질토기의 등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도질토기의 등장은 토기제작에 있어 새로운 기술의 혁신으로 가능하였으며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짐작된다(영남대학교박물관 2006 ; 김대옥 2008).

따라서 단경호와 대호의 경계에 대한 문제를 제작기법 또는 제작방법 등의 문제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즉, 단경호는 목이 짧고 제작 기술에서 내·외면에 내박자 및 타날흔이 관찰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고, 대호는 목이 短頸壺보다 中頸壺에 가까울 정도로 길어지거나 또는 肩部에 이(耳)가 2~4개까지 부착되기도 한다. 그리고 내·외면에 내박자 및 타날흔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³⁾. 이러한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단경호와 대호의 器高는 대략 45~50cm 정도에서 그 경계를 찾을 수 있겠다⁴⁾.

다음은 壺와 甕의 명칭에 대한 문제로 호와 옹의 사전적 定義⁵⁾는 다음과 같다. 호는 ‘술병이나 단지, 주전자’ 등을 말하며, 옹은 ‘술이나 젖을 담는 독, 항아리’를 가리킨다. 즉, 호는 ‘물이나 술 등을 담는 비교적 소형의 容器’이며, 옹은 ‘술이나 젖을 담되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비교적 큰 용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본고에서 논의되는 큰 항아리는 ‘大甕’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옹’이라는 개념에는 원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진 甕棺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지 대옹보다는 대호라는 용어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는 큰 항아리는 暫定的으로 ‘大壺’로 명명하고자 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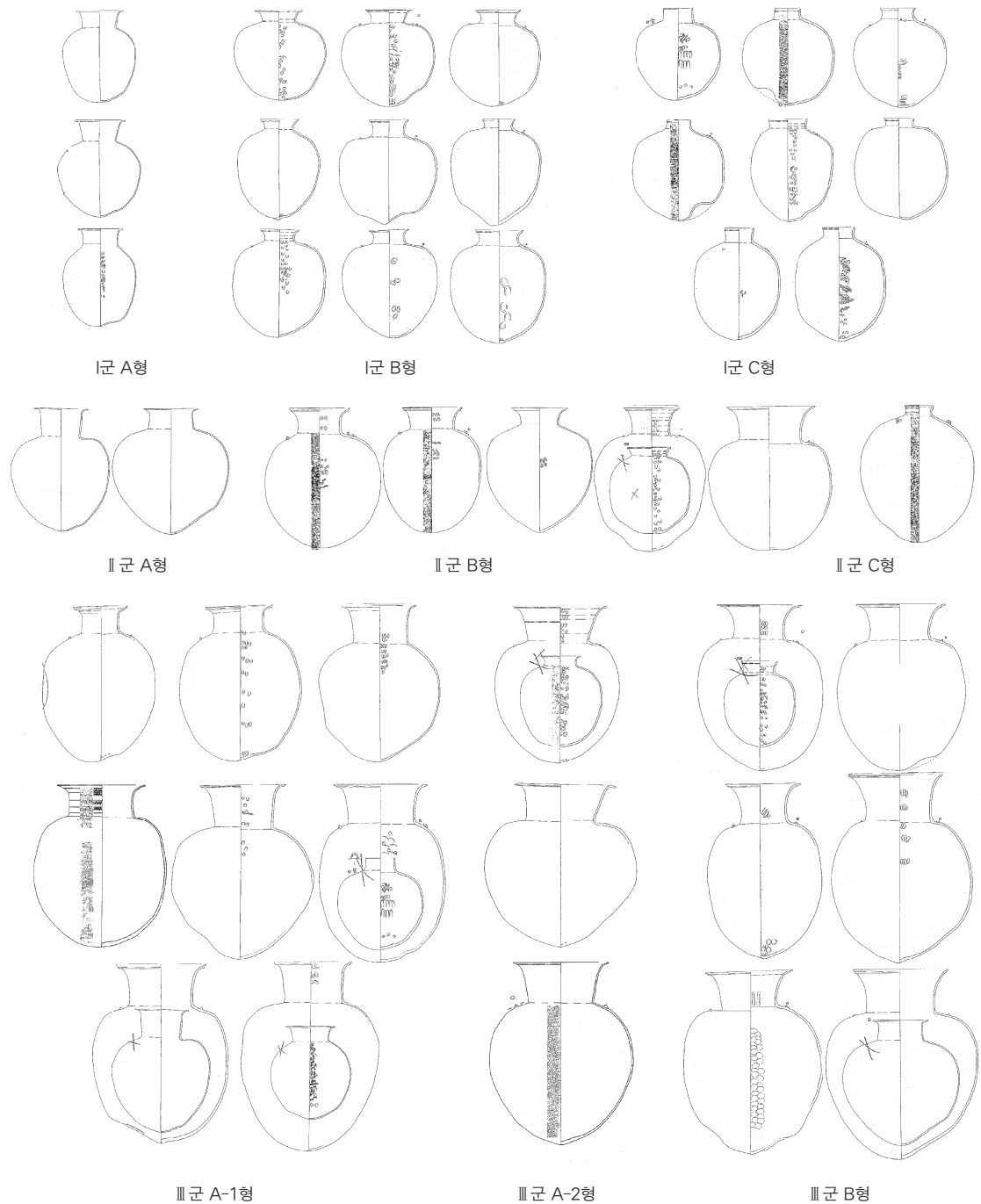
2. 대호의 형식과 특징

임당유적에서 대호는 백 여점 이상 출토되었으나, 본고에서는 嶺南大學校博物館에서 발굴조사되어 정식보고가 이루어진 고총의 출토품에 한정하여 대호의 형식을 구분하였다.

대호의 형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속성은 호의 높이, 구경의 너비, 동최대경의 크기 변화 등이다. 이러한 속성은 <표 1. 대호의 속성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호의 높이가 커질수록 구경과 동최대경이 커지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의 크기 변화를 형식 구분의 제1기준으로 삼고 각 형식 내에서 구경의 형태나 높이 변화 등을 그 다음 세부 속성변화의 기준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대호는 그 높이에 따라 크게 I 군과 II 군, 그리고 III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I 군은 대호로 정의되는 50cm전후에서 70cm, II 군은 71cm에서 90cm, III 군은 91cm에서 110cm 이상 정도로 볼 수 있다. I 군과 II 군은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3개의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연부가 사방향 또는 직선으로 직립하다가 구연단만 외반하는 A형, 사방향으로 둥글게 외반하는 B형, 그리고 짧게 직립하는 C형으로 구분된다. III 군은 C형이 없는 반면에 A형에는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직립한 A1형과 사방향으로 곡선을 이루는 A2형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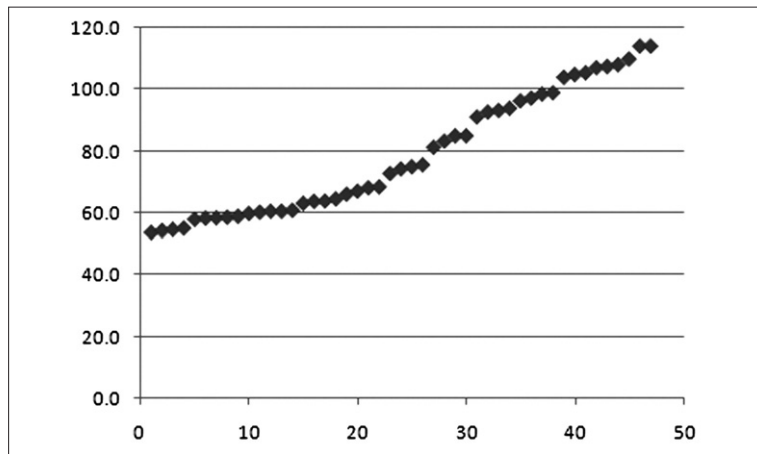
-
- 3) 대호의 내·외면에 타날흔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성형후 물손질로 인하여 지워졌기 때문이다.
 - 4) 단경호와 대호의 제작에 관한 문제는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지만,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대호의 제작과 생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 5) 호나 옹의 사전적 의미는 中韓사전에서 정의한 바를 따랐다. (『中韓辭典』 1989, 高大民族文化研究所 發行)
 - 6) 일부 발굴조사 보고서의 경우 본고에서 다루는 대호를 대옹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대호 또는 대옹으로, 또 어느 정도 크기의 토기를 대호 또는 대옹이다”라고 定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이러한 정의의 기저에는 고고학 발굴조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가진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입장에서 습관적으로 유물에 대한 명칭이 부여되는 과정이 들어있는 데, 이는 비단 대호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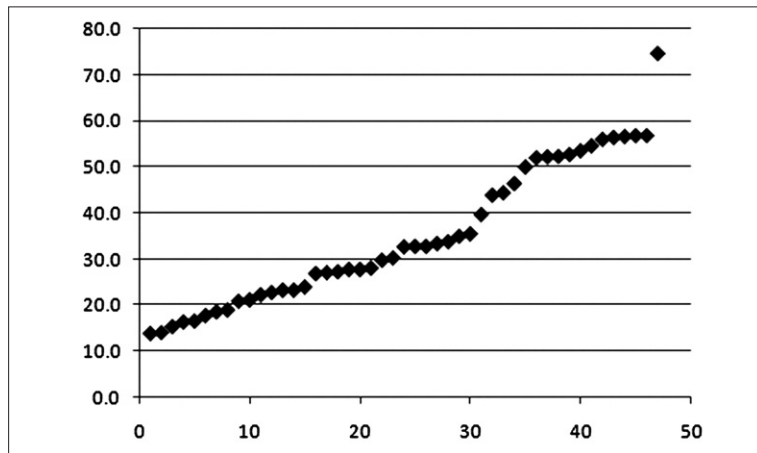
〈그림 1〉 대호의 형식분류

〈표 1〉 대호의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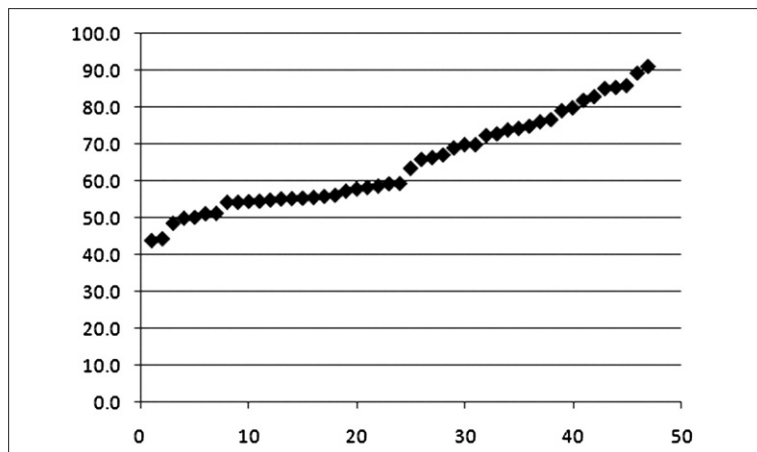
크기(높이, 구경, 최대경)	형식	유구명	편년
54.4cm, 29.8cm, 58.4cm	I 군B형	임당G6호묘	4C 3/4
60.3cm, 20.9cm, 56.3cm	I 군B형		
63.9cm, 23.3cm, 55.5cm	I 군B형		
60.9cm, 22.8cm, 48.7cm	I 군C형	임당7A호분 부곽	5C 1/4
85.0cm, 32.7cm, 66.0cm	II 군B형		
63.8cm, 19.0cm, 54.4cm	I 군B형		
67.1cm, 16.6cm, 51.4cm	I 군C형	조영C II-1호분 부곽	5C 1/4
68.5cm, 18.6cm, 54.4cm	I 군C형		
54.8cm, 16.4cm, 51.3cm	I 군C형		
107.0cm, 56.8cm, 76.2cm	III 군A-1형		
60.6cm, 22.3cm, 50.1cm	I 군B형	조영C II-2호분 부곽	5C 1/4
58.5cm, 26.9cm, 54.7cm	I 군B형		
63.2cm, 23.3cm, 58.8cm	I 군B형		
68.2cm, 27.8cm, 57.4cm	I 군B형		
60.6cm, 13.9cm, 55.0cm	I 군C형		
66.1cm, 17.8cm, 55.7cm	I 군C형		
58.7cm, 14.1cm, 55.3cm	I 군C형		
85.0cm, 52.2cm, 74.0cm	II 군B형		
98.9cm, 52.3cm, 76.8cm	III 군B형		
93.2cm, 56.0cm, 74.4cm	III 군A-2형		
98.5cm, 50.0cm, 75.0cm	III 군B형	임당7B호분 부곽	5C 2/4
53.8cm, 27.3cm, 54.6cm	I 군B형	임당7C호분 부곽	5C 2/4
58.0cm, 27.8cm, 56.0cm	I 군B형		
81.3cm, 15.4cm, 67.2cm	II 군C형	조영C I-1호분 부곽	5C 3/4
74.3cm, 35.5cm, 59.5cm	II 군B형	조영C I-2호분 부곽	5C 3/4
83.3cm, 35.0cm, 70.0cm	II 군A형		
103.9cm, 56.8cm, 85.5cm	III 군A-1형		
59.9cm, 21.2cm, 55.4cm	I 군C형	조영E I-1호분 부곽	5C 3/4
64.6cm, 24.0cm, 58.0cm	I 군B형		
105.4cm, 44.4cm, 69.1cm	III 군B형		
109.8cm, 52.7cm, 85.2cm	III 군B형		
114.0cm, 46.4cm, 83.0cm	III 군A-1형	조영E I-2호분 부곽	5C 3/4
55.2cm, 28.1cm, 44.0cm	I 군A형		
58.4cm, 30.3cm, 50.3cm	I 군A형	임당2북호분 부곽	5C 4/4
59.0cm, 27.1cm, 44.5cm	I 군A형		
75.6cm, 33.4cm, 63.6cm	II 군B형		
108.0cm, 54.6cm, 82.0cm	III 군A-1형		
72.8cm, 32.8cm, 59.4cm	II 군A형		
114.0cm, 56.6cm, 91.2cm	III 군B형		
75.0cm, 32.8cm, 70.0cm	II 군A형		
92.7cm, 39.7cm, 72.9cm	III 군A-1형		
93.9cm, 43.9cm, 72.5cm	III 군A-1형		
107.4cm, 53.5cm, 80.0cm	III 군B형	임당5B1호분 부곽	5C 4/4
91.1cm, 33.8cm, 66.5cm	III 군A-2형	임당5C호분(부곽형)	6C 1/4
96.3cm, 74.6cm, 89.4cm	III 군A-1형		
97.2cm, 52.0cm, 79.2cm	III 군A-1형	임당7호 옹관	-
104.8cm, 56.4cm, 86.0cm	III 군A-2형		



〈그림 2〉 대호의 높이



〈그림 3〉 대호 구경의 크기



〈그림 4〉 대호 동최대경의 크기

Ⅲ. 임당유적 내 대호의 부장사례 검토

임당유적 내 대호의 부장사례는 분묘 및 그 관련시설과 생활유구에서 확인되는데 먼저 분묘와 그 관련시설에서 출토되는 사례로는 1) 고총 내 2) 중·소형 분묘 내 3) 분묘 관련시설인 봉토 및 주구에서 출토되는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고총 내 대호 출토사례

유구명	출토위치	수량(점)	비 고	보고서
임당G-6호묘	부곽	2	일부파괴	9
임당2북호분	부곽	8		5
임당5A호분	5A·5B1호의 호석 바깥	다수		6
임당5B1호분	부곽	2		6
임당5C(부곽형)	부곽	9		6
임당7A호분	부곽	3		7
임당7A-2호(부곽형)	부곽	2	도굴	7
임당7B호분	부곽	2		7
임당7C호분	부곽	2		7
임당7호옹관	옹관	2		7
조영CⅠ-1호분	부곽	1	단경호 다수부장	3
조영CⅠ-2호분	부곽	3		3
조영CⅡ-1호분	부곽	5		3
조영CⅡ-2호분	부곽	9		3
조영EⅠ-1호분	부곽	4		4
조영EⅠ-2호분	부곽	1	부곽규모小	4

〈표 3〉 중·소형 분묘 내 대호 출토사례

유구명	출토위치	수량(점)	비 고	보고서
조영1A-1호묘	부곽/1	1		1
조영1B-2호묘	부곽/1	1	부곽형 또는 묘사유구	2
조영1B-16호묘	부곽/1	1	결실	2
조영1B-54호묘	부곽/1	1		2
조영1B-66호묘	부곽/1	1		2
임당G-3호묘	부곽/2	2	결실	10
임당G-52호묘	부곽/1	1	53호의 부곽, 결실	10
임당G-58호묘	부곽/1	1	59호의 부곽	10
임당G-70호묘	부곽/1	1	69호의 부곽, 결실	10
임당G-77호묘	부곽/1	1	76호의 부곽	11
임당G-88호묘	부곽/1	1	89호의 부곽	11
임당G-123호묘	부곽/1	1	122호의 부곽	11
임당E-50호묘	주곽충전부/1	1	의도적 충전	13
임당E-83호묘	부곽/1	1	결실	13
임당E-90호묘	부곽/2	2		13
임당E-101호묘	부곽/1	1		13
임당E-129호묘	부곽/1	1	결실	13
임당E-134호묘	부곽/1	1	결실	13

이상의 출토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고총 내 대호의 출토사례를 보면, 대호는 임당동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고총으로 이해되고 있는 임당 G-5·6호묘 중 先築된 G-6호묘의 부곽과 임당동, 조영동 고총의 부곽 및 호석 바깥, 그리고 副槨形墓에서 확인 된다⁷⁾. 예외적인 사례는 대호가 옹관묘로 사용된 임당7호 옹관 뿐이다. 조영C I-1호분의 경우처럼 부곽에 단경호가 25점 이상 부장되면서 대호의 부장이 1점인 예와, 조영E I-2호분의 경우처럼 부곽의 규모가 상당히 적어 1점이 부장된 예를 제외하면 임당유적의 고총 부곽 내에는 최소 2점에서 많게는 8~9점 정도가 부장되었다. 또한 임당5A호분과 5B1호분의 동남편 호석 바깥⁸⁾에 접하여 다수의 대호가 파괴된 채 출토되었는데, 이는 두 무덤의 축조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된 祭儀行爲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용성 2008b). 그리고 임당5C호와 7A2호 처럼 주곽없이 독립된 副槨形墓⁹⁾의 내부에서도 각각 9점과 2점이 부장되었다.

중·소형 분묘 내에서는 대호가 1점 또는 2점이 부장되었는데, 거의 다 부장곽 또는 부곽에서 출토되었다. 이는 동시에 부곽이 축조되지 않은 무덤에는 부장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외적인 사례는 임당E-50호묘의 경우인데, 주곽의 충전부에 의도적으로 대호의 편을 충전하였다.

봉토 및 주구 내 대호의 출토사례를 살펴보면, 고총 출현기인 임당G-5·6호묘의 봉토와 주구 내에서 다수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후부터 임당유적의 고총은 C I·II 호분¹⁰⁾ 및 E III-2·3·4·6호 묘를 제외하고 모두 고분의 境界로 周溝 대신 護石을 採用함으로 주구 내 副葬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임당 C지구, E지구, G지구 등에 造營된 중·소형묘 가운데 일부의 묘 주변에서 제의유구로 추정되는 원형 또는 부정형의 수혈바닥에서 대호의 상부 및 구연부 대부분이 결실된 채 출토되기도 한다. 이 외에 생활유구인 임당 F II-7호 주거지의 주구에서, 그리고 임당 I 지구에서는 4기의 事例에서 변소¹¹⁾로 대호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7) 임당고분군 외에 주·부곽이 분리되어 있는 고총 가운데 주곽에서 출토된 예가 2곳에서 확인되는데, 대구 불로동고분군과 경주 황남동 110호분의 경우이다. 불로동고분군 91호분 1槨의 경우 주·부곽이 분리되어 있으나 대호 1점이 주곽의 내부에서 출토된 바 있다(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그리고 경주 황남동 110호분의 주곽에서 견부에 이(耳)가 4개 부착된 사이부호 2점이 출토되었으며, 器高는 50cm이다(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8) 경주 미추왕릉 D지구 고분군내 제1호묘 주곽의 호석 동북부 바깥 제2부곽에 연결하여 대옹군이 있는데, 대옹 2개가 竝立하고 있다(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호석 바깥에 위치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출토양상이 서로 다른점으로 보아 그 용도도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당자료가 제의행위와 관련 있다면, 미추왕릉지구 자료는 대옹이 병립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내부에 음식물을 담아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9) 일반적으로 임당유적 대형분들의 주곽과 부곽 사이 간격이 1m 이상을 넘는 것이 없는데, 두 묘는 주곽형 묘곽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곽형묘로 명명하였다. 보고서 출처번호 6·7번 참조. 또한 두 무덤의 내부에서는 순장자로 판단되는 1軀와 2軀의 人骨이 각각 출토되었다.

10) C I 호분의 경우, 봉토의 기저 남측 가장자리에서 川石들이 일부 놓인 석렬들이 발견되었으나 봉토축조시 가장자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작업시 유입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嶺南大學校博物館 1999).

〈표 6〉 영남지방 고총 내 대호 출토사례

유구명	출토위치	수량(점)	편년	비 고
대구 불로동 91호분 1곽	주곽	1	5C 2/4~ 5C 4/4	
대구 불로동 91호분 4곽	부곽	2		
대구 불로동 93호분	부곽	1		교란층 출토
대구 문산리 1-2호묘	주곽 남단벽	1	5C 2/4 이후	부곽 없음
대구 문산리 1호분	주구	7		
대구 문산리 2-2호묘	주곽 북단벽	1		부곽 없음
대구 문산리 2호분	주구	4		
대구 문산리 3-3호묘	주곽 북단벽	2		부곽 없음
대구 문산리 3-5호묘	주곽 북단벽	1		부곽 없음
대구 문산리 3호분	주구	9		1차 주구-2점 2차 주구-7점
대구 문산리 3호분	성토정지층	1		
대구 문산리 4-4호묘	주곽	1		부곽 없음
대구 문산리 4호분	주구	5		
대구 문산리 M2-1호묘	부곽	1		
대구 문산리 M2호분	주구	2		
대구 성산리 1호분	부곽	1	5C 4/4	
대구 성산리 1호분 5곽	주곽	1		부곽 없음
대구 성산리 1호분 8곽	주곽	1		부곽 없음
의성 탐리 3호분 2곽	부곽	1		서쪽 토기군
경주 황남대총 남분	부곽	45	5C 3/4	부곽 밑바닥층
경주 황남동 110호분	주·부곽	주2,부4	5C 2/4	주·부곽식묘
고령 지산동 32호분	墓祀遺址	1		
고령 지산동 33호분	墓祀遺址	2		
고령 지산동 34호분	墓祀遺址	1		
고령 지산동 35호분	墓祀遺址	1		
창녕 교동 2호분	주곽	4	5C 4/4	횡구식석실묘
합천 옥전 M3호분	부곽	2	5C 4/4	
합천 옥전 M4호분	주곽 발치쪽	2	6C 1/4	부곽 없음
합천 옥전 M6호분	주곽	1		부곽 없음
합천 옥전 M7호분	부곽	2		
합천 옥전 M18호분	상부출토	1		
창원 다호리 B1호분	주구	15	6C 1/4	

※ 영남지방의 모든 고총 자료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대표적인 고분의 자료만 이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11)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변소가 확인된 곳으로는 新羅王京遺蹟 第13家屋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報告書에 의하면 변소의 축조는 대호 1점을 直立한 다음, 주변에 敷石을 설치하였다. 대호의 크기는 器高 98.5cm, 口徑 46cm 정도이며, 지부는 25cm 정도 뚫려 있었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한편, 이 시기 영남지방 고총의 대호 부장양상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자. <표 6>을 참조할 때, 경주 황남대총 남분의 경우 부곽 내에서 무려 45점의 대호가 부장되었는데, 이 무덤은 지금까지 경주지역에서 조사된 王墓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적석부를 가진 적석봉토분 중에 가장 완성된 무덤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용성 2008a). 또한 대구 문산리 고총과 창원 다호리 1호분의 경우는 주구 내에서 다수의 대호가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령 지산동의 경우는 각 분묘 봉토내의 호석 基部에 대호를 1~2개 內藏하였다(김종철 1981). 아울러 부곽이 없는 경우는 주곽의 모서리에 부장하기도 하며, 대구 불로동 91호분 1곽과 황남동 110호분의 경우는 부곽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자는 주곽에, 후자는 주·부곽에 모두 부장한 것이 다른 고분과는 비교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당시 영남지방에 축조되어 있던 고총의 경우도 대부분 대호의 부장은 부곽 내에 이루어지며, 주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구 내에 다수의 대호를 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임당유적 고총과 기타지역 고총간의 차이점은, 前者의 경우 부곽 내에 2점에서 많게는 9점까지 다수가 부장되는데 비해, 後者の 경우는 부곽 내에 1~2점 밖에 부장되지 않는다¹²⁾는 점이다. 둘째는 임당유적 고총의 경우 고분의 境界를 周溝 대신 護石을 채용함으로써 주구 내 副葬은 G-5·6호 이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기타 지역의 경우 6C 전반으로 편년되는 창원 다호리 B1호분의 주구 내에 다수의 대호가 부장되는 점이 큰 차이로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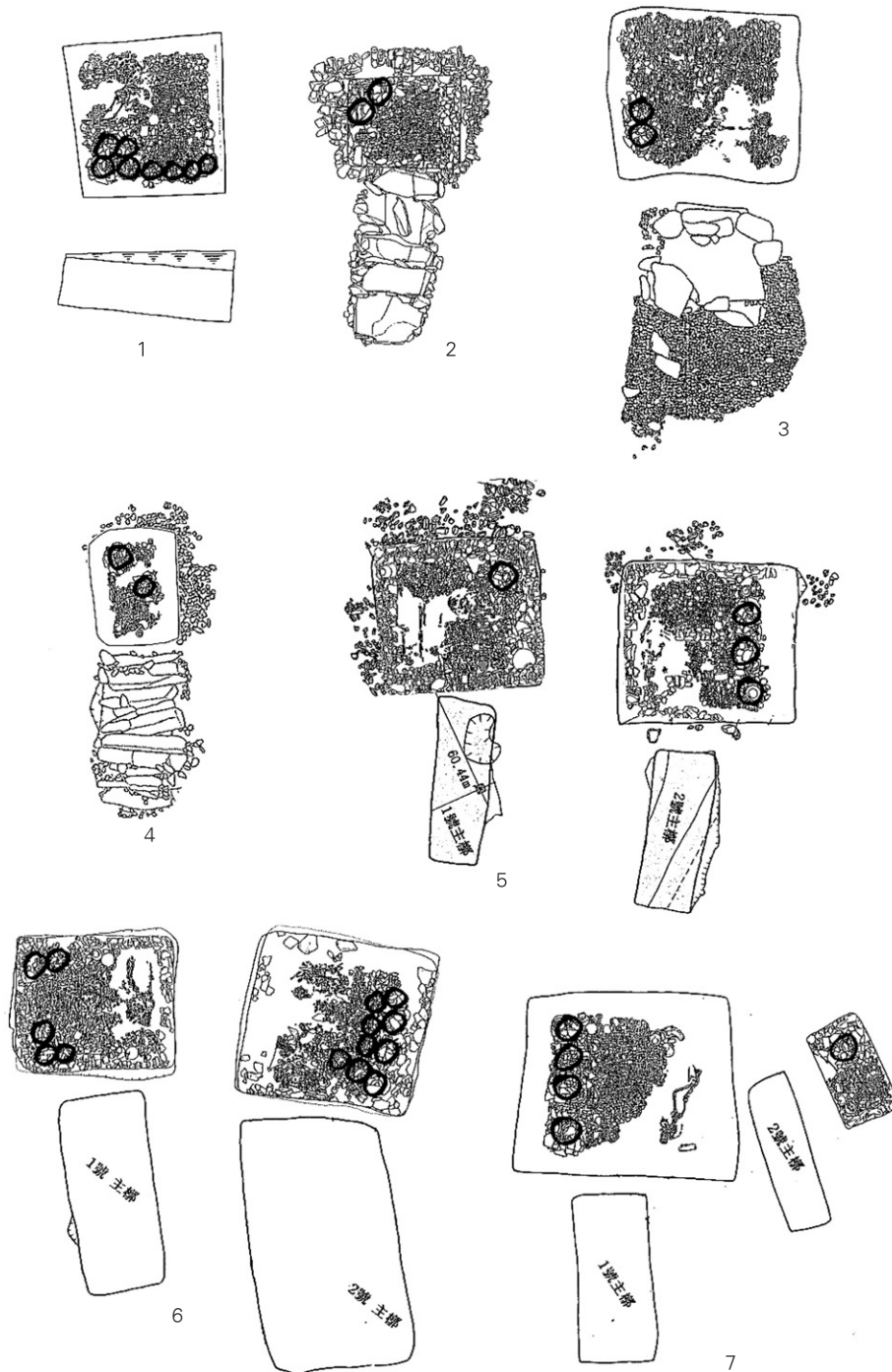
Ⅳ. 대호의 부장양상과 그 의미

여기서는 대호의 출토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호의 부장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호의 副葬 時期¹³⁾부터 살펴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임당유적 내 고총이 발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임당 G-5·6호묘에서 대호가 가장 먼저 부장되는데, G-6호묘의 부곽과 G-5·6호묘 각각의 봉토와 주구 내에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대호가 고총의 부장 유물 또는 제사유물로 사용되는 시점을 알 수 있다. 이후 5세기대의 고총고분 내에는 대호가 반드시 부장되었으며 장경호, 단경호, 양이부호 등 다른 종류의 壺類와 同伴하면서 적게는 1~2점, 많게는 8~9점까지 부장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동시기 고총의 경우,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총의 부곽에 대호가 부장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부곽을 설치한 다음, 부곽의 가장자리나 모서리 공간에 1열 또는 2열로 대호를 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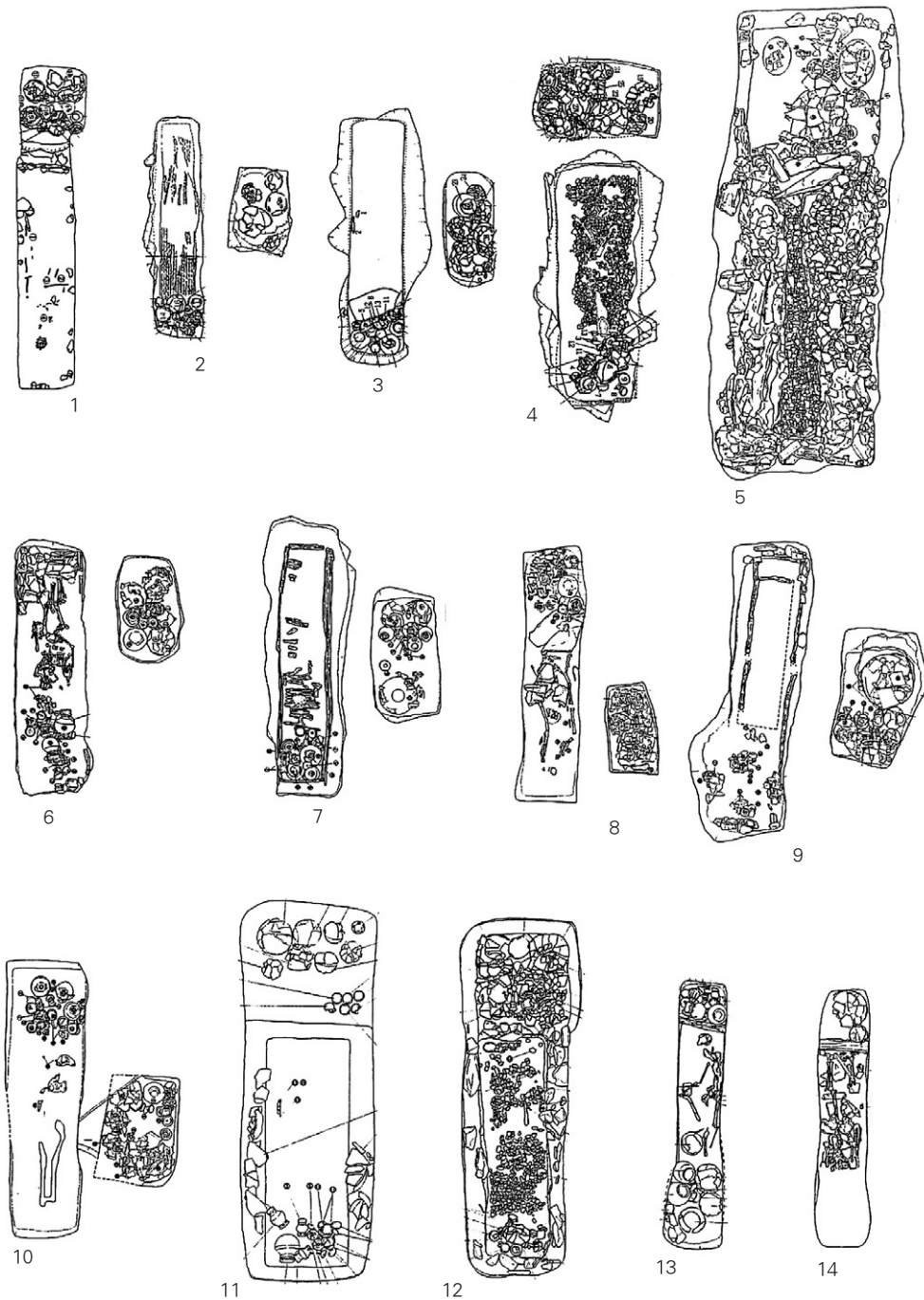
12) 경주지역은 예외임을 밝혀둔다.

13) 임당유적 이외에서 대호가 무덤에 부장되기 시작하거나 전용옹관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4세기 중반부터라고 생각된다. 부산 북천동고분군의 경우 4세기 4/4분기로 편년되는 54호 목곽묘의 경우 부곽에서 3점이 원형구덩이에 동체부의 절반 정도가 묻힌 상태로 안치되어 있었으며(釜山廣域市立博物館, 2001, 『東萊福泉洞古墳群-52·54號-』,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研究叢書 第11冊), 창원 삼동동 옹관묘의 경우 4세기대의 노형기대를 막음옹으로 한 2·4·5·8·10·12·15·25·26·27·30호 묘에서 대호가 전용옹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부산여지대학교박물관, 1984, 『昌原 三東洞 甕棺墓』, 부산여자대학박물관 유적조사보고 第1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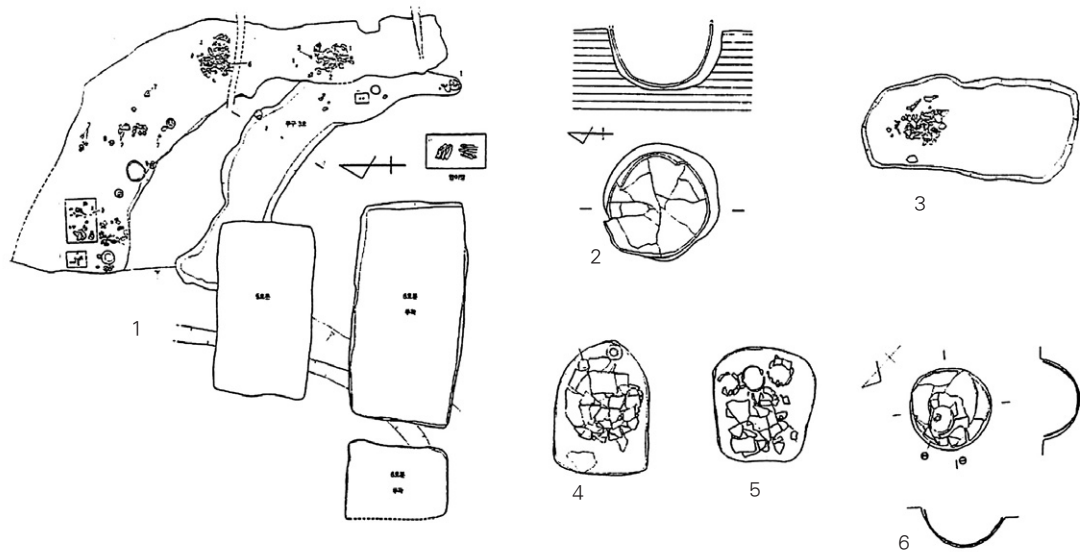
〈그림 5〉 고창 내 대호의 출토양상

1: 임당2호분 북분, 2: 임당5B1호분, 3: 임당7B호분, 4: 임당7C호분
5: 조영C I-1·2호분, 6: 조영C II-1·2호분, 7: 조영E I-1·2호분



〈그림 6〉 중 · 소형 분묘 내 대호의 출토양상

- 1: 조영1A-1호묘, 2: 조영1B-16호묘, 3: 조영1B-54호묘, 4: 조영1B-66호묘, 5: 임당G-3호묘
 6: 임당G-52호묘, 7: 임당G-58호묘, 8: 임당G-77호묘, 9: 임당G-88호묘, 10: 임당G-123호묘
 11: 임당E-50호묘, 12: 임당E-90호묘, 13: 임당E-129호묘, 14: 임당E-134호묘



〈그림 7〉 주구 및 제사유구 내 대호의 출토양상

1: 임당G-5·6호묘, 2: 임당G-125호묘, 3: 임당C-117호묘, 4: 임당E-8호묘
5: 임당E-15호묘, 6: 임당E-61호묘 제사유구

저 부장한 후, 주변에 소형의 각종 토기 및 철기류, 殉葬者 등을 차례로 부장 또는 안치하였다. 이때 대호의 부장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순장자가 안치되는 양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순장자의 안치를 가장 늦게 실시한 證據가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순장자의 위치가 대체로 부곽의 가장 자리쪽에 배치되고, 주변의 일정공간에 유물이 배치되지 않는 양상이 看取되기 때문이다.

부곽이 설치된 중·소형 분묘에는 대호가 1점 또는 2점이 부장되며 대체로 높이가 70cm 미만의 I 군 대호가 많은 편이다.

이상과 같이 고총과 중·소형분묘 간에 대호의 부장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부장 공간의 면적 및 피장자의 성격 차이 때문에 생긴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즉, 중·소형 분묘의 주·부곽은 상대적으로 고총의 그것에 비해 占有空間이 적기 때문에 대호를 비롯한 각종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도 제한되었다. 다만, 대호가 반드시 부곽에 부장되었다는 것과 고배나 장경호 등의 제사와 관련한 특정한 유물은 최소한의 수량이 꾸준히 부장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황남대총을 포함한 임당유적 고총의 예를 통해 볼 때, 대호의 다량 부장은 당시 權力의 最高頂點에 위치하고 있던 주피장자들의 權威를 象徵하는 유물 가운데 하나로 기능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해본다. 후술하겠지만, 대호는 그 제작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물품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대호 부장양상 변화를 살펴보겠다. 대호가 본격적으로 부곽에 부장되는 5세기 1/4분기에는 I 군의 부장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III 군의 대형 대호의 부장은 적

은 편이다. 이는 5세기 2/4분기까지도 유지되다가 5세기 3/4분기, 4/4분기에는 I 과 II 군 대호의 부장이 줄어들고 III 군의 대형 대호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장된다. 이는 고분 내에 부장함에 있어 부장의 양을 극대화하려는 효율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함께 5세기 1/4분기로 편년되고 있는 임당7A호분, 조영CⅡ-1·2호분 단계에 이르면 이미 3~9점 정도의 대호를 부곽에 부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동시기 영남지방의 다른 고층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후 임당유적의 고층에서는 6세기 1/4분기로 편년되는 임당5C 부곽형 묘까지 계속해서 다수의 대호가 부장된다. 반면, 다른 지역에 분포하는 고층의 경우는 대체로 5세기 2/4분기 경에 이르러 부곽 또는 주구 내에 부장되기 시작하는데, 대구 불로동고분군, 대구 문산리고분군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대구 문산리고분군 1·2·3·4호분의 경우는 주구 내에서 4~9점의 대호가 출토되는데, 이는 동시기 영남지방의 다른 유적과 비교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5세기대의 대호부장양상은 유적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展開되는데, 경산 임당유적처럼 고층의 부곽 내에 주피장자와 관련된 권위의 상징으로 부장되는 경우와 대구 문산리 유적처럼 고층의 부곽 내에는 1~2점만 부장되는 반면, 제사와 관련된 주구에는 다량의 대호를 부장하는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분명한 점은 前者의 경우는 주피장자와 관련된 부장의 의미가 강조된 반면, 後者は 부장의 의미보다는 제사와 관련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장양상은 임당유적 고층에 부장되는 대호의 수가 동시기 다른 유적의 고층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아직 임당유적 주변에서 대호가 생산되는 가마¹⁴⁾는 확인되지 않지만, 앞서 <표 2>에서와 같이 많게는 8~9점까지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특별히 고층에 부장하기 위하여 제작한 당시 최고의 고난이도 물품으로서, 대호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작자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제작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유추해 보면, 대호는 고층에 부장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된 것으로 그 생산과 유통에 있어 특별한 제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대호의 기능과 상징성 부분으로, 대호는 분명 식료품의 저장고로서의 기능을 하였을 것(김대욱 2008)으로 추측된다. 이는 고층의 부곽에서 범씨가 함께 출토되거나 복숭아씨 등의 저장에 가능한 음식물들이 함께 출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호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現世의 富를 죽어서도 유지하려고 하는 象徵的 機能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고층의 봉토나 봉토 주변, 호석주변, 그리고 주구에서 대호가 출토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6세기 대에 고층이 사라지고 중·소형 분묘 또는 石室墓로 무덤이 대체되면서 大壺는 副葬品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봉토나 주구에 祭祀를 지내는 것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세기 1/4분기로 편년되고 있는 창원 다호리 B1호분의 경우 주구내에 약 15점의 대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正置埋納 시킨 점은 무덤축조와 관련한 祭祀의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14) 최근에 발굴조사된 호계동 토기가마 1호에서 대호가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도침시설로 볼 때 최대 4개체분의 대호가 소성가능한 대호소성 전용가마로 추정되어 주목된다. 대호의 생산 방법과 유통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양산 산막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호계 I·II 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 자료.

데, 이처럼 주구내에 대호가 매납된 고분으로는 의령 천곡리 1호분, 의령 운곡리 1호분, 함안 도항리 38호분, 파피분, 고성 연당리 18호분·23호분, 고성 울대리 2호분, 진주 우수리 16호묘, 합천 반계제 다A호분, 고령 지산동 30호분, 영덕 괴시리 16호분 등이 있다(홍진근 2002 재인용). 또한 대호의 내부에서 의도적인 매납¹⁵⁾으로 보이는 유물들도 출토되는데, 대구 시지고분군 104호에서 출토된 대호의 내부에서는 소형연질토기와 소호, 고배개 등이 출토되었으며(북천박물관 2006), 창원 다호리 B1호분의 84 대호 내에서는 적갈색유개파수부옹과 철도자, 99호 대호 내에서는 赤褐色大形蓋와 유개파수부옹, 盛矢具裝飾 등이 출토되었다(홍진근 2002).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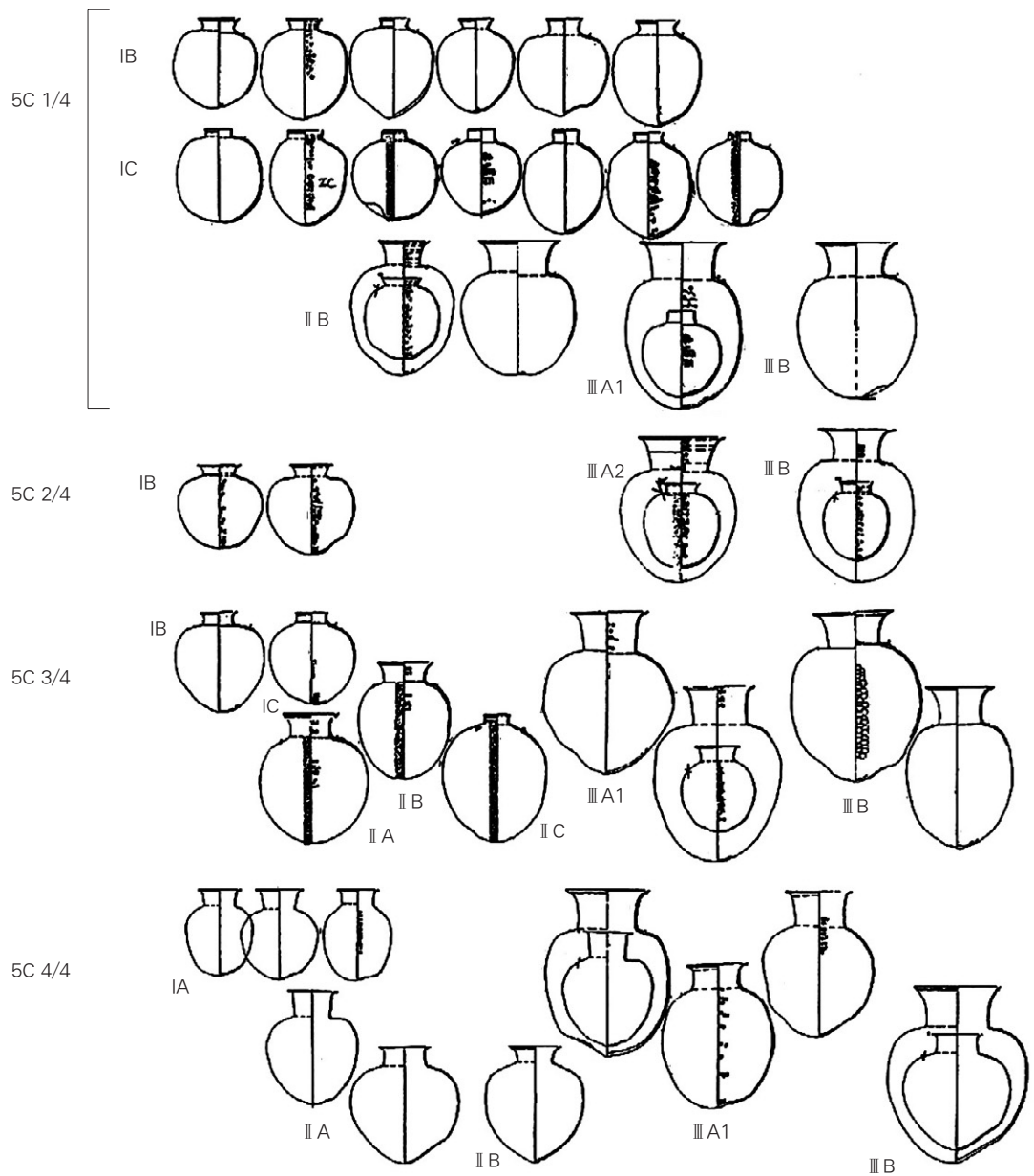
이상에서 임당고분 내 대호의 부장사례를 검토하여 대호의 부장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임당유적 내 대호는 고총과 중·소형 분묘, 그리고 분묘의 봉토 및 주구에서 출토된다. 분묘의 경우 대개 부곽에 부장되며 고총의 경우 적개는 2점에서 많게는 8~9점 정도, 중·소형 분묘의 경우에는 대부분 1점이 부장된다. 이는 부장공간의 면적 차이로 중·소형 분묘의 주·부곽은 상대적으로 고총의 그것에 비해 점유공간이 적기 때문에 대호를 비롯한 각종 부장품의 종류와 수도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당시 權力의 最高 頂點에 위치하고 있던 주피장자들의 權威를 象徵하는 유물의 하나로 기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봉토 및 호석주변, 그리고 주구 내에서도 대호가 확인되는데 이는 대호가 부장품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사라지고 봉토나 주구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주거지의 주구 내에서, 또는 변소유구로 추정되는 곳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실생활 유물로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호의 부장양상은 시기에 따라서도 변화하는데 대호가 본격적으로 부곽에 부장되는 5세기 초·중반에는 대호 중에서도 비교적 크기가 작은 것의 비중이 크고, 고총의 축조가 頂點을 이루는 5세기 중·후반에는 大形의 大壺 副葬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고분 내 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세기 1/4분기경에 이르면 임당유적에서는 이미 3~9점 정도의 대호를 부곽에 부장하기 시작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 분포하는 고총의 경우는 대체로 5세기 2/4분기 경에 이르러 부곽 또는 주구 내에 부장되기 시작한다. 한편 대구 문산리고분군 1·2·3·4호분의 경우는 주구 내에서 4~9점의 대호가 출토되는데, 이는 동시기 영남지방의 다른 유적과 비교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5세기대의 대호부장

15) 무덤의 내부에서 출토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호가 祭祀와 관련하여 사용된 또 다른 경우는 扶安 竹幕洞 遺蹟의 예를 들 수 있다. 유적의 성격은 航路나 漁業活動과 관련한 祭祀로 볼 수 있는데, 유물들은 절벽 위 평탄면에 8×9m의 범위내에 20~30cm 두께로 쌓여 있었다. 삼국시대 유물 가운데 대호(웅)의 내부에서 철모, 철촉, 안교편, 행엽, 동령, 동경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國立全州博物館, 1995, 『특별전 바다와 祭祀-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그림 8〉 시기별 대호 출토 양상

양상은 유적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展開되는데, 경산 임당유적처럼 고총의 부곽 내에 주피장자와 관련된 권위의 상징으로 부장되는 경우와 대구 문산리 유적처럼 고총의 부곽 내에는 1~2점만 부장되는 반면, 제사와 관련된 주구에는 다량의 대호를 부장하는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분명한 점은 前者의 경우는 주피장자와 관련된 부장용의 용도인 반면, 後者는 제사와 관련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임당유적 고총에 부장되는 대호의 수가 동시기 다른 유적의 고총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인데, 이는 임당지역을 지배하던 집단은 특별히 고총에 부장하기 위하여 대호를 제작한 제작자들과 생산, 유통 등의 경제적 체제를 관리, 통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大邱 不老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91・93號墳-』.
- 곽중철, 1987, 「韓國慶尙道地域出土の陶質大形甕の成形をめぐって-底部丸底化工程を中心に-」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新羅王京』.
- 國立全州博物館, 1995, 『특별전 바다와 祭祀-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 金大郁, 2006, 「慶山地域 石室墓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8, 「고고자료로 본 고대 경산의 식생활 양상」 『한국 고대사 속의 경산』.
- 김대환, 2006, 「고대 경산지역 정치체의 토기 생산과 분배 試論」 『압독국과의 통신 토기의 메
시지』.
- 김용성, 1998, 『신라의 고총과 지역집단』.
- _____, 2008a,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 _____, 2008b, 「경산 임당고총의 제의와 부장품의 의미」 『한국 고대사 속의 경산』.
- 金銀珠, 2006, 「三國時代 鍛冶具 研究-嶺南地方을 中心으로-」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
文.
- 金載烈, 2007, 「慶山地域 古墳의 裝身具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鍾徹, 1981, 『高靈池山洞古墳群-32~35號墳・周邊石槨墓-』, 啓明大學校博物館.
- 복천박물관, 2006, 『선사・고대의 제사 풍요와 안녕의 기원』.
-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昌原 三東洞 甕棺墓』,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第1冊.
- 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皇南洞古墳群發掘調査概報』.
- _____, 1991,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Ⅰ.
- _____, 1998,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Ⅲ.
- _____, 1999,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Ⅳ.
- _____, 2000,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Ⅴ.
- _____, 2002,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Ⅵ.
- _____, 2003,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Ⅶ.
- _____, 2005,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Ⅷ.
- _____, 2006, 『압독국과의 통신-토기의 메시지-』.
- 嶺南文化財研究院, 1999, 『慶山林堂洞遺蹟』Ⅰ.
- _____, 2001, 『慶山 林堂洞 遺蹟』Ⅱ, Ⅲ, Ⅳ.
-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양산 산막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호계 Ⅰ・Ⅱ 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張容碩, 2007, 「林堂遺蹟을 통해 본 慶山地域 古代 政治體의 形成과 變遷」 『야외고고학 제3호』,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44-85쪽.
- _____, 2008, 「原三國~三國時代 嶺南地方 土城研究-大邱・慶山地域을 中心으로-」 『영남의

- 성곽-토성에서 왜성까지』, 第17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7-35쪽.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慶山林堂遺蹟』Ⅱ,Ⅵ.
- 홍진근, 2002, 「茶戶里 B1號墓 出土 大壺의 檢討」『國立博物館 東垣學術論文集』第5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5~25쪽.

출토 水浸木器의 보존처리

이현혜*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경산 林堂 출토 목기의 보존처리 |
| II. 韓·日 목기보존처리기관 現況 | 1. 中型 유물 |
| III. 水浸목기 보존처리 매뉴얼 | 2. 漆器 |
| 1. 현장에서의 응급처리 | 3. 髓心을 가진 유물 |
| 2. 인수인계에서 처리완료까지 | V. 맺음말 |

I. 머리말

목기¹⁾는 발굴담당자의 애물단지다. 칠기나 목간 등 육안으로 고고학적 가치가 확인되는 유물은 예외일지 모르지만, 다량 출토된 목기의 보존처리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발굴기관과 담당자는 적지 않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2009년 3월부터 목기 보존실이 재개설되어 목기보존처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외부 수탁사업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연구원 목기보존실의 홍보이다. 올 상반기 처리가 완료한 유물 63점을 결과물로 게재하여 목기처리실의 입지를 굳히고 타 발굴기관의 관심과 위탁을 유도한다. 두 번째는 목기연구가 조금 앞서 있는 일본의 경우 우리 연구원과 성격을 같이 하는 기관에서의 목기보존실태는 어떠하며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도 비교·검토해보고 우리 연구원 목기실 개설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세 번째는 목기유물의 현장 출토 시 응급처리요령을 발굴담당자들이 알기를 원한다. 주로 현장에서 인수인계되는 목기의 경우, 노출 후 관리부주의로 자연건조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파손된 경우가 있다. 토기의 경우, 성형·정면흔이나 사용흔으로 그 제작기법이나 용도를 추정하듯이 목기 또한 표면에 제작 당시의 가공 흔, 사용용도를 추정하게 하는 사용 흔, 칠막, 묵서 등 고고학적 정보를 다량 포함하고 있다. 될 수 있으면 학문적 정보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1) '목기'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로 만든 그릇'이지만 '나무로 만든 목제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통용된다. 본고에서는 출토목제품을 총괄하여 '목기'라고 표현한다.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도현, 2008, 「선사·고대의 목기-영남지방출토품을 중심으로-」, 2008한·일목기연구회 발표문.

현재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목기보존처리 업무를 실시하는 곳은 손꼽을 만큼 적다. 우리 연구원과 같은 재단법인으로 치면 그 수는 더욱 더 적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은 보존 과학적 입지에서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 최근 증가하는 저습지 발굴로 목기보존처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나가자는 발굴기관도 일부 보인다. 그러한 기관에는 이 글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들어 국내 발굴기관 또한 지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늘어난 발굴기관의 수만큼 한 기관에 돌아가는 발굴 수는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저습지 발굴 기회나 발굴을 통해 목기유물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뜻이며 한 기관에서 다량의 목기유물을 보유한다기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목기유물을 조금씩 보유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목기를 보유하는 발굴기관 간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연계를 이뤄 거점을 두고 목기보존 처리를 해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韓 · 日 목기 보존처리기관 현황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습지 고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37년 奈良縣 唐子 · 鍵유적에서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목기가 다량 출토하면서 목기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용기류, 농구류 등 용도별 대분류와 소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분류방법의 기초가 되었고 수종분석을 통해 제작이나 사용에 적절한 수종이 선택되었으며 건조로 변형되기 어려운 부분을 절취 · 사용하였다는 점도 지적되는 등²⁾ 목기연구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43년 靑岡縣 登呂유적에서는 말목이나 판자모양의 말뚝을 배열하여 구획한 다수의 水田址와 住居址, 高床式 倉庫 등은 물론, 다량의 목제 농경구, 수렴구 등이 출토되어 농촌의 실태복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47년에서 50년 사이에 다양한 저습지 유적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발굴조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시행됐다. 이러한 다량의 목기출토와 발굴 조사 성과는 시대 · 시기별 목기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당시의 생업을 이해하는 좋은 연구 자료가 되었으며 다수의 경험은 독창적인 발굴기술의 개발은 물론, 다양한 자연과학과의 접목을 통해 더욱 연구의 폭이 넓어지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보존처리의 원점은 1960~61년 元興寺 極樂坊발굴에서 출토한 1만 점에 이르는 목기를 긴급처리하기 위해 元興寺文化財研究所에서 Acrylamide의 monomer을 중합시켜 보존처리에 이용한 것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처리결과를 위해 도입된 것이 PEG (Polyethylene glycol, 이하 PEG라고 함)법인데, 1963~1970년 처음으로 유물에 PEG 1540, 2000 처리법이 사용되었지만, 표면이 黒化하는 결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 東京과 奈良文化財研究所에서 진공동결건조(Freeze Drying, 이하 F·D라고 함)법의 실험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속에 1973년 이후 PEG 4000법이 본격적인 실용화단계에 들어서면서 보편화

2) 長友朋子, 2008, 「일본 고고학의 목기연구 현황」『한국의 고대 목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연구자료집 제41집.

한다.

반면, 지질학적으로 주로 산성토양인 우리나라에서는 低濕地 考古學이 성립되기 어려웠던 추세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과는 달리 저습지 고고학은 우리가 몰랐던 목기에 대한 연구는 물론 그 안에서 썩지 않고 보존된 수많은 연구 성과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

국내학자들이 목기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3월의 일이다. 경주 안압지에서 배를 비롯해 86점의 고대 목간이 다량 출토하면서부터였다. 그 이후 1988년 창원 다호리유적 1호 분 목관묘에서 원삼국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완형의 목관과 칼집, 활, 붓, 바구니, 부채 등 漆器 부장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목기에 대한 관심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2년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최초 저습지 유적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며 이후 務安 良將里, 論山 麻田里, 扶餘 陵山里, 咸安 城山城 등에서도 다량의 저습지 유적이 발견되어 점차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수침목기의 출토는 자연히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즉, 보존처리 하지 않고는 장기간 대기 중에 노출하여 자유롭게 관찰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이러한 수침목기 보존처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고고학적 발굴성과가 속출하며 저습지 발굴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최근 10년~15년 사이의 일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목기보존처리 사례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木船이었다. 1976년 12월부터 시작된 보존처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을 주축으로 PEG 4000법이 이용되었고 최초농도 10%부터 70% 농도까지 함침만 5년 9개월, 건조 1년 2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잇달아 1984년 인양된 14세기 신안 해저 침몰선의 보존처리에 2-Step법 즉 함침 초기단계에 저분자량인 PEG 200,400으로 처리한 다음 고분자량 PEG 4000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선택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이외에도 경주 월정교지 출토 목기, 창원 다호리 목관의 보존처리에 PEG법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출토 수침목기의 보존처리에 PEG 4000법이 서서히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1997년~1998년 경산임당I지구 저습지 유적을 발굴하면서 굽다리접시, 사발, 컵, 국자 등 용기류와 쟁기, 도끼자루 등 다양한 농공구류 및 빗, 나무신발, 방망이, 방패, 건축 부재 등 생활유물이 출토되었고, 철제단갑 제작 시 사용되었던 목제 단갑틀, 붉은색의 안료로 화려하게 시문된 다수의 흑칠용기 등도 확인되어 1999년 목기 보존처리실이 처음 개설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저습지 발굴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다량의 수침목기가 출토되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수침목기의 출토로 발굴담당기관에서는 목기보존처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보존처리를 해나가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발굴 조사한 유물은 대부분 거의 자체적으로 보존처리를 하는 기관이 많다. 특히 우리 연구원과 같은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만 가지고 비교하면 목기처리기관의 수는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표 1). 물론 모든 유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한국의 시스템과는 달리 일본의 출토유물은 기본적으로 발굴기관이 소유하기 때문에 보존처리까지 깨끗하게 해서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리의 상황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저습지 발굴이 잦아져 더 많은 양의 목기가 출토·수습된다면 보존처리와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며 다음 자료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의 목기보존처리기관 즉, 공공기관과 재단법인 중심으로 그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 2>, 처리 인원 면에서 少數에 의해 일 년에 많은 양의 유물이 처리되고 있다. 그리고 목기보존처리요원은 금속보존처리 또는 보존처리 이외 업무와 겸업하는 경향이 강하거나 일손이 바쁜 시기에만 임시로 인원을 고용하는 형태도 있어 人員數 면에서는 국내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 년에 처리되는 유물의 수가 많고 機關의 총 유물 보유수나 보유 기자재의 수와 크기 등 전반적으로 보존처리규모에 있어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발굴재단법인에서도 보존처리 수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어 눈에 띄었는데 특히, 부설 독립기관의 형태를 띤 목기 보존처리 수탁전문기관도 보여 앞으로 국내 발굴재단 보존처리실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보존처리법을 보면, 고급알코올(Higher Alcohol, 이하 H·A라고 함)법은 국제특허(吉田생물연구소 취득)문제가 있어서인지 주로 사용되는 보존처리법은 고급알코올법을 제외한 PEG 4000, 진공동결건조, 당알코올(Sugar Alcohol, 이하 Lactitol이라고 함)법 세 가지였으며, 여전히 사용되는 비율로 보면 PEG 4000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2000년대 들어 실용화되기 시작한 Lactitol법도 다수 기관에서 어느정도 자리매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까지 경제적 가격으로 선호를 받아 각종 실험을 통해 많은 연구성과를 낳았던 Lactitol법이었지만, 최근 들어 가격이 폭등하면서 Lactitol에 대한 인식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은 처리 전 유물과 함께 수장하지 않으며, 유물의 성격이나 사용된 처리법 등에 따라 제습기나 에어컨 등으로 온·습도 조절이 되는 특별수장고와 일반수장고로 나누어 보관하는 형태를 띠었다. 기관별 상세내용은 다음의 <표 1>과 <표 2>를 참고하길 바란다.

<표 1> 韓 · 日 목기보존처리기관

성격	國內 機關	日本 內 機關
獨立行政法人		奈良文化財研究所, 岡山大학
公共機關	광주박물관, 대구박물관, 부여박물관, 중앙박물관, 가야문화재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전시관, 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北海道埋藏文化財센터, 富山縣埋藏文化財센터(1), 東北歴史博物館(宮城縣)(2), 多賀城市埋藏文化財센터(宮城縣)(3), 長野縣立歴史館(4), 三重縣埋藏文化財센터, 橿原考古學研究所(奈良縣)(5), 田原本町(奈良縣)(6), 兵庫縣立考古博物館(7), 福岡市埋藏文化財센터(8), 大分縣立歴史博物館(9)
財團法人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삼강문화재단연구원, 영남문화재단연구원	栃木縣埋藏文化財센터(10), 東京都埋藏文化財센터, 群馬 県 埋藏文化財調査事業団(11), 石川縣埋藏文化財센터(12), 静岡縣埋藏文化財調査研究所(13), 滋賀縣埋藏文化財센터(滋賀縣立安土城考古博物館)(14), 京都府立山城郷土資料館(15) ³⁾ , 京都市埋藏文化財研究所(16), 大阪府文化財센터, 大阪市文化財協(17), 鳥取縣埋藏文化財센터(18), 島根縣埋藏文化財센터(19), 松山市埋藏文化財センター(愛媛縣)(20), 元興寺文化財研究所(21), 山梨文化財研究所(22)
一般企業	경담문화재연구소	東藝, 東都文化財修復研究所, 吉田生物研究所, 京都科學, 新日鐵釜石, 古環境研究所
私立大學		金沢學沢대학, 奈良대학, 東北藝術工科大学

* 괄호 안 숫자가 <표 2>의 연번임.

〈표 2〉日本 内 木器保存處理機關 現況

연 번	개설연도	보유 기자재	처리 인원(명)	목기 보유량	처리 전 분석	처리법	1년간 처리수량	수탁여부	형용황송시설	
1	2003	합침조2대 (2.6×0.8×0.88m)	직원1	20,000점	수중분석 적외선촬영	PEG 4000법	60~700여점	×	×	(환풍기만 설치)
2	1980	합침조(3×1×1m)1대, 진공동결건조기 (1.5×0.4m×2단)1대	직원1, 아르바이트1	5,000점	적외선촬영	PEG 4000법 진공동결건조법	100~300점	○		특별 수장고 有 일반수장고 無
3	1987	합침조1(2.2×1.1×1.1m), 항온수조1(0.7×0.5×0.5m), 진공정온건조기1(0.5×0.4m)	직원2명, 아르바이트 (필요에따라 5~10)	7,607점	수중분석(위탁), 적외선촬영 (필요에따라)	PEG 4000법 (환엽수) 락티톨법(침엽수)	100~500점	×	○	
4	1994	합침조(5×0.9×0.8m)1대, (3.6×0.9×0.8m)4대,진공동 결건조기(1×1.3×1.5m)1대	직원1, 아르바이트8	42,504점	적외선촬영 (필요에따라)	PEG 4000법 진공동결건조법	수백점 ~2280	×	△	체습기50~62%
5	1980	합침조(6×1×1m)1대, (2.5×0.8×0.9m)2대, (1.5×0.6×0.6m)2대, 진공동결건조기2대 (3×1m,0.45×0.3m)	직원1, 보조원1		수중분석, 적외선촬영 -발굴조사업무 (간이적 수중분석만 실시)	락티톨법 진공동결건조법 PEG4000법	300점	×	×	
6	1999	합침조3대 (3×1.2×1m,1.9×0.7× 0.7m,1.5×0.5×0.5m), 건조기2대	직원1, 아르바이트2	6,500여점	수중분석, 적외선 촬영 모두 위탁	락티톨법(100%)	20점	×	×	(50%위탁)
7	1987	합침조(3×1×0.8m)1대,(2 ×0.7×0.7m)2대,(1.8×0.7 ×0.7m)1대,진공동결건조기1 대(VH-220-Ⅱ 특별),진공냉 각조(0.6m), 가열조(0.6m)	직원1, 계약직원4	100,000점	수중분석 (프레퍼다트제 작: 자체, 분석:위탁), 적외선촬영	PEG 4000법 (99%) 진공동결건조법 (1%)	2500~3000점	×	○	(에어콘 조절)
8	1983	합침조(6×0.92×0.55m)1 대,(3m)1대,(2m)1대,진공 동결건조기(1.4Φ×3.2m)1 대, 소형진공동결건조기1대,	직원2, 계약직원1, 아르바이트2	25,840점	수중분석 (발굴담당자가 위탁), 적외선 촬영 (필요에따라)	PEG 4000법(80%) 진공동결건조법 (15%) 락티톨법(4.5%) 고압알코올법 (0.05%)	100~1000점	×	○	특별수장고보관

연번	개설연도	보유 기저재	처리 인원(명)	목기 보유량	처리 전 분석	처리법	1년간 처리수량	수탁여부	항온습습시설
9	1983	합침조1 (2×0.6×0.8m)	직원1, 계약직원1, 보조원2	보유목기 없음	적외선활영	PEG 4000법	250~800점	○	低濕수장고 일시보관 처리완료 후 반납
10	1998	합침조1대(1.5×0.9m) 진공동결건조기1대 (0.3×0.5-2단)	직원1	1,500여점	수중분석, 적외선활영 (필요에따라)	PEG 4000법 진공동결건조법	30점	×	○ (대형에어컨)
11	1980	합침조(1.7×0.7×0.7m)1대, (1.5×0.5×0.5m)3대,진공동 결건조기1대 (2×0.7m)	직원1, 보조원3	8,000여점		진공동결건조법 (대부분) PEG 4000법(일부) 락티올법(집업수증)	1000여점	×	×
12	1998	합침조(4×1×1m)2대, (1.5×0.8×0.8m)1대, 진공동결건조기1대 (0.6×1.5m)	직원1, 보조원1, 아르바이트3	20,000점 이상	수중분석(위탁), 적외선활영	PEG 4000법 진공동결건조법 락티올법	600점이상	×	○
13	1989	합침조(6.6×1.6×0.95)1대, (6.6×1×0.75)1대, (3×1×0.8)1대, (1.8×0.7×0.7m)2대, 진공동결건조기 2대, (1×1×4, 0.4×0.4×0.9)	직원1, 보조원1, 아르바이트9	70,000점	수중분석 적외선활영	PEG4 000법(50%) 진공동결건조법 (30%) 락티올법(20%)	500~1000점	○ (매년 100~200)	특별수장고: ○ (온도20℃±5) 일반수장고: ×
14	1981	PEG합침조, 진공동결건조기, 적외선TV카메라, 실체·생물현미경시스텝	직원1, 보조원1, 아르바이트2	100,000여점	수중분석 적외선활영	PEG 4000법 진공동결건조법	10,000여점	×	특별수장고: ○ 일반수장고: × (점토 중)
15	1982	합침조(3.5×1.5×1m)4대, (5×2×2m)1대, (0.5×0×0.3m)1대,	직원1, 아르바이트1~2	수탁전문기관으로 보유목기없음	수중분석 적외선활영	PEG 4000법, 알콜-자이렌 -수지법 (목간처리에 이용)	50~500점 1000~5000점	○ (수탁전문)	○ (항온항습실에 일시보관, 처리 후 반납)
16	1978	합침조(3m)1대, (5m)1대, 진공동결건조기 (0.3×4.5-3단) 1대	직원1	100,000점 이상	수중분석 적외선활영	PEG 4000법(70%) 진공동결건조법 (30%)	100~1000점	○	×

연 번	개설연도	보유 기지재	처리 인원(명)	목기 보유량	처리 전 분석	처리법	1년간 처리수량	수탁여부	향온항습시설
17	1992	합침조2대, 결집처리용대형열풍가열고1, 결정축진용가열고1대, 합침용열풍진조기1대, 결정축진용진조장치1대, 표면처리용Steam vacuum cleaner 1대.	직원2, 계약직원1, 아르바이트2		수종분석 (필요에 따라 위탁) 적외선촬영	락티톨법 (대부분) PEG 4000법	400~500여점	○	○ (PEG법 적용유물 보관)
18	1982	합침조2대 (5×1×0.8, 3×1×0.8m), 진공동결진조기1대 (1.6×0.8m)	직원1	10,000점 이상	수종분석	PEG 4000법 진공동결진조법	1000~2500점	×	○ (에어콘·제습기조절)
19	1991	합침조3대 (2.5×1×0.8, 1.5×0.5× 0.5, 0.7×0.7×0.6) Lactitol법 전용 진조기1	보조원2	1,800여점	적외선촬영	락티톨법(80%) PEG 4000법(20%)	30~80여점	×	○ (목기 전용 향온항습실)
20	1989	합침조2대 (3.3×1.3×1, 2.5×1×0.9m)	직원1, 아르바이트2	700여 점	수종분석, 적외선촬영 모두 위탁	PEG 4000법 (100%)	50~100여점	×	△ 온도조절만 가능
21	1970	합침조(9×1.5×1) 1대, (8×1×1) 1대, (5.5×1.2×0.9) 5대, (4×3×1) 1대, (4×2×1) 1대, (3×0.9×0.9) 1대, (2.8×0.9×0.9m) 1대, 진공동결진조기 (0.9×0.3m)1대	직원4, 보조원10	수탁전문기관으로 보유목기 없음.	수종분석 적외선촬영	PEG 4000법, 진공동결진조법, 알콜-자이렌 -수지법 (목간처리), 락티톨법, 지방산에스테르법	1,000점미만	○ (수탁전문)	수탁전문기관으로 유물수장을 하지 않음.
22	1987	합침조(3m)1대, (2.5m)1대, (2m)1대, (1.5m)2대, 진공동결진조기 (1.2m) 1대	직원2, 아르바이트3~8	수탁전문기관으로 보유 목기는없음.	필요에 따라 수종분석 적외선촬영	PEG 4000법, 락티톨법, 진공동결진조법	1,000~1,500	○ (수탁전문)	수탁전문기관으로 유물수장을 하지 않음.

Ⅲ. 水浸목기 보존처리 매뉴얼

1.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발굴현장에서 목기의 보존처리란 목재 내부의 수분증발을 최대한 제어하는, 즉 保濕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유물의 형상이나 출토상태,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존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1) 出土時

- ▶ 단독 소·중형유물 : 보습을 위해 물에 적신 순면이나 천 등을 덮고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비닐랩 등으로 빈틈없이 감거나 高吸收性 수지가 첨가된 포 등을 덮어두어도 좋다.
- ▶ 밀집된 중형유물 : 곧바로 수습이 어려워 장기간 노출이 필요할 때 보습을 위해 개폐식 창문이 달린 비닐하우스를 제작하여 高濕환경을 조성한다<사진 1>.
- ▶ 대형유물 : 운반하거나 물속에 침적하여 보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Capillary matting (캐피러리 매트)⁵⁾를 덮고 랩이나 비닐로 몇 겹 싸놓는다.
- ▶ 유물노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수습하는 것이 좋다.



〈사진 1〉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 발굴현장 保管時

- ▶ 수습 후에는 목기의 건조를 막기 위해 유물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워 침적하고 뚜껑을 닫는다. 뚜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한 비닐로 덮개를 씌워 묶어놓는다.
- ▶ 물의 증발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유물이 충분히 잠기도록 물을 채운다.
- ▶ 될 수 있으면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 특히 겨울에 현장이나 실내 난방이 없는 보관환경 등에서 수침목재 유물이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혹시 얼게 되었다면 보존담당자에게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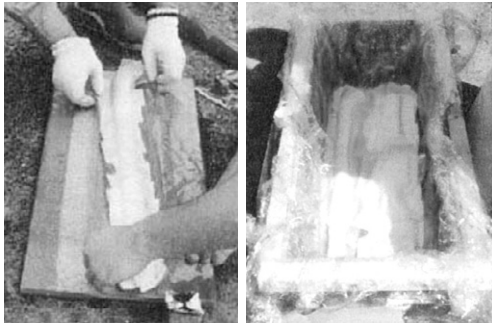
3) 본래는 교토부·현립의 공립기관이지만 실제로 운영사업비는 모두 수탁수입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발굴조사한 기관에서 출토 유물을 소유·관리한다. 박물관은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수탁된 유물의 처리를 무료로 실시하고 처리가 끝나면 발굴조사기관에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5) 목재를 덮는 것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의 매트로 수분을 보유하기 쉬운 구조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발굴 현장에서 유구와 일체화된 목재를 장기간 노출시킬 경우에 충분히 물을 머금게 한 다음 요리용 랩으로 몇 겹 싸기도 한다. David Watkinson외, 谷畑美帆의 譯, 2002, 『出土遺物の応急処置マニュアル』, 柏書房, 47쪽.

- ▶ 비닐로 진공 포장한 유물은 개봉·밀봉시 오히려 유물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될 수 있으면 유물은 포장하지 않은 채 보관한다.
- ▶ 漆器나 木簡은 가능한 한 출토 즉시 수습해 보관한다.

3) 運搬時 (될 수 있으면 보존처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다)



〈사진 2〉 봉무 이시아 폴리스 조성부지내
수혈17호 출토 목기의 운반용 포장



〈사진 3〉 운반시(左:PHIL-CAST로 고정 후
도려냄 右:유물상자 수납)



〈사진 4〉 흙째 유물수습-우레탄폼
(日本元興寺文化財研究所)

- ▶ 상태가 양호한 소형유물 : 쿠션재를 붙인 나무판을 비닐로 싸놓는다. 그 위에 유물을 가지런히 놓고 고정한다. 保濕을 위해 물에 적신 천 등을 덮고 비닐랩으로 나무판째 빈틈없이 감는다(사진 2). 마지막에 에어 캡으로 포장한다.
- ▶ 열화가 심한 소형유물 : 비닐로 싸 나무판 위에 유물을 가지런히 놓는다. 비닐랩으로 유물을 살짝 덮고 그 위에 PHIL-CAST⁶⁾를 덮어 형태를 보호한 다음 나무판에서 비닐을 도려내 에어캡으로 개별포장한다. 쿠션재(토이론, 에어캡 등)를 채운 유물상자 속에 부딪히지 않게 넣어 뚜껑을 닫고 운반하거나(사진 3) 나무판째 비닐랩을 감아 단독으로 운반하기도 한다.
- ▶ 중형유물 : 유물보다 큰 치수의 나무판을 제작하여 쿠션재를 놓고 비닐로 싸 놓는다. 그 위에 유물을 올려놓고 안정적으로 고정한 다음, 젖은 천 등을 덮고 나무판째 비닐랩을 빈틈없이 여러 겹 감는다. 물에 적신 천 대신 고흡수성 수지가 첨가된 포 등을 덮어도 좋다. 마지막에 에어캡으로 포장한다. 또는 유물의 출토상황이나 유물의 열화 상태에 따라 흙째 수습해야 하는 경우는 우레탄폼(Urethane foam)⁷⁾을 사용하기도 한다(사진 4).
- ▶ 목간 및 칠기 등 특수유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쿠션재-젖은 순면(Calico)-목기-젖은 순면(Calico)-비닐랩 순으로 넣어서 단단히 밀폐하며 단 유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6) 신축 탄력성이 뛰어난 FIBERGLASS에 경화제인 POLYURETHANE을 혼합시켜 만든 것으로 공기 또는 수분에 접촉되면 경화가 일어나 굳어지게 되는 봉대모양의 제품.

7) 우레탄폼은 가볍고 쓰기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프론대척이나 수습 후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있어 과제가 많은 약품이다.

4) 長期保管時

목기의 장기보관은 유물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다. 손상 정도는 침엽수인가 활엽수인가의 수종은 물론 보관환경, 형태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만 유물을 가볍게 쥐는 것만으로도 표면이 물렁거리며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약화되는 경우도 많다. 장기간에 걸친 水浸보관은 목재 고유의 성분은 물론 출토 시 주변의 토양 속 이물질성분까지 물속으로 빠져나오게 해 목재조직을 약화시키고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직사광선은 미생물에 의한 열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목재는 표면부터 서서히 열화하기 시작한다. 목기의 표면에는 도구 제작 당시의 가공흔과 사용흔 등의 고고학적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장기보관은 이러한 귀중한 정보를 소실시키는 큰 원인이다.

- ▶ 장기보관시 물의 부식방지를 위해 방부제를 넣기도 하는데 방부제의 사용은 추천하지 않는다. 물이 증발하면서 약품의 농도가 짙어지는 문제, 그리고 목재 내 잔류 방부제가 목기 보존처리에 미치는 영향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물질도 존재하여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⁸⁾.
- ▶ 소형유물의 경우, 氣密性이 높은 적층 필름으로 팩을 해서 보관하는 예도 있다.
- ▶ 가능한 한 생물의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원한 환경(4℃ 정도)으로 직사광선이 차단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물 교환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적어도 1달에 한 번은 물 교환을 한다.
- ▶ 단, 목서 유물의 빈번한 물 교환은 목서가 얼어지거나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 5〉漆器의 비닐 진공포장
보관은 철막 박락을 심화시킨다



〈사진 6〉漆器의 高濕 환경 보관

- ▶ 칠기는 장기간 물속에 침적하면 木胎가 팽창·열화하여 칠막의 박락을 가져온다.
-비닐에 진공으로 포장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보관법은 유물을 손상하고 칠막 박락을 심화시킨다(사진 5).
- ▶ 墨書 유물과 漆器는 밀폐용기에 폴리에테르폼과 소량의 물을 넣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단단히 밀폐시켜 高濕環境을 만들고, 저온 챔버에 넣어 보관한다(사진 6).
-칠기는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폴리에테르폼⁹⁾ 등의 쿠션재→젖은 순면(Calico)→칠기→젖은 순면(Calico)→비닐랩 순으로 넣어서 밀폐한다. 기본적으로 15일에 한 번씩 유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생물활동의 조짐이 관찰되면 바로 젖은 천 등을 교환한다.
-고습 환경 하에서의 보관은 水浸법과 비교해서 효과가 그만큼 길게 지속하지 않으며 공급되는

8) David Watkinson의, 谷畑美帆의 譯, 2002, 『出土遺物の応急処置マニュアル』, 柏書房, 47쪽.

9) 젖어도 잘 상하지 않으며 물을 흡수하여 뜨지 않는 성질이 있다.

산소량이 많아 생물 열화도 발생하기 쉬워 더 주의를 요한다.

-거즈나 티슈는 부패하여 분해되기 쉬우므로 젖은 천 대신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열화가 심해 부서진 목제품 파편 등은 처리과정에서 소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곰팡이 등의 미생물에 비교적 안전한 명주에 유물 편을 넣고 Sealer로 찍거나 껴매서 Label(Melinex film)¹⁰⁾ 링 한다. PE망 등은 열화가 심한 목기 표면을 마모시키거나 상처를 주므로 사용을 피한다(사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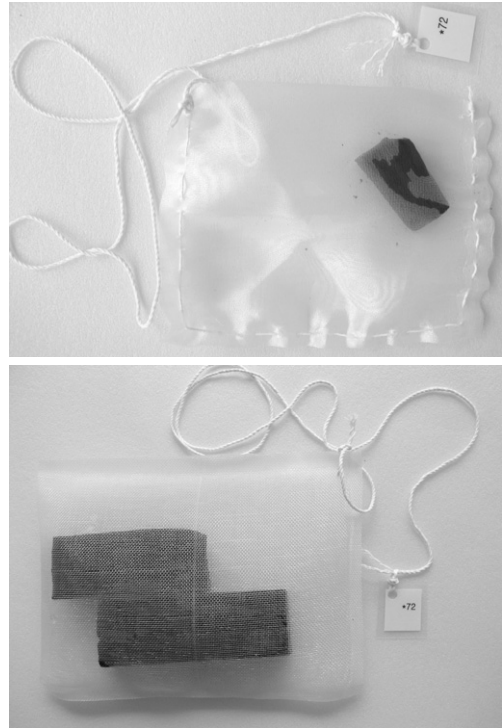
2. 인수인계에서 처리완료까지

1) 處理前 조사 <사진 8>

- ▶ 사진촬영-인계인수시의 유물점수와 형상이 처리 후와 동일하다는 것을 사진파일로 남긴다.
- ▶ 치수측정-처리 전·후 유물의 길이×높이×폭에 대한 치수를 측정하고 치수 변화를 비교하여 유물별로 사용된 보존처리법을 검토하고 기초자료를 축적한다.
- ▶ 중량측정-대기·수중중량을 측정하여 함수율을 구하고 정기적인 중량 측정으로 함침농도 상승시점을 판단한다.
- ▶ 유물 특징표기-사진대장에 유물의 형상(완형, 반파, 파편 등), 유물의 상태(양호, 열화 등), 수종, 절취방향, 취급시 유의사항을 표기한다. 처음부터 유물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표기된 자료만 보아도 유물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일수록 좋고, 유물처리 시에는 항상 유물사진 및 특징 등을 확인해가며 처리를 한다.
- ▶ 수중분석-기본적으로 목기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 목간과 비슷한 형상을 하거나 목서가 보이는 유물은 적외선카메라 촬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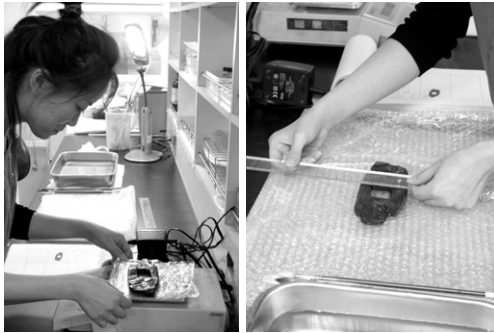
2) 세척 <사진 9>

세척은 보존처리 후 유물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이므로 實測 時 남은 chalk흔은 물론, 되도록 유물 속 깊이 부착된 모래나 출토 당시 부착된 토양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사진 7〉 遺物 片 보호망
(上: 명주, 下: PE망)

10)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한 종류이다. 일본에서는 Mylar가 유명한데 물에 넣어도 젖지 않아 수침목재의 라벨이나 실측용지 등에 사용된다.



〈사진 8〉 유물의 重量과 치수측정



〈사진 9〉 세척과 라벨링

- ▶ 유물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채운 개무밧드에 잠군 채로 세척한다. 처리 전 유물은 강도를 상실한 상태로 파손되기 쉬우므로 손에 들고 씻지 않는다.
- ▶ 수채붓, 유채붓, 팬 붓, 대나무 꼬지 등을 사용하며 유물의 열화 정도, 표면상태 등에 따라 도구를 골라 사용한다.
- ▶ 세척에는 항상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열화된 목재의 표면은 부드러운 섬유상으로 심하게 문지르거나 마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척한다.
- ▶ Mylar지에 유적명, 유구명, 유물번호, 날짜 등을 기재한 후 라벨링한다.
- ▶ 라벨은 긴 줄에 끼워 유물과 연결하고 라벨이 직접 유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긴 줄은 매끈하고 부드러운 비닐끈을 사용하며 유물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최대한 느슨하게 묶는다.
- ▶ 작은 유물도 큰 유물도 반드시 양손으로 잡는다.

- ▶ 유물을 이동할 때는 이동할 장소의 통로와 장소의 안전 확보를 확인한다.
- ▶ 신발은 슬리퍼 등은 피하며 제대로 신어 유물을 떨어뜨려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 물교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탁해지는 경우나 토양성분 등 이물질이 유물표면에 심하게 흡착된 경우 EDTA-2NA 0.4% 액속에 이틀 정도 담가놓는다¹¹⁾.
- ▶ 적절한 EDTA 처리는 처리 후 목기색상을 좋게 한다.

3) 처리법 검토

세척이 끝나면 유물별로 어떠한 처리법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한다.

- ▶ 유물을 보존처리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처리법이든 꼭 지켜야 하는 기본이념이 있다.
 - 첫째, 문화재로서의 출토 당시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
 - 둘째, 열화한 유물에 충분한 강도를 부여할 것.
 - 셋째, 보존처리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역성을 가질 것.
 - 넷째, 유물표면의 가공흔적이나 색조를 유지할 것.
 - 다섯째, 보존처리 후 환경변화(온·습도)에 대해 안정성을 가질 것.

11) 양석진, 2005, 「수침목제유물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 -EDTA처리에 관하여-」, 창원대학교대학원 공학석사논문.

여섯째, 학문 및 분석자료로서 가치를 잃지 않을 것.

▶ 보존처리법을 결정하는 요인

- 유물형상 : 유물의 두께, 유물의 형상이 입체적이고 복잡한가. 가공 흔이 잘 남아있는가.
- 처리 후 사용용도 :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가, 고고학적 자료로만 이용할 것인가
- 유물크기 : 유기용제를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인가, 또는 보유 함침 수조에 수용 가능한가.
- 유물수종 : 침엽수인가 활엽수인가. 활엽수라면 PEG 처리가 어려운 밤나무, 녹나무, 붉가시나무 등은 아닌가.
- 열화정도 : 함수율은 어느 정도이며, 표면상태가 어느 정도 무른가.
- 절취부위 : 어느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잘라 제작했으며 특히 나선목리나 수심(髓心)을 가지는가
- 복합여부 : 나무로만 구성되었는가 칠기, 금속, 가죽, 편직물 등이 부착돼 있는가.
- 처리조건 : 보존처리에 필요한 함침 수조, 동결건조기 등 기자재는 갖추고 있는가, 보존처리에 책정된 예산은 얼마인가.

4) 함침과 건조

함침은 목재조직 속의 물을 약품과 치환하는 과정으로 목재를 강화시킨다. 저농도에서 서서히 고농도 약품으로 농도를 높혀가는데 이상적인 농도상승은 유물의 중량을 일정간격으로 측정하고 전 단계 중량과 비교하여 항량이 되면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중량측정은 유물의 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중량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수일 경우는 생략하는 등 여건에 맞추어 실시한다.

함침과 건조과정에서 일어나는 목재변형은 굽음, 비틀림, 할렬, 찌그러짐, 변색 등 다양하다. 주로 髓心을 가진 유물은 함침과 건조 중에 방사방향으로 할렬이 일어나기 쉬운데 그것은 방사조직이 목재의 다른 조직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나무류와 같이 방사조직이 많은 수종은 건조 시에 터지기 쉽다. 그리고 螺旋木理가 있는 경우는 뒤틀림이 생기기 쉬우며 특히 칠기도 함침이나 예비동결 중에 木胎로부터 칠막이

박리되는 예가 많다. 변형이 미리 예상되는 유물은 변형을 완화·방지하는 목적으로 함침 전에 유물 상태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다. 함침 중에도 지속적인 유물 상태 점검이 필요하며 변형 조정



〈사진 10〉 PEG4000과 Lactitol법의 함침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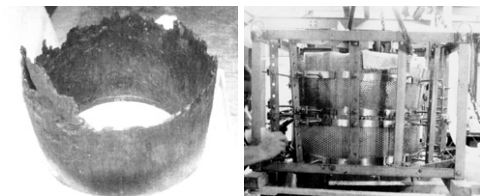
이 보이면 처리공정을 back 하거나 바로 변형방지조치를 하고 함침 수조나 밀폐용기에는 함침액의 농도(%)와 농도 up 날짜, 총함침액량 등을 기재해놓는다(사진 10).

▶ 함침시

- 소형유물 :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단독으로 넣어 처리하며 유물의 상태를 바로 점검할 수 있게 유물에 보호재나 라벨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라벨링은 밀폐용기에 하며 유물이 용액 속에 가라앉지 않고 뜨는 경우는 비닐랩을 수면과 완전히 밀착시켜 공기를 뺀 다음 뚜껑을 닫아 함침한다.
- 목간과 같이 얇고 약한 유물 : 보호재(Needle punching felt를 Silk screen 천으로 짠 것)를 덧댄 스테인레스 펀칭메탈 사이에 끼워 고정하고 자체중량을 부여하여 용액 속에 잘 가라앉도록 하므로 함침에 용이하다.
- 상태가 양호하고 중형인 유물 : 함침수조에 複數로 함침 할 경우 함침액 속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목기 파편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명주에 넣어 Sealer로 찍고 Label (Melinex film)링하여 함침한다(사진 7).
- 열화가 심하거나 흠재 뜬 대형유물 : 유물보호 틀¹²⁾을 제작·부착하여 함침한다(사진 11).
- 髓心を 가진 유물 : 방사방향으로 균열하기 쉬우므로 함침 중 할렬 기미가 보이면 髓心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느슨하게 조여준다.
- 전체적으로 큰 곡물을 가진 유물 : 곡물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 방지틀로 고정한 후 함침한다(사진 12).
- 칠기 : 칠막 박락이 우려되는 경우 칠막이 외측으로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함침 전 길이 5cm 정도의 冊床으로 자른 얇은 韓紙를 칠막 위에 놓고 아교 10~13% 증류수 액으로 부착한다. 아교의 겔화(gelation)를 촉진하기 위해 냉장고에 1분씩 정도 넣어가며 부착한다.
- 얇은 소형목간의 경우 : 소형 목간을 여러 점 동시에 함침해야 할 경우 유물 간 접촉을 없애고 잡기 쉽도록 하기 위해 명주망 속에 유물을 넣고 가늘고 길게 자른 mylar용지를 경계와 매듭부분에 놓고 세라믹 인두기로 일정간격으로 찍어 고정한다.



(사진 11) 유물보호틀 (左: FRP로 유물틀 제작
右: 흠재 뜬 유물에 변형방지를 부착)
日本元興寺文化財研究所



(사진 12) 변형방지틀 (左: 방지를 부착 전, 右:
방지를 부착 후) 日本元興寺文化財研究所

12) 손바닥크기로 자른 glass장섬유에 FRP(폴리라이트TP-123, TP-900을 섞고 경화제를 소량 섞은)를 여러겹 중첩되게 발라 1cm정도 두께로 유물틀을 제작하고 건조 후 용액침투가 수월하도록 2-3cm구멍을 골고루 낸 후 유물에 부착하여 함침한다.

下野 聖, 1997, 「土付き遺物の保存処理」『創立三十周年記念誌』, 元興寺文化財研究所.

▶ 건조시(PEG4000법과 H·A법의 경우)

- 유물을 함침액에서 꺼내고 바닥지에 유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유물에 묻어 있는 잔여 용액을 순면(Calico)이나 Kimtowels로 가볍게 톱툰 두드려 닦아낸다. 유물을 문지르면 軟化된 표면이 마모될 수 있다.
- 꺼낸 직후 연화된 목재표면에 바닥문양이 찍히지 않도록 바닥에는 두꺼운 종이나 투명비닐을 시트로 깐다.
- 꺼낸 유물은 사진과 대조하고 여러 개로 분리된 편을 맞춰보며 전체적인 수축·뒤틀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라벨은 유물에서 풀어 항상 유물과 같이 이동시킨다.
- 뒤틀림 등이 확인되면 유물이 軟化되어 있을 때 교정하거나 변형방지 작업을 한다(사진 13).
- 함침액에서 꺼낸 다음 중량을 일정한 주기로 측정하여 표면처리 시점을 결정한다.



〈사진 13〉 처리 후 교정과 할렬 방지

5) 表面處理

보존처리 후 유물은 수중이나 열화 상태, 특히 처리방법에 따라 강도와 색조가 다르다. 그래서 함침 처리 후 나무 본연의 색과 질감을 찾아주기 위한 공정이 필요하다. 표면처리는 같은 부분에 여러 번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씩 골고루 실시하며 건조시켜 전체적인 색상 등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 PEG 4000법 : 중탕한 Ethanol 59% 수용액을 붓을 이용해 표면을 묻히고 킴타올(Kimtowels)로 닦아낸다.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반복하되 자국이 남지 않도록 킴타올의 오목한 부분이 유물에 닿도록 한다(사진 14).
- ▶ F·D법 : 특별한 처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연색에 가깝지만 백색의 잔류 PEG가 보이면 드라이어로 제거한다. 또는 55~60℃ 건조기 안에 잠시 넣어두기도 한다.
- ▶ Lactitol법 : 특별한 처리는 필요 없지만 Lactitol 결정이 부분적으로 보이면 溫水로 닦아낸다.
- ▶ H·A법 : 드라이어로 녹이거나 중탕한 Ethanol 100%용액으로 여러 차례 표면 잔류 용액을 닦는다. 건조했을 때 전체적 색상이 자연 나무색에 가까워질 때까지 표면을 닦고 건조하는 것을 반복한다.
- ▶ 칠기 : 칠기 표면에 붙어 있는 한지는 온수로 떼어낸다.



〈사진 14〉 PEG 4000법 표면처리

6) 保管

- ▶ 처리가 끝난 목기는 손자국 등 얼룩이 질 수 있으므로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사진 15〉 유물의 包裝과 保管

- ▶ 목기는 유기질로 호흡하기 때문에 처리 후 통기성이 좋게 보관하여야 한다. 유물의 플라스틱 밀폐용기나 비닐 진공포장 보관 등은 침투약제나 접착제 등의 열화를 촉진한다는 경년변화의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다¹³⁾.
- ▶ 포장박스 안의 쿠션재로 스티로폼이나 토이론, 비닐 에어캡 등을 깔면 통기성이 나빠져 장기간 유물과의 직접적 접촉은 표면으로 용출된 수지와 반응하여 유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유물 라벨에 의한 목기의 손상 예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끈은 博葉紙를 섬유방향으로 길게 잘라 최대한 느슨하게 묶고, 라벨지는 목기에 친근한 종이로 한다.)
- ▶ 소·중형유물 : 나무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경제적·실용적 측면, 특히 조형이 쉬워 골판지도 많이 사용한다. 유물의 치수에 맞춘 골판지 상자에 한지(쿠션재)등을 깔고 유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다음 통기성이 좋게 하여 보관한다.

중량이 무거운 것은 타공(Punching)이 되어 있어 통기성이 좋은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 ▶ 대형유물 : 유물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나무상자를 제작하여 보관한다.
- ▶ 유물상자에는 라벨(유적명·유물번호·이관일 등)과 유물사진을 붙이고 간단히 열어 언제나 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끈을 묶어 여닫는다(사진 15).

Ⅶ. 경산 林堂 출토 목기의 보존처리

1. 中型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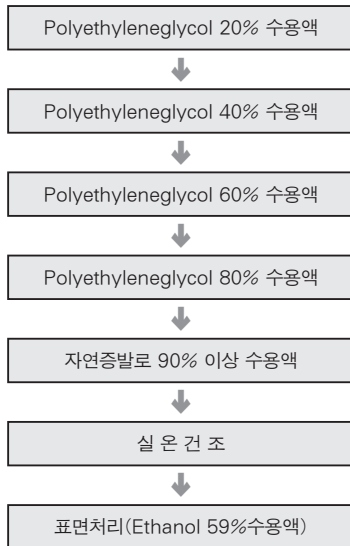
⇒ PEG(PolyEthylene Glycol) 4000 Method 30점

PEG 4000법은 표면 열화가 심하며髓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물, 진공동결건조기나 건조기, 유기용제를 사용하기에는 치수가 큰 중형유물에 적용했으며 총 유물점수는 30점이다. 처리 공정은 <표 3>과 같다.

세척과 중량측정, 처리 전 기록과 조사 및 사진촬영이 끝난 유물을 PEG 20% 수용액에 함침하고 함침 용액은 50℃~55℃를 유지했다. 1~2개월간 함침이 끝나면 PEG 4000을 첨가해 40%, 60%, 80%의 순서로 농도를 높였다. 80% 농도에서부터는 수분을 자연 증발시켜 최대한 90% 이상 농도까지 끌어올려 1~2개월 이상 함침하고 건조를 했다.

13) 伊藤健司, 2004. 『保存處理後遺物の経年調査』, 平成12~15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2)研究成果報告書.

〈표 3〉 PEG법 처리과정



Polyethylene glycol4000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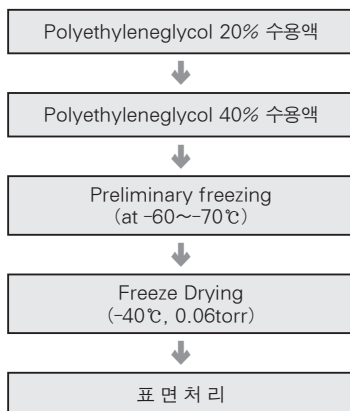
- ▶ 목기 보존처리법 중에서 가장 긴 역사와 많은 처리실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적이며 범용성이 있는 처리법이다.
- ▶ 유물 속의 물을 PEG4000과 치환하는 것이며 유물을 침적한 PEG 수용액의 농도를 높이므로 함침 처리기간이 길다.
- ▶ 함침 중 가온하므로 용액 속에서 목질이 軟化한다.
- ▶ PEG 함침 처리 후 색조가 어두워지는 경향도 있지만, 표면처리에 의해 나무 원래의 질감을 얻을 수 있다.
- ▶ 처리 후 유물은 무거워진다.(약제비중1.21)
- ▶ 처리 후 습도의 영향을 받기 쉬운 편이다.
- ▶ 함침 중 PEG4000이 열화분해해서 有機酸이 발생하기도 한다.
- ▶ 밤나무, 붉가시나무아속, 녹나무과, 일본목련, 때죽나무속 등은 함침 중에 변형과 수축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함침 기간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유물의 손상이나 변형을 확인했는데 특별히 큰 변형은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髓心을 가진 소형유물의 방사방향 균열 기미가 있어 균열방지조치를 했다. 함침이 끝나면 모두 함침 액에서 꺼내 실온에서 건조하고, 黒化된 표면색을 되돌리기 위해 중탕한 Ethanol 59% 수용액으로 표면처리를 하여 마무리했다. 처리 전 · 후 사진은 〈사진 16〉을 참조하기 바란다.

2. 漆器

⇨ 진공동결건조법(Freeze Drying Method) 13점

〈표 4〉 P · D법 처리과정



Freeze Drying의 특징

- ▶ 특히 칠기 · 안료 · 목서가 쓰인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처리법이다.
- ▶ 두꺼운 유물에는 적합하지 않다.
- ▶ 함침 공정을 실온에서 하며 처리기간이 짧다.
- ▶ 처리 후 비교적 밝은 색조를 띤다.
- ▶ 처리 후 유물은 가벼워진다.(처리 전의 반분 이하의 중량)
- ▶ 과건조로 유물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 ▶ 처리장치를 주의 깊게 유지 · 관리해야한다.
- ▶ 열화가 심한 유물은 충분한 강도를 줄 수 없다.

칠기 유물의 보존처리 관건은 칠막의 복원에 있다. 칠기는 여러 가지 보존처리법 중 현재 진공동결건조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진 17〉진공동결건조처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사진 18〉세라믹 인두기를 이용
해 칠막 접착을 한다.

PEG 법과 Lactitol 법은 목기 내 수분을 약품과 치환시켜 물의 표면장력에 의한 수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보통 함침은 55~60℃ 온도에서 고농도까지의 함침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칠기는 온도를 가하면 木胎가 팽창하면서 목태를 덮고 있던 칠막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갈라져 박리되

거나 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칠기의 진공동결건조법은 함침이 실온에서 저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유물 속의 수분을 동결하여 동결상태의 물을 직접 수증기로 제거(승화)하기 때문에 물의 표면장력에 의한 수축이나 변형이 거의 없이 유물의 형상을 유지한 채 건조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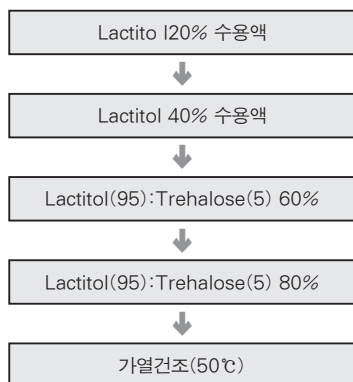
우선, 유물에 강도를 부여하기 위해 동결건조 전에 미리 35℃ 정도에서 PEG 4000 20% 수용액에 함침했다. 약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40% 수용액으로 농도를 높인 다음 1개월 정도 함침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는 진공동결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함침이 끝난 칠기 유물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협조로 예비동결(1일)하고 진공동결건조처리를 했다(사진 17). 처리가 끝난 유물은 일부 칠막이 박리되어 흰 상태였는데 아교 50% 증류수액을 칠막 내측에 묻히고 젖은 거즈를 덧대어 세라믹 인두기(704A)로 접착시켰다(사진 18). 처리 전·후 사진(사진 19)을 참조 바란다.

3. 髓心을 가진 유물

1) 락티톨법 (Lactitol Method) 7점

경산임당 유물 중 髓心을 가지며 열화가 심하지 않고 PEG처리효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밤나무 등의 수종 중에서 중·소형 건조기 내에 수납되는 크기의 유물에 한해서 Lactitol법

〈표 5〉Lactitol법 처리과정



Lactitol법의 특징

- ▶ 저분자로 유물 내부에 침투하기 쉬워 함침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건조과정이 긴 편이다.
- ▶ 온수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취급할 수 있다.
- ▶ 처리 후는 특별한 표면처리 없이 자연스런 색조를 띤다.
- ▶ 열화한 얇은 목제품에는 적합하지 않다.
- ▶ 처리 후 습도의 영향이 적은 편이다.
- ▶ 건조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 처리 후 중량이 무거워진다(비중 1.3)

을 적용했다.

함침에는 당알코올의 일종인 Lactitol을 이용하는데, Lactitol은 천연당을 고압접촉환원한 유당으로 분자량 344의 저분자 화합물로 미생물의 침해가 적고 열 안정성이 뛰어나며 고농도 수용액은 防銹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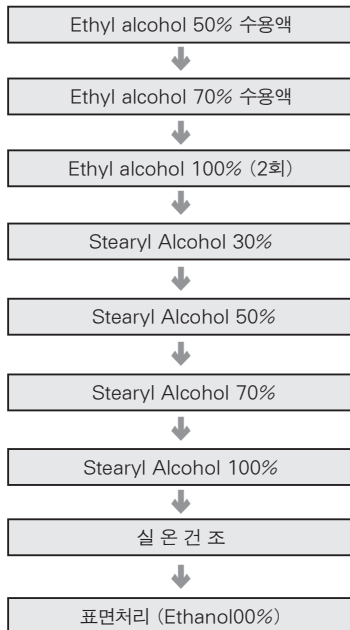


〈사진 20〉 Lactitol법의 건조과정

Lactitol의 초기농도는 20%로 하고, 40%, 60% 농도까지 함침한 다음 자연증발을 통해 최대 70~80% 농도까지 올려 함침을 했다. 함침 기간은 농도별로 약 1개월씩 정도였다. 60% 농도에서부터는 Lactitol의 용해도를 높이고 고농도에서 3수화물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2당류의 Trehalose를 5% 정도 혼합했으며 함침이 끝난 유물은 온수로 표면을 한번 가볍게 씻어낸 다음 Lactitol분말을 뿌려 50℃ 건조기에서 건조를 실시했다〈사진 20〉. 처리 전·후 사진은 〈사진 21〉을 참조하기 바란다.

2) 고급알코올법 (Higher Alcohol Method) 7점

〈표 6〉 H·A법 처리과정



Higher Alcohol법의 특징

- ▶ 합성수지보다 분자량이 작고, 목재조직에의 침투성이 뛰어나 함침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처리공정이 많다.
- ▶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 목기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 ▶ 처리 후 습기의 영향이 거의 없다.
- ▶ 표면처리 후 색깔은 밝고, 질감은 비교적 연질상태이다.
- ▶ 처리 후 중량이 가벼워진다.

열화가 심하여 Lactitol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髓心을 가지며 PEG 처리가 어려운 유물에 적용했다.

친숙한 메탄올(CH_3OH)과 에탄올($\text{C}_2\text{H}_6\text{OH}$)은 저급알코올이다. 이것에 대해, 탄소의 수가 많은 알코올류를 고급알코올이라고 부른다. 고급알코올은 일반적으로 고분자 지방족알코올을 가

리키고 저분자량의 안정한 물질이다. 軟膏基劑나 화장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처리공정은 물과 Ethyl alcohol을 50%부터 서서히 70%, 100%까지 완전하게 치환시킨 다음, Stearyl Alcohol 30% 용액에서 50%, 70%, 100%까지 1개월씩 함침하고 실온에서 건조했다. 물과 Ethyl alcohol의 치환과정에서 탈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공정에서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Ethyl alcohol 100%를 2회 함침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물과 Ethyl alcohol 치환은 실온에서, Ethyl alcohol과 Stearyl Alcohol의 치환은 60℃ 건조기에서 실시했다. 고급알코올의 종류인 Cetyl Alcohol은 처리 후 비교적 연질이 되고 Stearyl Alcohol은 약간 딱딱한 느낌이 된다. 처리 전·후 사진은 <사진 22>를 참조하기 바란다.

V. 맺음말

2009년 3월부터 재가동된 우리 연구원 목기처리실에서는 경산임당 1저습지 출토 목기유물 63점을 2009년 하반기 처리 완료하였다.

유물의 성격과 상태에 따라 다양한 처리법을 적용했지만 아직 처리 전인 다량의 漆器 처리를 위해 기존의 진공동결건조기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 적용 가능한 처리법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새로운 칠기 처리법의 모색이 과제로 남는다. 다행히 우리 연구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오사카시협회 보존처리실에서는 거의 모든 목기유물을 Lactitol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칠기 유물의 성공적인 처리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어 직접적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 받고 칠기 유물에 적용해 볼 계획이다.

올해 들어 시작된 우리 연구원 목기 보존처리실 재개설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한·일간 목기 보존처리기관 현황에서 보듯이 일본보다 훨씬 적은 국내 목기보존처리기관 중 특히 발굴재단법인 중에서는 상당히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일부 발굴재단법인 중에 보존처리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고, 특히 부설 독립기관의 형태를 띤 목기 보존처리 수탁전문기관도 보이는데 적어도 우리 연구원이 앞으로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목기 보존처리를 하면서 발굴담당자에게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있다. ‘빨리 빨리’라는 말이다. 기한까지 꼭 처리를 끝내야 하는 상황 탓인지도 모르지만 보존과학계에서도 단기간에 처리가 빨리 끝나는 처리법을 찾기 위한 실험연구가 많았었고 여전히 그런 처리법은 주목을 받는 듯한 분위기다. 정말 단기간 함침으로 장기간 함침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처리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마시는 물에 체한다고들 한다. 복잡한 조직을 가져 예측이 어려운 목기에 우리의 일방적 계획을 끼워 맞추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분자량이 작고 목재조직 내 침투가 쉬워 함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H·A 법이 많이 선호되었다. 실제로 H·A 법을 이용해 단기간 함침을 실시한 유물은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원래 형상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듯했다. 그러나 X-ray CT촬영을 통해 살펴본 내부는 균열과 수축변형으로 일그러져 있었던 실험보고가 이를 뒷받침한

다¹⁴⁾. 肉眼으로 보기에는 별문제 없어 당장에야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경년변화와 함께 문제점들이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모든 보존처리법에는 충분한 함침 기간이 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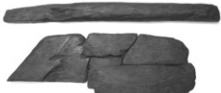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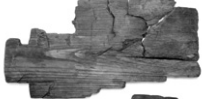
출토목기는 한번 처리하면 평생 가지 않는다. 보관환경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실온에서 목기보존처리의 1회 유통기한은 10~20년 정도라고 말해진다. 유통기한이 끝날 즈음엔 물과 치환시킨 약제가 변질하여 용출돼 나오거나 표면색상이 변하고 접착제가 열화되어 접착부분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묵은 약제를 모두 다 빼내고 새 약제를 주입하는 재처리가 필요하다.

木器考古學은 목기 보존과학의 미래다. 목기보존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인 목기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遺物名欄에 이름 있는 목기보다는 이름 없는 목기가 대다수를 점하는 현실에서는 목기보존과학도 힘을 잃는다. 출토목기란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의 축적 없이는 그저 나무에 불과하다. 단순히 나무가 아닌 정보와 자료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비로소 목기 보존처리도 힘을 얻는다. 앞으로 출토 목기의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가 축적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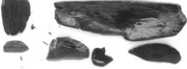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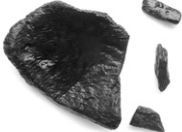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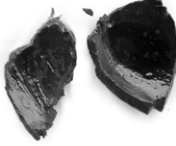
14) Y.kohdzuma, T.koezuka and M.sawada, 「Conservation of Archaeological waterlogged woods in Japan」 『考古科學の總合的研究活動報告書Ⅲ』, 독립행정법인문화재연구소 나라문화재연구소.

유물 번호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유물 번호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2			*47		
*14			*59		
*18			*60		
*19			*61		
*21			*68		
*22			*69		
*24			*71		
*2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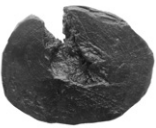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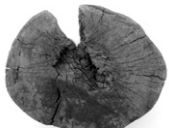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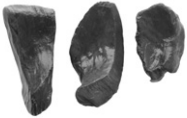
〈*은 미등록 유물〉

유물 번호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유물 번호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26			*74		
*28			*75		
*31			*76		
*37			*84		
*41			*92		
*42			*93		
*43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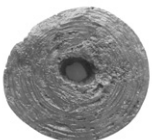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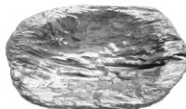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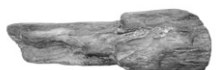
〈사진 16〉 PEG 4000법의 보존처리 전 · 후

유물 번호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유물 번호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2163			*13		
2411			*16		
2613			*32		
2695			*66		
*1			*78		
*10			*88		
*12					

〈사진 19〉 F·D법 보존처리 전·후

유물 번호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유물 번호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2			*46		
*6			*52		
*11			*54		
*13			*55		
*20			*57		
*27			*82		
*30					

〈사진 21〉 Lactitol법 보존처리 전·후

유물 번호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유물 번호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8			*80		
*50			*89		
*70			*96		
*79					

〈사진 22〉 H·A법 보존처리 전·후

문경 호계리 고분군 현황 조사 보고

오동욱*

〈 목 차 〉

- | | |
|-------------------|----------------------|
| I . 머리말 | IV . 호계리 고분군의 분포 양상 |
| II . 호계리 고분군의 위치 | V . 맺음말- 호계리 고분군의 성격 |
| III . 고고 · 역사적 환경 | |

I . 머리말

문경 호계리 고분군은 주변의 고모산성과 신현리 고분군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유적으로, 이미 기존 조사에 의해 문화유적 분포지도¹⁾에 그 간략한 양상이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현지 답사를 통해 고분군의 현황을 살펴보니 6~7세기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봉토분들이 확인되었다. 또 인근에 위치한 삼국시대 성곽 및 고분군의 존재로 보아 호계리 고분군의 성격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아래에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 호계리 고분군의 위치

호계리 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산 5번지 일원이다. 호계면은 문경시의 중앙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산북면과 마성면, 남으로는 점촌면과 산양면에 접한다. 고분군의 위치는 3번 국도²⁾와 34번 국도³⁾가 교차하는 불정1교에서 동쪽의 안동·예천방향으로 34번 국도를 따라 약 3km 정도 이동하면 문경대학으로 향하는 갈림길이 나오고, 이 길을 따라 약 2km 정도 이동하면 문경대학의 정문에 도착하게 되는데, 고분군의 위치는 문경대학 진입도로와 만세제 사이에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일대에 해당한다.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문경읍의 동쪽과 호계면의 북쪽에 위치한 해발 959m의 단산은 남쪽으로 배나무산(해발 811m), 부운령(해발 580m)으로 이어지고, 부운령에서 서남쪽으로 오정산(해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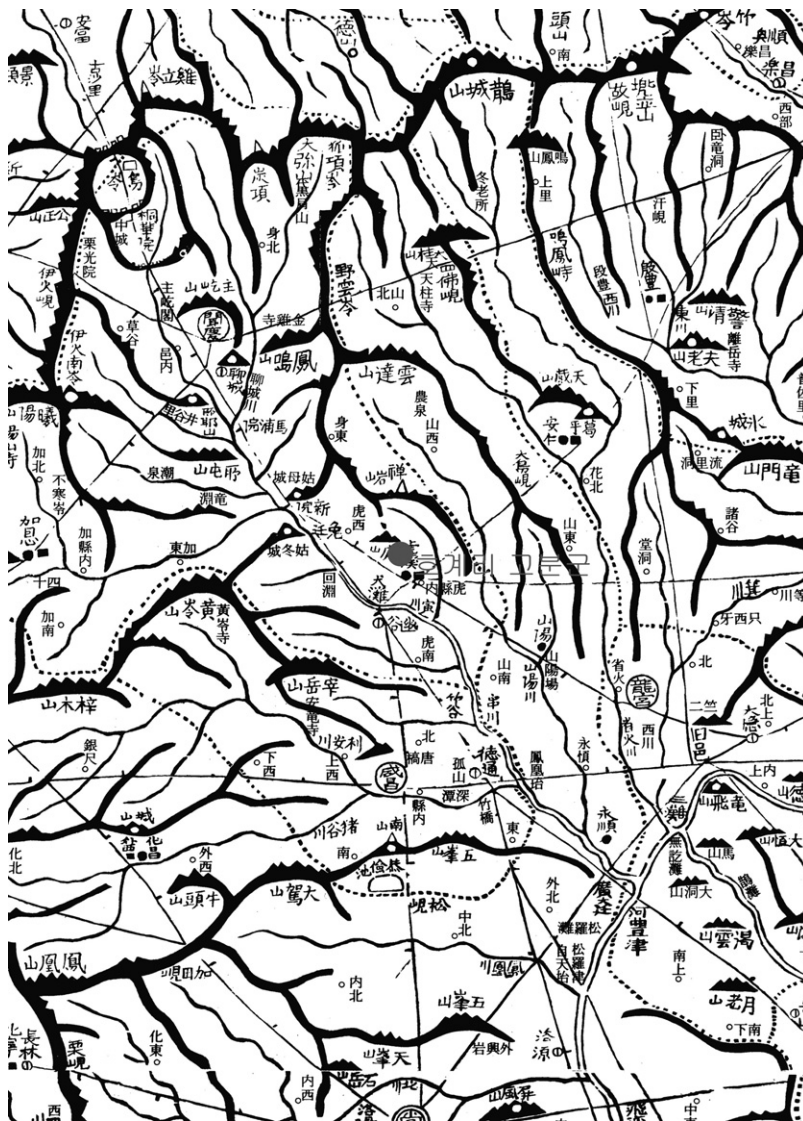
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2004, 『文化遺蹟 分布地圖 -聞慶市-』.

2) 경상남도 남해에서 출발하여 경북지역의 김천, 상주, 문경을 거쳐 평안북도 초산군까지 이르는 도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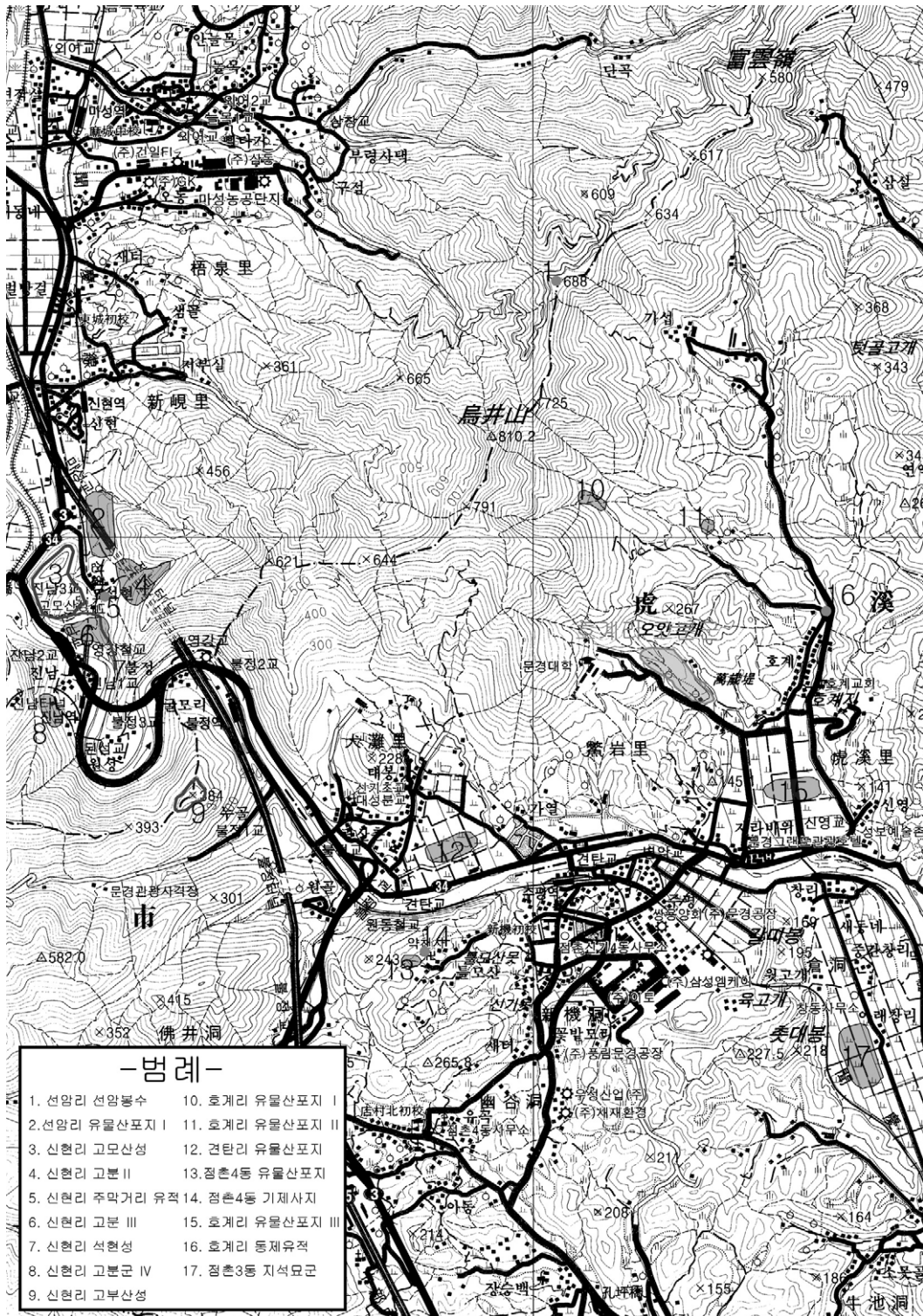
3) 충청남도 당진에서 출발하여 진천과 예천, 문경을 거쳐 안동, 영덕에 이르는 도로이다.

발 810m)을 거쳐 고모산성이 위치한 곳으로 능선이 이어진다. 그리고 부운령에서 동남쪽으로 텃골고개(해발 343m)를 거쳐 해발 200~300m급의 저구릉성 산지가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호계리 일대를 ‘ㅅ’ 모양으로 누르고 있다. 일대에서 발원한 계곡수는 호계리를 거쳐 영강에 합수되어 동남쪽으로 흘러 낙동강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만세제와 호계지와 같은 규모가 큰 못이 일대에 존재하며 또 수량이 풍부하고 평지가 넓은 관계로 논농사가 활발하다.

고분군은 오정산의 주능선상에 있는 해발 791m의 봉우리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해발 195~110m 지점의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로, 전체적으로 서고동저의 형태를 띤다. 현재 구릉 상부는 잡목이 우거져 있으며 구릉 말단부는 일부 삭평되어 민가 3채와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도 1〉 대동여지도 (1:324,000)



〈지도 2〉 호계리 고분군 및 주변 유적 분포도 (1:50,000)

Ⅲ. 고고·역사적 환경

호계리 고분군의 주변 일대에서 알려진 주요 유적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점촌 3동 지석묘군1이 남서쪽으로 약 2.6km 떨어져 있으며, 이번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호계리 추정 지석묘가 고분군의 북동쪽 약 40m 거리에 위치한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호계리 고분군이 있고 서쪽으로 약 4.2km 떨어진 곳에 고모산성과 신현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신현리 석현성이 서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고 봉수시설인 선암리 봉수가 북동쪽으로 약 2.8km 떨어져 위치한다.

<표 1> 주변 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시대 및 유구성격	소재지	이격거리	비고
1	점촌3동 지석묘군1	청동기시대 분묘	문경시 점촌3동 275일대	남서2.6km	
2	호계리 지석묘(추정)	청동기시대 분묘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37전 일원	북동40m	
3	호계리 유물산포지2	청동기~조선시대 유물산포지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113-1 일대	북890m	
4	호계리 유물산포지3	청동기~조선시대 유물산포지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533-1일대	남동650m	
5	호계리 유물산포지1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15 일대	북서910m	
6	고모산성	삼국시대 성곽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151일대	서4.3km	
7	신현리 고분군2	삼국시대 분묘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16일대	서4km	
8	신현리 고분군3	삼국시대 분묘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36-3 일대	서4.1km	
9	신현리 고분군4	삼국시대 분묘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55-12일대	서4.5km	
10	고부산성	삼국시대 성곽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57-2	남서3.5km	
11	견탄리 유물산포지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문경시 호계면 견탄2리 323일대	남서1.8km	
12	점촌4동 유물산포지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문경시 점촌4동 산117 일대	남서2.8km	
13	신현리 유물산포지1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8-2일대	서4.1km	
14	점촌4동 기제사지	통일신라시대 절터	문경시 점촌4동 산121일대	남서2.7km	
15	호계리 동계유적2(보호수)	조선시대 당목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211	북동1.1km	보호수 11-26-5-3-1
16	석현성	조선시대 성곽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38일대	4km	
17	선암리 선암봉수	조선시대 봉수	문경시 호계면 선암리 산24	북동2.8km	
18	신현리 주막거리 유적	조선시대 주거건물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151일대	서4.1km	

청동기시대의 유물·유적들이 호계면과 산북면 등의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보아, 고대로부터 인간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발전을 통하여 문경 일대에서도 일찍부터 소국이 형성되었는데, 진한의 근기국은 지금의 산양면, 호로국(戶路國)은 현재의 문경시 호계면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내물왕대 이후 신라가 비약적으로 팽창하여 문경지역도 신라의 영역에 들어가 관문현(문경읍)·가해현(가은읍)·호측현(호계면) 등이 설치되었다. 경덕왕 16년(757)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 각기 관산현·가선현·호계현 등으로 개명되어 고령군(상주군 합창읍)에 예속되었고, 이때 산양면일대는 가유현으로 예천군에 속해 있었다.

고분군이 위치한 호계면은 삼한시대 호로국(戶路國)으로 비정되며 삼국시대에는 호측현 또는 배산성으로 불리웠다. 이후 신라 경덕왕대(750년)에 이르러 호계현으로 개명되어 고령군(현재 합창읍)에 예속되었다. 고려 현종때(1018년)에 상주에 예속되었으며 조선 태종16년(1416)에 문경현에 합속되어 호현방(戶縣坊)이라 불리었다. 이후 호현내면(戶縣內面)으로 개편되며 견단, 주평, 굴암, 호계, 우로 등 5개리를 관할하게 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서면과 산남면 일부를 병합하여 현재의 호계면이 되었으며, 1973년 행정구역 재개편에 따라 봉정리를 산양면으로 이관시키고, 1986년에 주평리가 점촌시에 소속되어 현재 11개 법정동과 17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Ⅳ. 호계리 고분군의 분포 양상

1. 현황

고분군은 오얏골에서 오얏고개(해발 243m)로 향하는 소로가 위치한 능선 일대로, 지형은 ‘오얏고개’로 향하는 소로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북서쪽의 능선 상단부와 남동쪽의 능선 하단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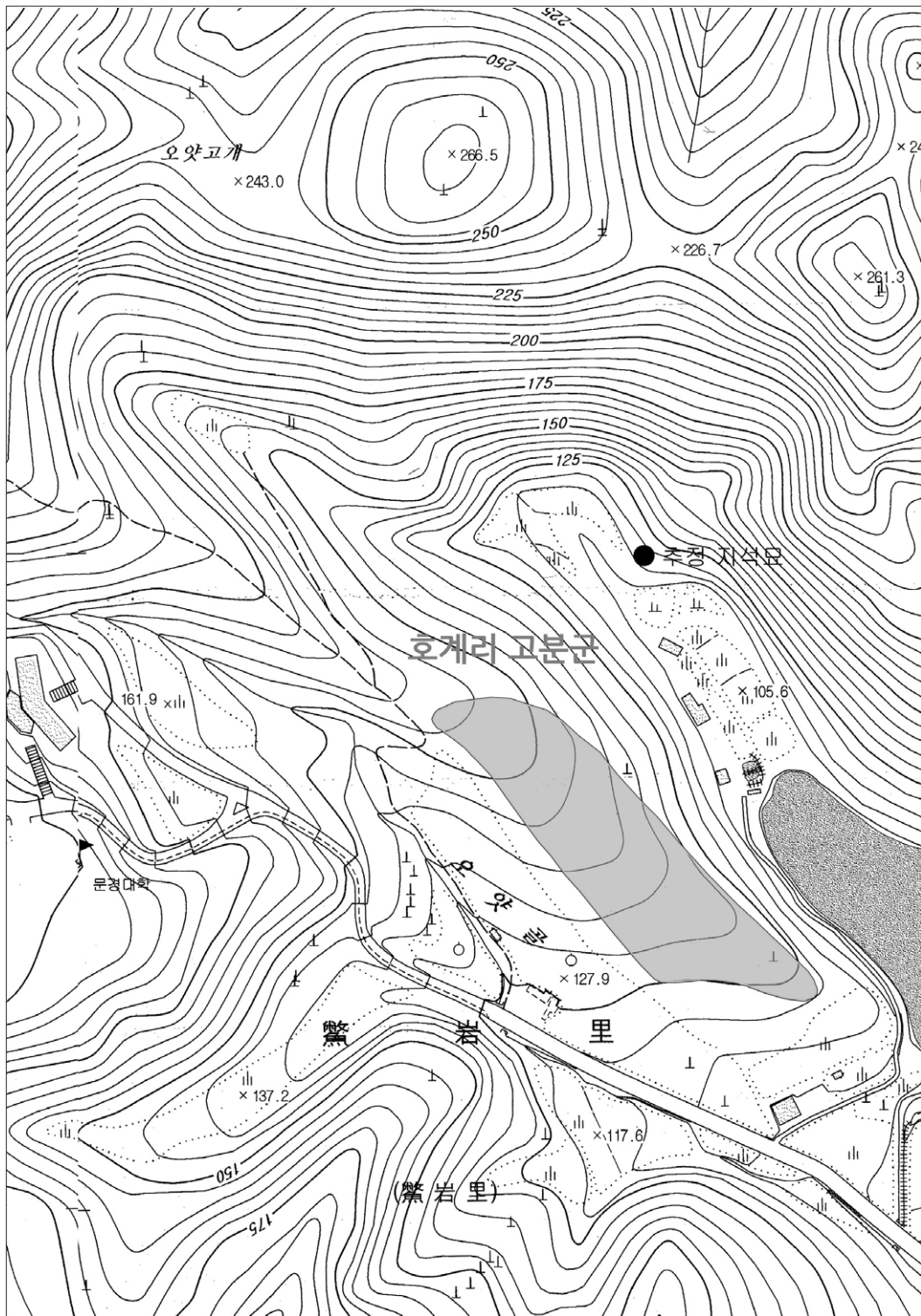
북서쪽의 능선 상단부는 해발 150~200m선상에 위치하며 잡목이 우거져 있다. 이곳의 지형은 대체적으로 등성이가 좁고 경사가 급한 곳으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동쪽의 능선 하단부는 해발 120~150m선상에 위치하며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남서쪽은 ‘오얏골’의 골짜기와 북동쪽은 ‘만세제’와 맞닿아 있다.

유구는 구릉의 능선을 따라 분포하며 현재 확인된 봉토분은 57기이다. 고분군의 현황은 사방공사와 과거 경작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며, 거의가 도굴당했다. 조사된 고분의 현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호계리 고분군 목록

번호	지름	잔존 높이	비고	번호	지름	잔존 높이	비고
1	3.6m	50cm		30	9m	140cm	
2	4.4m	100cm		31	7.2m	80cm	
3	9.8m	160cm		32	10m	160cm	
4	9.2m	100cm		33	8.4m	130cm	
5	9m	150cm		34	9.8m	140cm	
6	10.8m	140cm		35	8m	80cm	
7	7.4m	130cm		36	9.6m	120cm	
8	7.8m	110cm		37	4.8m	30cm	
9	5.2m	80cm		38	6.4m	60cm	
10	4.2m	120cm		39	5.4m	60cm	
11	7m	130cm		40	10m	140cm	
12	6.8m	140cm		41	4.2m	50cm	
13	10.6m	150cm		42	5m	40cm	
14	10m	130cm		43	7.4m	160cm	
15	10.2m	110cm		44	7m	60cm	
16	6.6m	95cm		45	7m	80cm	
17	8.6m	110cm		46	5m	80cm	
18	3.6m	95cm		47	8.2m	90cm	
19	8.8m	85cm		48	7.2m	100cm	
20	12m	100cm		49	5m	30cm	
21	11.2m	120cm		50	5.8m	100cm	
22	12.2m	160cm		51	9.2m	90cm	
23	7m	70cm		52	8.2m	130cm	
24	6.4m	120cm		53	5.2m	100cm	
25	8.2m	140cm		54	7.8m	130cm	
26	8.6m	180cm		55	6.8m	100cm	
27	10m	120cm		56	4.2m	40cm	
28	6.6m	80cm		57	7.2m	140cm	
29	5.8m	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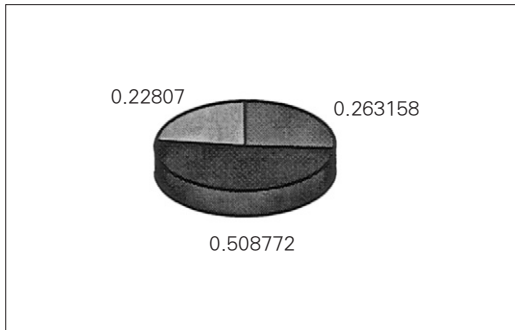
위의 표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봉분의 지름은 대략 5~15m에 달하는 중·소형분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또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형 석실분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노출된 석재와 평면 형태를 살펴본바 방형 석실분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도 3〉 호계리 고분군 주변 지형도 (1:5,000)

2. 분포 양상

수목이 우거져 현장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봉토분이 육안으로 확인되어서 현장 조사에서 휴대용 GPS를 활용하여 그 분포 양상을 나타내는 배치도를 작성하였다⁴⁾. 이와 동시에 지표상의 노출된 봉토분의 지름을 <표 2>와 같이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봉토분의 크기를 구분하여 보니 3개 그룹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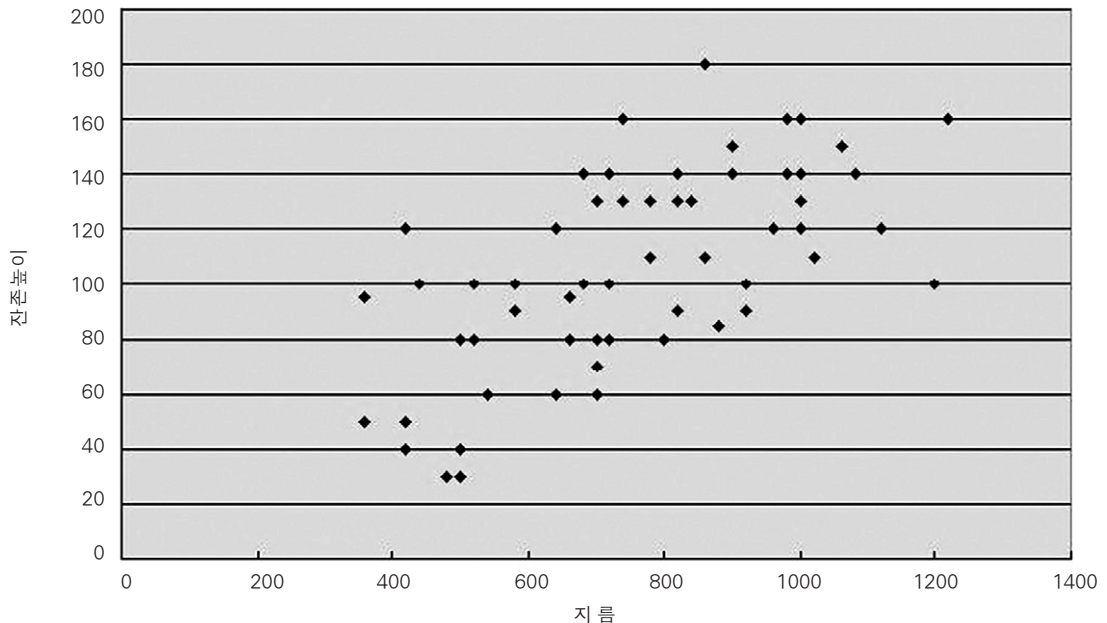


<표 3> 봉토 지름에 따른 분류

지름(미터)	색	개수
6 이하	초록	15
6~9.5	빨강	29
9.5 이상	파랑	13
	합계	57

위와 같은 구분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호계리 고분군 배치도는 <지도 4>와 같다. 그리고 개별 고분의 봉토의 지름과 잔존 높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호계리 고분군의 지름과 잔존높이에 따른 분포표



4) 당시 사용한 휴대용 GPS의 매뉴얼에 따르면 3~5m 정도의 오차가 있다.



〈지도 4〉 호계리 고분군 배치도 (1:2,000)

V. 맏음말-호계리 고분군의 성격

현지 조사를 통해 살펴본 호계리 고분군의 현황을 위와 같이 살펴보았다. 대략적으로 살펴본 개별 봉토분의 내부구조는, 노출된 대다수의 매장주체부가 벽석을 내경하도록 쌓았으며, 상부 벽석의 대부분이 봉토상에 드러나 있고, 고분군 전체를 통틀어 대형의 개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구조는 지상식이며 횡구(혈)식의 석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존에 조사된 보고에 따르면 삼국시대 경질토기편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므로, 앞서 언급한 매장주체부의 형식을 토대로 본 고분군의 축조 시기는 대략 6~7세기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조사에 앞서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호계리 고분군의 주변에서는 <지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현리 고분군과 고모산성, 고부산성 등이 있다. 이 중 신현리 고분군은 문경지역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삼국시대의 고분군으로 이미 몇 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일부가 보고된 바 있다⁵⁾.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석곽 및 석실분이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모산성의 축조시기와도 일부 연결시키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삼국시대의 고분군은 주변 인근의 산성과 Set관계를 이룬다고 언급되는 바, 그리고 바로 인접하여 위치한 고모산성이 위치하므로 그 해석은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바로 이 고모산성과 고부산성 및 신현리 고분군이 위치하는 지역은 점촌에서 문경으로 가는 이 교통로상에 해당하는데, 교통로의 좌우에 높은 협곡이 있으며 그 사이에 좁은 평지가 있는 형태로, 좁은 협로를 통해 방어가 수월한 형태를 가진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전 조사에서 또 다른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고분군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이 외에 별다른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고분군이 확인된 사례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통해 호계리 고분군을 조사하면서, 호계면 주변의 다른 고분군의 분포 여부도 확인하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과 더불어 신현리 고분군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축조시기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에 국한된다는 점과 현지 조사에서 확인된 문경 호계리 고분군의 축조시기가 6세기대 부터인 점에 주목하면, 두 고분군의 축조시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바로 위와 같은 점을 통해서 볼 때, 문경 호계리 고분군은 지리적인 이점을 지닌 신현리 고분군의 축조가 종료되면서 새로이 축조된 고분군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점을 시사할 수 있다.

특정 시기가 되어 지리적인 이점을 지닌 신현리 고분군의 축조집단의 그 효용성을 잃어버리고 새로이 다소 넓은 평야가 위치한 호계면 일대에 새로이 고분군이 축조된다는 것이다. 지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호계면 일대는 전체가 낙동강을 향한 완만한 선상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곡간의 용수가 집중되는 곳으로 현재로도 대다수가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이 형성된 근거지역에 새로이 고분군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현지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문경 호계리 고분군에는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전혀

5)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聞慶 新峴里 古墳群 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聞慶 新峴里 古墳群 2』.

확인되지 않았다. 또 방형 석실분만이 확인되는 점만으로도 위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지표조사에 의한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개략적인 추론만이 가능할 뿐, 더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 앞으로의 조사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문경 호계리 고분군에서는 육안으로 확인된 횡구(혈)식 봉토분은 57기에 불과하지만 추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조사 성과가 기대된다 하겠다. 또 이와 더불어 문경과 점촌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군의 조사 성과가 축적되어 해당 시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 1〉 유적 원경 (북서 → 남동)



〈사진 2〉 유적 원경 (남동 → 북서)



〈사진 3〉 구릉 말단부 과수원 전경



〈사진 4〉 구릉 말단부 토층 단면



〈사진 5〉 20호 봉토분 전경



〈사진 6〉 27호분 봉토분 벽석 노출 상태



〈사진 7〉 호계리 추정 지석묘



〈사진 8〉 만세제 전경

대구 죽곡리 고려시대 경작유적 조사 개보

박헌민* · 이재광** · 김지영***

〈 목 차 〉

I . 머리말	2. 層位
II . 遺蹟의 自然 · 考古學的 環境	IV . 調査內容
1. 自然 · 地理的 環境	1. 遺構
2. 考古學的 環境	2. 遺物
III . 調査方法 및 層位	V . 考察
1. 調査方法	VI . 맺음말

I . 머리말

유적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구 달성 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한 일련의 문화재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대구도시공사의 조사 의뢰로 2005년 9월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원에서는, 지표상 유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주변에 죽곡리고분군과 죽곡리 9-2번지 유적²⁾이 근접하여 있고, 금호강변 서쪽에 위치해 배후습지성 충적지를 이루고 있는 입지 등을 통해 볼 때 조사대상지 내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후, 2007년 8월 17일부터 시굴조사에 착수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고려시대 경작유구(I 구역)와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조선시대 토광묘(II 구역)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8년 5월 7일부터 2009년 5월 29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II . 遺蹟의 自然 · 考古學的 環境

1. 自然 · 地理的 環境

* . ** .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達城 竹谷里9-2番地遺蹟』.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일원으로, 죽곡1리 마을 일부와 마을의 동쪽에 펼쳐진 죽곡들이 해당된다. 조사대상지역의 북쪽에는 城山(180m)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는 竹谷山(195.8m)이, 북동쪽에는 朴山(215.4m)과 弓山(250.9m)이 위치하고 있다. 그 사이로 금호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굽이쳐 흘러 죽곡산의 남쪽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데 금호강은 심한 사행을 보이는 조사지역 북쪽의 세천리 지역을 통과하면서 거의 직류하천에 가까운 성격으로 변모한다. 하천의 서편에는 기반암의 급사면부로 구성된 'cut bank'를 형성하나 동편을 따라서는 대상의 충적평야를 발달시킨다. 조사대상지는 금호강변 서쪽에 위치하며 금호강의 범람으로 이루어진 배후습지성 충적지에 해당한다.

2. 考古學的 環境

조사대상지의 서쪽 인접한 곳에는 죽곡리고분군과 죽곡리산성이 위치한다. 이 곳은 1994년과 2006년에 대구대학교박물관³⁾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⁴⁾에 의해 산성과 고분군의 일부가 조사되어 대구 일원에 대한 5, 6세기의 지역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의 북쪽에는 2005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조사된 죽곡리 9-2번지 유적이 위치하는데, 이곳은 죽곡1 택지개발조성부지로서 조사결과 삼국시대 도로유구,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우물, 경작유구(田畓) 등의 생활유적이 조사되었다. 이렇게 조사대상지의 주변에는 분묘와 관방유적, 생활유적 등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Ⅲ. 調查方法 및 層位

1. 調查方法

현장에 대한 관찰과 주변유적의 성격파악 이후 Grid를 설정하였다. 시굴조사시 설치한 트렌치의 설치방향과 평행·직교되게 50×50m 단위로 구획한 후 총 8개의 Grid를 설정하였다. 각 Grid 사이에는 폭 3m의 독을 남겼고, Grid내 25m 지점에도 폭 1m의 독을 십자상으로 남겼다. 동쪽과 서쪽 12.5m 지점에 다시 남-북상의 독을 추가로 남겨 토층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구획한 독을 이용하여 토층상태를 파악하며 제토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Grid별로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조사전 상태를 촬영하고, 유구의 방향과 직교되게 독을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내용, 주변현황 및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조사기록지 및 조사일지를 기록하고 조사완료된 유구에 대해서는 평·단면도 실측을 하였으며 이를 통한 유구배치도를 작성하였다. 사진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조사단계별로 촬영하였고, 조사진행에 맞추어 적절한 시점에 유적·유구에 대한 공중촬영을 실시하였다.

3) 대구대학교박물관, 2002, 『達城 竹谷里古墳 發掘調査報告書』.

4)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達城 竹谷里古墳群』.

2. 層位

유적 전체의 층위를 상층부터 살펴보면 3m 정도의 매립층을 제거한 이후의 층부터는 하상퇴적층으로 갈색사질점토층과 황갈색 사질점토층, 흑갈색 사질점토층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이 층들은 모두 경작과 관련이 있는 층⁵⁾이지만 금호강의 범람으로 인해 밭고랑이나 논둑과 같은 경작과 관련한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현표토 아래 약 1.5m에서는 폭 10cm 정도의 흑갈색의 니질토 띠가 확인되는데, 이 띠층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레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적의 남동-북서방향으로만 확인되는데 그 외 남서쪽 부분에서는 교란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층아래에서만 밭경작유구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유적의 남서쪽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유적 전체에서 밭경작유구가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⁶⁾.

흑갈색 층의 바로 아래에는 사질성분이 덜한 갈색사질점토층이 10cm 정도 퇴적되어 있고, 그 아래층은 사질성분이 강한 갈색사질점토층으로 유구가 형성되어 있는 기반층이다. 이 두 층은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한 차이를 가진다.

유구가 형성되어 있는 층 아래 50cm 정도 부터는 회흑색의 니질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Ⅳ. 調査内容

대구 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1기, 조선시대 토광묘 2기 등 분묘 3기와 고려시대 밭 6개소⁷⁾가 확인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의 기술은 유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밭(Ⅰ구역)을 중심으로 하겠다.

1. 遺構

밭이 위치하고 있는 Ⅰ구역은 서쪽 구릉의 말단부와 하천 주변에 형성된 배후습지성 충적지에 해당한다. 이를 중심으로 볼 때 구릉 말단부인 서쪽부에서 조사대상지 중심부까지는 지형이 비교적 편평하게 이어지다가 금호강변인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진다. 또한 2Grid와 4Grid에서는 급격한 경사면을 형성하는 부분도 있으며, 고지대와 저지대의 레벨 차이는 약 2m정도이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볼 때 유적의 동쪽은 자연제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유적에서 유구는 해발 15.5~17.5m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층에는 암갈색(10YR 3/4)사질점토가 약 10~15cm 정도로 퇴적되어 있고, 그 아래 약 10~20cm에 퇴적되어 있는 갈색(10YR

5) 눈으로 식별하기에는 어렵지만 간혹 밭고랑으로 보이는 흔적과 점토층 사이에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덮혀 한 층을 파도상으로 이루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

6) 도면 3 유구배치도 참조.

7) 유적 내에서 여타 유적에서 보이는 경계구가 확인되는 곳은 1개소이며, 나머지는 방향성, 중복, 도로유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랑의 연속과 단절, 지형의 변화 등에서 구분할 수 있었다.

4/4)사질점토층에 회황갈색(10YR 4/2)사질점토의 내부토를 가진 발이 확인된다.

유적에서 조사된 발은 총 6개소이다. 발 1~5호는 모두 고랑형태가 거의 직선적으로 매끄럽게 뻗어 나가며, 고랑보다 두둑의 폭이 넓다. 6호는 고랑이 없이 소혈군 만이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발의 구획을 나눈 요소로는 첫째 경계구(발2·4호)에 의한 것, 둘째 유구 상호간 지형상 해발의 차이를 두고 있으면서 유구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발1·3호), 셋째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해 등간격으로 연속되던 고랑사이에 일정부분 공간을 두고 있는 것(발1·2·4호)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외에 유적의 남서쪽에 해당하는 7Grid내의 발 6호에 해당하는 小穴群은 발 4, 5호와 약 20m정도 간격을 두고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소혈군은 발 1~5호처럼 고랑과 소혈이 같이 확인되는 것과는 달리 고랑이 없고 소혈들만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또한 경작의 흔적으로 판단된다.

〈표 1〉 발 속성표

호수	성격	규 모					단면 형태	주 축 방 향	출토 유물
		길이 (m)	폭 (m)	면적(m ²)	고 랑		두둑 폭 (cm)		
					너비 (cm)	깊이 (cm)			
1	발	92	72	6,624(2,007평)	20~40	3~9	40~100	U	N-3~7°-W
2	발	75	31	2,325(705평)					
3	발	현7	70	470(148평)					
4	발	현37	33	1,221(370평)					
5	발	현28	현3	84(25평)					
6	발 (소혈군)	27	13	351(106평)	직경 10~15	2~7	.	U	.

1차 식물규산체 분석에서 유적의 전 층위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배식물은 벼와 기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경작층에서는 보리가 확인된다. 벼의 규산체 산출량이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습지식물인 갈대속의 산출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경작이 이루어지는 동안 범람과 같은 하천작용의 영향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이번 발굴조사대상인 고려시대의 발이 확인된 층에서는 기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2.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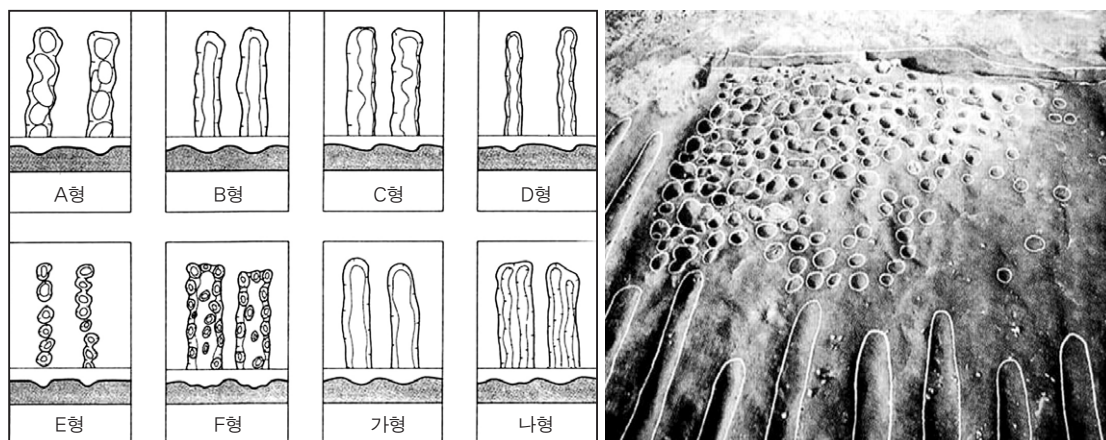
유적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이 片으로 출토되었으며, 수량이 적어 유물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추후 보고서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때문에 이 장에서는 유적 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단순 나열하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I 구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소량이지만 밭고랑 내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과 구지표에서 청자편이 수습되었다. 앞서 말한 바 있지만 유물이 片으로 출토되어 유구의 정확한 경작시기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출토 유물을 통해 경작시기의 하한이 고려시대임을 추정할 수 있겠다.

V. 考察

I 구역 내에서 조사된 밭 6개소 중 1~5호는 상면이 삭평되어 현재 고랑만 확인되는데, 길이는 90m 내외이다. 고랑의 폭은 20~40cm 정도이고, 깊이는 3~9cm정도이며, 두둑의 폭은 40~100cm이다.

조사된 밭의 속성들을 비교해 볼 때 밭 1~5호는 밭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지만 밭 6호는 고랑이 없이 소혈군 만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규모 및 주변 밭 유구와의 위치를 보아도 1~5호에서 경작되던 작물과 6호에서 경작된 작물의 종류가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각 유구의 규모 중 밭 1개소의 너비를 볼 때 85m내외로 비교적 큰 규모(2,300여평)의 밭 1·3호와 너비가 37m내외로 비교적 작은 규모(1,000여평)의 밭 2·4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규모가 큰 1·3호는 유적의 북쪽에 동-서로 위치하며, 레벨의 차이에 의해서 동-서로 구분되어지나 규모가 작은 2·4호는 유적의 남쪽에 남-북으로 나란히 위치하며, 경계구에 의해서 남-북으로 구분되어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적에서 조사된 밭에서 고랑 내 소혈이 있는 것을 A유형, 고랑내 소혈이 없는 것을 B유형, 소혈이 고랑형태를 이루는 것을 C유형, 소혈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D유형으로 나누고, 비교적 밭 조사가 활발한 경상남도 지역의 대표적인 밭경작 유적과 본 유적을 간단하게나마 비교·검토해 보겠다.



▲ 진주 대평 옥방2·3지구 밭유형(좌), 진주 대평 어은 1지구(우)

먼저 A유형은 밭 1호의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진주 대평 옥방2·3지구 밭유형 분류의 A형⁸⁾과 유사하다.

B형은 밭 3~5호와 밭 2호의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진주 대평 옥방2·3지구 밭유형 분류의 B형과 유사하며, 진주 평거동 유적 3지구⁹⁾와 4-1지구¹⁰⁾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고랑

8) 경상대학교박물관, 1999, 『진주 대평리 옥방 2지구 선사유적』.

_____, 2001, 『진주 대평리 옥방 3지구 선사유적』.

이 확인된다.

C형은 밭 2호의 북서쪽 일부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진주 대평 옥방2·3지구 밭유형 분류 E형과 유사하다.

D형은 밭 6호에서 확인되는 형태로 진주 대평 어은 1지구에서 이와 유사한 밭 형태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유적에서 조사된 밭은 대부분 선사시대의 것으로, 본 유적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밭과는 시기 차이가 많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사된 밭의 형태가 유사한 점은 선사시대 이래부터 고려시대 이후까지 밭 형태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어 주목할 부분이다.

고랑의 형태별로도 재배작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차에 이어 2차로 고랑의 유형별 식물규산체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확실한 재배작물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적에서 조사된 밭의 단면형태를 통해 당시 起耕法에 대한 추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적 내 토층의 퇴적양상은 동편에 위치한 금호강의 지속적인 범람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이는 유구가 확인되는 층 이외에 상부퇴적토에서도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포함된 띠층과 고랑처럼 보이는 흔적 등이 부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고려시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경작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식물규산체 분석 결과 고려시대 밭이 확인된 층에서는 기장이 주를 차지하고, 최근 경작층에서는 보리가 주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적의 지형은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1m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유적의 중심에서 금호강 쪽으로, 또 남서쪽의 산지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경작이 이루어졌던 당시 유적의 원지형을 복원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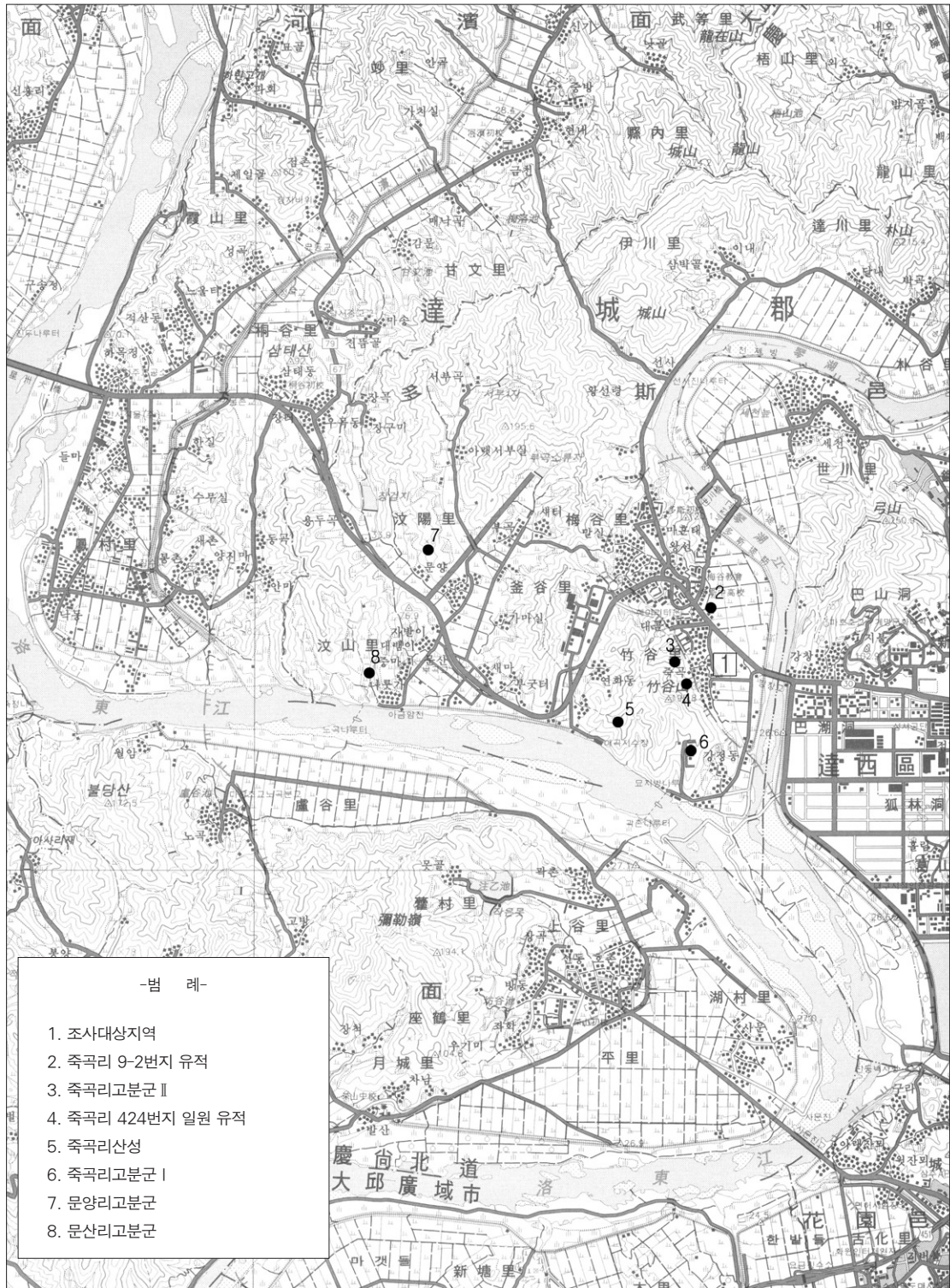
Ⅶ. 맺음말

지금까지 대구 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에서 확인 조사된 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대구 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의 조사성과와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겠다.

조사된 유구는 밭경작을 행하던 유구로 이지역이 고대부터 대규모 생활터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경작 면적이 수천평에 달해 대구지역에서 조사된 고대 밭유구로서는 최대 규모이다. 이는 달성 죽곡리 일원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추하게 해준다. 아울러 타지역에서 조사된 동일성격 유구와의 비교자료로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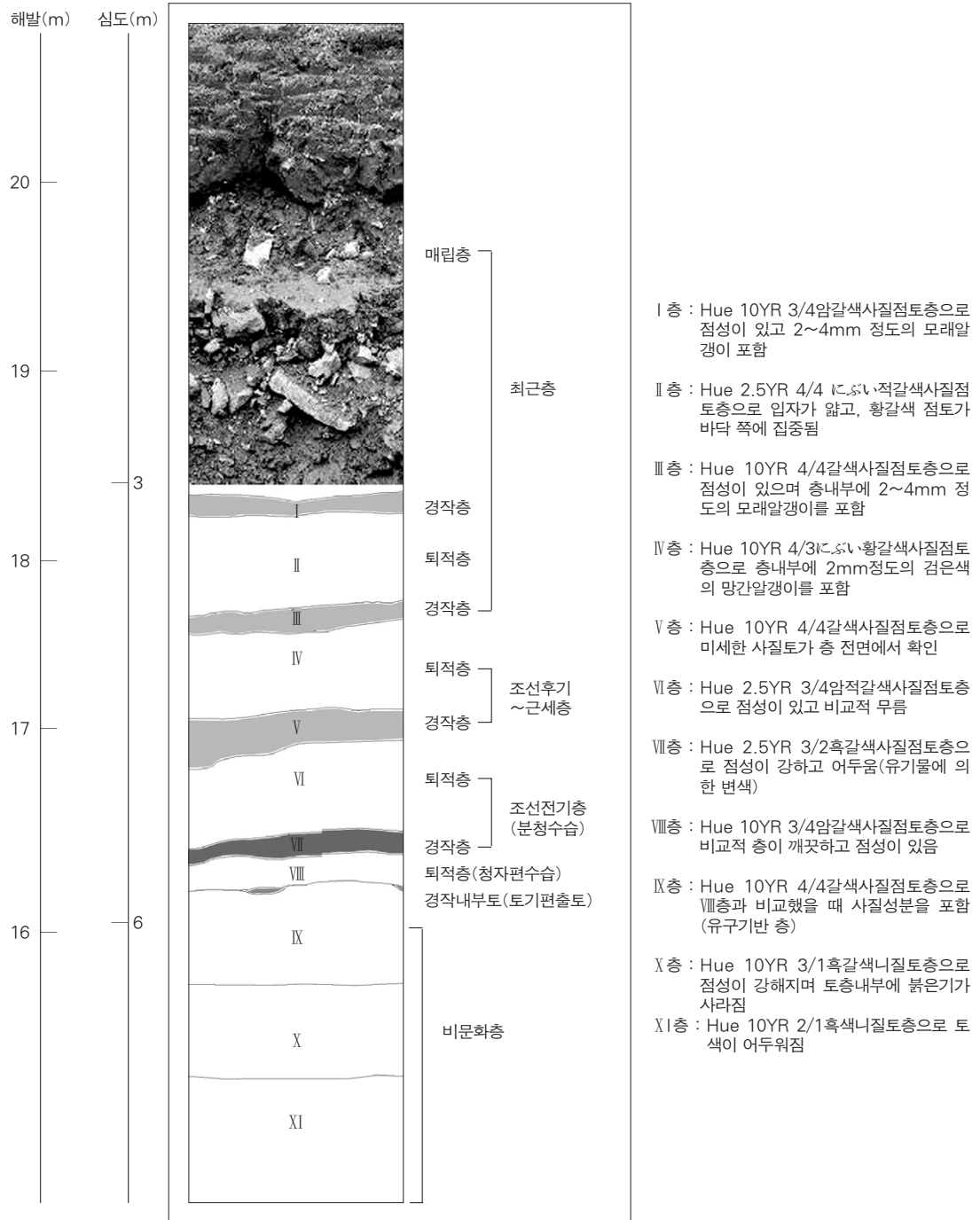
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진주 평거동 유적」 진주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Ⅰ지구) 내 문화유적 추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10)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 「진주 평거동 유적 4-Ⅰ지구」 진주 평거 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도면 1〉 유적위치도(S=1:50,000)

- 306 -



〈도면 3〉 유적 토층도



〈도면 4〉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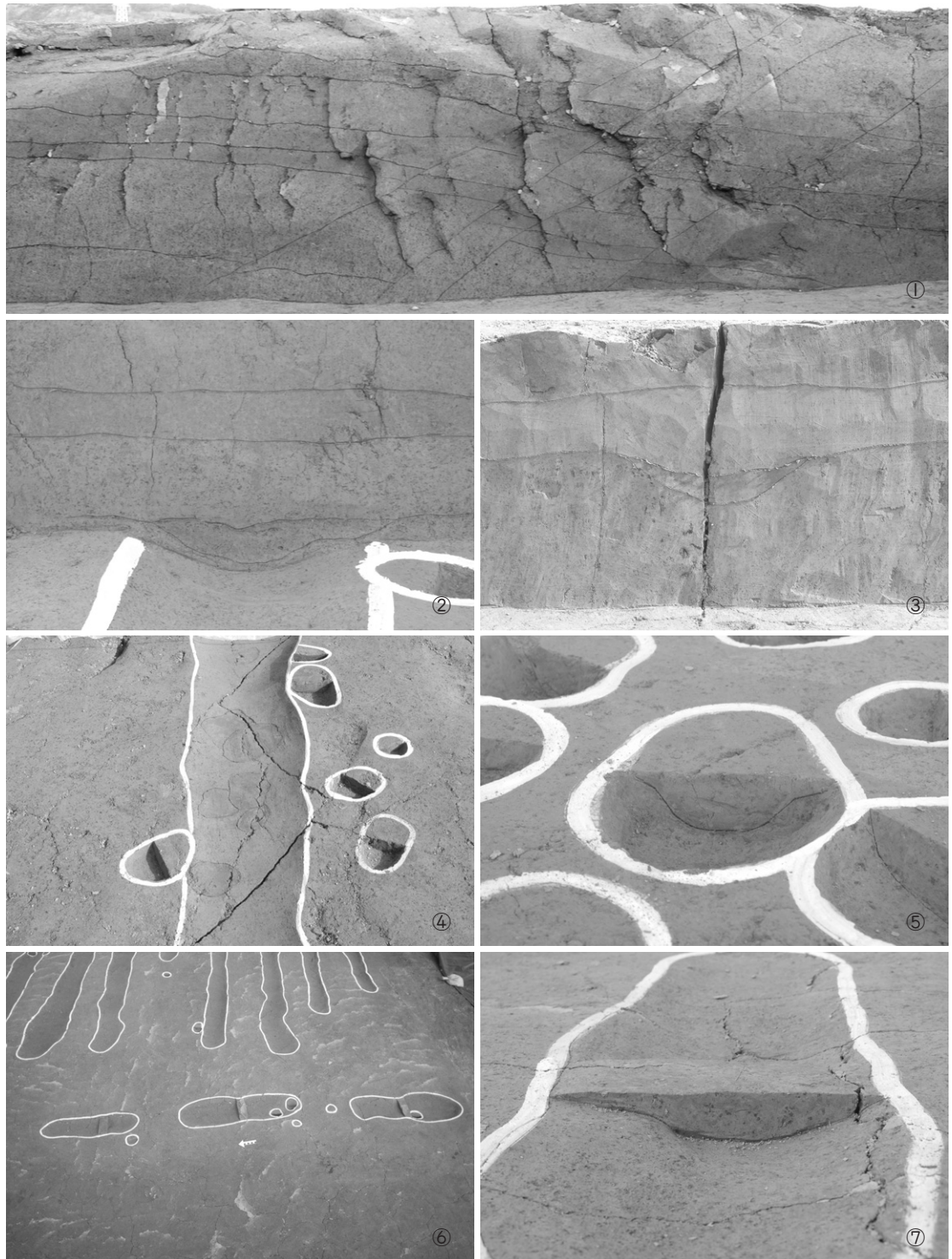
〈사진 1〉 조사대상지역 원경(① 북 → 남, ② 남동 → 북서)



〈사진 2〉 조사대상지역 전경(항공촬영)



〈사진 3〉 ① 발유구 조사전상태, ②~④ 발1호 세부, ⑤ 발2호 세부, ⑥·⑦ 발4호 세부, ⑧ 발6호 세부



〈사진 4〉 ① 유적내 단층현상, ②~③ 고랑 단면, ④ 고랑내 소혈, ⑤ 소혈 단면, ⑥~⑦ 경계구

청도-경산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구간내 경산 서부리 451번지유적 조사 개요

김성태* · 최한태**

〈 목 차 〉

I. 머리말	Ⅲ. 考察
Ⅱ. 調査内容	1. 수혈의 입지
1. 층위	2. 수혈의 성격
2. 유구	3. 수혈 내부 출토유물
3. 유물	Ⅳ. 맺음말

I. 머리말

유적은 경산에서 청도에 이르는 도로공사구간으로, 2001년 3월과 8월에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 지석묘 8개소와 삼국시대 고분군 1개소,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2개소, 추정유적지 1개소를 확인하였다. 이후 전체 구간 중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에서 자인면 서부리까지 약 2.3k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조선시대 유구를 확인하였고, 2009년 2월 16일부터 2009년 10월 6일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초기철기시대 수혈 25기, 원삼국시대 수혈 1기, 통일신라~조선시대 도로유구 2기, 조선시대 건물지 10기 등 다양한 시기의 생활유구를 확인하였다. 유물은 약 800여점이 출토되었다.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451번지(I구역), 동부리 459번지(II구역) 일원으로, 최근까지 과수원 및 밭 경작이 이루어졌다. 유적은 해발 65~70m 정도에 위치하며, '다부리' 마을의 북쪽 구릉(해발 100m)과 '원당' 마을의 북동쪽 구릉(해발 130m), '선창' 마을의 북동쪽 구릉(해발 95m)에 의해 이루어진 곡부에 해당한다. 유적의 남쪽 근접한 곳에 기리지라는 저수지가 위치한다. 유적을 에워싸고 있는 구릉 외곽에는 북서방향으로 굽이쳐 흐르는 오목천에 의해 형성된 '둔들말들'과 '원당들' 등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유적이 위치하는 경산시 자인면 일대에는 청동기시대 이전의 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청동기시대 유적들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오목천의 상류에는 다수의 지석묘군이 밀집되어 있다. 용성면 쟁광리 일대를 비롯하여 미산리, 고죽리, 곡신리, 곡란리, 남산면의 갈지리, 평기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리, 연하리에는 집중적으로 지석묘군이 분포하고 있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1.8km 이격된 곳에 2009년 삼한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월리유물산포지²⁾가 위치하고 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북사리고분군³⁾이 위치하고, 북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교촌리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북서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삼국시대 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가 확인되는 서부리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남동쪽으로 약 2km 떨어져서 미산리산성, 약 2.5km 정도 떨어져서 평기리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Ⅱ. 調查內容

1. 층위

유적의 층위는 I 구역과 II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I 구역은 전체적으로 조사구역의 중앙 부분이 높고 동쪽과 서쪽,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조사구역의 동쪽은 완만한 곡부를 이루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층위 양상이 다른데 동쪽과 서쪽, 중앙부는 상부퇴적토의 두께가 50cm 정도이며, 상부퇴적토 아래에는 바로 암반이 풍화된 토양이 확인된다. 조사구역의 중앙 부분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곡부 지형에는 80~120cm 정도의 퇴적토가 확인된다. I 구역의 층위는 조사구역 동쪽 곡부 지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5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층에 대한 세부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I 구역 층위

층	내 용	비 고
1층	흐린 황갈색(10YR 5/4, 4/3) 사질점토, 근대 경작층, 층의 두께 40~50cm.	
2층	갈색(10YR 4/6) 사질점토, 조선시대 목주 건물지 관련 유구가 확인, 층의 두께 20~30cm정도.	
3층	명황갈색(10YR 6/6), 회황갈색(10YR 4/2),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유물포함층, 층의 두께 10~20cm, 내부 도질토기편 확인.	
4층	회갈색(7.5YR 5/2), 황갈색(10YR 5/8) 사질점토, 소토 알갱이와 목탄 알갱이 다량 혼합, 초기철기시대 유물포함층, 층의 두께는 20~30cm, 단면삼각형 점토대 토기편 다량 확인.	
5층	황갈색(7.5YR 5/8), 적갈색(5YR 4/8) 점토, 암반 풍화층,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수혈, 통일신라~조선시대 도로유구 확인.	

2) 삼한문화재연구원, 2009, 「청도-경산간 도로4차로 확장공사구간내(경산 사월리, 갈지리 구간) 유적 발굴조사지도위원회 자료집」.

3) 영남대학교박물관, 1991, 『慶山 北四里 古墳群』.

Ⅱ 구역은 전체적으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사면을 이루는 지형으로 남서쪽은 계단식 경작으로 구 지형이 교란된 상태이다. Ⅱ 구역의 층위는 전체적으로 3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층에 대한 세부 설명은 <표 2>와 같다.

<표 2> Ⅱ 구역 층위

층	내 용	비고
A층	유구의 상부퇴적층, 사면 위쪽 두께 20~30cm, 사면 아래쪽 두께 50~70cm, 갈색(10YR 4/6) 사질점토, 부식성이 높다.	
B층	암갈색(7.5YR 3/4) 사질점토, 조선시대 목주건물지 확인층, Ⅱ 구역의 남서쪽, 남동쪽 3, 4Grid에서만 확인	
C층	적갈색(5YR 4/8) 점토, 조선시대 목주건물지 확인층, 풍화암반 토양	

2. 유구

본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생활유구가 조사되었다. I 구역에서는 조사구역의 서쪽부분에서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4기와 초기철기시대 수혈 10기, 중앙부분에서 초기철기시대 수혈 15기와 토기매납유구 1기, 유물포함층, 구 1개소, 원삼국시대 수혈 1기, 통일신라시대 도로 2개소가 확인되었다. I 구역와 동쪽 일부분과 Ⅱ 구역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 10동, 수혈 2기, 건물지 관련 구상유구 7기가 확인되었다.

1) 청동기시대

모두 4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유적의 서쪽에 치우쳐서 남-북 방향으로 열을 지어 배치되어 있는 양상이다. 주거지 1호는 주거지 2호에서 북쪽으로 약 15m정도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주거지 2호와 3호, 4호는 1~3m 정도 비교적 가깝게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말각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주거지 3호와 4호는 서쪽 단벽이 결실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주거지 1호와 2호를 통해 볼 때, 길이 약 400~500cm, 너비 약 250~430cm정도이며, 잔존 깊이는 10~40cm 정도이다. 내부에는 대체로 소토와 목탄, 풍화암반 알갱이가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확인된다. 바닥에는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기반층을 편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주거지 1호와 2호의 경우 내부의 중앙에 원형의 무시설식 노지가 확인되며, 주거지 내부에 직경 10~20cm정도의 주혈들이 비교적 정연성을 띠고 있다. 주거지 4호와 5호는 벽구시설이 확인된다. 특히, 주거지 4호는 중앙에 송국리식 주혈배치가 확인된다. 주거지 1호와 2호는 상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쳐서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확인되는데 화재에 의한 폐기로 판단된다. 유물은 주거지 1호의 남서쪽 모서리 부근에서 도치된 상태로 深鉢形土器가 1점 출토되었으며 그 밖에 무문토기 구연부편, 저부편, 주상편인석부, 함인석부, 석기 박편 등이 있다.

〈표 3〉 청동기시대 주거지 현황표

호수	규모 (cm) (장축×단축×깊이)	평면 형태	시설	출토유물	비고
1	442×360×15	장방형	-	심발, 지석	
2	395×263×40	장방형	노지	발 구연부, 편인석부, 주상합인석부	
3	(422)×340×377	장방형	-	저부, 미완성석기	
4	440×(254)×15	-	벽구, 중앙에 송국리식 주혈배치	동채부	

2) 초기철기시대

I 구역에서 수혈과 구,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조사구역의 서쪽에 10기, 중앙부에 분포하는 유물포함층 아래에 15기가 확인되었다. 모두 5층인 황갈색(7.5YR 5/8) 점토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조사구역 서쪽부분의 수혈과 중앙 부분에 확인되는 수혈은 출토유물과 수혈 내부토를 통해 볼 때 동일한 시대의 유구이다. 수혈의 크기는 길이 100~400cm, 너비 100~200cm, 깊이 10~30cm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바닥은 고르지 않다. 내부에는 회갈색(7.5YR 5/2) 또는 황갈색(10YR 5/8) 사질점토가 확인되는데, 서쪽 부분 수혈의 내부토에는 소토 알갱이와 목탄 알갱이가 혼합되어 있다. 중앙부분의 수혈 주변에는 원형의 노지 2기가 확인된다. 수혈 내부에는 다양한 기종의 단면삼각형 점토대 토기가 편으로 높이를 달리하며 출토되며 한 개체를 이루는 양상도 확인된다.

구는 조사구역 동쪽 부분에 1개소가 확인되는데 북에서 남으로 진행한다. 구의 북쪽과 남쪽 부분은 'Y' 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의 폭은 5m정도이며 잔존깊이는 150cm정도이다. 구의 바닥은 전체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면을 이룬다. 구 내부에는 하상퇴적의 양상이 확인된다. 구의 평면형태와 내부 퇴적양상을 통해 볼 때 하도로 판단된다. 구의 퇴적토는 크게 황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층과 초기철기시대 유물포함층의 회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층으로 대별된다. 황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층에는 유수의 흐름이 활발하여 나타나는 사질토로 이루어진 엽층(간층)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볼 때 하층에 해당하는 황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층이 퇴적될 당시와 초기철기시대 유물이 다량 포함된 회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층이 퇴적되는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유물포함층은 I 구역 중앙부에 위치하며 범위는 35m정도이다. 유물포함층 아래에는 수혈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포함층은 유적의 전체적인 층위에서 4층에 해당하며 위에서부터 회갈색 사질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로 구분된다. 유물은 회갈색 사질점토에서 다량 포함되어 있다. 회갈색 사질점토층은 10~20cm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으며 소토와 목탄 알갱이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다량의 단면삼각형 점토대 토기편들이 높이를 달리하며 출토되었다.

〈표 4〉 초기철기시대 수혈

호수	규모(cm) (장축×단축×깊이)	평면형태	출토유물	비고
1	220×82×20	타원형	개	
2	445×188×35	부정형	발, 저부, 구연부, 토기편	
3	335×145×20	부정형	구연부, 고배, 저부	
4	245×141×30	부정형	파수부호	
5	132×127×15	원형	구연부	
6	222×136×10	부정형	구연부	
7	173×(79)×15	부정형	구연부, 토기편	
8	196×184×15	원형	시루, 구연부	
9	220×148×15	타원형	파수부호편, 동체부, 구연부	
10	172×136×15	부정형	저부	
11	원삼국시대 수혈			
12	258×236×30	원형	구연부, 파수, 저부, 석검	
13	140×136×20	부정형	방추차	
14	356×290×35	부정형	저부, 구연부, 파수	
15	158×124×17	부정형	저부, 방추차	
16	396×308×60	부정형	파수부호편, 고배, 구연부, 저부, 방추차, 파수	
17	230×222×21	원형	고배, 호, 발, 구연부, 저부	
18	314×260×10	부정형	구연부, 경부, 저부	
19	244×188×21	부정형	발, 구연부, 저부	
20	232×200×20	부정형	개, 구연부, 호, 저부, 파수부호	
21	180×112×10	타원형	저부, 고배	
22	596×210×10	부정형	고배, 저부, 개, 구연부, 소형토기, 발, 대각, 방추차, 파수,	
23	120×760×10	부정형	구연부	
24	160×84×30	부정형	저부	
25	216×(164)×15	부정형	고배, 대각, 저부	

3) 원삼국시대

I 구역 중앙부에서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수혈의 크기는 길이 354cm, 너비 현 232cm, 최대 깊이 30cm정도이다. 수혈 내부에는 호린 황갈색 사질점토와 소토 덩이와 다량의 목탄 알갱이가 포함된 사질점토가 확인되는데, 소토와 목탄이 포함된 사질점토는 수혈 내부에 일정한 범위로 확인된다. 수혈의 바닥은 완만한 'U' 자형을 이룬다. 수혈 내부에서 와질 파수부용 구연부, 조합우각형파수, 철기 등이 편으로 출토되었다.

4)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는 1구역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1호와 2호는 약 8.6m 정도 떨어져 배치되며 유적의 북쪽과 남쪽 경계 밖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확인된 도로유구의 규모는 길이 약 40m, 폭 3~8m정도이며 내부의 깊이는 30~50cm 내외이다. 진행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유적의 북쪽에 위치한 야트막한 구릉의 꼭부를 따라 자인읍내 쪽으로 향하고 있다. 도로유구는 노면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층을 굴착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중복·교차된 수 조의 수레바퀴흔과 동물 발자국흔이 확인된다. 수레바퀴흔의 단면 'U' 자상을 띠고 있는데, 바퀴 홈의 너비는 대체로 10cm 내외, 깊이는 10~25cm 정도이다. 수레바퀴의 한 축간 너비는 약 200cm정도이다. 도로유구는 암반이 풍화된 구지표면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수레바퀴흔에 의해 바닥면이 패이게 되면 굵은 석립이 다량 함유된 사질토를 깔아 노면을 보수하여 사용하였다. 구지표를 그대로 활용한 최하층에서는 삼국시대 토기편이 확인되며, 상부에서는 자기편, 수기와 등이 확인된다.

5) 조선시대

본 유적의 I 구역 동쪽 일부분과 II 구역의 동쪽 부분 전체에 확인되었다.

I 구역 동쪽에서 건물지 관련 구상유구 5기, II 구역의 동쪽에서 건물지 10동, 건물지 관련 구상유구 2기, 수혈 1기, 삼가마 1기가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2구역의 동쪽에 넓게 조성되어 있다. 건물지는 목주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면을 기준으로 대체로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건물지 외곽으로 구상유구가 돌아가는 양상이다. II 구역의 건물지는 전체적으로 'ㄷ' 자형으로 구상유구가 돌아가고 그 안에 9동의 목주 건물지 배치되는 양상이다. II 구역의 남서쪽에는 문주석이 확인된다. 건물지 내부에는 아궁이가 확인되는데 전체적으로 1동의 건물지에 1개소씩 확인된다. 대부분 아궁이는 주혈과 주혈 사이에 조성되어 있다. 목주건물지 2호에서 건물지 뒷편(서쪽)으로 구가 돌아가며 아궁이는 구와 연결되는 양상이다. 구 내부에는 다량의 평기와편이 출토되었다.

〈표 5〉 건물지 현황표

호수	규모(cm) (장축×단축×깊이)	주혈 배치 양상	목주간 거리(cm)	시설	비고
1	1280×1260	5개의 주혈이 4열로 배치됨	200, 165	아궁이	II 구역
2	460×290	3개의 주혈이 2열로 배치됨	175, 210	아궁이	II 구역
3	930×630	5개의 주혈이 2열로 배치됨	165, 190	-	II 구역
4	685×305	4개의 주혈이 2열로 배치됨	192~205, 230~250	-	II 구역
5	700×125	4개의 주혈이 2열로 배치됨	180, 60~75	-	II 구역
6	320×295	3개의 주혈이 2열로 배치됨	104~125, 176~205	-	II 구역
7	525×290	2개의 주혈이 2열로 배치됨	230, 180~200	아궁이	II 구역
8	345×335	2개의 주혈이 2열로 배치됨	265, 260	아궁이	II 구역
9	710×310	4개의 주혈이 2열로 배치됨	165, 245	-	II 구역
10	375×200	3개의 주혈이 2열로 배치됨	140~145, 130~160	문주석	II 구역

〈표 6〉 건물지 관련 구상유구

호수	규모 (cm) (주혈군의 장축×단축)	출토유물	비고
1	(1250)×280×30	자기 저부, 옹기, 어망추	I 구역
2	1140×190×40	자기 저부, 자기 완, 자기 접시	I 구역
3	(910)×110×20	자기 저부, 옹기 편	I 구역
4	(2000)×160×20	자기 저부, 완, 곰방대, 방추차	I 구역
5	1100×610×25	자기 저부, 옹기편, 이형석제품	I 구역
6	(2048)×290×35	자기 저부, 백자 완, 옹기편, 창해파문 평기와	II 구역
7	615×116×10	자기 저부	II 구역

3. 유물

유물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초기철기시대 유물포함층, 수혈, 구,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조선시대 건물지 관련 구상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는 심발형 무문토기, 편평편인석부, 합인석부,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초기철기시대 유구에서는 단면원형과 삼각형 점토대 옹과 경질무문토기 호, 파수부호, 개, 고배, 시루, 흑도장경호, 소형토기 등 다양한 기종의 토기가 다량 출토되었으며, 토기와 함께 석검, 합인석부, 지석, 원형토제품, 토제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토기 중 파수부호의 내면과 저부의 바닥에는 포목흔적이 관찰되었다. 경질 무문토기의 고배의 대각은 플라스크형 대각과 나팔형 대각으로 구분된다. 흑도장경호는 굽이 있으며 구경부가 약하게 외반하고 동최대경이 동하부에 있다.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바닥면에서 통일신라시대 평기와편과 도질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건물지관련 구상유구 내부에서는 창해파문이 시문된 평기와와 백자, 분청사기 대접과 접시 등 다양한 기종의 자기가 편으로 출토되었다.

V. 考察

본 장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수혈의 입지와 수혈의 성격, 초기철기시대 유물포함층 출토 토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수혈의 입지

초기철기시대 수혈과 구는 조사대상지의 남쪽에 위치하는 기리지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야트막한 능선의 사면 말단부와 곡부에 입지하는데, 대구·경산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수혈이 확인된 유적들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입지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대구 신천 1-2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내 유적⁴⁾과 성주 상언리유적⁵⁾, 경산 평사리유적⁶⁾, 하양 대학리유적⁷⁾ 등이 있다〈도면 5〉.

대구 신천동유적은 신천동 일원에 발달한 구릉부이며 이 구릉은 대구의 남동쪽에 솟아 있는 대덕산(해발 600m)에서 연암산으로 연결되는 구릉의 중간 부분에 해당된다. 구릉의 정부는 해발 50~60m가량 되며 대현동과 신천동에 걸쳐서 2개의 봉우리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적은 'Y' 자상으로 갈라진 구릉의 양쪽사면과 그 골짜기에 위치한다. 성주 상언리유적은 성주군 용암면과 고령군 운수면의 면계를 이루는 해발 321m인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된다. 이곳은 고도가 다시 해발 113m로 낮아져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형성된 길고 완만한 능선으로 이어져 있다. 유적은 두 개의 구릉부와 구릉 양쪽에 형성된 곡부에 형성되어 있다. 경산 평사리 유적은 총 4개 구역 중 I-2구역과 II 구역에서 초기철기시대 관련 유구가 확인되었다. II 구역은 동서쪽에 형성된 해발 86.2m와 93.4m의 비교적 얇은 구릉사이의 계곡부에 해당하며 I-2구역은 II 구역의 남서쪽 능선 말단부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유적은 문천지의 남동쪽에 형성되어 있는 나지막한 구릉성 산지와 곡부에 해당한다. 하양 대학리 유적은 경산시 하양읍의 북부에 위치하고 무학산에서 동남쪽 와촌들로 향하는 해발 120~137m의 갈래 능선 사이의 곡부에 위치한다.

2. 수혈의 성격

초기철기시대 수혈은 I 구역의 서쪽에서 10기, 중앙부에서 15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평면 형태는 부정형을 띠고 있으며 바닥이 고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수혈은 간단한 굴착만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편성과 효율성에서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형태가 정연하지 않고 출토유물이 빈약하여 성격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수혈은 용도에 따라 주거, 생산, 폐기, 토취, 의례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주거나 생산의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의 용도들은 하나의 기능만을 갖는다고 보다는 오히려 한 수혈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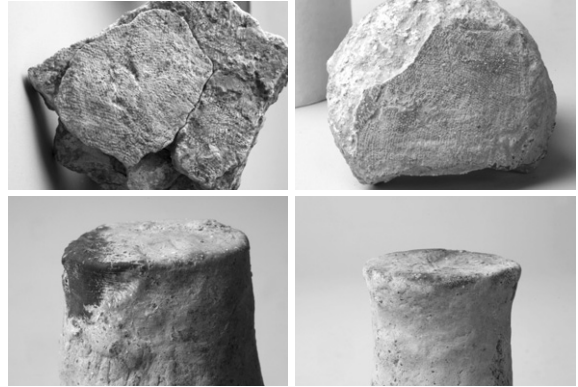
본 유적에서 조사된 수혈은 능선의 곡부에 형성된 암반이 풍화된 질 좋은 사질점토 위에 형성되어 있고, 내부에서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확인된 수혈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수혈 2호의 경우 두형토기 배신을 의도적으로 파쇄한 다음 폐기한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수혈 16호를 비롯한 일부 수혈의 내부에서는 주거지 벽체가 확인되고 있으며, 다수의 소형토기도 출토되었다.

이러한 수혈 내부의 양상을 통해 볼 때, 수혈은 주거나 생산의 용도로 점토를 이용한 다음 시간을 두고 의례나 폐기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가능성 있다

-
- 4) 삼한문화재연구원, 2008, 『대구 신천 1-2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내 유적 지도위원회 자료집』.
 - 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성주 상언리 유적』.
 -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한국도로공사, 2006, 『京釜高速道路 慶州-東大邱間 擴張工事區間內 大邱 新西洞, 大林 · 司福洞 遺蹟 / 慶山 平沙里遺蹟』.
 - 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하양~와촌~대구간 도로 확 · 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하양 대학리 · 와촌 동강리유적-』.

3. 수혈 내부 출토유물

수혈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단면삼각형 점토대웅, 경질 무문토기 파수부호, 시루, 고배, 토제 방추차, 원형토제품, 생활용 석기 등 다양하다. 특히 유물포함층에서 출토된 경질 무문토기 대형 파수 내면과 저부편의 바닥에는 포목 흔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량이기는 하나 원형점토대토기편이 확인되고 있다. 수혈 11호에서는 조합식우각형 파수와 승석문이 타날된 파수부호 등 와질토기만 출토되었다.



본 유적에서 확인되는 수혈의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원형점토대 토기단계에서 삼각형점토대 토기단계, 고식와질토기 단계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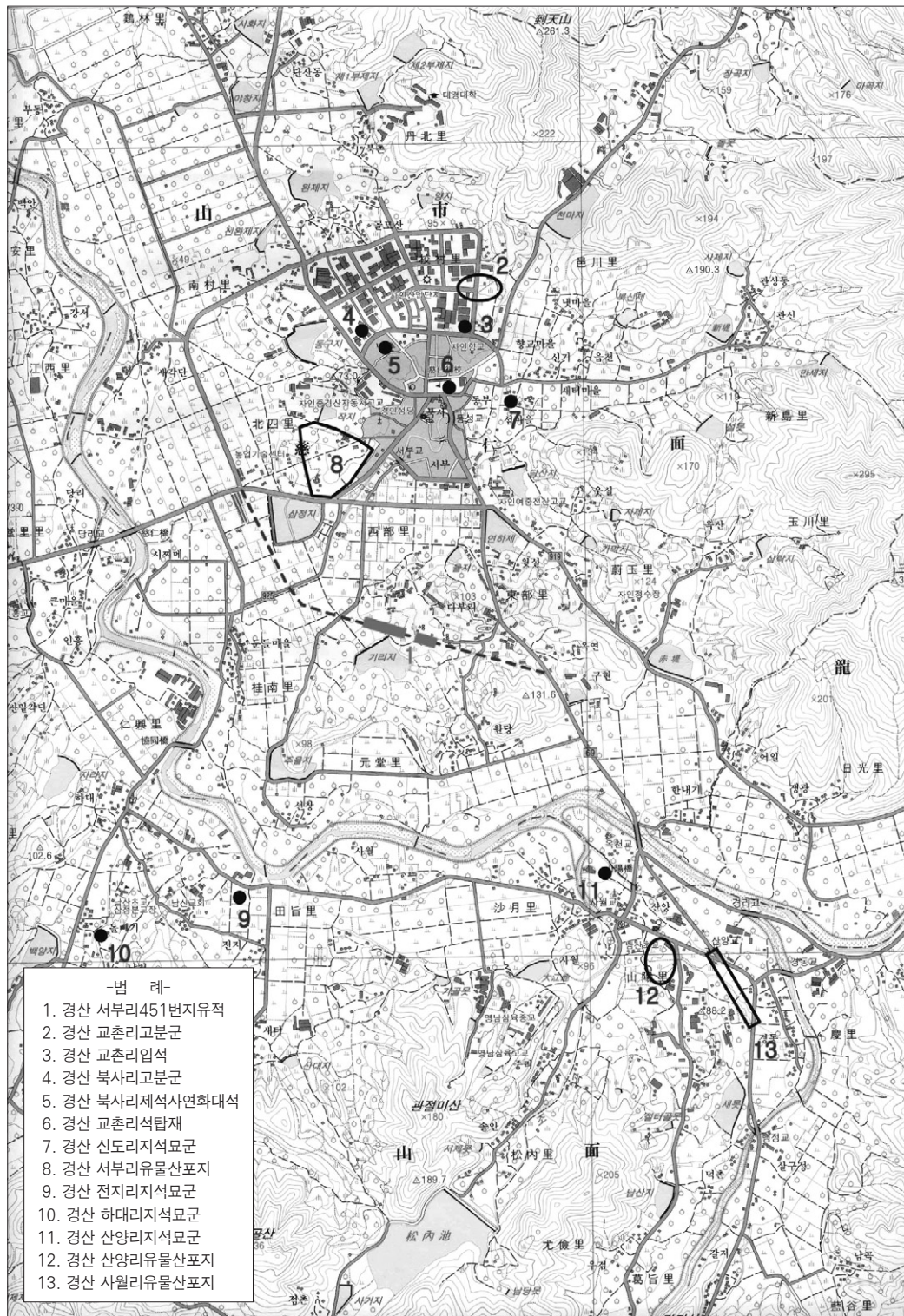
Ⅵ. 맺음말

청도-경산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구간내 유적의 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초기철기시대 수혈, 구, 원삼국시대 수혈, 통일신라~조선시대 도로유구, 조선시대 목주건물지 등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생활유구가 조사되었다. 여기서는 조사성과를 통해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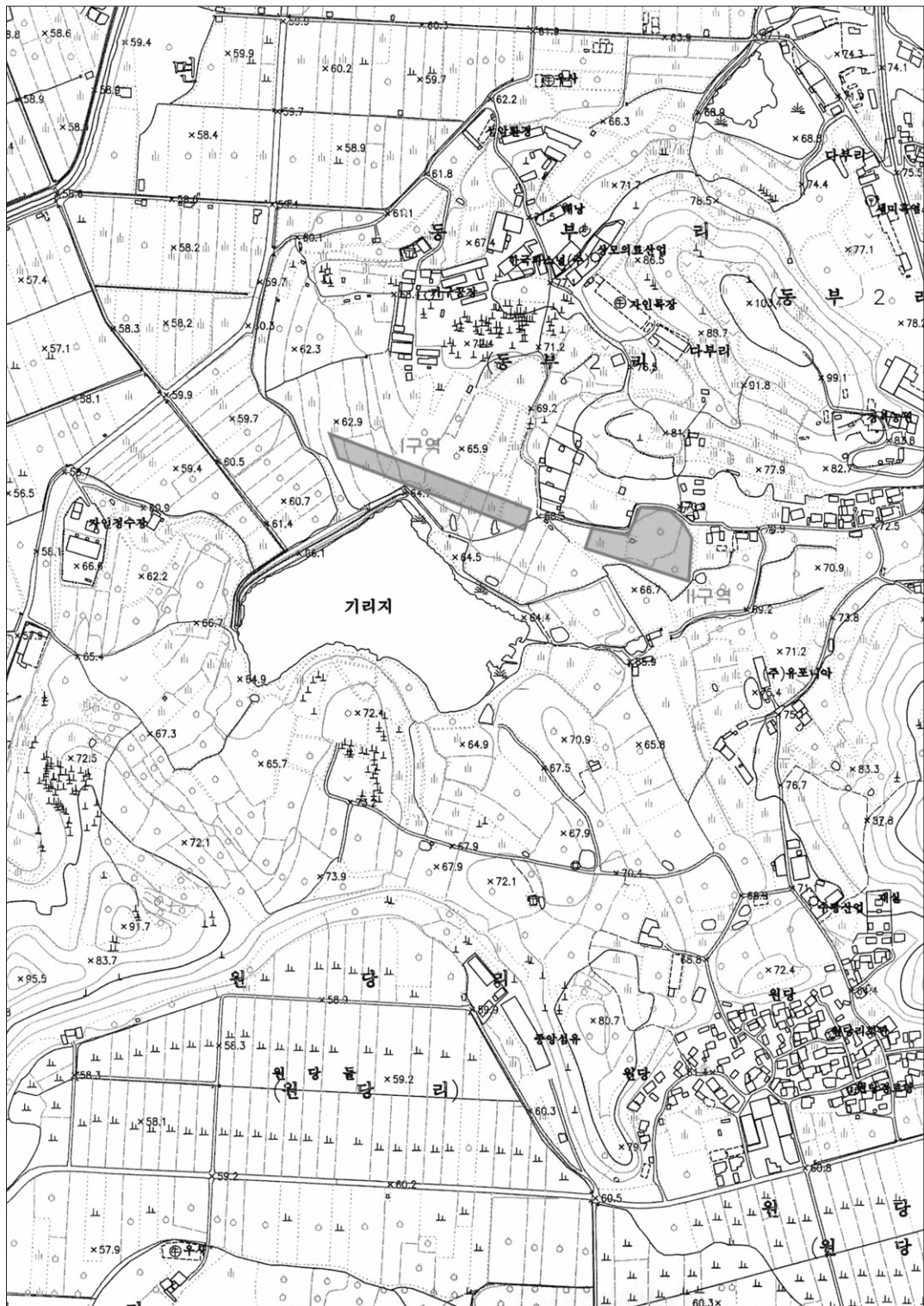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의 연대는 청동기시대 전기 말에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 4호는 벽구를 갖추었으며 중앙에 송국리식 중앙 주혈을 가진 형태로 주거지 구조와 변화상을 관찰할 수 있는 유구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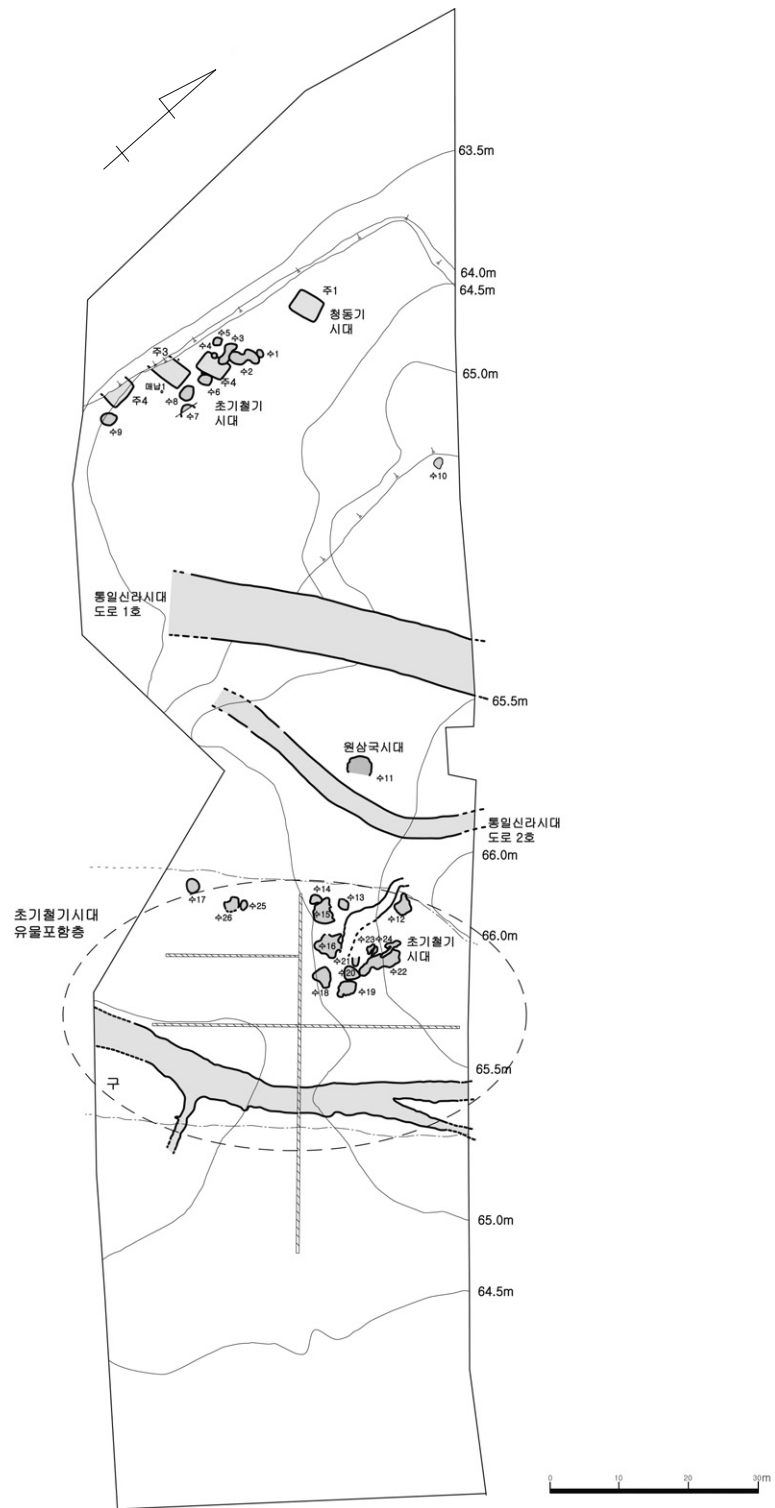
초기철기시대 수혈과 구는 곡부의 완만한 사면에 입지하는데, 이러한 입지에 형성된 유적으로는 대구 신천동 유적, 성주 상언리유적, 경산 평사리유적 등이 있다. 수혈은 양질의 사질점토에 형성되어 있고, 평면형태가 부정형이며, 바닥이 고르지 않고, 수혈 내부에서 주거지 벽체가 확인되고, 소형토기와 한 개체의 토기가 파쇄되어 출토되는 양상 등을 통해 볼 때 여러 가지의 용도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생활관련 용도의 수혈로 보인다. 초기철기시대 유구에서는 단면삼각형 점토대웅, 경질 무문토기 파수부호, 시루, 고배, 토제 방추차, 원형토제품, 생활용 석기 등 다양한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특히 경질 무문토기 대형 파수 내면에 포목 흔적이 확인되어 초기철기시대 점토대토기의 제작과 관련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최근 대구·경산지역 일대에서 초기철기시대 유적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향후 이 일대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영남지방 전체는 물론 금호강 유역의 이 시기의 유적과 유물의 상호 비교자료가 되고, 지역 문화상을 밝히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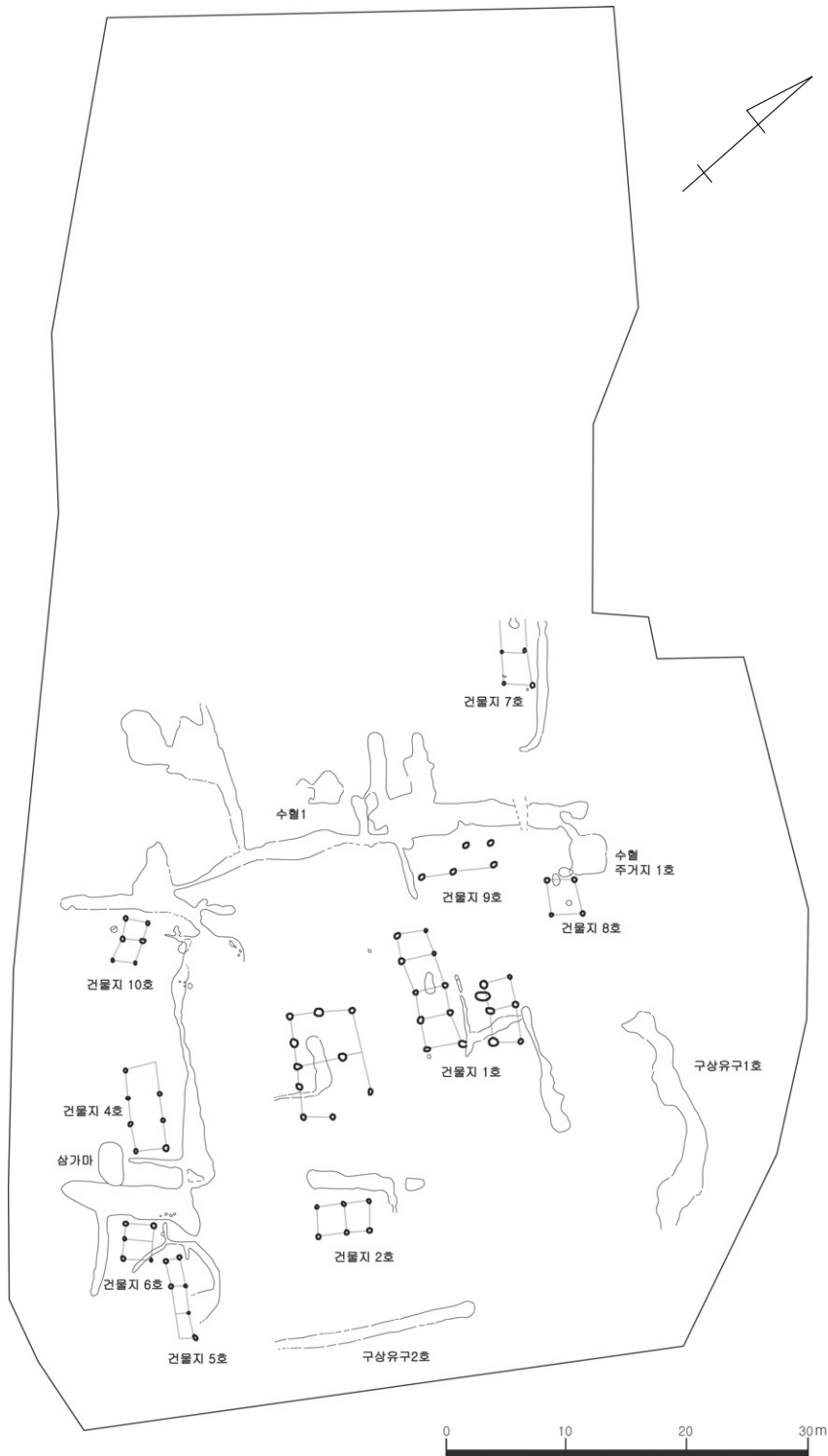


〈도면 1〉 유적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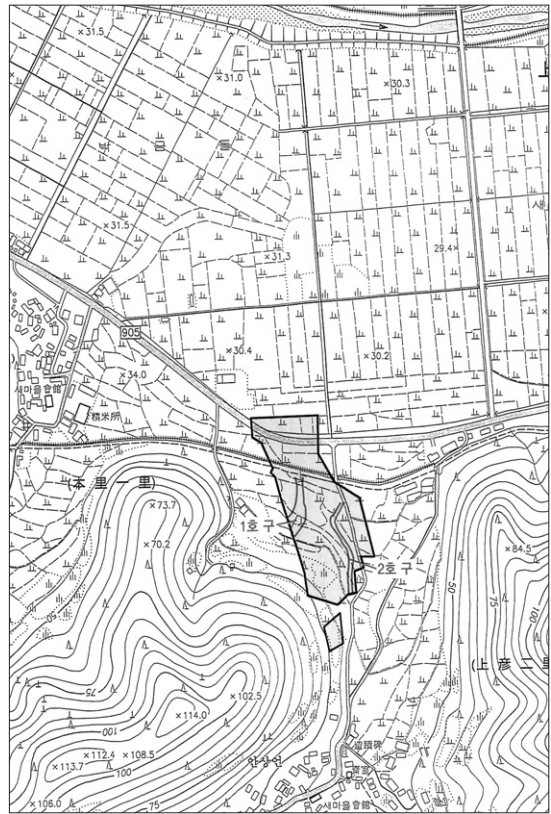
〈도면 3〉 I 구역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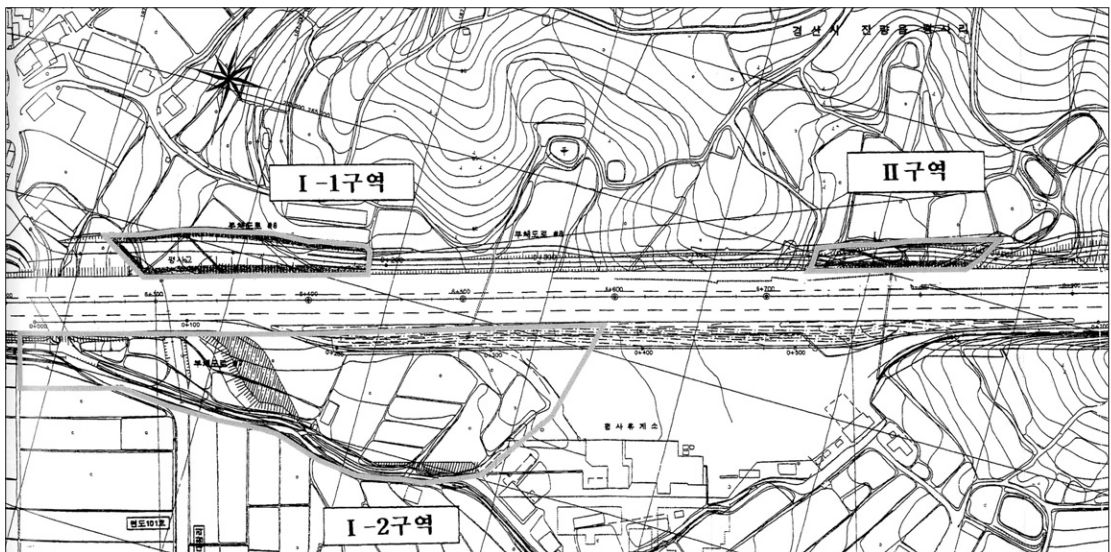
〈도면 4〉 Ⅱ구역 유구배치도



〈도면 5〉 대구 신천동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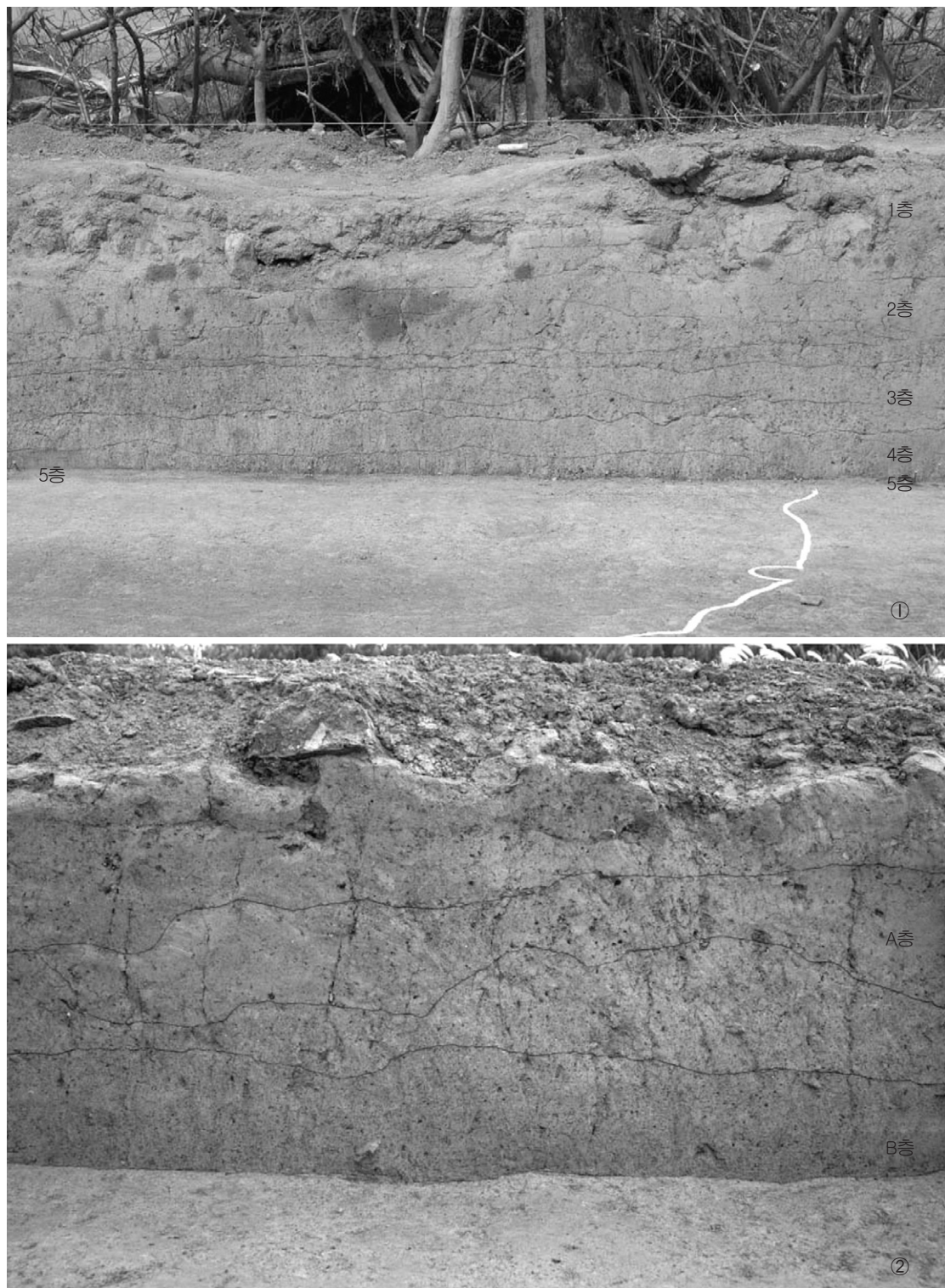
〈도면 6〉 하양 대학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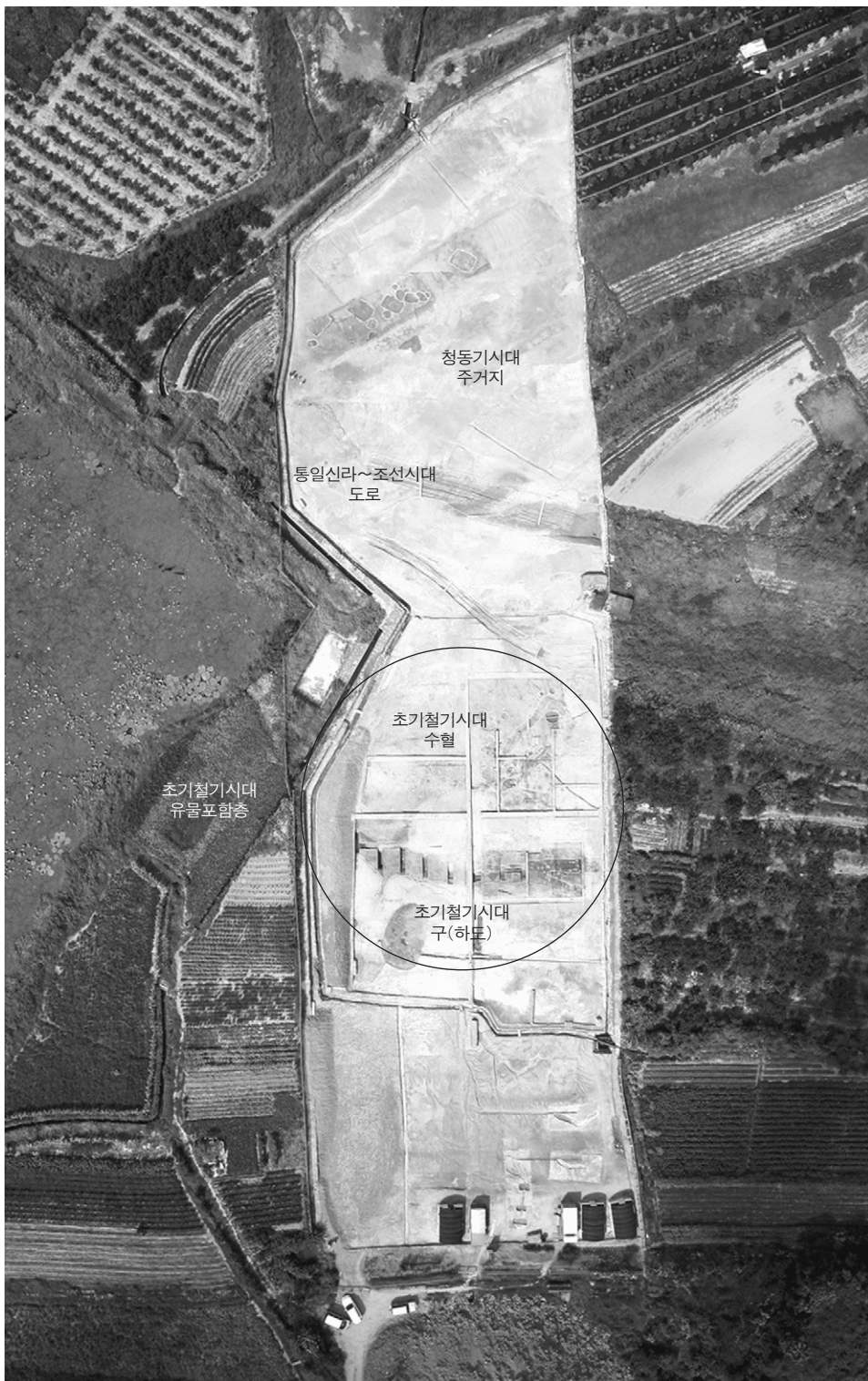
〈도면 7〉 경산 평사리유적(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6)



〈사진 1〉 유적 전경(① S→N, ② 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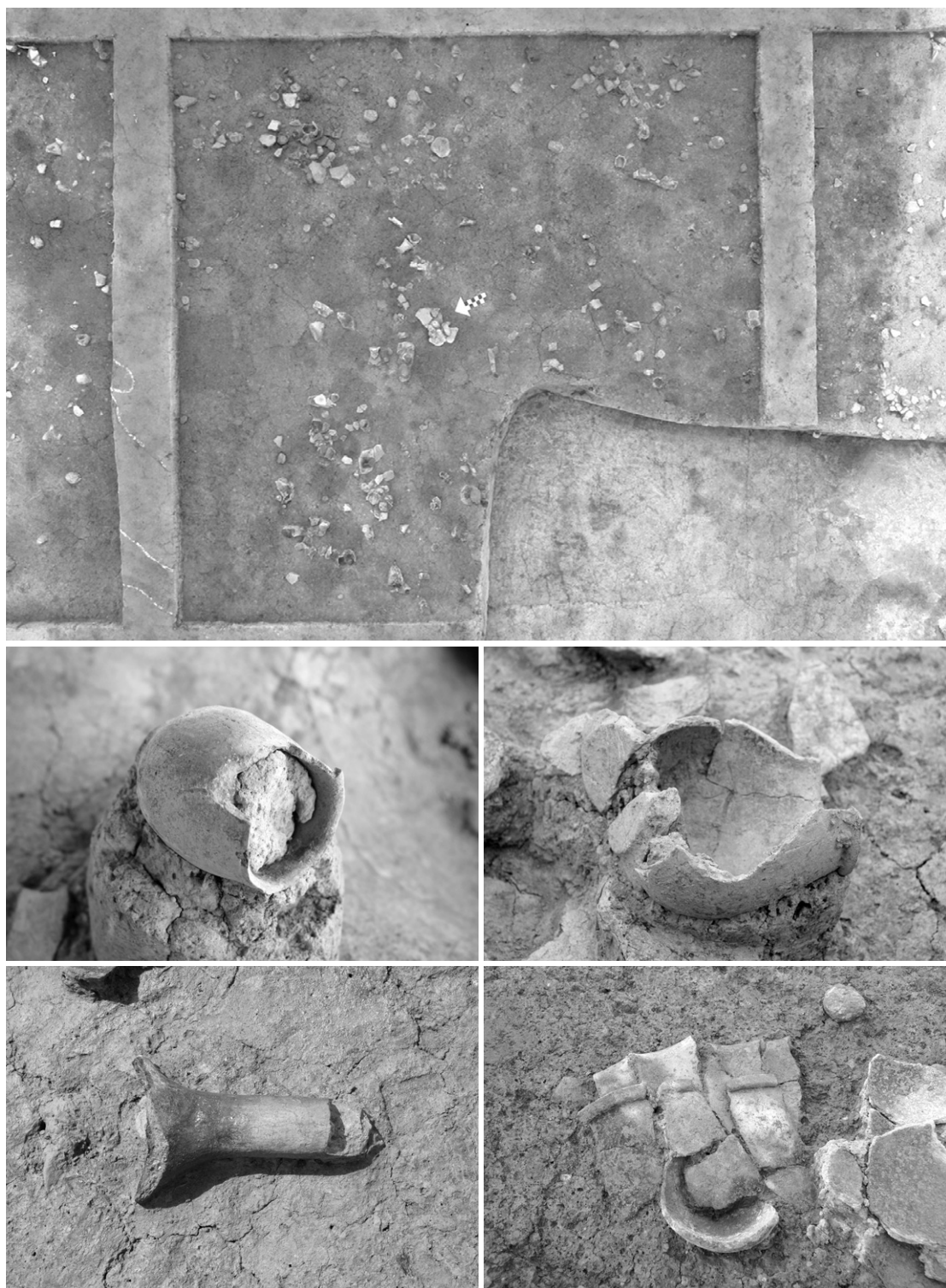
〈사진 2〉 유적 층위 (① I 구역, ② II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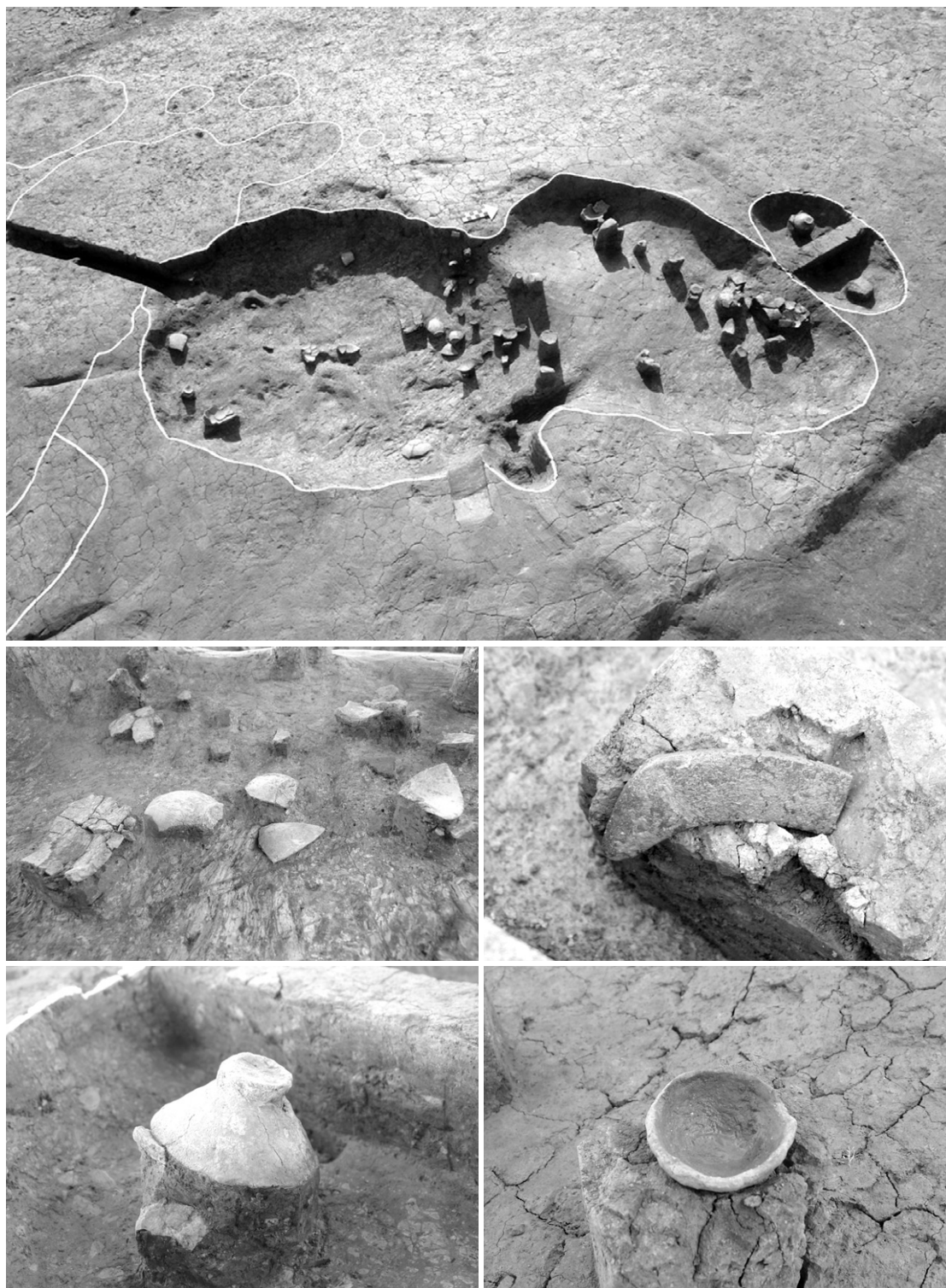
〈사진 3〉 I 구역 전경



- 3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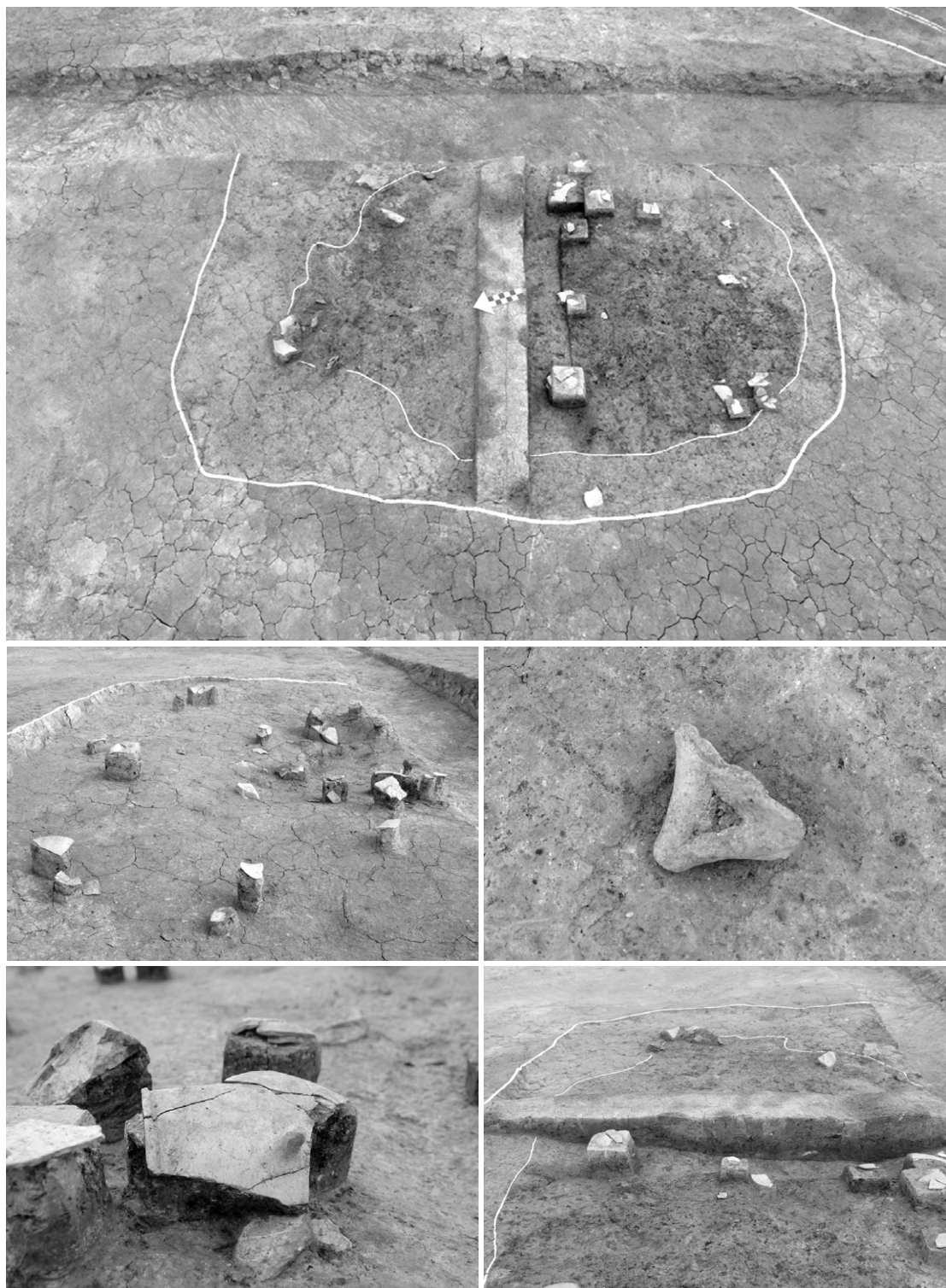
〈사진 5〉 초기철기시대 유물포함층 전경 및 유물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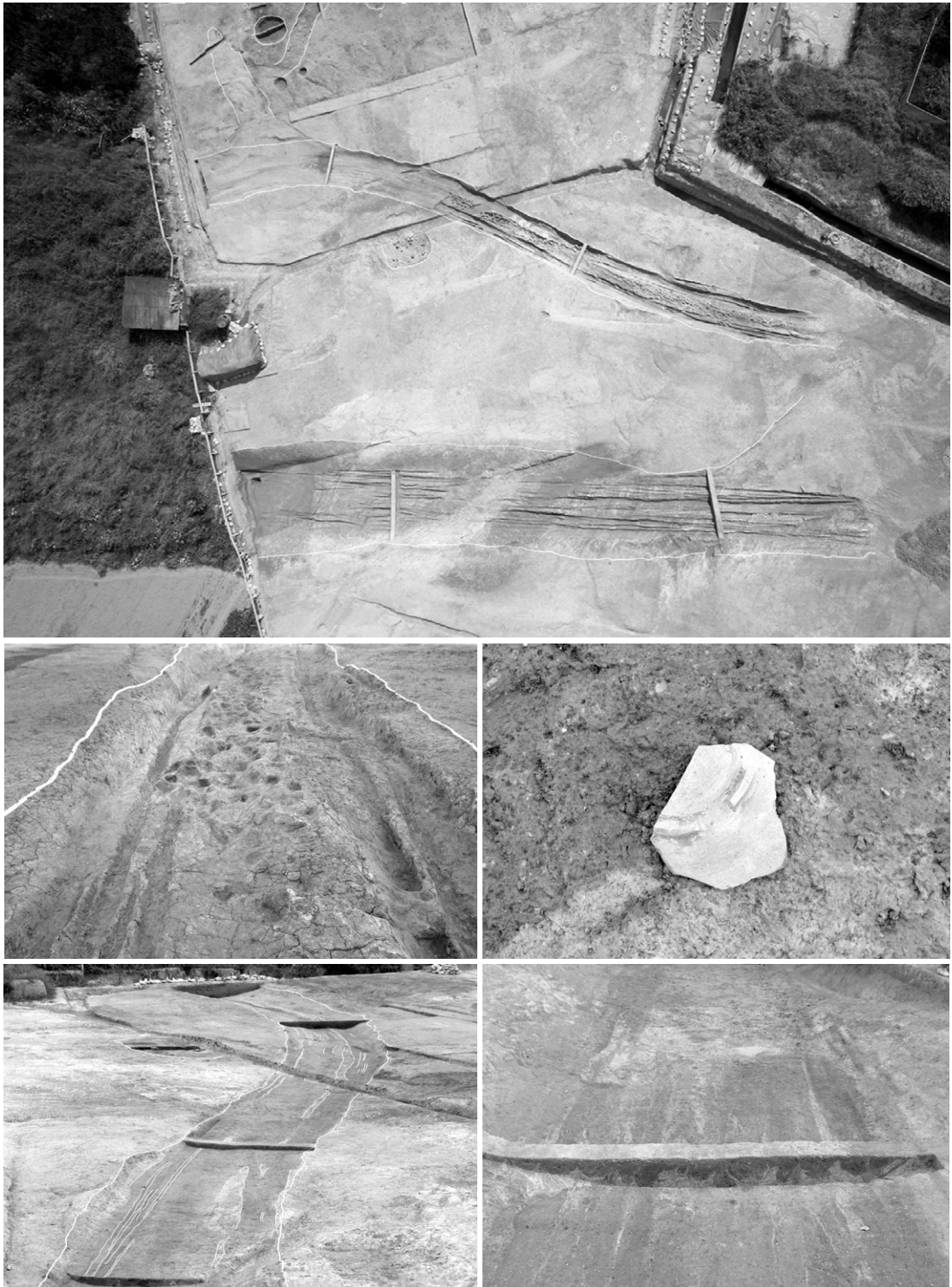
〈사진 6〉 초기철기시대 수혈 2호 전경 및 유물출토상태



〈사진 7〉 초기철기시대 구 전경 및 세부



〈사진 8〉 원삼국시대 수혈 11호 전경 및 세부



〈사진 9〉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전경 및 세부



〈사진 10〉Ⅱ 구역 전경 및 조선시대 건물지 전경 및 세부



〈사진 11〉 출토유물

『嶺南文化財研究』 총목차

嶺南文化財研究 第1輯(1995. 8)

〔遺蹟調査概報〕

고령 지산동 유물전시관부지내 발굴조사내용	金滢燮
고령 캐빈동 대가야타운부지내 발굴조사 개보	河眞鎬

嶺南文化財研究 第2輯(1995. 12)

〔遺蹟調査概報〕

浦項 玉城里 古墳群 發掘調査	韓道植
大邱 時至洞遺蹟 發掘調査 概報	金昌億
義城大里 3號墳 發掘調査 概報	朴貞花

嶺南文化財研究 第3輯(1996. 4)

〔論考〕

鐵製模型農工具의 檢討 -大伽倻地域을 中心으로 -	安順天
----------------------------	-----

〔遺蹟調査概報〕

慶山 林堂洞遺蹟 發掘調査 概報	장용석 · 권태용 · 유경원
宜寧 泉谷里 古墳群 發掘調査	金滢燮 · 朴相銀

嶺南文化財研究 第4輯(1996. 7)

〔論考〕

三國時代 우물 遺構에 대한 檢討(1)	金昌億
- 大邱 漆谷택지(2)遺蹟, 大邱 時至洞遺蹟 發掘例를 中心으로 -	

〔遺蹟調査概報〕

慶州市 舍羅里古墳群 發掘調査 概報	하진호 · 박정화 · 이재홍
大邱 時至洞遺蹟 發掘調査 概報(Ⅱ)	김창익 · 전종식 · 허정화
大邱 龍山遺蹟 發掘調査 概報	최재현 · 김상희 · 임미정

嶺南文化財研究 第5輯(1996. 10)

〔論考〕

慶山 林堂洞遺蹟 出土土器의 一研究	장용석
-2段透窓 有蓋高杯의 變化過程을 中心으로-	

〔遺蹟調査概報〕

慶山 林堂遺蹟 G地區 發掘調査概報	장용석 · 권태용 · 유경원
宜寧 泉谷里古墳群 發掘調査 概要	金滢燮 · 陳成燮 · 朴相銀 · 李建忠

嶺南文化財研究 第6輯(1997. 4)

〔論考〕

慶山 林堂 G-5·6호분의 성격에 대하여	장용석
출토유물의 보존과 관리방법(1)	최재현
-발굴조사현장에서-	

〔遺蹟調査概報〕

경산 임당유적 A-I·II 지구 발굴조사	김수남
義城 鶴尾里古墳 發掘調査 概報	金東淑

嶺南文化財研究 第7輯(1997. 11)

〔遺蹟調査概報〕

大邱 時至地區 古墳群 發掘調査	김창익 · 최봉인 · 박진 · 허정화 · 박상은
慶山 林堂 F-II 地區 周溝附建物址	권태용

〔其他〕

金屬遺物の 과학적 保存 · 復元처리	장경숙
-浦項 玉城里古墳群 출토 頸甲의 復元 및 保存 처리를 중심으로-	

嶺南文化財研究 第8輯(1998. 5)

〔論考〕

林堂土城에 대하여	李在興 · 金才喆
- 古代土城의 築造技法에 대한 약간의 검토 -	
大邱 八達洞 靑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	俞炳琿

〔遺蹟調査概報〕

昌原 盤溪洞 聚落遺蹟 調査豫報	崔憲燮
------------------------	-----

嶺南文化財研究 第9輯(1998. 12)

〔論考〕

대구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 대하여	진수정
三國時代 聚落의 立地에 관한 一 考察	張容碩

- 大邱・慶山地域을 中心으로 -

포항 옥성리고분군 출토 철기에 대한 금속학적 이해 장경숙

[遺蹟調査概報]

大邱市 漆谷 3地區 建物址遺蹟 發掘調査 概報 車順喆・許正和・朴達錫

嶺南文化財研究 第10輯(1999. 6)

[遺蹟調査概報]

永川 淸亭里遺蹟 發掘調査概報 金昌億・朴 珍

대구 동천동 유적 수리시설 발굴조사개보 권태용

西邊洞 古墳群 목곽묘 발굴조사 개보 윤온식

[其他]

목제유물의 보존(Ⅰ) 이효선

嶺南文化財研究 第11輯(1999. 12)

[論考]

豎穴住居址 조사방법론 I 유병록

[遺蹟調査概報]

金泉 帽岩洞古墳群 發掘調査 概報 陳城燮

고령 지산동 대가야역사관 신축부지 발굴조사 개보 정창희

嶺南文化財研究 第12輯(2000. 6)

[論考]

영남지방 목곽묘 출토 3C代 토기의 樣式과 地域性 尹溫植

「영남지방 목곽묘 출토 3C代 토기의 樣式과 地域性」에 대한 討論 李盛周

[遺蹟調査概報]

慶山 中山洞 土器窯址에 대한 檢討 최봉인・박상은

大邱 飛山洞 木槨墓 金大煥

大邱 佳川洞古墳群 發掘調査 概報 尹善姬・朴 珍

朝鮮時代의 社稷壇에 대하여 金昌億・朴達錫

嶺南文化財研究 第13輯(2000. 12)

[遺蹟調査概報]

達城郡 汶陽里 古墳群 發掘調査 概報 I 尹千洙・洪大雨

-석곽묘를 중심으로-

대구 西邊洞유적 발굴조사의 개요와 성과유병록 · 김병섭

〔其他〕

일본 埴輪의 기초적인 소개小栗明彦

고대 유리의 과학적 분석 연구金奎虎 · 安順天

-대구 팔달동 · 포항 옥성리 유적을 중심으로-

嶺南文化財研究 第14輯(2001. 6)

〔論考〕

목관계 목곽묘의 등장과 배경이재홍

人間活動の舞台としての上部 更新統 · 完新統趙哲濟

-大阪平野の考古遺跡を例にして-

〔遺蹟調査概報〕

蔚山 川上里 環濠聚落에 대하여하진호 · 김명희

金泉 帽岩洞遺蹟 發掘調査 概報권태용

-住居址를 中心으로-

嶺南文化財研究 第15輯(2002. 6)

〔論考〕

高塚古墳의 被葬者 性別에 대한 一 考察張容碩

-임당유적의 일례를 중심으로-

時至聚落遺蹟에 대한 약간의 檢討金才喆

〔遺蹟調査概報〕

達城 汶陽里古墳群 發掘調査 概報Ⅱ洪大雨

-封土墳을 中心으로-

清道 · 慶山地域의 先史遺蹟 소개朴 珍

- 최근의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

蔚山 中山里 聚落遺蹟에 대하여金玟愷

嶺南文化財研究 第16輯(2003. 12)

〔論考〕

達城 汶陽里古墳群의 編年에 대한 小考尹千洙

- 石槨墓를 中心으로 -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豎穴遺構의 用途에 대한 一考金成泰

경주 사라리 55호 중장판 판갑의 제작과정과 용도	崔在賢 · 金東允
〔遺蹟調査概報〕	
清道 陳羅里遺蹟의 支石墓에 대하여	朴達錫
達城 汶山里 II-M2號墳 調査概報	洪大雨
大邱-釜山間 高速道路區間內 大邱 佳川洞遺蹟 發掘調査	崔奉仁
- 木棺墓와 木槨墓를 中心으로 -	
達城 舌化里古墳群 發掘調査 概報	金允喜 · 鄭 玟

嶺南文化財研究 第17輯(2004.12)

〔論考〕

嶺南地域 磨製石鏃의 型式分類	李錫凡
嶺南地方 出土 4~6세기 鐵鏃의 형식분류	우병철
영남지역 출토 마주에 관한 연구	金美淑
大邱 佳川洞遺蹟 出土 金銅冠에 대한 一考察	張容碩
우물에 대한 祭儀와 그 意味	金昌億

〔研究노트〕

古代의 八角形建物에 보이는 2種의 平面形態에 대하여	李陽浩
-近年 알려진 集安丸都山城과 慶州蘿井의 例를 中心으로-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 II	유병록
-시기차가 있는 출토유물의 해석문제-	

〔遺蹟調査報告〕

大邱 新塘洞遺蹟 發掘調査	이재홍 · 신순철
대구 영신초 · 중 · 고등학교 이전예정부지내	
大邱 鳳舞洞古墳群 發掘調査 概報	金才喆
慶州 松仙里 靑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	이석범

〔資料紹介〕

구미 봉산리유적 삼가마을 통해 본 '삼무지'	유병록 · 정 민
--------------------------	-----------

嶺南文化財研究 第18輯(2005.12)

〔論考〕

南韓出土 鋸部多角形 鐵鏃에 대한 一考察	禹炳喆
建物址 出土 地鎮 · 鎮壇具의 檢討	金成泰

〔遺蹟調査報告〕

慶州 月山里遺蹟 調査報告	閔善禮
---------------	-----

大邱 鋤齊里 土器가마遺蹟 調査報告	申順澈
尙州 伏龍洞遺蹟 調査報告	朴達錫 · 權憲胤
慶州 芳內里 기와가마遺蹟 調査報告	洪大雨
〔資料紹介〕	
大邱 · 慶山地域의 古代 道路遺構 紹介	朴相銀

嶺南文化財研究 第19輯(2006.12)

〔論考〕

통일신라 수막새 접합기법의 검토	李元太
9~10世紀の韓日における陶磁器生産の展開	市川 創

〔資料紹介〕

月背扇狀地の 靑銅器時代遺蹟 分布様相 検討	尹千洙
大邱地域의 考古遺蹟 分布 分析	權憲胤

〔遺蹟調査報告〕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내 慶州 德泉里遺蹟 調査報告	李錫凡
-靑銅器 · 原三國時代를 中心으로-	
대구 봉무지방산업단지 제1단계 조성공사부지내 大邱 鳳舞洞遺蹟 調査報告	朴憲敏
- 도로유구 · 목탄요에 대하여	

嶺南文化財研究 第20輯(2007.12)

〔論考〕

〈유적소개〉 청도 진라리유적 개요	허정화
淸道 陳羅里 遺蹟의 聚落構造와 變遷	河眞鎬
淸道 陳羅里遺蹟 출토유물의 편년과 그 위치	유병록
淸도지역 지식묘의 공간적 특성과 상징성	민선례
-진라리유적을 중심으로-	

慶州地域 原三國時代 甕棺墓의 編年	李錫凡
경주지역 6~7세기 횡혈식석실분 구조에 대한 일고찰	李慧靜

〔資料紹介〕

5~6世紀 韓半島 南部地域 出土 日本列島系 鐵鍬	禹炳喆
〔遺蹟調査報告〕	

大邱 梅湖洞 1008番地遺蹟	우병철 · 이원태
-----------------------	-----------

高靈 池山里 44-1番地遺蹟	金成泰
대구 봉무동 외국인학교부지 내 유적 조사보고	朴相銀 · 崔永浩
達城 內里古墳群 調査報	權憲胤
慶州 芳內里古墳群 調査報告	朴 珍
칠곡 학하리유적	신순철

嶺南文化財研究 第21輯(2008.12)

[주제논문 : 영남지역의 목관묘]

영남지역 목관묘의 구조와 특징	정 민
-경산 신대리유적을 중심으로-	
대구 · 경북지역 목관묘 유적의 전개양상	이나영
辰韓地域 木棺墓 出土 靑銅器에 대하여	李陽洙
洛東江流域圈의 瓦質土器, 그리고 樂浪土器	정인성
「영남지역의 목관묘」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연구논문]

영남지방 고려~조선시대 瓦窯의 구조 분류	朴憲敏
------------------------------	-----

[유적조사보고]

경주 충효배수지 신축예정부지내	
慶州 忠孝洞 山156番地遺蹟 調査報告	이석범 · 박정욱
慶山 林堂洞 208-2番地遺蹟	우병철 외
칠곡 송림사 삼성각개축공사부지 내 유적	최한태

『嶺南文化財研究』 집필요령

1. (順序) 논문은 제목, 저자, 목차, 국문 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 요약의 순으로 구성하되 도면, 사진은 참고문헌의 뒤나 본문 중에 들어갈 수 있다.
2. (量) 논문의 길이는 200자 원고지 100장에서 200장 정도의 본문에다 논지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면, 사진, 표 등을 합쳐서 논집 인쇄 쪽수로 30쪽을 가능한 한 넘지 않도록 한다.
3. (文字)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며 상용어에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4. (要約文) 요약문은 국문과 영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국문 요약문은 표제 및 목차와 함께 논집의 한 쪽을 채울 만한 분량(200자 원고지 5-6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영문 요약문은 영문 제목, 영문 필명, 요약문으로 작성하되 논집의 한 쪽 분량(200자 원고지 8장)으로 한다.
 - 국문·영문 요약문 말미에 주제어(키워드) 3~5개를 작성한다.
5. (項目)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章)Ⅰ. … (項)1. … (目)1) … (細目)(1) …의 순서로 기재한다. 단 목차에는 이 중에서 두 번째 1. … 항까지를 기재하며 머리말(서론, 서언)과 맺음말(맺는말, 결론, 결어, 결론)도 章에 넣는다.

〈예〉

Ⅰ. 머리말 Ⅱ. 문제 제기 1. 연구의 현황 2. 문제 제기 …… Ⅶ. 맺음말로 작성
6. (原語) 학술용어, 인명 및 지명의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맨처음 나오는 단어에 한하여 국문 용어 뒤 ()안에 표기한다.
7. (引用文獻) 본문 중의 인용 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인용한 쪽수를 밝힐 수 있다.
 - 유적명을 열거하는 경우의 근거 보고서는 가능한 한 인용을 생략한다.
 - 인용문의 표기

(1) 단독 연구 : (홍길동 1998) (홍길동 1998, 213쪽) (홍길동 1998, 213-15쪽)
(Flannery 1995, 333쪽) (홍길동 1998a) (홍길동 1998b)

- (2) 2인 공동 연구 : (이몽룡 · 성춘향 1998) (이몽룡 · 성춘향 1998, 11쪽) (이몽룡 · 성춘향 1998, 11-16쪽) (Binford and Mumford 1968, 112쪽)
- (3) 3인 이상 공동 연구 : (이몽룡 외 1998) (이몽룡 외 1998, 102쪽) (이몽룡 외 1998, 102-116쪽) (Renfrew et al 1998, 222쪽)
- (4) 두 연구 이상 : (홍길동 1998, 111쪽; 이몽룡 1998)

〈인용문 구성 방식의 예〉

- (1) 홍길동(1970, 31쪽)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3쪽)은……, 홍길동(1998, 213-215쪽)은…….
- (2)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3쪽)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 1998, 213쪽).
- (3)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쪽)”. 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

8. (註) 본문 중의 인용 문헌 표시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 수 있는데, 관례에 따라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 번호를 매기고 각주의 내용은 가능한 한 간략히 기술한다.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본문과 같이 한다.

9. (參考文獻) 참고 문헌의 표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문헌, 일본어 · 중국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하되, 한국어 문헌, 일본어 · 중국어 문헌은 한글 자모 순으로 하고 서양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그리고 공동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
- 참고문헌의 표기 순서는 다음 예와 같이 저자, 연도, 「논문명」 『책명』 호수 (출판기관, 판수 등)의 순서로 한다. 단, 필자가 원하는 경우 출판지를 ()안에 첨가하고 쪽수를 맨 뒤에 덧붙일 수 있다.

- (1) 한국어 · 일본어 · 중국어 단행본의 경우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一志社; 제3판)
- (2) 한국어 · 일본어 · 중국어 논문의 경우 金元龍, 1952, 「慶州 九政里 出土 金石 併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1.
- (3) 서양어 단행본의 경우 Willey, G. R. and J. A. Sabloff, 1993, A History of American Archaeology(Freeman; 3rd ed.).
- (4) 서양어 논문인 경우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ford, eds.(Aldine).

(5)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논저는 1998a, 1998b 등으로 구분한다.

10. (圖面, 地圖, 寫眞, 表)

- 도면과 지도, 표 등은 <도 1> 또는 <그림 1>, <사진 1> <표 1> 등으로 구분하되, 그 제목을 다는 경우 그림과 사진은 하단에, 표는 상단에 표기하고 출전을 밝히는 경우는 그 뒤 ()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 도면은 흑색으로 제도함(tracing)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과 사진을 편집할 때는 그대로나 축소 게재하여 논집의 판형 본문 규격(가로 14cm, 세로 20cm)에 들어 맞도록 한다. 다른 도면을 복사하여 편집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이며 그때는 선명하게 인쇄될 수 있도록 가필 등을 한다. 단, 논집 한 쪽의 일부범위에 해당할 경우는 반드시 규격(가로cm×세로cm)을 표시한다.

11. (筆者所屬, 研究費出處) 필자의 소속은 논문 첫 쪽 각주 칸에다 표기하며, 연구비의 출처는 그 아래줄에 밝힌다.

12. 이 요령은 嶺南文化財研究 17(2004년 12월 16일 발간)부터 시행한다.

嶺南文化財研究 22

인쇄일 : 2009년 12월 12일

발행일 : 2009년 12월 16일

편집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발행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인쇄 : **서재문화사**(053)252-6445



嶺南文化財研究院

The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718-912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

전화: 054-971-8085 · 8086

전송: 054-971-8083 · 8090

E-Mail: ynmaster@ynicp.or.kr

홈페이지: <http://www.ynicp.or.kr>

